

아주신씨 문집 해제

아주신씨 종친회(鵝洲申氏 宗親會)

아주신씨 시조바로세우기 협의회

목 록

아주신씨 문집(鵝洲申氏 文集)

가헌집(可軒集) 신석호(申錫祐)	-----1
고송집 (孤松集) 신흥망(申弘望)	-----15
구암집(矩庵集) 신상하(申相夏)	-----27
난재문집(難齋文集) 신열도(申悅道)	-----38
농음유고(聾瘖遺稿) 신덕함(申德涵)	-----61
농헌문집(農軒文集) 신상직(申相稷)	-----80
도와집(陶窩集) 신정주(申鼎周)	-----83
만오집(晩悟集) 신달도(申達道)	-----88
만헌유고(晩軒遺稿) 신상열(申相烈)	-----109
사서제요도설(四書提要圖說) 신응태(申應泰)	-----111
성은선생일고(城隱先生逸稿) 신희 (申乞)	-----121
소행록(素行錄) 신정모(申正謨)	-----151
시남선생유고(市南先生遺稿) 신면주(申冕周)	-----155
오봉집(梧峯集) 신지제(申之悌)	-----164
용애집(龍崖集) 신응태(申應泰)	-----190
응암실적(鷹巖實蹟) 신지효(申之孝)	-----200
이치재집(二恥齋集) 신정모(申正模)	-----207
인재선생유집(忍齋先生遺集) 신채(申埰)	-----221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 신봉석(申鳳錫)	-----231
주정와유고(主靜窩遺稿) 신상헌(申相憲)	-----242
죽간집(竹澗集) 신천석(申天錫)	-----245
퇴간유고(退澗遺稿) 신염(申濂)	-----247
퇴운집(退雲集) 신학석(申學錫)	-----259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신우(申祐)	-----261
호계선생유집(虎溪先生遺集) 신적도(申適道)	-----269
회당선생문집(悔堂先生文集) 신원록(申元祿)	-----303
회병집(晦屏集) 신체인 (申體仁)	-----317

아주신씨 일기류(鵝洲申氏 日記類)

강도일록(江都日錄)	-----372
나재종선조일기(懶齋從先祖日記)	-----374
월영대기 대재회산(月影臺記 臺在檜ft)	-----376
유청량산록 재선성시(遊淸涼ft錄 宰宣城時)	-----378
장사일록(長沙日錄)	-----379
창의일록(倡義日錄)	-----381
황사일록(黃蛇日錄)	-----383

가헌집(可軒集)

조선후기 학자 신석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2년에 간행한 시문집.

분야 : 유교	유형 : 문헌
시대 : 조선	성격 : 시문집
편저자: 신석호	제작시기 : 1962 년
권수 : 3 권 2 책	간행자 : 신용호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정의

조선후기 학자 신석호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62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962년에 현손인 용호(龍鎬)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기윤(李基允)의 서문과 권말에 박증헌(朴曾憲), 그의 증손인 기능(基能), 현손인 용호 등의 발문이 있다.

서지사항

3 권 2 책. 석인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내용

『가헌집』은 조선 말기의 학자인 신석호(申錫祐)의 시문집이다. 신석호의 자는 덕문(德文), 호는 가헌(可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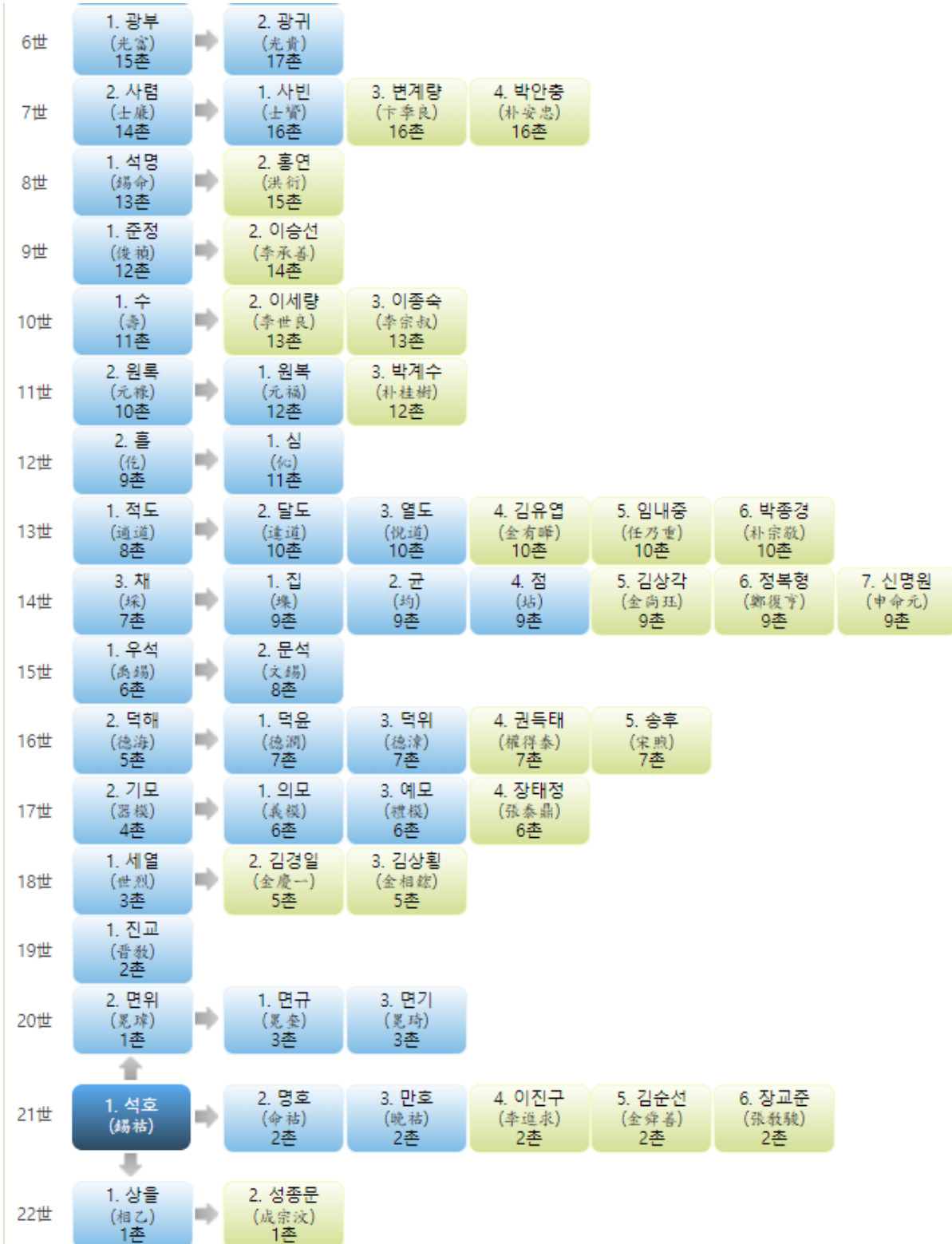
이 책은 1962년에 그의 현손인 용호(龍鎬)등이 편집, 간행하였고, 석인본이다. 권두에 이기윤(李基允)의 서문과 권말에 박증헌(朴曾憲), 그의 증손인 기능(基能), 현손인 용호 등의 발문이 있다. 부 3 편, 시 53 수 외 아래 목록에 제시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선우(李善雨)가 찬(撰)한 행장(行狀)에 의하면 이기윤은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후로 황조산(黃鳥山) 아래에 봉정(鳳亭)을 짓고 숨어 살았다. 대원군(大院君)이 영남 유람길에 찾아와서 만났는데 서로 의기가 맞아 시를 지어 이기윤에 게 주기도 하였다.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낙파상공(洛坡相公) 유후조(柳厚祚)를 호동사제(壺洞私第)로 찾았는데, 낙파공이 반겨주었으나 "이곳은 초야의 선비가 오래 있을 곳이 못된다"하여 이내 돌아왔다. 낙파공의 추천으로 경상도 연보전도유사(捐補錢都有司)가 되었으며 1876년(고종 13) 일본과의 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崔益鉉), 홍재학(洪在鶴), 황재현(黃載顯)과 함께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논하였다 한다.

「병자척왜소(丙子斥倭疏)」에서는 1876년(고종 13) 개화와 친일을 주장하는 박영효(朴泳孝)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잡저 가운데 「용학발문(庸學發問)」에서는 『중용』과 『대학』의 난해한 부분을 의문형식으로 문목을 만들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 「통도내교원각유소문(通道內校院各儒所文)」은 병인양요 때

경상도 각 향교와 서원에 보낸 통문으로서, 유학전통의 규범과 질서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에서 척사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삼정책(三政策)」은 1866년에 실시한 경시(慶試)의 책문이다.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전부(田賦)·군적(軍籍)·환곡(還穀)에 대한 당시의 폐단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당시의 국내정세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며, 또한 삼정법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신석호 / 申錫祐



이칭별칭

덕문 / 德文

가헌 / 可軒

분야 : 종교·철학/유학

유형 : 인물

시대 : 조선/조선 후기

1816 년(순조 16)~1881 년(고종 18). 조선 후기 유학자. 부친은 신면위이다.

신석호(申錫祐)의 자는 덕문(德文), 호는 가헌(可軒)이다. 일찍이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한 후로 황조산(黃鳥山) 아래에 봉정(鳳亭)을 짓고 숨어살았다. 대원군(大院君)이 영남 유람길에 찾아와서 의기가 서로 맞아 시를 지어 공에게 주기도 하였다. 1866 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공은 낙파상공(洛坡相公 柳厚祚)을 호동사제(壺洞私第)로 찾았으며 낙파공이 반겨주었으나 "이곳이 초야의 선비가 오래 있을 곳이 못된다." 하여 돌아왔다. 낙파공의 추천으로 경상도 연보전도유사(捐補錢都有司)가 되었으며 1876 년(고종 13) 일본과의 수호조약이 체결되자 최익현(崔益鉉), 홍재학(洪在鶴), 황재현(黃載顯)과 함께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논하였다 한다.

시문집으로 3 권의《가헌집》이 전하는데, 이기윤이 지은 서문과 박증헌 등이 지은 발문이 붙어 있다.

해제

본문
序

1958년 星山人 李基允이 쓴 서문이다. 훌륭한 용모를 가지고 시와 예를 아는 가문에서 태어난 저자가 修身 및 學問을 갈고 닦았으나 문장교유는 일삼지 않았고, 柳厚祚. 金道和. 崔益鉉 등의 당대명사들과 가려 사귀었으며, 대원군도 그에게 國士로서의 역할을 기대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저술한 바는 많지 않아서 흩어져 있는 것을 겨우 모아 2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 「庸學發問」에서는 학문의 깊음을 알았고, 「三政策」에서는 가슴에 품은 웅대한 뜻을 알았으며, 「丙子斥倭疏」에 이르러서는 報國의 충성스러움을 보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들을 어찌 책으로 엮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 후손 基能. 龍祐. 永大 3인의 칭으로 글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

卷一

元亨利貞賦 (1)

周易 天道의 4가지 덕인 元亨利貞의 오묘한 이치를 노래한 부이다.

聞韶樓賦 (1)

문소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부이다. 문소루는 경상북도 의성군 구봉산에 있는 누각이다. 원래 위치는 의성

관아 뒤편에 있었고, 관리들의 향연장소로 쓰였다.

五百餘年而後得韓愈賦 (2)

공자 · 맹자의 유교 정통의 학문을 이은 당나라 문인 한유(768~824)를 칭송하는 부이다.

詩 (3)

讀大學感吟-十三歲作-戊子, 牧丹, 雨中次唐人韻-二首, 漢江舟中作-丙申, 金剛山, 贈姜判書-蘭馨-張縣監-福遠, 漁磯, 觀漲, 秋水, 月下聞鶴, 松琴, 泉, 雨中移菊, 瀑布, 立冬, 敬次太祖大王遊白雲臺韻, 景德王陵懷古, 對酒, 次王昌齡韻, 次杜牧之韻, 次儲光義韻, 次王維韻, 塘蓮, 敬次冶隱吉先生韻, 秋夜約友人登酒樓, 賀友人筮仕, 漢亭與金大輿-哲根-共吟, 與金敬立-義裕-共吟, 贈金啓明-炳善, 奉呈大院君閣下, 丁丑以譜事往公山歸路有感而作, 輓族祖九軒公-駟教, 大院君遊嶺時自洛東來訪鳳亭共吟-附大院君詩, 壺洞席上吟示諸賢-丙寅洋騷時, 贈崔-益鉉-洪-在鶴-黃-載顯-諸公-附崔勉庵-益鉉-詩-二首, 虎溪先祖延贈爵時感吟, 輓族叔市南公-冕周, 謹呈洛波柳相公-厚祚-二首, 輓定齋柳丈-致明, 輓茶泉司空進士-穩, 乙丑秋南隱司空-皞-共吟, 偶吟, 晚春過鳥嶺, 洛中吟, 題鳳亭, 題鳳麓書堂, 癸丑日早與邑倅祈雨祭于金鶴龍穴, 洛中歸路謹呈鈍庵李丈, 陶山書院謁廟有感而作, 和族姪-仁植-晚守堂韻-二首, 採薇歌

丙子斥倭疏 (12)

1876년 강화도에서 맺은 조일수호조약에 대해 저자와 동지 崔益鉉(1833~1906) · 洪在鶴(1848~1881) · 黃載顯(1848~1903) 등과 비분강개한 뜻을 갖고, 친일파 박규수(1807~1876) 일당을 종묘사직을 저버린 흉당들 이라고 비판하며 이들 매국 간당들을 벌하고, 나라를 편안히 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문이다.

上定齋柳丈 (14)

柳致明(1777~1861)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이전에 그가 벼슬을 권했는데 고사한 후 수 개월이 지난 지금 몸 편히 잘 지내고 있음을 말하고, 그 명을 받들었다면 이는 곧 죄가 되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말미에 禮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보낸다 하고 글을 맺었다. 그 질문들은 전하지 않는다는 부가 설명이 마지막에 나온다.

上洛坡柳相公 (15)

柳厚祚(1798~1876) 집안의 경사를 축하하고, 만나서 회포를 풀자는 편지글이다.

答洛坡柳相公 (15)

가르침에 대해 감사하고, 류후조의 뛰어난 학식에 감탄하는 한편, 나라는 어지러운데 나신의 힘은 미약함을 탄식하는 답장이다.

上韓相公-啓源 (16)

1867년 韓啓源(1814~1882)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전날 어사 朴宣疇가 政院事를 개혁한다고 했는데, 과연 실행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附韓相公書 (16)

한계원의 답장이다. 일에 성의를 다하면 생각이 움직일 것이라고 하고 있다.

上外舅金公-得熙 (16)

장인 金德熙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살펴야 할 일을 미처 다 살피지 못 했다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있다.

上內舅李公 (17)

외숙 이공에게 쓴 편지글로, 조카들의 안부를 묻는 한편 외조부의 제사에 마땅히 직접 가는 것이 작은 정성을 보이는 것이지만, 집안 사정으로 가지 못 하여 죄송하다는 내용이다.

上內舅李公 (17)

역시 외숙 이공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매번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나 열심히 따르지 못 하는 자신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저번 외조부의 제사는 여러 아우들이 잘 받들어서 다행이라고 하고 있다. 이번 백부님의 緇禮에도 직접 가야 하나 그러지 못 하고 대신할 사람을 보내 돕게 한 것을 죄스럽게 여기는 내용이다.

上盧公-周燁 (18)

1834년 고모부인 노주엽에게 쓴 편지글이다. 항상 가르침을 받는데 자신의 고질병인 게으름을 두려워할 뿐이며, 자주 뵈지 못 함을 안타까워 하고 있다.

上茶庵三從叔-冕儉 (18)

1844년 셋째 종숙 申冕儉에게 보낸 편지글이다. 상경했던 셋째 조카가 돌아옴에 안부를 전하고, 자주 만나지는 못 하나 가문을 돈독히 하는 풍속으로서 후손은 조상의 공덕을 잊지 말고 잘 모셔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上母夫人 (19)

저자가 집을 멀리 떠나 있을 때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던 편지이다. 자주 연락하지 못 함을 죄송스러워 하면서 다음 달에 틈을 봐 돌아갈 계획이라며 끝맺고 있다.

與金拓庵-道和 (19)

어지러운 나라 상황에서 애쓰고 있는 金道和(1825~1912)의 충성스러움을 칭찬하는 편지글이다. 김도화는

후에 을미사변 및 단발령에 항거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與金拓庵 (19)

한가로이 요양하고 있는 자신은 이미 늙어 아무 것도 하지 못 함을 탄식하면서 김도화의 自愛保重을 당부하는 편지글이다.

與金持平-羲裕 (20)

김희유에게 人事의 시작은 봄부터이니 함께 술을 마시면서 봄을 맞이하자고 청하는 내용이다.

與柳溪堂-疇睦 (20)

1856년 柳疇睦(1813~1872)에게 쓴 편지글이다. 오랫동안 이행되지 못 했던 丹邱書院의 營建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되어서 族弟 漢宗으로 하여금 門을 만들게 했으니 이를 百世의 信筆로 삼자고 건의하고 있다.

答柳溪堂 (20)

류주목에게 정사의 고단함을 위로하며 한 번 방문해주길 바라는 편지글이다.

與李肯庵-敦禹 (21)

1857년 李敦禹(1807~1884)에게 쓴 편지글이다. 저자의 선조인 虎溪·懶齋·忍齋 3인을 사당에 배향하는 일이 숙종·영조대부터 있어왔으나 지금까지 거행되지 못 하다가 작년에야 결정이 났음을 밝히고, 享祝文 및 奉安文 2편을 써 달라고 청하는 내용이다.

與李肯庵 (21)

이돈우의 글솜씨를 칭찬하는 편지글이다.

與李肯庵 (21)

이돈우에게 자신의 한가로움을 전하고, 함께 자연풍광을 즐기면서 시를 읊고 노닐 것을 청하는 편지글이다.

答泮中李-用基-金-濟寅-外諸君子 (22)

1867년 여러 유림들이 저자의 조상 호계 선생의 贈爵을 축하하는 시를 지어줬던 것을 감사하는 편지글이다.

答族弟源祐 (22)

아우 원호에게 쓴 편지글이다. 茶庵 從叔과 九軒 族祖가 방문하여 상의했는데, 先院을 세우는 일이 어려운 와중에 다행히 이루어졌으니 이를 주변에 전하여 정확히 보이라는 내용이다.

答金-養熹 (22)

金養熹에게 쓴 답장이다. 저자가 병이 들어 왕래가 끊어진지 오래임을 유감스러워 하면서 人馬를 보내 그가 왕복하는 날짜를 계산하여 준비시킬 것이니 놀라지 말 것을 전하고 있다.

答李某 (23)

1853년에 쓴 답장이다. 뜻밖의 편지에 감사해 하면서, 사양하는 뜻을 보여도 군자를 돕는 것이 道이므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1斛(약 10말)의 곡식으로 여러 날 저녁밥을 공급하니 허물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與朴侯-最壽 (23)

1870년 의성 현감을 지냈던 朴最壽에게 쓴 편지글이다. 술자리를 마련했으니 와 달라는 내용이다.

與李侯鼎民 (23)

李鼎民(1800~?)에게 쓴 편지글이다. 정월 대보름에 동지 여럿과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며 즐기니 태평성세 같았다며 그에게도 저자의 집으로 와줄 것을 청하고 있다.

與徐侯-珽輔 (24)

徐珽輔에게 쓴 편지글로, 봄놀이 갈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答成東甫-震運 (24)

成震運에게 쓴 답장이다. 저자가 서울에 다녀온 일에 대해 건강을 염려해줘서 감사하며, 저자 부부가 모두 조만간 한 번 뵙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與雲里李公-羲在 (24)

1864년 李羲在에게 쓴, 새해인사를 하는 안부편지이다.

與雲里李公 (25)

저자는 두 가문의 우의가 얽게나마 누대 내려왔는데, 지금 또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고, 며느리가 돌아오는 날이 매우 화창하여 하늘도 새 사람의 인덕을 인정하는 듯 하다며 가문의 경사를 축하하고 있다.

與李籠軒-進求 (25)

1846년 李進求에게 쓴 편지글이다. 자신의 학문수양이 불민함을 탓하고, 이진구의 고명한 식견을 듣고 깨닫는 바가 많았다는 내용이다.

與張樂安-教駿 (26)

낙안 군수 張教駿에게 쓴 편지글이다. 시집보낸 여동생의 예의범절이 부족하니 천천히 가르쳐 달라는 내용이다.

與成壻-宗汶 (26)

成宗汶에게 쓴 편지글이다. 젊을 때 부지런히 학문을 갈고 닦아 후회가 없게 하라는 내용이다.

寄家兒相乙 (26)

1863년 아들 相乙에게 쓴 편지이다. 멀리 떠나 있는 아들에게 힘든 점은 없는 지 안부를 묻는 한편, 항상 스승과 벗의 가르침을 힘써 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다.

卷二

庸學發問 (1)

『중용』·『대학』에 대한 저자의 견해와 의문점을 기록한 글이다. 『중용』에서는 知覺·性·心의 관계, 주자의 庸에 대한 생각과 程子の 그것의 비교, 理와 氣의 순서, 德·情·行의 분별, 중용의 목차 순서 등에 대한 의문이 나열되어 있고, 『대학』에서는 明德의 의미, 正心과 中庸의 차이, 「平天下」장에 結語가 없는 이유 등에 대한 의문 및 문장 곳곳에 闕文이나 衍文이 생겨난 이유까지 세세한 의문을 표하고 있다.

三政策 (6)

조선이 건국된 이래 잘 시행되어 오던 전정·군정·환곡의 삼정이 세도정치 이래로 무너진 것을 통탄하며 그 문란을 시정할 대책을 상소한 글이다. 전정은 옛날의 井田制를 시행하면서 농토를 기반으로 마을의 장정 무리를 둘로 나누어 교대로 군대에 가도록 하고, 군정에 대해서는 군적의 엄정한 기재를 강조하고 있다. 환곡의 폐단에 대해서는 고리대 관행을 바로잡아 적절한 이자를 받도록 건의하고 있다.

羅溪書院三先生事蹟 (16)

나계서원에 배향된 洛濱 李壻·舞溪 朴敏樹(1501~1557)·柳村 朴從男(1558~1620)의 사적을 설명하는 글이다. 이언은 세종대 인물로, 남원·전주에서 선정을 베풀어 생사당 및 초상이 만들어지고 해마다 제사를 받았으며, 은퇴 후 낙빈에 은거하여 학문에 힘썼다고 한다. 박민수에 대해서는 효성이 지극하여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굴하지 않고 살려줄 것을 호소하여 그 효성에 감복한 호랑이가 귀갓길을 지켜줬다고 하며, 시묘살이도 극진히 하여 후에 효로써 공조참의에 제수되었다고 한다. 박종남은 박민수의 후손이고, 무예에 뛰어나 임진왜란·정유재란 시 광재우와 함께 활약하여 그 공으로 벼슬을 제수 받았지만, 염증을 느끼고 귀향하여 학생을 가르치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丹邱書院營建顛末 (18)

저자의 선조 虎溪·晚悟·懶齋 3인을 서원에 배향하기까지의 전말을 기록한 글이다. 숙종~영조 시기에 건의됐으나 성과가 없다가 순조 때 고향 사람들과 적극 논의하여 셋째 종숙 다암도 힘쓰고 저자에게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아우 원호도 도왔으나 진척되지 않다가 헌종 병오년(1846) 부친 사망 후 명을 받들어 동분 서주한 지 21년, 철종 병진년(1856) 여러 친인척 및 고향 유림들이 모여 의논하여 나재의 유허지인 丹邱에 서원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배향은 호계·나재·인재 3인만 하기로 하고, 만오 공은 제외되어 유감이라는 내용이다.

梅堂先生文集重刊顛末 (19)

저자의 선조 회당 선생은 남명 조식 학파에서 학문을 갈고 닦았고, 효행으로 이름이 나 『속삼강록』에 실리기도 했다며 그의 이력을 설명하고, 문집의 최초 간행자는 5대손 晚香齋, 手撰은 山圖, 跋文은 二恥齋가, 年譜 識文은 저자가 맡았다고 되어 있다.

丙寅斥洋丙子斥倭後事實 (20)

선조 호계 선생의 贈爵 일로 서울에 와서 한계원, 류후조 등의 同鄉을 만난 후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병인양요·강화도 조약 등 어지러운 시국을 논한 일을 기록한 글이다.

眉叟先生影閣倡建時通文-代永溪儒生作 (21)

眉叟 許穆(1595~1682)의 영각을 짓는 일에 주변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럿이 모여 성의를 다 할 것을 촉구하는 통문이다.

額院毀掇時通鄉內士林文-代永溪儒生作 (21)

서원의 현판을 없애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하면서 근처 유림들에게 모여서 부당함을 논하자는 통문이다. 대원군이 강행한 서원철폐에 대한 내용인 듯하다.

額院毀掇時通道內校院文-代永溪儒生作 (22)

위에 언급한 서원철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경상도의 모든 유생들에게 모이라는 통문이다.

通道內各校院文-丙寅洋擾時 (23)

병인양요 발발로 인한 시국의 어지러움을 통탄하고, 영남 유생 모두 충의를 다지면서 힘을 합치자는 통문이다.

沂川祠立享時通鄉士林文 (24)

단종대의 충신 杳亭 권선생의 사당을 기천에 세우게 됐으니 모두 모여 기념하자는 통문이다.

沂川祠立享時通道內士林文-代本鄉儒生作 (25)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경상도 모든 유생들에게 모일 것을 알리고 있다.

丹邱書院享時通道內士林文-代本鄉儒生作 (25)

앞서 언급했던 저자의 선조 호계·나재·인재 3인을 서원에 배향하게 됐음을 알리고, 영남 유생들에게 함께 의례를 행할 것을 알리는 통문이다.

東洛書院晚梅張公追享時答通文-代丹邱儒生作 (27)

평소 뛰어난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난 晚梅 장공이 생전에 창건한 서원에 추모·배향됨에 대해 저자의 선조인 나재도 생전에 이 서원을 많이 도왔던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 자신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밝히는 답문이다.

勸坊縣講學回文 (28)

인간된 도리를 다 하기 위한 학문을 갈고 닦으려면 강학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저자가 거하는 지역에서 강학회를 여니 여러 선배들이 와서 후배들을 가르쳐 달라는 글이다.

通東洛書院文-代永溪儒生作 (29)

저자의 조상인 나재 선생이 예전에 동낙서원 봉안문을 지은 적이 있는데, 이 서원에 속한 蔡栢浦 공의 遺集에 이 글이 실려 있으니 교정해서 다시 찍을 것을 요구하는 통문이다.

通東洛書院文-代藏待儒生作 (30)

내용은 위와 같고, 장대서원 유생들을 대신해서 저자가 쓴 것이다.

通東洛書院文-代懶齋先生本鄉作 (31)

내용은 위와 같고, 저자가 나재 선생의 후손을 대신해서 썼다.

答蔡氏門中 (33)

채백포공 문집에 실린 글이 저자의 선조 나재가 쓴 것이라는 증거가 자신에게 있으므로 잘못 실린 것이 확실하다며 의혹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通邑龜兩派文 (34)

저자의 가문의 貫鄉 및 시조 분파 사적이 일관되어 있지 않음을 한심하게 여기며, 고려 중엽부터의 가문 내력을 설명하는 글이다. 여말선초의 선조가 두문동에 은거한 까닭으로 가문의 내력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음을 밝히고, 조선 후기에 구파·읍파로 나누어진 내력 등을 밝히면서 자신의 가문에 대해 명문거족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三一齋重建顛末 (36)

저자의 마을에 있는 삼일재는 그의 조상 회당이 창건하여 지금껏 강학 장소로 쓰였는데, 수백여 년이 지난 지금 지탱할 수 없게 되어 훈장인 저자가 무신년(1848) 봄 중건을 건의, 다음 해 기유년(1849) 9월 완공되었다는 내용이다.

禮 故曰儒-以下科製, 易 天地感而萬物化生, 易 積善之家必有餘慶, 禮 視於無形聽於無聲, 詩 如日之升, 書 惟民生厚, 禮 君子有終身之喪, 禮 聲音之道與政通, 禮 祭祀不言凶

이 글들은 저자가 『예기』·『주역』·『시경』·『서경』의 경전에서 몇몇 구절을 발취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의문점 등을 표시한 것들이다.

卷三

從高祖二恥齋公復職告由文 (1)

종고조가 세상을 잘못 만나 억울하게 화를 입었으나, 지금 다행히 그 원한이 풀리고 복직하게 되었음을 고하는 글이다.

金鶴龍穴祈雨祭文 (2)

금학의 용혈이 가물어서 백성들이 고초를 겪으므로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글이다.

祭叔父文, 祭從弟致休-永祐-文 (2)

숙부와 종제 영호의 죽음을 각각 애도하는 제문이다.

義城教坊廳上梁文 (3)

화재로 불탄 의성 교방청을 다시 지으면서 올린 상량문이다.

鳳亭上梁文 (5)

저자가 지은 봉정에 대한 상량문이다. 주변 친지들과 함께 즐겨 노닐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九代祖城隱府君墓誌 (7)

저자의 9대조 申乞의 묘지이다. 품성은 효성스럽고, 형을 잘 모셨으며, 독서를 좋아하고, 게으르지 않아 道를 구하려는 뜻이 있었다. 임진왜란 때 형 倡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고, 좌승지로 추증됐다. 부인은 숙부인 순천 박씨라는 내용이다.

伯祖靜隱公墓誌 (9)

저자의 10대조 懷堂 선생의 형인 申元福의 묘지이다. 신원복이 아플 때, 회당 선생이 간병하고, 약초를 캐왔던 일, 두 형제가 모두 효자여서 '난형난제'라 칭해졌던 일, 그것이 『삼강행실도』에 실렸던 일, 형제가 상의하여 서원을 세웠던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부인은 興陽 李氏이다.

高王考衿溪府君行錄 (11)

저자의 고조 申器模의 행록이다. 시조 및 신기모의 고조부터의 조상 내력을 언급한 후, 어려서부터 사리에 밝았고 학문 탐구에 열중했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 하여 주변 사람들이 애석해 했다는 것, 이후 성리학 연구에 힘쓰고 효도를 다하여 후손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 이인좌의 난 때에는 의병 활동을 했음을 말하고 있다. 부인은 信州 鄭氏이고, 1남 2녀를 두었다.

先考韶隱府君行略 (13)

저자의 부친 申冕璋의 행록이다. 조상 내력부터 시작하여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詩·禮·忠·孝의 학문을 혼자서 깨우쳤고, 비록 과거 급제는 못 했으나 효도, 형제간 우애 및 가문화합에 힘썼다고 하고 있다. 부인은 延安 李氏이고, 3남 3녀를 두었다. 부친이 겨우 45세에 세상을 떠났음을 애도하고 있다. 마지막에 부친이 생전에 이루려 했던 서원 창건, 조상 배향, 遺稿의 문집 발간 중 문집 발간 외에는 저자가 실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三從叔茶庵公行錄 (15)

셋째 종숙 申冕儉의 행록이다. 조상 내력을 나열한 후, 그의 골격이 나면서부터 비범했고, 학문이 뛰어나서 '연소하나奇才'라는 칭찬을 들었으며, 효성도 지극하여 모든 윤리에 돈독하였다. 자식이 없어 저자의 從弟 正祐를 양자로 들여 후사로 삼았음을 밝히고, 철종대 단구서원을 지을 때 재물을 내어 종친들의 모범이 되었음을 칭송하고 있다. 부인은 潘南 朴氏이고, 1남 1녀를 두었다.

附錄/輓詞 (17)

저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로서, 金道和·李敦禹·柳疇睦·李羲在·金養憲·金弼洛·申桂東·族姪 仁植·金慶善·金健輝·金燾·李進求·金絢輝·金縉輝·金璣銖·族祖 滌教·具曾喜·具孟喜·朴奇寅·族弟 漢宗·朴胤鉉·族祖 正教·族祖 受教·洪靖佑·申重遠·朴海根·族姪 相憲·四從姪 敦植·李魯宇·任學洙·申周遠·申纘祐가 차례로 참여하였다.

附錄/祭文 (25)

저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문이다. 대원군이 청나라로 끌려갈 때 인편으로 보내온 글부터 시작되어 金道和·李羲在·朴崇祖·李進求·金在玖·洪在謙·司空嶽·從子 相夏·族姪 相憲·姪壻 金絢輝·四從姪 敦植·任學洙·族姪 圭植·金顯相·甥姪 李道性·婦姪 金漢鎮·外孫 成勳鎮·甥姪 金壽挺·季弟 晚祐·族弟 源祐

· 族姪 相衡 · 四從弟 斗祐 · 從姪 敏植이 차례로 썼다.

附錄/墓祭文 (50)

저자의 묘에 제사를 올리며 쓴 글이다. 義城邑倅 · 李斗綱이 차례로 썼다.

附錄/交遊文 (51)

저자와 교유했던 인물들의 목록이다. 성명 · 자 · 호 · 인품 · 교유내력 등이 나열되어 있다. 목록에 올라있는 이름으로, 위의 輓詞 및 祭文을 써준 인물들을 포함하여 57인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의 아들 相乙이 정리했고, 申冕鉉이 글을 덧붙였다.

附錄/遺事 (63)

저자의 조상내력 및 생애와 주요 행적을 연대순으로 정리한 유사이다. 從子 相夏가 지었다. 저자는 어려서 부터 하는 일이 사리에 맞았고,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유학을 숭상하고 선조 받들기를 우선했으며, 벼슬 구하기를 즐기지 않았다. 주변 친지들과의 우애도 돈독했고, 옳지 못 한 것을 보면 반드시 가르쳐 바로 잡았기에 노복들이 감히 얼굴을 들어 바라보지 못 했다. 이에 따르는 이가 많았다. 을묘년(1855) 鳳亭을 지었을 때 마침 대원군이 영남을 방문하여 저자와 시를 주고받으며 즐겁게 지내고 후일을 기약했다. 이후 선조를 배향하기 위해 단구서원을 지은 일, 회당 선생이 지었던 삼일재를 고친 일, 선조의 문집 발간 및 벼슬 추증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 병인양요 시 여러 문인들과 시국을 염려하고, 강화도 조약 체결 시 최익현 · 홍재학 · 황재현 등과 함께 반대상소를 올렸던 일 등이 언급되어 있다.

附錄/行狀 (69)

저자의 행장이다. 遺事와 내용은 비슷하다. 무술년(1898) 李善雨가 지었다.

附錄/墓表 (73)

李章濩가 지은 저자의 묘표이다. 내용은 유사 및 행장과 비슷하다.

附錄/墓誌銘 (76)

1899. 朴世煥(미상)이 썼다.

附錄/墓碣銘 (79)

1894. 權相圭(1874~1961)가 썼다.

附錄/豎碣時告由文 (81)

1956. 증손자 基鳳이 저자의 묘비를 세우면서 쓴 글이다. 세월은 가고 사람은 잊혀 졌는데, 이제 선조의 묘비를 세우게 되어 감개무량한 심정을 담고 있다.

附錄/跋 (82)

1962. 朴魯憲 · 증손 基能 · 玄孫 龍祐 3인이 썼다. 저자의 높은 덕 · 학문 · 업적 등을 칭송한 후 그의 遺稿 약간을 모아 늦게라도 문집으로 발간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며 마지막에 글을 보탠다는 내용이다.

고송집 (孤松集) 신흥망 (申弘望)

가계도

15世 흥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신흥망(申弘望)

항목 ID	GC05200848
한자	申弘望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600년 - 신흥망 출생
활동 시기/일시	1639년 - 신흥망 별시 문과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52년 - 신흥망 평안도 벽동으로 유배
활동 시기/일시	1652년 - 신흥망 해배
활동 시기/일시	1659년 - 신흥망 풍기 군수에 임명
몰년 시기/일시	1673년 - 신흥망 사망
추모 시기/일시	1691년 - 신흥망의 거처에 낙선당 건립
추모 시기/일시	1984년 - 신흥망 유허비 건립
거주 이주지	신흥망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묘소 단소	신흥망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유허비	신흥망 유허비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승문원 판교(承文院 判校)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字)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신응규(申應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흥망(申弘望)이며, 아버지는 승지 신지제(申之梯)이고, 어머니는 함안 조씨(咸安 趙氏)로, 조지(趙址)의 딸이며, 부인은 영천 이씨(永川 李氏) 이민환(李民奐)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흥망(申弘望)[1600~1673]은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급제한 뒤, 강릉 참봉(康陵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39년(인조 17) 별시 문과 병과(丙科)에 급제하여 1645년 승문원 주서(承文院 注書)가 되었으나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하였다. 1646년 전적(典籍). 병조 좌랑(兵曹 佐郎). 정언(正言), 1647년(인조 25) 예조 좌랑(禮曹 佐郎). 전주 판관(全州 判官)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이때 도승지 이시매(李時樸)가 자못 패만(悖慢)한 것을 지평 이온발(李溫發)이 상주(上奏)하다가 탄핵을 당하였다. 이 때 이시매는 자기의 밝음을 선현을 이끌어 증명하려 하였다. 신흥망은 이를 듣고 직접 그 소(疏)를 보니 실로 모욕적이어서 이를 단독으로 왕에게 진달하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당론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당에 호당(護黨)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달 뒤 풀려났다. 1656년 울산 부사(蔚山 府使), 1659년에는 풍기 군수(豊基 郡守)로 나아갈 때 수령들이 잇달아 관청에서 죽으며 흉흉한 소문이 일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요망스러운 말을 없앨 수 없다”라고 말하며 부임하였다 한다. 수령이 된 뒤에는 교육을 장려하는 데 힘썼으며 가난한 선비를 도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1664년(현종 5) 강원도 도사(江原道 都事), 사예(司藝)를 두루 지냈다 이후 여러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거의 나아가지 않았다. 말년에는 주로 고향인 의성의 거처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 3권 2책의 『고송집(孤松集)』이 전해진다. 『고송집』은 신흥망의 증손인 신진구(申震龜)가 1739년(영조 15)에 간행하였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에 1984년 후손들 주도로 건립된 고송 신 선생 유허비(孤松申先生 遺墟碑)가 있다

[참고문헌]

『고송집(孤松集)』

『인조 실록(仁祖實錄)』

『효종 실록(孝宗實錄)』

『의성의 전통』(의성 문화원, 1982)

『아주 신씨 참판공 파보』(대보사, 1985)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장필기, 「조선 후기 의성 아주 신씨가의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의성 아주 신씨 읍파·구파의 고문서 검토를 중심으로」(『한국 사학회』88, 2007)

장사일록 (長沙日錄)

『장사일록(長沙日錄)』은 신흥망(申弘望 ; 1600~1673)이 이시매(李時樸)를 모함했다는 일로 인하여 평해(平海)로 귀향을 가게 된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임진년(1652년) 9월 당시 지평으로 있던 그는 이시매의 사직상소에 성현을 모욕하는 말을 썼다고 판단하여 이시매를 체직하라는 상소를 올리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리하여 신흥망을 두둔하는 쪽과 이시매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린 정국은 결국 신흥망이 남을 비방했다는 죄가 더 크게 인정되어 11월 3일 평해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신흥망은 11월 18일 평해에 도착한지 1주일 만에 해배(解配)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장사일록』은 이러한 사건발생의 모든 과정과 유배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기록한 날짜는 12월 21로 되어 있으며, 후손들에게 자신의 일을 알리기 위해 기록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 자신의 호가 곡정(鵲汀)·죽창(竹窓)이었다가 다시 고송(孤松)으로 바꾸었음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부분에는 손자 친구가 쓴 행장이 부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행장은 신흥망의 문집인 『고송선생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이 쓴 행장만이 실려져 있다.

문집의 객관성을 지니기 위해서 조부의 문집을 편집하면서 자신의 행장은 일부러 빼듯하다. 신흥망의 자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본관은 아주(鵝州)이다. 1639년 별시문과에 급제, 주서(注書)를 거쳐 1646년 정언이 되었고, 이어 사헌부에 재직중 도승지 이시매(李時樸)의 탄핵으로 벽동(碧潼)에 유배되었다. 1652년 지평이 되었을 때 호당(護黨)의 죄로 인하여 평해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1659년 풍기군수가 되었다.

서지정보

원서명	孤松集						
현대어서명	고송집						
청구기호	古 3428-367						
편저자(한자)	申弘望(朝鮮) 著,申震龜(朝鮮) 編	판본사항	木版本	간행지	[刊地未詳]	책권수	3卷, 附錄 2卷, 合 2冊
편저자(한글)	신홍망(조선) 저;신진구(조선) 편	간행연도	[英祖 15年(1739)]	간행자	[刊者未詳]	책크기	28.7×18.7cm
匡郭	四周雙邊, 半葉匡郭:17.8×13.5cm, 有界, 10行 18字			版心	內向三葉花紋魚尾(不定)	표기문자	
表紙,版心,卷頭書名	表題:孤松集, 版心題:孤松集, 卷首題:孤松集						
序,跋,卷首,卷末	序:上之十五年(1739)...李光庭, 跋:上之十五年(1739)...權相一						
表題紙,內題紙				附	上卷: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松申先生行狀(李光庭撰), 墓誌銘(權相一撰), 下卷:詩(送完山半刺赴任所(金應祖 作) 等 4首), 祭文(柳元之 等 2篇), 輓詞(柳元之 等 10篇), 樂善堂銘, 文集後識(申震龜 識) 等		
藏書記,內賜記							
刊記							
자료소개	17世紀 학자 申弘望(1600-1673)의 詩文集						
목차	卷 1.詩(檜山逢寒食 等 108首), 卷 2.詩(赴召命到漢江間遞即回程 等 132首), 卷 3.疏(陳情乞省疏 等 2篇), 祭文(祭旅軒張先生文 等 7篇), 附錄:上卷: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松申先生行狀(李光庭撰), 墓誌銘(權相一撰), 附錄:下卷:詩(送完山半刺赴任所(金應祖 作) 等 4首), 祭文(柳元之 等 2篇), 輓詞(柳元之 等 10篇), 樂善堂銘, 文集後識(申震龜 識) 等						
합철							
소장본							
인記	東厓, 仲綏, 金履萬, 鶴鳴齋						
四부분류	集部 別集類 一般			기타			
M/F 번호	M/F85-16-70-C						

문집해설

서명	孤松集	저자	申弘望 著, 申震龜 편
현대어서명	고송집	간행년대	1739년(영조 15).
청구기호	古 3428-367		
책수	3 권 부록 2 권 합 2 책	판본	목판본(후쇄) 사이즈 29.8×18.5cm.

17세기 학자 申弘望(1600-1673)의 시문집이다. 申弘望의 자는 望久, 호는 孤松, 본관은 鵝洲, 承旨 申之梯의 아들이다.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1639년(인조 1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지평·정언·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사헌부지평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도승지 李時樸의 행동에 대한 是非를 가리는 과정에서, 黨論의 타파에 힘쓰지 못할망정 오히려 護黨한다는 탄핵을 받고 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 달 뒤에 풀려났다. 1659년(효종 10) 풍기군수로 임명되었는데, 당시 풍기군에서는 부임하는 사람마다 연달아 관청에서 죽는 변고가 일어났다. 따라서 관료들 사이에서 풍기군수로의 부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申弘望은 전혀 개의치 않고 부임하여 학교를 일으키고 교육에 힘썼다. <<孤松集>>은 본집 3권에 부록 上下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1에는 詩 108수(檜山逢寒食 외), 권2에는 詩 132수(赴召命到漢江間遞卽回程 외), 권3에는 疏 2편(陳情乞省疏 외), 祭文 7편(祭旅軒張先生文 외), 부록 상권에는 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松申先生行狀(李光庭 撰), 墓誌銘1편(權相一 撰), 부록 하권에는 詩 4수(送完山半刺赴任所-金應祖 作 외), 祭文 2편(柳元之 외), 輓詞 10편(柳元之 외), 銘 1편(樂善堂銘), 文集後識(申震龜 識) 등이 수록되어 있다. 申弘望의 증손 申震龜가 지은 跋文에 따르면, 李孤山선생이 申震龜에게 증조부의 유고를 煙歿시키지 말 것을 충고하여, 유고 가운데 전할만한 것을 抄選해 두고 李先生으로부터 서문을 받아 간행하려 했다. 그러나 李先生이 갑자기 운명하여 문집 간행이 연기되고, 유고는 40여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다. 노년에 이른 申震龜는 문집을 간행하지 못한 채 죽게 될 것을 염려하여 간행을 재추진하였는데, 曾祖父의 유고를 들고 李光庭을 찾아가서 訛謬된 부분을 수정받고 서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孤松集>> 2책을 간행하였다. 문집에는 간행시기를 '己未年' 혹은 '上之十五年'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어느 王代에 간행한 것인지 불분명하나, 申弘望의 사망(1673년) 이후 己未년으로 왕의 재위기간이 15년에 해당하는 시기는 1739년(영조 15) 뿐이다. 따라서 <<孤松集>>은 173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웅섭)

문집개요	
문집명	고송집 (孤松集)(17c)
간략서지	古 3428-367 孤松 申弘望의 문집. 5 권 2 책.
간략해제	1739 년(영조 15) 曾孫 申震龜가 간행한 것이다. 저자가 죽은 직후에 그의 문하에 드나들었던 李惟禱(1624-1701)의 발의로 遺文 중에서 글을 가려 문집을 간행하려 하였으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1737 년(영조 13) 경부터 曾孫 申震龜의 발의로 후손들이 뜻을 모아, 영남지역의 山林이었던 訥隱 李光庭(1674-1756)이 序文과 行狀을 쓰고 淸臺 權相一(1679-1759)이 墓碣銘과 跋文을 쓴 후, 후손인 申致雲이 글씨를 써서 판각 하여 문집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 1 권과 2 권은 모두 시인데, 신흥망의 시는 靈物風景學文 등을 주제로하면서 순후하고 청고한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권에는 陳情乞省疏, 本縣弊瘼疏 등 疏 2 편과 張顯光, 李廷幾 등에 대한 祭文 7 편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 제 1 권에는 李光庭이 쓴 저자의 行狀과 權相一이 쓴 墓碣銘이, 제 2 권에는 저자가 全州判官으로 부임할 때 黃金應祖, 申悅道, 李元圭가 그를 위해 써준 글의 序文 4 편, 柳元之, 李之煜이 쓴 저자에 대한 祭文 2 편, 柳元之, 金啓光, 羅以俊, 南天漢, 柳世哲, 柳世翊, 金燧, 李玄逸, 李惟禱, 李惟禱이 쓴 저자에 대한 輓詞 9 수, 李惟禱이 쓴 樂善堂銘과 그 서문, 曾孫 申震龜가 쓴 文集後識가 수록되어 있다.

저자소개	
편저자	신흥망 (申弘望)
저자개요	1600-1673 (선조 33-현종 14)字: 望久, 號: 孤松, 本貫: 鵝州, 父: 之悌, 母: 咸安 趙氏
저자내용	1627 년(인조 5) 進士試에 합격하고, 1638 년(인조 16) 천거로 康陵 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39 년 別科에 합격하였으며, 1644 년(인조 22) 承政院 注書 兼 春秋館 記事官에 제수되었으나, 얼마 후 노모의 병을 이유로 낙향하였고, 곧이어 체직되었다. 1646 년 典籍, 兵曹 佐郎, 司諫院 正言, 禮曹 佐郎를 거쳐 1647 년(인조 25) 全州 判官에 부임하였다. 1650 년(효종 1) 母夫人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을 마친 후 곧 司憲府 持平에 제수되었다. 이때 持平 李溫發이 都承旨 李時樸를 탄핵하자 이시매는 疏를 올려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하였는데, 신흥망은 그 소의 내용이 선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 일로 그는 자기 당파를 비호한다고 지목되어 碧潼郡에 유배될 뻔하였으나 正言 鄭斗卿(1597-1673)의 변론으로 平海에 中途付處되었고, 곧 사면되었다. 1656 년부터 1658 년까지는 蔚山府使에 재직하였는데, 이 곳에 그를 기리는 淸德碑가 세워졌다. 1659 년부터는 수년 동안 풍기군수로 재직하였다. 그후 강원도 都事, 成均館 司藝, 宗簿寺 正 兼 春秋館 編修官, 承文院 判校 등에 제수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1673 년(현종 14) 정월에 세상을 떠났는데, 묘소는 義城縣 下川 黑石리로 정해졌다. 그의 학통과 교우관계를 보면 旅軒 張顯光의 문하에 드나들었으며, 李廷幾, 黃, 金應祖, 申悅道, 李元圭 등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는 咸安 조씨인 趙址의 딸이었고, 부인은 永川 이씨인 李民寅(1573-1649)의 딸이다.

내용개요	
------	--

내용제목 孤松集 내용 개요

청구기호 古 3428-367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李光庭(1674-1756)이 지은 孤松集의 序이다. 저자의 부친인 梧峯 申之悌(1562-1624)는 父祖의 업을 이은 濟美한 이었는데, 저자도 역시 그 전철을 이어 '能子'라고 이를 수 있다고 평가하고, 孤山 李惟章이 저자의 글 중에서 후세에 전할 만한 것을 가려 두었는데, 저자의 증손인 震龜가 필자에게 申之悌의 문집인 <<梧翁集>>과 아울러 序文을 써 줄 것을 부탁하여 자신이 行狀과 序文을 쓰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다.

권제 권제목:卷一

詩

檜山逢寒食-在檜山衙中作詩年十六歲(1615), 二, 三, 謹次槐山舅氏-趙公亨道號東溪-韻, 輓槐山舅氏, 輓敬亭李公-民晟, 庭畔百日紅盛開因寓感戀之懷, 次趙壽翁-松年-韻, 二, 間趙壽翁往立巖謁旅軒-張先生顯光-迴吟寄一絕, 苦雨, 二, 簡李子慎-廷機號漫翁, 次申君澤-濡-韻, 二, 趙壽翁置酒邀近地諸伴會飲罷後申君澤賦長律一首遍寄諸伴求和遂次其韻-按此二詩, 丙子兵亂後作(1648), 二, 次趙壽翁諸伴聯句韻-時余置酒邀諸伴會飲, 疊前韻謝諸伴, 送金司書中表兄貫之-宗一-赴瀋陽, 重陽日有懷, 往在癸亥年先君養病于鷹齋至今十有五年而孤兒又避痘來寓于此徘徊追慕向之林亭溪谷杖屨所及之地宛然如昨齋房四壁墨跡黝然雖不可明謹認其手筆之猶存摩挲嗚咽自不能已齋門外有小池先君所嘗修鑿種蓮逍遙之處而今池廢蓮絕反爲牛馬所踐踏此亦豈非與人事變遷者歟感舊之餘情見乎詩(1637), 二, 大雪入夜不止凡坐寒齋心神悄然因賦之, 二, 雪後寒甚獨坐口占, 夜坐有懷, 余少日從事學業耳有自修之志至今年迫四十學日退而業未進終不免爲鄉谷腐儒之歸白首紛如之歎自爾而至且男兒生世縱不能致君澤民庶幾立揚當時上效涓埃之補下爲父母之榮初豈無期佇於心者而崎嶇場屋虛過半生蹉跎潦倒已無及焉則古人所謂富貴吾所自有者其亦誤矣然而若以得失亂吾方寸而不知窮達之有命亦非吾之所自期也寒齋歲暮風雨淒然掩卷長歎忽忽有魚鳥湖山之思因援筆遣懷, 夢見金司書覺後有懷, 二, 憶未兒, 輓柳浩然, 輓申密陽汝涉-楫號河陰, 寄子慎-時子慎在霞峴, 無題輓-代人作, 輓丹丘孫上舍-胤業, 輓趙進士內從兄-咸英, 歲時病未省墓悽感述懷, 立春述懷, 次水山李生-老一-草堂石門韻, 早朝過鳥嶺, 次驪江巖寺韓相韻, 述懷, 二, 喜雨, 九月十二日酒席敬次仲父韻, 二, 三, 四, 階菊政妍咸而賦之, 贈別徐明府-貞履.時移拜清風郡, 次子慎鳶魚亭韻, 二, 次沈幼清-徵-酬唱韻, 二, 又次幼清韻寄示, 時幼清在邑中, 七月初二日天宇開霽星月交映苦雨之餘胸襟爽然, 次冶隱韻遣興, 二, 三, 次豚兒觀漲韻, 秋居漫興, 二, 三, 四, 次幼清次巖明府-鼎耆-韻來示仍和其韻, 又次幼清韻, 秋夕偶書, 秋夜偶吟, 家人告燈油乏絕明松堂上男讀書女執工各其職也士女當以勤儉爲本因賦以勉之, 次子慎投贈韻, 留別李立卿-廷相-兄弟, 次杜詩絕句贈立卿兄弟, 二, 簡內從兄趙子有-咸一, 次杜詩秋興八首-月課題, 二, 三, 四, 五, 六, 七, 八, 重陽日感懷, 次子慎鳶魚亭韻, 二, 送申君澤之日本, 二, 暮春, 惜春, 篋中有亡友金謙可-然-詩篇披閱數回拭淚而書,

今年春不雨夏多潦農事失時西成無望歎傷之懷形於詞
 庭畔有百日花樹雙幹挺立去冬寒甚花樹盡枯今年新叢茂盛開花可愛
 次李德輝臺巖會韻 二, 次巖明府, 次李德輝韻
 沈幼清來傳巖明府重陽會酬唱韻因和之, 又次公堂酬唱韻, 次鄭金兩友酬唱韻
 次尹元賓-以觀-軒亭韻 二, 三, 次子慎韻題元賓草堂 二, 三, 輓申汝遠-志道

권제

권제목:卷二

詩

赴召命到漢江間遞即回程-甲申五月以注書陳疏歸省親癸酉正月上降旨特召(1645),
 竹山道中偶吟, 早過龍安坪, 路逢白足細語金剛形勝, 奉呈巖明府行軒, 二, 客中述懷-
 時寓在齋舍, 見懷, 松林, 雨後偶吟,
 三月十九日姊喪發還故山時余寓在齋舍不得哭送其日曉登山麓瞻望一慟而迴拭淚書
 懷, 二, 漫興, 憶草堂, 二, 聞杜鵑, 春望, 新緣, 題亡友林汝平-以準-草堂,
 送子慎觀月城-按紫巖公時爲府尹, 二, 三, 輓南士鎮, 宿永順村舍, 途中有感,
 滯雨水橋, 次赤羅宰金汝明臺巖酬唱韻, 又次酬唱韻, 輓沈府使-按此在全州時作,
 竹筍-與沈金兩生酬唱, 逆旅中與金述初鄭慶餘諸伴會飲, 次金次酬唱韻-
 金乃主倅弟也(沈), 二(沈), 三(金), 四(金),
 壬辰十月夢竄命將向碧潼到水山留別權季明-以亮(1592), 二, 在平海配所謹次季父韻
 追次李上舍翼世韻寄贈, 次浩然亭韻-亭在平海越松浦黃君湜家亭也,
 次李立卿葦湖里亭韻, 二, 次眞城養眞堂韻呈李子和-守誠,
 前冬余蒙恩譴路過花山鄭仲則-忖-
 追送到府城南聯枕而宿仍以別語贈行李翼之間而和寄二絕追次其韻呈仲則益之兩友,
 二, 東子慎時慎在洛陽, 輓李懷仁汝廓-弘祚, 次臥雲居士鄭仲則韻, 二, 次水落臺韻-
 按水落臺在安東甘泉水石奇勝辛丑九月鶴沙金公拙齋柳公木齋洪公與一時諸賢約會
 臺上相酬唱時公任基川送酒助歡仍和其韻, 輓申君-垓, 輓金經歷德以-震遠,
 次南塘酬唱韻, 二, 三, 輓護軍舅氏-趙公遵道, 輓南僉使大哉-海宇, 輓李君姬老,
 次沈幼清韻贈李子慎-按李公三代守忠州, 輓李上舍士明-重炫, 次李立卿漁梁韻, 二,
 申君垓卜居於新堤湖邊前年春過其居草堂瀟灑景趣可愛壁上有次久玉-玖-
 短律諸人多和之仍次其韻, 二, 輓成江界汝習-以性, 輓李君景栢, 輓李君景樟,
 詠盆上紅梅, 二, 三, 輓李君廷望, 李方伯尙眞歷訪而去中路見寄仍次其韻,
 輓鄭參奉仲則, 二, 次丁上舍君獻-瑜-韻-
 聞君獻作乞糧行中路阻雨徑還余以穀斗教其窮, 二, 戀盆梅, 贈別申方叔-塿-謫行, 二,
 輓丁上舍君獻, 次子慎韻, 又次子慎韻, 二, 次子慎鳶魚亭韻, 二, 三, 四, 疊前韻,
 次景贊亭韻-亭在佳音里, 次趙顯甫-咸世-五宜軒韻, 冰院口號-時鄉中老友多會, 二,
 三, 洗心亭口號-亭在水院溪邊, 鳶魚亭酬唱韻-
 吾鄉老友皆來會張君聖源亦不期而至時流頭也, 疊次前韻以謝主人, 二, 三, 四,
 輓季舅氏趙公東道, 贈沙塢金稚玉-尙琦, 二, 三, 次稚玉首尾體韻, 二, 三,
 再次首尾體韻, 二, 又, 二, 輓金君時省, 輓南君海容, 次申方叔盆梅韻-時方叔蒙赦還
 輓鶴沙金丈-應祖, 輓洪君是榮, 輓南大受-海準, 樂善堂成後偶吟, 二, 三, 四,
 持寶寺酬唱韻, 輓朴寶城-宗杓, 輓柳善久, 次洛臯堂韻-
 按洛臯堂即故正李公爾松江亭也

권제	권제목:卷三
陳情乞省疏 (1)	1644. 저자의 고향인 경상도 의성현에 계시는 홀어머니가 82 세로 병이 드셨으나 자신이 모시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말하고, 承政院 注書職의 遞職을 청하는 글이다.
本縣弊瘼疏 (1)	의성현감을 대신하여 지은 소로 본현의 두가지 폐단을 시정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이다. 첫째는 1616 년(광해군 8)에 姜濬이 敬差官이 되었을 때, 의성현의 年分 중에서 下之上과 下之中을 勒定한 것이 많았는데, 이것이 舊習이 되어 명분에 없는 田稅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下之上과 下之中의 結數를 줄여 줄 것을 청하는 것이다. 둘째는 조정에서 兩班家の 奴子를 조사하여 束伍軍에 充定하려고 하자 私賤들이 모두 도망하려고 하는 형편인데, 의성현은 특히 속오군의 物故가 많아 그 수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읍의 대소를 따라 충정할 속오군의 수를 정해 줄 것을 청하는 것이다.
祭旅軒張先生文 (8)	1638(?). 저자의 스승인 旅軒 張顯光(1554-1637)을 추모하며 쓴 제문이다. 선생의 道學을 깊이 흠모하였던 후학들이 그의 죽음에 임하여 느꼈던 비통함을 서술하였다.
祭朴上舍仲宣文 (9)	族兄 朴僞의 2 주기에 추모하며 쓴 제문이다. 저자의 선친인 申之梯는 일찍 부친을 여의고 외가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朴僞은 그의 外從兄으로서 특히 가까이 지냈던 인물이며, 저자보다는 열 한 살 손위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함께 交遊하였던 추억과 저자의 부친이 병들어 돌아가실 때 그 수발을 함께 하였던 誠意 등을 되새기며 그를 추모하는 내용이다.
祭姊兄李上舍文 (12)	저자의 매형인 眞城 李氏 李擧의 2 주기에 추모하며 쓴 제문이다.
祭尹君元賓文 (14)	친구인 尹以觀을 위해 쓴 제문이다. 저자는 그와 30 년간 교유하였는데, 그가 때를 만나지 못하여 크게 쓰이지 못하였던 것과 단명함을 애도하였다.
祭護軍舅氏文 (15)	저자의 외숙인 趙邊道를 위해 쓴 제문이다. 아름다운 덕과 품행이 남달랐음을 추모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점을 안타까와 하는 내용이다.
祭柳甥時彥文 (16)	사위인 柳重河의 葬禮에 임하여 죽음을 애도하며 쓴 제문이다. 저자의 집안에 장가든 후 30 년동안 한 번도 失行한 적이 없었으니, 유독 사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親愛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으로 그의 인품을 칭송하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無病하고, 아내가 다행히 살아 있어 아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사람은 죽기 마련이라는 점을 들어 亡者를 위로하는 내용이다.
祭李子愼文 (17)	李廷機의 장례에 임하여 죽음을 애도하며 쓴 제문이다. 그의 뛰어난 자질을 찬탄하고 벼슬살이에서의 浮沈과 갑작스러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권제	권제목:附錄上
通訓大夫行司諫院正言孤 1738. 訥隱 李光庭이 지은 신흥망의 행장이다. 저자의 가계와 官歷 등을	

松申先生行狀 (附錄上 1) 자세히 소개하고, 그가 벼슬에 나아가기 전부터 명망이 자자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를 君子로 여겼다는 것,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直함을 서슴치 않았으며,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남달리 청렴했다는 것, 제사를 받들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 성심을 다하였다는 것, 친척 중에 가난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사람이나 상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힘껏 도와 주었다는 것, 집 앞의 작은 언덕에 있던 소나무를 보고 스스로 호를 '孤松'으로 짓고, 집 곁에 당을 지어 '樂善堂'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손들에게 善을 행할 것을 가르쳤다는 것, 그의 스승인 旅軒 張顯光이 '克世其家者'라고 평가하였다는 것 등의 내용을 통해 그의 인물됨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저자가 평소에 선친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墓碣銘을 구하는 것을 구차하다고 여겨 자손들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는 世系와 官次만을 적어 비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글을 구하지 못하도록하여 후손들이 그의 말을 따라 비를 세웠다는 것과 저자의 증손인 震龜의 부탁과 후세의 師範이 되는 저자의 언행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의 문집을 撰하게 되었다는 등 문집 간행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墓碣銘 (附錄上 10) 1739. 前 司憲府 掌令 權相一(1679-1759)이 撰한 墓碣銘과 그 서문이다. 신흥망의 官歷을 서술하고, 신흥망이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야 급제한 것을 가슴 아파했던 일, 모친이 별세한 후에 자신이 이미 노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묘에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았고, 家廟를 배알할 때나 제사를 지낼 때에 늘 勤愼하였다는 점, 자손들에게 禮法을 잘 가르쳐, 후손들이 친척이나 鄉隣을 대할 때 곡진하였고, 고아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욱 선행을 베풀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고, 신흥망이 그 才器에 비하여 벼슬이 높이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뒤에 신흥망의 가계와 후손에 대하여 약술하고, 신흥망의 증손인 震龜와 李光庭의 청으로 墓碣銘을 쓰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다. 끝에 墓碣銘이 수록되어 있다.

권제	권제목:附錄下
送完山半刺赴任所 (附錄下 1)	1647. 저자가 全州 判官으로 부임할 때 鶴沙 金應祖(1587-1667)가 저자를 위해 쓴 시와 서문이다. 서문은 저자가 乞郡한 것은 85세 되신 노모를 봉양하고자 하는 孝에서 나온 것이고, 또 전주는 저자의 부친이 府尹을 지낸 곳으로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선정을 베푸는 것은 부모에 대한 孝일뿐만 아니라 곧 임금에 대한 忠이 된다는 내용이다.
送申正言之任全州判官序 (附錄下 2)	1647. 저자가 全州 判官으로 부임할 때 漫浪 黃가 저자를 위해 쓴 시의 서문이다. 집안이 대대로 業儒에 힘써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도 이에 있으며, 또 전주는 선친이 부윤으로 계시던 곳이니 이 곳에서 선정을 베푸는 것이 또는 어머니의 바람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送申望久通判完山序 (附錄下 4)	1647. 저자가 全州 判官으로 부임할 때 懶齋 申悅道(1589-1647)가 저자를 위해 지은 글의 서문이다. 저자가 어머니의 봉양에 급급하여 전주 판관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해 주변의 知人들은 애석하게 여기지만 오히려 저자는

	이를 기쁘게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孝誠에서 나온 것이며, 또 선친의 뜻을 이어 선정을 베풀고자 하니 전주에 孝道の 教化가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다.
送申望久通判完山序 (附錄下 5)	1647. 저자가 全州 判官으로 부임할 때 鋤谷 李元圭가 저자를 위해 지은 시와 그 서문이다. 저자가 전주판관을 자청한 것은 단지 자신의 영예를 구하거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자신의 道를 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祭文 (附錄下 6)	柳元之, 李之燧이 저자를 위해 쓴 제문 2 편이다.
輓詞 (附錄下 9)	柳元之, 金啓光, 羅以俊, 南天漢, 柳世哲, 柳世翊, 金燧, 李玄逸, 李惟禔, 李惟禕이 쓴 저자에 대한 만사 9 수이다.
樂善堂銘 (附錄下 12)	저자가 지은 樂善堂을 그의 손자인 國模가 개수한 후에 저자의 문인이기도 하였던 孤山 李惟禔(1624-1701)이 지은 銘과 그 서문이다.
文集後識 (附錄下 13)	1739(?) 저자의 曾孫인 申震龜가 쓴 <<孤松集>>의 後識이다. 일찍이 孤山 李惟禔(1624-1701)이 발의하여 문집을 간행하려 하였으나 갑자기 죽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1737 년(영조 13) 경에 형제들이 다시 뜻을 모아 문집 간행을 준비하여 1739 년(영조 15) 이광정을 뽑고 誤字를 바로잡고 族姪인 申致雲에게 글씨를 써서 판각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서술하고, 遺集이 많지만 힘이 모자라 그 일부만을 싣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을 적고 있다.
孤松先生文集跋 (跋 1)	1739. 淸臺 權相—(1679-1759)이 쓴 跋文이다. 저자의 성품과 품행을 기리고, 그가 벼슬길에서는 뜻을 펴지 못하여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불행이었는데, 향리에서 世教를 베풀어 오히려 百世의 다행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박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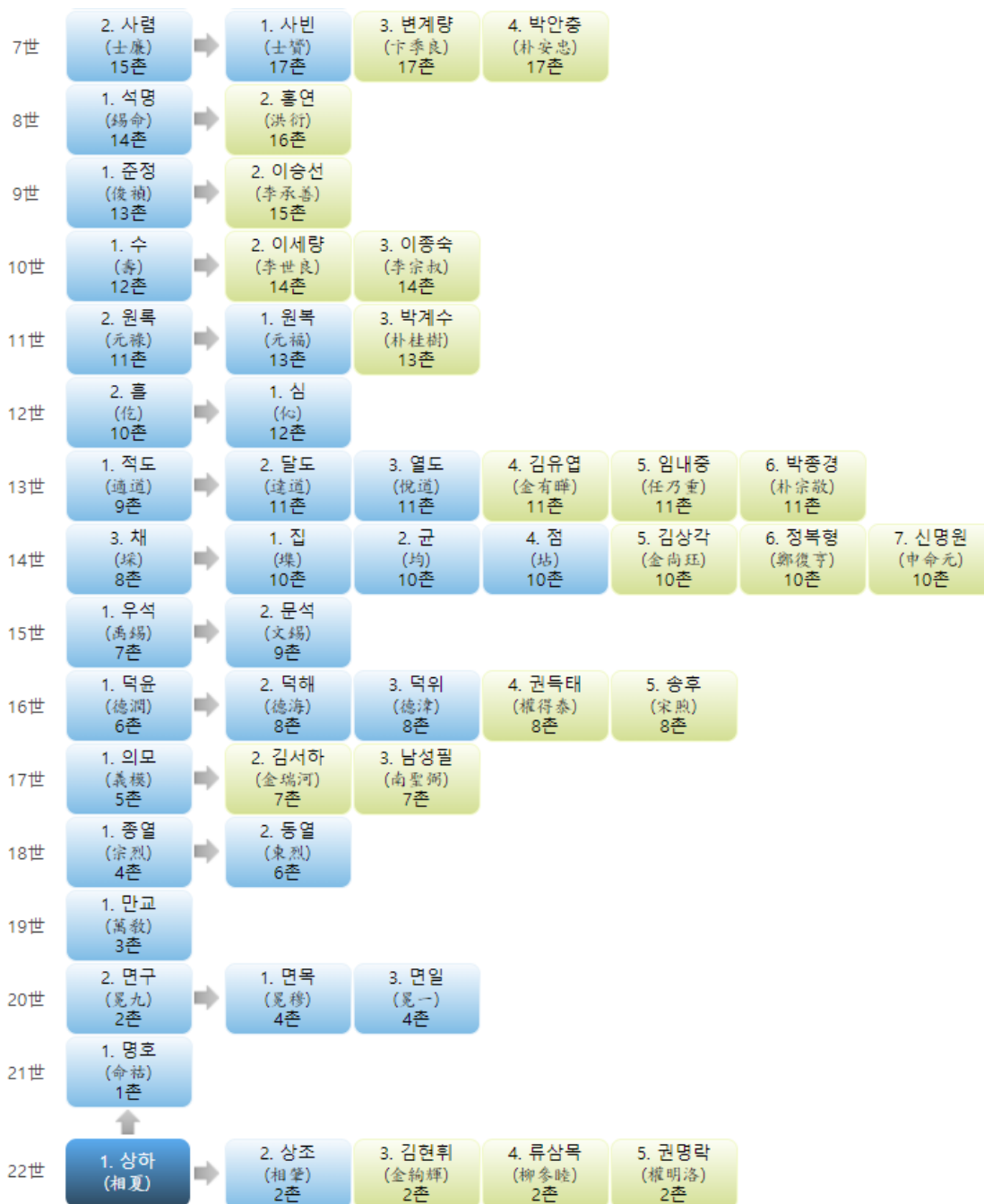
구암유집 (矩庵遺集)

신상하(申相夏) 가계도

22世 상하(相夏)

父 : 명호(命祐) 祖父 : 면구 (冕九)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신상하(申相夏)

항목 ID	GC05200918
한자	申相夏
이칭/별칭	계순(繼舜), 구암(矩庵)
분야	역사/근현대, 성씨·인물/근현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839년 - 신상하 출생
몰년 시기/일시	1906년 - 신상하 사망
출생지	신상하 출생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묘소 단소	신상하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정의]

개항기 의성 출신의 유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계순(繼舜). 호는 구암(矩庵). 생부는 신명호(申命祐), 모친은 김정진(金精進)의 딸 안동 김씨(安東 金氏), 계부는 신인협(申寅協), 계모는 이관발(李觀發)의 딸 영천 이씨(永川 李氏), 조부는 신면목(申冕穆), 증조부는 신만교(申萬敎)이다.

[활동 사항]

신상하(申相夏)[1839~1906]는 1839년(헌종 5) 5월 7일 경상도 의성현 팔지리(八旨里)[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할아버지 신면구(申冕九)[생부 신명호의 부친]에게서 수학하였으며, 15세 때 고문(古文)과 경전(經傳)을 두루 익혔다고 한다. 1853년(철종 4) 할아버지 신면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장성하면 유치명(柳致明) 문하에서 공부하라는 유언을 신상하에게 남겼다.

영남학파의 학맥을 이은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의 문하에서 공부하였으며, 벼슬보다는 학문에 뜻을 두고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평소 친하게 교유한 인물로 이돈우(李敦禹)·김도화(金道和) 등이 있다.

유고로 1955년 아들 신성환이 편집·간행한 4권 2책의 시문집 『구암유집(矩庵遺集)』이 전한다. 문집 가운데 주목할 작품으로는 지치 풀에 빗대어 사람도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함을 풍자한 「자지가(紫芝歌)」와 스승 유치명에게 학문하는 방법 등에 대해 물은 「상정재선생(上定齋先生)」 등이 있다.

23세가 되자 신상하는 유언대로 유치명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그 문하에서 당대의 명유 이돈우(李敦禹), 김도화(金道和) 등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다. 1864년(고종 1)에는 봉두산(鳳頭山)[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일대] 남쪽에 강학을 위한 작은 정자를 지었는데, 이후 신상하는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을 연마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1891년(고종 28) 당시 경상도 관찰사였던 이헌영(李鑣永)은 『향약절목(鄉約節目)』을 편찬한 뒤, 도내 각 고을에 배포하며 향약 시행을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의성 지역에서도 향약 시행을 위한 조직이 결성되었는데, 신상하가 향약장(鄉約長)을 맡았으며, 향교와 구호 서당(龜湖書堂)[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에 위치]에서는 직접 강학(講學)을 하였다. 1893년(고종 30) 인근 군위현(軍威縣)으로 이주하였다가, 1895년(고종 32)에는 풍기군(豊基郡)으로 다시 거처를 옮겼다. 1906년(광무 10) 3월 22일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는 4권 2책의 『구암집(矩庵集)』이 전하는데, 1955년 아들 신성환(申成煥)이 간행한 것이다. 『구암집』에 수록되어 있는 「사문일수록(師門日受錄)」은 1861년(철종 12) 5월 7일부터, 18일까지 스승 유치명과 학문에 대해 문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며, 「향약절목후(鄉約節目後)」는 1891년(고종 28) 의성에서 향약을 시행할 때 그 의의와 유래 등을 설명한 것이다. 또한 「용학강의(庸學講義)」는 구호 서당에서 강학할 때 여러 문생들과의 문답을 기록한 것으로, 이

러한 글들은 성리학에 대한 신상하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케 해준다.

한편, 『구암집』에 수록된 아들 신성환의 유사(遺事)에 따르면, 신상하가 7대조 신우석(申禹錫)[1638~1695]부터 자신 대까지, 선조들의 행록(行錄)과 만뢰(挽誄)를 모아 『단구세적(丹邱世蹟)』 2책을 편찬했다고 한다.

[묘소]

『구암집』의 행장과 유사에는 팔지(八旨)[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 묘소가 자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구암집(矩庵集)』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유교넷(<http://www.ugyo.net/>)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구암유집 (矩庵遺集)	
저자	성명	신상하 (申相夏)
	자	계순 (繼舜)
	호	구암 (矩庵)
판사항	木活字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955	
권수	4	
체크기	29.8×20.9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해제

『구암유집』은 신상하(申相夏 ; 1839~1906)의 시문집이다. 신상하의 자는 계순(繼舜), 호는 구암(矩庵),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재종숙인 인협(寅協)에게 입양되었다. 유치명(柳致明)의 문인이다. 이 책은 1955년 아들 성환(成煥)이 편집, 간행하였다.

벼슬보다는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당시의 석학인 이돈우(李敦禹), 김도화(金道和) 등과 교유하였다. 문집의 권두에 이준형(李濬衡)의 서문과 권말에 홍치유(洪治裕)의 발문이 있다. 서가운데 「상정재선생(上定齋先生)」은 스승인 유치명에게 학문하는 방법과 요령을 물은 것이며, 별지의 문목(問目)은 『중용』과 『대학』의 의심나는 것을 질의한 것이다. 「사문일수록(師門日受錄)」은 1861년(철종 12) 5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유치명과 학문에 대해 문답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향약절목후(鄉約節目後)」는 1891년(고종 28)에 경상도관찰사인 이헌영(李口永)이 풍속을 순화시키기 위하여 『향약절목』 1책을 각 고을에 나누어주고 향약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였는데, 그것을 시행하면서 소감을 쓴 것으로 향약의 발생과정과 유래, 시행의 효과 등을 설명하였다.

목록

구암집(矩庵集) 1

구암유집서

구암유집목록

구암유집권지일

詩(시)

자지가(紫芝歌)

평상지알지행저리현구점(坪上贄謁之行抵梨峴口占)

하일유고산봉화제장로(夏日遊高山奉和諸長老)

화김후윤환만수성절칭경운(和金侯閔煥萬壽聖節稱慶韻)

정재선생만오수(定齋先生挽五首)

임술중춘야몽배장석(壬戌仲春夜夢陪丈席)

만금암이장[둔우]사수(挽肯庵李丈[敦禹]四首)

근차선유정운(謹次仙遊亭韻)

차장육당중건운(次藏六堂重建韻)

만임진사[뫼수](挽任進士[黜洙])

만석하류장[건호]삼수(挽石下柳丈[建鎬]三首)

만만하이장[둔직](挽晚霞李丈[敦稷])

김후윤현여청송졸조약주왕지유차요여공지이적유체미수후기일인사입삼재산패이환아의여문금행소득
후소왈입산작삼일신선귀래편시의성태수야출시기소영십여수이청화수주필구정일률(金侯胤鉉與靑松
倅曹約周王之遊且要我共之而適有掣未遂後幾日因事入三齋山旆已還衙矣余問今行所得侯笑曰入山作三
日神仙歸來便是義城太守也出示其所詠十餘首以請和遂走筆構呈一律)

만이장[우강](挽李丈[宇綱])

만김동지(挽金同知)

만황문옥[상현](挽黃文玉[相鉉])

만이응칠[두강](挽李應七[斗綱])

원조우음[병오](元朝偶吟[丙午])

만이홍경[종원](挽李弘卿[宗園])

차장공신수석운(次張孔信啐席韻)

만오위장[재근](挽吳衛將[在根])

화홍숙옥[재겸]운(和洪叔玉[在謙]韻)

만홍내휴[규흠](挽洪乃休[奎欽])

만족조[숙교](挽族祖[塾教])

만족조[수교](挽族祖[受教])

만족숙[한종]삼수(挽族叔[漢宗]三首)

차사종숙동추공[태협]수진운(次四從叔同樞公[泰協]壽辰韻)

만만수족형[인식]삼수(挽晚守族兄[仁植]三首)

上言(상언)

구대조고호계부군청가증상언[대도유작](九代祖考虎溪府君請加贈上言[代道儒作])

팔대조고인재부군의청증작상언[대도유작](八代祖考忍齋府君擬請贈爵上言[代道儒作])

書(서)

상정재선생[신유](上定齋先生[辛酉])

별지[용학문목](別紙[庸學問目])

여척암김장[도화○을사](與拓庵金丈[道和○乙巳])

여세산류장[지호○신유](與洗山柳丈[止鎬○辛酉])

답김기백[필락○갑진](答金耆伯[弼洛○甲辰])

여장주약[석희○경신](與張周若[奭喜○庚申])

여장주약[임술](與張周若[壬戌])

여장주약(與張周若)

기외손김도섭[병오](寄外孫金道燮[丙午])

구암유집권지이

雜著(잡저)

용학강의[구호서당강학시여제생문답](庸學講義[龜湖書堂講學時與諸生問答])

구암집(矩庵集)2

구암유집권지삼

雜著(잡저)

사문일수록(師門日受錄)

별지(別紙)

부별지답(附別紙答)

識(지)

서향약절목후(書鄉約節目後)

서삼일재중건기후(書三一齋重建記後)

소수서원봉장회당집인서우벽(紹修書院奉藏梅堂集因書于壁)

단구서원영건전말(丹邱書院營建顛末)

호계집수정후지(虎溪集修整後識)

인재집수정후지(忍齋集修整後識)

단구세적부집후지(丹邱世蹟哀集後識)

銘(명)

자명명[병소서](字名銘[并小序])

구암명[병소서](矩庵銘[并小序])

자명[병자삼월이십이일임화시](自銘[丙子三月二十二日臨化時])

단구세적부집후지(丹邱世蹟哀集後識)

上樑文(상량문)

갑자각상량문(甲子閣上樑文)

祝文(축문)

구대조고호계부군증작시고묘문[정묘](九代祖考虎溪府君贈爵時告墓文[丁卯])

응봉재사이건시개기축문[신사](鷹峰齋舍移建時開基祝文[辛巳])

칠대조고지헌부군안석고묘문(七代祖考芝軒府君安石告墓文)

이치재문집고성문[대본손작](二恥齋文集告成文[代本孫作])

구암유집권지사

祭文(제문)

제정재선생문[양례시](祭定齋先生文[襄禮時])

우[대상시](又[大祥時])

제정과김공[대진]문(祭訂窩金公[岱鎮]文)

제계당류공[주목]문(祭溪堂柳公[疇睦]文)
제김장[약수]문(祭金丈[若洙]文)
제금암이공문(祭肯庵李公文)
제외구불기당김공[성추]문(祭外舅不欺堂金公[誠樞]文)
제류장[치춘]문(祭柳丈[致春]文)
제박장[원상]문(祭朴丈[元象]文)
제고숙김공[한근]문(祭姑叔金公[漢根]文)
제선전권공[석천]문(祭宣傳權公[錫天]文)
제이문숙[언구]문(祭李文叔[彦求]文)
제김현응[건휘]문(祭金顯應[健輝]文)
제오감찰[봉섭]문(祭吳監察[鳳燮]文)
제사종숙동추공문(祭四從叔同樞公文)
제족숙[국호]문(祭族叔[國祐]文)
제당숙부[원호]문(祭堂叔父[遠祐]文)
제본생백고가헌부군문(祭本生伯考可軒府君文)
곡망녀김실문(哭亡女金室文)

誄辭(뇌사)

종장경원[학홍]뇌사(宗丈景源[學泓]誄辭)
종인화수[계동]뇌사(宗人華姿[桂東]誄辭)

行錄(행록)

본생조고대송부군행록(本生祖考大松府君行錄)

선고삼수헌부군행록(先考三秀軒府君行錄)

본생백고가헌부군행록(本生伯考可軒府君行錄)

본생선고부군행록(本生先考府君行錄)

구암유집권지오

附錄(부록)

만사(척암김도화)(挽詞(拓庵金道和))

우(김중휘)(又(金重輝))

우(박형조)(又(朴滢祖))

우(홍재겸)(又(洪在謙))

우(홍정우)(又(洪靖佑))

우(문인강영선)(又(門人姜永璿))

우(족제상직)(又(族弟相稷))

제문(박남규)(祭文(朴南奎))

우(생질김영주)(又(甥姪金榮周))

우(족제상헌)(又(族弟相憲))

우(족제돈식)(又(族弟敦植))

유사(遺事)

행장(行狀)

묘갈명[병서](墓碣銘[并序])

발(跋)

난재문집(難齋文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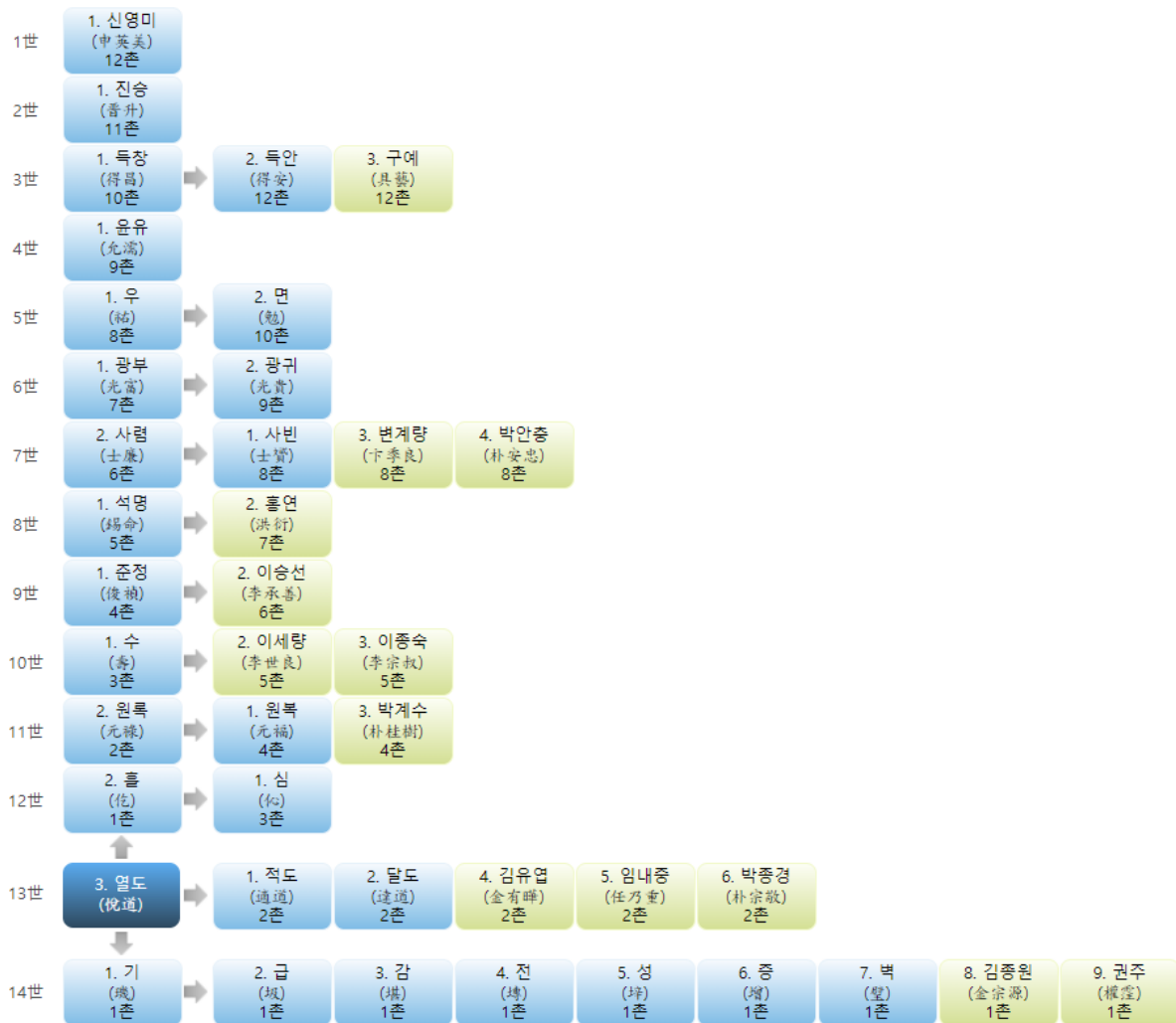
신열도 (申悅道)

가계도

13世 열도(悅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난재공파(難齋公派)



신열도(申悅道)

항목 ID	GC05200843
한자	申悅道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589년 - 신열도 출생
활동 시기/일시	1606년 - 신열도 진사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24년 - 신열도 증광 문과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47년 - 신열도 사헌부 장령에 임명
몰년 시기/일시	1659년 - 신열도 사망
추모 시기/일시	1858년 - 신열도 의성 단구 서원에 배향
출생지	신열도 출생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묘소 단소	신열도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사당 배향지	단구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능주 목사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字)는 진보(晉甫), 호는 나재(懶齋). 신준정(申俊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수(申壽)이며 아버지는 신흘(申屹)이고, 어머니는 순천 박씨(順天 朴氏)로 박윤(朴倫)의 딸이며, 부인은 문소 김씨(聞韶 金氏)로 김굉(金泓)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열도(申悅道)[1589~1659]는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06년(선조 39) 진사가 되고, 1624년(인조 2) 증광(增廣) 문과(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에서 관직을 시작하였다. 1625년에 박사(博士), 전적, 기사관을 지내고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인조를 호종하였다. 그는 형들과 더불어 호란 당시 척화(斥和)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화의론을 강력히 비난하였다.

1628년 형조 좌랑(刑曹 佐郎)이 되었으며,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예조(禮曹)·병조(兵曹)·호조(戶曹)의 좌랑(佐郎)을 두루 지내고, 1630년 지제교(知製敎), 1636년 성균관 직강(成均館 直講), 병조 정랑(兵曹 正郎),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을 지냈다.

병자호란 이 일어나자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병자호란 때에도 화의론을 강력히 비난하며 동지들과 상소를 올려 끝까지 항쟁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의병을 모집하는 격문(檄文)을 초안하여 도내에 포고하고, 각 고을마다 의병을 모아 해서 부원수(海西 副元帥)의 진(陣)으로 보냈다.

이듬해 전란이 끝나자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1638년(인조 16) 울진 현령(蔚珍 縣令)으로 나아가 민생에 대해 극언하였는데, 인조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1645년 공조·병조의 정랑(正郎)에 제수고, 1647년 장령(掌令)을 거쳐 1649년 예천 군수(醴泉 郡守)로 나아갔다가 1652년(효종 3) 장령을 지냈으며, 다시 능주 목사(綾州 牧使)를 지냈다.

1655년 사간(司諫), 성균관 사성(成均館 司成), 종부시 정(宗簿寺 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으며, 이때부터 고향에서 두문불출하며 병환을 다스렸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는 『나재집(懶齋集)』 9권 4책이 있으며, 『선사지(仙槎志)』와 『문소지(聞韶志)』 등도 편찬하였다. 『문소지』는 스승인 장현광의 권유로 편찬한 의성현의 읍지이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에 위치한 단구 서원(丹邱 書院)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인조 실록(仁祖 實錄)』

『난재집(懶齋集)』

『의성의 전통』(의성 문화원, 1982)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고문서 집성-의성 아주 신씨 오봉 가문·호계 가문편』 77(한국학 중앙 연구원, 2005)

장필기, 「조선 후기 의성 아주 신씨가의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의성 아주신씨 읍파·구파의 고문서 검토를 중심으로」(『한국 사학회』 88, 2007)

생애이야기

- **성명** : 신열도(申悅道) , 1589 년 ~ 1659 년
- **본관** : 아주(鵝洲)
- **자** : 진보(晉甫)
- **호** : 난재(懶齋)
- **출생지** : 의성군
- **출신지** : 의성군
- **분묘지** : 의성군 오토산(五土山)
- **입사경로** : 1624 년 증광시(增廣試) 을과 급제
- **내관직** :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 박사(博士),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 **외관직** : 경성판관(鏡城判官), 울진현령(蔚珍縣令), 예천군수(醴泉郡守), 능주목사(綾州牧使)
- **조용한 성품**

신열도의 천성은 순수하여 생각에 막힘이나 인색함이 한 점도 없었고, 털끝만큼의 거친 기상도

없었다. 집안에서 거처할 때 효성스러움과 우애심이 독실하였고, 제사를 받드는 것에도 그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다. 마을에 거처할 때는 남에게 진실하면서도 베풀고 양보하여 미덥고 순함이 상하에 드러났다.

조정에 들어가서는 편안하고 고요하게 스스로를 지키고 구차히 함께하여 잘못 따르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이르러서는 교화를 핵심으로 삼아 학문을 흥기시키는데 솔선하였다.

◦ **구휼의 방책을 건의하다.**

1647년 수재와 한재로 인해 굶어죽는 백성들이 속출하자 신열도(申悅道)는 굶주린 백성을 위하여 임금에게 상소하기를,

“이번 수재와 한재를 만나 굶어 죽는 백성이 많으니 마땅히 현재 호조·남한(南漢)·강도(江都)에 있는 미곡의 수효와 삼남(三南)의 감영(監營)·병영(兵營) 및 통영(統營)에 저축된 미곡과 포목의 수효가 얼마인가를 총괄해서 계산하고,

또 1년의 경비 및 외국 사신에 필요한 불시의 수요가 얼마인가를 총괄해서 계산하여 종류대로 모아 연구해서, 만약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히 지탱할 수 있으면 금년의 부세(賦稅)를 모두 탕감하고 만약 혹 이 숫자에 모자라면 여러 도 가운데 아주 실농하지 않은 곳에서 절반의 세금을 거두어 1년 경비를 지탱한다면 공물을 전부 감하니 해아려 감하니 하는 등의 구구한 말을 할 필요 없이 온 나라 백성들이 균등하게 은택을 입어 생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가족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 신원록(申元祿) ◦ 생부 : 신흘(申仡) ◦ 모 : 순천(順天) 박씨(朴氏) 박윤(朴倫)의 딸 ◦ 형제 : 신달도(申達道), 신적도(申適道)
<p>◦ 집안 이력</p> <p>아주(鵝洲) 신씨(申氏)의 시조는 고려 때 권지호장(權知戶長)을 지낸 영미(英美)이다. 대표적인 인물은 우(祐)인데, 그는 충혜왕 때 전라도 안렴사(按廉使)를 지냈으며, 지극한 효자로서 경상북도 의성(義城)에 정문과 효자비가 세워졌다.</p> <p>조선시대에 크게 벼슬을 한 사람은 없으나 학자와 효행으로 이름난 사람이 많다. 우의 6대손 원록(元祿)은 성리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효행이 뛰어나 효자정문이 세워졌고, 그의 손자 3형제 중 적도(適道)는 정묘호란 때 의병을 일으키고 찰방(察訪)을 지냈는데, 역시 학문과 효행이 뛰어났다. 달도(達道)는 삼사(三司)를 역임하고 장령(掌令)을 지냈으며, 정묘호란 때 척화(斥和)를 주장하였다.</p>

◦ 효자로 이름 조부 신원록

신원록은 11 세에 부친이 중풍에 걸려 치료가 어렵자, 팔공산에 올라가 손수 약초를 캐서 유능한 의원의 조제를 받아 밤낮으로 끓여 올렸다.

무릇 8 년 동안이나 밤을 지새워가며 부친을 정성껏 간호하였다. 신원록은 모친이 90 세가 되도록 의복이나 변기를 남에게 맡기지 않고 손수 세탁하였고, 똥을 맛보아 증세를 판단하였으며, 밤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등 갖은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다.

같은 해 6 월 모친이 93 세로 돌아가시자 날마다 성묘를 하고, 미음만 마시고 다른 것은 입에 가까이하지 않아 결국 여막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1590 년 향인들이 신원록의 행적을 적어 고을 수령에게 올리므로 인해 조정에 알려지게 되었다. 1600 년에 향인들이 다시 글을 올려 을묘년(1615)에 정려(旌閭)가 내려졌으며 아울러 호조참의에 추증되고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에 그의 효행사적이 실리게 되었다.

학문이야기

◦ 스승 : 장현광(張顯光)

◦ 학파 : 퇴계 학파

◦ 스승 : 장현광(張顯光)

◦ 학파 : 퇴계 학파

◦ 큰 재주를 지니다

신열도는 9 세 때 이미 경전과 역사에 통달했고 글을 잘 지었다. 인재(詔齋) 최현(崔峴)이 항상 그의 재주를 작게 이루어지는 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 칭찬했다. 17 세 때 도(道)의 도회(都會)에서 뽑혀 18 세에 진사(進仕)에 합격했다.

◦ 스승의 품모를 흠모하다.

1603 년 스승 장현광이 의성으로 부임해왔다. 선생은 명륜당(明倫堂)에 앉아서 제생들과 상읍례(相揖禮)를 행하시고는 훈장(訓長)과 제생들은 차례로 앞줄에 앉히고 아이들은 또 그 다음 줄에 앉힌 다음, 이들과 경전(經傳)의 뜻을 강론하였다.

제생 중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선생은 반복하여 가르쳐 주었으며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대답하였는바, 말소리가 크고 통창(通暢)하시어 온 좌중이 경청하였다.

신열도는 어린 나이로 책을 끼고 맨 말석(末席)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을 우러러보니 기상(氣象)이 혼후(渾厚)하고 위의(威儀)가 엄정(嚴整)하여 자기도 모르게 숙연(肅然)하여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다.

1622 년 봄에 신열도는 신달도와 함께 남산으로 와서 스승을 뵈고, 저녁에는 모시고 부지암(不知巖)으로 가서 이틀 동안 머물러 모시면서『근사록(近思錄)』의 의심스러운 부분 10 여 조항을 질문하였다.

◦ 스승의 건강을 염려하다.

신열도는 스승인 장현광이 안거(安車)로 부르는 명령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 뵈었는데, 스승이 여러 친구들이 전별(餞別)함으로 인하여 연일 술을 드셨다.

이에 신열도는

“식사는 적게 하시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 혹 이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스승이

“술의 힘이 노인을 보양함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대의 말이 또한 좋으니,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고 말하였다.

저작이야기

◦ 나재문집(懶齋文集)

『나재문집』은 의성지방의 학자 신열도(申悅道)가 지은 시문집이다. 목판본으로 9 권 4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1은 시 127 수가 실려 있다.

권 2는 교지(教旨), 사제문(賜祭文), 소(疏), 계(啓)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무인응지소(戊寅應旨疏)」는 울진현령(蔚珍縣令)으로 있을 때 왕명에 따라 올린 보고서로, 흉년이 계속되어 주민의 생활이 어려우므로 세금을 경감하여줄 것과 부역을 줄이며 고을재정에 국고보조를 하여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청물견신사일자핵계(請勿遣信使仍自劾啓)」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강화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한 조정의 공의에 반대하여 강화사신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권 3은「조천시문견사건계(朝天時間見事件啓)」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1628년(인조 6) 동지사은사의 서장관이 되어 7월 11일 서울을 출발하여 명나라의 남경까지 갔다가 이듬해 윤 4월 11일 평양에 돌아올 때까지 도중에서 보고들은 일들과 중국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고한 여행기록이다.

권 4는 정문(呈文)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정등주군문변무문(呈登州軍門辨誣文)」은 등주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군대에 잘못 전달되어 명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오해가 생긴 일에 대하여 사실을 밝힌 외교적인 문서이다.

권 5는

장현광(張顯光)·심지원(沈之源)·김세렴(金世濂)·김응조(金應祖)·김치관(金致寬)·김경장(金慶長)등

당대의 학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권 6은 장현광(張顯光)에게 입문의 예를 마치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기록한 「배문록(拜門錄)」과 자기의 사상과 취지를 밝힌 「나재설(懶齋說)」의 잡저와 각종 서발(序跋), 그리고 상량문(上樑文), 축문(祝文), 제문(祭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7은 각종 제문과 묘표(墓表)로 구성되어 있다.

권 8은 행장, 권 9는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선사지 仙槎志』와 『문소지 聞韶志』 등이 있다.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난재문집 (難齋文集)	
저자	성명	신열도 (申悅道)
	자	진보 (晉甫)
	호	난재 (難齋)
판사항	木版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7세기	
권수	9	
책크기	19.5×28.5 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해제

『난재문집』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인 신열도(申悅道 ; 1589~1659)의 시문집이다. 신열도의 본관은 아주(鵝州), 자는 진보(晉甫), 호는 난재(懶齋)이다. 흘(?)의 아들이며, 교리 달도(達道)의 동생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이다.

문집 가운데 권1~3에 시 127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체로 기상이 호방하나 감상적인 면이 있다. 그 가운데 「등소공대(登召公臺)」는 소공대에 올라서 탁 트인 경치를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을 읊은 것이고, 「야문실술유감(夜聞??有感)」은 밤에 우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가을의 정취속에서

인생의 무상을 한탄한 것이다. 「문노적동창야불능매(聞奴賊東?夜不能寐)」는 청나라가 침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느라고 잠 못 이루는 안타까운 심회를 읊은 것이다. 소(疏) 가운데 「무인응지소(戊寅應旨疏)」는 울진현령(蔚珍縣令)으로 있을 때 왕명에 따라 올린 보고서로, 흉년이 계속되어 주민의 생활이 어려우므로 세금을 경감하여줄 것과 부역을 줄이며 고을 재정에 국고보조를 하여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계 가운데 「청물건신사잉자핵계(請勿遣信使仍自劾啓)」는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강화를 위하여 사신을 보내기로 결정한 조정의 공의에 반대하여 강화사신을 보내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고, 「조천시문견사건계(朝天時間見事件啓)」는 1628년(인조 6) 동지사은사의 서장관이 되어 7월 11일 서울을 출발하여 명나라의 남경까지 갔다가 이듬해 윤 4월 11일 평양에 돌아올 때까지 도중에서 보고들은 일들과 중국사람들과 통화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고한 여행기록이다. 「정등주군문변무문(呈登州軍門辨誣文)」은 등주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군대에 잘못 전달되어 명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오해가 생긴 일에 대하여 사실을 밝힌 외교적인 문서이다. 이밖에 장현광(張顯光)에게 입문의 예를 마치고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기록한 「배문록(拜門錄)」과 자기의 사상과 취지를 밝힌 「난재설(懶齋說)」이 있고, 중국에 사신으로 가다가 중도에 해난을 당한 사신을 제사한 「제표사신문(祭漂使臣文)」이 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0여세에 경사(經史)에 통하여 1624년(인조 2)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 1627년 정묘호란 때에 인조를 호종하였다. 이듬해 서장관(書狀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뒤 예조정랑, 정언을 거쳐 1638년 울진현감을 지내고 1647년 장령이 되어 민생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뒤에 능주목사를 지냈다.

책목록

조선 시대 나재(懶齋) 신열도(申悅道, 1589~1659)의 문집이다. 본집은 가장초고를 바탕으로 수집·편차하여 19세기에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그 간행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본집은 9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마다 목록이 있다.

권1은 시로, 서장관으로 부경할 때 상사 송극인(宋克訥)과 수창한 시 및 사행 중 각처에서 소회를 읊은 시가 가장 많다.

권2는 교서, 사제문, 소, 계이다. 그중에서 <청물건신사잉자핵계(請勿遣信使仍自劾啓)>에서는 강화사신을 보내지 말 것을 주장한 정온(鄭蘊)을 옹호하고 간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의 체직을 청하였다.

권3은 <조천시문견사건계(朝天時間見事件啓)>로, 서장관이 되어 1628년 7월 11일 사조하고 해로로 부경하여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자세히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한 것이다.

권4는 명(明)나라의 도독 모문룡(毛文龍), 등주 군문, 예부(禮部)에 올린 정문(呈文)이고

권5는 서(書)이고,

권6은 잡저, 서(序), 발(跋), 상량문, 축문이고

권7은 제문과 묘표지이다.

권8은 행장이고,

권9는 부록으로 정종로(鄭宗魯)가 지은 행장과 김응조(金應祖)가 지은 묘지가 있다.

나재집(懶齋集)

懶齋先生文集卷之一

詩

白雲洞次李汝純 韻

金烏書院。敬次旅軒先生韻。

謹次冶隱先生集中韻

謹次趙龍門 贈別先王考韻。奉餞趙上舍殷輅 世兄。

敬次仲氏 韻

以歲晚何以黔吾突。分韻詠懷。奉呈伯 ， 仲氏求和。

奉次金荷潭 見寄韻

到陶巖舊庄。感懷有作。呈伯仲氏。

偕任李諸友遊冰溪

綠野亭。次金東籬 韻。

次金藏菴 韻

次金以直 韻

奉呈金忘窩 丹城觀行

贈別金孝徵 赴洛

輓宗丈梧峯公

輓洪西潭

輓外舅金公

重過星山舊橋。感而有作。

丁卯春。自江都赴關東幕。過昭陽亭次板上韻。

登召公臺

清澗亭次板上韻

贈別申都事汝涉

丹陽奉別洪使君

奉次仲氏歸去來曲

輓李察訪

輓趙司果

戊辰七月。以冬至使書狀官赴京。夜泊龜岸。次許都事春容 寄葡萄韻。

舟過清風。次主倅洪景澤 韻。

宿驪州清心樓

夜泊廣鹿島偶吟

夜聞蟋蟀有感

泊平島憶仲氏

次李學官 韻

九日泊沙門島有感

登鼉磯島。次上使宋公 韻。

舟中憶金孝徵諸友

萊州途中

過晏平仲故里

過孔文學甘棠牌門

過伯夷廟

過王裒故里

過細柳營

過董子故里

過易水

十月初八日達上京

聞奴賊東搶。夜不能寐。

十一日朝參。次上使韻。

連夜夢陪先君子。感而有作。

冬至晝夢。被仲氏喚起。覺後吟成一律。

二十七日。參冬至賀班。用前韻。

元日次上使韻

次老杜韻。奉呈上使令公。

拈圃隱集中韻。奉呈上使令公。

初二日夜夢。拜旅軒先生。仍成一絕。

仲春望夜獨坐口占

詠壺魚

謁國子監

往天壇

長相思

謝陳，韓 兩序班。惠詩與扇。

歸路登蓬萊閣

濟河縣值雨

到大井店後口占

到甌山縣。次板上韻。

敬亭李公 輓

訪金孝徵不遇

次李虞卿韻

元朝有感。次仲氏除夕韻。

寄洪無住

贈鄭靜而

輓權參判

輓洪處士

輓金持平

次金仲亨 韻

次金松隱萬年松韻

輓李持平復初

登侍中臺

高山館。次李芝峯 韻。

贈別鄭評事

登磨天嶺

渡夕陽橋

留城津

沃原阻雨。次板上韻。

輓柳教官

輓金察訪

輓洪都事

輓蒼石李公

輓同知宗丈

飛山松亭。祇候旅軒先生。

敬次旅軒先生行中五言詩

次張經叔 韻却寄

用前韻奉呈金梅園

次清陰金相公 贈別詩

輓金藏菴

輓崔完海

旅軒先生輓

伊院次諸友贈別韻

登泣嶺

登觀魚臺

季秋詠月

輓李上舍

貢稅浦別金以直

輓訥齋崔公

次蒼石韻贈別李子長

用前韻。慰金司書貫之 失火。

輓金溪巖

輓柳應教

丹丘幽居

輓金梅園

輓睦監司

輓俞參議

輓李紫巖

次李壽翁 洛阜亭韻

輓梧峯夫人

甲午除夕

輓柳監司

輓張晚悔

丁酉冬至夜吟

次權子正 自樂堂韻

又次子正天雲臺韻

輓裴君

輓鄭晉州

己亥正月夜夢。吟清風明月是故人之句。覺後足成一絕。

懶齋先生文集卷之二

教

教江原監司朴遜書

教黃海監司李曼書

賜祭文

賜祭漢南君李必榮文

賜祭刑曹參判李民奐文

疏

戊寅應旨疏

辭掌令疏

乞護兄喪疏

甲申應旨疏

啓

請收趙贊，申恂補外之命啓。

請收淸風郡守權倣己臬示之命啓

請沔川郡守吳達天罷職啓

請沔川郡守吳達天罷職啓[再啓]

請遣御史查出貪婪守令啓

避嫌啓

請統制使金應晦推考啓

請勿遣信使。仍自劾啓。

在開城府啓

在椴島啓

懶齋先生文集卷之三

啓

朝天時間見事件啓

懶齋先生文集卷之四

呈文

呈毛都督文

呈登州軍門文

呈登州軍門辨誣文

呈毛都督請禁查官督押船隻員役文

呈提督請勿查還登州留置員役土物文

呈禮部請勿改貢路文

呈禮部辨誣文

呈禮部請免上下馬宴文

懶齋先生文集卷之五

書

上旅軒先生

上旅軒先生問目

上旅軒先生

上旅軒先生問目

上旅軒先生

上旅軒先生問目

上沈相國

答沈判書

與金安邊

上崔訥齋

與金梅園

答金梅園

答金梅園

與金溪巖

答金以承

答金以承

答金孝徵

答金孝徵

答金而栗

答張經叔

答張經叔

與金子亮 , 金汝涵 。

與金德承

答金受而 , 權宅甫。

答金受而

答鄭亦顏

與金重玉

答雷伴送

答莊提督

寄機兒

寄機兒

寄坂兒

寄諸兒

寄博 , 埜兩兒。

寄埜兒

懶齋先生文集卷之六

雜著

拜門錄

懶齋說

序

送黃子由 奉使日本序

送申通判望久 赴完山序

送金以直歸觀宣城序

跋

書旅軒先生贈言後

書順天朴氏譜牒後

仙槎誌跋

蔚珍鄉約跋

聞韶誌跋

先王考梅堂先生師友錄跋

奉先祭儀圖式後識

上梁文

東洛書院上梁文

鏡光書院上梁文

聞韶客舍上梁文

葛山精舍上梁文

祝文

竹邊祠祈雨文

三方山龍淵祈雨文

祭漂海使臣 文

祭大海神文

祭天妃神文

祭三山島神文

洛峯書院奉安文

吳山書院告由文

東洛書院奉安文

涑水書院告由孫月城君文

蒙泉祠常享祝文

祭立巖山神文

懶齋先生文集卷之七

祭文

祭寒岡先生文

祭旅軒先生文

祭宗丈梧峯公文

祭敬亭李公文

祭訥齋崔公文

祭柳修巖文

祭金忘窩文

祭崔完海文

祭金龜巖 文

祭張晚悔文

祭趙司果文

祭仲氏晚悟公文

祭淑人金氏文

祭亡子機文

祭亡子堪文

祭南格菴 墓文

祭朱孝子 墓文

墓表誌

先考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城隱府君墓表

先妣贈淑夫人順天朴氏墓誌

仲氏晚悟公墓誌

從兄處士公墓誌

淑人聞韶金氏墓誌

亡子機壙記

懶齋先生文集卷之八

行狀

敬亭李公行狀

伯祖靜隱公行狀

仲氏晚悟公行狀

紫巖李公行狀

懶齋先生文集卷之九

附錄

行狀[鄭宗魯]

墓誌[金應祖]

직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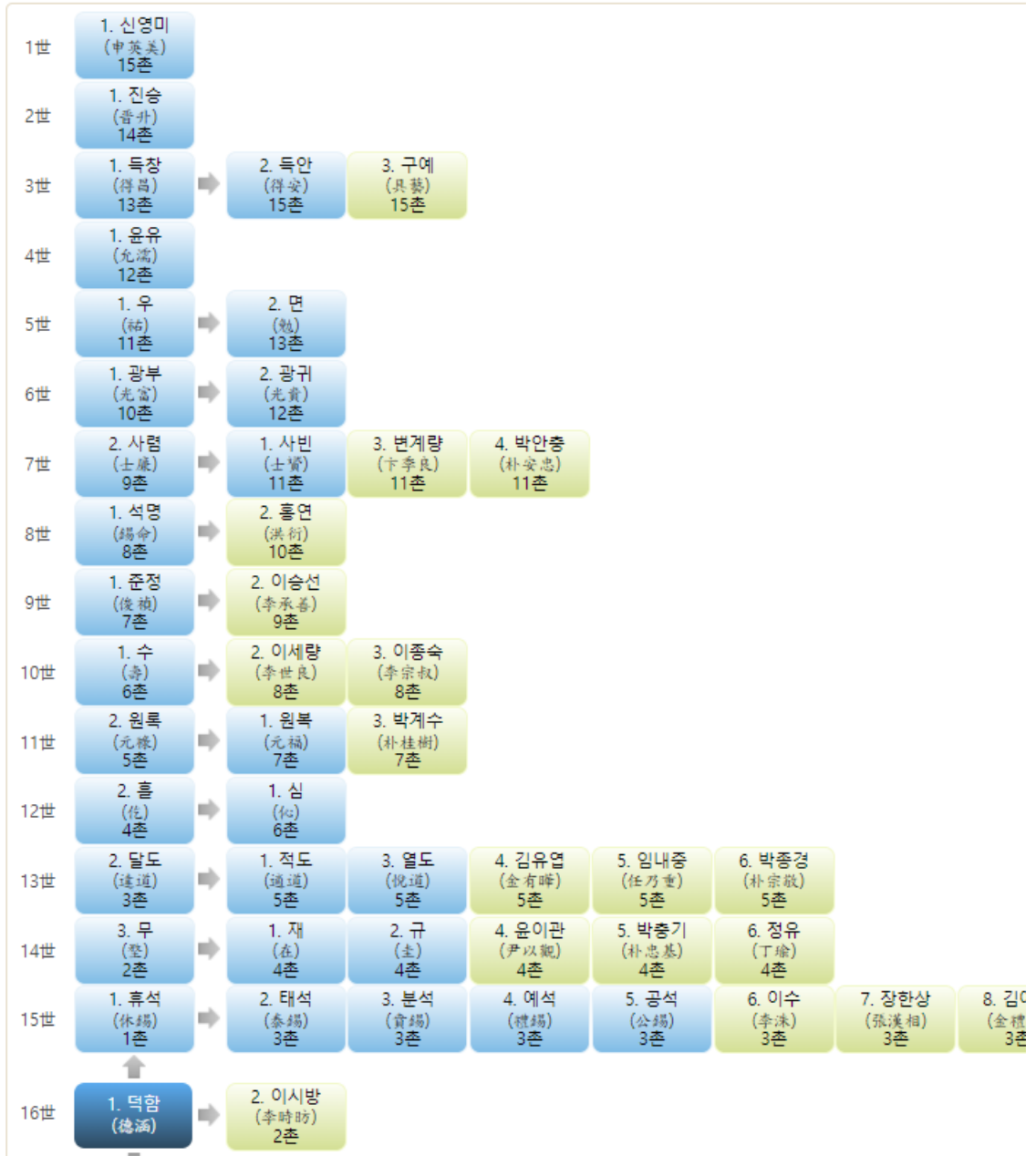


16世 덕함(德函)

父: 휴석(休錫) 祖父: 무(整)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계도 8계도 촌수계산



15世 장한상(張漢相) : 신덕함 고모부

父: 무(整) 祖父: 달도 (達道)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 족보내용

字仲游 號聳瘡

肅宗朝甲子成均生員世稱三德文章七歲作寒食賦日忍火食捨今日有聲瘡橋六卷處燮權衡二卷

孝宗丙申五月二十日生庚戌四月十九日卒享年七十五◎墓霞峴西坐配宜人南陽洪氏丙申十二月十一日生丁丑三月二十四日卒◎墓佳音面德川里父通德郎叙猷監司德一曾孫

조선 숙종(1661~1720년 재임) 시대 과거(科擧) 시험에서 울릉도·독도 영토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대처하는 방안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음을 보여주는 고문서(사진)가 최초로 발견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는 14일 특위 부위원장 방문일(48) 변호사가 최근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단법인 국한연구소 대구·경북지부에서 독도 관련 고문서를 발견했고, 분석을 의뢰받은 전문가가 이같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고문서는 경북 의성지역 선비였던 신덕함(申德函.1656-1730)이 남긴 문집에 있는 '전책(殿策)' 형식의 글이다. A4 용지 크기인 이 고문서는 임금이 묻는 책문(策問)이 1장 반, 답하는 대책(對策)이 12장 반으로, 총 14장으로 돼 있다. 이 글은 숙종이 1693년 발생한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에 대해 과거 응시자들에게 대책을 묻고, 신덕함이 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도쟁계는 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에 납치된 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한 울릉도·독도 영토 분쟁을 의미한다. 이후 안용복은 일본에 가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는 내용의 외교문서인 서계(書契)를 받아냈다.

독도전문가인 한아문화연구소 유미림 박사는 "글에서 언급된 문제가 구체적이라는 점을 볼 때 과거시험에 실제 출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덕함이 전시에 응시했을 때 나온 문제나 다른 응시자가 말한 문제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정황상 1696년 치러진 문과전시(文科殿試)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임금은 "울릉도가 멀리 동해에 있는데 강원도에 속해 있다. 수로가 멀고 험해 섬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현재 비어 있다. 요즘 일본인이 죽도(竹島)라 부르면서 백성들의 어로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 입장을 설명해도 (일본은) 들을 생각이 없다"면서 "혹자는 장수를 보내 점거해 지키자고 하고, 혹자는 혼란을

만들지 말고 일본인의 왕래를 허용하자고 하는데, 변방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방도를 강구해 자세히 나타내도록 하라"고 했다.

이에 신덕함은 "국내에서 대책 담당자를 잘 선정하고, 덕을 통해 일본 내에서 부당한 영토야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얻어가자"는 방법을 제시했다.

유 박사는 "울릉도쟁계 관련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등 관찬 사서에 남아 있고, 과거 시험에도 관련 문제가 나왔다. 당시 울릉도·독도 문제가 국가적 중대사였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이 고문서와 관련된 논문을 '독도연구소 영토해양연구'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 숙종 때 있었던 과거(科擧)시험에서도 독도 관련 문제가 중요시 돼 독도관련 사항이 과거시험 기출문제나 예상문제로 다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독도특별위원회는 경북 의성지역 선비였던 신덕함(申德函.1656-1730)이 남긴 문집에 있는 '전책(殿策)' 형식의 글에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4 일 밝혔다.

전책은 임금이 묻고(策問), 자대부(子大夫:사대부)가 답(對策)하는 형식의 과거를 일컫는다.

이 전책 형식의 글은 1693년 발생한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안용복 등이 울릉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에 납치된 뒤 발생한 조선과 일본의 영토분쟁)에 대한 과거 응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실제로 전시에 출제됐다면 1696년 치러진 문과 전시(文科殿試)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임금의 책문 뒤에 '등(騰)'이라고 적힌 것은 문집을 남긴 신덕함이 전시에 응시했을 때 나온 문제를 베껴 온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가져온 문제를 베꼈거나 예상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을 분석한 한아(韓亞)문화연구소 유미림 박사는 "울릉도쟁계 관련 기록이 실록 등 사서에 남아 있고, 과거시험에서도 독도가 거론된 것을 보면 당시 울릉도·독도 문제가 조선-일본 관계에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문집을 남긴 신덕함은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대책담당자를 잘 선정하고 덕을 통해 일본 내에서 부당한 영토야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얻어가자"는 심세득인(審勢得人)의 방법을 제시했다.

출처: https://lg1122.tistory.com/category/역사_바로알기?page=46 [이인곤 화순사랑]

의성현(義城縣)의 우씨열녀(禹氏烈女)에 대한 기록을 남긴 신덕함 공(申德函公)

강상문 (의성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7세기 후반 경상도 의성현에 살았던 우소사(禹召史)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긴 분은 신덕함 공이다.

아주신씨 세계(世系)에 의하면 16세(世) 신덕함 공은 효종 7년(1656) 5월에父 신휴석(申休錫) 공과 母 풍산홍씨 사 이에 장남으로 의성현 금성면 수정리에서 태어나 영조 6년(1730) 75세의 나이로 추하였다.

본관은 아주이고 字는 중 유(仲游)이며 호는 농음(農瘡)이다. 공은 숙종 10년(1684) 28세 때 생진양시(生進兩試)에 모두 합격했으나 문과시험에는 계속 실패함으로써 결국 벼슬을 하지 못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좌절하여 스스로 호를 농음(農瘡)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문장력이 뛰어났음은 그의 친구들이 모두 인정하였다. 『禹烈女傳』을 보면 그가 중국고사, 시전(詩傳) 등에 매우 밝았으며 문장력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천성이 孝友하였으며, 17세에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거상집례(居喪執禮)가 성인과 다름이 없었다. 어머니를 봉양함에 얼굴 에 어그러짐이 없었고 나이 들어서도 끝내 해이한 빛이 없었다. 남양홍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2남(학모, 성모(學模, 聖模))을 두 었다.

공의 가계는 조상 대대로 중앙과 지방에서 벼슬을 해왔으나 본인은 관직에 나가지 못했다. 그리고 효자가 많이 배출 된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즉 5세(世) 申祐와 11세(世) 신원록(申元祿)의 경우는 효자로서 정려(旌閭)가 세워졌고, 부친 신휴 석도 효자로 널리 알려졌다. 신씨 가문의 이러한 효행의 식이 신덕함의 『禹烈女傳』 집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쳤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경상도읍지(慶尙道邑誌)』의성현 인물조를 보면 모두 54명(고려 13명, 조선 41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신덕함 가계의 인물로서 모두 10명이나 수록되어 있다. 申元祿(祐 후손), 申之梯(祐 후손), 申達道(元祿의 孫子), 申悅道(達道の 아우), 申弘望(之梯의 子), 申圭(達道の 子), 申適道(효자 元祿의 孫子), 申在(修撰 達道の 아들), 申瑠, 申濂(修撰 達道の 曾孫)이 그들이다.

그리고 효자조에 신원록, 신휴석이 실려 있다. 따라서 신덕함의 집안 인물이 읍지에 많이 등장함으로써 의성현에서의 아주신씨의 영향력과 아울러 신덕함의 가문이 의성지방 에서 명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작가 신덕함의 저술 동기를 살펴보면, 우씨 열녀가 태어나고 성장한 의성현 동촌 점지동(東村 店池洞)은 의성에서도 사대 부가 살지 않는 극동(極東) 골짜기였다. 이러한 궁벽한 시골마을에 건문도 없이 절효지용(節孝智勇)(절개, 효, 지혜, 용기)을 겸비한 우열녀의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으며, 하늘에서 타고난 열녀라고 크게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우열녀의 모든 행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우열녀의 행적이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널리 미풍양속을 권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신씨 가문의 이러한 효행의식이 신덕함의 『禹烈女傳』 집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慶尙道邑誌』의성현 인물조를보면 모두 54명(고려13명, 조선 41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신덕함 가계의 인물로서 모두 10명이나 수록되어 있다.

申元祿(祐 후손), 申之悌(祐 후손), 申達道(元祿의 孫子), 申悅道(達道の 아우), 申弘望(之悌의子), 申圭(達道の子), 申適道(효자 元祿의 孫子), 申在(修撰 達道の 아들), 申瑠, 申濂(修撰 達道の 曾孫)이 그들이다. 그리고 효자조에 신원록, 신휴석이 실려 있다. 따라서 신덕함의 집안인물이 읍지에 많이 등장함으로써 의성현에서의 아주신씨의 영향력과 아울러 신덕함의 가문이 의성지방에서 명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작가 신덕함의 저술 동기를 살펴보면, 우씨 열녀가 태어나고 성장한 의성현 東村 店池洞은 의성에서도 사대부가 살지 않는 極東 골짜기였다. 이러한 궁벽한 시골마을에 건문도없이 節孝智勇(절개, 효, 지혜, 용기)을 겸비한 우열녀의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으며, 하늘에서 타고난 열녀라고 크게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우열녀의 모든 행실을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우열녀의 행적이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널리 미풍양속을 권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禹烈女傳』은 숙종 20년(1694)에 申德函(1656~1730)에 의해 쓰여졌다. 『禹烈女傳』에는 우열녀의 출생과 성장배경, 결혼 초의 시집생활, 도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졸지에 과부가 된 과정, 군인이 영발의 청혼과 협박, 이웃부인의 개가 권유와 우열녀의 강한 수절 의지, 이영발의 집 마당에서의 자결 시도와 소생 등이 매우 생생하게 서술되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작자 申德函은 우열녀가 궁벽한 시골마을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견문도 없이 절개, 효, 지혜, 용기를 겸비한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하여 우열녀의 행적이 문혀 사라지지 않도록 우열녀의 모든 행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던 것이다.

우열녀의 삶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열녀의 이름은 말질진(末叱眞)으로 효종 8년(1657) 경상도 의성현 동촌 점지동(慶尙道義城縣 東村 店池洞)이라는 궁벽한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나이 21 세 때인 숙종 3년(1677)에안동인 김덕립(金德立)과 결혼하였다. 시부모님 으로부터 우리 賢婦라는 칭찬을 받으며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숙종 9년(1683) 어느 날 도적이 갑자기 들어와 남편이 도적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열녀는 맨몸으로 칼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고자 했으나 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남편은 죽고 혼자 살아남게 되자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만류로 죽지를 못하고 수절(守節)하게 되었다. 그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뒷날을 기약하며 이별하고, 어린딸을 데리고 친가로 돌아와 품팔이 생활을 하며 늙고 병환중인 부친 莫卜을 봉양하였다. 그러던 중 흠아비군인 李永發이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여 청혼하였다. 이웃부인이 달래어 개가를 권유했으나 우열녀는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영발은 열녀의 승낙을 받지 못하자 가족과 친족 그리고 이웃에게 까지 협박하였다. 이에 부친 莫卜과 이웃사람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우열녀는 청혼을 승낙하고 영발의 집으로 갔다. 영발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추상같은 꾸짖음과 이어서 영발이 차고 있던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소생하였다. 우열녀는 비록 자결함에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써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烈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절개와 용기를 겸비한 하층민 열녀

우열녀의 이름은 말질진(末叱眞)이다.

1657년(효종 8) 경상도의성현(義城縣) 동촌(東村) 점지동(店池洞)이라는 궁벽한 시골마을에서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21 세 때 안동인 김덕립(金德立)과 혼인하였다. 시부모로부터 “우리현부(賢婦)”라는 칭찬을 받으며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1683년(숙종 9) 어느 날 갑자기 침입한 도적의 칼에 남편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때우열녀는 맨몸으로 칼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고자 했으나 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 후 남편이

죽자 밤낮으로 호곡하며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으나 가족들의 만류로 그러지 못하고 수절(守節)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이별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친가로 돌아왔다. 친정에서는 품팔이 생활을 하며 늙고 병환 중인 아버지 막복(莫卜)을 봉양하였다.

우열녀는 어려운 생활환경 속에서도 노부(老父)와 계모를 잘 봉양한 효녀였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인편이 있으면 반드시 안부를 물었고, 문안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보내드렸다.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 제사도 정성껏 지낸 효부였다.

그러던 중 홀아비 군인 이영발(李永發)이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여 청혼하였다. 이웃 부인도 개가(改嫁)를 권유했으나 우열녀는 “사람이금수(禽獸)와 다른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한 번 같이하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라며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개가가 문제되지 않는 하층민 신분임에도 투철했던 우열녀의 수절의지는 17세기 후반에 이미 양반층 여성의 열(烈)의 윤리가 서민층 여성에게까지 보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영발은 승낙을 받지 못하자 가족과 친족, 이웃까지 협박하였다. 아버지 막복과 이웃사람들은 곤경에 처하였다. 결국 우열녀는 청혼을 승낙하고 영발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추상 같은 꾸짖음에 이어 영발이 차고 있던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소생하였다. 우열녀는 비록 자결에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열행(烈行)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694년(숙종 20)에 ‘우열녀전(禹烈女傳)’을 지은 신덕함(申德涵·1656~1730)은 우열녀의 행실이 완비되었다고 크게 칭찬하였다. 우열녀가 궁벽한 시골마을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건문도없이 절개, 효, 지혜, 용기를 겸비한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우열녀전’에는 출생과 성장 배경, 결혼 초의 시집 생활, 도적의 침입으로 남편이 죽고 졸지에 과부가 된 과정, 군인 이영발의 청혼과 협박, 결혼 독촉과 거짓말, 이웃부인의 개가 권유와 이에 대한 저항과 수절 의지, 이영발의 집 마당에서의 자결 시도와 소생 등이 매우 생생하게 서술되어 있다.

조선후기 신덕함(申德函)은 경상도 의성현에 살았던 우소사(禹召史)에 대한 기록을 우열녀전(禹烈女傳)으로 남겼는데 내용은 이렇다.

우열녀의 이름은 말질진(末叱眞)이다.

효종때 의성현 동촌 점지동(店池洞)이라는 궁벽한 시골마을에서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21 세 때 안동인 김덕립(金德立)과 혼인하였다.

시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칭찬을 받으며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숙종 9년 어느 날 갑자기 침입한 도적의 칼에 남편이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때 우열녀는 맨몸으로 칼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고자 했으나 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 후 남편이 죽자 밤낮으로 호곡하며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으나 가족들의 만류로 그러지 못하고 수절하게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이별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친정에서는 품팔이 생활을 하며 늙고 병환 중인 아버지 막복(莫卜)을 봉양하였다.

우열녀는 어려운 생활환 경속에서도 노부와 계모를 잘 봉양한 효녀였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면서도 인편이 있으면 반드시 안부를 물었고, 문안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보내드렸다.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제사도 정성껏 지낸 효부였다.

그러던 중 홀아비 군인 이영발(李永發)이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다가 더디어 청혼을 하였다.

이웃 부인도 개가를 권유했으나 우열녀는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것은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한 번 같이하면 종신토록 고치지 않는 것 입니다"라며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개가가 문제되지 않는 하층민신분임에도 투철했던 우열녀의 수절 의지는 17세기 후반에 이미 양반층 여성의 열녀 윤리가 서민층 여성에게까지 보급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영발은 승낙을 받지 못하자 가족과 친족, 이웃까지 협박을 하여 아버지 막복과 이웃사람들은 곤경에 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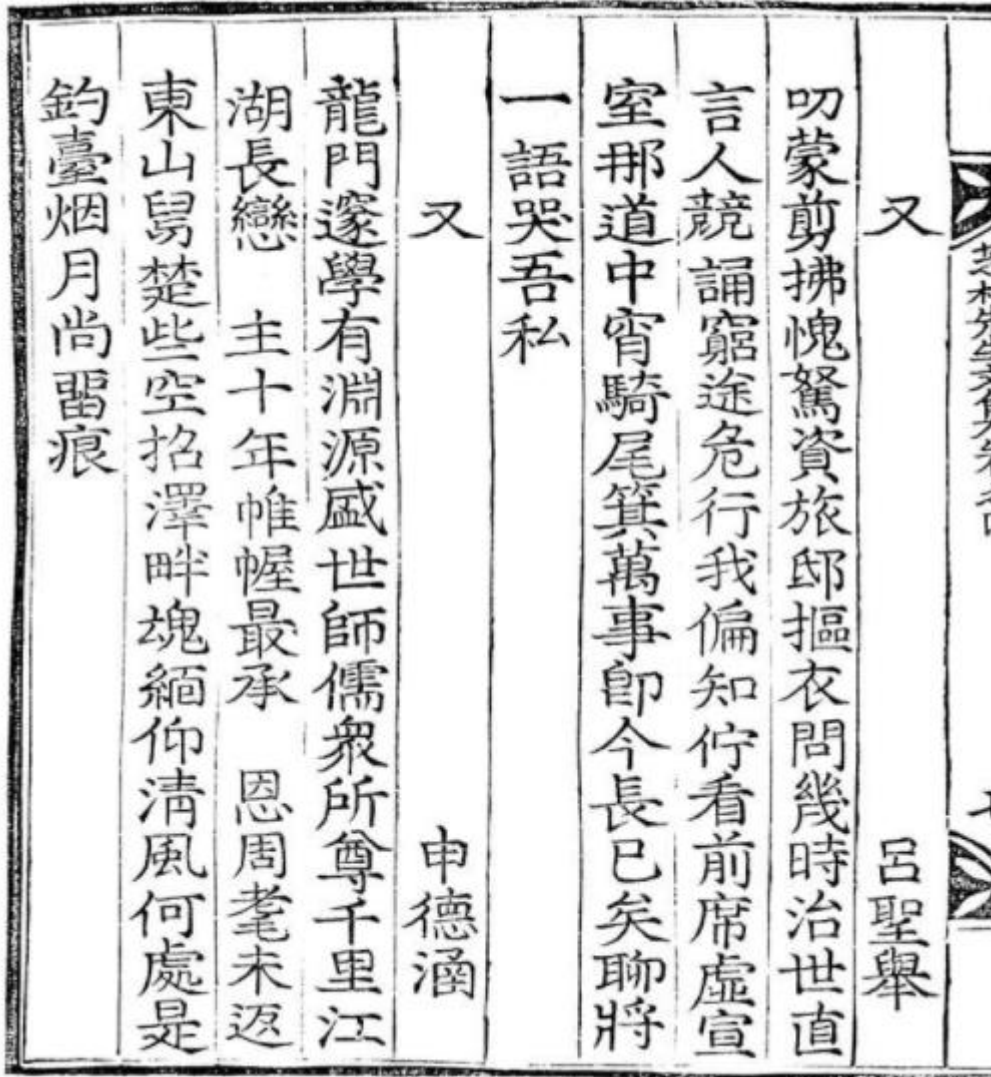
결국 우열녀는 청혼을 승낙하고 이영발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추상같은 꾸짖음에 이어 이영발이 차고 있던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우열녀는 비록 자결에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열행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송천자독오록(松川子獨娛錄)

해제



『지촌선생문집』은 조선후기 문신인 김방걸(金邦杰 ; 1623~1695)의 시문집이다. 김방걸의 자는 사흥(士興), 호는 지촌(芝村), 본관은 의성(義城)이다.

이 책은 1865 년(고종 2)에 간행되었다. 문집에 실린 시는 담백하고 고풍이 있다고 평하여지며 대동법을 둘러싼 폐해와 백성들의 궁곤한 실정을 자세하게 진언한 「사대사간소(辭大司諫疏)」 등등이 있다.

김방걸은 1660 년(현종 1)년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정자(承文院正字)에서 평안도사 등의 내·외직의 관직을 두루 거쳐 병조정랑을 하고는 관직에서 물러난다. 이후 다시 등용되어 사간(司諫)까지 관직이 올랐으나 다시 사퇴하고 귀향하였다. 1694 년 당쟁에 의하여 동복(同福)으로 귀양갔으며 다음해에 유배지에서 병사하였다.

죽봉집(竹峯集)

저자정보

김간(金侃)

자 : 사행(士行) / 호 : 죽봉(竹峯) / 성씨 : 김(金)

김간(金侃)

1653~735(효종 4~영조 11). 字:士行, 號:竹峯, 本貫:豊山, 父:弼臣, 母:禮安 李氏, 居:安東.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백부의 집에서 자랐다. 孤山 李惟禕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1693년(숙종 19)에 성균관에 진학하였다. 1701년(숙종 27)에 沙溪 金長生(1548~1631)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의론이 호남 유림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영남의 유생들을 이에 저항하여 상소를 하였고 이 때 저자는 疏首로 활약하였다. 상소는 관철되지 못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 집권세력의 미움을 받아 光陽으로 유배되었다가 2년 후 방환되었다. 이 때 유배지에서 읍은 회포를 정리하여 蟾津唱酬錄을 남겼다.

1710년(숙종 36) 廣慶 文科에 급제하여 典籍에 제수되었다. 조정의 사대부들은 公輔의 그릇이라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그의 전력으로 인하여 현직에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작은 벼슬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의를 다하였으며, 특히 황산역 찰방이 되어서는 직접 병영으로 다니면서 구휼미를 융통하여 진휼에 힘쓰는 등 선정에 힘썼다. 사헌부 主簿, 예조의 좌랑과 정랑의 벼슬이 내려졌으나 숙종의 승하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이후 竹峯 아래에서 독서와 수양으로 세월을 보냈으며, 蒼雪齋 權斗經, 密庵 李裁, 滄浦 羅學川, 玉川 趙德麟, 北溪 安鍊石, 東厓 李浹 등과 가깝게 교유하였다.

1728년(영종 4) 무신란(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柳升鉉을 대장으로 삼아 거의하였다. 성균관 司藝, 병조 정랑·장령 등이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후 나이 80이 되어 호군이 제수되었고 곧 장례원 판결사로 옮겨 제수되었으나 늙어서 모두 나아가지 못하였다. 1735년(영조 11)에 죽었다. 후에 사림들은 洛淵서원에 제향하였다.

해제

죽봉집(竹峯集)

竹峯 金侃의 문집. 4권 2책. 석인본.

서문은 李祥鎬가 썼고 발문은 저자의 10대손 憲在가 썼다. 일찍이 저자의 후손 宗鐸(號 畏厓, 1757~1812)이 약간의 시문과 부록을 수습하고 간찰과 잡저를 세의가 있는 여러 집안에서 찾아내었으나 간행에 이르지 못하였고, 저자가 죽은 지 2백여 년이 지난 후 저자의 10대손 憲在(字 公斌, 1897~?)와 그의 삼종숙 靑燮이 주도하여 1961년경에 간행하였다.

책의 말미에 있는 金憲在의 발문은 신미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서발을 종합해 볼 때 신축년(196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서문 다음에는 저자의 世系圖가 있는데 시조인 고려 判相事 文迪으로부터 30세 淵자 항렬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 문집은 상소, 문과급제, 유배, 의병 등 저자의 왕성한 정치적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저자가 疏行 길에 나설 때 받은 시가 여러 수 있다. 柳後光, 삼종제 佶, 즉숙 禧壽, 南圖翎이 썼다. 또한

저자가 죄를 받아 유배지로 갈 때 받은 시도 있다. 柳敬時, 李基命, 權可徵이 썼다. 이 문집을 통해 소행 길을 떠나거나 유배를 떠날 때 시를 주고받는 등 당시 선비 사회의 관행을 알 수 있다.

○ 光陽謫行日記(光陽謫行日記)

1701년(숙종 27) 호남유림을 중심으로 沙溪 金長生을 문묘에 배향하자는 의론이 제기되었을 때, 저자가 疏首가 되어 반대 상소를 하였다. 그러나 이 일로 집권세력의 미움을 받아 光陽으로 유배되었다가 2년 후 방환되었다. 이 내용을 1701년 1월 21일 상소를 올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부터 10월 5일 유배지인 光陽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을 서술한 일기이다. 1700년 10월 호남 유생 崔雲翼 등이 상소하여 김사계의 문묘 종사를 청하였고, 임금은 해당 부서에서 품의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내렸다. 11월에 안동 사람들은 도내에 통문을 돌려 醴泉에 소청을 설치하였다. 막중한 소수의 임무가 저자에게 맡겨졌다. 누차 사양했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소청을 안동부로 옮겨왔다. 1701년 1월 21일 역할을 나누어 맡겼다. 掌議는 진사 南楚衡·南圖翎이고, 疏本은 진사 安鍊石이 지었으며, 寫疏는 진사 鄭天周이 맡았다. 2월 11일 疏行이 출발하였다. 醴泉, 龍宮, 尙州 등을 거치면서 각각 4.5일 머물렀다. 충주에 이르렀을 때 次墜이라는 사람이 있으므로 누군지를 물으니 행중 하인이 이르기를 말이 발을 절어 돈을 주고 고용한 역졸이라고 하였다. 連源 督郵는 沙溪의 손자 金普澤이었다. 따라서 連源 땅에 들어서는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였다. 어떤 사람은 김보택이 과거에 부리던 역졸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운반하게 한 것이 후일 무고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다. 행중에서 돈 4전과 식량을 주어서 돌려보냈다. 이날 정오에 한 유생이 말을 다치게 하였는데, 일행은 크게 나무랄 생각이 없었으나 공무원이 그 유생의 노비를 심하게 매질하였다. 그 유생은 충주의 朴虎山이었다. 서울에 도착하여 상소문을 올리고 7일이 지났지만 끝내 임금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정원에서는 상소를 올리지 말라는 명이 있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다. 봄기운이 아직은 찬데 대궐문을 지키고 있던 40여 선비들은 분기가 날로 격화되어, 별도로 하나의 상소문을 작성하였는데 安補天이 짓고 金贍仲이 옮긴 것이었다. 언어가 극히 준엄하여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서울의 선비들이 와서 보고 탄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원래의 상소를 그 아래에 붙여서 제출하였다. 정원에서는 이 때문에 분노하였고 비로소 계문하여 엄중히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저자와 안보천은 이미 견책의 대상으로 지목되었고 과거 응시도 정지되어 있었다. 疏行이 파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김사계의 손자 김보택은 소행시에 安富, 丹月, 可興 3개 역의 말을 마음대로 타고 갔다고 하여 사헌부에 무고하였다. 앞의 박호산 또한 자신의 노비가 매를 맞는데 앙심을 품고 이를 중용하였다. 전라도관찰사 李震休는 조사관을 陰城에서 정했지만 변핵을 하기도 전에 대관 鄭維漸은 전라도관찰사를 추고하여 그가 마음대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견책하고 조사관을 충주에서 정하였다. 이 조사에서 세 군데 역장을 잡아와서 매질을 심하게 하고 추핵하여 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진술을 하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상소한 유생들이 비록 말을 마음대로 사용한 일이 없다고 하지만, 영남의 상소에 대한 책임이 있고 말의 문제도 폐단이 크므로 소수는 유배에 처하여 경계로 삼아야.....” 라고 보고하였다. 당시 조금이라도 공론을 아는 자는 이 계문이 근거가 없다고 여겼으므로 1년이나 미루어 두고 거행하지 않았다. 김사계의 손자 蔞塚가 승지가 되자 이것을 빨리 거행하고자 하여 임금께 계문하였고 윤허를 받아냈다. 8월 24일 안동부의 사림이 모두 집결하였으나 3천

리 유배가 정하여졌고, 배소는 光陽이었다. 9월 22일 출발하였다. 인근 향교와 서원 및 안동부의 향교에서 관례에 따라 전별하였다. 원근의 사우들은 날마다 방문하여 전별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9월 22일 阿谷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다. 진사 權昌運·南楚衡, 친구 金龜錫·全命相·金宅安·金俠·金碩煥, 조카 瑞玉 등이 찾아와 전승하였다. 23일 軍威 南溪書院에 도착하였다. 본현의 洪處貞·李克裕 등 10여 명이 찾아왔고, 진사 金履達과 함안의 李命錫이 찾아와서 만났으며, 진사 申德涵은 편지를 보냈다. 24일 仁同에 이르렀다. 진사 張大臨·張大方, 친구 張弘聖 등이 찾아왔다. 25일 石田에 이르렀다. 李參판의 상사에 조문하였다. 진사 李景玉을 만나서 梅院으로 갔다. 좌랑 李周命 3형제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兀山에 유숙하였는데, 밤에 石田 梅院의 벗들이 찾아와서 함께 잤다. 26일 이어서 兀山에서 유숙하였다. 新卿형제와 景玉·尹蔡 등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鄭門의 사우들이 모두 모였다. 오후에 군위에 사는 숙부의 부음을 듣고 통곡하였다. 27일 아침을 먹고 출발하여 霞牧에 도착하였다. 뱃머리에서 친구 鄭順齡·金世鑄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생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 심사를 이루 말할 수 없다. 鄭時杰·奎齡·斗齡 등이 돌아가고, 저녁에 星州 땅 九零洞에서 유숙하였는데 鄭鳳齡과 함께 잤다. 28일 아침에 高靈에 도착하였다. 낮에 郭靑命을 방문하고 저녁에 陝川 蘓陽역에 유숙하였다. 29일 아침에 출발하여 涵碧樓와 煙湖寺를 둘러보았다. 저녁에 丹城 爭鵝里에서 잤다. 진사 權繼亨·汝善형제가 찾아와서 만났다. 이 친구들은 참의 權濤의 증손이며 石田 李參판의 생질이다. 나에게 詩를 지어 주었다. 10월 1일 아침을 南沙橋에서 먹고 저녁에는 大仁川에서 유숙하였다. 친구 金聖運이 병이 들었다고 하므로 집안 아이를 보내 문병하게 하였다. 2일 아침에 출발하여 비를 무릅쓰고 섬진강에 있는 安補天의 舍館에 도착하였다. 補天이 먼저 유배를 받고 와 있었다. 補天은 저자와 함께 누차 倡疏하여 집권층의 미움을 받아왔고, 금년 봄에는 東宮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를 올려 물의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방백 崔錫恒의 노력으로 유배에 그쳤다. 5월에 光陽에 유배되어 왔다. 그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새벽닭이 우는 줄도 몰랐다. 3일 본현에 도착하였다. 主倅는 鄭相胄로서 순천에 가고 오지 않았다. 徐蓋龜의 집에 유숙하였는데, 남쪽으로 귀양 온 사람이 머무는 집이었다. 이미 補天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그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나보니 듣던 것보다 좋은 사람이었다. 한번 만나서 바로 친구처럼 되어, 尹孤山·李葛菴 두 원로가 이곳에 귀양 왔을 때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다 친한 사이였고 양가의 일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玉室의 李俊老·俊成 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光州의 직파로서 저자에게는 11촌 조카가 되었다. 4일 徐蓋龜의 집에서 잤다. 5일 主倅가 비로소 왔다. 關文을 제출하고 들어가 만났다. 主倅는 비록 정답게 대해 주지는 않았지만 딱딱하지도 않았다. 玉室에서 밤에 섬진강으로 돌아와 裴潤의 집에 舍館을 정하였다. 이 집은 補天이 머무는 집 주인의 형의 집이었다. 두 집은 울타리로 막혀 있었고 서로 상종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불편함은 개의치 않았다. 순천에 사는 丁時潤과 그의 아들 道濟이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였다. 補天이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첨지 金正遠과 金相은 재종친으로서 일 때문에 이곳에 오면 찾아오니 위로가 되었다. 도청별장 李後說 역시 金相과는 표종간이어서 때때로 고기반찬을 장만하여 방문하였다. 비록 처음 유배 생활을 하지만 補天이 이곳에 온지 오래되어 여러 방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없게 되었으니 다행스럽다. 대개 섬진강은 백운산과 두류산의 중간에서 영호남을 잇는 산맥의 남쪽에 있으며 花開의 경승지로서 동방에서 으뜸이다. 이곳에 있으면서 詩를 읊지 않을 수 없으니, 날마다 補天과 더불어 酬唱하였다.

[항재집\(恒齋集\) / 항재선생문집 권지육\(恒齋先生文集 卷之六\) / 附錄\(附錄\)](#)

저자정보

이승일(李嵩逸)

자 : 응중(應中) / 호 : 항재(恒齋) / 성씨 : 이(李)

1631~1698(인조 9~숙종 24). 字:應中, 號:恒齋, 本貫:載寧, 父:時明, 母:安東張氏.

1631년(인조 9) 寧海府 仁良里에서 태어났다. 과거 공부에 뜻을 두지 않고 형인 存齋 李徽逸·葛庵 李玄逸과 더불어 학문에 힘썼다. 초야에 있었지만 항상 국가를 잊지 않았다. 그리하여 旱災로 인해 구언할 때(1668년)에는 6條의 상소문을 지었는데, 災變이 일어나는 것은 천지의 기운이 불순하기 때문이며, 천지의 기운이 불순한 것은 人事가 失策했기 때문이니, 옛날의 明君은 재변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며 스스로 몸을 닦고 言路를 열어 天心에 합할 방법을 모색하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재변을 없애고 나라의 안정을 유지했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 임금이 덕을 닦고, 어진 인재를 구하여 책임을 맡기고, 백성의 산업을 장려하고, 학교를 중수하고, 公道를 숭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찰사의 저지로 진달되지 못하였다. 1672년(현종 13)에 仲兄 李徽逸의 상을 당하였다. 그 해 겨울, 부친이 大明洞으로 移居하였다. 1674년(현종 15) 8월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이후 英陽郡 石保로 돌아와 선친의 遺址에 집을 짓고 堂號를 '恒齋'라 하고 臺名을 '樂飢'라고 하였다. 1679년(숙종 5) 易에 밝은 자를 뽑아 천거하라는 조정의 명에 따라 兄 李玄逸과 함께 천거되었으나 사양하였다. 1689년(숙종 15) 한국 이후 陵署郎에 여러 차례 의망되었다. 1690년(숙종 16)에 翊衛司洗馬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91년(숙종 17) 經學과 行義로 천거되어 翊衛率이 되었고, 얼마 뒤 掌樂院主簿가 된다. 1692년(숙종 18) 宜寧縣監이 되었다. 1693년(숙종 19) 應旨上疏를 올려 君德을 권면하고, 흉년이 들어 내지 못한 庚午年(1690)의 逋欠을 탕척할 것,各司에 소용될 木品을 받아들일 때 胥吏들의 농간을 방지할 것,各司에 貢納하는 물품 가운데 들어 있는 人情木이라는 명목의 뇌물을 폐지할 것 등을 청하였다. 1694년(숙종 20) 한국이 일어나자 兄인 葛庵은 鍾城에 유배되고, 저자는 파면되어 귀향하였다. 1698년(숙종 24) 68세를 일기로 石村의 別墅(廣麓書堂)에서 졸하였다.

해제

항재집(恒齋集)

恒齋 李嵩逸의 시문집. 원집 6권 3책, 속집 2권 1책. 목판본.

저자의 詩文은 조카인 密庵 李裁가 수집하여 2책으로 淨寫하여 家藏해 왔다. 그 뒤 저자의 玄孫 李宇根이 密庵의 手寫本을 바탕으로 삼고 이후에 수집한 것을 덧붙여서 6권 3책으로 1824년(순조 24)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그 후 7세손 李秀榮이 수집하여 續集 한 부를 편성하였고, 李壽昇과 李鉉塚가 원집을 재판할 때 속집 2권 1책을 함께 간행하였다. 李堉의 序文을 수정하여 전체를 改刻하였고, 卷3의 書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上存齋兄問目」, 「上存齋兄」, 「上葛庵兄問目」을 각기 「答存齋兄」, 「答存齋兄」, 「答葛庵兄」으로 제목을 손질하여 改刻하였다. 초간본 서문과 재판본 서문의 차이점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으로 저자가 宜寧縣監에서 물러난 일을 두고 초간본에서는 “병환이 있어서 돌아왔다.”고 하였고, 재판본에는 “時事가

갑자기 변하여 동쪽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

원집 卷 1 의 시는 詩體別로 편집되어 있다. 疏는 1668 년에 지은 「擬應旨疏」와 1693 년 겨울에 지은 「應旨疏」인데, 앞의 것은 時事의 失政에 대해 논하라는 임금의 下敎에 응해서 쓴 6 條目的 上소문이다. 그러나 관찰사의 저지로 올리지 못했다. 災變이 일어나는 것은 천지의 기운이 불순하기 때문이며, 천지의 기운이 불순한 것은 人事가 失策했기 때문이니, 옛날의 明君은 재변이 일어나면 두려워하며 스스로 몸을 닦고 言路를 열어 天心에 합할 방법을 모색하였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재변을 없애고 나라의 안정을 유지했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 임금이 덕을 닦고, 어진 인재를 구하여 책임을 맡기고, 백성의 산업을 장려하고, 학교를 중수하고, 公道를 숭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뒤의 것은 宜寧縣監으로 재임할 때에 올린 것으로서, 時政의 失策과 백성의 폐단을 직언하라는 하교에 응대한 상소이다. 흥년이 들어 내지 못한 庚午年(1690)의 逋欠을 탕척할 것,各司에 소용될 木品을 받아들일 때 胥吏들의 농간을 방지할 것,各司에 貢納하는 물품 가운데 들어 있는 人情木이라는 명목의 뇌물을 폐지할 것 등을 청한 내용이다. 卷 2~3 은 書이다. 權世矩에게 보낸 答書는 『近思錄』에 대한 問目에 답한 것이고, 鄭萬陽 형제에게 보낸 答書는 『家禮』에 대한 問目에 답한 것이다. 卷 3 에는 存齋, 葛庵 및 조카 李穡, 李裁에게 보낸 편지 22 편이 실려 있다. 卷 4 는 箴·銘·雜著가 실려 있다. 四端七情에 대한 栗谷 李珥의 이론을 비판한 「書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後」, 敬堂 張興孝의 「一元消長圖」를 고친 「一元消長圖改本」과 고치게 된 전말을 기록한 「一元消長圖改本後敘」가 있다. 「興霖山記」는 1661 년 7 월에 지은 것으로 흥림산은 永川의 북서쪽에 있는데, 예부터 '黑林'이라 불리던 것을 趙子體가 산 북쪽에 집을 짓고 산의 變態를 관찰하여 '興霖'으로 개명하였다. 이에 대해 개명하게 된 전말을 적은 것으로 흥림의 실질이 없더라도 주인의 賢否에 따라 명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卷 6 은 附錄이다. 끝에는 遺墨 4 板이 첨부되어 있다.

속집 卷 1 은 詩와 疏·書로 구성되었으며 시는 역시 시체별로 편집되어 있다. 書는 존재·갈암·밀암 등과 논변한 성리설이 주를 이룬다.

1 [우\(진사신덕함\)\(又\(進士申德函\)\) / 송천자독오록\(松川子獨娛錄\)](#)

[又\(又\) / 지촌선생문집\(芝村先生文集\)](#)

- 2 申德函 龍門邃學有淵源、盛世師儒衆所尊。千里江湖長戀主、十年帷幄最承恩。周毫未返東山鳥、楚些空招澤畔魂。緬仰清風何處是、釣臺烟月尙留痕。

[挽詞\(挽詞\) / 항재집\(恒齋集\)](#)

- 3 李惟樟, 柳楳, 金兌一, 權泰時, 成文夏, 權斗寅, 鄭堯天, 權萬濟, 金愷, 金璠, 權斗經, 趙德鄰, 申德函 등이 지었다.

[光陽謫行日記\(光陽謫行日記\) / 죽봉집\(竹峯集\)](#)

- 4 찾아와서 만났으며, 진사 申德函은 편지를 보냈다. 24 일 仁同에 이르렀다. 진사 張大臨·張大方, 친구 張弘聖 등이 찾아왔다. 25 일 石田에 이르렀다. 李參判의 상사에 조문하였다. 진사 李景玉을 만나서 梅院으로 갔다. 좌랑 李周命 3 형

又

申德涵

先生早聞道卓然有所立志氣弘而毅言行忠且
確古人以爲期憤不顧流俗既有實見得豈容虛
假爲所學不敢私此心要善推伊余坐孤陋未聞
爲學方師友無所資志業日以荒昨歲真城路晚
識先生面一言便許可指誨何眷眷從公數日遊
知我四十非臨分別有贈佩服期莫違中間繫喪
病無由操几杖文席雖云阻高山實所仰那知一
見餘遽失生平慕儀刑杳難攀淵源無處泝有慟
均善類增傷最小子使公坐廟堂可以斷大事使

17 세기 후반 慶尙道 義城縣의 禹氏 烈女의 삶과 생활 : 申德涵의 『禹烈女傳』을 중심으로

초록

본고는 17세기 후반 경상도 義城縣에 살았던 禹召史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열녀에 대한 기존의 관찬기록의 단편적 내용을 토대로 한 포괄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자료로서 발굴된

禹烈女傳 자료를 중심으로 우열녀 사례의 집중분석을 지향하였다. 禹烈女傳 은 숙종 20년(1694)에 申德涵(1656~1730)에 의해 쓰여졌다. 禹烈女傳 에는 우열녀의 출생과 성장배경, 결혼 초의 시집생활, 도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졸지에 과부가 된 과정, 군인 이영발의 청혼과 협박, 이웃부인의 개가 권유와 우열녀의 강한 수절 의지, 이영발의 집 마당에서의 자결 시도와 소생 등이 매우 생생하게 서술되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작자 申德涵은 우열녀가 궁벽한 시골마을에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견문도 없이 절개, 효, 지혜, 용기를 겸비한 행실은 옛 열녀보다 뛰어났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하여 우열녀의 행적이 문혀 사라지지 않도록 우열녀의 모든 행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던 것이다. 우열녀의 삶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열녀의 이름은 未叱眞(進)으로 효종 8년(1657) 慶尙道 義城縣 東村 店池洞 이라는 궁벽한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딸로 태어났다. 나이 21세 때인 숙종 3년(1677)에 안동인 金德立과 결혼하였다. 시부모님으로부터 우리 賢婦라는 칭찬을 받으며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숙종 9년(1683) 어느 날 도적이 갑자기 들어와 남편이 도적의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열녀는 맨몸으로 칼을 무릅쓰고 남편을 구하고자 했으나 같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남편은 죽고 혼자 살아남게 되자 굶어서 따라 죽고자 했다. 그러나 가족들의 만류로 죽지를 못하고 守節하게 되었다. 그 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어머니와 뒷날을 기약하며 이별하고, 어린 딸을 데리고 친가로 돌아와 품팔이 생활을 하며 늙고 병환중인 부친 莫卜을 봉양하였다. 그러던 중 홀아비 군인 李永發이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여 청혼하였다. 이웃부인이 달래어 개가를 권유했으나 우열녀는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영발은 열녀의 승낙을 받지 못하자 가족과 친족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협박하였다. 이에 부친 莫卜과 이웃사람들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우열녀는 청혼을 승낙하고 영발의 집으로 갔다. 영발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추상같은 구짚음과 이어서 영발이 차고 있던 칼로

자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소생하였다. 우열녀는 비록 자결함에 실패하였지만 죽음으로써 강하게 저항함으로써 그 烈行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작자 申德函에 대한 소개와 저술동기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禹烈女傳 자료를 통하여 우씨 여성의 열녀로서의 삶과 생활을 생생하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목차

17세기 후반 경상도 의성현의 우씨 열녀의 삶과 생활 : 신덕함의 『우열녀전』을 중심으로 / 朴珠 1

요약 1

I. 머리말 4

II. 작자 신덕함 소개 및 저술 동기 7

III. 『우열녀전』의 내용 12

1. 결혼과 남편의 죽음 12

2. 수절과 개가 권유 16

3. 자결의 시도와 소생 25

IV. 작자의 우씨 열녀에 대한 평가 28

V. 맺음말 31

참고문헌 34

Abstract 36

참고문헌

1. 1694『禹烈女傳』, 필사본 申德函,
2. 『不忘記』, 필사본
3. 고려사(高麗史). 정인지,

4.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5.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李荇 外 ,
6. 慶尙道邑誌
7. 輿地圖書.
8. 『義城縣誌』
9. 『悔堂集』(『退溪學資料叢書』11, 1998,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편, 법인문화사) 申元祿,
10. 『晚悟集』(『退溪學資料叢書』25, 1998,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편, 법인문화사) 申達道, 『剛窩集』
任必大,
12. 川沙集 金宗德,
13. 『韓國人の 族譜』, 1977, 일신각
14.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이혜순(김경미),
15. 2002『조선시대의 열녀담론』, 월인. 이혜순 외,
16. 『향량, 산유화로 지다』, 풀빛, 2004. 정창권,
17.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이재정 옮김, 예문서원, 1999. 田汝康,
18. 1990, [朝鮮時代の 旌表政策], 일조각. 박 주,
19. 2000, [朝鮮時代の 孝와 女性], 국학자료원. 박 주,
20. Widows' Another Choice (2002) 정지영 역사와 문화 유 향저(이숙인), "列女傳 : 중국 고대의
106 여인 이야기", 예문서원, 1996
22. 「조선초기 종법의 수용과 여성지위의 변화」, 한중연 박사논문, 1995. 이순구,
23. 한국고문서학회 ,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24. 한국고문서학회, 2000,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5. 『朝鮮後期閱閱研究』 (一潮閣 , 1997) 車長變,
26.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1997) 장병인 저 인문학 57회 피인용
27. 儒敎社會의 創出: 조선중기 상속제와 입양제의변화, 일조각, 2000 마크 피터슨 저, 김혜정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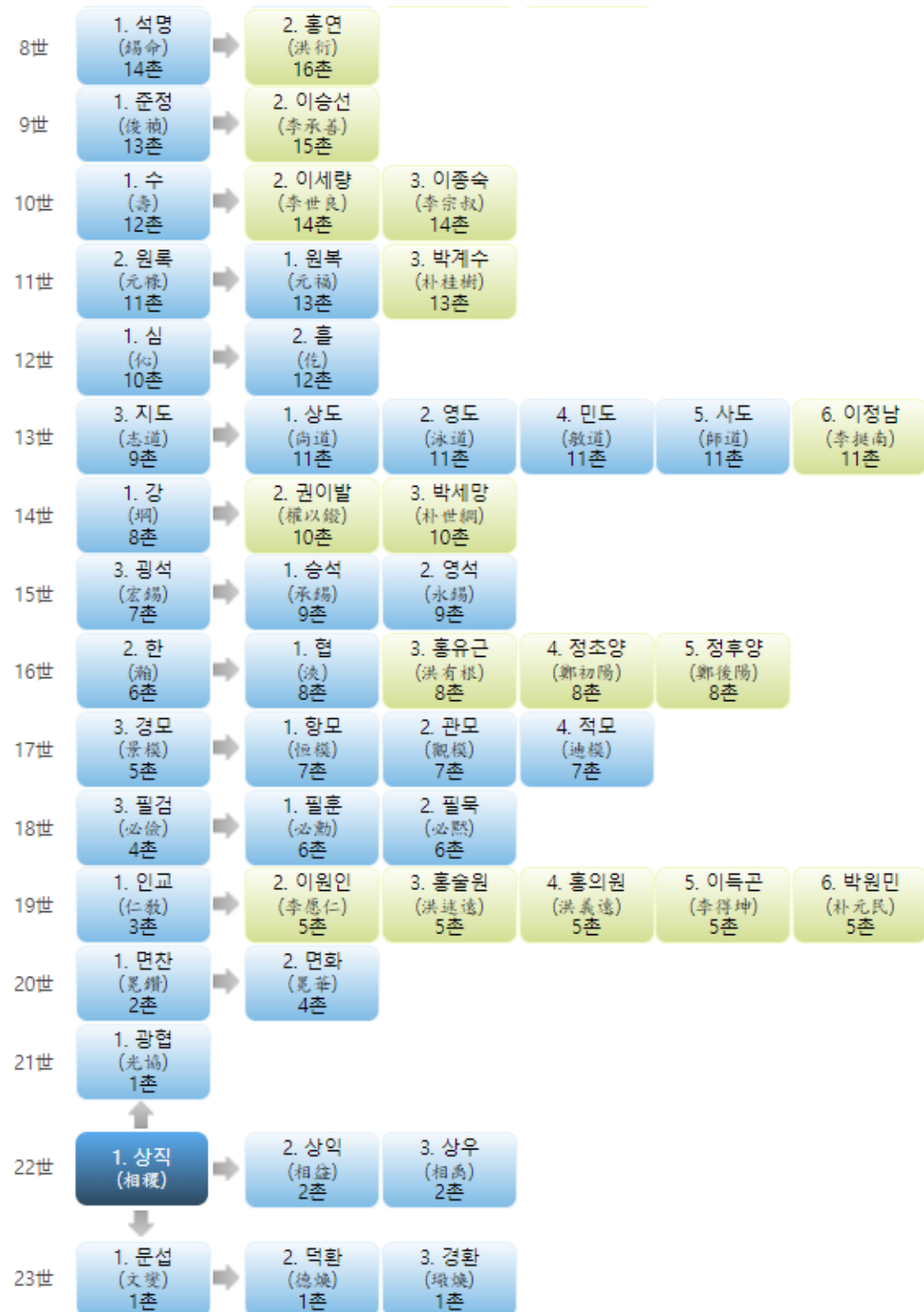
28. 2003.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이훈상역 아카넷. 도이힐러 , 마르티나 (Deuchler, Martina).
29. "한국 역사 속의 여성들", 어진이, 2005 이배용,
30. 2006, 『고려의 혼인제와 여성의 삶』, 혜안 권순형,

농헌문집(農軒文集) 신상직(申相稷)

22世 상직(相稷)

父 : 광협(光協) 祖父 : 면찬(冕鑽)

읍파(邑派)삼백당공파(三栢堂公派)



신상직(申相稷)

字:舜佐 號:農軒

丁丑四月二十七日生師事茶山郭悅宇先生世以孝行錄之有遺集岳川先生文集序農軒文集族姪翼煥序三栢堂府君遺事先考兩松堂遺事壬辰十一月二十日卒◎墓鳳陽面高山天池祖妣塋下壬坐豐川任台淳撰碣文有碣柱床石

자:순좌 호:농헌

정축사월이십칠일생사사차산곽탈우선생세이효행록지유유집부천선생문집서농헌문집족질익환서삼백당부군유사선고양송당유사임진십일월이십일졸◎묘봉양면고산천지조비영하임좌풍천임태순찬갈문유갈주상석

農軒文集



표제/저자사항農軒文集 / 신상직

발행사항[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976

형태사항전자자료(Image)TIFF3 卷1 冊(134 張): 四周雙邊 半郭 19.5 x 14.8 cm, 有界, 10 行 20 字 註雙行, 內向 2 葉花紋魚尾; 28.5 x 12.2 cm

주기사항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이용가능한 오프라인 자료](#)

표준번호/부호 UCI G701:B-00047972060

분류기호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3648

주제명농헌문집

목차(目次)

표지(表紙) = 0

서(序) = 1

목록(目錄) = 5

권지일(卷之一) = 17

시(詩) = 17

서(書) = 42

논설(論說) = 81

권지이(卷之二) = 139

책(策) = 139

서(序) = 153

기(記) = 164

발(跋) = 173

유사(遺事) = 178

상량문(上樑文) = 193

제문(祭文) = 197

권지삼(부록)(卷之三(附錄)) =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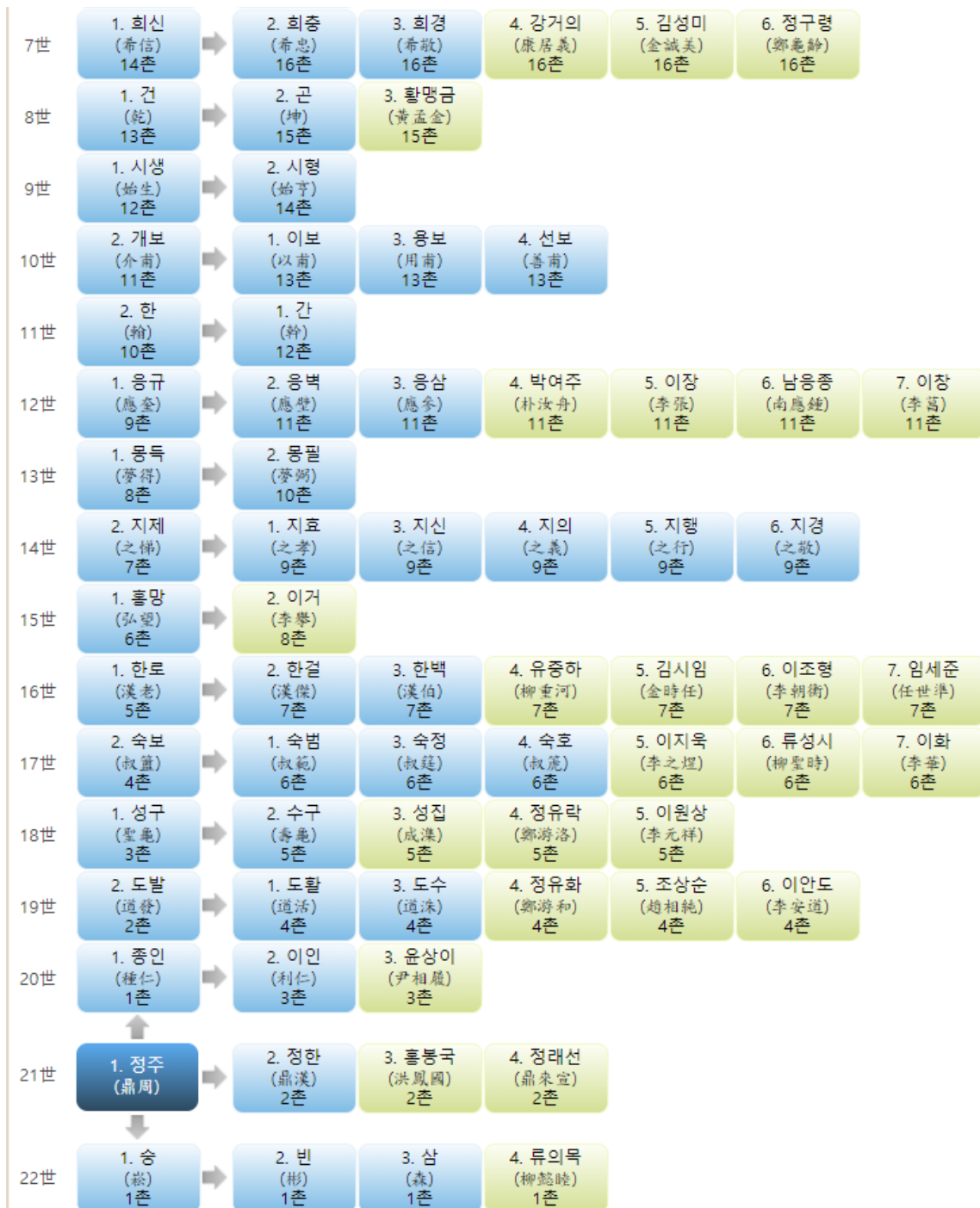
도와집(陶窩集) 신정주(申鼎周)

가계도

21世 정주(鼎周)

父 : 종인(種仁) 祖父 : 도발(道發)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신정주(申鼎周)

항목 ID	GC05200921
한자	申鼎周
이칭/별칭	경백(景伯), 도와(陶窩)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764년 - 신정주 출생
활동 시기/일시	1783년 - 신정주 향시에 급제
몰년 시기/일시	1827년 - 신정주 사망
출생지	신정주 출생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거주 이주지	신정주 이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수학 강학지	옥련사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삼춘리
묘소 단소	신정주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금산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경백(景伯), 호는 도와(陶窩). 신성구(申聖龜)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도발(申道潑)이고, 아버지는 신종인(申種仁)이며, 어머니는 선산 김씨(善山 金氏) 김기대의 딸이고, 부인은 김해 김씨(金海 金氏) 김원묵(金元默)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정주(申鼎周)[1764~1827]는 3~4세에 글을 해독하기 시작해 7~8세에 『통감(通鑑)』, 10세에 『소학(小學)』과 사서(四書), 12세에 삼경(三經)을 읽었다. 1779년(정조 3) 옥련사(玉蓮寺)에서 공부하였으며, 이듬해에는 족부(族父) 신체인(申體仁)에게 수학하고, 정종로(鄭宗魯)의 문하에서도 공부하였다.

1783년 향시(鄉試)에 급제하고, 이어 1809년(순조 9)에는 영남의 명망 있는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 홍여하(洪汝河)가 편찬한 『휘찬려사(彙纂麗史)』 교정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구미[지금의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로 거처를 옮겼다. 이어 1812년 『구장지(龜庄誌)』와 「구미촌 향약(龜尾村 鄉約)」을 지어 주민 교화(教化)에 힘썼다.

만년까지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학문 연구와 향약 실시 같은 향촌 교화에 주력하여 '학행(學行)'으로 고을에서 이름을 높였다.

[학문과 저술]

문장에 능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만록(漫錄)」, 「호서 기행록(湖西 紀行錄)」 등이 6권 3책의 문집 『도와집(陶窩集)』에 전한다.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자경육잠(自警六箴)」과 「암실명(暗室銘)」을 지어 자신의 경계로 삼았으며 『구장지(龜莊誌)』는 지금까지 아주 신씨가 세거하고 있는 구장(龜莊)[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의 지리지이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금산(錦山)에 있다.

[참고문헌]

『도와집(道窩集)』

『조선 환여 승람(朝鮮 寰輿 勝覽)』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도와선생문집(陶窩先生文集).1 - 3

서지사항

시대	조선
저작자	신정주(申鼎周)
창작/발표시기	1863 년(철종 14)
성격	시문집
유형	문헌
권수/책수	6 권 3 책
간행/발행	신조헌(申祖憲), 신휴인(申休仁))
분야	종교·철학/유교
소장/전승	장서각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해제

6 권 3 책. 목판본. 1863 년(철종 14) 그의 제자 신조헌(申祖憲)과 족부(族父) 휴인(休仁)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홍우정(洪宇正)·이정우(李廷佑)의 제발(題跋)이 있다. 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 1 에 시, 권 2·3 에 서·제문, 권 4 에 애사·자사(字辭)·유사·행록, 권 5 에 잠(箴)·명(銘)·서(序)·기·지발(識跋)·상량문·묘표, 권 6 은 잡저와 부록으로 행장·만사·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주로 제영(題詠)·영물(詠物)·수연운(晬宴韻)·만사 등이고, 서(書)는 사사로운 문안편지보다는 학문에 관한 문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경전(經傳)의 훈의(訓義)에 대해 많은 논답(論答)이 있다.

잡저 가운데 「용학도후서(庸學圖後序)」는 대개 이기(理氣)에 관한 논변으로, 그 이론이 명쾌해 경학(經學)을 연구하는 데 훌륭한 자료이다.

잠 가운데 「자경육잠(自警六箴)」과 명 중의 「암실명(暗室銘)」 등은 자신의 나태함을 경계하고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가지는 데 대한 잠계(箴戒)로서 후인들의 규범이 되는 명언들이며, 저자의 조행(操行)과 수양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유해정록(遊海亭錄)」·「유청량산록(遊淸涼山錄)」 등의 기행록은 관람한 주위의 경관을 운치 있게 묘사함으로써 문장이 훌륭하다는 평을 들었는데, 초년에 사장(詞章)에 힘쓰다가 늦게 성리학자인 정종로의 문하에서 이학(理學)을 공부한 저자의 문장과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권호명 : 天

141

目次

表紙 = 0

目錄 = 1

卷之一 = 17

卷之二 = 75

권호명 : 地

151

目次

表紙 = 0

目錄 = 1

卷之三 = 11

卷之四 = 105

권호명 : 人

151

目次

表紙 = 0

目錄 = 1

卷之五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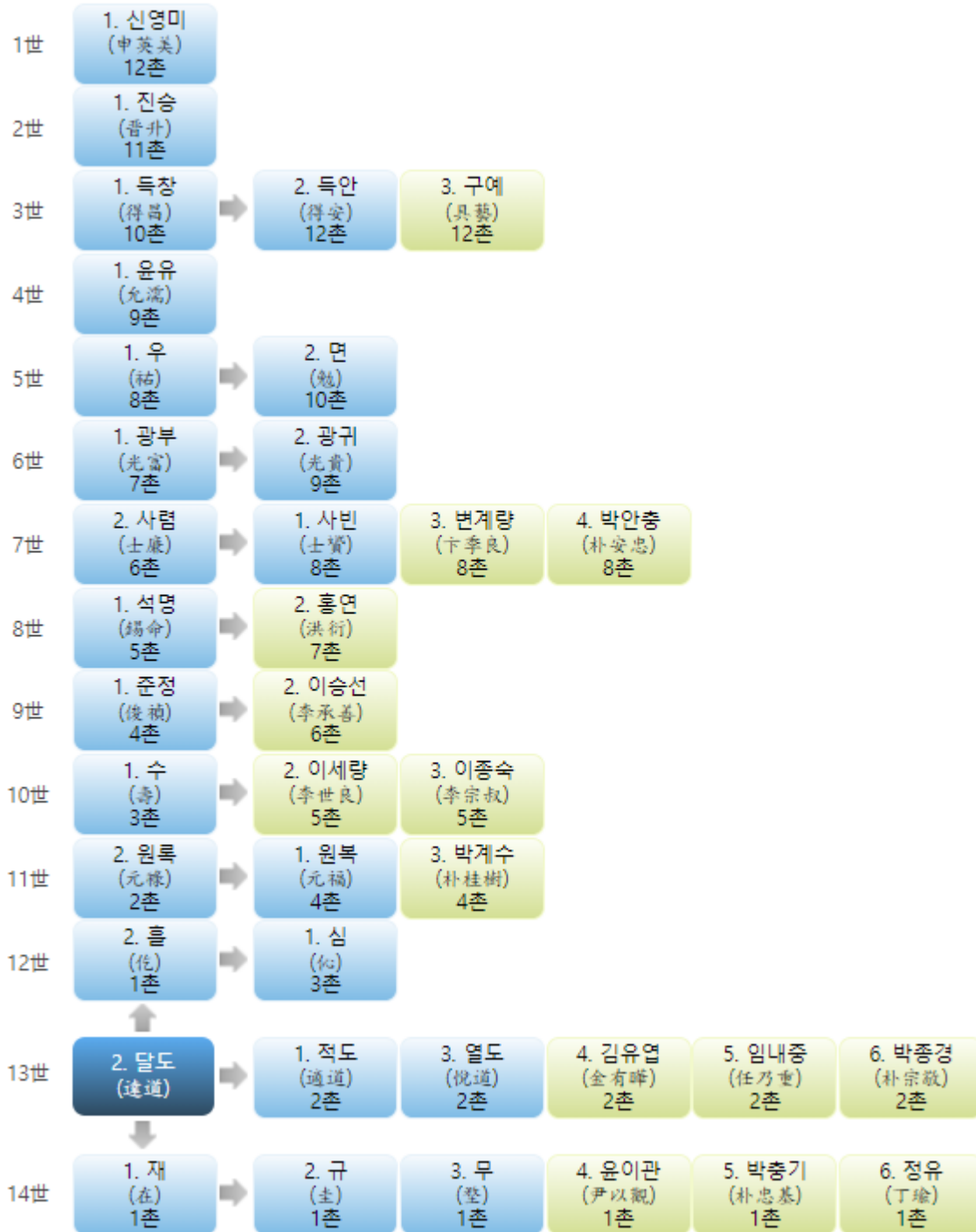
卷之六 = 71

만오집(晩悟集) 신달도(申達道)

13世 달도(達道)

父 : 흘(屹)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신달도(申達道)

신달도 묘표(申達道墓表)

공의 이름은 달도(達道)이고 자는 형보(亨甫)이다. 호는 만오(晩悟)이고 아주(鵝淵)사람이다. 조부 신원록(申元祿)은 지극한 효성과 독실한 학문으로 호조시랑(戶曹侍郎)에 증직되었고 대대로 '회당 선생(悔堂先生)'으로 불린다. 부친 신홀(申乞)은 사림에 명망이 있어 좌승선(左承宣)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순천박씨(順天朴氏)로 숙부인(淑夫人)에 추증되었으며 참봉(參判) 박안명(朴安命)의 후손이고 전력부위(展力副尉) 박륜(朴倫)의 딸이다.

공은 10세 이미 경전(經傳)과 제자서(諸子書)·역사서를 익숙히 읽었고 글을 지으면 성대히 옛 작가의 말투[口氣]가 느껴졌다. 장성하여서는 월천(月川) 조목(趙穆)선생과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선생을 두루 찾아뵙고 도산심학(陶山心學)의 비결을 들었다. 또한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이기분합설(理氣分合說) 등을 강론하고 질정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임금이 주관하는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급제하였으며 곧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보임되었다. 겨울에 대신들의 추천으로 성환 도찰방(成歡道察訪)[成歡郵丞]에 나가서 어진 이를 등용하고 무능한 이를 내치며 사람과 가축을 모두 성대하게 하였다. 이듬해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켜 임금의 수레가 남으로 피신하였다. 공은 차사원(差使員)으로서 곧 장 말 5백 필을 갖추고 있다가 기회를 틈타 승리하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대단하게 여겼다.

1627년(인조 5) 봄에 또한 정언에 제수되었다. 당시 청나라 병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임금은 신료들을 모아 놓고 몽진(蒙塵)을 의논하였다. 공은 도성을 굳게 지키고 병사를 이끌고 나가 친히 정벌해야 한다고 청을 하였다. 어가(御駕)를 호위하여 강화도[江都]에 들어가자 화친의 잘못됨을 힘써 간쟁하고 원수를 갚고 부끄러움을 씻을 계책을 무수히 내었다. 계책이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지식인들은 그가 옳다고 여겼다. 당시 명나라 원수 모문룡(毛文龍)이 가도(椴島)를 지키고 있었는데, 조선이 적을 끌어들이어 가도를 급습하게 하였다는 등의 말로 우리나라를 무고하였다. 공은 왕명을 받들어 모문룡의 병영에 들어가서 좋은 말로 응대하니 원수 모문룡은 마침내 감동하여 가도에 잡혀있는 조선인을 모두 돌려보내고 또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형세와 적의 정황을 두루 말해주었다. 공은 빨리 내달려 이를 알리니 임금이 그를 기특하게 여겨 지평(持平)으로 소환하였다. 공이 어전에 나아가 임금을 면대하자 특별한 유지(諭旨)로 그를 칭찬하였다.

당시 대간들이 훈재(勳宰)들의 교만하고 횡포한 실수를 논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역하여 파직을 당하였다. 공은 곧 대청에 나아가 훈재의 실정을 힘써 아뢰어 말로 임금을 펍박하자 좌우의 신하들이 한 때 자신의 혐의를 회피하려고 사직을 고려하였다. 이에 임금이 크게 노하여 특별히 체포할 것을 명하였다. 이 일로 정직한 명성을 온 나라에 떨치게 되었으니 세상에서는 3학사라 부른다. 대개 윤황(尹煌)·조경(趙綱) 그리고 공을 가리킨다. 이듬해 봄 예조 정랑(禮曹正郎)에 제수되어 함

경도의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을 가서 살폈다. 돌아와서는 서쪽지방의 굶주린 백성들이 관복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상소를 올리고 또한 송태조(宋太祖)가 심륜(沈倫)을 시켜 군량미를 내어 양사(楊泗)지역의 굶주린 백성을 구휼시킨 고사를 거론하며 군량미를 내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할 것을 청하였다.

1629년(인조 7)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장령(掌令)을 역임하고 임금의 명으로 조정으로 돌아왔다. 어떤 한 훈재가 경연 중에 재상을 침해하고 업신여기자, 공이 “재상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조정을 우러러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 상소를 올려 그를 탄핵하였다.

1631년(인조 9)에 다시 장령(掌令)에 제수되자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추송(追崇)의 실수를 논하니 말이 매우 간절하고 정직하였다. 얼마 뒤 군자정(軍資正)을 거쳐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다시 사직소를 올리고 서울에서 별세하였다. 임금이 그의 부고를 듣고 애통해하면서 특별히 부의(賻儀)를 하사하였다. 의성현(義城縣) 오동산(梧桐山) 서쪽 산기슭 언덕에 장사지냈다.

1636년(인조 14) 이후 21년인 1656년(효종 7) 2월일

아우 전행사도시정 지제교(前行司禦寺正知製教) 신열도(申悅道)는 눈물을 흘리면 삼가 짓다.

생애이야기

- 성명 : 신달도(申達道), 1576년 ~ 1631년
- ♣ 본관 : 아주(鵝淵)
- ♣ 자 : 형보(亨甫)
- ♣ 호 : 만오(晩悟)
- ♣ 출생지 : 의성(義城) 도암리(陶巖里)
- ♣ 출신지 : 의성(義城)
- ♣ 분묘지 : 의성(義城) 오동산(梧桐山)
- ♣ 입사경로 : 1623년 정시 갑과 급제
- ♣ 내관직 :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예조정랑(禮曹正郎),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 ♣ 외관직 : 성환도찰방(成歡道察訪), 전주 판관(全州判官)
- ♣ 증직및기타 : 통정대부승정원도승지 지제교경경연참찬관추관수찬관예문관직제학상서원정행통훈대부홍문관수찬지제교경경연경도관추관기사관(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行通訓大夫弘文館修撰知製教兼經筵檢討官春秋館記事官)
- ♣ 애민(愛民) 정신

1626년 신달도는 예조 정랑(禮曹正郎)에 제수되어 함경도의 덕릉(德陵)과 안릉(安陵)을 가서

살폈다.

돌아와서는 서쪽지방의 굶주린 백성들이 관복으로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 상소를 올리고, 또한 송태조(宋太祖)가 심륜(沈倫)을 시켜 군량미를 내어 양사(楊泗)지역의 굶주린 백성을 구휼시킨 고사를 거론하며 군량미를 내어 굶주린 백성을 구휼할 것을 청하였다.

◦ 임금에게 직언을 하다.

1626 년 겨울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다. 그리고 신달도는 당시의 폐단 10 가지를 간언하니, 즉 '어진이를 등용하고, 수령을 잘 선택하며, 백성의 마음을 잘 추스르고, 풍속을 두텁게 하며, 언론을 열어놓고, 가려진 것을 터트리며, 옥사를 잘 다스리고, 쓸데없는 관직을 살피며, 공물과 납세를 균등히 하고, 군정을 정비하라.'이다.

또한 상소 말미에 다시 왕이 자신을 반성하여 근신하고 덕을 닦는 진실을 거듭 아뢰니 임금은 모두 기꺼이 받아들였다.

◦ 결사항전의 자세

1627 년 봄에 정언(正言)에 제수 되었다. 당시 청나라 병사들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임금은 신료들을 모아 놓고 몽진(蒙塵)을 의논하였다.

신달도는 도성을 굳게 지키고 병사를 이끌고 나가 친히 정벌해야 한다고 청을 하자 임금은 낮빛을 바꾸었다.

어가(御駕)를 호위하여 강화도[江都]에 들어가자 화친의 잘못됨을 힘써 간쟁하고, 원수를 갚고 부끄러움을 씻을 계책을 무수히 내었다. 계책이 비록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지식인들은 그가 옳다고 여겼다.

◦ 뛰어난 외교가

병자호란 당시 명나라 원수 모문룡(毛文龍)이 가도(椴島)를 지키고 있었는데, 조선이 적을 끌어들이어 가도를 급습하게 하였다는 등의 말로 우리나라를 무고하였다.

신달도는 왕명을 받들어 모문룡의 병영에 들어가서 좋은 말로 응대하니, 원수 모문룡은 마침내 감동하여 가도에 잡혀있는 조선인을 모두 돌려보내고, 또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형세와 적의 정황을 두루 말해주었다.

신달도는 빨리 돌아와 이를 알리니 임금이 그를 기특하게 여겨 지평(持平)으로 소환하였다. 공이 어전에 나아가 임금을 면대하자, 특별한 유지(諭旨)로 그를 칭찬하였다.

◦ 불의에 분개하다.

신달도가 지평(持平)에 제수되었을 당시 대간들이 훈재(勳宰)들의 교만하고 횡포한 실수를 논하다가 임금의 뜻을 거역하여 파직을 당하였다. 그는 곧 대청에 나아가 훈재의 실정을 힘써 아뢰어 말로 임금을 핍박하자, 좌우의 신하들이 한 때 자신의 혐의를 회피하려고 사직을 고려하였다.

이에 임금이 크게 노하여 특별히 체포할 것을 명하였다. 이일로 정직한 명성을 온 나라에 떨치게 되었으니 세상에서는 3 학사라 부른다. 대개 윤황(尹煌), 조경(趙綱) 그리고 공을 가리킨다.

신달도는 1629 년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장령(掌令)을 역임하고, 임금의 명으로 조정으로 돌아왔다.

당시 어떤 한 훈재(勳宰)가 경연 중에 재상을 침해하고 업신여기자 그는 “재상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조정을 우러러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 상소를 올려 그를 탄핵하였다. 이에 조정대신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가족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 : 신원록(申元祿) ♣ 생부 : 신흘(申屹) ♣ 모 : 순천 박씨(順天朴氏) 전력부위(展力副尉) 박륜(朴倫)의 딸 ♣ 형제 : 신적도(申適道), 신열도(申悅道)
<p>♣ 집안이력</p> <p>신달도의 본관은 아주(鵝淵)다. 시조는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신윤유(申允濡)이고, 안렴사(按廉使) 신우(申祐)는 충효로 이름이 나서 이때부터 대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p> <p>증조부 신수(申壽)는 진실로 덕을 숨기고 여러 차례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모두 나가지 않았다. 조부 신원록(申元祿)은 지극한 효성과 독실한 학문으로 호조시랑(戶曹侍郎)에 증직되었고 대대로 '회당선생(悔堂先生)'으로 불린다.</p> <p>부친 신흘(申屹)은 사림에 명망이 있어 좌승선(左承宣)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순천 박씨(順天朴氏)로 숙부인(淑夫人)에 추증되었으며, 참봉(參判) 박안명(朴安命)의 후손이고, 전력부위(展力副尉) 박륜(朴倫)의 딸이다.</p>
<p>♣ 환란의 고통</p> <p>임진년(1592) 왜구가 쳐들어 왔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17 세였는데, 몸소 수 백리 밖에 쌀을 이고 와서 콩과 물과 함께 생활 기반으로 삼았다. 당시 목숨을 담보로 출입하였기에 서로 염려하였고, 한 가문의 백여명 사람들이 그에게 의지하여 살 수 있었다.</p> <p>정유년(1597) 왜구가 재차 침략하여 온 집안이 달아나 피하였다. 당시 아우 신열도(申悅道)는 나이가 겨우 9 세였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을 수가 없었다. 신달도는 낮, 밤으로 열도를 업고 험한 길을 걸으면서도 오히려 서로 헤어져 잃어버릴까 걱정하였다. 이를 본 피난민들이 모두 감탄하였다.</p>

학문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승 : 월천(月川) 조목(趙穆),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

<p>◉ 학파 : 퇴계 학파</p>
<p>◉ 소학동자</p> <p>신달도는 나이 7 세에『소학』을 배웠다. 당시 증조부 성은공(城隱公)이 자제를 가르치는데 법도가 있었다. 그는 매양 일찍 일어나 조부모에게 문안을 드리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였고, 한번 말하고 움직이는데 모두 소학에 의거하여 행동하였다.</p>
<p>◉ 『맹자』를 읽고 분발하다</p> <p>신달도는 9 세때 맹자를 읽었는데, '순(舜)은 어떠한 사람이고, 나또한 어떠한 사람인가?[舜何人, 予何人]'라는 구절에 이르러서는 번번이 분발하면서 "대장부가 뜻을 세우는데 있어 진실로 이와 같이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고는 마침내 40 자 정도의 글을 짓고 작은 판에 기록하였다.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것이 처음에는 현자와 다르지 않다. 비록 성현이라고 하나 또한 두 개의 입과 네 개의 눈을 가지지는 않았다. 저들도 대장부고 나도 대장부이다. 훌륭한 일을 행하는 자는 또한 이와 같으니 이전 성현의 아름다운 자취를 따르고 싶다."</p>
<p>◉ 박학(博學)</p> <p>신달도는 나이 16 세 때 장천서원에서 독서를 하였다. 그는 일찍이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포부가 매우 커야 한다. 어찌 한 가지 선으로 선비의 명성을 이루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경전의 뜻을 깊이 연구하는 한편 전대의 흥망성쇠의 자취와 지금의 치란(治亂)의 이유를 깊이 연구하여 사업(事業)에 두고서 힘썼다.</p>

저작이야기

◉ 만오선생문집(晩悟先生文集)

『만오집』은 신달도(申達道)의 시문집이다.

목판본으로 10 권 5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에는 전체의 목록이 있고, 각 권마다 맨 앞에 각 권의 목록이 따로 있다.

권 1 은 120 여 수의 시가 있다.

권 2 는 1626 년 시폐(時弊)에 대하여 10 가지 조목으로 요약하여 올린 「진시폐십조소(陳時弊十條疏)」이다.

권 3 에는 1627 년 척화를 주장하다가 청군이 퇴각한 후 올린 「구퇴후진소회소(寇退後陳所懷疏)」 등 소(疏) 12 편과 삼사와 연명하여 올린 「신구사간윤황차(伸救司諫尹煌筭)」의 차(筭) 1 편이 있다.

권 4 에는 「청수나만감원찬지명계(請收羅萬甲遠竄之命啓)」 등 계(啓) 43 편이 있다.

권 5 에는 1627 년 올린 「가도봉사시문견계(假島奉使時聞見啓)」 1 편 등 공함(公緘) 2 편, 정문(正文) 1 편이 있다.

권 6 에는 조목(趙穆), 장현광(張顯光), 정경세(鄭經世), 이호민(李好閔), 조익(趙翼) 등에게 보내는 편지가 모두 41 편이 있다.

권 7 에는 정묘호란 당시 강화도로 피난하였을 때의 일을 기록한 「江都日錄(江都日錄)」 등 잡저 4 편이 있다.

권 8 에는 서(序) 5 편, 기(記) 2 편, 발(跋) 1 편, 잠(箴) 2 편, 표(表) 1 편, 전(箋) 5 편, 애사(哀辭) 1 편, 고사(告辭) 2 편 등, 제문(祭文) 5 편, 묘지(墓誌) 1 편, 부친의 행장 등 행장 3 편이 있다.

권 9 는 동생 신열도(申悅道)가 지은 신달도의 「연보(年譜)」이다.

권 10 은 부록으로 1653 년 신열도가 지은 행장, 이현일(李玄逸)이 지은 묘갈명(墓碣銘), 신열도가 지은 「묘지(墓誌)」, 유성증(兪省曾) 등이 지은 제문 7 편, 만장(挽章) 52 편이 있다. 권말의 표지 안쪽에는 조선총독부의 허가에 의해 1927 년 인쇄 및 발행하였다는 것과 발행인 및 발행소 등을 기록한 표가 있다.

◦ 강도일록(江都日錄)

「강도일록(江都日錄)」은 신달도(申達道, 1576~1631)의 문집인『만오선생문집(晩悟先生文集)』권7 제11엽부터 제32엽까지 모두 43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목활자본이다.

이 일기는 정묘년(丁卯年, 1627) 정월 17일에 평양감사 윤환(尹煥)이 “노적(奴賊)이 13일에 의주를 침범하고 14일에 정주(定州)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데서 시작하고 있다. 즉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9년 전, 정묘호란의 발발 사실로 일기는 시작하고 있다. 임금과 왕실이 강화도로 피난하여 그 곳에서 쓴 일기라 제목을 ‘강도일록(江都日錄)’이라고 한 것이다. 일기에는 급박한 상황에 따라 허둥대던 임금과 신하들의 언행이며, 조선을 침략한 북방의 오랑캐 후금(청)과 왕래한 문서, 여러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 등도 기록하고 있다. 후금에게 패배를 거듭하던 중, 그해 3월 후금과 화친이 맺어지자, 일기 역시 3월 23일에서 기록을 멈춘다.

신달도의 자는 형보(亨甫), 호는 만오(晩悟), 본관은 아주(鵝州)이며, 조목(趙穆)과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배웠다. 1610 년에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당시 조정이 어지러워 과거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정묘호란 때 임금이 강화(江華)로 들어가고 최명길(崔鳴吉)이 화의를 주장하여 강화(講和)를 맺으려고 하자, 윤환(尹煥)과 함께 강화의 부당함을 거침 없이 따지는 상소를 올렸다. 영사공신(寧社功臣)에 녹훈되고, 1631 년에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도승지로 증직(贈職)되었다.

서지정보

원서명	晩悟先生文集						
현대어서명	만오선생문집						
청구기호	古 819.5-Si61m-v.1-5						
편저자(한자)	申達道(朝鮮) 著	판본사항	木活字	간행지	義城郡	책권수	10 卷 5 冊
편저자(한글)	신달도(조선) 著	간행연도	1927	간행자	申錫基塾	책크기	26.7×19.9cm
匡郭	四周雙邊, 半葉匡郭: 19.9×16.3cm, 有界, 10 行 19 字			版心	上下向二葉花紋魚尾	표기문자	
表紙, 版心, 卷頭書名	表題: 晩悟先生文集, 版心題: 晩悟先生文集, 卷首題: 晩悟先生文集						
序, 跋, 卷首, 卷末							
表題紙, 內題紙				附			
藏書記, 內賜記							
刊記	大正十六年(1927)一月十二日印刷						
자료소개							
목차							
합철							
소장본							
印記							
四부분류	集部 別集類 一般			기타			
M/F 번호							

문집해설

서명	晩悟先生文集	저자	申達道 著
현대어서명	만오선생문집	간행년대	1927 年.
청구기호	古 819.5-Si61m-v.1-5		

책수	10 권 5 책	판본	활자본	사이즈
----	----------	----	-----	-----

26.7×19.9 cm.

조선 중기의 문신 晩悟 申達道(1576~1631)의 문집이다. 신달도의 본관은 鵝洲, 字는 亨甫이고, 佺의 아들이다. 趙穆張顯光의 門人으로 1610년(광해군 2)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政界가 혼란하여 관직에 나아가는 것을 단념하였다. 1623년(인조 1) 5월에 명나라 熹宗의 등극을 기념하는 儒生 庭試에 장원급제하였다. 그 뒤 文翰官을 거쳐 1627년 사간원 정언에 이어 곧 지평으로 승임되었다. 이해 6월 병조판서 李貴의 專橫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려 이귀에게 배척당하기도 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 尹煌과 함께 적극적으로 척화론을 주장하다가 파직되었다. 1629년 사헌부 장령이 되었을 때, 內需司가 進上을 과다히 강요하는 폐단을 없애라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卷首에는 전체의 目錄이 있고, 각 권마다 맨 앞에 각 권의 目錄이 따로 있다. 권1은 詩인데 1604년 西厓 柳成龍을 만나러 가는 길에 지은 〈臥雲途中口占〉 등 120여 수의 시가 있다. 권2는 1626년 時弊에 대하여 10가지 조목으로 요약하여 올린 〈陳時弊十條疏〉이다. 권3에는 1627년 斥和를 주장하다가 淸軍이 퇴각한 후 올린 〈寇退後陳所懷疏〉, 1631년 元宗의 追崇을 중지하라며 사직을 청한 〈請寢追崇仍辭職疏〉 등 疏 12편과 三司와 聯名하여 올린 〈伸救司諫尹煌劄〉의 劄 1편이 있다. 권4에는 李貴가 言官을 論斥한 것을 이유로 避嫌하며 올린 〈論右贊成李貴貶斥言官之失仍避嫌啓〉, 羅萬甲을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는 〈請收羅萬甲遠竄之命啓〉 등 啓 43편이 있다. 권5에는 1627년 올린 〈榭島奉使時間見啓〉 1편, 〈憲府推考公緘〉 등 公緘 2편, 淸나라 장수 毛文龍에 보낸 〈呈毛都督文〉의 呈文 1편이 있다. 권6에는 月川 趙穆, 旅軒 張顯光, 愚伏 鄭經世, 五峯 李好閔, 浦渚 趙翼 등에게 보내는 편지가 모두 41편이 있다. 권7에는 1625년 全州判官으로 재직할 당시 지은 〈榜諭境內文〉·〈告諭諸生文〉, 정묘호란 당시 江華島로 피난하였을 때의 일을 기록한 〈江都日錄〉 등 雜著 4편이 있다. 권8에는 金榮祖가 北邊에 부임하는 것을 전송하며 지은 〈送金孝仲赴北幕序〉 등 序 5편, 〈懶齋記〉 등 記 2편, 跋 1편, 箴 2편, 表 1편, 箋 5편, 哀辭 1편, 告辭 2편, 〈祭月川先生文〉 등 祭文 5편, 墓誌 1편, 부친의 행장 등 行狀 3편이 있다. 권9는 동생 申悅道가 지은 신달도의 〈年譜〉이다. 권10은 附錄으로 1653년 申悅道가 지은 〈行狀〉, 李玄逸이 지은 〈墓碣銘〉, 신열도가 지은 〈墓誌〉, 兪省曾 등이 지은 〈祭文〉 7편, 金堉, 李昭漢 등이 지은 〈挽章〉 52편이 있다. 卷末의 표지 안쪽에는 朝鮮總督府의 許可에 의해 1927년 인쇄 및 발행하였다는 것과 發行人 및 發行所 등을 기록한 표가 있다. (오세현)

문집개요

문집명	만오집 (晩悟集)(17c)
간략서지	古 819.5-Si61m-v.1-5 晩悟 申達道의 문집. 목활자본. 10 권 5 책.
간략해제	신달도 死後에 동생 悅道에 의하여 문집 간행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초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규장각 소장본은 일제시대인 1927년 경상북도 大邱에서 후손 申鴻基에 의하여 雪山堂에서 간행된 것으로 이전의 刊本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저자소

편저자	신달도 (申達道)
저자개요	1576-1631 (선조 9-인조 9)字: 亨甫, 號: 晩悟, 本貫: 鵝洲, 父: 伋, 母: 星山 李氏
저자내용	어려서부터 재질이 뛰어나 7·8 세에 이미 孝經과 四書を 통독하였다. 趙穆과 유성룡 및 장헌광 등에게 수학하였다. 1610 년 생원시에 합격, 1623 년 문과에 급제, 成均館典籍을 거쳐 성환찰방이 되고 1624 년 이괄의 난에 御駕를 모시고 공주로 피난하였으며 平亂 후 귀향하였다가 全州判官에 임명되어 呂氏鄉約을 실시하는 등 풍속교화에 힘썼다. 1626 년 刑曹·禮曹正郎을 거쳐 司諫院正言이 되어 10 조에 달하는 時弊를 進達하였다. 1637 년 淸軍이 의주를 함락하자 主和에 반대하고 自強의 정책을 수 차례 진언하였다. 辨誣使로 椴島에 가서 淸과의 和議가 본의 아님을 역설하여 明將의 의혹을 풀었고 1628 년 禮曹正郎에서 侍講院文學과 弼善을 거쳐 掌書이 되었다가 1631 년 修撰이 되었으나 사임하였다. 1646 년 도승지를 추증받았다.

내용개요

내용제목	晩悟集 내용 개요	청구기호	古 819.5-Si61m-v.1-5
------	-----------	------	---------------------

권제

권제목:

제목 없음. 城洞卽事五十韻-壬辰, 謾筆, 登黃鶴菴, 途中偶吟, 聽鷄-乙未, 敬次月川先生下示韻-丙申, 原韻, 轉寄眞城宿孫君-倪-草堂次韻却寄, 敬次月川先生見寄韻-己亥, 原韻, 仙巖小築-壬寅, 途中口占-甲辰, 白雲亭奉贈金以承-是楹-己酉, 西厓先生挽-丁未, 庚戌春以新恩同柳季華-袵-李盟堅-時幹-拜五峯李相公時庭梅未花令各賦, 贈別李茂伯-潤雨-通判龍庭-癸丑, 不知巖與諸益敬次旅軒先生韻-丁巳-原韻, 金烏書院敬次旅軒先生韻二首, 原韻, 薇山四景做金子峻-玲-作(春山采蕨, 夏畦鋤禾, 秋園燒粟, 冬爐烘酒), 濯足, 鈞錫潭口占, 晉甫弟自葛山來會讀朱書頗有思索之工喜贈三絕以勗之, 奉次金孝仲-榮祖-見寄韻, 秋夜有感, 山中卽事, 敬次旅軒先生下示韻, 玉笛洞, 送李從事-民寅-征西-戊午, 晉甫以歲晚何以黔吾突分韻詠懷語極悲惋覓和於余遂口號書之-庚申, 挽宗丈-之-戊午, 挽朴宣傳-己未, 到烏川奉次金子峻韻-辛酉, 原韻, 祇謁陶山尚德祠, 月川書堂感舊, 次金以直-光岳-韻, 九日有感, 與諸益留南山敬次旅軒先生韻二首, 詠懷奉呈伯氏兼示晉甫, 次別晉甫葛山之行, 挽朴參判-而章-辛酉, 謾咏-癸亥, 挽洪持平-璋-甲子, 思歸-乙丑-判全州時, 贈別完山士民, 醉酬聞慶倅-丙寅, 挽鄭秀才-◎, 大殿春帖-丁卯, 聞賊警, 送鄭錦南-忠信-西征, 送晉甫弟赴關東幕, 送李石潭朴正郎-◎-赴號召募, 江都記事十八首, 虜使已退憤懣無聊遂成一律, 三月奉使椴島馬上口占, 到海州次芙蓉堂板上韻, 宿神光寺, 信川郡酬寄尹使君-命之, 北津, 旅舍偶逢成友-俊耆-打話, 龍岡途中, 舟中次接伴使元公-鐸-韻, 謾吟, 聞奴賊所過多搶殘吟成一絕, 甌山口占, 途中有感, 舟中裁付家書, 夜泊雲從島, 再疊, 晚泊椴島, 留椴島, 書懷, 夢見晉甫, 鄭鳳壽金礪器西士名師也聞余過此來見遂書一律以勗之, 贈弓鄭金兩帥, 刷還東土饑民擄在島中者吟成一絕, 病臥甌山憶伯氏, 西關吟, 送閔參判-聖徽-赴京, 歸去來曲, 自歎, 禾村幽居, 有感, 閒中卽事, 盡春, 挽李丈-民弘, 送姜學顏-大進-之任, 挽李立仲-禮遵, 挽申訓導-之間, 送金伯承, 三月奉命赴關北登鐵山關口占三律-戊辰, 安邊途中, 鶴湖臺, 安邊倅李令公-弘望-設酌于駕鶴樓請題咏仍成一絕, 奉酬李令公, 登樂民樓, 送宋僉樞-克訥-朝天,

挽崔重吉-詰, 憶弟晉甫, 出都門-己巳, 得晉甫書知己渡江喜而作, 生朝感懷, 洛中次金忘窩-榮祖-鶴湖-奉祖-兩友韻, 原韻, 挽李敬亭令公-民成, 江亭詠懷, 馬上口占, 渡懷德城江, 寄呈襄陽使君四首, 歲行盡矣天道好還而環顧其中未有自新之效遂吟一絕以自悼, 除書到日吟成一絕, 幽谷途中, 與裴都事-尙益-洪撚髭-霍-舟中口占, 挽金持平-奉祖, 挽李秀才-文圭, 挽金而靜-允安-夫人, 送別, 月夜, 夢中作, 覺後又吟一絕示兒輩-絕筆

권제		권제목:卷二
陳時弊十條疏- 丙寅/一用賢良 (1)	1626. 신달도가 올린 첫 번째 상소문. 用人에는 黨論과 物議의 실수가 있다. 많지도 않은 인재를 쓰려고 하면 黨論이 고질병이 되고 물의가 일어나니 임금은 편중의 私情을 버리고 공정한 마음으로 인재를 살피 봉당과 流俗의 議論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이다.	
陳時弊十條疏- 丙寅/二擇守宰 (5)	신달도가 올린 두 번째 상소문. 외방 수령의 폐해가 극심하니 幸卿 二品 이상의 관원들이 매년 정초에 經術 人才를 수 명씩 추천하면 이들의 명단을 成冊하였다가 결원이 생기면 이들 중에서 임명하고 근무고과에 따라 추천한 자에게도 상벌을 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陳時弊十條疏- 丙寅/三收人心 (7)	신달도가 올린 세 번째 상소문. 反正 이후 인심을 잃은 이유로 미납된 貢賦와 조세를 모두 면제하고 方物도 감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內需司의 폐단을 혁파하지 않은 것, 수령을 잘못 택하여 도처에 수령들이 苛斂을 일삼는 것, 관리들의 褒賞이 범람하고 형벌이 中道에 어그러진 것, 호패법을 만들어 閑丁을 추쇄하는 데 시기를 살피지 않은 것 등이라는 내용이다.	
陳時弊十條疏- 丙寅/四厲風俗 (9)	신달도가 올린 네 번째 상소문. 풍속을 가다듬는 방법은 三代의 학교 제도를 회복함이나 세상에 모범이 될만한 자를 太學에 스승으로 임명하고 배움을 좋아하는 자를 太學生으로 입학케 하여 孝悌忠信과 禮樂으로 가르치며, 外方에는 퇴직한 文官과 生員 進士 가운데 학문이 넓은 자를 訓導로 삼고 학생 역시 太學生에 준하여 뽑아 들인 후 정기적으로 이들의 才學을 시험하여 우수한 자를 조정에 추천하면 德化가 수행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陳時弊十條疏- 丙寅/五納諫諍 (12)	신달도가 올린 다섯 번째 상소문. 근래에 간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병이 날로 깊어가니 임금은 역대의 失策을 살피 의리있는 말을 嘉納하고 과격한 자도 용납한다면 조정의 모든 이들이 정성을 다하여 착한 도리를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陳時弊十條疏- 丙寅/六決壅蔽 (14)	신달도가 올린 여섯 번째 상소문. 수령을 자주 교체하기 때문에 胥吏들이 대대로 장부를 움켜잡아 政令과 法制가 모두 그들의 손에서 나오고 각지의 呈訴도 뇌물의 다소에 따라 결판내어 民情의 근심이 된다는 내용이다.	
陳時弊十條疏- 丙寅/七慎庶獄 (16)	신달도가 올린 일곱 번째 상소문. 反正 처음과는 달리 법을 다루는 관리들이 聖意를 따르지 않고 生死를 임의로 하며 獄事를 신중히 살피지 않는 폐단이 있으니 有司들을 신척하여 광해군대의 群凶들과 왕래한 자들에 대해서 獄事를 다시 묻지 않는 포용의 덕을 베푼다는 내용이다.	
陳時弊十條疏- 丙寅/八省冗官 (18)	신달도가 올린 여덟 번째 상소문. 근래 너무나 많은 政務가 분리되어 재능있는 선비는 즐겁게 誠意를 다하지 않으며 용렬한 자들은 게을러 모두 國祿만 축내고	

	있다. 또한 과거가 잘못 蔭官이 적체되어 사대부들이 子弟의 벼슬을 구하는 작태가 날로 염치가 없어지므로 변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陳時弊十條疏- 丙寅/九均田賦 (20)	신달도가 올린 아홉 번째 상소문. 隱漏된 전답을 미리 조사하여 조세를 부과하며 周나라의 百畝制와 동중서의 限田法을 따를 것, 防納의 폐단이 있으니 선조대에 柳成龍이 제안한 것과 같이 공물의 총액을 계산한 후 토지 결수에 따라 分定하도록 하자는 등의 내용이다.
陳時弊十條疏- 丙寅/十修軍政 (24)	신달도가 올린 열 번째 상소문. 鎭管의 제도를 예전처럼 회복하고 留防軍의 收布를 중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제	권제목:卷三
寇退後陳所懷疏-丁卯 (1)	1627. 적군이 물러간 뒤 所懷를 진술한 상소문. 기병과 보병 1-2 만으로 臨津江에서 방어하고 兩西의 군량을 모두 궁벽산지에 숨겼다가 적군이 깊이 들어오면 淸川江을 차단하여 앞뒤에서 막으면 전멸할 것이다. 要處를 방어하고 군량을 적절히 운송하여 적을 섬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第二疏 (6)	對敵의 기본으로 네 가지 급무를 강조한 상소문. 將臣을 선택하고, 防守를 삼가하며, 재용을 절약하여 인심을 수습하는 네 가지 일이 시급하니 임금은 속히 도성으로 돌아와 이에 힘써야 하며 和議만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辭持平疏 (12)	司憲府 持平을 사직하며 올린 상소문. 능력이 부족하고 질병까지 얻어 언관의 중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再疏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請賑西路饑民疏-戊辰 (14)	1628. 관서의 기민을 구제하라고 청한 상소문. 關西의 주린 백성들이 關北으로 유리걸식하며 陽德과 孟山에는 餓死者가 들판에 널려 있다한다. 만일에 대비하여 비축한 군량미를 사용해서라도 기민을 구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辭文學疏 (16)	侍講院 문학직을 사퇴하며 올린 상소문. 書筵에 참여하는 직책은 임금을 보필하고 경계하는 책임이 있는데 자신은 학식이 성글고 고루하며 더욱이 근래 건강이 좋지 않으니 遞職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辭弼善疏 (16)	侍講院 필선직을 사퇴하며 올린 상소문. 질병이 더욱 극성하니 書筵의 重任을 거두어 달라는 내용이다.
辭掌令疏 (17)	司憲府 장령직을 사퇴하며 올린 상소문. 기력이 쇠하고 下血이 심하여 기동할 수 없으니 직명을 거두어 달라는 내용이다.
請遇災修省仍辭職疏 (17)	재앙을 만나서는 修省의 자세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諫官의 직책을 사임한 상소문. 금년의 재해는 매우 심하니 戶曹에 명하여 남한산성과 강화도의 미곡과 三南의 監營과 兵營 등지의 米布 수를 계산한 후 1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금년의 조세는 모두 면제하고 지장이 있다면 半減해야 한다. 또한 천하의 모든 일이 人主의 마음쓰는 일에 달려 있는데도 임금은 經筵을 폐하는 등 근신하지 않고 자신은 諫官으로서 직책에 부응하지 못하니 사직하겠다는 내용이다.
請寢追崇仍辭職疏 (22)	仁祖의 親父 追崇을 비판하며 간관의 사직을 청한 상소문. 임금께서 私親을

	추송하려는 논의는 아버이를 존경하는 지극한 뜻이 담긴 것이지만 조정의 불가하다는 의논과 禮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再疏의 내용도 동일하다.
成歡驛復設時陳弊疏-甲子 (25)	1624. 성환역을 復設하며 폐단을 진술한 상소문. 성환역은 삼남의 요충인데 人馬가 부족하니 변통해줄 것, 驛卒의 復戶를 법전대로 해 줄 것, 각 역의 位田을 제대로 지급할 것, 역 근처의 개간한 진황지를 10년간 면세해 줄 것, 역에 소속된 노비 點考를 첩방이 전담토록 해줄 것 등을 요구한 내용이다.
仲敕司諫尹煌筭-三司聯名 (30)	司諫 尹煌을 변호하며 올린 차자. 윤황이 이보다 앞서 和親에 대해 '一國의 굴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조에게 凶慘하다고 배척되었지만 윤황이야말로 충직한 선비라는 내용이다.

권제	권제목:卷四
請停奴營信使之行啓-丁卯 (1)	1627. 적진에 사신 보내는 일을 멈추도록 청한 계문. 근래 적국의 사신이 명과의 국교를 단절하라고 하여 비밀리에 사신을 보내 의논한다하니 눈 앞의 화를 피하려고 명과의 君臣父子의 大義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請完城君崔鳴吉依律再啓-初啓與司諫尹煌聯名在八松集 (2)	최명길을 벌주도록 청하는 두 번째 계문. 변변치 못한 재주로 대적할 계책은 세우지 않고 적에게 아첨하고 복종하여 一國을 망친 최명길을 처벌하라는 내용이다.
請收司諫尹煌遞差之命啓 (2)	윤황의 사간직을 체직하려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는 계문. 윤황의 말이 설사 과격하더라도 諫官을 체직하는 것은 諫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니 이미 그의 충직함을 인정하였으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請都元帥張晚遠鼠啓 (3)	도원수 장만을 멀리 귀양보내도록 청하는 계문. 장만이 변경 일을 담당하고도 적을 막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 침입하자 숨기에 급급하였으니 그를 멀리 귀양보내라는 내용이다.
請金摺朴惟建等依律啓 (3)	적에게 항복한 金摺과 朴惟建 등을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도록 청한 계문. 성을 지키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고 적에게 항복하여 구차하게 생명을 부지하였으니 이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請甌山縣令李復匡罷職啓 (4)	甌山縣令 李復匡의 罷職을 청한 계문.
請罷諸宮家魚鹽船稅蘆田啓 (4)	宮家에서 魚稅, 鹽田稅, 船稅, 蘆田에 屯田을 설치하는 일을 금하도록 청하는 계문. 군량미가 부족하여 管餉司를 신설하여 賣官 納粟을 할 지경인데도 여러 궁가에서는 각종 조세를 징수하여 폐단을 끼치니 이를 혁파하여 군량미에 보태도록 청하는 내용이다. 이하 再啓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避嫌啓 (6)	일전에 올린 계문의 혐의를 피하며 사직을 청하는 계문. 앞의 세 가지 계문(張晚을 귀양보낼 일, 金摺 등을 벌할 일, 宮家의 魚鹽稅 등을 혁파할 일)을 올린 데 대해 임금이 한결같이 거부하고, 증산현령을 탄핵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사실 여부를 監司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니 司諫으로서 무익한 자신을

파면하라는 내용이다.	
論右贊成李貴詆斥言官之失仍避嫌啓右贊成 李貴가 言官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사직을 청하는 계문. 尹煌과 趙綱의 상소문에 대해 임금이 남을 비판하는 臺諫을 엄히 다스린다 하는 비답으로 언로를 막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귀와 같은 중신들까지 정치가 臺諫에서 나온다며 언관을 비판하니 근심이라는 내용이다.	(7)
請罷諸宮家免稅啓-己巳 1629. 宮家에 혜택을 주는 免稅를 혁파하라는 계문. 군량미도 부족한데 궁가에서 王子鎭, 淑儀鎭, 翁主鎭이라 하여 전답을 점령하고 간교한 백성들이 여기에 붙어 농간을 부리는 데도 혁파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내용이다. 이하 모두 8 번의 유사한 내용의 계문이 수록되어 있다.	(9)
避嫌啓 (17)	宮家の 면세 혁파를 주장한 앞 일을 피험하고 사직을 청하는 계문. 궁가의 면세를 혁파하지 않은 임금이 私情에 가려 있다고 비판하자 과격한 의논이라고 꾸짖으니 사직하겠다는 내용이다.
請陽陵君許滴削官門黜啓 (18)	陽陵君 許滴의 관직을 삭탈하고 성문 밖으로 내쫓도록 청하는 狀啓. 일찍이 허적이 大禮를 논하면서 괴이한 논설을 펼쳤으나 다행히 國法을 면하였는데 이제 또 君父를 욕되게 하고 朝廷을 헐박하는 중죄를 지었으니 귀양보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再啓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避嫌啓 (19)	허적의 귀양을 청하는 일전의 狀啓를 피험하며 사직을 청하는 계문. 연일 허적 등의 일로 上啓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직책을 거두어 달라는 내용이다.
請收羅萬甲遠鼠之命啓 (19)	나만갑을 귀양보내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한 장계. 나만갑이 조정을 조롱하였다 하나 年少한 데다 微官으로 인물의 진퇴를 擅斷할 위치에 있지 않다. 사실이 아닌데도 강제로 죄명을 씌워 중죄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내용이다. 이하 동일한 내용의 狀啓가 세 차례 더 수록되어 있다.
請收張維羅州牧使補外之命啓 (21)	張維의 羅州牧使 임명을 거두어 주도록 청한 장계. 장유의 曲直도 드러나지 않았고 외직으로 보냄을 公論이 不可하게 여기므로 命을 거두어 달라는 내용이다. 이하 동일한 내용의 장계가 5 차례 더 있다.
論兵曹判書李貴訴辱大臣啓 (24)	兵曹判書 李貴가 대신을 비방하고 욕되게 한 일을 변론하는 장계. 經筵 중에 李貴가 좌의정 金滂를 李爾瞻에 비유하며 비판하였는데 임금이 시비를 가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이다. 이하 동일한 내용의 장계가 3 차례 더 있다.
請罷遣豐呈妓樂啓-庚午 (27)	豐呈(왕이 베푼 잔치)에 妓樂을 보내지 말라고 청하는 장계. 나라가 위태로운데 기악 등을 즐길 때가 아니므로 그만두도록 청하는 내용이다.
伸救大司憲鄭蘊仍避嫌啓 (27)	大司憲 鄭蘊을 구원하고 인하여 혐의를 피하는 장계. 정온이 온당치 못한 말을 하였으나 재변으로 求言하는 전교에 응한 것이니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李貴가 대간들을 책망한 것을 이유로 파직을 청한 내용이다.
請禁大君房折受啓 (28)	大君房의 토지 절수를 금하도록 청하는 장계. 궁가의 절수 폐단이 황해도 경기도 해안일대에 특히 심하다. 이제 전라도 興陽縣 해안 30 리에 羅老島라는 작은 섬에까지 절수의 폐단이 미치니 宮奴들의 농간을 覈實하여 금하도록

	청하는 내용이다.
請兵曹堂郎推考啓 (29)	병조 郎廳을 추고토록 청하는 장계. 반정 이후 대간들이 궁내에 여인들의 출입을 금하였는데 지금은 防禁이 해이하여 無籍 女人이 출입하니 該曹의 郎廳을 추고하라는 내용이다.
請查治竹山軍民搆誣地主之罪啓 (29)	竹山の 軍民들이 地主를 무고한 죄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청한 장계. 府民이 함부로 수령을 고소하면 소신있는 정책을 펴지 못하니 지금 수령을 무고한 죽산의 군민들을 자세히 조사하여 변방으로 내치라는 내용이다.
請禁公私賤投屬內需司之弊啓 (30)	公私賤들이 內需司에 투탁하는 폐단을 엄금하도록 청하는 장계. 지방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內需司에 많이 投屬하였는데 이 가운데 원통한 자들은 호소하도록 하고 內需司 관원 중에 作弊한 자들은 유사가 적발하여 치죄하도록 청하는 내용이다.
再啓 (31)	公私賤들이 內需司에 투탁하는 폐단을 엄금하도록 청하는 두 번째 장계. 내수사 투탁자들의 抱冤 이유와 작폐자의 성명을 들이라는 임금의 비답에 내수사 提調에게 물어 懲治함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避嫌啓 (32)	내수사 혁파를 주장하며 사직을 청한 장계. 내수사를 혁파하도록 청하였으나 임금이 私情에 가리워 비호하는 듯 보이니 간관으로서 임금의 실책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사직하는 편이 낫겠다는 내용이다.
請考講儒生勿拘額數落講軍保別立名目啓 (33)	考講 儒生 가운데 낙강자들을 軍役に 보충하는 일을 신중히 하도록 청하는 장계. 考講에 額數를 정한 후 落講者를 充軍하면 良民들 중 避役하려고 校生이 된 자들은 문제가 없으나 三南의 교생들은 대개 士族이라 불편이 있다. 사족은 軍役に 充保되었더라도 收布를 허락하여 軍資를 넉넉히 하고 人心을 위무하는 도리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제

권제목:卷五

島奉使時間見啓-丁卯 (1)	1627. 신달도가 接伴使 元鐸과 함께 椴島에 들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건문한 사실을 정리하여 올린 장계. 3월 24일 임진강을 건너 가도로 출발하여 중도에 海州, 信川, 龍岡, 咸從, 甌山을 거쳐 4월 15일 가도에 도착하였는데 여행 도중에 각 지역의 지형과 이에 맞추어 築城法 등을 進達하고 가도에 도착한 이후의 情況을 일기 형식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憲府推考公緘 (27)	사헌부의 推考에 대한 自辯의 글. 지금 國事를 보면 민생은 곤궁하고 軍政은 고르지 못하며 財力은 탕갈되고 軍糧은 모자라니 상하가 협동해도 어려운데, 朝廷이 서로 불화하므로 諫官으로서 나라의 망함을 볼 수 없어 諫言하였는데 도리어 朝廷을 우롱하고 臺臣을 모욕하였다고 한다면 억울하다는 내용이다.
呈毛都督-文龍-文 (29)	都督 毛文龍에게 보내는 글. 변방의 백성이 적의 앞잡이가 된 자들이 있어 明軍이 이들을 살육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리어 선한 良民을 죽이는 폐단이 많으니 선처하라는 내용이다.

권제

권제목:卷六

上月川先生-乙巳 (1)	1605. 趙穆에게 올린 편지. 과거 공부와 중요치 않은 일에 골몰하여 도를
--------------	--

	궁구하는데 힘쓰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한 내용.
上旅軒先生-戊申 (1)	1608. 張顯光에게 올린 편지. 평소 제자의 도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면전에서 소견을 말하였는데도 용납하고 제자의 반열로 거두어 가르침을 준데 감사한 내용.
上旅軒先生-癸亥 (2)	1623. 장현광에게 올린 편지. 관직에 나가고 물러나는 도리와 장현광의 理氣說이 퇴계의 정론과 부합하지 못하는 듯 생각되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구한 글.
上旅軒先生-甲子 (3)	1624. 장현광에게 올린 편지. 인조반정 후 시간이 흘렀음에도 조정이 화합하지 못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가 행해지지 못함을 근심한 내용.
答鄭愚伏-丁卯 (4)	1627. 정경세에게 답한 편지. 직언하는 상소로 물의를 빚자 供辭를 초하여 정경세에게 살펴줄 것을 부탁한 내용.
附愚伏書 (4)	윗 편지에 대한 정경세의 답장. 공사의 초안을 읽은 후 적절치 못한 문구를 지적한 내용.
上鄭愚伏書 (5)	정경세에게 올린 편지. 말을 가리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간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소회를 다 말하였을 뿐이므로 죄받을 것을 염려하여 의견을 굽히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내용.
附愚伏書 (5)	윗 편지에 대한 정경세의 답장.
上鄭愚伏-己巳 (6)	1629. 정경세에게 올린 편지. 벼슬을 사양하려는 뜻을 전하고 세도를 만회하려면 인재를 등용하는 것에만 힘쓰지 말고 먼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아 賢才들이 포부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答鄭愚伏-庚午 (7)	1630. 정경세에게 답한 편지. 공적으로는 쓰일 곳이 없고 사적으로 누를 끼치는 자신을 대관으로 추천하면 정경세에게 兩失이 될 것이니 추천하지 말고 산림에서 여생을 마치도록 해달라는 내용.
上李五峯-癸亥 (8)	1623. 이호민에게 올린 편지. 기강을 바로 세울 것, 광해 조정의 죄인을 올바르게 다스릴 것, 오랑캐를 막을 계책을 세울 것 등 反正 이후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세 가지 시급히 행할 일을 진언한 내용.
上李五峯-甲子 (12)	1624. 이호민에게 올린 편지. 兩西의 산성에 백성을 들여보내 지키게 하여 李适 무리의 세력을 위축시키자는 내용.
答李五峯 (13)	이호민에게 보낸 답장. 재해를 구제하고 부세를 낮추어 백성의 流離를 막아 근본을 굳게 한 후 외적에 방비하라는 내용.
答尹相國-昉 (13)	윤방에게 보낸 답장. 무너진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 更張해야 할 시기에 재상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진언한 것으로 먼저 수신에 힘쓰고 어진 인재와 더불어 흔들림 없이 임금과 조정과 사방의 인심을 바르게 하라는 내용.
上宰相書-第一 (15)	재상에게 올린 편지. 재상이 백관을 통솔할 때 도목수가 여러 공인들을 부릴 때 각기 능한 바를 적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하고 학교 교육을 진흥시킬 것, 부세를 경감할 것, 군정을 닦을 것, 국방을 엄히할 것 등 시무 네 가지를 진언한 내용.
上宰相書-第二 (20)	재상에게 올린 편지. 직책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니 또 다른 관직에

	추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
答李尙書-貴 (21)	이귀에게 보낸 답장. 營將의 폐단을 제거할 것과 인재를 구할 때 서두르지 말고 도량과 재예를 살펴 적소에 배치하라는 등 兵務에 대해 진언한 내용.
上李尙書 (23)	이귀에게 보낸 답장.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는 일을 담당하길 이귀에게 전 강원도 관찰사 崔暉 사건을 우선 심리해줄 것을 청한 내용.
答崔訥齋-暉-甲寅 (24)	1614. 최현에게 보낸 답장. 김성일 문집 교정에 참여해달라는 청에 대해 참여의 뜻을 전한 내용.
與崔訥齋 (24)	최현에게 보낸 편지. 關東으로 떠난 최현의 안부를 묻는 내용.
與李寬甫-民晟-癸亥 (25)	1623. 이민성에게 보낸 편지. 반정 직후 처음으로 사신이 되어 중국으로 떠나는 이민성에게 충과 믿음으로 일을 수행하여 임금의 효성과 事大의 성의를 전하도록 당부한 내용.
與趙日章-綱-戊辰 (26)	1628. 조경에게 보낸 편지. 鄭經世를 도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世道를 만회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벼슬을 사양하고 돌아오는 것이 도리라고 당부한 내용.
答趙日章 (27)	조경에게 보낸 답서. 세상이 조금 나아진 듯하나 오늘에 만족하거나 사정에 치우치지 말고 국사에 마음을 다하도록 당부한 내용.
答崔重吉-喆-壬寅 (27)	1602. 최철에게 보낸 답서. 人事 밖에 天理가 따로 있지 않으니 날마다 실천하는 가운데 과실을 없게 하고 새로운 것에 현혹되지 말고 큰 근본을 굳게 지키도록 당부한 내용.
與黃大進-宗海-甲子 (28)	1624. 황종해에게 보낸 편지. 竹林書院에 寒岡(鄭述)과 濯纓(金駟孫)을 世代순으로 追配한다는 소식에 답한 글로 서원에 배향할 때 세대보다 道學이 우선하므로 寒岡을 위에 모시는 것이 마땅할 듯 하지만 일이 斯文에 관한 일이니 장현광에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라는 내용.
答金伯厚-堉-戊辰 (30)	1628. 김육에게 보낸 답장. 벼슬을 버리고 산림에 묻혀 지내는 것을 꾸짖는 김육의 편지에 자신의 처지를 변명한 내용.
與金以志-光繼 (31)	김광계에게 보낸 편지. 林泉에 묻혀있지 말고 분기하여 세도의 책임을 다하도록 당부한 내용.
答柳季華-軫 (31)	유진에게 보낸 답서. 때때로 서찰을 보내 도학의 깨우침을 얻게 해줄 것을 당부한 내용.
附修巖書 (32)	유진이 신달도에게 보낸 안부 편지.
與金道源-世濂 (32)	김세렴에게 보낸 편지. 병으로 여러 차례 사임을 청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니 임금에게 청하여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
答趙飛卿-翼-辛未 (33)	1631. 조익에게 보낸 답서. 서북지역을 방어할 계책을 논한 내용.
與洪副學-瑞鳳 (34)	홍서봉에게 보낸 편지. 호패법의 시행 시기를 잘 살펴서 할 것을 진언한 내용.
答金孝仲-奉祖 (35)	김봉조에게 보낸 답서. 상소를 올려 의론을 분분하게 하였음을 전하고 進退의 문제를 의논한 내용.
答李監司-命俊-甲子	1624. 감사 이명준에게 보낸 답서. 이괄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무예에 재주가

(35)	있는 자를 모아 쓰는 방법과 山城을 정비하는 일을 논한 내용.
答李監司-溟 (36)	감사 이명에게 보낸 답서. 동래에 병영을 설치하고 수령들을 격려하여 민생을 살피게 할 것 등을 진언한 내용.
與洪龍宮-雲 (37)	홍운에게 보낸 편지. 세속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을 닦아 사물을 궁리하는 데 힘쓰라고 충고한 내용.
寄弟晉甫 (38)	동생 悅道에게 준 편지. 관서지방으로 가게 되었음을 알리고 병란의 조짐에 서울 인심이 동요될 것을 염려한 내용.
答晉甫 (38)	동생 열도에게 보낸 답서. 병란의 조짐이 있는 椴島의 형세를 염려한 내용.
與晉甫 (39)	동생 열도에게 보낸 답서. 안부를 묻고 關西의 정세를 염려하는 내용.
與晉甫 (39)	동생 열도에게 보낸 답서. 使行을 떠난 동생의 안부를 걱정하는 내용.

권제

권제목:卷七

南山問目 (1)	신달도가 아우 申悅道와 함께 남산의 元堂에 머물고 있는 장현광을 찾아가 경전을 논의한 글. 1619년 5월 장현광을 찾아뵈고 그의 저술인 <<易學圖說>>을 보고 理氣에 대해 논의한 내용, 1622년 11월 3일간 장현광을 모시고 <<心經>>을 강론하며 四端七情論을 논의한 내용. 임술년 봄 <<近思錄>>을 강론한 내용 등이다.
榜諭境內文-乙丑-判全州時 (4)	1625. 全州 境內의 풍습을 교화하기 위해 붙인 榜文. 전주는 의관과 문물이 풍성하여 南道 제일의 고을이니 이제 呂氏鄉約에 의거하여 約正과 都約正이 마을의 善惡者를 관청에 보고하여 美風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告諭諸生文-乙丑-判全州時 (4)	1625. 전주의 학생들에게 교시하는 告由文. 呂氏鄉約과 퇴계 이황이 정한 罰目を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또 朱子の 白鹿洞規를 부록하여 條例를 만들었으니 諸生이 서로 격려하여 미풍을 일으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鄉約節目 (5)	신달도가 정한 鄉約의 절목. 都約正과 約正, 直月, 里正 등의 선발, 約所의 설치, 鄉交案의 정리, 月朔會의 개최 문제, 婚喪禮 규정, 過失者의 처벌 규정을 정리하였다.
學規節目 (7)	신달도가 정리한 學則. 都學究 副學究의 선발, 학생 선발, 養士의 비용 마련, 直月과 有司의 임무, 學生 帳簿 작성, 善惡籍의 비치, 相揖禮의 시행, 독서의 순서(대학-논어-맹자-중용-六經-心經-近思錄-朱子書節要), 習字시 楷正히 할 것, 同學의 예절 등을 규정하였다.
江都日錄 (16)	호란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 병자호란 초기 朝廷의 對淸 논의와 강도로 피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정황을 정묘 정월 17일 적군이 義州를 침범하였다는 평안도 감사 尹暄의 장계로부터 3월 20일까지 일자별로 정리하였다.

권제

권제목:卷八

送金孝仲-榮祖-越北幕序 (1)	친구 金榮祖를 함경도로 배송하면 지은 글. 함경도는 나라의 北門으로 오랑개와 충돌하는 지역이다. 김영조와 같이 학문이 높고 뜻이 강고하여 적합한 인물이지만 재주를 궁벽한 곳에서 쓰기에는 아깝다는 내용이다.
------------------	--

送金孝徵-應祖-遊清涼山序 (2)	金應祖를 清涼山에 배웅하면서 지은 글. 영남에 八公山, 伽倻山, 頭留山 등 名山이 많으나 비상한 기운으로 비상한 인물을 낼 곳은 청량산 뿐이라 일찍이 이황이 있었다. 이제 그대가 선생을 닮으려는 의지로 산에 가니 선생의 자취와 正大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送許仲開-啓-之任蓬萊郡序 (3)	許啓를 任所인 강원도 高城郡으로 보내면서 지은 글. 금강산이 있는 고성군으로 부임하니 신선의 자취를 볼 수 있겠다며 부러워하는 내용이다.
送弟晉甫弟朝天序 (4)	동생 신열도가 冬至書狀官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배웅하면서 지은 글. 충효는 인간의 가장 귀중한 덕목이다. 평안히 事大의 정성을 진달하여 조선에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동생의 임무라는 내용이다.
贈別金伯承序 (5)	金伯承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면 지은 글. 먼 친척이며 친구인 김백승과 지난 1604년 봄에 만나 담화하고 그 후 다시 만나지 못하니 만나고 헤어짐이 모두 운명인 듯하다는 내용이다.
懶齋記 (5)	1621.5.2. 동생 신열도의 堂號인 懶齋에 붙인 기문. 동생이 자신은 남들처럼 富와 名리를 좇지도 않고, 曲學阿世하지도 않으며 黨을 좋아하지 않으니 당호를 懶齋라 함이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게으름[懶]의 진실된 뜻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成歡郵館重創記 (6)	1624. 5. 20. 성환역의 館舍를 중창하고 지은 글. 정유년 왜란으로 소실된 관사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내가 인조 계해 10월에 부임하여 중건하기로 하고 이제 겨우 衙舍를 증축하니 나머지는 후임자가 완성하라는 내용이다.
敬書西厓先生手簡帖後 (7)	西厓 유성룡의 簡帖을 보고 지은 후지. 일찍이 유성룡 문하에서 畢業하지 못하여 한스러웠는데 지금 친구 權季明으로부터 手簡帖을 얻어 보고 감탄하여 말미에 한두 마디의 글을 붙인다는 내용이다.
力學箴-九歲作 (7)	열심히 공부할 것을 결심한 글. 처음 하늘이 품부해 준 人性은 聖賢이라도 나와 다를 것이 없으니 그들의 자취를 따르겠다는 내용이다
元朝自警箴 (8)	정월 초하루 아침에 스스로 경계하며 지은 글. 새해에 나이를 먹으니 새로이 덕에 힘쓰겠다는 내용이다.
本朝請由海路入貢表 (8)	바다를 통하여 조공을 바칠 수 있게 海路를 열어달라는 표문. 지금 청의 무리가 만주 지역을 점령하였으니 동쪽 바닷길을 열어 入貢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本朝訓練都監進金應河忠烈錄箋 (9)	訓練都監에서 봉진한 金應河의 忠烈錄을 진언하며 올린 표전. 위태할 때에 생명을 바치는 충절을 傳으로 작성하여 후세에 절개를 포장하는 자료로 삼으니 鑿巫閼의 땅을 회복하려다 전사한 김응하의 충절을 기리도록 충열록을 봉진한다는 내용이다.
賀大殿准封箋 (10)	大殿의 인준을 축하하는 전문.
賀大妃殿箋 (11)	대비전에 하례하는 전문.
賀王世子冊封箋 (11)	왕세자 책봉을 축하하는 전문.
正朝賀箋 (11)	정월 초하루 宮中の 獻壽禮를 축하하는 전문.
金而和-中淸-哀辭 (12)	신달도와 함께 장현광의 문하생이었던 金中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글.

先祖按廉使府君墓豎碑告辭 (13)	고려말의 先祖 按廉使 申祐의 墓에 碑를 세운 후 지은 글. 사후 300 여 년이 지난 지금 外孫인 鄭經世에게 부탁하며 묘갈문을 짓고 묘비를 새워 후손의 도리를 다하였다는 내용이다.
焚黃告辭 (13)	신달도가 世子侍講院 左弼善에 올라 先考와 先妣에게 각각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와 淑夫人의 칭호가 내려지자 이를 축하하면서 지은 제문.
祭月川先生文-丁未 (14)	신달도가 지은 장현광의 제문.
祭外舅中壘先生墓文 (14)	신달도가 外舅 中壘(미상)의 墓에 제사지내며 지은 글.
祭尹遠卿文 (15)	신달도가 지은 친구 尹遠卿의 제문.
祭鄭比安-復亨-文-庚午 (15)	신달도가 지은 친구 鄭復亨의 제문.
祭從祖兄鼎峯公文 (16)	신달도가 지은 從祖兄 申弘道の 제문.
伯父司憲府監察府君墓誌 (17)	신달도가 지은 伯父 司憲府 監察 申尙의 묘지명.
先考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城隱府院君遺事 (19)	신달도가 지은 아버지 申尙의 유사.
從祖兄鼎峯申公行狀 (24)	신달도가 지은 從祖兄 申弘道の 행장.

권제	권제목:卷九
晩悟先生年譜 (1)	1656. 4. 동생 申悅道가 쓴 신달도의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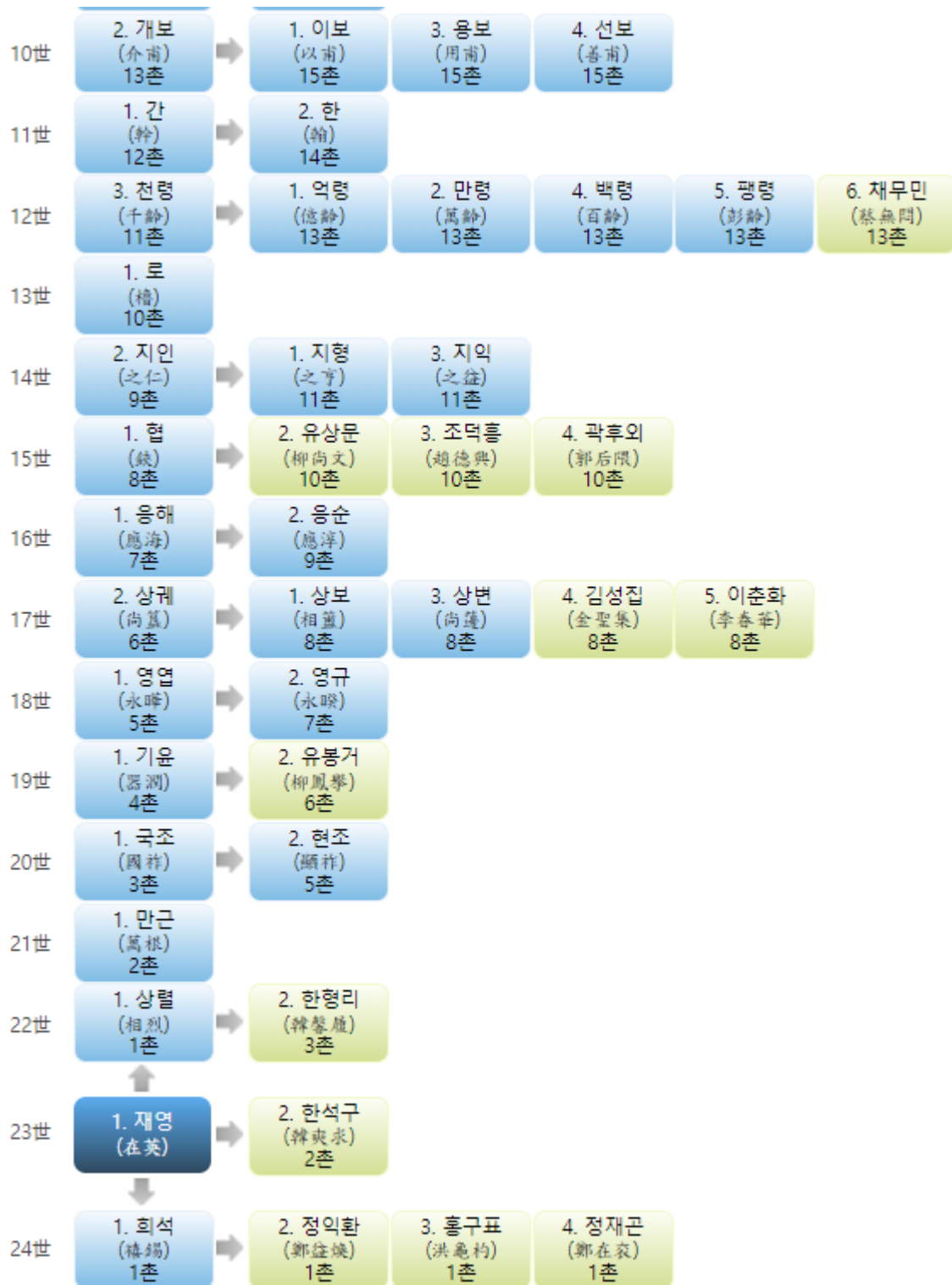
권제	권제목:卷十
行狀 (1)	1653. 동생 申悅道가 지은 신달도의 행장.
墓碣銘 (22)	1656.2. 이현일이 지은 신달도의 묘갈명문.
墓誌 (29)	1656. 동생 신열도가 지은 신달도의 묘지명.
祭文 (32)	鄉校 儒生 金尙奇 등 7 인이 지은 신달도의 제문
挽章 (44)	장현광, 李好閔, 金湜, 金堉, 尹昉, 李景奭, 崔鳴吉, 李垞, 金世濂, 金時讓, 趙綱, 李貴, 崔暉, 柳軫, 金光繼, 韓汝漫, 吳翻, 尹煌, 李敏求, 鄭斗卿, 金光炫, 李溟, 金壽賢, 李燾, 李昭漢, 朴東善, 沈東龜, 鄭廣成, 鄭世規, 李基祚, 洪霧, 李民寅, 尹毅立, 宋克訥, 洪壘, 尹墀, 趙纘韓, 尹榮, 俞省曾, 柳碩, 許徵, 崔惠吉, 李大圭, 許啓, 李景義, 尹暉, 李惟達, 姜弘重, 洪@, 申尙哲, 李挺南, 曹漢賓 등 53 명이 지은 신달도의 만장. (김지영)

만헌유고(晩軒遺稿)신상열(申相烈) 著

23世 재영(在英)

父 : 상열(相烈) 祖父 : 만근 (萬根)

귀파(龜派)직장공파(直長公派)



만헌유고(晩軒遺稿)신상열(申相烈) 著

표제/저자사항晩軒遺稿 / 申相烈 著

신상열

판사항影印本

발행사항[刊寫地未詳]: [申在英](#)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2卷1冊(73張): 四周單邊 半郭 20.7 x 16.3 cm, 有界, 10行22字 註雙行, 上下向 2葉花紋魚尾; 26.5 x 19.0 cm

주기사항序: 歲著雍困敦(1948)...宋斌憲

跋: 時己丑(1949)...卞榮寅

墓庭碑贊助名簿: 甲午(1954)...不肖 在英

해당 자료의 보존 및 훼손 상태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축됨

분류기호[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 3648

권수제(卷首題) : 만헌유고(晩軒遺稿) 저자의 시문은 아들 신재영이 유고를 수지하여 1982년 신희석이 영인본으로 발간하였다. 권수에 송빈헌이 지은 서문이 있다. 권상에는 시, 권하에는 서와 기가 실려 있으며 권미에 변영인이 지은 발문이 있다.

목록(目錄)

만헌유고서(晩軒遺稿序)

만헌유고권상(晩軒遺稿卷上)

시(詩)

만헌유고권하(晩軒遺稿卷下)

서기(序記)

논설(論說)

부록(附錄)

발(跋)

만헌공묘정수비찬조명부(晩軒公墓庭豎碑贊助名簿)

사서제요도설(四書提要圖說) 신응태(申應泰)

신응태(申應泰)

조선후기 『용애문집』을 저술한 학자.

개설

본관은 아주(鵝州). 초명은 응개(應漑). 자는 길래(吉來), 호는 용애(龍崖). 충청북도 청주 출생. 신삼(申鑣)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광주반씨(光州潘氏)로 반봉익(潘鳳翼)의 딸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5 세 때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홀로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일찍이 향시에 여러 번 합격하였으나 과거에는 끝내 오르지 못하고, 그 뒤 뜻을 달리하여 학문연구에 전심, 역학과 성리학에 깊이 들어갔으며 천문·역수에도 밝았다.

1689년(숙종 15) 송시열이 사사되자 이에 항변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써서 대궐 앞에 나아가 시위하는 등, 스승의 신원을 위하여 힘썼으며, 명의 신종을 제사지내자는 유림의 운동에 앞장섰다. 만년에는 후진 양성에 힘써 문하에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 저서로 『용애문집(龍崖文集)』 4권 1책, 『사서제요도설(四書提要圖說)』, 처명태주도 이 있다.

서지정보

자료제공처	디지털 장서각 전자도서관
번호	164434
서명	四書提要圖說
저자	申應泰(朝鮮) 撰
판사항	石印本
간사사항	戊申(1968)
청구번호	A9A-8

MF 번호	MF35-9110
형태사항	2 卷 1 冊;圖;28.5 × 19.6cm
인기	印 : 「靜軒」
청구번호_정렬	04_A09A-0008
자료분류	고서 > 장서각 수입본 > 經部 > 四書類 > 總集通義
CLASSCODE	JBAIA

아주 신씨 3효자의 아주 신문(鵝洲申門) 삼효각(三孝閣)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화창리 2-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신문(鵝洲申門) 삼효각(三孝閣)은 2015년 4월 17일 청주시 향토유적 제15호로 지정되었다.

삼효각은 1655년(효종6) 효자(孝子)조산대부(朝散大夫)신협(申挾, 1605 ~ 1691), 1683년(숙종9) 양일당(養一堂) 신지익(申之益, 1596 ~ 1640)과 그의 아들 신심(申鑾, ? ~ ?) 부자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정려이다. 숙종 29년 1703년에 이곳에 아주 신씨(鵝洲申氏) 3효자의 효행담을 합쳐 모신 것이다.

삼효각은 1972년에 다시 지은 건물로 정면 2칸,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목조 기와집으로 지어졌고 철제로 사면을 둘러 담장 역할을 하고 중앙에 철제문을 설치했다.

정려는 팔각 돌기둥 고주초석(高柱礎石) 위에 나무기둥을 올렸으며, 사면은 홍살로 막고 안에 '효자학생신협지문(孝子學生申挾之門)', '효자조산대부행영송전참봉신지익지문(孝子朝散大夫行永崇殿參奉申之益之門)', '효자학생신심지문(孝子學生申鑾之門)' 3효자의 정문 편액을 걸었다.

그밖에도 1686년(숙종12)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가 쓴 '아주신씨선세사실(鵝洲申氏先世事實)'과 1703년(숙종29)에 장암(丈巖) 정호(鄭澍)가 지은 '삼효사실기

(三孝事實記)' 그리고 1762년(영조38)에 송가상(宋可相)이 지은 '삼효려중수기(三孝閭重修記)'가 걸려 있다. 밖에는 '삼효려(三孝閭)'이라는 현판을 달았다.

그들의 효행을 살펴보면 효자 신협은 어머니가 병환에 들자 손가락을 단지하여 그 피를 마시게 하여 병을 낫게 했고, 어머니께서 한 거울에 고사리를 먹고 싶다고 하자 추운 거울산을 헤매고 다녀 고사리를 구해와 맛있게 음식을 해드렸다고 한다. 이렇듯 미원면 화창리의 넓은 들판에 아주 신문 삼효각은 아름다운 효행이야기를 담고 후손들을 품어주고 있다.

*신지익(申之益, 1588 ~ 1649)의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순거(舜舉), 호는 양일당(養一堂)이다. 승지(承旨)를 지낸 오재(梧齋) 신지제(申之悌)의 종제(從弟)로 학행(學行)이 있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였다. 어머니 병환에 목욕재계(沐浴齋戒) 후 북두칠성(北斗七星)에 빌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였다. 상(喪)을 당해서는 목 놓아 큰 소리로 울다가 혼절하기도 하였으며, 상중에는 삼베옷을 벗지 않고 집상(執喪)하는 등 효행(孝行)이 높아서 신지익과 사촌 신협(申缺), 아들 신심(申鑣)과 함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미원면 가양리 솔골 삼효각(三孝閣)에 1703년(숙종29) 효로써 정려(旌閭)되었다. **손자 신응태(申應泰)**는 우암(尤庵)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나고, ≪사서제요도설(四書提要圖說)≫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행장(行狀)을 찬(撰)하였고, 공(公)에 대한 일이 ≪삼강록(三綱錄)≫에 기재되었다. 청주(淸州)의 검암서원(檢巖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검암서원

검암서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있다. 2015년 4월 17일 [청주시의 향토유적](#) 제31호로 지정되었다.

연혁

검암서원은 1694년(숙종 20)에 조헌(趙憲)을 주향하고, 한일휴(韓日休), 지여해(池汝海), 신지익(申之益), 변상회(卞尙會), 송국헌(宋國憲), 신영식(申永植), 이동형(李東亨), 박문고(朴文古), 연최적(延最積)을 배향한 서원으로 원생 15명과 자모생 15명을 두었다. 1871년(고종 8)에 철폐되었는데, 1958년에 유림에서 다시 세우고, 신응태(申應泰)를 추향하였다.

배향인물

1)주벽-조헌(趙憲, 1544~1592)

조선 중기의 문신·유학자·의병장. 본관은 배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도원(陶原)·후율(後栗). 경기도 김포 출생. 황(璜)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세우(世佑)이고, 아버지는 응지(應祉)이다. 어머니는 차순달(車順達)의 딸이다. 이이(李珣)·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55년(명종 10) 12세 때 김황(金滉)에게 시서(詩書)를 배웠는데, 집이 몹시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 옷과 신발이 다 헤어졌어도 눈바람을 무릅쓰고 멀리 떨어진 글방 가는 것을 하루도 쉬지 않았으며, 밭에 나가 농사일을 도울 때나 땀감을 베어 부모의 방에 불을 땀 때에도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고 한다.

1565년 성균관에 입학했으며, 156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68년(선조 1) 처음으로 관직에 올라 정주목·파주목·홍주목의 교수를 역임하면서 사풍(士風)을 바로잡았다. 1572년부터 교서관의 정자·저작·박사를 지내면서, 궁중의 불사봉향(佛寺封香)에 반대하는 소(疏)를 올려 국왕을 진노하게 하였다. 성절사(聖節使) 박희립(朴希立)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동환봉사 東還封事>를 지어 올렸다.

1575년부터 호조좌랑·예조좌랑·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을 거쳐, 경기도 통진현감으로 있을 때, 내노(內奴)의 횡행죄를 엄히 다스리다가 죽인 죄로 탄핵을 받아 부평으로 귀양 갔다가 3년 만에 풀려났으며, 다시 공조좌랑·전라도도사·종묘서영(宗廟署令)을 역임하였다.

1582년 계모를 편히 모시기 위하여 보은현감을 자청하여 나갔는데, 그 치적이 충청좌도에서 으뜸으로 손꼽히었다.

그러나 대간의 모함에 따른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다시 공주목제독(公州牧提督)을 지냈다.

1587년 동인 정여립(鄭汝立)의 흉패함을 논박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지어 현도상소(縣道上疏)하는 등 5차에 걸쳐 상소문을 올렸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일본사신을 배척하는 소와 이산해(李山海)가 나라를 그르침을 논박하는 소를 대궐문 앞에 나아가 올려 국왕의 진노를 샀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옥천군 안읍밤티(安邑栗峙)로 들어가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을 닦는 데 전념하였다.

1589년 지부상소(持斧上疏)로 시폐(時弊)를 극론하다가 길주 영동역(嶺東驛)에 유배되었으나, 이 해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풀려났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李瑀)·김경백(金敬伯)·전승업(全承業) 등과 의병 1,600여 명을 모아, 8월 1일 영규(靈圭)의 승군(僧軍)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충청도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해산당하고 불과 700 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산으로 행진, 영규의 승군과 합진해서,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의 왜군과 8월 18일 전투를 벌인 끝에 중과부적으로 모두 전사하였다. 후세에 이를 숭모하여 금산전투라 일컬었다.

1604년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책록되고, 1734년(영조 10)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883년(고종 20) 문묘에 배향되고, 옥천의 표충사(表忠祠),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 김포의 우저서원(牛渚書院),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등에 제향되었으며, 1971년 금산의 순절지 칠백의층이 성역화되었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2) 신지익(申之益) 1588년(선조 21)~1649년(인조 27).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순거(舜舉), 호는 양일당(養一堂).

승지(承旨)를 지낸 오재(梧齋) 신지제(申之悌)의 종제(從弟)로 학행(學行)이 있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였다. 어머니 병환에 목욕재계 후 복두칠성에 빌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였다. 상(喪)을 당해서는 호읍(號泣)하다 혼절하기도 하였으며, 최질(衰絰)을 풀지 않고 집상(執喪)하는 등 효행(孝行)이 높아서 신지익과 사촌 신협(申缺), 아들 신심(申鑣)과 함께 충북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 솔골 삼효각(三孝閣)에 1703년(숙종 29) 효로써 정려(旌閭)되었다. 손자 신응태(申應泰)는 우암(尤庵)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나고, 『사서제요도설(四書提要圖說)』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행장(行狀)을 찬(撰)하였고, 공(公)에 대한 일이 『삼강록(三綱錄)』에 기재되었다. 청주(淸州)의 검암서원(儉巖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3) 신응태(申應泰) 1643년(인조 21)~1728년(영조 4) 본관은 아주(鵝州). 초명은 응개(應漑). 자는 길래(吉來), 호는 용애(龍崖). 충청북도 청주 출생. 신심(申鑣)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광주반씨(光州潘氏)로 반봉익(潘鳳翼)의 딸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5세 때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홀로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일찍이 향시에 여러 번 합격하였으나 과거에는 끝내 오르지 못하고, 그 뒤 뜻을 달리하여 학문연구에 전심, 역학과 성리학에 깊이 들어갔으며 천문·역수에도 밝았다.

1689년(숙종 15) 송시열이 사사되자 이에 항변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써서 대궐 앞에 나아가 시위하는 등, 스승의 신원을 위하여 힘썼 으며, 명의 신종을 제사지내자는 유림의 운동에 앞장섰다. 만년에는 후진 양성에 힘써 문하에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

저서로 『사서제요도설(四書提要圖說)』, 『용애문집(龍崖文集)』 저자의 유고는 8권이 있었으나 산일되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다. 9세손 신태선이 성구용과 함께 남은 원고를 편찬하여 1968년 간행하였다. 4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에 김성환과 성구용의 서문이 있다. 권1은 시와 소, 서, 권2는 잡저, 권3은 기, 제발, 찬, 제문 등, 권4는 부록이다. 권미에는 신태선의 발문이 실려 있다.

건축물소개

지금의 서원은 1958년에 중건하고 1960년에 중수하고 1985년에 보수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인데, 내부는 통칸 양회방에 분합문을 달고 앞퇴를 두었으며, 충효사(忠孝祠)라는 편액을 걸었고, 마당 앞에 검암서원(儉岩書院)이라는 현판을 단 삼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렀다.

향사일과 재산

이 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3월 중정(中丁)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7번(饗) 7두(豆)이다. 재산으로는 대지 300평과 전답 1,400여평 등이 있다.

충북학연구소 '충북학' 21집 발간

충북학연구소가 '연구논문' 6편을 비롯해 '문화초점' 2편, '충북의 재발견' 2편, '인물탐구' 3편으로 구성된 '충북학' 21집을 펴냈다.

연구논문 박한철 충북도문화재연구원 '나말여초기 충북지역 환호의 특징'은 나말여초시기 청주와 충주 지역의 환호유적을 소개하고 있다. 조혁연 충북대 사학과 초빙교수 논문 '1444년 세종대왕의 청주목 초수리 거동과 토지공법'은 세종이 1444년 초정약수를 찾아 거주하면서 인근 청안현에서 토지공법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용남 전 충북대 강사의 논문'용애 신응태의 삶과 시 세계'는 조선 후기 청주 미원에서 활동한 학자 신응태의 삶과 시세계를 조망했다. 김종수 세명대 외래교수의 논문 '연초재 오상림의 창랑옹모산별업십육경소지에 대한 역주'는 18세기 오상림이 저술한 '창랑옹모산별업십육경소지'의 문헌적 특징과 작품의 내용, 구성, 서술방식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상주 전 중원대 한국학과 교수의 논문 '단양팔경의 정립과 채진두의 단양팔경에 대한 고찰'은 단양팔경의 정립과정을 살펴보고 현대인물인 채진두가 남긴 '단양팔경'시를 소개하고 있다. 이창식 세명대 미디어문화학부 교수의 논문 '충청권 아리랑유산의 실상과 전승'은 충청권 아리랑유산을 정리하고 앞으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화초점 코너에는 최근 충북 문화계에 관심이 집중된 문학관 건립문제에 대해 정민 충청대 교수의 글'충북 지역 문학관의 현재와 미래'를 실었으며 '충북교육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선영 충북교육박물관 교수의 글을 실었다.

충북의 재발견 부문에서는 '맥락적 근거 제시를 통한 신미대사의 한글 창제 관여 가능성 고찰'(최시선 광혜원고 교장), '청주신사의 위치 변화와 의미'(김희찬 충북향토사연구회 사무국장)를 실었다.

인물탐구 분야에서는 김양식 박사가 '대곡 성운을 통해 노년을 배우다'에서 성운의 보은 귀촌 생활과 사상을 다뤘으며 이상기 문학박사가 '한 혁명자의 회억록 속에 담긴 문학이야기'에서 충주 출신 독립운동가 류자명의 자서전 '한 혁명자의 회억록'에 나타난 류자명의 문학세계와 삶을 재조명 했다. 또 정연승 소설가가 '3·1운동의 주역, 민족대표 6인을 찾아서'를 통해 청주 삼일공원에 동상이 세워진 의암 손병희, 우당 권동진, 청암 권병덕, 동오 신흥식, 은재 신석구 등 충북독립운동가들을 소개했다.

이상기 박사의 '한 혁명가의 회억록속에 담긴 문학이야기'는 충북도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혁명가 류자명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격동적인 우리 근현대사의 중심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몸소 겪으며 갈등하고 고민하고 행동한 자신의 삶을 담은 류자명의 회억록은 한국근현대사의 집대성이자 한 사상가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장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이 박사의 원고를 계기로 충북도민들이 류자명의 삶과 그가 선택하고 판단한 가치들이 제대로 평가받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화초점 코너에서 이선영 강사의 '충북교육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활성화방안'은 수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잘 제시해주고 있다. 이 강사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 중요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 역할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시선 교장의 '맥락적 근거 제시를 통한 신미대사의 한글창제 관여 가능성 고찰'은 최근 영화 '나랏말싸미'로 논란이 됐던 신미대사의 한글창제 관여 여부에 대한 고찰이다.

충북학연구소 정삼철 소장은 "2019년 3·1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그 정신을 이어받아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원동력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정체성과 문화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저널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학문 뛰어난 우암의 문인 '신응태' 사서제요-처명태주도 저술

호장 신영미(申英美)의 현손(손자의 손자)이자 판도판서 신원유의 아들인 신우(申祐)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효자로 유명하다.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해 사헌부장령과 전라도안렴사를 역임했다. 그는 효행이 뛰어나 아버지가 죽자 여막에서 3년 간 조석으로 호곡해 무덤 앞에 쌓 죽이 돌아났다. 나라에서 정려를 내리고 그가 살던 마을 이름을 효자리로 불렀으며 효행을 돌에 새기고 '삼강행실록'에 기록했다. 신우는 이성계와 일찍부터 친구간으로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조선이 개국된 뒤 형조판서에 임명됐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려가 망하자 의성군 다밀면 망경산으로 내려가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켰다. 검암서원과 상주의 속수서원에 제향됐다.

신우의 7세손 신원록(1516-1576)도 조선의 효자로 뛰어나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병이 들자 팔공산 수백리 길을 찾아 약초를 구해 밤잠을 안자며 8년 간이나 간호했다.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눈비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 세 번씩 성묘(省墓)하는 등의 효행으로 조정에 의해 효자문이 세워졌다.

조식에게서 학문을 닦다가 주세붕이 백운동서원을 설립하자 문하생이 됐다. 동료들과 함께 장천에 서원을 세우고 김안국을 제향, 장천서원이란 이란 사액(賜額)을 받았다. 벼슬은 교수를 지냈다. 호조참의에 추증, 의성의 장대서원에 제향됐다.

신원록의 손자인 신달도(1576-1631)는 조선의 문신이다. 조목과 장현광의 문인으로 1610년(광해군2년)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정계가 혼란하므로 벼슬을 단념했다. 1623년(인조1년) 정시 문과에 장원, 사헌부, 사간원에서 요직을 역임했다. 1627년 정묘호란 때는 정언(正言)으로 있으면서 척화를 주장, 윤희과 함께 최명길의 주화론을 극력 배격했다. 이듬해 지평이 됐으며 도승지에 추증됐다.

신열도(1589-1647)는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했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인조를 강화에 호종했다. 이듬해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후 울진현감, 1648년에 장령을 거쳐 능주목사가 됐다.

군기시정 신광귀의 아들 3형제 중 장남 신희신은 통훈대부로 단양군수를, 차남 신희충은 하동현감을 지내고, 막내 신희경은 어모장군에 올라 가문을 크게 중흥시켰다. 삼강록에 행실이 기록된 신지익의 손자 신응태는 우암 송시열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나 '사서제요'와 '천명태주도' 등의 저서를 남겼다.

관향(貫鄕)이 아주현(지금의 경남 거제군)이나 세거 기록은 없다. 3세에서 6세까지 관직으로 보아 개경에서 거주하다 이태조가 등극하자 6세 신우가 지금의 경북 의성군 단밀면 망계산 하로 세거지를 옮긴 듯하다.

1930년대 이후 아주신씨는 의성군 일원과 충북 청원군, 중원군, 경북 영천군, 영일군 등지에 세거하고 있으며 1980년대에는 충북 괴산, 경북 안동 등지에도 세거하고 있다.

조선시대 과거 급제자는 신달도(申達道, 1576 丙子生) : 문과(文科) 인조1년(1623) 정시 갑과(甲科) 장원급제, 신흥망(申弘望, 1600 庚子生) : 문과(文科) 인조17년(1639) 별시 병과(丙科), 신유(申瑠, 1606 丙午生) : 문과(文科) 인조24년(1646) 식년시 병과(丙科), 신면주(申冕周, 1768 戊子生) : 문과(文科) 순조5년(1805) 별시 병과(丙科), 신면횡(申冕鑛, 1794 甲寅生) : 문과(文科) 헌종3년(1837) 별시 을과(乙科), 신정모(申正模, 1691 辛未生) : 문과(文科) 숙종45년(1719) 증광시 병과(丙科), 신지제(申之梯, 1691 辛未生) : 문과(文科) 선조22년(1589) 증광시 갑과(甲科), 신열도(申悅道, 1589 己丑生) : 문과(文科) 인조2년(1624) 증광시 을과(乙科), 신규(申圭, 1611 辛亥生) : 문과(文科) 효종2년(1651) 식년시 을과(乙科), 신면직(申冕直, 1795 乙卯生) : 사마시(司馬試) 순조34년(1834) 식년시 이등(二等) 등 모두 40명이 있다. 문과 9명, 사마시 31명이다.

항렬자는 20세 교(敎), 21세 원, 22세 한(漢), 23세 상(相), 24세 섭(變)환(煥), 25세 재(載)이다. 주요파는 ▲읍파(부령공파) ▲귀파(봉주공파) 등이다.

본관 아주(鵝州)는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에 속했던 지명으로 본래 소가야국(小伽倻國)의 일부였던 독로국(瀆盧國)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신라의 거적현(居績縣 또는 巨績)이었으며 청주(菁州: 旆州)에 속했다.

677년(신라 문무왕 17) 거제에 처음으로 상군(裳軍)을 뒀는데 삼속현(三屬縣)의거로현(居老縣)이라 하다가 757년(경덕왕 16) 거제군(巨濟郡) 아주현(鵝洲縣)으로 개칭하고 성을 쌓았으며 감무(監務)가 다스렸으나 1271년(고려 원종 12) 왜구의 침범으로 거창현(居昌縣)의 속현인 가조현(加祚縣)으로 현민 모두 피난갔다가 1422년(조선 세종 4) 거제현(巨濟縣)의 옛터로 돌아왔으며, 1432년(세종 14) 거제현을 사등성에서 고헌성으로 옮기고 관하에 7면을 뒀는데 이운면(二運面)이라 개칭하고 권농관(勸農官)이 집정했다. 1769년(영조 45) 방리(坊里) 개편으로 아주방(鵝洲坊)이라 했는데 1889년(고종 26) 상아(上鵝)와 하아리(下鵝里)로 나뉘었으나 1915년 6월1일 아주리(鵝洲里)로 뒀으며 1942년 5월1일 부락구제(部落區制)로 장기(場基), 탑곡(塔谷), 내곡(內谷), 용소(龍沼)의 4구(區)를 1969년 5월15일 전래의 고유지명으로 바꿨는데 1989년 1월1일 장승포시(長承浦市) 설치에 따라 아양리(鵝陽里)와 아주리(鵝洲里) 지역을 아주동(鵝州洞)으로 뒀다.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읍 지역이다. 아주(鵝洲)는 용소(龍沼)의 늪에 거위가 서식해 이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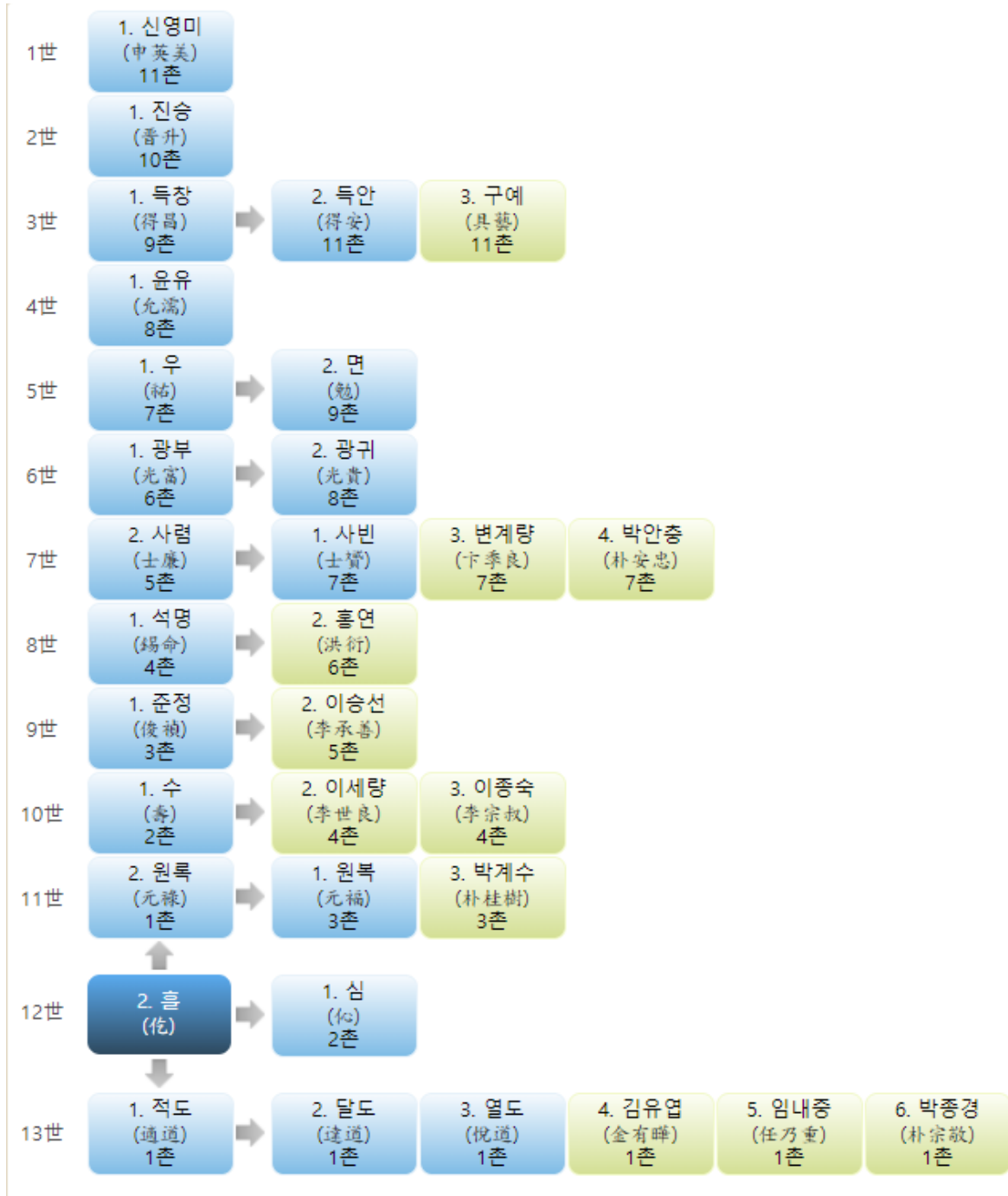
집성촌은 경북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경북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경북 의성군 금성면 하리,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등이다.

성은선생일고(城隱先生逸稿) 신흘 (申屹)

12世 흘(屹)

父 : 원록(元祿) 祖父 : 수 (壽)

읍파(邑派)



신흘(申仵)

『성은일고』는 조선중기 학자인 신흘(申? ; 1550~1614)의 일고이다. 신흘의 자는 구지(懼之), 호는 성은(城隱), 본관은 아주(鵝洲), 아버지는 원록(元錄)이며 의성(義城)사람이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삼년상을 마친 후 묘 아래 집을 지어 영모(永慕)라는 편액을 달고 애도하였다. 임진란에 의병을 일으키고 수 백 명을 모집하여 김해(金垓)·유종개(柳宗介)·정세아(鄭世雅)와 함께 일본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하였다. 1603년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亂中事蹟)』을 편찬하였다. 1608년 홍도(弘道)와 이언적(李彦迪)을 위해 변무하였고, 1611년 정인홍(鄭仁弘)이 국정을 농락하고 성현을 모함한 죄를 논핵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의병.

조선시대 학자 신흘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9년에 간행한 시문집.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구지(懼之), 호는 성은(城隱). 아버지는 신원록(申元祿)이며, 의성(義城) 사람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신흘(申仵)[1550~1614]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삼년상을 마친 후 묘소 아래 집을 지어 '영모(永慕)'라는 편액을 달고 애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영가교수(永嘉教授)를 지냈다. 전쟁이 일어나자 형인 신심(申心)을 도와 창의하였다. 의병을 일으키고 수 백 명을 모집하여 김해(金垓)·유종개(柳宗介)·정세아(鄭世雅)와 함께 왜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하였다. 1603년(선조 36)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亂中事蹟)』을 편찬하였다. 1608년에는 종질인 신흥도(申弘道)와 함께 회퇴[회재이언적, 퇴계 이황] 두 분의 변무소(辨誣疏)를 올렸다.

1611년(광해군 5)에는정인홍이 국정을 농락하고 성현을 모함한 무현죄(誣賢罪)로 논핵하기도 하였다. 그 후로는 어지러운 세상에 나서지 않고 두문불출하면서 고요함을 지켰으며, 경전과 역사책을 보면서 스스로 즐기는 삶을 살았다. 아들 삼형제[신적도, 신달도, 신열도]를 잘 교육하여 충신, 정치인, 학자로 키웠으며, 이로써 의성 지역 명문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읍파인 광부(光富) 계열이 중추가 되어 전성기를 열었다.

학문과저술

『난중사적(亂中事蹟)』을 편찬하였고, 유집으로 『성은일고』가 있다.

내용

909년 신흘의 10대손 신돈식(申敦植) 등이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도헌(柳道獻) 김도화(金道和)의 서문과권말에 이중명(李重明) 이만계(李晚燦)의 발문및 신돈식의 후지(後識)가 있다.

2권1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등에 있다.

권1에 부(賦)5편, 시 10수, 소(疏) 2편, 서(書) 3편, 제문 1편, 잡저 5편, 권2에 부록으로행장·묘갈명·묘지·묘표각 1편, 제문 3편, 만사 15편이 수록되어 있다.서가운데 「여도내의장김한림해유정자종개정진사세아(與道內義將金翰林垓柳正字宗介鄭進士世雅)」를 보면, 일직현에서 결진(結陣)한 의병의 작전수행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당시 의병들이다른 부대와 연합작전을 펴지 않고 이웃 고을의 의병이 위급하여도 도와주지 않으며 싸움을 미루고 세월만 허송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머지않아 바닥이 날 군량과 백성에 대한 신뢰의 실추, 그리고 이에따른 이합집산을 말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촉구하였다.잡저의 「노섭유격사충문(勞葉遊擊思忠文)」과 「섭공위덕비(葉公威德碑)」는 예천에서 안동방면으로 진영을 옮겨온 명나라 장수의 노고를 치하한 내용으로,명나라 사람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상이상국완평서(上李相國完平書)」는 전

란이 끝난 뒤 전란에 대한 기록을 실록청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감회를 밝힌 내용이다. 임진왜란 당시 지방 의병의 활동과 실상을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참고가 된다.

조선 중기의 학자 신흘(申屹, 1550~1614)의 시문집. 2권 1책. 목판본. 1909년 10대손 돈식(敦植)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유도헌(柳道獻)·김도화(金道和)의 서문과 권말에 이중명(李重明)·이만계(李晩燧)의 발문 및 돈식의 후지(後識)가 있다.

권1에 부(賦) 5편, 시 10수, 소(疏) 2편, 서(書) 3편, 제문 1편, 잡저 5편, 권2는 부록으로 행장·묘갈명·묘지·묘표 각 1편, 제문 3편, 만사 15편이 수록되어 있다. 서가운데 <여도내의장김한림해유정자증개정진사세아與道內義將金翰林垓柳正字宗介鄭進士世雅>를 보면, 일직현에서 결진(結陣)한 의병의 작전수행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당시의병들이 다른 부대와 연합작전을 펴지 않고 이웃 고을의 의병이 위급하여도 도와주지 않으며 싸움을 미루고 세월만 허송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머지 않아 바닥이 날 군량과 백성에 대한 신뢰의 실추, 그리고 이에따른 이합집산을 말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촉구하였다.

또, 잡저의 <노섭유격사충문 勞葉遊擊思忠文>과 <섭공위덕비 葉公威德碑>는 예천에서 안동방면으로 진영을 옮겨온 명나라장수의 노고를 치하한 내용으로, 명나라 사람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상이상국완평서 上李相國完平書>는 전란이 끝난 뒤 전란에 대한 기록을 실록청에 제공하면서 자신의 감회를 밝힌 내용이다. 임진왜란 당시 지방 의병의 활동과 실상을 이해하는 데 간접적으로 참고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묘소

좌승지로 증직되었다. 사림에서 신적도, 신달도, 신열도 삼형제를 비롯하여 신적도의 아들 인재(忍齋) 신채(申埰) 부자를 단구 서원(丹丘 書院)에 배향하였다.

[참고문헌]

『난적휘찬(亂蹟彙撰)』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의성의 전통』(의성군, 1982)

『의얼의 메아리』(박인걸 편, 1983)

유교넷(<http://www.ugyo.net/>)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성은선생일고 (城隱先生逸稿)	
저자	성명	신흘 (申仡)
	자	구지 (懼之)
	호	성은 (城隱)
판사항	木版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909	
권수	2	
책크기	30.5×20.9 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신흘(申仡)

항목 ID	GC05200998
한자	申仵
이칭/별칭	구지(懼之), 성은(城隱)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용만

해제

『성은일고』는 조선중기 학자인 신흘(申? ; 1550~1614)의 일고이다. 신흘의 자는 구지(懼之),호는 성은(城隱), 본관은 아주(鵝洲), 아버지는 원록(元錄)이며 의성(義城)사람이다. 부친이 돌아가시자 삼년상을 마친 후 묘 아래 집을 지어 영모(永慕)라는 편액을 달고 애도하였다. 임진란에 의병을 일으키고 수 백 명을 모집하여 김해(金垓)·유종개(柳宗介)·정세아(鄭世雅)와 함께 일본군에 대항하여 전투를 하였다. 1603년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亂中事蹟)』을 편찬하였다. 1608년 홍도(弘道)와 이언적(李彦迪)을 위해 변무하였고, 1611년 정인홍(鄭仁弘)이 국정을 농락하고 성현을 모함한 죄를 논핵하였다.

책목록

성은선생일고(城隱先生逸稿)

성은집 단(城隱集 單)

성은선생일고서(城隱先生逸稿序)

성은선생일고세계도(城隱先生逸稿世系圖)

성은선생일고목록(城隱先生逸稿目錄)

성은선생일고권지일(城隱先生逸稿卷之一)

부(賦)

치악의악식자학자지대병부(耻惡衣惡食者學者之大病賦)

폐호분의관부(閉戶焚衣冠賦)

종산방어부(鍾山放魚賦)

불등형악부(不登衡嶽賦)

인부(印賦)

시(詩)

시제자(示諸子)

잡영삼수(雜詠三首)

만이후[준](輓李侯[寯])

지감(志感)

종자영도실화유감이작(從子泳道失火有感而作)

우음(偶吟)

만이남계[보](輓李南溪[輔])

소(疏)

청류고경리잉청오현종사소[무신](請流高敬履仍請五賢從祀疏[戊申])

청변정인홍무저문순공이황소[신해](請辨鄭仁弘誣詆文純公李滉疏[辛亥])

서(書)

답태학사림(答太學士林)

여도내의장김한림[해]류정자[종개]정진사[세아](與道內義將金翰林[垓]柳正字[宗介]鄭進士[世雅])

상방백이완평[원익○계묘](上方伯李完平[元翼○癸卯])

제문(祭文)

제이학동[광준]문[대빙계작](祭李鶴洞[光俊]文[代冰溪作])

잡저(雜著)

서여헌설후(書旅軒說後)

원류장후[현광]장[계묘](願留張侯[顯光]狀[癸卯])

기문록[출경은선생실기](記聞錄[出耕隱先生實記])

노엽유격[사충]문[무술](勞葉遊擊[思忠]文[戊戌])

엽공위덕비[무술○대작](葉公威德碑[戊戌○代作])

성은선생일고권지이(城隱先生逸稿卷之二)

부록(附錄)

행장(行狀)

묘갈명[병서](墓碣銘[并敘])

묘지(墓誌)

묘표(墓表)

제문(최현)(祭文(崔暉))

우(신지제)(又(申之悌))

우(이시간)(又(李時幹))

만(이민성)(輓(李民成))

우(신지제)(又(申之悌))

우(최현)(又(崔暉))

우(김응조)(又(金應祖))

우(이민환)(又(李民奐))

우(홍위)(又(洪瑋))

우(황치경)(又(黃致敬))

우(황치성)(又(黃致誠))

우(김굉)(又(金宏))

우(신지신)(又(申之信))

우(이민횡)(又(李民弘))

우(이시간)(又(李時幹))

우(백견룡)(又(白見龍))

우(고빙운)(又(高騁雲))

우(박원성)(又(朴元誠))

성은선생일고발(城隱先生逸稿跋)

임진왜란 초기 경상 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경상 좌병사 박진(朴晉)과 권응수(權應銖)의 활동을 중심으로

- 김 진 수**

*본 논문은 2011년 6월 11일 경북대 퇴계연구소가 주관한 韓·中 國際學術大會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육군 3사관학교 전쟁사학과 전임강사

- 1.머리말
- 2.임진왜란 개전 초기 경상 좌도의 상황과 조선군의 동향
- 3.경상 좌도 조선군의 재편 과정과 반격 양상
- 4.맺음말

1.머리말

16세기 말에 발발하였던 임진왜란은 조선, 일본, 명 등 삼국이 참전하였는데,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화약무기가 전투에서 전면적으로 사용되어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아울러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국가간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참전국들은 향후 예상되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 재정, 상공업 등 사회 체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1)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군사사 연구 가운데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2)

임진왜란 극복의 요인은 대표적으로 조선 수군의 활약과 의병의 활동, 그리고 명군의 참전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의병의 활동이 전쟁 극복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인식은 현재까지 한국 사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개전 초기 일본군의 빠른 진격에 조선군 지휘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와해되면서 각 지역의 수령과 장수들이 피난함에 따라 국가

통제력이 상실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이를 대신하여 의병이 육상 전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병의 주된 구성원에 대해서는 사족의 주도 하에 향촌의 주민과 천민 등 하층민으로 인식한 경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개전 초기 허약한 관군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당시 조선의 무기력한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근거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관련 연구에서는 의병에 대한 성과 3)가 풍부한 반면에 전쟁 극복의 주요한 주체인 관군의 활동에 대한 연구 4)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며, 관군의 기여도를 초기 전투보다 1593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5) 기존의 의병 연구는 주로 의병과 관군을 분절적 혹은 양자간의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였거나, 의병의 준 관군적인 측면을 주로 의병장의 관직 제수에 따른 의병 성격의 변질에서 찾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6)

1) 노영구, '군사혁명론'과 17~18세기 조선의 군사적 변화, 서양사연구 36, 2007, 36쪽.

2)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 일일이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진왜란의 연구사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성과만 소개한다. 이장희, 倭亂과 胡亂, 한국역사입문-제 2판, 지식산업사, 1987; 河宇鳳, 사대교린관 계와 양란, 한국역사입문 2, 한국역사연구회, 1995; 오종록, 壬辰倭亂~丙子胡亂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8, 1999; 조원래, 壬辰倭亂史 研究의 推移와 課題,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박재광, 壬辰倭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3) 임진왜란 당시 의병에 대한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김강식, 壬辰時 義兵戰爭,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계승범, 임진의병의 연구 동향과 군사사적 의의, 임진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가치,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09.

4) 朴性植, 壬辰倭亂의 研究 -壬辰·癸巳年 晉州城 戰鬪를 中心으로-, 영남대박사학위논문, 1985; 張學根, 壬辰倭亂기 官軍의 活躍, 韓國史論 22, 1992; 송정현, 壬辰倭亂論 : 官軍과 義兵의 역할 문제, 전남사학 8, 1994; 박재광, 임란 초기 전투에서 관군의 활동과 권율,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1999.

5) 오종록, 앞의 글, 1999, 353쪽.

6) 金康植, 壬辰倭亂 義兵의 性格 變化 -義兵의 官軍化 問題 -, 釜大史學 19, 1995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점차 임진왜란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가 제기 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시도되고 있다. 먼저 관군의 동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전 초기 조선군의 대응과 동원체제는 적절히 작동하였으나 전술적 취약성으로 인해 패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7) 이러한 입장은 개전 초기 경상도 지역에서의 군사체제가 작동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8) 또한 임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 9)와

경주판관 박의장(朴毅長)을 통해 경상 좌도 관군의 활동을 구명한 성과 10)가 나오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임란 초기 관군의 부정적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면서, 이들의 전쟁 기여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임란 당시 지방 수령의 도망으로 인한 통치력 부재에 대한 기존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전에 중앙과 지방이 예전부터 구축했었던 행정 체계가 전쟁 중에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기에 각 지역의 수령들이 대처할 수 있었다는 연구가 나타났다.¹¹⁾ 이러한 시각은 전쟁 당시 지방 수령들의 대응 양상을 전쟁의 시기별, 지역별로 새롭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과 나아가 지휘부의 와해에도 군현별 행정 운용은 물론 지역 방어 체계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7)노영구, 壬辰倭亂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韓國文化 31,2003.

8)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軍史 77,2010.

9)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2007.

10)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軍史 76,2010.

11)李仙晞, 임진왜란 시기 咸陽 수령의 전란대처 - 孤臺日錄 을 중심으로 -, 진단학보 110,2010.

마지막으로 의병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이해이다. 의병의 구성이 향촌민이 아닌 낙오된 관군인 이른바 '산졸(散卒)'이 주력이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화원현(花園縣) 의병장인 우배선 부대의 구성을 통해 확인한 연구가 나타났다.¹²⁾ 또한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지역 의병의 주력이 산졸들로 편성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준관군적(準官軍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¹³⁾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임란 초기 경상좌도 전쟁 양상에 대한 연구는 지역 의병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의병의 입장에서 그 성립과 전투 양상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¹⁴⁾ 그러나 이 지역의 의병장에 대한 문중 사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나머지 의병의 주요 구성원이 단순히 충의에 바탕을 둔 창의군으로 이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의병의 시각에서 전투 양상을 다룬 결과, 상대적으로 관군의 대응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¹⁵⁾

그러나 경상도 관찰사의 서리였던 이탁영(李擢英)의 정만록(征蠻錄)과 의성 의병장이었던 신흘(申屹)의 난적휘찬(亂蹟彙撰)¹⁶⁾ 등에서는 지방 수령 및 관군의 동향에 대한 세부

12)이수건,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민족문화논총 13,영남대 민족문화연구 소,1992.

13)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 현실 64,2007.

14)문수홍, 壬亂 중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壬辰年 永川. 慶州城 收復戰을 中心으로-,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1984;최효식, 임진왜란기 경주전투, 경주사학 10,1991; 경주부의 임란항쟁사, 경주시문화원,1993;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 투의 고찰, 대구사학 47,1994; 임란 초 경주 의병활동 연구, 경주사학 16, 1997; 경주부의 임란의병기록에 관한 연구, 신라문화 19,2001; 임란기 경상좌도 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2004.

15)물론 앞서 언급하였던 朴毅長에 대한 연구(장준호,앞의 글,2010.)는 경상좌도 관군의 동향을 어느 정도 밝혀냈지만,그의 문집인 觀感錄 과 경주성 수복전투 등을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경상좌도의 전쟁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16)신흘(1550~1614)은 본관이 鵝洲로 의성에서 출생하였다.임란 발발후 국왕의 몽진으로 형 申佺과 함께 의성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당시 의병활동을 하던 김해,유종개,정세 아 등과 함께 연합하여 일본군에 대항하기도 하였다.이후 1603 년에 임란 당시의 경상도 내 사적을 지어 보내라는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 을 저술하였다.이 기록이 轉寫되어 난중휘찬 이라는 서명으로 아주 신씨 가문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하태규, 성은 신흘 의 생애와 난중휘찬, 역주 난중휘찬,역락,2010,pp.215~217).이 사료는 임진왜란 당시의 문헌들을 참고하고 보고 들은 바를 보완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임란 초기 경상 도의 상황을 새로이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적인 내용이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개전 초기 경상 좌도의 주요 지역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한 상황에도 일부 관군 장수들은 임지에서 守城에 임하고 있었으며,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지역에서는 권응수(權應銖) 등의 의병장들이 산졸들을 수습하면서 항전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좌도의 지휘부가 와해된 상태에서 이 지역의 조선군은 조직적인 반격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밀양 부사 박진(朴晉)이 6 월에 경상 좌병사로 임명된 이후 좌도의 조선군은 신속한 재편이 가능하였고, 이는 일본군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조선군은 영천성과 경주성 등 주요 읍성들을 수복하였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박진의 전공은 당시 선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중앙 관료들이 이순신의 공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17) 영남의 민심도 그가 없었다면 이 지역이 일본군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18)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박진의 활동과 그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개전 초기부터 6 월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대한 저항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 좌병사 박진에 의해 이 지역의 군사 활동이 활기를 띄었다는 것 19)과 영천성 수복을 위해 그가 각 陳의 부대들 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기일을 약정하였다는 사실 20) 등을 살펴볼 때, 당시 박진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21)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연구에서 관군이 전쟁 극복의 주요한 한 주체였다는 것과 의병 부대가 ‘散卒’로 편성된 준관군 적인 부대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대응 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관군과 의병의 연합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역인 경상 좌도, 그 중에 서도 경상 좌병사 박진과 권응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 지역 조선군의 대응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白雲齋實紀, 觀感錄, 征蠻錄 등 의병장 및 관군 장수의 문집과 亂中雜錄, 壬辰日記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임란 당시 경상도 사적을 종합한 亂蹟彙撰을 함께 활용하겠다.

17) 선조실록 ,권 30,25 년 9 월 14 일 辛未.

18) 선조실록 ,권 27,25 년 6 월 28 일 丙辰.

19)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壬辰倭亂史 ,1987,114 쪽.

20)申屹, 譯註 亂蹟彙撰 ,역락,55 쪽.

21)박진은 임란 당시 관군 장수 중 지대한 전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스스로의 문 집이 남아 있지 않아 宣祖實錄 과 같은 正史 및 燃藜室記述 등의 野史와 白雲齋實紀 , 亂蹟彙撰 등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진의 행적을 대 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다음의 논문이 유일하다. 金康植, 임진왜란 시기 密陽地域의 義兵抗爭과 의미 , 釜大史學 28 · 29,2005.

2.임진왜란 개전 초기 경상 좌도의 상황과 조선군의 동향

1)임진왜란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상황

1592 년(선조 25) 4 월 13 일 부산진포에 상륙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일본군 1 번째는 이튿날 부산진성을, 이어 다대포성을 공략하여 점령 하였으며 15 일에는 동래성에 진입하였다. 당시 진주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던 경상도 관찰사 김수(金晬)는 일본군의 침공 소식을 접수하고 곧바로 경상도 지역 군사의 최초 동원을 명령하였다.22) 경상 좌병사 이각도 급히 좌병영의 군사를 이끌고 동래성으로 들어와 있었으며, 양산 군수 조영규와 울산 군수 이연성 등이 이끄는 군사들도 이미 집결해 있었다. 또한 밀양 부사 박진과 경주 판관 박의장 등도 군사들을 인솔하여 동래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울산의 좌병영을 중심으로 13 읍의 군사들이 집결하는 등 조선군의 초기 대응은 일단 작동되었지만, 전력의 현격한 격차와 좌병사의 도망으로 인해 동래성이 함락되었다. 이후 일본군은 4 월 16 일에 경상좌수사 박홍이 이탈한 좌수영에 진입하면서, 기장과 양산을 차례로 함락시킨 후 밀양으로 진격하였다.

22) 征蠻錄乾,임진년 4 월 15 일. 16 일.

일본군 1 번대에 이어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일본군 2 번대는 18 일 부산포에 상륙하여 다음날에는 양산을 경유하여 언양에 진입하였다. 이후 이들은 울산의 좌병영을 향해 계속해서 진격하였다. 당시 좌병영의 상황은 좌병사 관할지역내 13 읍 군사들이 모두 도착하여 수성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동래를 이탈한 적이 있었던 이각은 또다시 본영에서 도망치고 말았다. 결국 경상 좌도를 총지휘하는 이각(主將)의 도망으로 혼란에 휩싸인 좌병영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20 일에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 함락되면서,23) 경상 좌도의 방어체계는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다.

한편 동래로 이동하고 있었던 경주 판관 박의장은 좌병사 이각의 명령에 따라 다시 경주성으로 돌아왔다.24) 당시 경주성은 경주부의 군사 외에 장기현의 군사와 함께 병영군 500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경주 부윤 윤인함은 경상도 순찰사 김수에 의해 포망장(捕亡將)에 임명되었는데, 박의장이 경주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성을 지키고 있다가 그가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좌병사 소속의 병영군 500 명을 소속시키고 포망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다.

한편 박의장은 경주성에 도착하면서 장기 현감 이수일과 함께 모든 장수와 군사들에게 명령해 농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탐정군의 이탈로 인해 박의장 등은 적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주성을 일본군에게 내주고 말았다.25) 이는 경상 좌병영의 함락에 따른 지휘체계 와해로 사기가 극도로 떨어진 경주의 조선군이 일본군의 압도적인 공세를 감당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경주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이를 후인 24 일에 영천성 마저 함락시켰다. 당시 영천군수 김윤국은 새로 축성된 영천읍성에서 제대로 싸워

23) 亂中雜錄 ,임진년 4 월 21 일.

24) 觀感錄 권 1, 家傳 ,임진년 4 월.

25) 觀感錄 권 1, 家傳 ,임진년 4 월. 8 軍史 第 84 號(2012.9)

보지도 않고 충청도로 도망치게 되면서,26) 이 지역의 관군과 백성들도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군을 연이어 격파해 나가던 일본군은 한성을 향해 신속히 북상하였다. 즉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1 번대는 좌수영 -기장 -양산 -밀양 -대구 -인동 -상주 -조령 -충주로 진격하였고,가 토 기요마사의 2 번대는 양산 -언양 -경주 -영천 방면으로 진공하였다. 4 월 18 일에는 일본군 3 번대와 4 번대가 경상남도 김해에 상륙하였고, 5 월에 들어서 후속 부대를 상륙시켜 경주, 영천, 밀양, 대구, 성주, 현풍, 선산, 개령, 금산, 상주 등 경상도 주요 지역에 나누어 주둔시키고 점령 지역마다 진영을 설치하였다.27) 따라서 임진왜란 초기 경상 좌도의 군현 중에서 일본 군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인 영천(榮川), 풍기, 봉화, 진보, 청송, 영덕,

청하, 흥해 등 **안동진과 경주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일본군에게 유린당했다.**²⁸⁾

이렇게 임란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진공과 조선군의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령과 장수는 산악지대나 다른 지역 등으로 피신하였으며, 대부분의 군졸들도 각지로 흩어지는 등 군사력이 와해되었다. 이에 따라 5 월 이후 경상도의 주요 길목에 소규모의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으며, 이들과 함께 주변 지리에 익숙한 倭賊化된 농민들이 노략질을 일삼으므로 그 피해는 매우 컸다.²⁹⁾

26)영천 군수 김윤국이 도망친 행적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영천 의병장 정대임의 昌臺實紀 에서는 기룡산에 있는 묘각사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고(정대임, 창대실기 권 2, 행장), 신흘의 亂蹟彙撰 에서는 충청도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申屹, 譯註 亂蹟彙撰 , 역락, 2010, 55 쪽). 경상도 안집사 김륵의 장계에서는 김윤국이 충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충청도로 도망쳤다는 행적을 뒷받침해 준다(金玔, 栢巖集 권 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27)北島萬次(기타지마 만지), 豊臣秀吉 朝鮮侵略 ,吉川弘文館,1994(김유성,이민웅 번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경인문화사,2008,47 쪽).

28) 宣祖實錄 ,권 27,25 년 6 월 28 일 丙辰 ;申屹, 譯註 亂蹟彙撰 ,역락,2010,61 쪽.

29)조정, 임진일기 ,임진년 5 월 2 일.

2)경상좌도 관군의 항전과 의병의 활동

전쟁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진공과 현격한 열세로 패배를 거듭하였던 경상 좌도의 조선군은 그 지휘체계와 군사력이 와해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상 좌병영의 지휘권 부재와 군사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경상 좌도 진관 30)에 소속된 각 군현별 장수들은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本營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이탁영의 정만록 중 경상 감사의 장계에서는 이러한 조선군의 대응 동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³¹⁾

먼저 경주진의 상황을 살펴보면, 부윤과 판관을 비롯하여 흥해 군수와 장기 현감, 영일 현감, 청하 현감 등은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유격전을 수행하면서, 책임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특히 경주 판관 박 의장은 죽장 현에 주둔하면서 흩어진 백성과 군사들을 수습하고 대장간을 설치하여 화 살 등의 무기를 제작하는 한편, 정예병을 선발하여 가장 중요한 지점에 복병을 배치시켜 일본군의 길목을 차단하거나 배후를 공격하기도 하였다.또 한 밤에는 산 위에서 봉화를 피우고 낮에는 성 밖에서 돌격전을 감행하는 등 일본군을 상대로 주야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³²⁾ 그리고 경주 부윤

30) 당시 경상좌도의 진관 편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李謙周, 壬辰倭亂前 朝鮮의 國防實態, 韓國史論 22,1992,31 쪽).

구 분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경주진관	경주부윤	영산군수, 양산군수, 영천군수, 흥해군수	경주판관, 청하현감, 영일현감, 장기현감, 기장현감, 동래현감, 연양현감
안동진관	안동대도호부사	영해부사, 청송부사, 예천군수, 영천(榮川) 군수, 풍기군수	안동판관, 의성현령, 봉화현감, 진보현감, 군위현감, 비안현감, 예안현감, 영덕현령, 용궁현감
대구진관	대구부사	밀양부사, 청도군수	경산현령, 하양현감, 인동현감, 현풍현감, 의흥현감, 신녕현감, 영산현감, 창녕현감

31) 征蠻錄 坤, 임진년 7 월 25 일.

32) 觀感錄 권 1, 家傳, 임진년 4 월. “以圖桑榆也 遂率官吏 立稍保竹長縣 招集軍民之避匿者 稍有膽氣者 無不影從 於是置冶鑄箭 授兵分屯 別擇智勇之士 設伏要害之處 或遏截之 或 尾擊之夜則列化峰頭 晝則馳突城外 由是據城之賊 稍戢憑陵之氣 不敢大肆搶掠.”

윤인함은 기계현에 주둔하면서 의병장 박인국 등을 領將에 임명하는 등 군사들을 모았고, 4 월 24 일에는 仙桃山에서 차출한 의병들을 南川, 鷄林 등 요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피난민 중에서 1,000 여 명의 군사들을 모으는 등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³³⁾

여기서 이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죽장현과 기계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경주부에는 4 倉이 있었는데, 신광창. 기계창. 죽장창. 안강창 등이 있었다.³⁴⁾ 박의장과 윤인함이 4 개의 창고가 위치해 있던 지역 중 죽장현과 기계현에 각각 주둔한 이유는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주성을 수복하기 위한 군량미와 병장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으로 경상 좌도 지역에서 피난한 군사와 백성들이 은둔한 지역으로서 군사 징발이 용이하였다는 점이다.35) 따라서 박의장 등이 지휘하는 경주의 관군은 창고가 위치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항전을 벌일 수 있었던데 비해, 상대적으로 현지에서 보급을 해결해야 하는 일본군에게는 매우 불리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동진에서는 비록 부사와 판관이 이탈하였지만, 영해 부사와 청송 부사, 영천 군수, 의성 현령, 봉화 현감, 진보 현감, 군위 현감, 예안 현감, 영덕 현령, 용궁 현감 등이 일본군의 공격으로부터 각기 책임 지역을 지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안동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예안 현감 신지제의 경우 6 월까지 임지를 지키면서 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 36)과 용궁 현감 우복룡도 고을을 지키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공로로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점 37)을 들 수 있다.

33) 최효식, 앞의 책, 1993, 51 쪽.

3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1, 경상도, 경주부.

35)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학위논문, 2008, 62~63 쪽.

36) 경상북도. 영남대, 경북의병사, 1990, 235 쪽.

37) 선조실록, 권 26, 25년 5월 15일 甲戌.

일본군 주력의 침공 경로로 이용되었던 대구진은 부사를 비롯하여 청도 군수와 경산 현령, 인동 현감, 현풍 현감, 영산 현감 등도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 중 현풍 현감은 근왕군으로 종군하다가 병사하였고, 영산 현감은 전사하였다. 경상 좌수영의 경우 칠포 만호와 축산포 만호 등도 각자 성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경상 좌병영의 장수들은 지휘부가 와해되었음에도 각자의 책임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던 반면, 지방관들이 이탈한 지역에서는 전직 군관이나 士族 등이 이들을 대신하여 의병을 일으키면서 적의 침입을 막고 있었다. 이들 중 대구진과 경주진 일대의 의병들을 총지휘하였던 의병대장이 권응수이다. 권응수는 본관이 안동으로 신녕현 추곡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582년(선조 12) 별시 무과에 합격하고, 의주에서 국경수비에 종사하다가 1591년에는 경상좌수사 박홍의 밑에서 복무하였던 군관이였다.38) 전쟁이 발발하여 박홍이 좌수영을 이탈함에 따라 권응수도 다른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흩어지면서, 고향인 신녕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신녕 현감 한척이 일본군의 침입을 피해 산속으로 피신하여** 39) 이 지역이 일본군의 침입에 노출되었다. 이에 권응수는 4월 27일 고을을 지키기 위해 동생 권응전, 권응평과 家僮 4~5인, 保人 이온수

등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수습하면서 거병 하였다.40) 권응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상좌도 지역의 의병 부대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직 군관이나 각지의 사족 등을 중심으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영천에서는 정세아와 정대임이, 하양에서는 신해가, 자인에서는 최문병이, 경산에서는 최대기가, 경주에서는 김호 등이 각 지역 기반에 따라 독자적으로 의병 부대를 이끌었다. 이렇게 조직된 여러 의병 부대의 초창기 주요 활동은 향촌 지역 내에서 노략질을 하였던 일본군과 이들과 결탁한 조선인을 격퇴하는 것이었는데, 같은 진내에서 접경을 이루고 있었던 경주진의 영천 의병부대와 대구진의 신녕 의병부대가 부분적으로 제휴가 이루어졌다.

38) 白雲齋實紀 권 1, 年譜 만력 19 년.

39)申屹, 譯註 亂蹟彙撰,역락,2011,55 쪽.

40) 白雲齋實紀 권 1, 啓 3 면. 12 軍史 第 84 號(2012.9)

당시 영천 官奴 희손 등의 수백 명의 무리들이 지역 일대에서 노략질을 하면서 일본군과 내통하고 있었는데,41) 권응수는 정대임 등과 연합하여 이들을 토벌한 것을 시작으로 大洞과 신녕 동쪽의 漢川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여 義城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등의 전공을 세웠다.42)

이때 권응수 등이 지휘하였던 의병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농민과 향촌민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달리 주로 낙오된 관군 출신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당시 경상도 지역 전역에는 다수의 낙오된 군병이 거주하는 각 군현 주변의 산간 계곡 사이에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43) 이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진격으로 인해 지방 수령 등 이들을 지휘할 조선군의 지휘부는 상당히 와해되었지만, 대부분의 군졸들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44)

다음의 사료들은 영천을 비롯한 경상 좌도 지역의 의병이 모집되어 부대가 편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A 훈련봉사 권응수가 군사를 일으켜 賊(일본군)을 토벌하였는데, 그의 관할 하에 응모한 자들은 모두 한때 무사들로서 영천에 사는 정대임과 함께 왜적을 토벌하니, 사로잡거나 참한 자가 자못 많았다.45)

B 영천군에 가까운 면의 군인 100 여명이 기약하지도 않았는데 모였거늘 같은 군에 거주하는 의병장 정대임이 병사를 모아 거둬하여 서로 통하였습니다.46)

C 영천 북병장 정대임과 하양 신해와 의흥 북병장 흥천리와 경주 임내와 자인현 북병장 등이 있는 곳에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47)

D (8 월 1 일)경상도 영천진사 정세아, 신녕 봉사 권응수, 하양 봉사 신해, 고성 봉사 최강이 모두募兵해서 적(일본군)을 토벌하다. 세아의 나이 67 세이다. 적이 막 본성에 據하고 있었는데, 세아가 좌수 유몽서, 생원 조희익 등과 더불어 散軍들을 招集하여 적을 捕斬한 것이 매우 많았다.48)

41) 白雲齋實紀 권 1, 年譜 만력 20 년 5 월.

42) 白雲齋實紀 권 2, 永川復城記 9 면.

43)李魯, 譯註 龍蛇日記, 한일문화연구소,57 쪽 ;조정, 임진일기, 임진년 4 월 24 일.

44)노영구,앞의 글,2007,42 쪽.

45)申屹, 譯註 亂蹟彙撰,역락,150 쪽."有訓鍊奉事權應銖 舉兵討賊 其管下應募者 皆一時 武士 與永川居鄭大任 同事 捕斬頗多"

46) 白雲齋實紀 권 1, 啓 4 면."永川郡比面軍人百餘名 不期而會爲白有去乙 同郡居義將鄭 大任聚兵 再再相通"

47) 白雲齋實紀 권 1, 啓 5 면."永川伏兵將鄭大任 河陽申海 義興伏兵將洪天賚 慶州任內慈 仁縣伏兵將等處軍人聚集"

48) 亂中雜錄, 임진년 5 월 20 일."慶尙道永川進士鄭世雅 新寧奉事權應銖 河陽奉事申海 固城奉事崔罔 皆募兵討賊 世雅時年六十七 賊方據本城 世雅與座首柳夢瑞 生員曹希益等招集 散軍 捕斬頗多"

사료 A 는 권응수가 최초 의병 부대를 편성하였을 때 주된 구성원이 한때 무사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하급 군관들로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여 권응수 부대가 급속히 편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그가 일찍이 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군사 지휘경험이 있었기에 신속한 재편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 B~D 는 영천 을 비롯한 좌도 지역 의병장들에 의해 해당 지역의 흩어진 군사들이 모여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들이 의병 부대의 주된 구성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군졸들이 지휘체계의 붕괴에 따라 흩어져 있었고, 이는 의 병 부대의 급격한 증강과 관군의 재편을 가능하도록 하는 배경이었다. 실제로 임진왜란 중 최초로 기병한 경상 우도의 곽재우 의병 부대도 전쟁 초기 각지에 방황하고 있었던 捕將, 散卒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전투 병력화한 사례 49)가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경상좌도 의병 부대는 전쟁 초기 관군 지휘부가 와해되면서 일부 지방관이나 장수들이 도망쳤을 때 정대임, 정세아 등 지방 유력 사족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군이 편성되었다. 이들은 군사 지휘경험을 가진 군관 권응수의 지휘하에 연합하여 전투를 수행한 변형된 형태의 準官軍的인 부대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전쟁 초기 경상 좌도 조선군의 대응 양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관군이 거의 붕괴되고 의병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내막을 좀 더 면밀히 보면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적지 않은 관군 장수들이 아직까지도 해당 지역에서 수성에 임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의병으로 알려진 군병들도 대개 흩어진 관군들이 다시 모여 편성한 병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쟁 당시 조선 관군의 대응이 거의 무능하였으며 결국 의병이 이를 대신하여 육상 전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그동안 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9)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1995,466 쪽

3.경상 좌도 조선군의 재편 과정과 반격 양상

1)경상 좌도 조선군의 군사력 재편과 대응 과정

개전 초기 경상 좌도의 조선군은 일본군의 신속한 진공과 전력의 열세로 패배를 거듭하였지만 각 군현별 장수들은 임지에서 수성하면서 일본군의 침입에 항전하고 있었고,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직 군관과 사족 등의 의병장들이 이를 대신하여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면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상 좌도내 관군 장수들과 의병장들의 끈질긴 항전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조선군은 주요 지역을 수복 하기 위한 통합된 반격 작전을 감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개전 초기 일본군의 침공에 대해 경상 좌병사 이각이 도망함으로써 조선군의 지휘부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상 좌도는 도내의 군사기관이나 행정관서의 명령체계가 확립될 수 없었으며, 6 월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대한 저항태세가 갖추어지지 못했다.50) 그런데 5 월 경상도 근왕군으로 종군하고 있었던 밀양 부사 박진이 온양에서 경상 좌병사로 임명을 받았다.51) 이는 좌도의 조선군 지휘체계를 복구하면서 전면적인 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壬辰倭亂史, 1987, 114 쪽.

51) 선조수정실록 권 26,25 년 5 월 1 일 庚申 ; 征蠻錄乾,임진년 5 월 25 일 ;申仡, 譯註 亂蹟彙撰 , 역락,30 쪽.

박진은 1560 년(명종 15)에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밀양, 자는 明甫였다. 1589 년(선조 22)沈守慶의 천거로 불차 채용되어 宣傳官과 訓練副正을 거쳐 밀양 부사가 되었다.52) 1592 년

전쟁이 발발하자 박진은 4 월 15 일 동래 북쪽 蘇山驛과 17 일 밀양의 작원관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전력의 열세로 연이어 패배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끈질기게 항전하였으며, 이후 종 4 품인 밀양 부사에서 파격적으로 종 2 품인 경상 좌병사로 승급이 되었다. 이는 박진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국왕 선조를 비롯한 중앙관료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그가 경상 좌도의 악화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왕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쟁 초반에 와해된 경상 좌도의 지휘체계 복구와 군사력을 재편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6 월 15 일경 박진은 군관 이사언 등 30 여 명과 함께 고령에서 밤에 낙동강을 건너면서, 우선 조치로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위해 안동 등지로 이동 할 것이니 각 수령들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伏兵을 운용할 것과 해당 지역의 전황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읍에 하달하였다. 그리고 현풍과 밀양을 경유하여 풍각현에 당도한 그는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들였는데, 과거 밀양 부사를 역임했던 박진에게 500 여 명이 모여들 수 있었다.⁵³⁾ 이후 박진은 청송 등 안동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⁵⁴⁾ 여기서 그가 안동으로 방향을 돌린 이유는 우선 이 지역의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당시 안동 지역은 앞장에서 언급했지만 전쟁초기 일본군의 침입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장수들이 각자 본영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5 월에 慶尙道安集使 金玜이 이 지역에 부임하여 招募 활동을 통한 사족 중심의 의병 부대를 편성하면서 흐트러진 군정 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였던 상황이었다.⁵⁵⁾ 따라서 그가 안동으로 향했다는 것은 경상 좌도의 군사력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지역을 거점으로 좌병영을 재 설치하고 군사력을 장악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주요 읍성들을 수복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52) 燃藜室記述 권 17, 宣朝朝故事本末 ; 선조실록 권 23, 22년 1월 21일 己巳.

53) 申仡, 譯註 亂蹟彙撰, 임진년 6월 15일 ; 亂中雜錄, 임진년 7월 5일 ; 征蠻錄 坤, 임진년 7월 25일.

54) 亂中雜錄, 임진년 7월 5일 ; 申仡, 譯註 亂蹟彙撰, 역락, 30쪽.

55)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近始齋 金垓의 의병 활동, 군자리 그 문화사적 성격, 토우, 2001, 186~188쪽.

밀양 일대에서 군사들을 수습한 박진은 6 월 22 일 경상 좌도로 넘어오게 되었는데,⁵⁶⁾ 이때에 일본군이 안동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감행하고 있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6 월 5 일 일본군이 용궁과 예천에 난입하였는데,⁵⁷⁾ 관군만으로 제압하기 어려울 만큼 그 규모가 강대하였다.⁵⁸⁾ 15 일에는 안집사 김륵이 예안 현감 신지제와 용궁 현감 우복룡에게 명을 내려 多仁과 義城의 일본군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조선군은 오히려 크게 패배하여 그 손실이 막대하였다.⁵⁹⁾ 조선군을 패배시킨 일본군은 그 여세를 몰아 22 일에는 안동을 함락시키고, 7 월 1 일에는 예안에 들어와 많은 피해를 입혔다.⁶⁰⁾ 또한 영해 부사 한효순이 장기 현감 이수일, 영일

현감 홍창세, 흥해 군수 최보신, 청하 현감 정응성, 영덕 현령 안진 등과 더불어 일본군을 맞아 공격하기로 하였는데,강원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의 침입으로 역시 패배함으로써 61) 안동진은 물론 경상 좌도 전역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신녕에 도착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된 박진은 영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권응수를 助戰將(助防將)으로 삼아 수하에 두었고,청송. 안덕을 경유하여 7 월 5 일에는 진보에 당도하였다.62) 이후 그는 이 일대에 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안동과 예안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을 축출하고자 하였다.63) 그러나 박진이 지휘권 장악과 군사력 수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64) 전임자 이각이 과거 병영을 이탈하면서 印信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각 관아에서는 박진의 傳令을 잘못 전달된 것으로 여기고 번번이 의심하였기 때문이다.65) 하지만 영해 부사 한효순이 청송에 도착하여 그를 직접 만나 일단 자신의 인신으로 명령을 대신하도록 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박진은 청송과 진보 등지에서 흩어진 군사들을 불러 모으자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군사들이 증가하여 점차 그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66) 안동 일대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한 반격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었다.

56) 白雲齋實紀 권 2, 啓 4 면.“六月 二十二日 左道兵馬節度使朴晉 自右道越入本道”

57)鄭士誠, 芝軒集 권 3, 임진일록 6 월 초 5 일.

58)鄭士誠, 芝軒集 권 3, 임진일록 6 월 13 일.“官軍不能擒賊 但望京路 敵陣大盛 彌萬各 邑 莫敢下手 皆鬱山谷”

59)金玔, 栢巖集 권 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권 7, 年譜 만력 20 년 6 월.

60)노영구,앞의 글,2001,191 쪽.

61)申仡, 譯註 亂蹟彙撰 ,역락,47 쪽.

62) 亂中雜錄 ,임진년 8 월 1 일 ; 白雲齋實紀 권 2, 永川復城記 9 면.

63) 白雲齋實紀 권 2, 啓 4 면.“青松眞寶等處往來 竄伏男丁乙 召聚結集 安東禮安等屯聚之賊 殲掠計料”

64) 白雲齋實紀 권 2, 啓 4 면.“守令等無助救 四散之軍 容易聚集不得”

65)申仡, 譯註 亂蹟彙撰 ,역락,31 쪽.

66)申仡, 譯註 亂蹟彙撰 ,역락,46 쪽.

그런데 박진을 수행하던 조방장 권응수가 7 월 9 일에 신녕으로 되돌아간 일이 발생하였다.67)기존 연구에서는 박진이 그를 견제하고 싫어하여 되돌 아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68)권응수의 이러한 행보는 군영 이탈에 해당되는 중죄로서 좌병사 박진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그러나 그가 권응수의 이탈을 제지하거나 군율로 처단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권응수가 되돌아갔던 신녕은 영천에서 군위-의성으로 연결되며, 또한 북쪽으로 노귀재를 넘어 청송-진보로 연결되는 길목의 요지였다. 만일 군위와 경주, 영천 일대의 일본군들이 이 경로를 경유하여 청송 방향으로 공격한다면, 안동 지역의 적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박진으로서는 상당한 군사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추정하건대, 박진은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권응수로 하여금 신녕과 영천 지역에 대한 작전을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신녕으로 돌아간 권응수가 군사들을 모으면서 遶林院大路邊과 군위 지역의 경계인 여음동의 요해처에 북병장과 군사들을 배치시켰고,69)하양과 영천의 의병 부 대와 연계하여 영천으로부터 封庫御史라 칭하고 신녕으로 향하던 일본군을 朴淵 70)에서 격퇴시킴으로써 71) 청송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였던 전투 동향을 들 수 있다. 이는 두 사람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 수 있는 근거로 白雲齋實紀 중 권응수의 장계에서 그가 박진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 72)과 **훗날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박진이 대개 권응수의 책략을 받아들였다는 것** 73)에서 확인할 수 있다.물론 일부 사료에서는 박진과 권응수 등의 의병장들의 관계가 대립적이었다고 기록하였지만,이들은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대의를 위해 대립 관계를 뒤로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67) 白雲齋實紀 권 2, 永川復城記 9 면.

68)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 대구사학 47,1994,72 쪽.

69) 白雲齋實紀 권 2, 啓 4~5 면.

70)박연은 안계·의흥과 영천·하양 등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71) 亂中雜錄 ,임진년 8 월 1 일 ; 白雲齋實紀 권 2, 啓 4~5 면.

72) 白雲齋實紀 권 2, 啓 6 면.“左道東北段兵使朴晉 自變初至死督戰威名已 著力拾散卒分 兵遏絕 以此時無復犯之患 爲白有昆 前後所殺賊未可計數”

73)申仡, 譯註 亂蹟彙撰 ,역락,55 쪽.

한편 청송과 진보 등지에서 군사력을 확보한 박진은 안동부에 주둔하였 던 일본군을 퇴각시키면서 74) 안집사 김륵과 만나게 되는데,그의 권유를 받아 안동부에 군영을 설치하게 되었다.75)그리하여 그는 7 월 19 일에 안동에 입성하여 김륵으로부터 안동진의 군정을

넘겨받았다.76) 이때 안동에서 축출된 일본군들은 풍산현 龜潭으로 이동하여 10 여 일간 이 지역에서 노략질을 하였다. 이에 박진이 구담의 일본군을 격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이 일대가 험준한 지형이었기에 그는 대신 정예병들로 하여금 밤을 틈타 진천뢰포를 쏘도록 하면서 77) 안동으로의 재침입을 차단하였다.이를 통해 박진의 군사들이 진천뢰포와 같은 화약 무기를 상당수 보유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전 안동 수복전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이는 일본군의 점령이 미치지 못했던 청송과 진보 등지에 위치해 있던 軍器庫에서 이러한 무기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고, 좌병사에 의해서 재편된 관군들이 이를 보유함으로써 그 전투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78) 안동 등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퇴각시킨 박진은 강 원도에서의 일본군 침입을 막기 위해 요소마다 장수와 군사들을 배치하면 서 길목을 차단하였다.79) 이처럼 박진이 안동진의 군정을 장악함으로써, 이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예를 들어 7 월 좌도 순찰사로 임명된 영해 부사 한효순이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성대한 행차를 하였는데 성 위의 일본군이 내려다보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그러한 관원의 威儀에 백성들이 기뻐했을 정도였다는 사례 80)가 이를 뒷받침한다.

74)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46 쪽. 栢巖集 과 鄉兵日記 에 따르면 조선군의 반격으로 일본군은 7 월 9 일에 예안에서(鄉兵 日記 임진년 7 월 9 일),18 일에 안동에서 물러난 것으로 되어있다(栢巖集 권 5, 條陣 慶尙道軍情賊勢狀啓 ,7 면).

75) 栢巖集 권 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左兵使朴晉 來此近邑 臣與之相見 勸令留鎮安東”

76) 栢巖集 年譜 ,萬曆 20 년 7 월. 안동으로 입성한 그는 의병장 배용길로부터 200 여 명의 군사들을 넘겨 받았다(金垓, 鄉 兵日記 ,임진년 7 월 19 일).

77)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46 ~ 47 쪽.

78)허선도는 임란 초기 일본군의 점령 형태가 완전한 全面占領이 아닌 중요 郡邑과 郡邑을 잇는 침공로의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한,이른바 點線占領에 불과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전라도의 경우 주요 營鎮 및 郡邑을 비롯해서 사실상 일본군의 점령이 미치지 못한 후방 각지의 군기고에는 화약무기가 어느 정도 온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고 주장했다.이러한 무기는 전쟁초기 삼남지방의 의병들이 우선적으로 갖고 있었으며, 이는 다시 대오를 재정비하기 시작한 관군의 전투력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 았다(許善道, 제 3 장 韓國火器의 裝放法과 形態考 ,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94,273 쪽).따라서 박진의 군사들도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진천뢰포 등의 화약무 기를 보유하였을 것이다.

79)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46 ~ 47 쪽.

80)申屹, 譯註 亂蹟彙撰,역락,51 쪽. 20 軍史 第 84 號(2012.9)

마침내 경상 좌병사 박진은 안동진을 좌 병영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경상 좌도의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사력을 재편함으로써,도내의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또한 경주진과 대구진 일대의 관군과 의병들 을 지휘하여 일본군의 침입을 격퇴하고 길목을 차단하였던 권응수의 활약도 박진의 이러한 군사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상 좌도의 조선군의 전투 양상은 그 동안 지역 단위의 거점 방어에서 주요 읍성의 수복과 일본군 요격이라는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 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경상 좌도 조선군의 반격과 주요 읍성의 수복

1592 년 5 월에 경상 좌병사로 임명이 된 박진은 두달 만에 안동과 신녕 일대를 장악하면서 주요 읍성을 수복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권응수를 비롯한 대구진과 경주진 지역 의병장들도 이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 을 마련하고 있었다.81)

그런데 6 월 15 일부터 19 일 사이에 副總兵 祖承訓 등이 이끄는 명의 군사 들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압록강을 넘어 남진하면서, 전쟁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호기로 삼은 조정에서는 7 월 중에 하삼도의 조선군 부대에게 명군의 출전을 알리고 각지의 일본군을 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82) 한편 **안동에 주둔하고 있었던 경상 좌병사 박진은 의병대장으로 임명된 권응수에게 명을 전달하여 擧事하도록 하였다.**83) 이는 조정의 요격 명령이 경상 좌병사를 통해 의병대장에게 하달된 것으로 판단 된다.84)

경상 좌병사 박진과 의병대장 권응수가 경상좌도에 대한 반격 작전을 위해 영천성 수복을 우선적인 작전목표로 결정하였다.여기서 이들이 영천성 을 주요 읍성 수복의 우선 순위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자면, 영천성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영천성은 동쪽으로는 안강을 거쳐 영일과 경주로, 남쪽으로는 경산을 거쳐 청도와 대구 방면으로,서쪽으로는 신녕을 거쳐 상주 방면으로,또 신녕에서 의흥과 안동 방면으로,북쪽으로는 청송에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로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을 확보한다면 차후 경상 좌도의 거진 중 하나인 경주부를 탈환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분단되었던 안동진과 대구진, 경주진의 관군.의병의 연합 부대를 연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충지였다. 또한 영천성은 전쟁 초기 일본군의 후방 보급로 역할을 하였는데,경주나 안강으로부터 의흥과 상주로 이어져 있어 그 지역적 중요성이 매우 컸었 다.85) 만약 조선군이 이 지역을 수복한다면, 경상 좌도를 통한 일본군의 보급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따라서 박진과 권응수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격작전의 우선 순위로 영천성 탈환을 선정한 것 으로 판단된다.

81) 亂中雜錄 ,임진년 8 월 1 일.

82) 선조실록 ,권 28,25 년 7 월 19 일 丙子.“傳曰 天兵已爲前進平壤 師期豫爲下書于下三道使之或徽擊或尾擊 餘賊若由水路而去 則嶺南水使 以舟師追擊事 分明遣宣傳官速爲通諭”

83)申屹, 譯註 亂蹟彙撰 ,역락, p.158.“時晉在安東 傳令應銖舉事”

84)경상 우도의 경우 조정의 명령이 경기도 순찰사를 통해 의병 도대장(義兵都大將) 김면의 의병부대에게 전달되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鄭慶雲, 孤臺日錄 권 1,임진년 7 월 13 일).

85)당시 경상우도 의병들은 낙동강으로 군량. 군기 등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일본군의 선 박을 격파하여 그들의 보급선을 차단하였다.이로 인해 일본군은 경상 좌도로 몰리게 되면서 이 일대는 중요한 후방기지 내지 병참보급지로 바뀌게 되었다(경상북도. 영남대, 경북의병사 ,1990,218 쪽).

7 월 23 일 영천성 수복을 위해 의병대장 권응수는 瓦村에서 신녕과 영천. 하양. 자인. 의흥 등의 의병 부대를 '倡義精勇軍'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다.86) 그 성격은 각 군현 단위의 의병 부대에서 이제는 보다 단일한 체제의 부대라는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 무렵 죽장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던 경주 판관 박의장의 관군 부대가 권응수 부대와 합류하였는데, 경상 좌병사 박진의 명에 따라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투에 참가하였던 조선군의 규모는 총 3,560~3,970 명 87)으로 신녕과 경주의 군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88) 이는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한 조선군의 주력이 권응수와 박의장의 부대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울산, 영일, 장기, 흥해, 양산, 언양, 자인 등의 지역 의병 부대와 관군도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89)24 일 권응수 등의 조선군은 영천성 남쪽 楸坪에서 지형과 지세를 고려한 작전 계획을 논의하면서 전투를 준비하였다.

86) 백운재실기 에서는 영천 군수 김윤국이 창의정용군의 별장으로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하지만 신흘의 난적휘찬 에서는 김윤국이 충청도에 도망 갔다가 영천 전투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임지로 돌아왔다고 하면서,실제 참전하지 않았는데 공신의 반열에 들었다는 내용이 보인다(申屹, 譯註 亂蹟彙撰 ,역락,55 쪽). 따라서 그 진위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료 비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7)최효식,앞의 글,1994,76 쪽. 88)孫曄, 淸虛齋文集 , 龍蛇日記 .“永川人 圍城 倭翌日復城 新寧慶州軍亦多 斬獲合五百餘級”

89)이육,앞의 글,2009,55 쪽.

이때 경상 좌병사 박진은 안강에 주둔하면서 군관 변응규로 하여금 화약과 군기(병장기)등을 지급함으로써,90) 권응수 등의 조선군이 화공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통해 권응수 부대가 본격적으로 화약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그 전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박진이 안강현에 좌병영을 설치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안강이 경주부 4 倉 중 하나로 물자가 풍부하였다는 것과 이곳이 영천에서 불과 40 리 떨어진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형산강의 한 지류에 위치한 七坪川을 끼고 경주와 영천을 연결 짓는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이다.91) 따라서 박진이 안강에 좌병영을 설치한 이유는 영천성 전투에 대한 작전을 총지휘하면서 권응수 부대가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한편, 경주성의 일본군이 영천성에 대한 증원을 직접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경상 좌병사 박진의 작전 지휘하에 의병대장 권응수와 경주 판관 박의장이 주장이 된 조선군이 영천성 수복 전투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7 월 26 일 새벽에 조선군은 영천성을 공격하였고, 28 일 성을 완전히 수복하면서,일본군 500 명의 수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92) 이렇게 조선군이 영천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관출신으로 전투 경 험이 풍부하였던 권응수의 활약이 있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각 陳의 부대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기일을 약정하는 등 작전을 총지휘한 경상 좌병사 박진의 역할 93)도 간과할 수 없다.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일본군은 경주-영천-안동을 잇는 보급로가 차단되어 상주로 철수하면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 좌도의 수습 읍이 보존하게 되었고 이 지역 백성들 또한 생기를 되찾았으며,94) 이 일대가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한편 경상 우도 내 의령, 삼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곽재우 부대도 8 월 초 현풍, 창녕, 영산 등 경상 좌도의 일부 지역을 수복하면서,95) 전황은 조선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90) 白雲齋實紀 권 2, 永川復城記 .

91)최효식,앞의 책,1993,68 쪽.

92)영천성 수복 전투에 대해서는 이형석, 임진전란사 ,1977,423 ~ 426 쪽에 자세하다.

93)申仡, 譯註 亂蹟彙撰 ,역락,55 쪽.

94)경상북도. 영남대, 경북의병사 ,1990,218 쪽.

95)이장희, 곽재우연구, 양영각,1983,167 ~ 171 쪽.

이때 영천성을 수복하였던 조선군은 자인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연이어 격파하고,96) 그 기세를 몰아 8 월 20 일 박진이 안강에서 권응수와 박의장을 선봉으로 삼아 직접 16 읍의 군사 1 만여 명을 이끌고, 야간에 경주성을 수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선군은 언양 방면으로부터 증원된 일본군의 배후 공격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경주성의 일본군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고 다시 안강으로 철수하였다.97) 그럼에도 **경주성 탈환의 의지를 거두지 않았던 박진은 안강에 주둔하면서 야간을 틈타 포를 쏘도록 하였고, 중요한 길목에 복병을 두어** 98) 일본군의 증원을 차단 하면서 경주성을 고립시키는 전술로 전환하였다. 또한 그는 박의장에게 결사대 1,000 여 명을 지휘하게 하여 경주성을 주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99) 마침내 9 월 8 일

일본군이 경주성에서 울산 방향으로 퇴각함으로써, 조선군은 경주성을 탈환하였다. 이때 조선군은 경주성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4 만 여 석의 군량을 획득함으로써, 경주 이남의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 적 거점을 확보하였다.

영천성과 경주성에서 퇴각했던 일본군은 경상 좌도의 주요 요충지를 상실 하여 부산에서 한성까지의 보급로 유지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등 100) 차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반면, 조선군은 언양과 울산으로 통하는 길 목을 막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다니는 길을 차단시키면서 101)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96) 觀感錄 , 年譜 선조대왕 25 년 8 월 7 일 ; 白雲齋實紀 권 2, 啓 6 면.

97)이형석, 임진전란사 ,1977,478 ~ 479 쪽.

98)申佺, 譯註 亂蹟彙撰 , 역락, 56 쪽 ; 亂中雜錄, 임진년 9 월 12 일.

99)최효식, 앞의 책, 1993,62 쪽.

100)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壬辰倭亂史 ,1987,117 쪽.

101) 觀感錄 권 1, 家傳 .“府君遂游兵彥蔚兩路 日事遮截 賊之自蔚山闌入至釜山上來者 不敢衛斥 永川新寧一路之開拓”

4. 맺음말

임진왜란 개전 당시 경상 좌도의 조선군은 대규모 일본군의 신속한 침공 과 지휘관인 좌병사 이각의 도망으로 인해 연이어 패배를 거듭하면서 그 지휘체계와 군사력이 와해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이 유린을 당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좌도 내 일부 관군 장수들은 군현 별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고 자신의 책임 지역을 지키면서 일본군에 대한 지속적인 항전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고을에서는 권응수와 같은 전직 무관과 사족 등의 의병장들이 ‘散卒’ 즉 흩어진 관군들을 수습하여 의병을 일으키면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의병으로 알려진 군병들은 대개 흩어진 관군들이 다시 모여 편성한 병력이었으며, 준 관군적인 부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끈질긴 항전에도 불구하고, 경상 좌도의 조선군은 개전 초기 지휘부의 와해로 인해 각 관아에 대한 명령체계가 확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에 대한 조직적인 반격 태세를 갖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5 월경 밀양 부사 박진이 경상 좌병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좌도의 조선군은 지휘체계 복구와 군사력 재편은 물론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을 감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경상 좌도로 넘어오면서 일본군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동진에서 좌병영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그는 장차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주요 읍성들을 수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박진은 권응수의 군사적 지원으로 안동진에서 경상 좌도의 지휘체계를 복구하면서 군사력을 재정비하였다. 이로써 조선군은 주요 읍성의 수복이라는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7 월경 명군의 참전 소식과 함께 조정의 요격 명령이 내려지자, 박진은 권 응수와 함께 교통의 요충지이자 일본군의 후방 보급로에 위치하였던 영천성을 공략하여 수복하였고, 그 기세를 몰아 경상 좌도의 거진이었던 경주성도 탈환하였다. 영천성과 경주성의 탈환에 성공한 조선군은 언양과 울산으로 통하는 길목과 울산에서 부산으로 다니는 길을 차단시키면서 일본군의 보급로 유지를 어렵게 하는 등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게 되었다.

이 글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 좌도 조선군의 대응 양상을 경상 좌병사 박진과 권응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관군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명한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먼저 국내의 사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함에 따라 당시 경상 좌도의 전황을 다룬 일본측의 사료나 연구 성과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국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상 좌도 의병이 준 관군적 부대였다는 것을 전개시키면서도 관군과 의병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못했으며, 문집이라는 제한된 사료를 근간으로 이 지역의 전쟁 양상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경상 좌도 내 일부 지역인 안동, 경주 등의 관군 부대와 의병의 동향을 함께 종합하면서 그 성과를 검토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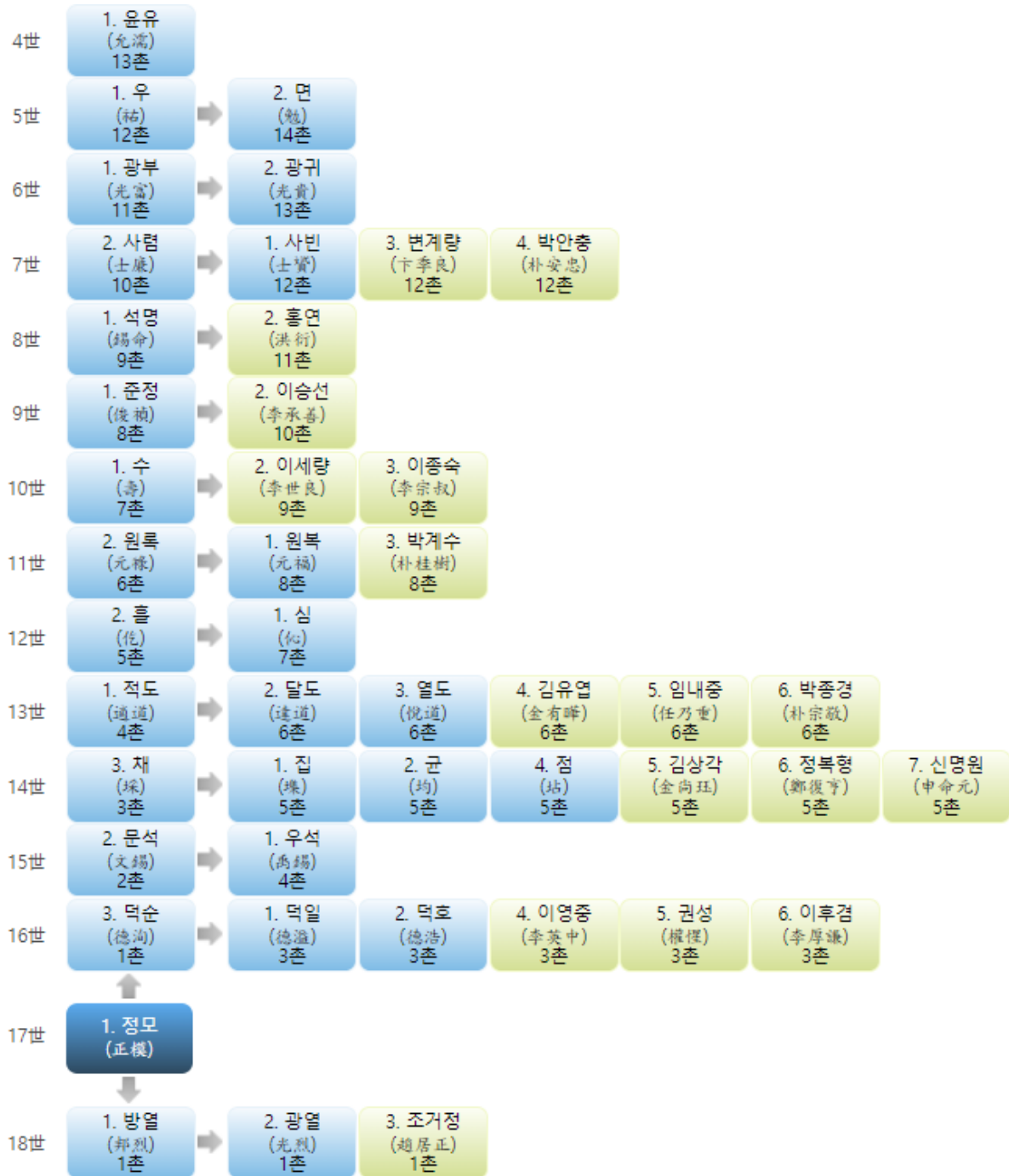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국내 사료에 편중된 검토보다 당시 일본측의 기록들을 활용하여 동일 시간 별로 비교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문집이 갖는 사료적 한계는 연대기 등의 객관적 자료들이 좀 더 폭넓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상 좌도 관군과 의병 관계의 역사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밝히는데 좀 더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素行錄(并)附錄 冊1-3 申正謨(朝鮮) 編著

17世 정모(正模)

父 : 덕순(德洵) 祖父 : 문석(文錫)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신정모(申正謨)

항목 ID	GC05200847
한자	申正模
이칭/별칭	경해(景楷), 이치재(二恥齋)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691 년 - 신정모 출생
활동 시기/일시	1719 년 - 신정모 진사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719 년 - 신정모 증광 문과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728 년 - 신정모 경상도 군위로 유배
몰년 시기/일시	1742 년 - 신정모 사망
추모 시기/일시	1864 년 - 신정모 복관
출생지	신정모 출생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거주 이주지	신정모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유허비	신정모 유허비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거창 현감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경해(景楷), 호는 이치재(二恥齋). 신채(申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대석(申大錫)이고, 아버지는 신덕일(申德溢)이며, 어머니는 이성구(李星耆)의 딸 예안 이씨(禮安 李氏)이고, 부인은 안이순(安履順)의 딸 순흥 안씨(順興 安氏)이다. 숙부인 신덕순(申德洵)에게 출계하였다.

[활동 사항]

신정모(申正模)[1691~1742]는 어려서는 중부(仲父)인 신덕호(申德浩)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장성해서는 이만부(李萬敷)에게 수학하였다. 1719년(숙종 45)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20년에 부정자, 1725년(영조 1)에 지평(持平)·정언(正言)·사옹원 주부(司饗院 主簿) 등에 임명되고, 1727년 병조 좌랑·강원 도사·병조 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가, 거창 부사에 임명되자 부임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이를 막지 못하여 군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었다. 그 뒤 암행어사 이흠(李滄)이 전과를 재조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죄상을 과장하여, 1735년 다시 흥양(興陽)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충청도 충주로 이배되었다가 적소에서 죽었다. 1864년(고종 1) 복관되었다.

[학문과 저술]

신정모는 귀양지에서 항상 나라와 부모에게 충효(忠孝)를 다하지 못한 점을 부끄러워하며, 그 호를 스스로 이치재(二恥齋)라 하였다. 문집으로는 6 권 3 책의 『이치재집(二恥齋集)』이 전하는데, 이 문집은 1899 년(광무 3) 후손 신상헌(申相憲)과 신돈식(申敦植)이 편집·간행한 것이다. 저서로는 10 권 3 책의 『소행록(素行錄)』이 전해진다.

[요소]

요소는 오토산(五土山)[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에 위치해 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 그의 유업을 기린 유허비(遺墟碑)가 세워졌다.

[참고문헌]

- 『영조 실록(英祖 實錄)』
- 『이치재집(二恥齋集)』
- 『소행록(素行錄)』
- 『의성 군지』 (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 『의성 지명 유래』 (의성 문화원, 2002)
- 『아주 신씨 대동보』 (아주 신씨 대종회, 2012)

자료명/저자사항 素行錄(并)附錄, 冊 1-3 / 申正謨(朝鮮) 編著

발행사항 大田 : 二恥齋文獻刊行所, 1980

청구기호 古 181.15 사 582 사

자료실 [본관] 귀중서고(1 층 대출대)

형태사항 10 卷 3 冊 ; 29.2 × 20.3 cm

제어번호 OLDP1000000226

주기사항

序: 柔兆執徐(丙辰, 1976)...眞城李家源謹序

跋: 歲光復後初己未(1979)...後孫基勳謹識

刊記: 西紀一九八〇年三月十日發行

시남선생유고(市南先生遺稿) 신면주(申冕周)

20世 면주(冕周)

父 : 흥교(弘敎) 祖父 : 황(煌)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신면주(申冕周)

항목 ID	GC05200840
한자	申冕周
이칭/별칭	성지(成之), 시남(示南)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768년 7월 22일 - 신면주 출생
활동 시기/일시	1798년 - 신면주 생원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805년 - 신면주 별시 문과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805년 - 신면주 승문원 정자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10년 - 신면주 울릉도 찰방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18년 - 신면주 성균관 전적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18년 - 신면주 병조 좌랑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21년 - 신면주 사간원 정언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22년 - 신면주 이조 좌랑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25년 - 신면주 용양위 부사과 겸 선전관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26년 - 신면주 사헌부 지평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26년 - 신면주 함경도 도사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28년 - 신면주 홍문관 교리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29년 - 신면주 홍문관 수찬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29년 - 신면주 시강원 필선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29년 - 신면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29년 - 신면주 홍문관 교리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30년 - 신면주 사헌부 집의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30년 - 신면주 홍문관 수찬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30년 - 신면주 홍문관 부교리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31년 - 신면주 사헌부 집의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34 년 - 신면주 봉폐관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35 년 - 신면주 홍문관 부수찬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35 년 - 신면주 사헌부 집의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35 년 - 신면주 용양위 부호군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35 년 - 신면주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
활동 시기/일시	1836 년 - 신면주 낙향
몰년 시기/일시	1845 년 - 신면주 삼오
출생지	신면주 출생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거주 이주지	신면주 은거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묘소 단소	신면주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안영산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동부승지

정의

조선후기 이조좌랑, 사헌부지평, 함경도도사 등을 역임한 문신·학자.

조선후기 문신·학자 신면주의 시·계·서(書)·제문 등을 수록한 시문집.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초명은 봉조(鳳朝), 자는 성지(成之), 호는 시남(示南)이다.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郎) 신흥교(申弘教), 어머니는 풍창군(豊昌君) 류유(柳濡)의 딸인 공인(恭人) 풍산 류씨(豊山 柳氏), 조부는 통덕랑 신허(申燠), 증조부는 신중모(申重模), 처는 성언병(成彦秉)의 딸 숙부인(淑夫人) 창녕 성씨(昌寧 成氏), 후처는 이제동(李濟東)의 딸 숙부인 진성 이씨(眞城 李氏)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신면주(申冕周)[1768~1845]는 1768년(영조 44) 7월 22일 경상도 의성현 교전리(校前里)[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릴 때부터 학문에 두각을 보여 5세에 글자를 알았고, 7~8세에 글을 지을 줄 알았으며, 14세 때에는 도내 백일장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1791년(정조 15)에는 형 신면조(申冕朝)와 함께 어부정(漁父亭)을 짓고 강학하는 장소로 삼았다고 한다.

1798년(정조 22) 생원시에 합격하여, 이미 생원시에 합격했던 신면조와 함께 형제가 나란히 성균관의 적(籍)을 가지게 되었다. 1805년(순조 5)에는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곧 승문원 정자(承文院 正字)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1810년(순조 10) 울봉도 찰방(栗峰道 察訪)에 임명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1818년(순조 18)에 다시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과 병조 좌랑(兵曹 佐郎)에 임명되었으나, 형 신면조와 모친, 그리고 외아들 신명협(申命協)의 상사가 잇따라 일어나 고향에 머물러야 했다.

1821년(순조 21)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 1822년(순조 22) 이조 좌랑(吏曹 佐郎)에 임명되었으며, 1825년(순조 25) 용양위 부사과(龍驤衛 副司果)로 선전관(宣傳官)을 겸직하였다. 이어 1826년(순조 26) 사헌부 지평(司憲府 持平)과 함경도 도사(咸鏡道 都事)를 역임한 후, 1828년(순조 28) 홍문관 교리(弘文館 教理)에 임명되어 경연 검토관(經筵 檢討官)과 춘추관 기주관(春秋館 記注官)을 겸임하였으나, 당시 대리청정 중이었던 효명 세자(孝明 世子)에게 병환을 이유로 상소를 올리고 사직하였다. 1829년 홍문관 수찬(弘文館 修撰)에 임명되어 부임하였으며, 이어 시강원 필선(侍講院 弼善), 홍문관 부수찬(弘文館 副修撰), 홍문관 교리 등에 차례로 임명되며 세자와 서연(書筵)에서 학문을 강론하기도 했다. 1830년(순조 30) 효명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만장(挽章)을 지었다. 이어 이듬해까지 사헌부 집의(司憲府 執義), 홍문관 수찬, 홍문관 부교리, 다시 사헌부 집의 등에 임명되나 병환으로 오래 관직에 있지를 못하였다. 한편, 신면주는 효명세자 사후 홍문관에 있으면서 효명세자의 측근들을 공격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이 효명 세자 대리청정 때 전권을 휘둘렀다는 이유에서이다. 우선 단독으로 상소를 올려 효명 세자의 최측근이었던 김로(金鑾)와 그와 체결한 이숙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노

경(金魯敬)의 국청을 요구하는 삼사(三司)의 합계(合啓)에 참여하기도 했다.

1834년(헌종 즉위년) 순조 장례 때 봉폐관(封閉官)이 되었으며, 그 공으로 가자(加資)되었다. 1835년(헌종 1) 홍문관 부수찬이 되어 헌종을 모시고 여러 신하들과 『소학(小學)』을 강론하였으며, 이어 사헌부 집의, 용양위 부호군(龍驤衛 副護軍),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 同副承旨)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병환이 도져 사직을 요청하였고, 헌종은 사직하는 신면주에게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내렸다. 이 책은 당시 유행하는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해 내린 윤음을 기록한 것이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낙향하여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1845년(헌종 11) 8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저술

이상정(李象靖)의 학통을 계승한 가학을 이어 받았다. 학문이 뛰어나 당시 영남 출신으로 드물게 홍문관의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수시로 경연·서연에 참석해 학문을 강론하였다. 유고(遺稿)인 4권 1책의 『시남선생유고(市南先生遺稿)』가 전해진다. 이 책은 4세손 신석기(申碩基)가 1981년 편집·영인한 것이다. 여기에는 신면주가 홍문관 교리직을 사직하며 올린 상소문, 명승지를 유람하고 작성한 기행문, 그리고 1830년(순조 30) 효명세자(孝明世子)의 장례 때 지은 「왕세자만(王世子挽)」 등이 수록되어 있다.

내용

4권 1책. 영인본. 1981년 4대손 석기(碩基) 등이 편집, 영인하였다. 권두에 김원대(金元大)의 서문과 권말에 족예(族裔) 재우(在雨)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에 시 161수, 권2에 소(疏) 1편, 계(啓) 7편, 권3에 서(書) 5편, 제문 8편, 축문 5편, 송(頌) 1편, 행장 3편, 서(序) 1편, 기(記) 2편, 발문 1편, 상량문 1편, 권4는 부

록으로 만사 3편, 제문 12편, 유사·행장·묘갈명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밖에 권외 부록으로 박세환의 유사역문과 유묵·묘소전경·교지·유품 등의 사진이 있다.

시는 「강태극도설(講太極圖說)」 등 유가의 학설과 관련된 것, 「이 책은 1981년 4대손 석기(碩基) 등이 편집, 영인하였다. 시는 「강태극도설(講太極圖說)」 등 유가의 학설과 관련된 것, 「동고관등경차백씨운(東臯觀燈敬次伯氏韻)」 등 차운시와 만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왕세자만(王世子挽)」은 1830년(순조 30) 왕세자의 장례 때 지은 배울 140운의 시로서, 조정의 신하들이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또, 기행시로 「속리산법주사배백씨차제우운(俗離山法住寺陪伯氏次諸友韻)」·「문장대(文藏臺)」·「고정(古鼎)」·「금강굴(金剛窟)」·「천불암(千佛庵)」 등이 있다. 소의 「사교리소(辭校理疏)」는 1828년 교리를 사직하며 올린 충언(忠言)의 글로서 끝에 성학사도(聖學四圖)가 부기(附記)되어 있다. 계(啓)는 경연관으로 입시하여 왕·왕세자와 『서전(書傳)』·『소학』 등을 강론한 내용이다. 흥문관에서 활동한 저자의 성리학 인식은 알 수 있다.

신면주의 아버지는 홍교(弘教)이며, 의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상정의 학통을 이어받아 하늘과 인간의 진리, 사단과 칠정의 본질 등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1798년(정조 22) 생원시에 합격하고 1805년(순조 5)에 문과에 제하여 이조좌랑·사헌부지평·함경도도사·춘추관기주관 등을 역임하였다. 지병이 악화되어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정(漁父亭)`을 짓고 학도들을 불러들여 후진 양성을 부지런히 하였다.

묘소

『아주 신씨 대동보』에는 단촌면 은향촌(銀香村) 안영산(安永山)[현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에 묘소가 자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순조실록(純祖實錄)』

『헌종실록(憲宗實錄)』

『시남선생유고(市南先生遺稿)』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교남지(嶠南誌)』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시남선생유고(市南先生遺稿)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시남선생유고(市南先生遺稿)	
저자	성명	신면주(申冕周), 초명은 봉조(鳳朝)
	자	성지(成之)
	호	시남(示南)
판사항	영인본(影印本)	
발행지	大田 農經社	
발행자	신석기(申碩基)	
발행년	1981	
권수	4	
체크기	21.×29 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시남유고』는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인 신면주(申冕周 ; 1786~1845)의 시문집이다. 신면주의 자는 성지(成之), 호는 시남(市南),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이 책은 1981년 4대손 석기(碩基) 등이 편집, 영인하였다. 시는 「강태극도설(講太極圖說)」 등 유가의 학설과 관련된 것, 「동고관등경차백씨운(東皐觀燈敬次伯氏韻)」 등 차운시와 만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왕세자만(王世子挽)」은 1830년(순조 30) 왕세자의 장례 때 지은 배울 140운의 시로서, 조정의 신하들이 감복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또, 기행시로 「속리산법주사배백씨차제우운(俗離山法住寺陪伯氏次諸友韻)」·「문장대(文藏臺)」·「고정(古鼎)」·「금강굴(金剛窟)」·「천불암(千佛庵)」 등이 있다. 소의 「사교리소(辭校理疏)」는 1828년 교리를 사직하며 올린 충언(忠言)의 글로서 끝에 성학사도(聖學四圖)가 부기(附記)되어 있다. 계(啓)는 경연관으로 입시하여 왕·왕세자와 『서전(書傳)』·『소학』등을 강론한 내용이다.

홍문관에서 활동한 저자의 성리학적 인식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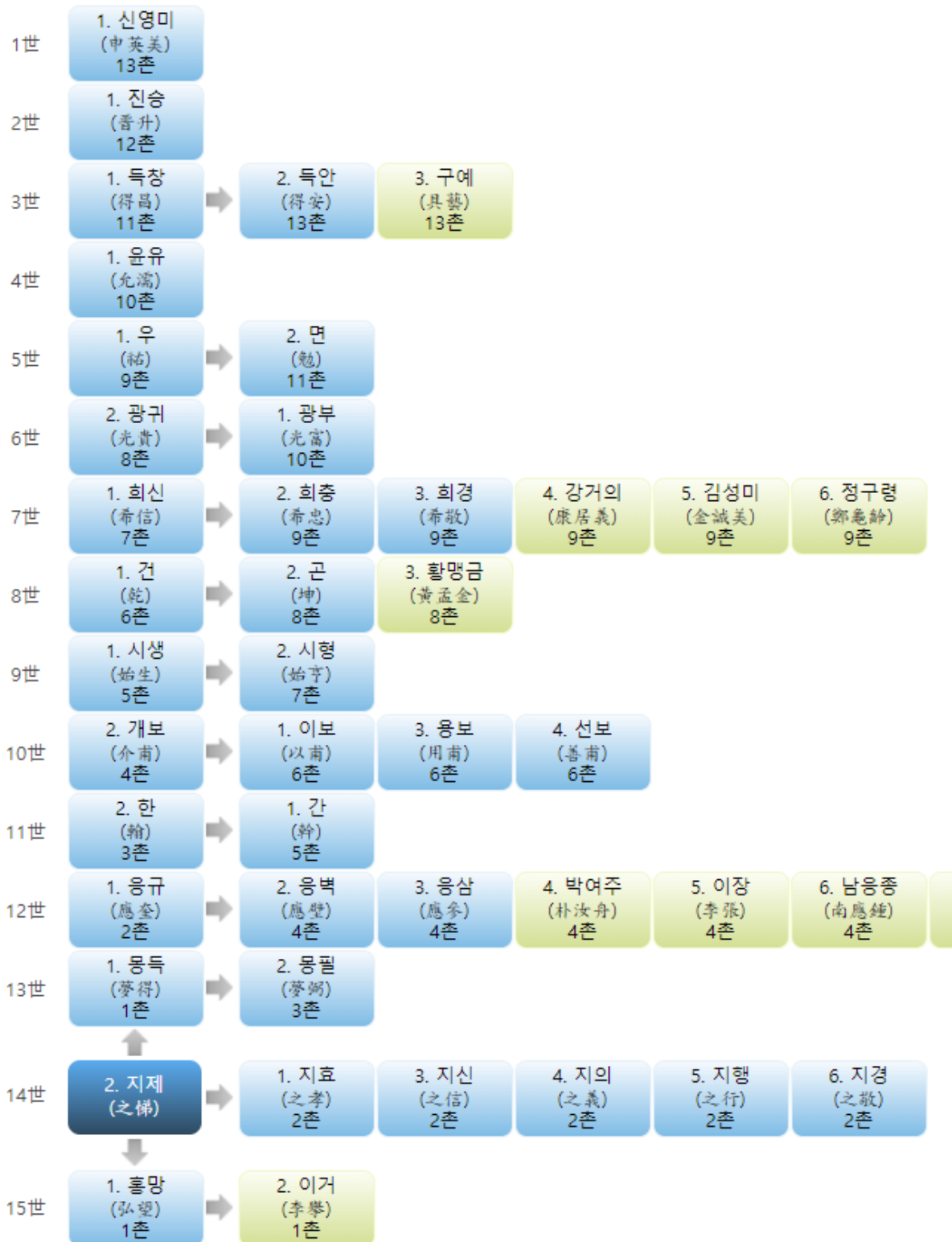
신면주의 아버지는 홍교(弘敎)이며, 의성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상정의 학통을 이어받아 하늘과 인간의 진리, 사단과 칠정의 본질 등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1798년(정조 22) 생원시에 합격하고 1805년(순조 5)에 문과에 제하여 이조좌랑·사헌부지평·함경도도사·춘추관기주관 등을 역임하였다. 지병이 악화되어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어부정(漁父亭)`을 짓고 학도들을 불러들여 후진 양성을 부지런히 하였다.

오봉집(梧峯集) 신지제(申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峯公派)



신지제(申之悌)

조선시대 성균관직강, 창원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순부(順夫), 호는 오봉(梧峰)·오재(梧齋). 경상도 의성 출신. 증창례원판결사 신한(申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증공조참판 신응규(申應奎)이고, 아버지는 증좌승지 신몽득(申夢得)이며, 어머니는 의흥박씨(義興朴氏)로 박민수(朴敏樹)의 딸이다.

1589년(선조 22)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 1601년 정언(正言)·예조좌랑, 이듬해 지평(持平)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등을 거쳐 1604년 세자시강원문학(世子侍講院文學)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을 역임하였다.

1613년(광해군 5) 창원부사로 나가 백성을 괴롭히던 명화적(明火賊)을 토평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고, 인조반정 초에 동부승지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못하고 죽었다. 효성과 우애가 돈독하고 경사(經史)에 통달하여 유성룡(柳成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예안현감 재직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대를 모집, 적을 토벌하였다. 간관으로 있을 때 직간하였고, 수령재임 때에는 치적을 남겼다.

신지제의 시문은 문집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의성에서 장대서원(藏待書院)을 세워 지방자제교육에 힘썼고, 죽은 뒤에는 김광수(金光粹)·이민성(李民成)·신원록(申元祿)과 함께 그 서원에 배향되었다.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명종	17	1562	임술 嘉靖	41	1	7월 19일, 義城縣 新禮洞에서 태어나다.
선조	2	1569	기사 隆慶	3	8	12월, 모친 박씨의 상을 당하다.
선조	7	1574	갑술 萬曆	2	13	安東 佳野谷의 惟一齋 金彦璣에게 수학하다.
선조	11	1578	무인 萬曆	6	17	가야곡에서 의성으로 돌아오다. ○ 義城 持寶寺에서 독서하다.
선조	14	1581	신사 萬曆	9	20	伯氏와 의성 氷山寺에서 독서하다.
선조	17	1584	갑신 萬曆	12	23	2월, 咸安趙氏 趙址의 딸과 혼인하다.
선조	21	1588	무자 萬曆	16	27	4월, 스승 김언기를 곡하다.
선조	22	1589	기축 萬曆	17	28	4월, 문과에 합격하다. ○ 5월, 司贍寺 直長이 되다.
선조	24	1591	신묘 萬曆	19	30	2월, 典籍, 監察이 되다. ○ 6월, 禮安 縣監이 되다.
선조	25	1592	임진 萬曆	20	31	5월, 안동 부사를 겸하여 왜적의 공격을 막다.
선조	27	1594	갑오 萬曆	22	33	1월, 예조정랑 겸 예안현감이 되다.
선조	29	1596	병신 萬曆	24	35	5월, 공조 정랑이 되다. ○ 체찰사의 청으로 예안 현감에 仍任되다.

선조	30	1597	정유	萬曆	25	36	2 월, 사간원 정언, 시강원 문학이 되다. ○ 4 월, 순찰사 종사관이 되다. ○ 方伯들과 八公山城에서 왜적을 막다. ○ 火旺山城에 가서 郭再祐와 함께 倡義하다.
선조	33	1600	경자	萬曆	28	39	2 월, 전라도 도사가 되다. ○ 5 월, 아들 申弘望이 태어나다.
선조	34	1601	신축	萬曆	29	40	1 월, 예조 좌랑이 되다. ○ 2 월, 예조 정랑이 되다. ○ 8 월, 全州 判官이 되다.
선조	35	1602	임인	萬曆	30	41	사헌부 지평, 체찰사 종사관, 전라도 암행어사가 되다.
선조	36	1603	계묘	萬曆	31	42	8 월, 慶尙道 軍務按覈使가 되다.
선조	37	1604	갑진	萬曆	32	43	5 월, 시강원문학 겸 춘추관기주관 지제교가 되다. ○ 扈聖 宣武 原從功臣이 되다.
선조	38	1605	을사	萬曆	33	44	5 월, 지평이 되다.
선조	39	1606	병오	萬曆	34	45	7 월, 통제사 종사관이 되다.
선조	40	1607	정미	萬曆	35	46	3 월, 江界 判官이 되었으나 親病 때문에 부임하지 않다. ○ 4 월, 부친상을 당하다.
광해군	1	1609	기유	萬曆	37	48	12 월, 공조 정랑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광해군	2	1610	경술	萬曆	38	49	3 월, 충청도 도사가 되었다가 사직하고 귀향하다.
광해군	5	1613	계축	萬曆	41	52	가을, 昌原 府使가 되다.
광해군	10	1618	무오	萬曆	46	57	7 월, 체직되어 龜尾村으로 돌아가 '龜老'라 자호하다.
인조	1	1623	계해	天啓	3	62	동부승지 지제교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12 월, 모친 오씨의 상을 당하다.
인조	2	1624	갑자	天啓	4	63	1 월 8 일, 졸하다. ○ 3 월, 義城縣 羽谷坊 栗谷리에 장사 지내다.
인조	24	1646	병술	順治	3	—	이조 참판에 추증되다.
현종	13	1672	임자	康熙	11	—	12 월, 藏待祠에 봉안되다.
영조	16	1740	경신	乾隆	5	—	현손 申震龜 등이 목판으로 原集을 간행하다.
정조	13	1789	기유	乾隆	54	—	6 세손 申體仁 등이 목판으로 別集을 간행하다.

편찬및간행

저자의 시문은 「檜山雜詠 회산잡영」, 「龜堂漫錄 구당만록」 약간 권이 家藏(가장)되어 있었다. 증손 申叔範(신숙범)이 孤山 李惟禕(이유장)(1625~1701)에게 遺集을 가져가 校讐(교수)를 부탁하였는데, 이유장이 일을 마치지 못하고 졸하여 그대로 藏棄(장기)되었다. 1736 년에 현손 申震龜, 申夏龜(신진구, 신하구) 등이 유집을 간행하기로 결정하고, 1737 년에 신하구가 玉川 趙德鄰(조덕린)에게

纂次(찬차)를 부탁하러 갔으나, 마침 조덕린은 모함을 받아 待命 중이라 유고를 가지고 그대로 돌아왔다. 1738년에 藏待書院(장대서원)에 모여 다시 유집의 간행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738년 겨울에는 신하구가, 1739년에는 신진구가 번갈아 부탁하여 李光庭이 유집을 釐正하고 序文을 써 주었다. 여기에 誌, 銘, 行狀과 신진구가 지은 後識, 權相一이 지은 跋文을 붙여, 族姪 申致雲에게 繕寫하게 하였고, 1740년에 藏待書院에서 木板으로 간행하였다.《원집》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40-72, 한 46-가 1753), 규장각(古 3428-33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문고(晚松 D1-A1883), 장서각(4-6289), 국사편찬위원회(中 D3B-307)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별집의 간행은 원집 간행 직후부터 이미 준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손 신진구가 원집에 들어가지 못한 시문을 수집하고 年譜를 만들어 金履萬(1683~1758)에게 訂正을 받아 別集 1 책을 완성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졸하였다. 신진구의 아들 申道河가 6 세손 申體仁에게 명하여, 신체인이 7 대손인 申鼎沃·申鼎五 등과 함께 신진구가 만들어 두었던 舊本을 바탕으로 하고 새로 수집한 〈辭承旨疏〉 등을 추가하여 다시 校勘 繕寫하여 完本을 만들었고, 1789년에 이를 목판으로 간행하였다.《별집》이 본은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40-48),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만송문고(晚松 D1-A1883Aa),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740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원집과 1789년에 목판으로 간행된 별집이 합부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古 3648-文 40-72)이다. 본 영인 저본은 原集 卷 4의 第 2 板은 板次가 '一'로 오기되어 있다.

原集序(李光庭 撰), 原集後識(申體仁 撰), 原集跋(權相一 撰), 別集跋(金履萬 撰), 別集改編後識(申體仁 撰)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원집과 별집을 합본한 5 책으로, 원집은 4 책이고, 별집은 1 책으로 되어 있다.

原集은 권두에 1739년에 李光庭이 지은 서문이 있고, 권미에 같은 해에 지은 權相一의 발문이 있다. 각 책의 앞에 목록이 있다. 권 1~5는 詩, 권 6~7은 文, 附錄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집의 시는 대체로 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권 1은 시 36 제이다. 禮安 縣監으로 있던 1591년 이후부터 1613년 昌原 府使가 되기 전까지의 시를 수록하였다. 〈病中漫述〉은 禮安 縣監으로 재직하던 중에 지은 것으로, 왜란을 겪고 난 후의 백성들의 피폐한 현실을 근심하며 지은 것이고, 〈送李寬甫爲禮曹正郎赴洛〉은 1613년에 예조 정랑이 되어 서울로 떠나는 李民歲에게 지어 준 시이다.

권 2~4는 檜山雜詠이다. 檜山은 昌原의 별칭으로, 저자가 1613년에서 1618년까지 府使로 재임했던 곳이다. 회산잡영은 상권(107), 중권(54), 하권(92)으로 나뉘어 있으며, 253 제의 시를 수록하였다. 〈院北村述事〉는 咸安趙氏의 세거지인 院北에 대한 내력을 읊은 五言古詩로, 시의 말미에 임란 당시 咸陽 郡守로 있던 大笑軒 趙宗道를 만난 일, 趙鵬, 趙凝道 등이 왜적을 막다 戰死한 일 등 처가인 함안조씨 가문의 내력을 덧붙였다.

권 5는 龜堂漫錄 192 제이다. 이것은 1618년에 창원 부사에서 체직되어 구미촌으로 돌아와 6년 동안 閒居할 때 지은 시이다. 權昕, 金涌, 李民弘, 柳成春 등을 위한 輓詩가 상당수 있으며, 〈輓奴

婢>는 대대로 처가에서 종살이를 한 여종이 저자의 집에 와 86 세로 죽을 때까지 주인집을 위해 정성을 다하였으나 자식이 없어 죽어서도 제사할 사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지은 것이다. <辛酉七月二十八日逢火盜.....>는 1621년에 도적이 들어 집이 불타고 서적 500여 권이 불탔을 때의 정경을 두고 읊은 것이다.

권 6은 記 2편, 序 1편이다. 기 중 <遊淸涼山錄>은 예안 현감으로 있던 1594년 9월에 孤山의 琴蘭秀와 함께 청량산을 유람하고 지은 기행문이다. <檜山雜詠序>는 창원 부사로 있던 1613년에서 1618년 동안에 자신이 지은 글들을 묶은 회산잡영의 내력을 적은 것이다.

권 7은 筭 1편, 敎 3편, 祭文 8편, 墓誌 2편, 書 6편, 拾遺 8편과 부록이다. <憲府筭子>는 1605년 44세 때 持杼으로서 어명에 의해 풍수에 의한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기술한 것인데, 당시 憲長인 朴承宗이 時宰를 몰아세웠다 하여 임금에게 올리지 않자, 저자가 이로 인해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敎는 李光岳, 高曦, 吳連에게 내리는 교서를 지은 것이다. 제문은 金誠一, 權宇, 李輔 등을 위한 것이다. 묘지는 金春龍, 鄭宜藩을 위한 것이다. 편지 중 <寄子弘望書>는 과거를 보기 위해 떠난 아들 신흥망에게 보낸 것인데, 시험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와 부모를 걱정하게 하지 말 것과 下川의 종질형제 집에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들르지 말고 올 것, 물이 불은 곳을 경솔하게 건너지 말고 잘 모르는 사람과 쉽게 어울리지 말 것 등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습유는 스승 金彦璣를 위한 만사, 趙穆의 시에 차운한 시 등이다. 부록은 상권과 하권으로 되어 있으며, 行狀, 行狀後識, 墓碣銘, 墓誌, 祭文(4), 輓詞(18), 上樑文 등과 1739년에 현손 申震龜가 지은 文集後識이다. 행장은 李民寅이 지었고, 행장후지는 1738년에 李光庭이 지었으며, 묘갈명은 金應祖가, 묘지는 1739년에 이광정이 지었다. 제문은 李民成, 李民寅, 申悅道, 金宗一 등이 지었고, 만사는 李好閔, 張顯光, 金奉祖, 全以性, 李恠 등 18인이 저자를 애도하며 지은 것이다. 藏待書院의 상량문과 1672년에 金啓光이 지은 봉안문, 李惟禕가 지은 상향축문이 있다. 부록의 끝에 현손 신진구가 1739년에 지은 文集後識가 실려 있어 원집의 편찬 과정을 알 수 있다.

권미에 1739년에 權相一이 지은 文集跋과 '庚申仲春藏待書院開刊'이라는 刊記가 있다.

別集은 目錄, 詩 63제, 疏 1편, 書 5편, 識跋 2편, 祭文 2편이고, 권미에 年譜가 있다. 시는 예안 현감으로 있던 1590년대에 지은 <牛祿巖>부터 줄하던 1624년에 지은 <題甲子新曆>까지 원집에 실리지 못한 시들이 年代順으로 실려 있다. <辭承旨疏>는 1623년에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가 등극하여 저자에게 승지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이를 병으로 사양하는 내용으로, 이 상소를 별집에 실음으로써 후학들에게 비록 폐위된 임금이긴 하나 광해군 때 벼슬했던 大節을 지키려 했던 저자의 자세를 보여 주려 했다는 6세손 申體仁의 後識가 말미에 실려 있다. 편지 중 4편이 雪月堂 金富倫에게 보내는 것으로, 왜적의 동정을 전하며 전란 중의 백성을 安集시키고 의병을 모집하는 등의 일을 의논하는 내용이다. 연보는 墓碣石을 세운 1706년의 기사까지 기재되어 있다.

마지막에 1742년에 金履萬이 지은 別集跋과 6세손 申體仁이 지은 別集改編後識가 있다.

梧峯文鈔 오봉문초

서지정보

원서명	梧峯先生文集						
현대어서명	오봉선생문집						
청구기호	奎 15708-v.1-4						
편저자(한자)	申之悌(朝鮮) 著	판본사항	筆寫本	간행지	[刊地未詳]	책권수	7 卷 4 冊
편저자(한글)	신지제(조선) 著	간행연도	[英祖 16 年(1740), 後寫]	간행자	[刊者未詳]	책크기	30×20.4cm
匡郭				版心		표기문자	
表紙, 版心, 卷頭書名							
序, 跋, 卷首, 卷末	序: 上之十五年己未(1739)...李光庭, 跋: 崇禎紀元後己未(1739)...權相一						
表題紙, 內題紙				附			
藏書記, 內賜記							
刊記	庚申(1740)仲春藏待書院開刊						
자료소개	宣祖代의 문신 梧峯 申之悌(1562-1624)의 詩文集						
목차							
합철							
소장본							
印記							
四부분류	集部 別集類 一般			기타			
M/F 번호	M/F78-103-204-A						

문집해설

서명	梧峯先生文集	저자	申之悌(朝鮮) 著.
현대어서명	오봉선생문집	간행년대	
청구기호	奎 15708		
책수	7卷 4冊	판본	筆寫本(後寫) 사이즈 30×20.4cm.

梧峯 申之悌(1562-1624)의 詩文集. 梧峯의 玄孫 震龜가 편찬하여 1740년(英祖 16) 義城 藏待書院에서 開刊하였으며 本 所藏本은 藏書閣所藏本을 필사한 것이다. 申之悌의 字는 順夫, 號는 梧峯, 梧齋, 本貫은 鵝州, 贈左承旨 申夢得의 아들이다. 1589년(宣祖 22) 增廣文科 甲科에 합격하여 司贍寺直長, 監察, 禮安縣監, 禮曹佐郎, 持平, 江界判官, 工曹正郎, 昌原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昌原府使로 있을 때 府民을 괴롭히던 도적을 討平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通政大夫에 올랐고 그 후 同副承旨가 되었다. 義城의 藏待書院에 祭享되었다. 卷頭에는 1739년에 쓴 李光庭의 序文이 있다. 卷1: 詩 48수. 卷2: 檜山雜詠(上)이란 題名으로 詩 90수. 卷3: 檜山雜詠(中)으로 詩 53수. 卷4: 檜山雜詠(下)로 詩 146수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卷5: 龜堂漫錄이라는 題名으로 詩 171수가 있다. 檜山은 昌原의 別名으로 1613년(光海君 5)부터 1618년까지 5년 동안 그는 昌原府使를 지냈으며 檜山雜詠은 이 때에 지은 詩들이다. 龜堂은 그가 昌原府使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곳이며 龜堂漫錄은 이 때에 지은 詩들이다. 卷6: 宣城郡守로 있을 때 지은 遊淸涼山錄과 檜山雜詠序가 수록되어 있다. 卷7: 憲府劄子, 教宣武功臣李光岳書, 教扈聖功臣高曦書, 祭鶴峯金先生誠一文, 祈雨祭文 및 金察訪春龍墓誌, 與屏山守某書 등 여러 종류의 글 20여편. 補遺로 輓惟一齋金公, 海上遇故人, 祭城隱宗丈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附錄上에는 梧峯行狀(李民奩 撰), 梧峯先生行狀後逸事識(李光庭), 梧峯墓碣銘并序(李光庭), 附錄下에는 祭文 4편, 輓詞 19수, 藏待書院上樑文(李堂 撰), 奉安文, 常享祝文(李惟樟 撰)과 玄孫 震龜의 文集後記, 權相一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梧峯 申之悌(1562~1624)의 文集이나 刊行여부 미상의 필사본으로 序文, 跋文 등이 없다[저자에 대해서는 다음 <<梧峯先生文集>> 참조]. 憲府劄子 1편, 上方伯書 1편 및 저자의 略歷만이 수록되어 있다. 이 두편은 <<梧峯先生文集>>에는 보이지 않으며 <憲府劄子>라는 同名의 글이 있으나 내용이 다르다. 이로 보아 저자의 글을 모아 <<梧峯先生文集>>을 편찬하고 거기에 빠진 글 두편을 속집의 성격을 띤 보충본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憲府劄子>는 災異가 일어난 데 대한 것으로 기강과 政令이 문란하고 朋黨으로 시비가 서지 않고 公道가 타락했으며 私意가 橫流 한다고 지적한 뒤, 公共之道를 밝히고 私心 없는 政治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한 방책으로 任賢使能할 것 등을 내세웠다. <上方伯書>는 壬辰倭亂 중에 쓴 것으로 보이는데 ①賞典이 불명하여 兵士들

이 국가를 위해 盡力하기에는 어려우며 ②軍律이 失中하여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없고 ③稗將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등 일부 군사상의 폐단을 시정토록 요구한 내용이다.

문집개요	
문집명	오봉집 (梧峯集)(17C)
간략서지	梧峯 申之悌의 문집. 7 권 부록 2 권 합 4 책. <奎 15708>·<古 3428-335>·<奎 12074>
간략해제	1740 년(영조 16) 저자를 제향한 의성 藏待書院에서 간행하였다. 訥隱 李光庭의 서문(1739), 현손 震龜의 문집후기(1740), 權相一의 발문(1739)이 있으며, 이광정이 찬집과 교정을 담당하였다. 원집 7 권과 부록 2 권을 합쳐 4 책이다. 권 1-권 5 는 시인데, 권 2-권 4 는 「檜山雜詠」으로 1613 년부터 1618 년까지 창원부사로 재직 중에 지은 시를 묶은 것이다. 권 5 는 「龜堂漫錄」으로 창원에서 돌아와 구당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를 묶은 것이다. 권 6 에는 「遊清涼山錄」, 「月影臺記」, 「檜山雜詠序」 등 3 편의 글을 실었다. 권 7 에는 箚子 1 편, 敎書 3 편, 제문 8 편, 편지 6 편이 있고, 補遺로 輓詞 1 편, 시 1 수, 祭文 1 편이 있다. 附錄上에는 저자의 行狀, 逸事, 墓碣銘, 墓誌銘을 실었고, 附錄下에는 저자에 대한 祭文 4 편, 輓詞 19 수와 藏待書院의 上樑文 등을 실었다. 규장각 소장본은 2 종인데, <古 3428-335>는 목판본이고 <奎 15708>은 필사본이다. 이와는 별도로 {梧峯文鈔}<奎 12074>도 있는데, 「憲府箚子」, 「上方伯書」 및 저자의 略歷이 실려 있는 필사본으로, 원본 표지에는 {梧峯文考}로 표기되어 있다.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오봉별집}도 전한다. 여기에는 詩 59 수, 「辭承旨疏」, 「上方伯書」, 「答雪月丈書」(4 편), 「書杜詩抄選卷後」, 「亡兄手抄性理卷後識」, 「祭鶴洞李公文」, 「祭盧懼仲反襯文」과 저자의 「年譜」, 金履萬(1683~1758)의 발문(1742)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소	
편저자	신지제 (申之悌)
저자개요	1562~1624 (명종 17~인조 2) 字: 順夫, 號: 梧峯, 本貫: 鵝州, 父: 夢得, 母: 義興 朴氏 敏樹의 女
저자내용	신지제는 1562 년 경상도 義城縣 下川 新禮洞에서 출생하였다. 8 세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13 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안동으로 가서 惟一齋 金彦璣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때부터 朴毅長, 權泰一 등과 깊은 교분을 쌓았다. 1589 년 28 세에 증광문과 별시에 갑과로 급제하여 사첨시 직장이 되었다.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을 거쳐 1591 년 가을에 예안현감이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예안현 안집사가 되어 안동부사를 겸임하며 예안과 안동의 민병을 거느리고 용궁 등에서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 일로 뒷날 宣武扈聖功臣 1 등에 올랐다. 1597 년 사간원 정언이 되었고, 1618 년까지 전주판관, 사헌부 지평, 춘추관 기주관 지제교, 창원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창원부사로 재직할 때는 남해의 섬에 근거를 둔 명화적을 토벌하여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창원부사에서 체직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龜堂을 짓고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후에는 동부승지에 발탁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이듬해 정월에 사망하였다. 부인은 함안 趙氏 址의 딸이며, 1 녀 1 남를 두었는데, 아들은 孤松

申弘望이고, 사위는 李學이다. 1669 년(현종 10) 의성 藏待書院에 제향되었다.

내용개요

내용제목 梧峯集 내용개요 청구기호 <奎 15708><古 3428-335><奎 12074>

권제 권제목:

梧峯集序 (1) 1739. {오봉집}의 서문이다. 訥隱 李光庭(1674~1756)이 썼다. 일찍 문과에 급제하여 文望이 있었지만 광해군대의 난세를 만나 요직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하였고, 글은 性情에서 우러나 가식이 없다고 하였다

권제 권제목:卷一

詩 病中漫述-六首(1591~1597 禮安 수령시), 次竹川子韻哀近始齋金達遠-垓-二首-1593, 輓金翰林達遠二十韻-1593-記見, 泣呈涵仲契兄, 奉送鄭員外丈之京, 與金器仲-垓-分韻千仞岡頭一振衣得千岡一衣等字-四首, 畫師圖山形甚拙戲吟, 山中吟, 牛背戲吟孤山雜咏-二首(1594 年 청량산행 때), 次鶴峯先生-誠一-韻贈勳師, 又贈勳師, 爲張氏妹賦四韻呈于金元瑞兄-春龍-示仲瑞弟(并跋), 次高翠屏-應陟-樓字韻-三首, 述懷示樂琴葛峯兩契十八韻, 留別雪月丈-金富倫-兼示左右諸君子, 臥病壁壁山城見權詮-二首-1597-謹次水山卜居韻, 詠橘-二首-1600-興陽縣偶詠-1600-自興陽適寶城幾歷六十里到鳥城院暫歇回瞻卽朝過路也仍成一律, 送政府李從事, 謹次趙分臺先生韻, 珍島卽事, 綾城有感, 茂朱偶詠, 永思定次思齋韻, 追記前日事奉呈兼善, 奉贈公元舊史, 次花山伯-1603-臨行又次, 次龍仁板上韻-1610-愚漢中年久廢吟詠今洪偉夫-璋-將適南州臨行語余曰此行何不爲一言以贈閒寂中將故舊詩<1+卞>.

권제 권제목:卷二

詩: 檜山雜詠上 1613 年~1618 년에 저술. 次東軒板上韻, 次韓柳川-浚謙-韻, 感舊. 雜詠-二首, 夢中陪輦趁殿下覺而有感, 次板上韻, 中宵有感-二首, 成精甫-安義-至喜甚把酒月下達曙而罷, 邀精甫私室-三首, 疊多字韻贈精甫-二首, 寄精甫浴海水, 次放翁韻寄精甫-三首, 次金大丘而靜-允安-韻呈鄭康侯-鄭維蕃-舊丈-并序-五首, 又演餘懷示康侯-二首, 次康侯韻贈別-二首, 次孫景徵月影臺用鄭郊隱韻-二首, 漫興, 舟行泊木瓜島登眺而歸有詠, 次景徵寄李叔平-垓-韻送景徵, 景徵書室示密伯載酒馱妓邀我于空明亭下泛舟沂江仍過郭季綏-再祐-江亭有約與景徵同之, 泛舟記景, 感懷用杜韻, 春日將遊月影臺用趙生韻, 春日遊月影臺-二首, 迴舟, 散帙有李叔平往在京師送我赴湖幕敘別詩時爲弘文校理今爲豐基郡守閱未終篇忽有懷適見狂風大雨仍次其韻別意-三首-附本韻, 苦霖雨不霽連月陰霾, 卽事, 次而靜壁上留題韻-四首, 庭畔百日紅盛開北枝先發, 又古風一首, 輓申懼之-乞-三首-并跋, 時大別有往遊之願不能禁-二首, 卽事十絕-十首, 次鵝溪-李山海-卷中三絕韻不用元韻意-三首, 戲次孫宜伯丈索笠韻-二首, 次五峯相國-李好閔-韻-附本韻-, 次簡齋韻, 逼歲除有感, 疊樓字韻-二首, 春帖, 歡然如有得却念非眞悵然乃覺, 梁漑至病未迎接詩以謝之, 李僉知浚持鳳臨臺獨樂堂韻來索和, 疊前韻, 次五峯韻, 次東岳-李安訥-三首, 漫述, 贈別舍弟立夫-之信-又送宜夫-之義-意頗昔見道中書投宿漆原朝至道洪天寒不可堪韻, 次簡齋韻示友-二首, 趙生任道前後兩采浮言送書蓋出於邑人推擠之語尚不決去可笑成短律,

狂風, 春雪, 合前兩意爲一篇, 疊闌字韻-四首, 醉中三絕-三首, 燈火將盡, 咏梅, 次簡齋-五首, 奉送金察訪汝朝赴會試-五首, 春日與朴廣文遊後洞, 南城門上同廣文別將對酌用別將韻, 北亭示廣文-二首, 晉州清心軒上次李調度用板上韻-四首, 校中諸生持酒來會同彥時對酌, 漫興, 送餞廣文彥時酒席亂稿-三首, 院北村述事-并跋, 感興, 海錄九首, 輓徐徵君行甫-思遠-丈, 平居余嘗誦荊公賦王昭君人生得意無南北之句每致疑以爲失昭君心且不宜以此說爲臣妾道又得東國詩宗二絕其意祖荊公余反其意因以其韻賦二絕又一絕詩家皆咎毛公余以昭君自咎次別韻-三首, 道傍有冷泉昔年取飲盛暑頗覺爽然今熟不可飲感而賦一絕, 喜雨有述仍祝熊神寺-二首, 次杜韻贈丘景仰-山立-, 用前韻訣孤雲, 又用前韻和景仰, 暮景呼韻-二首, 雨後臥東軒與景仰賦絕句, 天陰不雨三日, 流頭日夜遊贈景仰, 暮景明麗望海有席帆高撐帶夕照而來真畫中事也, 蓮池久旱乾涸太半傷損雨後貯水尚有數朵芙蓉始發當暮巡池而往見清香襲人甚可愛琬傍有紫薇紫薇無香有感而述-二首, 苦熱, 與景仰圍碁殆一月不止, 新山書院-二首, 次趙大而-亨道-韻-三首, 孟秋十九日述感懷, 漫興-二首, 夜中詠, 道興津, 苞山次五峯詠梅板上韻-四首, 路中用前韻浪述, 用古韻漫述, 郭季綏令公自江亭送階下自生石榴五箇仍述一篇謝之, 次景徵秋懷韻, 次趙安仲-靖-韻贈別許而正秩滿還洛朔風吹緊葉飛城古館蕭條短燭明萬事一觴仍別語江南無限去留情, 宿花園用前韻漫述-三首, 兒子參試, 武科都會掌試記見, 夜間枕上忽憶舍兄存亡惱懷, 次陸詩韻-二首, 次廣文用陸韻, 偶述-二首, 輓李陝川-瀟-二首-, 點火呂陝川聖遇-大老-題癸未榜會臺石樓-并跋, 輓宋正字.

권제 권제목:卷三

詩: 檜山雜詠中

題曆書冊面, 簡別將, 奉呈忘憂亭僊丈, 賤性癖於好卜搜閱諸家雜書竟無端的可考覺其爲誕有作, 漫興, 花園而南十里許路傍有石澗玲瓏築石依巖爲臺少日以舉子行過此今做官來憩有感而述, 漫興, 送全別將令公秩滿還鄉, 遇述-二首, 漫述, 效吟, 輓姪子命夔-二首, 答全秀才性, 至日行望闕禮仍述感懷, 至日坐衙, 中夜起坐雪月交輝清勝無涯-二首, 偶綴無體格, 覺堂訪廣文邀別將共話冠童亦與焉, 詠雪十六韻, 遣懷四十韻, 贈廣文, 次廣文韻-二首, 次廣文韻, 月影臺, 次李謫仙韻, 夜話贈廣文-二首, 次廣文-四首, 次廣文-二首, 疊廣文韻一慰廣文一遣煩懷-二首, 次廣文-二首, 大寒日候溫暖如春, 次李上舍鯤變- 今見百忍稿乃癸卯年申奉使過泗川會上舍于公廨時上舍有贈詩今不記其和依係追述其意, 合浦感懷七十韻, 綴支韻多遣字足以長短諸篇因述遣懷(8 寸), 支字遺韻-五首, 廣文韻中有登字起我仍綴贈景徵, 苦寒吟-二首, 聞趙清道安仲秩滿將還擬贈四十韻, 元日詠懷二十二韻, 人日下雨廣文來告行, 出郊放鷹煎艾仍述二篇-二首, 次趙上舍倭城有感韻, 暮景偶詠, 述懷, 正月十五夜有感-二首, 月蝕-二首, 次鵝溪月出韻, 感興, 夜起月色滿窓, 出審境界宿南白寺-二首, 次裴尙謙柳遇春亭子韻, 次廣文韻-二首, 海亭-按海亭卽鄭寒岡所居也-三首, 戲贈方君興.

권제 권제목:卷四

詩: 檜山雜詠下

馬浦泛舟奉呈呂聖遇丈兼示廣文-時廣文不與-, 奉別呂丈-二首, 次廣文-五首, 贈朴知郡天祺, 薄暮海濤頗惡見雙小舟張帆分東西來, 三月初一日雪, 用前韻-二首, 有感, 寒食日雨雪有感-二首, 次蠶石樓韻-二首, 三月三日與察訪宋顯承及廣文遊降仙臺別將趙邦寶亦來與-六首, 雨中出坐草堂籬外有梨花一樹粲粲可愛有客來過, 喜族弟來問鄉事達曙而罷, 雜述俳諧體, 對南山松樹有感, 次廣文-二首, 偶吟記漫興-二首, 絕句, 行到道興津上朝日初昇時波光如掃渚柳岸花紅綠相映光彩百倍列壁影落波中奇勝爲平生初見, 過李君厚慶草堂, 李家草堂-二首, 古琴灘上歇馬日色波光相映明媚跳躍如江神河伯弄殺銀璋玉珠頗奇勝, 紙匠村有感, 又長律述事, 柳絮, 泳山洞口臨溪酌酒同寬甫而壯-李公民寘號紫巖-及諸生呼韻-時自檜山來會-, 附本韻, 滿金栢巖-功-, 三嘉守來過用開字-按此以下還檜山作-, 次廣文, 次月影臺韻作-五首, 觀海, 次廣文-二首, 有所思, 端陽日次廣文, 端陽日有感述長短律各一篇-二首, 同日次東槎十節二則感時八則雜述-十首, 次廣文韻一視諸生一視廣文-時設場試取諸生-二首, 疊開字韻-八首, 次廣文-二首, 酒席次廣文韻, 又疊開字, 次廣文-五首, 漫興, 卽事, 次德辨軸中李相國韻, 又次他韻題德辨軸, 贈別上使行, 贈副使, 贈書狀官, 夏夜臥廳事, 憶壬辰年中事偶詠肥肉大酒徒相要感而述, 喜雨, 惡風, 輓郭季綏令公, 紫薇紅, 霽後浪詠, 舟中陪寒岡先生-鄭公逵-奉贈左右諸位用李判刺潤雨氏-號石潭-呼韻, 九日與諸客暫設酌罷後夜深月色明村煙一帶橫空良久坐琬就枕仍古一絕, 次東萊軒韻贈黃會元-汝一-令公二首, 途中次人韻, 訪精甫于苞山里第別來偶述, 用廣文韻-二首, 海亭次廣文韻, 聞巴山倅携酒訪季重于劔溪季重有絕句次其韻示之, 次可信月影臺韻, 水操, 次廣文, 舟遊喜而壯性之-全公以性-來次廣文, 疊海亭韻謝張君, 次嶺南樓韻-二首, 疊嶺南樓前韻-四首, 次廣文-二首, 漫興, 金上舍守認來誦鄭相國惟吉海雲臺詩時曹光益爲都事相酬唱也仍次其韻, 偶述, 有感, 聞天朝徵師, 端陽日有感, 端陽日邀廣文小酌適病妨飲因作獨醒詩用前韻, 漫述, 五月十日夜月色明甚, 雨中有感用杜韻, 偶吟, 海亭重修韻-本寒岡買地成儒會爲先生創茅屋今改構, 按寒岡書曰海上曾有弊亭茲聞府下後生輩爲改構講學之計殊非易事竊想留念惠顧矣, 醉中, 過花園有感-二首, 眞木亭, 道興-二首, 海亭同韓子眞張文哉遊次廣文韻, 輓尹昌寧民獻

권제

권제목:卷五

詩: 龜堂漫錄

1618년~1624년에 저술. 龜庄卜居, 次海月軒清平山韻, 贈季源上人-三首, 次權石洲-韞-林居十五詠, 改觀心作, 家豚次李敬亭聞皇帝訃音述感韻示我仍和其韻-按庚申明神宗皇帝昇遐-, 效八音體, 效建除體, 有感-二首, 聞而壯還及滿蒲喜而有述, 次陸放翁, 夜臥遣悶效演雅體, 再用梅月韻, 柳生贈烏竹杖, 無題-二首, 聞而壯滯箕城有述-三首, 送寬甫迎而壯于洛下, 重九日無聊寄懷, 記歎-三首, 聞中興後新闕成壯於舊制願一望見以伸燕賀而身病蹉跎退伏丘園瞻想感歎之餘聊以述懷用杜韻-五首, 遣憤次杜律諸將韻-五首, 次杜律-六首, 夢中過伽倻山秋光淒爽山勢峭思孤雲南溟沈吟文之, 地主書至邀會雲谷金新寧性之昨往花山歸路約來與寬甫併往參話還後料以記事-四首, 詠菊黃紫二色, 次蒼石贈柳進士季華-衫, 號修巖-韻, 蒼石演絕句爲長律仍次其韻-三首,

外家舊有蓮池荒廢累年每惜之宗孫朴俊疏鑿重修構草堂于池上時夜將半雨晴月出俯
 臨鏡面甚覺清爽逍遙不寐至于鷄三鳴乃已余甚幸朴君保守舊宅使吾瞻感之地不就荒
 蕪也仍次諸作述吾感愴之情使朴君更加勉強焉-二首, 又長律, 輓權長髻希舜,
 輓權舍人叔節, 次寬甫絕句-三首, 無題, 輓金道源-涌, 號雲川-二十韻,
 辛酉春遇崔季承-睨-于龜山話及己丑年泮宮同接之事因感而賦之, 輓奴婢-
 婢妻家三代舊役嘗從我于洛邱有勞愛二兒如己我至死不已事主家盡誠渠無子女託于
 主家年八十六而死無養死無葬甚可憐也-, 輓僚友-三首, 次湖陰-鄭公士龍-
 庚申日作-湖老年六十作而儂亦明春年六十故末句云, 次晚晴韻, 方臺亭次李叔平韻,
 次朴子龍-孤懼-韻, 吟雪-二首, 次金進士丈山洞止水亭韻-二首, 次契會韻-二首,
 閒居卽事, 召文途中, 權君翊室人從兄弟適來過病六日不救擔送本家後愴然書之,
 抵趙景行-遵道-家是夜風惡且雨與大而諸公及李秀卿李上舍公直對話偶詠,
 過孔谷有感-石在壬辰歲告君避島夷挈家來寓店人青同家今來問其主人亡矣,
 兵使姓朴恃勢驕橫貪虐無狀鄉員軍正馱屍絡繹列郡軍丁合境流散邦紀解弛誅惡無期
 慨歎之餘信筆書之, 踏青日述懷, 述懷,
 聞洞內後生招要舍弟豚兒爲踏青會適於杜詩有和江陵宋大少府詩有老夫今始知之句
 老境事古今一也 感而書之, 聞黃河清其信歟若然天下之幸也,
 東谷避地託孫君濟世氏爲隣孫好鷹獵乃少年舊伴也, 次天雲韻-二首, 排悶, 記憶,
 三月十日寬甫見訪乘昏共往龜池任家路中明月皎皎過溪村煙花依稀老夫於此興復不
 淺, 奉送許明府-憫-上洛-二首, 送琴彥慎-★〈卍+業〉-令公赴任昌原, 魚樵,
 聞天使有述云此日登舟問海涯敢云星使列僊槎滔江水分三島落落堪輿自一家文筆
 初平青雀舫春風欲老白楊花請看館吏郊迎處壓眼旋爛彩霞寬甫心頗少之遠接和章尤
 劣不足觀闕後寬甫以其韻作詩八章示余其三擬呈本行其二論古人詩家其一傷時其二
 敍因次綴四篇, 偶吟-二首,
 聞王參政領舟師二萬到鴨綠江欲同本國守義州時奴賊陷遼雄據遼薊參政以孤軍深入
 斬奴使謀爲要擊奴後若爲官軍犄角之勢其志壯且遠上國有人矣此計如就其爲上國料
 事重矣第未知本國利害如何亦未知事勢之可從與否竊思之誠非放過之地於是韃王公
 之舉措而慮廟謨之難斷偶詠記事, 偶述, 抱琴戲述, 輓金處士內室蔣氏, 輓李忠義,
 輓李宅安-民宐-二首, 漫興, 撥悶, 聞西使兩行海路相繼不幸-三首, 遣憤-二首,
 輓金察訪-春龍-,
 辛酉七月二十八日逢火盜家舍半火書冊五百餘卷爲灾燼侍婢傷者六人幸無死亡-三首,
 無眠吟-是夜達夜無眠苦而述之-, 遣憤, 感古, 傷今-四首, 遼陽歌-四首, 偶吟,
 疊波字韻, 南陽隴上懷諸葛公次人韻-四首, 漫述-二首, 村況,
 孫兒戀母甚苦仍憶吾兄弟喪母時伯九歲仲八歲妹吾歲季四歲妹生十月當時哀哀之狀
 惱我先考心如何哀慟之至揮淚而書, 輓柳君-成春-,
 李義立自京來傳天兵與奴賊戰快捷奴賊捲歸遼東恢復此說若然天下之福也信疑交惱
 聊述雜體以寄望誠之意, 此唐詩凱歌-四首,
 鄉執綱三員持酒來饋庠堂將有講信之會也有感述此擬謝, 苦寒下雨怪而書之-二首,
 風寒, 漫興-二首, 輓申鳳鳴.

	<p>청량산을 돌아보고 쓴 글이다. 金垞, 琴蘭秀, 裨將 姜孝業과 동행하였는데, 蓮臺寺에서 李滉, 金誠一, 金垓의 詩軸을 접하고 감회에 젖기도 하고 옛 성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란 후 산성 수축에 급급한 현실을 개탄하기도 하였다</p>
月影臺記 (9)	<p>1614. 창원 馬山浦 月影臺의 기문이다. 창원부사로 재직할 때 쓴 글이다. 저자는 1613년 창원부사로 부임하여 가을에 월영대를 돌아보았는데, 이듬해 아들이 遊錄을 지었다. 이에 저자는 '月影'이라는 이름을 통해 아들에게 물의性は 虛虛하고 달의性は 明明하며, 서로 體用이 되어 動靜을 만들어 내면서도 虛와 明의性は 변함이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고 孤雲 崔致遠의 글이 그 이치를 절묘하게 표현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최치원과 월영대의 관계를 李白와 采石, 蘇軾과 赤壁에 비교하였다. 또 최치원이 부친의 임지를 따라 월영대에 머무른 사실을 상기시키며 임지에 따라온 아들이 학문에 더욱 매진하도록 격려하였다</p>
檜山雜詠序 (12)	<p>저자의 시집 「檜山雜詠」의 서문이다. 「회산잡영」은 1613년부터 1618년까지 창원부사로 재직하면서 지은 시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평소 시에 능하지는 않았는데 창원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시를 읊으며 복잡한 심경을 풀어냈다고 한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창원에 부임하여 느낀 비감과 한양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시절에 대한 탄식,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 등을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읊은 것이라고 하였다</p>

권제		권제목:卷七
憲府劄子 (1)	1606. 사헌부에서 올린 차자이다. 연속되는 재이를 당하여 公道를 따라 국가 기강을 세울 것, 청탁과 당색을 일소하여 仕路를 깨끗이 할 것, 爵賞을 지나치게 내리지 말 것 등을 청하고 공가의 작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敎宣武功臣李光岳書 (9)	1604. 선무공신 李光岳(1557~1608)에게 내린 교서다. 이광약은 무과에 급제하여 곤양 군수로 재직하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진주성에서 들어가 김시민과 함께 전투를 이끌어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에도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 공으로 선무공신에 올랐다	
敎扈聖功臣高曦書 (10)	1604. 호성공신 高曦(1560~?)에게 내린 교서다. 고희는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의주까지 어가를 수행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貢稅轉運使로 활약하였다. 그 공으로 호성공신에 올랐다	
敎吳連書 (11)	1604. 吳連에게 내린 교서이다. 吳連은 평민 출신으로 사복시 理馬를 지내다 임진왜란 중에 왕을 호종하여 호성공신 3등에 올랐다	
祭鶴峯金先生文 (12)	鶴峯 金誠一(1538~1593)에 대한 제문이다	
祭權松巢文 (13)	松巢 權宇(1552~1590)에 대한 제문이다.	
祭李南溪文 (13)	南溪 李輔(1545~1608)에 대한 제문이다	
祭郭季綬令公文 (13)	忘憂堂 郭再祐(1552~1617)에 대한 제문이다	
祭孫景徵文 (14)	聳漢 孫起陽(1559~1617)에 대한 제문이다	

祭金察訪-春龍-文 (17)	찰방 金春龍에 대한 제문이다
祭內兄朴宣傳官文 (17)	외가쪽 형인 선전관 朴從男에 대한 제문이다
祈雨祭文 (18)	창원부사로 재직 중에 지은 기우제문이다
金察訪墓誌 (18)	찰방 金春龍(1558~1621)의 묘지다. 김춘룡은 경주 安康 출신으로 柳成龍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 때 군량을 바쳐 察訪帖을 받기도 하였으나 평생 벼슬하지 않고 처사로 지냈다
鄭衛甫塚文 (19)	의병인 栢巖 鄭宜蕃(1560~1592)에 대한 哀辭다. 정의번은 영천 출신으로, 1585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임진왜란 때 부친 鄭世雅가 의병을 일으키자 부친을 따라 경주 전투에서 참여했다가 전사하였다. 정세아가 아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哀辭를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글을 썼다고 한다.
與或人書 (21)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 善山에 屯田을 만드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산이 군대가 왕래하는 곳이라 農牛를 보존하기 어렵고 파종을 하더라도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與屏山守某書 (21)	比安 수령에게 보낸 청탁 편지다. 黃廷幹이 부친의 시신을 상주로 운구할 때 민가의 농우를 징발하여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答金器仲書 (22)	1595. 金槎(1558~1595)에게 보낸 답장이다. 스승 金彥璣의 묘소에 獻壽하고 그 부인에게 祝壽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신은 녹봉을 덜어 조용히 치를 생각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성대하게 치를 계획을 세워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答金葛峯書 (22)	葛峯 金得研(1555~1637)에게 보낸 답장이다. 어떤 일에 대해 金槎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와 의논해 보려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寄子書 (23)	아들인 孤松 申弘望(1600~1673)에게 보낸 편지다. 과거를 보러간 어린 아들에게 得失에 연연해 하지 말고 시험이 끝나면 곧장 귀향하도록 당부하였다. 전염병 소식을 전하며 귀향할 때 유의할 것들을 자상하게 일러 주었다
與金大丘書 (22)	東籬 金允安(1562~1620)에게 보낸 편지다. 누이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봄에 찾아 뵈고 조언을 들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권제 권제목:補遺

輓惟一齋金公 (24)	스승인 惟一齋 金彥璣(1520~1588)에 대한 만사다
海上遇古人 (24)	타지에서 친구를 만난 반가움을 읊은 시다
祭城隱宗文文 (24)	문중 어른인 城隱 申愷(1550~1614)에 대한 제문이다

권제 권제목:附錄上

有明朝鮮國通政大夫承政院同副 저자 申之梯의 행장으로 紫黯 李民寅(1573~1649)이 썼다. 저자의 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 약력을 기술하고, 주요한 일화들을 소개하였다. 예안현감으로 재직할 修撰官贈嘉善大夫史曹參判兼同 때 전공을 세우고 의병장 金垓가 병사한 후 그 가족을 돌본 일, 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 창원부사로 재직 할 때 합천에 있던 정인홍과 끝까지 거리를 둔 것과 子左副賓客梧峯申先生行狀 (1) 명화적을 소탕한 일, 노년까지 죽은 형의 자녀를 돌보며 繼母를 봉양한 일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李民寅은 신지제의 절친한

	친구이자 아들 흥망의 장인이다
梧峯先生行狀後逸事識 (10)	1738. 행장에서 빠진 일화를 모아 기록한 글이다. 訥隱 李光庭이 썼다. 이민환이 쓴 행장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빠진 내용이 있고 교정도 마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현손 震龜(1680~?)가 정리한 일화를 토대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어릴 때 權泰一(1569~1631), 朴毅長(1555~1615)과 사망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부사가 세사람의 자질을 알아보고 풀어 준 일, 불쌍히 여겨 살려 준 도적이 임진왜란 중에 저자를 호위한 일, 집에 명화적이 들었을 때 의연히 대처한 일 등을 소개하였다
墓碣銘 (13)	저자의 묘갈명이다. 鶴沙 金應祖(1587~1667)가 썼다. 내용은 행장과 대동소이하며, 西厓 柳成龍과 旅軒 張顯光이 그의 인물됨을 칭송하였다고 소개하였다
墓誌 (16)	1738. 저자의 묘지명이다. 현손 申震龜의 청으로 訥隱 李光庭(1674~1756)이 썼다. 내용은 행장 및 묘갈명과 대동 소이하다

권제	권제목:附錄下
----	---------

祭文 (1)	4 편. 저자에 대한 제문이다. 敬亭 李民歲(1570-1629), 紫黯 李民寅, 懶齋 申悅道(1589~1659), 魯庵 金宗一(1597~1675)이 썼다.
輓詞 (4)	저자에 대한 輓詞로 23 수다. 五峯 李好閔(1553~1634), 旅軒 張顯光(1554~1637), 申悅道(2 수), 修巖 柳紜(1582~1635), 李民寅, 西潭 洪瑋(1559~1624, 2 수), 鶴湖 金奉祖(1572~1630), 金宗一(2 수), 葛峯 金得研, 讓西 李光胤(1564~1637), 趙亨道, 雲溪 全以性(1577~1645), 李擘, 李擘, 月澗 李愴(1558~1648), 鶴川 李逢春(1542~1625, 2 수), 虎溪 申適道(1574~1663), 李光後가 썼다.
藏待書院上樑文 (10)	저자를 제향한 영천 藏待書院의 상량문이다. 退村 李堂揆(1625~1684)가 지었다. 장대서원은 현종 10 년(1669) 저자를 제향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그 뒤 현종 13 년(1672)에 李民歲, 숙종 11 년(1685)에 松隱 金光粹(1468~1563), 悔堂 申元祿(1516~1576)를 추향하였다
奉安文 (12)	1669. 장대서원에 敬亭 李民歲를 추향할 때 쓴 봉안문이다
常享祝文 (13)	장대서원의 상향축문이다. 孤山 李惟禕(1625~1701)이 지었다
文集後識 (13)	1740. {梧峯集}의 後識다. 현손 申震龜(1680~?)가 썼으며, 문집의 간행 경위와 감회를 적었다. 친구의 부친 申叔範이 李惟禕(1625~1701)에게 청하여 遺稿를 엮으려 하였으나 이유장의 죽음으로 완료하지 못하였다. 1736년에는 친구가 玉川 趙德隣(1658~1737)에게 纂輯을 부탁하였으나 조덕린이 제주도로 유배가다 사망하여 또 중지되고 말았다. 결국 1738년 종제인 申夏龜와 함께 訥隱 李光庭에게 청하여 편집을 마무리지게 되었다. 본 문집은 조카 申致雲이 글씨를 써서 1740년 장대서원에서 간행하였다
梧峯先生文集跋 (跋 1)	1739. 淸臺 權相一(1679~1759)이 썼다. 신지제가 懿德과 卓行으로 선배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 글은 韻格이 淸高하고 뜻은 雅正하다고 하였다. 의성 유생들의 청으로 이 글을 썼다고 한다

권제	권제목:梧峯文鈔 (<奎 12074>)
憲府劄子	1606. 사헌부에서 올린 차자로, 권 7 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다
上方伯書	임진왜란 중에 감사에게 올린 글이다. 賞典이 불분명하여 병사들을 고무시키지 못한다는 것, 軍律이 중도를 잃어 사람들을 복종시키지 못한다는 것,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裨將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하였다.
略歷	신지제의 약력, 事績, 著作 목록을 기록하였다. 본문에 '李朝'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일제시기에 신지제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편의 글을 필사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박현순)

오봉집(梧峯集)

간행년대 17C

데이터구분CE

문집명 오봉집 (梧峯集)

간략서지 梧峯 申之梯의 문집. 7 권 부록 2 권 합 4 책. <奎 15708>·<古 3428-335>·<奎 12074>

간략해제 1740 년(영조 16) 저자를 제향한 의성 藏待書院에서 간행하였다. 訥隱 李光庭의 서문(1739), 현손 震龜의 문집후기(1740), 權相一의 발문(1739)이 있으며, 이광정이 찬집과 교정을 담당하였다. 원집 7 권과 부록 2 권을 합쳐 4 책이다. 권 1-권 5 는 시인데, 권 2-권 4 는 「檜山雜詠」으로 1613 년부터 1618 년까지 창원부사로 재직 중에 지은 시를 묶은 것이다. 권 5 는 「龜堂漫錄」으로 창원에서 돌아와 구당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를 묶은 것이다. 권 6 에는 「遊清涼山錄」, 「月影臺記」, 「檜山雜詠序」 등 3 편의 글을 실었다. 권 7 에는 劄子 1 편, 敎書 3 편, 祭文 8 편, 편지 6 편이 있고, 補遺로 輓詞 1 편, 시 1 수, 祭文 1 편이 있다. 附錄上에는 저자의 行狀, 逸事, 墓碣銘, 墓誌銘을 실었고, 附錄下에는 저자에 대한 祭文 4 편, 輓詞 19 수와 藏待書院의 上樑文 등을 실었다. 규장각 소장본은 2 종인데, <古 3428-335>는 목판본이고 <奎 15708>은 필사본이다. 이와는 별도로 {梧峯文鈔}<奎 12074>도 있는데, 「憲府劄子」, 「上方伯書」 및 저자의 略歷이 실려 있는 필사본으로, 원본 표지에는 {梧峯文考}로 표기되어 있다.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에는 {오봉별집}도 전한다. 여기에는 詩 59 수, 「辭承旨疏」, 「上方伯書」, 「答雪月丈書」(4 편), 「書杜詩抄選卷後」, 「亡兄手抄性理卷後識」, 「祭鶴洞李公文」, 「祭盧懼仲反櫬文」과 저자의 「年譜」, 金履萬(1683~1758)의

발문(1742)이 수록되어 있다.

편저자 신지제 (申之悌)

저자개요 1562~1624 (명종 17~인조 2) 字: 順夫, 號: 梧峯, 本貫: 鵝州, 父: 夢得, 母: 義興 朴氏 敏樹의 女

저자내용 신지제는 1562년 경상도 義城縣 下川 新禮洞에서 출생하였다. 8세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13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안동으로 가서 惟一齋 金彥璣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때부터 朴毅長, 權泰一 등과 깊은 교분을 쌓았다. 1589년 28세에 증광문과 별시에 갑과로 급제하여 사섬시 직장이 되었다. 성균관 전적, 사헌부 감찰을 거쳐 1591년 가을에 예안현감이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예안현 안집사가 되어 안동부사를 겸임하며 예안과 안동의 민병을 거느리고 용궁 등에서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 일로 뒷날 宣武扈聖功臣 1등에 올랐다. 1597년 사간원 정언이 되었고, 1618년까지 전주판관, 사헌부 지평, 춘추관 기주관 지제교, 창원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창원부사로 재직할 때는 남해의 섬에 근거를 둔 명화적을 토벌하여 그 공으로 통정대부에 올랐다. 창원부사에서 체직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龜堂을 짓고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후에는 동부승지에 발탁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이듬해 정월에 사망하였다. 부인은 함안 趙氏 址의 딸이며, 1녀 1남을 두었는데, 아들은 孤松 申弘望이고, 사위는 李舉이다. 1669년(현종 10) 의성 藏待書院에 제향되었다.

기본해제

梧峯 申之悌(1562-1624)의 詩文集. 梧峯의 玄孫 震龜가 편찬하여 1740년(英祖 16) 義城 藏待書院에서 開刊하였으며 本 所藏本은 藏書閣所藏本을 필사한 것이다. 申之悌의 字는 順夫, 號는 梧峯, 梧齋, 本貫은 鵝州, 贈左承旨 申夢得의 아들이다. 1589년(宣祖 22) 增廣文科 甲科에 합격하여 司贍寺直長, 監察, 禮安縣監, 禮曹佐郎, 持平, 江界判官, 工曹正郎, 昌原府使 등을 역임하였다. 昌原府使로 있을 때 府民을 괴롭히던 도적을 討平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通政大夫에 올랐고 그 후 同副承旨가 되었다. 義城의 藏待書院에 祭享되었다. 卷頭에는 1739년에 쓴 李光庭의 序文이 있다. 卷1: 詩 48수. 卷2: 檜山雜詠(上)이란 題名으로 詩 90수. 卷3: 檜山雜詠(中)으로 詩 53수. 卷4: 檜山雜詠(下)로 詩 146수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卷5: 龜堂漫錄이라는 題名으로 詩 171수가 있다. 檜山은 昌原의 別名으로 1613년(光海君 5)부터 1618년까지 5년 동안 그는 昌原府使를 지냈으며 檜山雜詠은 이 때에 지은 詩들이다. 龜堂은 그가 昌原府使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곳이며 龜堂漫錄은 이 때에 지은 詩들이다. 卷6: 宣城郡守로 있을 때 지은 遊清涼山錄과 檜山雜詠序가 수록되어 있다. 卷7: 憲府筭子, 敎宣武功臣李光岳書, 敎扈聖功臣高曦書, 祭鶴峯金先生誠一文, 祈雨祭文 및 金察訪春龍墓誌, 與屏山守某書 등 여러 종류의 글 20여편. 補遺로 輓惟一齋金公, 海上遇故人, 祭城隱宗丈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附錄上에는 梧峯行狀(李民寅 撰), 梧峯先生行狀後逸事識(李光庭), 梧峯墓碣銘并序(李光庭), 附錄下에는 祭文 4편, 輓詞 19수, 藏待書院上樑文(李堂 撰), 奉安文, 常享祝文

(李惟樟 撰)과 玄孫 震龜의 文集後記, 權相一의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권제 권제목:

梧峯集序 (1) 1739. {오봉집}의 서문이다. 訥隱 李光庭(1674~1756)이 썼다. 일찍 문과에 급제하여 文望이 있었지만 광해군대의 난세를 만나 요직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하였고, 글은 性情에서 우리나라 가식이 없다고 하였다

권제 권제목:卷一

詩 病中漫述-六首(1591~1597 禮安 수령시), 次竹川子韻哀近始齋金達遠-垓-二首-1593, 輓金翰林達遠二十韻-1593-記見, 泣呈涵仲契兄, 奉送鄭員外丈之京, 與金器仲-垓-分韻千?岡頭一振衣得千岡一衣等字-四首, 畫師圖山形甚拙戲吟, 山中吟, 牛背戲吟孤山雜?-二首(1594 年 청량산행 때), 次鶴峯先生-誠一-韻贈勳師, 又贈勳師, 爲張氏妹賦四韻呈于金元瑞兄-春龍-示仲瑞弟(并跋), 次高翠屏-應陟-樓字韻-三首, 述懷示樂琴葛峯兩契十八韻, 留別雪月丈-金富倫-兼示左右諸君子, 臥病壁堅山城見權詮-二首-1597-謹次水山卜居韻, 詠橘-二首-1600-興陽縣偶詠-1600-自興陽適寶城幾歷六十里到鳥城院暫歇回瞻卽朝過路也仍成一律, 送政府李從事, 謹次趙分臺先生韻, 珍島卽事, 綾城有感, 茂朱偶詠, 永思定次思齋韻, 追記前日事奉呈兼善, 奉贈公元舊史, 次花山伯-1603-臨行又次, 次龍仁板上韻-1610-愚漢中年久廢吟詠今洪偉夫-瑋-將適南州臨行語余曰此行何不爲一言以贈閒寂中將故舊詩<?+卞>.

권제 권제목:卷二

詩: 1613 年~1618 年 에 저술. 次東軒板上韻, 次韓柳川-浚謙-韻, 感舊. 雜詠-二首, 檜山雜詠上 夢中陪輦?殿下覺而有感, 次板上韻, 中宵有感-二首, 成精甫-安義-至喜甚把酒月下達曙而罷, 邀精甫私室-三首, 疊多字韻贈精甫-二首, 寄精甫浴海水, 次放翁韻寄精甫-三首, 次金大丘而靜-允安-韻呈鄭康侯-鄭維蕃-舊丈-并序-五首, 又演餘懷示康侯-二首, 次康侯韻贈別-二首, 次孫景徵月影臺用鄭郊隱韻-二首, 漫興, 舟行泊木瓜島登眺而歸有詠, 次景徵寄李叔平-垓-韻送景徵, 景徵書室示密伯載酒?妓邀我于空明亭下泛舟沂江仍過郭季綏-再祐-江亭有約與景徵同之, 泛舟記景, 感懷用杜韻, 春日將遊月影臺用趙生韻, 春日遊月影臺-二首, 迴舟, 散帙有李叔平往在京師送我赴湖幕?別詩時爲弘文校理今爲豐基郡守閱未終篇忽忽有懷適見狂風大雨仍次其韻別意-三首-附本韻, 苦?雨不霽連月陰?, 卽事, 次而靜壁上留題韻-四首, 庭畔百日紅盛開北枝先發, 又古風一首, 輓申懼之-?-三首-并跋, 時大別有往遊之願不能禁-二首, 卽事十絕-十首, 次鵝溪-李山海-卷中三絕韻不用元韻意-三首, 戲次孫宜伯丈索笠韻-二首, 次五峯相國-李好閔-韻-附本韻-, 次簡齋韻, 逼歲除有感, 疊樓字韻-二首, 春帖, 歡然如有得却念非真?然乃覺, 梁灑至病未迎接詩以謝之, 李僉知浚持鳳臨臺獨樂堂韻來索和,

疊前韻, 次五峯韻, 次東岳-李安訥-三首, 漫述, 贈別舍弟立夫-之信-又送宜夫-之義
 -意頗昔見道中書投宿漆原朝至道洪天寒不可堪韻, 次簡齋韻示友-二首,
 趙生任道前後兩采浮言送書蓋出於邑人推?之語尙不決去可笑成短律, 狂風, 春雪,
 合前兩意爲一篇,
 疊?字韻-四首, 醉中三絕-三首, 燈火將盡, ?梅, 次簡齋-五首, 奉送金察訪汝朝赴會試-五首,
 春日與朴廣文遊後洞, 南城門上同廣文別將對酌用別將韻, 北亭示廣文-二首,
 晉州清心軒上次李調度用板上韻-四首, 校中諸生持酒來會同彥時對酌, 漫興,
 送餞廣文彥時酒席亂稿
 -三首, 院北村述事-并跋, 感興, 海錄九首, 輓徐徵君行甫-思遠-丈,
 平居余嘗誦荊公賦王昭君人生得意無南北之句每致疑以爲失昭君心且不宜以此說爲臣妾道又得東國
 詩宗二絕其意祖荊公余反其意因以其韻賦二絕又一絕詩家皆咎毛公余以昭君自咎次別韻-三首,
 道傍有冷泉昔年取飲盛暑頗覺爽然今熱不可飲感而賦一絕, 喜雨有述仍祝, 熊神寺-二首,
 次杜韻贈丘景仰-山立-, 用前韻訣孤雲, 又用前韻和景仰, 暮景呼韻-二首,
 雨後臥東軒與景仰賦絕句,
 天陰不雨三日, 流頭日夜遊贈景仰, 暮景明麗望海有席帆高撐帶夕照而來真畫中事也,
 蓮池久旱乾?太半傷損雨後貯水尙有數朵芙蓉始發當暮巡池而往見清香襲人甚可愛琬傍有紫薇紫
 薇無香有感而述-二首, 苦熱, 與景仰圍?殆一月不止, 新山書院-二首, 次趙大而-亨道-韻-三首,
 孟秋十九日述感懷, 漫興-二首, 夜中詠, 道興津, 苞山次五峯詠梅板上韻-四首, 路中用前韻浪述,
 用古韻漫述, 郭季綬令公自江亭送階下自石榴五箇仍述一篇謝之, 次景徵秋懷韻, 次趙安仲
 -靖-韻贈別許而正秩滿還洛朔風吹緊葉飛城古館蕭條短燭明萬事一觴仍別語江南無限去留情,
 宿花園用前韻漫述-三首, 兒子參試, 武科都會掌試記見, 夜間枕上忽憶舍兄存亡惱懷, 次陸詩韻
 -二首, 次廣文用陸韻, 偶述-二首, 輓李陝川-瀟-二首-, 點火呂陝川聖遇-大老
 -題癸未榜會臺石樓-并跋, 輓宋正字.

권제 권제목:卷三

詩: 檜山雜詠中

題曆書冊面, 簡別將, 奉呈忘憂亭僊丈,
 賤性癖於好卜搜閱諸家雜書竟無端的可考覺其爲誕有作, 漫興,
 花園而南十里許路傍有石澗玲瓏築石依巖爲臺少日以舉子行過此今做官來憩有感而述,
 漫興, 送全別將令公秩滿還鄉, 遇述-二首, 漫述, 效吟, 輓姪子命夔-二首,
 答全秀才性, 至日行望闕禮仍述感懷, 至日坐衙, 中夜起坐雪月交輝清勝無涯-二首,
 偶綴無體格, ?堂訪廣文邀別將共話冠童亦與焉, 詠雪十六韻, 遣懷四十韻, 贈廣文,
 次廣文韻-二首, 次廣文韻, 月影臺, 次李謫仙韻, 夜話贈廣文-二首, 次廣文-四首,
 次廣文-二首, 疊廣文韻一慰廣文一遣煩懷-二首, 次廣文-二首, 大寒日候溫暖如春,
 次李上舍鯤變-
 今見百忍稿乃癸卯年申奉使過泗川會上舍于公?時上舍有贈詩今不記其和依?追述其意,
 合浦感懷七十韻, 綴支韻多遣字足以長短諸篇因述遣懷(8 个), 支字遣韻-五首,
 廣文韻中有登字起我仍綴贈景徵, 苦寒吟-二首, 聞趙清道安仲秩滿將還擬贈四十韻,
 元日詠懷二十二韻, 人日下雨廣文來告行, 出郊放鷹煎艾仍述二篇-二首,

次趙上舍倭城有感韻, 暮景偶詠, 述懷, 正月十五夜有感-二首, 月蝕-二首,
次鵝溪月出韻, 感興, 夜起月色滿窓, 出審境界宿南白寺-二首,
次裴尙謙柳遇春亭子韻, 次廣文韻-二首, 海亭-按海亭卽鄭寒岡所居也-三首,
戲贈方君興.

권제 권제목:卷四

詩: 檜山雜詠下

馬浦泛舟奉呈呂聖遇丈兼示廣文-時廣文不與-, 奉別呂丈-二首, 次廣文-五首, 贈朴知郡天祺,
薄暮海濤頗惡見雙小舟張帆分東西來, 三月初一日雪, 用前韻-二首, 有感, 寒食日雨雪有感-
二首, 次蠡石樓韻-二首, 三月三日與察訪宋顯承及廣文遊降仙臺別將趙邦寶亦來與-六首,
雨中出坐草堂籬外有梨花一樹粲粲可愛有客來過, 喜族弟來問鄉事達曙而罷, 雜述俳諧體,
對南山松樹有感, 次廣文-二首, 偶吟記漫興-二首, 絕句,
行到道興津上朝日初昇時波光如掃渚柳岸花紅綠相映光彩百倍列壁影落波中奇勝爲平生初見,
過李君厚慶草堂, 李家草堂-二首,
古琴灘上歇馬日色波光相映明媚跳躍如江神河伯弄殺銀璋玉珠頗奇勝, 紙匠村有感,
又長律述事, 柳絮, 泳山洞口臨溪酌酒同寬甫而壯-李公民?號紫巖-及諸生呼韻-
時自檜山來會-, 附本韻, 滿金栢巖-?- , 三嘉守來過用開字-按此以下還檜山作-, 次廣文,
次月影臺諸作-五首, 觀海, 次廣文-二首, 有所思, 端陽日次廣文,
端陽日有感述長短律各一篇-二首, 同日次東?十節二則感時八則雜述-十首,
次廣文韻一視諸生一視廣文-時設場試取諸生-二首, 疊開字韻-八首, 次廣文-二首,
酒席次廣文韻, 又疊開字, 次廣文-五首, 漫興, 卽事, 次德辨軸中李相國韻,
又次他韻題德辨軸, 贈別上使行, 贈副使, 贈書狀官, 夏夜臥廳事,
憶壬辰年中事偶詠肥肉大酒徒相要感而述, 喜雨, 惡風, 輓郭季綬令公, 紫薇紅, 霽後浪詠,
舟中陪寒岡先生-鄭公逵-奉贈左右諸位用李判刺潤雨氏-號石潭-呼韻,
九日與諸客暫設酌罷後夜深月色明村煙一帶橫空良久坐琬就枕仍古一絕,
次東萊軒韻贈黃會元-汝一-令公二首, 途中次人韻, 訪精甫于苞山里第別來偶述, 用廣文韻-
二首, 海亭次廣文韻, 聞巴山?携酒訪季重于劍溪季重有絕句次其韻示之, 次可信月影臺韻,
水操, 次廣文, 舟遊喜而壯性之-全公以性-來次廣文, 疊海亭韻謝張君, 次嶺南樓韻-二首,
疊嶺南樓前韻-四首, 次廣文-二首, 漫興,
金上舍守認來誦鄭相國惟吉海雲臺詩時曹光益爲都事相酬唱也仍次其韻, 偶述, 有感,
聞天朝徵師, 端陽日有感, 端陽日邀廣文小酌適病妨飲因作獨醒詩用前韻, 漫述,
五月十日夜月色明甚, 雨中有感用杜韻, 偶吟, 海亭重修韻-
本寒岡買地咸儒曾爲先生創茅屋今改?,
按寒岡書曰海上曾有弊亭茲聞府下後生輩爲改?講學之計殊非易事竊想留念惠顧矣, 醉中,
過花園有感-二首, 眞木亭, 道興-二首, 海亭同韓子眞張文哉遊次廣文韻, 輓尹昌寧民獻.

권제 권제목:卷五

詩: . 1618 년~1624 년에 저술. 龜庄卜居, 次海月軒清平山韻, 贈季源上人-三首, 次權石洲-?

龜堂漫錄 -林居十五詠, 改觀心作, 家豚次李敬亭聞皇帝訃音述感韻示我仍和其韻-按庚申明神宗皇帝昇遐-, 效八音體, 效建除體, 有感-二首, 聞而壯還及滿蒲喜而有述, 次陸放翁, 夜臥遣悶效演雅體, 再用梅月韻, 柳生贈烏竹杖, 無題-二首, 聞而壯滯箕城有述-三首, 送寬甫迎而壯于洛下, 重九日無聊寄懷, 記歎-三首, 聞中興後新闕成壯於舊制願一望見以伸燕賀而身病蹉?退伏丘園瞻想感歎之餘聊以述懷用杜韻-五首, 遣憤次杜律諸將韻-五首, 次杜律-六首, 夢中過伽伽山秋光淒爽山勢料?思孤雲南溟沈吟文之, 地主書至邀會雲谷金新寧性之昨往花山歸路約來與寬甫併往參話還後料以記事-四首, 詠菊黃紫二色, 次蒼石贈柳進士季華-衫, 號修巖-韻, 蒼石演絕句爲長律仍次其韻-三首, 外家舊有蓮池荒廢累年每惜之宗孫朴俊疏鑿重修? 草堂于池上時夜將半雨晴月出俯臨鏡面甚覺清爽逍遙不寐至于鷄三鳴乃已余甚幸朴君保守舊宅使吾瞻感之地不就荒蕪也仍次諸作述吾感愴之情使朴君更加勉強焉-二首, 又長律, 輓權長?希舜, 輓權舍人叔節, 次寬甫絕句-三首, 無題, 輓金道源-涌, 號雲川-二十韻, 辛酉春遇崔季承-睨-于龜山話及己丑年泮宮同接之事因感而賦之, 輓奴婢-婢妻家三代舊役嘗從我于洛邱有勞愛二兒如己我至死不已事主家盡誠渠無子女託于主家年八十六而死生無養死無葬甚可憐也-, 輓僚友-三首, 次湖陰-鄭公士龍-庚申日作-湖老年六十作而?亦明春年六十故末句云, 次晚晴韻, 方臺亭次李叔平韻, 次朴子龍-?懼-韻, 吟雪-二首, 次金進士丈山洞止水亭韻-二首, 次契會韻-二首, 閒居卽事, 召文途中, 權君翊室人從兄弟適來過病六日不救擔送本家後愴然書之, 抵趙景行-遵道-家是夜風惡且雨與大而諸公及李秀卿李上舍公直對話偶詠, 過孔谷有感-石在壬辰歲告君避島夷?家來寓店人青同家今來問其主人亡矣, 兵使姓朴恃勢驕橫貪虐無狀鄉員軍正?屍絡繹列郡軍丁合境流散邦紀解弛誅惡無期慨歎之餘信筆書之, 踏青日述懷, 述懷, 聞洞內後生招要舍弟豚兒爲踏青會適於杜詩有和江陵宋大少府詩有老夫今始知之句老境事古今一也 感而書之, 聞黃河清其信歟若然天下之幸也, 東谷避地託孫君濟世氏爲隣孫好鷹獵乃少年舊伴也, 次天雲韻-二首, 排悶, 記憤, 三月十日寬甫見訪乘昏共往龜池任家路中明月皎皎過溪村煙花依?老夫於此興復不淺, 奉送許明府-?-上洛-二首, 送琴彥慎-★(?+業)-令公赴任昌原, 魚樑, 聞天使有述云此日登舟問海涯敢云星使列僊?滔滔江水分三島落落堪輿自一家文? 初平青雀舫春風欲老白楊花請看館吏郊迎處壓眼?爛彩霞寬甫心頗少之遠接和章尤劣不足觀闕後寬甫以其韻作詩八章示余其三擬呈本行其二論古人詩家其一傷時其二敘因次綴四篇, 偶吟-二首, 聞王參政領舟師二萬到鴨綠江欲同本國守義州時奴賊陷遼雄據遼? 參政以孤軍深入斬奴使謀爲要擊奴後若爲官軍?角之勢其志壯且遠上國有人矣此計如就其爲上國料事重矣第未知本國利害如何亦未知事勢之可從與否竊思之誠非放過之地於是? 王公之舉措而慮廟謨之難斷偶詠記事, 偶述, 抱琴戲述, 輓金處士內室蔣氏, 輓李忠義, 輓李宅安-民弘-二首, 漫興, 撥悶, 聞西使兩行海路相繼不幸-三首, 遣憤-二首, 輓金察訪-春龍-, 辛酉七月二十八日逢火盜家舍半火書冊五百餘卷爲?燼侍婢傷者六人幸無死亡-三首, 無眠吟-是夜達夜無眠苦而述之-, 遣憤, 感古, 傷今-四首, 遼陽歌-四首, 偶吟, 疊波字韻, 南陽? 上懷諸葛公次人韻-四首, 漫述-二首, 村況, 孫兒戀母甚苦仍憶吾兄弟喪母時伯九歲仲八歲妹吾歲季四歲妹生十月當時哀哀之狀惱我先考心如何哀慟之至揮淚而書, 輓柳君-成春-, 李義立自京來傳天兵與奴賊戰快捷奴賊捲歸遼東恢復此說若然天下之福也信疑交惱聊述雜體以寄望誠之意, 此唐詩凱歌-四首, 鄉執綱三員持酒來饋庠堂將有講信之會也有感述此擬謝, 苦寒下雨怪而書之-二首, 風寒, 漫興-二首, 輓申鳳鳴

권제 권제목:卷六

遊淸凉山錄 (1)	1594. 청량산 기행문이다. 예안현감으로 재직할 때 2박 3일 일정으로 청량산을 돌아보고 쓴 글이다. 金垞, 琴蘭秀, 裨將 姜孝業과 동행하였는데, 蓮臺寺에서 李滉, 金誠一, 金垓의 詩軸을 접하고 감회에 젖기도 하고 옛 성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란 후 산성 수축에 급급한 현실을 개탄하기도 하였다
月影臺記 (9)	1614. 창원 馬山浦 月影臺의 기문이다. 창원부사로 재직할 때 쓴 글이다. 저자는 1613년 창원부사로 부임하여 가을에 월영대를 돌아보았는데, 이듬해 아들이 遊錄을 지었다. 이에 저자는 '月影'이라는 이름을 통해 아들에게 물의性は 虛虛하고 달의性は 明明하며, 서로 體用이 되어 動靜을 만들어 내면서도 虛와 明의性は 變함이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그리고 孤雲 崔致遠의 글이 그 이치를 절묘하게 표현하다는 것을 절감하며, 최치원과 월영대의 관계를 李白와 采石, 蘇軾과 赤壁에 비교하였다. 또 최치원이 부친의 임지를 따라 월영대에 머무른 사실을 상기시키며 임지에 따라온 아들이 학문에 더욱 매진하도록 격려했다
檜山雜詠序 (12)	저자의 시집 『檜山雜詠』의 서문이다. 『회산잡영』은 1613년부터 1618년까지 창원부사로 재직하면서 지은 시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평소 시에 능하지는 않았는데 창원에 있는 동안에는 거의 매일 시를 읊으며 복잡한 심경을 풀어냈다고 한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창원에 부임하여 느낀 비감과 한양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시절에 대한 탄식,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와 함께 하는 즐거움 등을 감정이 솟구치는 대로 읊은 것이라고 하였다

권제 권제목:卷七

憲府箚子 (1)	1606. 사헌부에서 올린 차자이다. 연속되는 재이를 당하여 公道를 따라 국가 기강을 세울 것, 청탁과 당색을 일소하여 仕路를 깨끗이 할 것, 爵賞을 지나치게 내리지 말 것 등을 청하고 궁가의 작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敎宣武功臣李光岳書 (9)	1604. 선무공신 李光岳(1557~1608)에게 내린 교서다. 이광약은 무과에 급제하여 곤양 군수로 재직하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진주성에서 들어가 김시민과 함께 전투를 이끌어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에도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였고, 그 공으로 선무공신에 올랐다
敎扈聖功臣高曦書 (10)	1604. 호성공신 高曦(1560~?)에게 내린 교서다. 고희는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의주까지 어가를 수행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貢稅轉運使로 활약하였다. 그 공으로 호성공신에 올랐다

敎吳連書 (11)	1604. 吳連에게 내린 교서이다. 吳連은 평민 출신으로 사복시 理馬를 지내다 임진왜란 중에 왕을 호종하여 호성공신 3 등에 올랐다
祭鶴峯金先生文 (12)	鶴峯 金誠一(1538~1593)에 대한 제문이다
祭權松巢文 (13)	松巢 權宇(1552~1590)에 대한 제문이다.
祭李南溪文 (13)	南溪 李輔(1545~1608)에 대한 제문이다
祭郭季綏令公文 (13)	忘憂堂 郭再祐(1552~1617)에 대한 제문이다
祭孫景徵文 (14)	?漢 孫起陽(1559~1617)에 대한 제문이다
祭金察訪-春龍-文 (17)	찰방 金春龍에 대한 제문이다
祭內兄朴宣傳官文 (17)	외가쪽 형인 선전관 朴從男에 대한 제문이다
祈雨祭文 (18)	창원부사로 재직 중에 지은 기우제문이다
金察訪墓誌 (18)	찰방 金春龍(1558~1621)의 묘지다. 김춘룡은 경주 安康 출신으로 柳成龍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임진왜란 때 군량을 바쳐 察訪帖을 받기도 하였으나 평생 벼슬하지 않고 처사로 지냈다
鄭衛甫塚文 (19)	의병인 栢巖 鄭宜蕃(1560~1592)에 대한 哀辭다. 정의번은 영천 출신으로, 1585년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임진왜란 때 부친 鄭世雅가 의병을 일으키자 부친을 따라 경주 전투에서 참여했다가 전사하였다. 정세아가 아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 哀辭를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글을 썼다고 한다.
與或人書 (21)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 善山에 屯田을 만드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산이 군대가 왕래하는 곳이라 農牛를 보존하기 어렵고 파종을 하더라도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하였다
與屏山守某書 (21)	比安 수령에게 보낸 청탁 편지다. 黃廷?이 부친의 시신을 상주로 운구할 때 민가의 농우를 징발하여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答金器仲書 (22)	1595. 金壩(1558~1595)에게 보낸 답장이다. 스승 金彦璣의 묘소에 獻爵하고 그 부인에게 祝壽하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신은 녹봉을 덜어 조용히 치를 생각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성대하게 치를 계획을 세워 걱정스럽다고 하였다
答金葛峯書 (22)	葛峯 金得研(1555~1637)에게 보낸 답장이다. 어떤 일에 대해 金壩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그와 의논해 보려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다.
寄子書 (23)	아들인 孤松 申弘望(1600~1673)에게 보낸 편지다. 과거를 보러간 어린 아들에게 得失에 연연해 하지 말고 시험이 끝나면 곧장 귀향하도록

	당부하였다. 전염병 소식을 전하며 귀향할 때 유의할 것들을 자상하게 일러 주었다
與金大丘書 (22)	東籬 金允安(1562~1620)에게 보낸 편지다. 누이의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봄에 찾아 뵙고 조언을 들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하였다

권제 권제목:補遺

輓惟一齋金公 (24)	스승인 惟一齋 金彥璣(1520~1588)에 대한 만사다
海上遇古人 (24)	타지에서 친구를 만난 반가움을 읊은 시다
祭城隱宗丈文 (24)	문중 어른인 城隱 申?(1550~1614)에 대한 제문이다

권제 권제목:附錄上

有明朝鮮國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贈嘉善大夫史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世子左副賓客梧峯申先生行狀 (1)	저자 申之梯의 행장으로 紫? 李民?(1573~1649)이 썼다. 저자의 약력을 기술하고, 주요한 일화들을 소개하였다. 예안현감으로 재직할 때 전공을 세우고 의병장 金垓가 병사한 후 그 가족을 돌본 일, 창원부사로 재직 할 때 합천에 있던 정인홍과 끝까지 거리를 둔 것과 명화적을 소탕한 일, 노년까지 죽은 형의 자녀를 돌보며 繼母를 봉양한 일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李民?은 신지제의 절친한 친구이자 아들 흥망의 장인이다
梧峯先生行狀後逸事識 (10)	1738. 행장에서 빠진 일화를 모아 기록한 글이다. 訥隱 李光庭이 썼다. 이민환이 쓴 행장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빠진 내용이 있고 교정도 마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현손 震龜(1680~?)가 정리한 일화를 토대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어릴 때 權泰一(1569~1631), 朴毅長(1555~1615)과 사망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부사가 세사람의 자질을 알아보고 풀어 준 일, 불쌍히 여겨 살려 준 도적이 임진왜란 중에 저자를 호위한 일, 집에 명화적이 들었을 때 의연히 대처한 일 등을 소개하였다
墓碣銘 (13)	저자의 묘갈명이다. 鶴沙 金應祖(1587~1667)가 썼다. 내용은 행장과 대동소이하며, 西厓 柳成龍과 旅軒 張顯光이 그의 인물됨을 칭송하였다고 소개하였다
墓誌 (16)	1738. 저자의 묘지명이다. 현손 申震龜의 청으로 訥隱 李光庭(1674~1756)이 썼다. 내용은 행장 및 묘갈명과 대동소이하다

권제 권제목:附錄下

祭文 (1)	4 편. 저자에 대한 제문이다. 敬亭 李民晟(1570-1629), 紫? 李民?, 懶齋 申悅道(1589~1659), 魯庵 金宗一(1597~1675)이 썼다.
輓詞 (4)	저자에 대한 輓詞로 23 수다. 五峯 李好閔(1553~1634), 旅軒 張顯光(1554~1637), 申悅道(2 수), 修巖 柳軫(1582~1635), 李民?, 西潭 洪瑋(1559~1624, 2 수), 鶴湖 金奉祖(1572~1630), 金宗一(2 수), 葛峯 金得研, 讓西 李光胤(1564~1637), 趙亨道, 雲溪 全以性(1577~1645), 李擘, 李?, 月澗 李?(1558~1648), 鶴川 李逢春(1542~1625, 2 수), 虎溪 申適道(1574~1663), 李光後가 썼다.
藏待書院上樑文 (10)	저자를 제향한 영천 藏待書院의 상량문이다. 退村 李堂揆(1625~1684)가 지었다. 장대서원은 현종 10 년(1669) 저자를 제향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 그 뒤 현종 13 년(1672)에 李民晟, 숙종 11 년(1685)에 松隱 金光粹(1468~1563), 悔堂 申元祿(1516~1576)를 추향하였다
奉安文 (12)	1669. 장대서원에 敬亭 李民晟을 추향할 때 쓴 봉안문이다
常享祝文 (13)	장대서원의 상향축문이다. 孤山 李惟禕(1625~1701)이 지었다
文集後識 (13)	1740. {梧峯集}의 後識다. 현손 申震龜(1680~?)가 썼으며, 문집의 간행 경위와 감회를 적었다. 친구의 부친 申叔範이 李惟禕(1625~1701)에게 청하여 遺稿를 엮으려 하였으나 이유장의 죽음으로 완료하지 못하였다. 1736년에는 친구가 玉川 趙德隣(1658~1737)에게 纂輯을 부탁하였으나 조덕린이 제주도로 유배가다 사망하여 또 중지되고 말았다. 결국 1738년 종제인 申夏龜와 함께 訥隱 李光庭에게 청하여 편집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본 문집은 조카 申致雲이 글씨를 써서 1740년 장대서원에서 간행하였다
梧峯先生文集跋 (跋 1)	1739. 淸臺 權相一(1679~1759)이 썼다. 신지제가 懿德과 卓行으로 선배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하고, 글은 韻格이 淸高하고 뜻은 雅正하다고 하였다. 의성 유생들의 청으로 이 글을 썼다고 한다

권제 권제목:梧峯文? (<奎 12074>)

憲府劄子	1606. 사헌부에서 올린 차자로, 권 7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다
上方伯書	임진왜란 중에 감사에게 올린 글이다. 賞典이 불분명하여 병사들을 고무시키지 못한다는 것, 軍律이 중도를 잃어 사람들을 복종시키지 못한다는 것,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裨將의 수가 많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하였다.

略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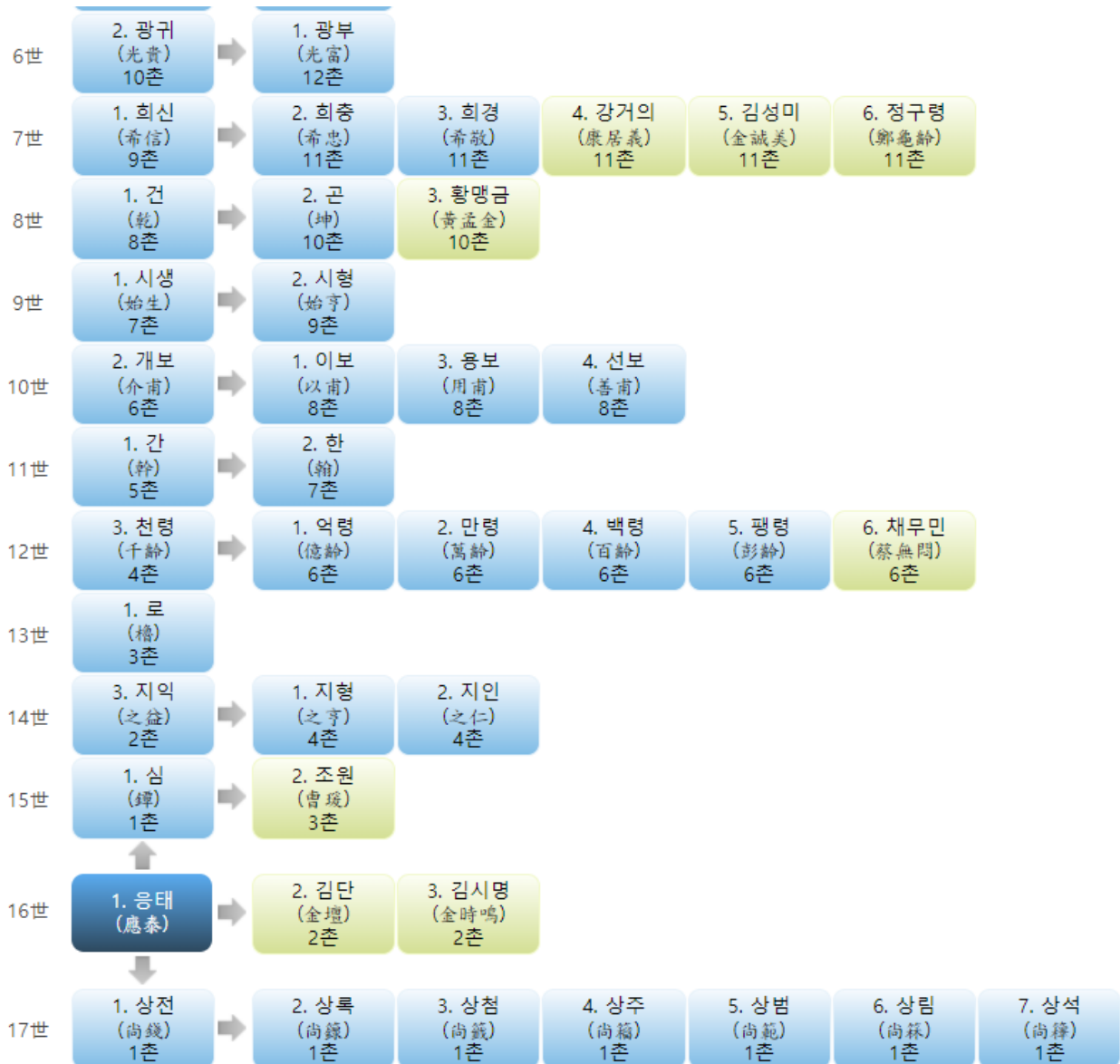
신지제의 약력, 事績, 著作 목록을 기록하였다. 본문에 '李朝'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일제시기에 신지제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편의 글을 필사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박현순)

용애문집(龍崖文集) 신응태(申應泰)

16世 응태(應泰)

父 : 심(鐔) 祖父 : 지익(之益)

귀파(龜派) 직장공파(直長公派)



권수제(卷首題) : 용애문집(龍崖文集) 저자의 유고는 8권이 있었으나 산일되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다. 9세손 신태선이 성구용과 함께 남은 원고를 편찬하여 1968년 간행하였다. 4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에 김성환과 성구용의 서문이 있다. 권1은 시와 소, 서, 권2는 잡저, 권3은 기, 제발, 찬, 제문 등, 권4는 부록이다. 권미에는 신태선의 발문이 실려 있다.

신응태(申應泰)

길래(吉來), 용애(龍崖), 응개(應漑)

시대	조선
출생	1643 년(인조 21)
사망	1728 년(영조 4)
유형	인물
직업	학자
대표작	용애문집
성별	남
분야	종교·철학/유교
본관	아주(鵝州)

조선후기 『용애문집』을 저술한 학자.

개설

본관은 아주(鵝州). 초명은 응개(應漑). 자는 길래(吉來), 호는 용애(龍崖). 충청북도 청주 출생. 신심(申鐔)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광주반씨(光州潘氏)로 반봉익(潘鳳翼)의 딸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5 세 때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홀로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일찍이 향시에 여러 번 합격하였으나 과거에는 끝내 오르지 못하고, 그 뒤 뜻을 달리하여 학문연구에 전심, 역학과 성리학에 깊이 들어갔으며 천문·역수에도 밝았다.

1689 년(숙종 15) 송시열이 사사되자 이에 항변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써서 대궐 앞에 나아가 시위하는 등, 스승의 신원을 위하여 힘썼으며, 명의 신종을 제사지내자는 유림의 운동에 앞장섰다. 만년에는 후진 양성에 힘써 문하에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 저서로 『용애문집(龍崖文集)』 4 권 1 책이 있다.

검암서원

검암서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있다. 2015년 4월 17일 [청주시의 향토유적](#) 제31호로 지정되었다.

개요

연혁

검암서원은 1694년(숙종 20)에 조헌(趙憲)을 주향하고, 한일휴(韓日休), 지여해(池汝海), 신지익(申之益), 변상회(卞尙會), 송국헌(宋國憲), 신영식(申永植), 이동형(李東亨), 박문고(朴文古), 연최적(延最積)을 배향한 서원으로 원생 15명과 자모생 15명을 두었다. 1871년(고종 8)에 철폐되었는데, 1958년에 유림에서 다시 세우고, 신응태(申應泰)를 추향하였다.

배향인물

1)주벽-조헌(趙憲, 1544~1592)

조선 중기의 문신·유학자·의병장. 본관은 배천(白川).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도원(陶原)·후율(後栗). 경기도 김포 출생. 황(璜)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세우(世佑)이고, 아버지는 응지(應祉)이다. 어머니는 차순달(車順達)의 딸이다. 이이(李珣)·성혼(成渾)의 문인이다.

1555년(명종 10) 12세 때 김황(金滉)에게 시서(詩書)를 배웠는데, 집이 몹시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 옷과 신발이 다 헤어졌어도 눈바람을 무릅쓰고 멀리 떨어진 글방 가는 것을 하루도 쉬지 않았으며, 밭에 나가 농사일을 도울 때나 땀감을 베어 부모의 방에 불을 땀 때에도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고 한다.

1565년 성균관에 입학했으며, 156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68년(선조 1) 처음으로 관직에 올라 정주목·파주목·홍주목의 교수를 역임하면서 사풍(士風)을 바로잡았다. 1572년부터 교서관의 정자·저작·박사를 지내면서, 궁중의 불사봉향(佛寺封香)에 반대하는 소(疏)를 올려 국왕을 진노하게 하였다. 성절사(聖節使) 박희립(朴希立)의 질정관(質正官)으로 명나라에 다녀와 <동환봉사 東還封事>를 지어 올렸다.

1575년부터 호조좌랑·예조좌랑·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을 거쳐, 경기도 통진현감으로 있을 때, 내노(內奴)의 횡행죄를 엄히 다스리다가 죽인 죄로 탄핵을 받아 부평으로 귀양 갔다가 3년 만에 풀려났으며, 다시 공조좌랑·전라도도사·종묘서영(宗廟署令)을 역임하였다.

1582년 계모를 편히 모시기 위하여 보은현감을 자청하여 나갔는데, 그 치적이 충청좌도에서 으뜸으로 손꼽히었다.

그러나 대간의 모함에 따른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다시 공주목제독(公州牧提督)을 지냈다.

1587년 동인 정여립(鄭汝立)의 흉패함을 논박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지어 현도상소(縣道上疏)하는 등 5차에 걸쳐 상소문을 올렸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일본사신을 배척하는 소와 이산해(李山海)가 나라를 그르침을 논박하는 소를 대궐문 앞에 나아가 올려 국왕의 진노를 샀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옥천군 안읍방티(安邑栗峙)로 들어가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을 닦는 데 전념하였다.

1589년 지부상소(持斧上疏)로 시폐(時弊)를 극론하다가 길주 영동역(嶺東驛)에 유배되었으나, 이 해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동인이 실각하자 풀려났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李瑀)·김경백(金敬伯)·전승업(全承業) 등과 의병 1,600여 명을 모아, 8월 1일 영규(靈圭)의 승군(僧軍)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충청도순찰사 윤국형(尹國馨)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해산당하고 불과 700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산으로 행진, 영규의 승군과 합진해서, 전라도로 진격하려던 고바야가와(小早川隆景)의 왜군과 8월 18일 전투를 벌인 끝에 중과부적으로 모두 전사하였다. 후세에 이를 숭모하여 금산전투라 일컬었다.

1604년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책록되고, 1734년(영조 10)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1883년(고종 20) 문묘에 배향되고, 옥천의 표충사(表忠祠), 배천의 문회서원(文會書院), 김포의 우저서원(牛渚書院),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 보은의 상현서원(象賢書院) 등에 제향되었으며,

1971년 금산의 순절지 칠백의총이 성역화되었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2) 신지익(申之益) 1588년(선조 21)~1649년(인조 27).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순거(舜學), 호는 양일당(養一堂).

승지(承旨)를 지낸 오재(梧齋) 신지제(申之悌)의 종제(從弟)로 학행(學行)이 있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였다. 어머니 병환에 목욕재계 후 북두칠성에 빌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였다. 상(喪)을 당해서는 호읍(號泣)하다 혼절하기도 하였으며, 최질(衰絰)을 풀지 않고 집상(執喪)하는 등 효행(孝行)이 높아서 신지익과 사촌 신희(申鉞), 아들 신심(申鑣)과

함께 충북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 솔골 삼효각(三孝閣)에 1703년(숙종 29) 효로써 정려(旌閭)되었다. 손자 신응태(申應泰)는 우암(尤庵)의 문인으로 학문이 뛰어나고, 『사서제요도설(四書提要圖說)』 등 많은 저술을 남겼다. 우암 송시열(宋時烈)이 행장(行狀)을 찬(撰)하였고, 공(公)에 대한 일이 『삼강록(三綱錄)』에 기재되었다. 청주(淸州)의 검암서원(儉巖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3) **신응태(申應泰)** 1643년(인조 21)~1728년(영조 4) 본관은 아주(鵝州). 초명은 응개(應漑). 자는 길래(吉來), 호는 용애(龍崖). 충청북도 청주 출생. 신심(申鎔)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광주반씨(光州潘氏)로 반봉익(潘鳳翼)의 딸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5세 때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홀로된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다. 일찍이 향시에 여러 번 합격하였으나 과거에는 끝내 오르지 못하고, 그 뒤 뜻을 달리하여 학문연구에 전심, 역학과 성리학에 깊이 들어갔으며 천문·역수에도 밝았다. 1689년(숙종 15) 송시열이 사사되자 이에 항변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써서 대궐 앞에 나아가 시위하는 등, 스승의 신원을 위하여 힘썼으며, 명의 신종을 제사지내자는 유림의 운동에 앞장섰다. 만년에는 후진 양성에 힘써 문하에 많은 학자가 배출되었다. 저서로 『용애문집(龍崖文集)』 4권 1책이 있다.

건축물소개

지금의 서원은 1958년에 중건하고 1960년에 중수하고 1985년에 보수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인데, 내부는 통칸 양회방에 분합문을 달고 앞퇴를 두었으며, 충효사(忠孝祠)라는 편액을 걸었고, 마당 앞에 검암서원(儉巖書院)이라는 현판을 단 삼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렀다.

향사일과 재산

이 서원에서는 매년 음력 3월 중정(中丁)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7번(籩) 7두(豆)이다. 재산으로는 대지 300평과 전답 1,400여평 등이 있다.

용애문집(龍崖文集)

목차(目次)

표지(表紙)

서(序)

목록(目錄)

권지일(卷之一)

시(詩)

소(疏)

서(書)

권지이(잡저) 卷之二(雜著) 57

권지삼(卷之三) 100

서(序)

기(記)

제발(題跋)

찬(贊)

제문(祭文)

묘갈(墓碣)

행장(行狀)

권지사(부록) 卷之四(附錄) 131

발(跋)

㉠ 신응태(申應泰) 선생 輯編 [아주신씨선세사실(鵝州申氏先世事實)]

권두에 신응태(申應泰) 輯編 '哀集錄', 권말에 1705년 李箕洪謹識의 '書申氏世家事實後'가 있다.

鵝洲申氏先世事實哀集錄

鹿史地理志揭州縣本新羅巨先縣在巨濟島景德王改今名為巨濟郡領縣高麗因之與地勝覽之鵝洲性亦有申姓

後孫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申應泰 輯編

高麗忠烈王六年正月壬辰以左承宣申允濡本諱元字避忠宣王嫌名代以允字今當從元

字際版圖府判書兼軍器寺別檢校事夏六月丙申元皇帝以東國所

上表箴語涉不敬詔徵撰表人撰表人皆以計避之不欲行版圖判書

申允濡進啓其略曰方今國事可謂無可為已凡為臣者不避夷險以

徇王職是固其分也今廷臣當彼元困我之日鼠畏狼顧爭自謀回思

全身若千金之重忘為國如敬盧之賤終無一人臨難者如是而國將

何保臣請斬其輕國愛身之輩以厲其餘擇遣能事專對之人使不生

患幸甚於是命下集賢殿提學柳得詔等四人于獄秋七月甲子遣政

堂文學李英仁魏元凱等赴京師出東史纂要

右申龍濟所贈申也亦吾門外裔知吾庶未能先籍故勝來贈之

⑥ 신응태(申應泰) 선생 撰書의 저술 [사서제요도설(四書提要圖說)] 원고본 上, 下 2책

권두에 崇禎周元後十五年壬午(1702)二月既望 龍崖居士鵝州申應泰(1643~1720)序의 自序가 있다. 간행본은 1968(戊申)년 9世孫 申泰鮮이 石印本이 있다

四書提要圖說卷下

華陽門人上黨龍崖 申應泰吉來 撰

庸學淵源圖			
宗祖 堯典 克明峻德 修身 自明其德 康誥 以親九族 齊家 新民而民 大學 平章百姓 治國 亦有以明 其明德 協程萬邦 平天下	禹謨 精一執中 堯舜禹相 發於仲尼 書言中而不 言庸後世以 中為難行故 夫子加以庸 之一言	中庸之論 發於子思 而中即之 和即是時中 之中故曰中 庸之中宗無 中和之義	大學三綱領之 二其源宗出於 康誥克明德作 大學一章 孔子方有 終身以上所 以體此忠一 之所以為體 一貫忠恕 齊家以下所 以行此恕貫 之所以為用
堯典康誥乃大學宗祖禹謨易誥乃中庸宗祖而誠敬又為庸學之宗旨故今為庸學之圖而先作此二圖以為庸學圖之開端焉	首三句祖述湯 誥降衷性之 質以父師之信 作為中庸之書 以詒後世之學 世相後千餘年 中庸大學相表裡 曾子思孟相授受	推本相傳之意 孟子說明善誠身 述中庸孔子之言 明善大學之本 誠身中庸之要	孟子說天命之性 明德率性之道 新民修道之教 至善極道教之理 誠意章言慎 獨子思傳授 蓋本於此

此古人所以先德行而後功名請以此道諸子孫承之
 向所謂冠冕付之倘來則天道福善山有其德君其德之
 於弁卷之文則老先生稍以佛頭鋪黃為碎領余小子何敢
 妄犯糠粃之譏乎謹題其所感云會 寫川人鄭浩題
 癸未臘月日

書申氏世家事實後

清州申應泰吉來甫一日訪余於文山之契墟授以其
 先世行蹟仍請一言以識之余謝不敢而其請愈懇有
 不可以終拒者意孝為百行之源而今觀申氏世蹟則
 按廉公處墓雙竹之感如非誠孝格天何能致此一事
 昭載三綱行實且旌閭立祠其有補於世道也大矣其
 後養一公及其子鐔與其從子鈇俱以孝行旌閭此謂
 世濟其美不墮其名者也九蒼先生題之曰至性卓錫
 足以警俗而傳世是真一大公案也余何敢更贊焉吉
 來志學不怠老而彌篤述志事之振家聲而身居卑
 曲世無知者惜哉然知不知於吉來亦何有損益余於
 吉來不勝欽歎而略書以歸之

崇禎重甲後乙酉二月上翰完山李箕洪謹識

吾祖五翁之識申氏事實在昔乙酉二月其後五十七年辛巳月
 日龍崖申公清孫葛達伯通甫和龍崖公所撰申氏事實一冊

四書要圖說卷上

華陽門人上黨龍崖 申應泰吉來 撰

或問龍山論語二十篇中何者為切要龍山云皆切要大聖
 人立言一語一訓無非切於後學之受用然切要之中又不
 無尤切要者如首篇取其切於學者記之而多終本之故
 以務本為首篇之要領首章以特習為本次章以孝悌為
 仁之本三章以忠信為習之本此類甚多至若三書亦多
 類此如明善誠身擇善固執過欲存理無非切要切要
 之言也故提撮其尤切於學者上卷者通為一圖去其重複
 謹按論語首篇四章是為學之本第五卷是治國之本是記
 之深者也今為論語圖而亦依此例以前四圖為一學之本後六
 圖為治國之本此則人君之學也物宜為圖以下諸圖皆古之學

論語圖百五十六
 大學圖十四
 中庸圖十六
 孟子圖五十五
 近思圖二十三
 共二百六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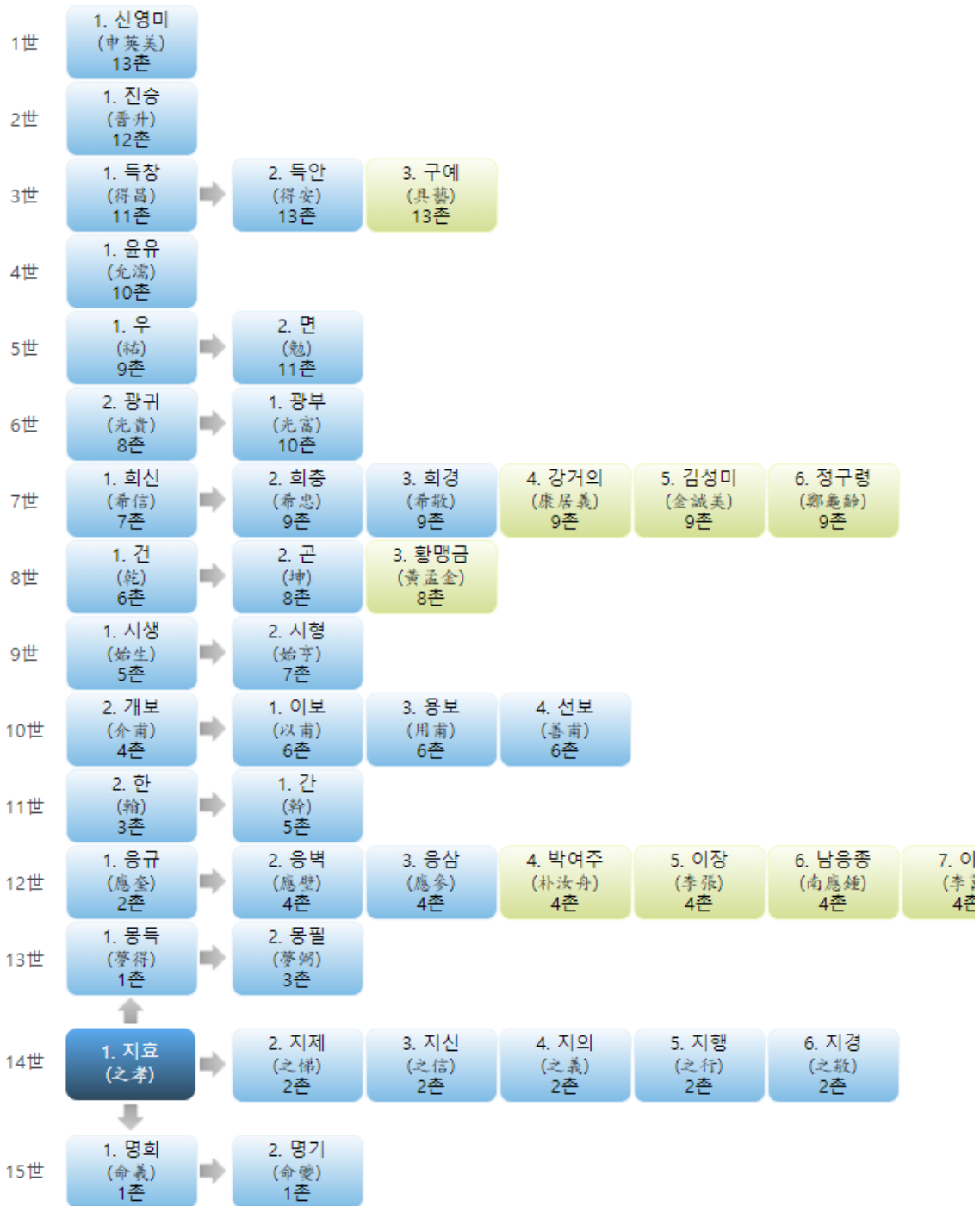
四德五常專備 雙隨識長 天地至教 社稷宗廟
 性氣明德 論才問異 氣質之說淵源 益分清濁
 氣質合善惡 理欲之分 四書統緒儒門 朱子後傳遺統

응암실적(鷹巖實蹟) 신지효(申之孝)

14世 지효(之孝)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응암공파(鷹巖公派)



신지효(申之孝)

항목 ID	GC05200922
한자	申之孝
이칭/별칭	달부(達夫), 응암(鷹巖)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561년 - 신지효 출생
몰년 시기/일시	1592년 - 신지효 사망
추모 시기/일시	2005년 - 신지효 금산 서원에 배향
거주/이주지	신지효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묘소/단소	신지효 묘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
사당/배향지	금산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재실	응암재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지역 출신의 유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달부(達夫). 호는 응암(鷹巖). 아버지는 증 좌승지(贈 左承旨) 신몽득(申夢得), 어머니는 증 공조 참의(工曹 參議) 박민수(朴敏樹)의 딸인 증 숙부인(贈 淑夫人) 월성 박씨(月城 朴氏), 할아버지는 참봉(參奉)을 역임한 신응규(申應奎), 증조할아버지는 부장(部將)을 역임한 신한(申翰), 부인은 습독(習讀)을 역임한 김준창(金俊昌)의 딸 함창 김씨(咸昌 金

氏)로 알려져 있다. 신지효는 7형제 중 장남이다. 중제(仲弟) 신지제(申之悌)가 문과 급제하며 현달하였다.

[활동 사항]

신지효(申之孝)[1561~1592]는 1561년(명종 16) 출생하였으며, 경상도 의성현 신례동(新禮洞)[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에 거주하였다. 어려서부터 용모가 수려하고 효우가 있었다고 한다. 18세 때 교임(校任)이 되었으며, 25세 때 고을 사람들이 교장(校長)으로 추대하였다.

임진왜란 이 일어난 1592년(선조 25) 5월 왜병을 피해 어머니 고창 오씨(高敞 吳氏)[아버지 신몽득의 후처]를 모시고 응동(鷹洞)[또는 천동(泉洞), 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암혈(巖穴)에 피신하였다. 그러나 쫓아온 왜병에게 발각되어 왼쪽 어깨를 칼로 베이고 말았다. 피를 흘리며 죽기 직전 신지효는 칙을 입으로 씹어 붓을 만들었다. 이어 예안 현감(禮安 縣監)을 지내고 있던 중제(仲弟) 신지제에게 주기 위한 혈서(血書)를 쓰고 난 뒤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 혈서에는 “나의 몸가짐이 조밀하지 못하고 효성이 없음이 이보다 더할 수가 있겠는가? 늙은 부모는 여러 아우들이 있어 받들어 모시고 있거니와, 군(君)은 이미 몸을 왕실에 맞긴지라. 직수(職守)가 있는 터이니 마땅히 난에 임하여 임금의 명을 받들고 실석(失石)을 무릅쓰고 죽음에 나갈 것이며, 내 시체를 찾지 못할까 걱정하여 다행히 발바닥에 ‘선성(宣城)[예안의 다른 이름]’ 두 글자를 써서 알도록 하였노라![吾之藏身 不密不孝 孰甚焉 老親則有諸弟奉侍 君既委身王室 有職守 當臨亂 授命而失石 赴死之日 恐無以尋屍 幸於足掌 書宣城二字 俾識之]”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학문과 저술]

중제(仲弟) 신지제와 더불어 김언기(金彦璣) 문하에서 수학하며, 퇴계학맥을 계승하였다. 별도로 남긴 유고는 없으며, 유문으로 『응암실적(鷹巖實蹟)』이 있는데, 1817년 편찬한 1책 44장의 목판본과 1933년에 편찬된 1책 72장의 석인본이 전하고 있다. 『응암실적』에 수록된 「혈서습록(血書拾錄)」은 신지제의 후손 신체인(申體仁)이 작성한 것으로 신지효의 ‘혈서’가 작성된 경위와 그것을 기리는 의의 등이 언급되어 있다.

[묘소]

신지효의 유골을 수습한 후, 현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광현리에 묘소를 마련하였다.

[상훈과 추모]

금산 서원(錦山書院)[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에 위치]에 중제(仲弟) 신지제(申之悌), 신지제의 후손 신체인과 함께 배향되어 있다. 금산 서원은 신체인이 강학을 위해 1782년 건립한 금연 정사를 1977년 중건하고, 1981년 서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신지효의 위패는 2005년 추향된 것이다. 추향 당시 봉안문은 류용훈(柳龍勳)이 작성하였다. 한편 신지효가 왜군에 의해 죽은 응동[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에는 재실인 응암재(鷹巖齋)와 유허비(遺墟碑)가 건립되어 있다.

[참고문헌]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응암실적』

『교남지(嶠南誌)』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응암실적』

『교남지(嶠南誌)』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신씨 대종회, 2012)

응암실적(鷹巖實蹟)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응암실적 (鷹巖實蹟)	
저자	성명	신지효 (申之孝)
	자	달부 (達夫)
	호	응암 (鷹巖)
판사항	木版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817	
권수	1	
책크기	32.7×21.1 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해제

『응암실적』은 신지효(申之孝 ; 1561~1592)의 실적이다. 신지효의 자는 달부(達夫), 호는 응암(鷹巖),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1592(宣祖 壬辰)에 난리를 피하다가 적을 만나 죽었다. 임진왜란이 급할 때 선생의 아우 오봉(梧峰) 지제(之悌)는 선성현령(宣城縣令)으로 있고 선생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집에 있다가 바위틈에 숨어 있더니 왜적(倭賊)이 쫓아와서 칼로 선생의 왼쪽배를 쳐서 피가 흔건히 흐르는 지라 선생이 목숨이 끊어질 때 침을 입으로 씹어 붓을 만들어 가지고 血書로 옷소매에 써서 梧峰에게 주기를 "나의 몸가짐이 주밀(綱密)하지 못하고 효성이 없음이 이보다 더할 수가 있겠는가?, 늙은 부모는 여러 아우들이 있어 모시고 있거니와

畧은 이미 몸을 王室에 맡긴 지라, 職守가 있는 터이니 마땅히 亂에 임하여 임금의 命을 바뉘어 矢石을 무릅쓰고 죽음에 나갈 것이며, 내 시체를 찾지 못할까 걱정하여 다행히 발바닥에 宣城 두 자를 써서 알도록 하였노라” 하였다. 조선때의 학자로 명성이 높았다. 「出典 : 嶺南人物考, 1978」

응암실적(鷹巖實蹟)

응암실적 단(鷹巖實蹟 單)

응암실적서(鷹巖實蹟序)

응암실적세계도(鷹巖實蹟世系圖)

응암실적목록(鷹巖實蹟目錄)

응암실적권수(鷹巖實蹟卷首)

습록(拾錄)

혈서습록(血書拾錄)

부록(附錄)

유사(遺事)

묘갈명병서(墓碣銘并序)

만사(이남계보)(輓詞(李南界輔))

우(이경정민성)(又(李敬亭民成))

우(홍서담위)(又(洪西潭瑋))

문소지(신나재열도찬)(聞韶誌(申懶齋悅道撰))

제망형수초문선권미성리어후(사제지제)(題亡兄手抄文選卷尾性理語後(舍帝之悌))

응암혈서습록권후발(鷹巖血書拾錄卷後跋)

응암혈서습록권후서(鷹巖血書拾錄卷後敘)

묘지명병서(墓誌銘并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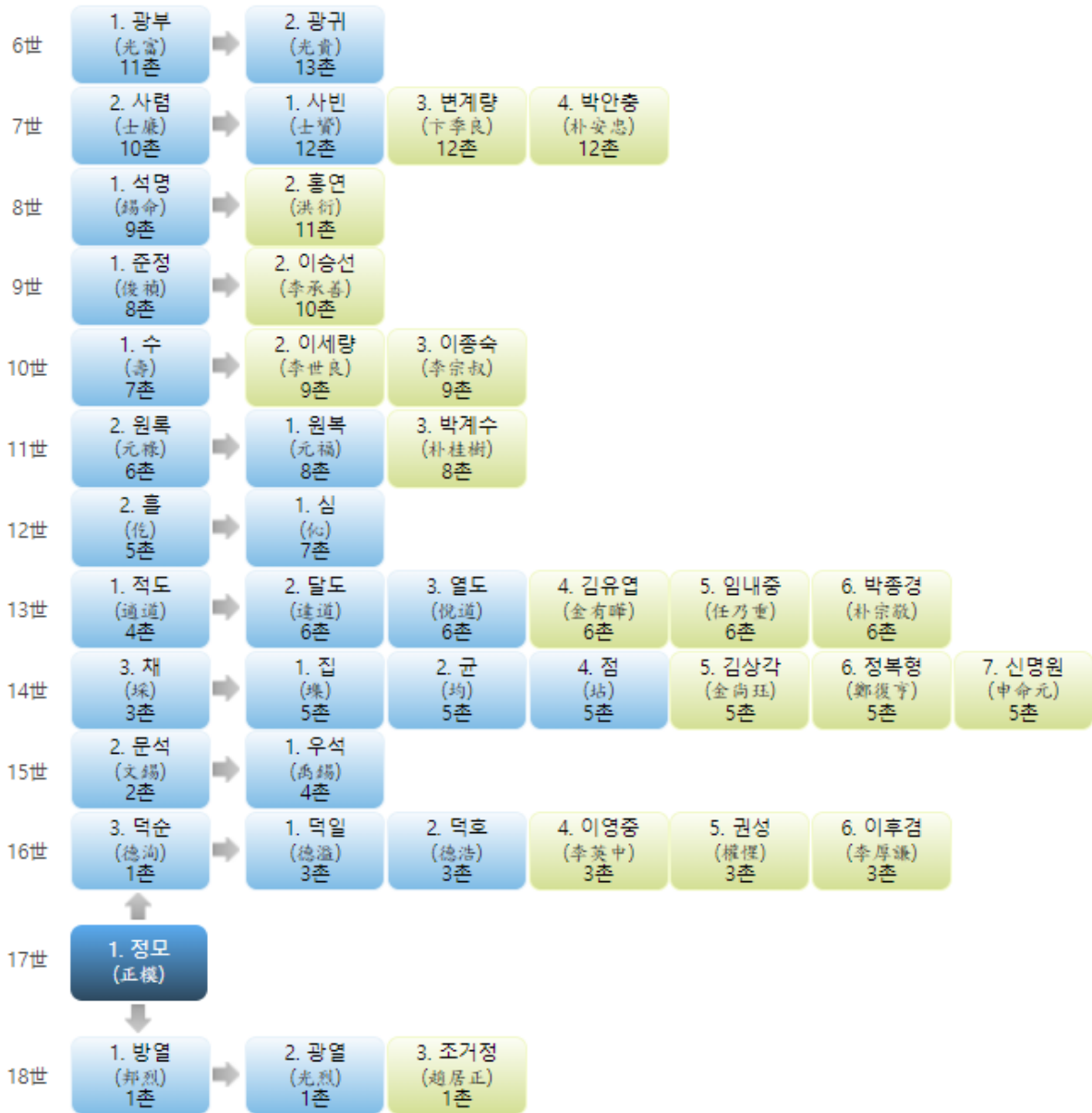
발(跋)

이치재집(二恥齋集) 신정모(申正模)

17世 정모(正模)

父 : 덕순(德洵) 祖父 : 문석(文錫)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신정모(申正模)

항목 ID	GC05200847
한자	申正模
이칭/별칭	경해(景楷), 이치재(二恥齋)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691년 - 신정모 출생
활동 시기/일시	1719년 - 신정모 진사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719년 - 신정모 증광 문과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728년 - 신정모 경상도 군위로 유배
몰년 시기/일시	1742년 - 신정모 사망
추모 시기/일시	1864년 - 신정모 복관
출생지	신정모 출생지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거주 이주지	신정모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유허비	신정모 유허비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성격	문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거창 현감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문신.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경해(景楷), 호는 이치재(二恥齋). 신채(申埰)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대석(申大錫)이고, 아버지는 신덕일(申德溢)이며, 어머니는 이성구(李星耆)의 딸 예안 이씨(禮安 李氏)이고, 부인은 안이순(安履順)의 딸 순흥 안씨(順興 安氏)이다. 숙부인 신덕순(申德洵)에게 출계하였다.

[활동 사항]

신정모(申正模)[1691~1742]는 어려서는 중부(仲父)인 신덕호(申德浩)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장성해서는 이만부(李萬敷)에게 수학하였다. 1719년(숙종 45)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20년에 부정자, 1725년(영조 1)에 지평(持平)·정언(正言)·사옹원 주부(司饗院 主簿) 등에 임명되고, 1727년 병조 좌랑·강원 도사·병조 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가, 거창 부사에 임명되자 부임하였다.

1728년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 이를 막지 못하여 군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었다. 그 뒤 암행어사 이흠(李滄)이 전과를 재조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죄상을 과장하여, 1735년 다시 흥양(興陽)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충청도 충주로 이배되었다가 적소에서 죽었다. 1864년(고종 1) 복관되었다.

[학문과 저술]

신정모는 귀양지에서 항상 나라와 부모에게 충효(忠孝)를 다하지 못한 점을 부끄러워하며, 그 호를 스스로 이치재(二恥齋)라 하였다. 문집으로는 6권 3책의 『이치재집(二恥齋集)』이 전하는데, 이 문집은 1899년(광무 3) 후손 신상헌(申相憲)과 신돈식(申敦植)이 편집·간행한 것이다. 저서로는 10권 3책의 『소행록(素行錄)』이 전해진다.

[묘소]

묘소는 오토산(五土山)[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에 위치해 있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 그의 유업을 기린 유허비(遺墟碑)가 세워졌다.

[참고문헌]

『영조 실록(英祖 實錄)』

『이치재집(二恥齋集)』

『소행록(素行錄)』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의성 지명 유래』(의성 문화원, 2002)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서지정보

원서명	二恥齋先生文集						
현대어서명	이치재선생문집						
청구기호	古 3428-457-v.1-3						
편저자(한자)	申正模(朝鮮) 著	판본사항	木版本	간행지	[刊地未詳]	책권수	6卷 3冊
편저자(한글)	신정모(조선) 저	간행연도	[光武 3年(1899)]	간행자	[刊者未詳]	책크기	32×22.5cm
匡郭	四周雙邊, 半葉匡郭:20×16.8cm, 11行 20字			版心	上下內向細花紋魚尾	표기문자	
表紙,版心,卷頭書名							
序,跋,卷首,卷末	序:戊戌(1898)...金道和, 跋:乙亥(1899)... [申]敦植						
表題紙,內題紙				附			
藏書記,內賜記							
刊記							
자료소개	朝鮮後期の 文臣 申正模(1691-1742)의 文集						
목차							
합철							
소장본							
印記							
四부분류	集部 別集類 一般			기타			
M/F 번호	M/F85-16-96-F						

문집해설

서명	二恥齋先生文集			저자	申正模 著	
현대어서명	이치재 선생문집			간행년대	1899년(광무 3).	
청구기호	古 3428-457					
책수	6권 3책	판본			사이즈 32×22.5 cm.	

조선 후기의 문신 二恥齋 申正模(1691~1742)의 시문집이다. 신정모의 자는 景楷, 호는 二恥齋, 본관은 鵝洲, 아버지는 德湓이며, 어머니는 宣城 李氏로 星耆의 딸이다. 1719년(숙종 45)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720년에 부정자, 1725년(영조 1)에 지평·정언·사용원주부 등에 임명되고, 1727년(영조 3) 병조·좌랑·강원도사·병조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가, 거창부사가 되어 부임하였다. 1728년(영조 4) 李麟佐의 난 때, 이를 막지 못하여 군위에 정배되었다가 이듬해 석방되었다. 그 뒤 암행어사가 전과를 재조사,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죄상을 과장하여, 1735년(영조 11) 다시 興陽에 정배되었다가 7년 뒤 적소에서 죽었다. 1864년(고종 1) 복관되었다.《二恥齋先生文集》은 모두 6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권1~3에는 賦 2편(感春賦 외), 辭 3편(龔隱窩辭寄呈申上舍泰登 외), 詩 140수(賞春謔詠 외), 書 28편(與息山李丈萬敷 외), 雜著 13편(自敘 외), 序 3편(四書撮要圖說序 외), 記 7편(八智齋舍記 외), 跋 3편(梅堂先生年譜跋 외), 箴銘 10편(元日二箴 외), 說 7편(敬說 외), 辨 1편(游楊尹諸公下著伊川行狀辨), 上樑文 1편(花峯精舍上樑文) 등이, 권4~6에는 祭文 8편(祭安季皞聖世文 외), 哀辭 4편(族兄上舍公重模哀辭 외), 遺狀 7편(祖考處士府君行狀 외), 墓碣銘 1편(處士迎安李公墓碣銘 외) 등이 수록되어 있고, 附錄으로 年譜, 言行拾錄, 輓詞 29수, 祭文 18편, 行狀·墓碣銘·告由文·後敘 등이 수록되어 있다. 《二恥齋先生文集》은 후손 相憲과 敦植 등이 저자의 유문을 수습·편집하고 金道和金瑞一 등에게서 서문을 받아 1899년(광무 3)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권말에는 相憲과 敦植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송웅섭)

문집개요	
문집명	이치재집(二恥齋集)(18C)
간략서지	二恥齋 申正模의 문집. 6 권 3 책.<古 3428-457>
간략해제	五世孫 申相憲이 申正模의 遺文을 수습하였다. 1864년 고종이 즉위하면서 저자의 복권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문집간행의 길이 열렸다. 그해에 李敦禹(1807~1884)에게 행장을 받고, 1886년 金瑞一(1694~1780)이 文集後敘를 쓰고, 1898년 張錫龍(1823~1906)이 묘갈명을 지었다. 문집간행의 구체적인 발의는 1887년에 시작되어 문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金道和(1825~1912)의 서문을 받고, 상헌의 발문과 從五世孫 申敦楨의 발문을 받아 1898년 문집이 완성되었고 1899년에 간행되었다. 저자와 관련된 자료로는 1980년 二恥齋文獻刊行所에서 발간된 {素行錄} 10 권 3 책이 있다. 저자가 무고로 戊申亂에 연루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무신난의 처리과정에서 희생된 인물의 사례를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18세기 전반 안동을 중심으로 영남문인들의 학문적 문제의식과 교류망을 이해하는데도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저자소	
편저자	신정모 (申正模)
저자개요	1691~1742 (숙종 17~영조 18)字: 景楷, 號: 二恥齋, 本貫: 鵝洲, 父: 德湓, 母: 宣城 李氏 星耆의 女

저자내용
 조선후기 문신. 어려서 仲父 申德浩에게 학문을 익혔고, 立巖 孫汝斗에게도 배웠다. 장성해서는 息山 李萬敷와 密菴 李裁를 종유하였다. 1719년(숙종 45)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720년 부정자, 1725년(영조 1) 지평, 정언, 사옹원 주부 등에 임명되었다. 1726년 설서(說書)에 추천되었으나 곧 사퇴하였다. 1727년 병조좌랑, 강원도사, 병조정랑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다. 이후 거창부사를 제수받아 어머니를 모셨는데,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이를 막지 못하여 군위에 정배되었으나 이듬해 석방되었다. 그 뒤 암행어사 李滄이 전과를 재조사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죄상을 과장하였다. 이 때문에 1730년 高興에 정배되었다가 1735년(영조 11) 왕세자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면서 錦陽으로 이배, 이듬해 충주에 부처되었다가 적소에서 죽었다. 1864년(고종 1)에 복관되었다. 저술에 {이치재집}이 있다.

내용개요

내용제목	二恥齋集 내용개요	청구기호	古 3428-457
------	-----------	------	------------

권제

권제목:卷一

二恥齋先生文集序 (序 1)	1898. 金道和가 쓴 서문이다. 가문의 유서 깊은 忠孝를 칭찬하고, 무신난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변파하고, 후손 相憲이 遺文을 수습하여 간행했다는 내용이다.
效楚辭體寄楸谷幽居-金星慶 (1)	초사체를 모방하여 추곡 金星慶이 사는 집에 보내 준 사부. 그 好文의 자세와 古人을 흠모하는 풍모를 칭찬하고 함께 소요하고픈 마음을 담았다.
感春賦 (1)	봄의 흥취를 노래한 사부. 봄바람에 만물이 생동하는 정경을 노래하고, 忠愛의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이다.
龔隱窩辭寄呈申上舍-泰登 (2)	1724. 龔隱窩에 대한 사부로 '龔隱'이라 이름 지은 취지를 노래한 것이다. 上舍인 申泰登에게 드린 것이며, 권 3의 龔隱窩記와 연관된 자료이다.
憂中樂辭 (3)	즐거움 속에서 어머니 상의 슬픔을 견뎌낸다는 내용의 사부이다.
陰厓辭-李紆遊樓 (3)	1736. 기묘사림인 陰厓 李紆(1480~1533)에 대한 사부. 忠州에 유배되었을 때 인근 이자의 유적을 방문하고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의 유배된 처지를 이자와 견주어 보며 그의 풍모를 그리는 내용이다.
詩 (4)	丁亥春讀書雲嵐一日諸長老齊會煮蕨朴石城-文道- 首呼陽字韻一節皆以次續成余亦謹次(1707), 賞春謾詠, 夢見慈顏起書一絕, 訪姜英陽子淳-樸-奉贈二十八字, 聞河聖則所居江心臺景致絕佳而未得一往遊覽聊和板上韻-癸卯(1723), 謹次上舍族叔-德涵-洗心亭韻和呈密菴李丈-裁, 道院會席酬權台仲-相一-吳致重-尙遠- 雨兄兼呈息山李丈-萬敷, 敬次李息山和權員外韻賜寄, 又七言一絕, 謹次道南送別韻及歸路口占韻謝呈吳致重, 又次權台仲寄惠三篇詩及看字韻謝呈, 寒食拜鷹峯先瑩-虎溪公墳山-甲辰(1724), 奉次甘圃壁上韻, 月皐見瀑布遂賦一詩以標其勝, 與河上舍聖則-瑞龍-留討藏待院數日以四韻送別求和, 次謝河上舍寄惠四韻, 八月勝騎卽除命赴京到洛江作-丁未(1727), 望王都有作, 詠聞慶飛鴻亭申察訪-弼貞-家盆梅, 肅拜後出漢江上疏吟成一絕-戊申(1728), 遊碧派亭四韻-

亭本清平尉所構而今爲王子延所有壁上又有肅宗大王親題四韻詩敬讀再三感涕自零遂續四韻以寓微臣之忱, 肅拜後棄歸議政諸宰以榮養挽止遂成一絕, 述懷謾詠, 述懷, 讀啓夢本篇, 宋兄以金七灘-世欽-詩筆見示感書一首, 奉送伯氏還鄉, 別伯氏後數日奉懷有作, 九月十一日母氏生朝謹次朱晦菴壽母韻以紓懷, 申震伯-復東-贈楚辭并惠三絕句強拙步和, 挽洪翊衛丈-相民, 挽南護軍-履夏, 挽李姑叔-厚謙, 挽金明五, 挽李鼎叟, 挽鄭景亨-辛丑(1721), 挽權蒼雪-斗經, 挽洪判書-萬朝-丙午(1726), 挽成參奉-大夏, 挽曹處士-善長, 白雲精舍雜詠-并序, 白雲精舍-七言, 自訟堂, 樂朋齋, 待賓廳, 二恥軒, 擎天峯, 峨冠峯, 望辰峯, 望雲臺, 仁智壇, 天海臺, 常關門, 學圃亭, 詠歸臺, 觀海亭, 坐憩巖, 上白雲, 下白雲, 八雲徑, 出雲臺, 石井-五韻, 巖澗, 蓮沼, 菊塢, 竹籬, 桃溪, 槐巷, 松嶺, 長林, 遠岫, 子規, 雉鳴, 四季花, 百日紅, 連夜夢見慈顏及伯氏起坐書懷, 雨後出山謾詠-二首, 踏青日與諸友煮花賞春-二絕, 秋夕, 登蓮華山, 登喚仙臺次壁上韻, 移寓廣石遊元巖作, 七月既望效赤壁古事-二首, 書洪亮卿問札後, 邑大夫使人賀內地付處之命瞻天望雲自不禁感懷一絕以紓, 大山書堂儒生咸來惜別其中朴時鵬林伯壽尤挽行掩淚遂示一律, 南山庵在忠原鎮山絕頂長郊數百里皆在目前暇日遊覽吟成一絕, 月夜散步, 感懷有作, 晚步溪邊, 讀晦菴遠遊篇, 人日謾詠, 誦朱書, 雨後散步, 感懷, 廣石亭雜詠-并序, 廣石亭, 紫芝城, 仙巖, 鷲嶺, 門巖, 金嶺, 吹簫峯, 月影峯, 松壇, 竹垣, 漁舫, 杜若洲, 述懷, 九日-二首, 又, 又次太白龍山韻, 放懷次太白十日卽事韻, 秋夜聞鴈, 權士軒-繳-要余和其壁上韻歸後構成奉呈, 夜月清甚謾書所感, 夜間漁謳, 正月望夜見月有感書一絕, 謫居謾詠, 夜讀書有作, 讀王魯齋天地萬物造化論有感, 再遊落霞臺-二首, 又, 內院月夜吟, 少年日書懷-除夕前一日呼爲少年日, 山臯卽事, 書懷, 雨中翫易遣懷, 訪申上舍別贈二絕, 又七言, 七月十三夜大風雨.

권제

권제목:卷二

詩

古體一首寄呈楸谷-金星慶, 夜起看月, 往在戊午冬李濟卿氏訪余於龍岸因留一詩以別余忙未卽和謝厥後仍遭巨創精魄流遁并與本詩而忘之日余適往楸谷李兄亦來在座言及前詩索報頗緊余爲之瞿然推謝既歸卽次其韻併用別韻成三首奉呈以塞前日逋慢之辜切望特恕還惠瓊報(1738), 申上舍和送前詩更步灰字以謝, 李齊仁更以盆字韻寄示追步以謝, 中元節書懷, 又七言一絕, 八月既望風清月白夜景甚適謾成二絕, 伯兒讀小學敬次寒暄堂讀小學韻書示, 題寧國寺, 落帽佳辰不見黃花謾詠一絕, 又七言律一首, 聞菊, 菊答, 楸洞兩兄同作嶺行奉贖一律, 寧國寺聯句, 金兄君瑞-星慶-作湖南行詩以奉贖, 雪月夜乘水鷺溪-臘月, 許明遠讀朱書喜贈古詩及四韻, 四韻, 卽事, 同諸益翫月, 次許兄道真四韻, 與諸益出遊械月次金時會韻, 次金時會韻-二首, 與金兄尋鷹嶺遺址, 送春, 寄題朴友懶隱堂, 贈金時會觀國之行, 述古體一首寄許明遠, 病中口呼古詩一章, 四言.

與息山李文-萬敷-乙未
(8)

1715. 여름에 식산 이만부(1664~1732)에게 보낸 편지. 25 세 때 편지로 爲學의 節度에 대해 논하였고, 책 상자를 짚어지고 門下에 가서 배우고 싶으니 가르침을 베풀어달라는 내용이다. 詩 다음에 분권하지 않고 바로 書を 편집하면서 쪽수가 1 부터 다시 시작함.

與息山李丈-丙申 (2)	1716. 9 월. 이만부에게 보낸 편지. 居敬窮理의 공부가 전일하지 못함을 자책하고 門人弟子의 반열에 나아가 비루한 자질을 바꿔보고 싶다는 내용이다.
與息山李丈-癸卯 (3)	1723. 이만부에게 보낸 편지. 33 세 때 편지로 옛 성현은 博文約禮를 道에 들어가는 문으로 여겼고, 송대 선유도 철저히 義理를 분석하여 종신토록 실천하였으나 근세의 학자들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與息山李丈-甲辰 (5)	1724. 이만부에게 보낸 편지. 密菴 李裁가 편찬한 {朱書講錄刊補}는 吾黨의 학문에 뜻을 둔 선비의 指南이 되니 간행하여 널리 유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만부가 편집한 {道東編}도 후학에 보탬이 될 것이니 완성되었다면 보고 싶다는 내용이다.
與密菴李丈-裁-甲辰 (6)	1724. 밀암 이재에게 보낸 편지. 1722 년(경종 2) 氷溪書院의 洗心亭에서 헤어질 때 말씀대로 차운하여 시를 올리니 보아달라는 요청과, {顏會遺書} 및 {朱書註解}를 빌려주시길 바라는 내용이다.
與密菴李丈 (7)	밀암 이재에게 보낸 편지. 빌려주신 {주서강록간보}를 반복해서 음미하며 文義가 이상한 곳을 정리했고, 1724 년에 있었던 道南書院의 {近思錄} 강해에서 의심된 것을 정리하고, 별도로 {근사록}에서 궁금한 것을 일일이 기록하여 보내니 살펴달라는 내용이다. 관련 별지 3 개와 이재의 답변이 함께 편집되어 있음.
答密菴李丈-乙巳 (34)	1725. 밀암 이재에게 보낸 답장 편지. {주서강록간보}의 오류를 줄여서 후세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戒懼謹獨은 已發未發에 분속되는데 지금 戒懼가 動靜을 겸한다는 의견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答密菴李丈-丙午 (26)	1726. 밀암 이재에게 보낸 답장 편지. {中庸}의 戒懼兼動靜說에 대해 다시 의견을 피력하는 내용이다.
與願齋李丈-棧 (29)	願齋 李棧(1669~1734)에게 보낸 편지. 1719 년(숙종 45) 한번 뵈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왕래하며 질문한다고 하면서 별지로 禮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는 내용이다. 父가 養子の 喪에 3 년 복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과, 國葬과 私葬이 겹쳤을 경우로 因山日 전에 挽詞를 남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들어주는 일에 대한 질문이다. 이만은 李玄逸의 조카로 禮學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다.
答權清臺-相一-癸卯 (30)	1723. 淸臺 權相一(1679~1759)에게 답장한 편지. 두문불출 노친을 모시고 있으며 志力이 강하지 못하여 舊習에 얽매어 허송세월한다는 내용이다.
答權清臺 (31)	청대 권상일에게 답장한 편지. 虎溪之會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 道南書院과 近岳書院의 會講에 참석하길 바란다는 것, 과거공부에만 힘쓰고 성리학 공부에 착실하지 않는 세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與李訥隱-光庭 (32)	訥隱 李光庭(1674~1756)에게 보낸 편지. 선조의 행장과 묘도문자가 백여년 후에 외손의 口傳으로 슬쩍 들어간 사실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與柳慵窩-升鉉-辛丑 (32)	1721. 3 월. 慵窩 柳升鉉(1680~1746)에게 보낸 편지. 勤愼 두 글자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주 신씨 申以徵의 딸이다.
與玉川趙丈-德隣-乙巳 (33)	1725. 玉川 趙德隣(1658~1737)에게 보낸 편지. 吾黨에서 의지하는 바가 크고 새로운 임금께서 등극하셨으니 유배지에 오래도록 두지 않을 것이므로 自愛하길 당부하는 내용이다.

與申察訪-弼貞 (35)	病翁 申弼貞(1656~1729)에게 보낸 편지. 向裏用功(마음안을 향하며 공력을 기울이다.)하는 것이 진정한 길을 찾고 나태한 氣習을 바로잡는 길이라는 내용이다.
與申察訪-癸卯 (35)	1723. 신필정에게 보낸 편지. {延平書}를 읽으면서 큰 위안이 된다는 것과, 4월에 놀러갔던 閩慶 仙遊洞 경치에 대한 감회를 밝힌 내용이다.
答李輝祖-重煥 (36)	輝祖 李重煥(1690~1752)에게 보낸 답장 편지. 지난번 편지에서 有體無用之學(체는 있고 용이 없는 학문)이 없다고 언급한 것은 매우 정확한 지적이며, 체와 용은 하나라도 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與鄭成仲-之鏞-丙申 (37)	1716. 成仲 鄭之鏞에게 보낸 편지. 지난 가을 述懷詩를 보고 志業의 탁월함에 감복하였고, 四書와 程朱文集에 힘쓰고 전에 말했던 敬에 힘쓰면 옛 성현의 지위를 엿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答河進士聖則-瑞龍 (39)	聖則 河瑞龍에게 보낸 답장. 飛鴻亭의 申丈(미상)과 문경 선유동에 놀러가려던 일이 무산된 것을 아쉬워하고 그 계획이 다시 세워지길 바라는 내용이다.
答河聖則 (39)	성칙 하서룡에게 보낸 답장. 학문의 방법을 서술한 것으로 {논어}와 {심경}의 要語에 힘쓸 것을 역설하는 내용이다.

권제

권제목:卷三

答李小隱-景翼 (1)	小隱 李景翼에게 보낸 답장. 권상일과 함께 도남서원에서 만나 錦陽에서 오고간 이야기를 듣고 {刊補}를 빌려보고 미심쩍은 곳을 표시하여 돌려주었고, 아울러 {寒泉集}의 의문점을 기록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일을 술회한 내용이다.
答洪參奉-重寅-朔寧-重徵 (1)	花隱 洪重寅(1677~1752)과 梧泉 洪重徵(1682~1761)에게 보낸 답장. 국휼 때 儀禮의 과실과, 李承宣이 올린 두 번째 疏章을 고쳤다고 들었는데, 그 儀定節目과 소장을 보여달라는 내용이다.
答吳致重-尙遠-甲辰 (2)	1724. 致重 吳尙遠에게 보낸 답장. 天雲齋에서의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도남서원의 講席에서 식산 이만부 선생과 만나 강론한 경험은 10년 독서와 맛먹을 만큼 소중한 기회였다고 술회하였고, 이만부와 권상일과 공유하길 권유하는 내용이다.
答金戰兢齋-瑞一 (2)	戰兢齋 金瑞一(1694~1780)에게 보낸 답장. 보내 준 편지에서 언급한 松壇古壁의 말에 대한 소감을 기술한 내용이다.
答南國老-耆-問目 (3)	國老 南耆의 문목에 의견을 개진한 답장. 남구가 지은 情과 意의 그림과 그 설명에 대하여 더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다. 첨부된 「情意之圖」에서는 정과 의에 대하여 주자 등 송대 유학자와 퇴계의 정의를 토대로 의견을 피력하였다.
與李副學-眞望-壬寅 (5)	1722. 陶雲 李眞望(1672~1737)에게 보낸 편지. 마음을 다하여 國事를 偏黨하게 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이진망은 이경석의 증손.
答上舍族叔-德涵 (5)	족숙 申德涵에게 보낸 답장 편지. 洗心亭 차운시를 보시고 부족한 곳을 고쳐달라는 내용이다.
上伯兄晚香齋-戊申賊警時 (6)	1728. 큰 형 晚香齋에게 올린 편지. 무신난 때 청주, 안음의 적진 상황을 기술하고 노모를 피난시키는 일 등을 알리는 내용이다.

自序-丁亥 (6)	1707. 17 세에 쓴 글로 鄒魯之鄉으로 불리어지던 영남의 학문풍토가 최근 100 년동안 詞章에 치우치는 현상을 스스로 반성하고 先聖 先師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다.
娥林縣榜諭節目-戊申 (7)	1728. 아림현[거창]에 부임하여 작성한 것으로 발생할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大小民吏를 깨우치려는 목적으로 만든 절목이다. 그 내용은 ① 三綱五倫의 실천자에 대한 포상 ② 養老의 실천 ③ 士子에게 讀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함 ④ 鄉校 위상의 제고 ⑤ 향교와 서원에서 色目を 나눠 분쟁하지 말 것 ⑥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와 읊을 문제를 지적하면 실천할 것 ⑦ 검소한 식사와 가벼운 세금을 약속하고, 官用 물품의 절약의 강조함 ⑧ 禁酒 조치 ⑨ 鄉廳을 통한 政事 실천 등이다.
賊變時報營草 (9)	1728. 무신난 당시 감영에 보고한 문서의 초안이다. 앞부분 일부가 유실되었다. 난이 일어나자 吏胥와 軍任輩는 도주하였고, 자신은 80 노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한 일의 불가피함을 변론하고, 千把總輩의 이반 현상과 물자의 약탈 상황 등을 보고한 내용이다.
陳情文 (11)	무신난 때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고, 거창이 본래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알려진 것임을 전제하고, 老母를 모시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주했음을 자세히 변론하는 내용이다. 충신을 구할 때는 반드시 효자 집안에서 한다는 영조의 비답이 첨부되어 있다.
立春日書示伯兒六章-并序 (13)	입춘을 맞이하여 16 세가 된 큰아들에게 교훈 6 가지를 써주며 분발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① 경박함을 바로잡을 것(矯輕) ② 게으름을 경계할 것(警惰) ③ 겸손에 힘쓸 것(勉謙) ④ 말더듬을 경계할 것(戒訥) ⑤ 올바른 독서를 배울 것(教讀) ⑥ 인의예지 및 효제충신을 힘써 실천할 것(勗行)
喪禮記疑 (14)	喪禮에서 의문점을 비망록처럼 기록한 글이다. 모두 6 개로 구성되어 있다. ① 小殮 뒤의 拜賓의 예 ② 五服 중에서 大功에서 생략된 것에 대한 의문 ③ 父가 사망했을 때 嫡孫의 承重者가 없는 경우와 삼년상 기간 중에 母나 祖父母가 사망한 경우 喪服의 문제 ④ 承重한 曾孫이나 玄孫이 그 曾祖나 高祖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 그 祖母, 母, 妻의 상복문제 ⑤ 父가 사망하고 아직 殯을 하지 않았는데 祖父가 돌아가셨을 경우 상복문제 ⑥ 父가 살아계실 때 母가 사망하여 服을 입는 문제.
心喪人髮網巾毛氈頭記疑 (16)	心喪을 할 때 髮網巾과 毛氈頭의 사용 문제에 의문점을 정리한 글이다. 이것들은 평소에 장식하는 물건이지 심상할 때 착용하는 물건이 아니며, 자신이 本生父母의 심상 때 平涼子와 黦布網을 사용했으나 후덕한 뜻을 나타내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자손들은 유념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四書撮要圖說序 (17)	「사서촬요도설」에 대한 서문이다. 申應泰(號: 龍厓, 1643~1728)의 저술로 花峯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의 손자 永昌이 찾아와 부탁한 것이다. 四書에서 절실 말을 고르고 그림을 그렸고, 다시 {近思錄}으로 사서를 보완하여 핵심어를 뽑고 그림을 그리고 그 뒤와 권말에 첨부하였다. 간간히 자신의 견해를 첨부하였는데 총 264 개의 그림이 있는 것이다.
書藍田遺約條目後序	「남전유약」의 조목 뒤에 쓴 서문이다. 呂氏鄉約의 취지를 계승하기 위해 고을의

(18)	6,7 명의 士友와 함께 稷를 만들고 그 이름을 '남전유약'이라 명명한 것이다. 여씨향약 4 조와 本註를 나열하고 약간의 節目을 만들어 첨부하였다.
送壺山宋公序 (19)	壺山 宋公(미상)을 전송하면서 써준 서문이다. 저자가 전남 高興으로 유배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으로 40 세가 넘었으나 매일 {대학}을 암송하고 간간히 {陸宣公奏議}를 抄錄하는 등 好學의 자세를 잃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하며 더욱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八智齋舍記 (20)	義城의 八智山 자락에 위치하는 아주 신씨의 팔지재사의 기문이다. 시조 申祐이래 申壽, 懷堂 申元祿(1516~1576)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그 아래 藏待書院에 8 인을 모시고 사림들이 不遷之主를 만들어 別廟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제사지낼 齋屋이 갖추지 못하여 불편하던 차 재종숙이 그 일을 주관하여 마무리하고 문중에서 기문을 짓게 했다는 내용이다.
有斐堂記 (21)	유비당의 기문이다. 柳士眞이 '有斐'의 뜻을 부연하여 기문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었다. 그의 高祖가 집둘레에 翠竹 천 그루를 심고 '淇澳有斐'의 뜻을 취하여 자손들의 進學과 自修의 공부를 권면하는 뜻을 잇기 위한 것이라며 그 취지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다.
水舍記 (23)	宋公(미상)이 지은 水舍에 대한 기문이다. 물의 성질인 順下, 受穢, 積小成大의 뜻을 취하여 건물이름을 독특하게 지은 안목을 높이 평가하고 권면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大江書齋重修記 (24)	1730. 다시 지은 大江書齋에 대한 기문이다. '大'자의 의미로 講習의 즐거움을 풀이해달라는 宋君(미상)의 제안을 받고 지었다. 모든 일이 積小成大하는 것이니 대에 치중하지 않도록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이다.
觀水亭記 (26)	관수정의 기문이다. 蓮花峯에 謫居할 때 관수정 주인이 柳君(미상)을 통해 기문을 부탁한 것이다. 관수정의 주변 경치와 구조를 묘사하고 주인이 隱遯과 考槃에서 뜻을 취했으나 현실로 되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龔隱窩記 (27)	申泰登의 농은와에 대한 기문이다. 귀머거리에 의탁하여 스스로 세상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崔致遠이 가야산에 은둔하여 돌에 새긴 시에 '항상 是非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내용이다.
三亥烈婦記 (28)	삼해의 열부의 의리를 추모하는 기문이다. 삼해태수 이 아무개가 부임하는 날 신랑 행렬과 만났는데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杖殺시키자 그 아내가 官妓로 잠입하여 마침내 태수를 죽이고 佩刀로 간을 꺼내 먹어 죽은 남편의 원수를 갚은 일화를 서술하고 그 아내의 의로움을 기리는 내용이다.
懷堂先生年譜跋 (29)	회당 申元祿의 연보에 쓴 발문이다. 그의 유고로 학문과 躬行實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문집의 구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1739 년(영조 15)경에 藏待書院에서 간행하였으며, 저자가 충주에 유배되었을 당시 발문을 썼다.
敬書退陶先生解釋朱夫子觀書有感詩後 (30)	퇴계 李滉이 해석한 朱熹의 觀書有感 시를 감상하고 그 뒤에 삼가 쓴 글이다. 이항의 해석내용으로 오래 동안 고심하던 의문이 해결되었다고 하고, 그 주석이 매우 명쾌하여 마치 직접 가르쳐주는 것 같다는 내용이다.
書諸葛武侯事蹟後 (31)	제갈무후사적 뒤에 쓴 글이다. 東漢과 西漢의 人才 가운데, 張子房, 嚴子陵, 董仲舒, 司馬遷, 班固, 韓信 등과 제갈량을 비교하고 人品이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하고 程朱, 張南獻 등의 평가를 소개한 내용이다.
元日二箴-并序 (33)	元일에 쓴 2 개의 잠이다. 18 세에 지은 것으로 옛 성현은 오직 內에 힘을 다하였다고 하면서 성현의 경지에 진입하기 위한 다짐으로 晦齋 李彦迪의 元朝五箴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작성 취지를 밝혔다. 情慾을 다스리겠다는 窒慾箴, 마음을 誠敬으로 보존하겠다는 存心箴으로 이루어져 있다.
自訟箴-并序 (33)	자신을 송사한다는 잠이다. 世務에 밝지 못하고 오직 忠孝만 안다고 하면서 무신난 때 老母를 모시고 도주한 사태를 아울러 반성하는 내용이다.
二獨箴-并序 (35)	蔡西山先生이 '홀로 가도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고, 혼자 자도 이불에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으로 자식에게 훈계한 사실을 빌어 고흥에 유배된 자신을 경계하기 위해 지은 잠이다. 獨行不愧影箴, 獨寢不愧衾箴 등의 두 개의 잠으로 구성되었다.
自新箴-并序 (35)	유배지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임금과 노모를 그리워하는 여가에 스스로 새롭기를 다짐하는 잠이다.
至日箴示伯兒-并序 (36)	동지의 의미를 주역의 復卦의 형상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학문에 힘쓰기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큰 아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經書와 史書의 균형있는 독서를 강조하였다.
處困篤志箴寄伯兒-并序 (37)	곤궁함에 처할수록 뜻을 독실하게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잠으로 큰 아들에게 주었다. 蔡西山이 유배 갔을 때 자식에게 훈계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였으며, 二獨箴의 취지와 일치한다.
二恥齋銘 (37)	유배지의 처소를 이치재라고 하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명이다. {孟子}의 羞惡之心을 거론하며 무신난에서 나라에 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恥요, 노모와 떨어져 孝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恥라고 하면서 자신은 두 개의 부끄러움이 있다는 내용이다.
敬說 (38)	堯舜에서 송대의 유학자들까지 敬의 중요성을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고, 物欲에 가리워진 本然之天을 회복하는 것이 학자가 힘써야 할 일인데, 그 存養復初의 良法이자 學者의 선무가 敬임을 역설하는 내용이다.
定志說-戊子 (39)	1715. 학문에 대한 뜻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논설이다. 어려서 古人之 爲己之學에 뜻을 두었으나 慶山의 科試 때 만연한 痘癘을 보고 자신의 뜻이 견고하지 못함을 깨닫고 분발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본문에는 戊子로 되어 있으나 연보에 따라 乙未로 바로잡음.
弘毅說 (40)	弘과 毅에 대한 논설이다. 聖人の 문하에서 曾子만이 進德할 수 있는 것이 弘毅였다고 주장하고, 子路, 子夏 등 제자부터 송대 주희에 이르기까지 홍의와 관련된 언급을 정리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한 내용이다.
潘氏論漢文漢武說 (42)	元대의 {通鑑總論}의 저자 潘榮이 漢文帝와 漢武帝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반박하는 논설이다.
華夷相勝說 (45)	中華와 夷狄이 번갈아 교체되었던 역사를 약술하고 華夏의 참된 주인이 다시 일어나길 염원하는 내용이다.
一治一亂說 (47)	한 번 다스려지고 한번 어지러워지는 역사의 순환을 논설한 것으로 당시를 一亂으로 규정하고 孔孟의 旨訣을 밝히고 洛建의 心法을 강구하여 一治의

	세상이 도래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書贈柳秀才說 (49)	유수재(미상)에게 써서 준 논설로 讀書나 誦書에서 敬의 가치를 역설하고 進修의 工夫에 힘쓸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다.
游楊尹諸公不審伊川行狀辨 (50)	游麴, 楊龜山, 尹和靖이 程伊川의 행장을 저술하지 않은 이유를 변론하는 논설이다. 그 세명은 時議를 범해서까지 그 덕을 기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호하면서 뒤에 주희가 나와 선생의 행적과 연보를 정리한 것이 斯道の 전송에 다행이라는 내용이다.
花峯精舍上樑文 (51)	화봉정사의 상량문이다. 四書撮要圖說序에서도 花峯이 언급되었고 觀水亭記에서는 蓮花峯이라고 하였다. 유배지인 충주 일대의 지명으로 추정된다.

권제	권제목:卷四
祭安季皞-聖世-文 (1)	季皞 安聖世에 대한 제문.
祭鄭進士-之錄-文 (2)	진사 鄭之錄에 대한 제문.
祭仲父槃窩公文 (3)	중부 申德浩에 대한 제문.
祭伯從叔文 (5)	큰 당숙에 대한 제문.
祭先妣夫人文-奔喪後 (6)	어머니 咸陽 朴氏에 대한 제문.
祭亡室淑人順興安氏文 (8)	아내 숙인 순흥안씨에 대한 제문.
祭亡室淑人東萊鄭氏文 (10)	아내 숙인 동래정씨에 대한 제문.
族兄上舍公-重模-哀辭 (14)	족형 申重模에 대한 애사.
李子聃-猶龍-哀辭 (15)	친구인 李猶龍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애사.
李子達哀辭 (16)	친구인 李子達의 요절을 안타까워하는 애사.
密菴李先生誄文 (17)	밀암 이재의 죽음을 애도하는 뇌문. 南人の 宗匠으로 선비들이 크게 의지한 분이었음을 언급하고 8~9년 문하에 출입했던 일을 회고하였다.
祖考處士府君行狀 (18)	할아버지 申文錫(1641~1685)에 대한 행장.
伯祖芝軒府君行狀 (20)	큰 할아버지 申禹錫(1636~1695)에 대한 행장.
伯考處士府君行狀 (22)	큰아버지 申德溢(1662~1690)에 대한 행장.
先考處士府君行狀 (25)	부친 申德洵(1680~1709)에 대한 행장.
仲父槃窩府君行狀 (26)	중부 申德浩(1674~1730)에 대한 행장. 자는 聖欽, 호는 槃窩, 부친은 文錫으로 갈암 이현일의 문인이다.
贈淑人順興安氏行略 (28)	숙인에 추증된 순흥안씨의 간략한 행장. 安履順의 딸이자 저자의 첫 번째 아내로 1713년(숙종 39)에 결혼하였으나 2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淑人東萊鄭氏行略 (30)	아내인 숙인 동래정씨(1696~1740)의 간략한 행장. 鄭弢의 딸이다.
處士延安李公墓碣銘 (32)	1728. 李東美(1600~1672)에 대한 묘갈명. 무신년 저자가 경북 군위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이다. 이동미는 연안이씨로 자는 公述이고 權曙의 딸과

결혼하였다. 임금에게 {小學}을 하사받을 만큼 인정받았으나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자 과업을 포기하고 평생 處士로 살았다.

권제	권제목:卷五
年譜 (1)	伯兄 彦模가 정리한 신정모의 연보이다. 安東 豊山縣 新池洞 외가에서 태어난 시기부터 1898 년 문집이 완성된 시기까지의 생애와 관련 기사를 정리했다.
言行拾錄 (15)	아들 申邦烈이 정리한 신정모의 언행록이다.
挽詞 (20)	金星慶, 許昶, 金宇楫, 崔夢翼, 金聖河, 洪重敷, 許錘, 崔宗岳, 柳東暹, 申道復, 洪重寅, 蔡城, 鄭泰膺, 南聖集, 南聖弼, 權緻, 柳正源, 柳觀時, 權惺, 張緯仁, 張緯邦, 張緯, 南聖民, 許湯, 金聖時, 許寶, 鄭棟具, 鄭泰東, 安光世, 榮世 등이 신정모를 애도한 만사이다.
祭文 (28)	許寶, 李萬甲, 金聖河, 洪一輔, 許鎰, 安邦哲, 李魯, 金瑞一, 金星慶, 鄭之鍊 등이 신정모를 추모한 제문이다.

권제	권제목:卷六
祭文 (1)	許湯, 許澈, 柳稹, 柳和, 伯兄, 從弟 禮模, 再從弟 義模, 再從叔 德潛, 再從弟 器模 등이 신정모를 추모한 제문이다.
行狀 (9)	1864. 홍문관 부교리 李敦禹(1807~1884)가 지은 신정모의 행장이다.
墓碣銘 (22)	1898. 張錫龍(1823~1906)이 지은 신정모의 묘갈명이다.
告由文 (26)	1864. 從後孫 申錫祐와 李敦禹가 지은 고유문이다.
文集後敍 (28)	1886. 金瑞一(1694~1780)이 지은 문집 발문이다.
跋 (30)	1898. 五世孫 相憲이 지은 발문이다.
文集告成文 (31)	從後孫 相夏가 지은 것으로 문집이 완성되었음을 고하는 글이다.
跋 (33)	1899. 從五世孫 申敦楨이 지은 문집 발문이다. (이동인)

忍齋先生遺集(인재선생유집)

신채(申埰)

서지사항

자료유형	고서
서명/저자사항	忍齋先生遺集 / 申埰(朝鮮) 著.
개인저자	신채
판사항	石版本
발행사항	大邱 : 永信印刷所, 昭和 6[1931]
형태사항	4卷 2冊 : 四周雙邊 半郭 19.2 x 15.0 cm, 有界, 10行 18字 註雙行, 上下向 2葉花紋魚尾 ; 30.6 x 20.4 cm
일반주기	表題: 忍齋先生集 版心題: 忍齋集 手書刻序: ...完山柳淵楫謹序 手書刻跋: 辛未(1931)歲...張命相拜手謹書. 八代孫[申]敦植謹識. 九世孫[申]世煥謹敘
내용주기	卷 1, 詩, 書. -- 卷 2, 書, 序, 記, 跋. -- 卷 3, 銘, 贊, 說, 策問, 祭文, 雜著, 遺事. -- 卷 4, 附錄
언어	한문

해제

1931년 大邱에서 석인본으로 간행한 의성 출신 유학자 신채(申埰. 1610-1672) 선생의 문집 [인재선생유집(忍齋先生遺集)] 4卷 2冊 완질본으로 권두에 '後學完山柳淵楫謹序', 권말에 '八代孫申敦植謹識' 跋이 있으며 책끝에 판권지가 있다. 상태 양호하다.

본관은 아주(鵝洲)이고, 출신지는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이다. 부친 행상운도찰방(行祥雲道察訪) 신적도(申適道)와 모친 파평윤씨(坡平尹氏) 사이에서 4남 중 3남으로 태어났다.

형은 신연(申埏)·신탄(申坦)이고, 동생은 신점(申沾)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홍여하(洪汝河) 등과 학문적인 도움을 주고 받으며 도의(道義)로써 교유하였다. 광해군 재위 중에는 과거에 뜻을 두지 않았고, 인조가 등극한 뒤인 1646년(인조 24) 식년시에 진사 3등 10위로 합격하였다.

시문집으로 신상하(申相夏)가 편집·간행한 4권의 『인재집(忍齋集)』이 전하며, 문집 중에서 주목할 작품으로 『대학(大學)』을 탐구하여 문답 형식으로 집필한 「답대학문목(答大學問目)」, 『중용(中庸)』·『대학』의 관계를 연구한 「용학표리설(庸學表裏說)」,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자세하게 설명한 글로 「성학십도명(聖學十圖銘)」 등이 있다.

책목록

忍齋先生遺集序/柳淵楫

卷一

詩

卜居/申埰 [詩]

題止止軒/申埰 [詩]

照心潭/申埰 [詩]

陶山書院同琴子善李德潤具敬明述懷/申埰 [詩]

講朱書節要贈院中諸彥/申埰 [詩]

題湖陽草堂/申埰 [詩]

尼丘山/申埰 [詩]

孔夫子/申埰 [詩]

登泰山/申埰 [詩]

寒食省退齋先祖墳塋/申埰 [詩]

旅軒先生輓/申埰 [詩]

贈柳拙齋/申埰 [詩]

贈張聽天堂/申埰 [詩]

次洪木齋傷時韻/申埰 [詩]

贈別洪木齋/申埰 [詩]

讀鄒傳有感/申埰 [詩]
丙子謾詠/申埰 [詩]
曾王考悔堂府君以孝學旌贈追感伏吟/申埰 [詩]
贈地主李侯/申埰 [詩]
除日寄李侯/申埰 [詩]
與李侯登薇谷亭/申埰 [詩]
贈別李侯/申埰 [詩]
次泮中諸友/申埰 [詩]
泮中旅夜夢見親顏/申埰 [詩]
王考城隱府君為晦退兩先正抗伸辨疏伏讀有感/申埰 [詩]
輓孤松宗丈/申埰 [詩]
輓金重玉/申埰 [詩]
明倫堂講春秋吟示齋居儒生/申埰 [詩]
約諸友遊冰溪/申埰 [詩]
季父懶齋府君以聖節使書狀官赴京/申埰 [詩]
從兄衛率公之任泰仁/申埰 [詩]
議以四賢并享藏待時吟示僉座/申埰 [詩]
贈趙察訪汝後/申埰 [詩]
輓朴進士君美/申埰 [詩]
從弟佐郎君赴任高靈/申埰 [詩]
寄從弟謫泰安/申埰 [詩]
輓朴賣城欽仲/申埰 [詩]
輓李和叔/申埰 [詩]
除夜次高達夫/申埰 [詩]

書

上愚伏鄭先生(二篇)/申埰 [書]
上柳修巖先生/申埰 [書]
別紙/申埰 [書]
上柳修巖先生/申埰 [書]
上金忘窩先生/申埰 [書]
上金鶴沙先生/申埰 [書]
與美洞金氏門中/申埰 [書]

卷二

書

與洪木齋百源/申埰 [書]
 答洪木齋/申埰 [書]
 別紙/申埰 [書]
 與洪木齋/申埰 [書]

與李侯(三篇)/申埰 [書]
 與李孤山/申埰 [書]
 上李白軒相公/申埰 [書]
 上權湖陽先生/申埰 [書]
 與孤松宗丈/申埰 [書]
 上大人(三篇)/申埰 [書]
 上仲父修撰公/申埰 [書]
 上季父掌令公/申埰 [書]
 上季父(二篇)/申埰 [書]
 別紙/申埰 [書]
 寄季君子高/申埰 [書]
 寄禹錫文錫二兒/申埰 [書]
 寄禹文二兒/申埰 [書]
 答大學問目/申埰 [書]

序

贈李侯投紱歸洛序/申埰 [序]
 奉餞季父府君以書狀官朝天序/申埰 [序]
 送沈上舍久玉歸覲序/申埰 [序]
 送李上舍德輝西歸序/申埰 [序]
 贈從弟謫泰安序/申埰 [序]
 五友堂詩帖後序/申埰 [序]

記

擬以四先生并享藏待書院記/申埰 [記]
 虎溪精舍記/申埰 [記]
 忍齋記/申埰 [記]

跋

卷三

天朝賞賜庸學後識/申埰 [跋]
策式後識/申埰 [跋]
舊遊錄後識/申埰 [跋]

銘

聖學十圖銘/申埰 [銘]
太學銘/申埰 [銘]
薇軒銘/申埰 [銘]
止止軒銘/申埰 [銘]

贊

小學贊/申埰 [贊]
聖學十圖贊/申埰 [贊]

說

自警說/申埰 [說]
私淑說/申埰 [說]
禮說/申埰 [說]
卜居說/申埰 [說]

策問

心/申埰 [策]

祭文

祭旅軒張先生文/申埰 [祭文]
祭愚伏鄭先生文/申埰 [祭文]
祭權湖陽先生亭/申埰 [祭文]

雜著

丙子元朝兄弟諸從行薦禮於廟獻壽酌於堂退而團圓會話因有感而書
/申埰
己亥正朝戒諸孫/申埰
逐懶鬼文/申埰

遺事

先考虎溪府君遺事/申埰

卷四 附錄

家狀/申禹錫

墓碣銘/李象靖

行狀/金道和

輓詞/洪汝河

輓詞/金尚瑜

輓詞

祭文/任世章

丹邱書院講堂上梁文/柳疇睦

奉安文/李敦禹

常享祝文

請贈爵上言/申相夏

詠歸堂通藏待會中文

藏待書院通道內文

丹邱書院營建顛末/申相夏

編末記略/申相夏

跋/張命相

[跋]/申敦植

[叙]/申[◆]煥

신채(申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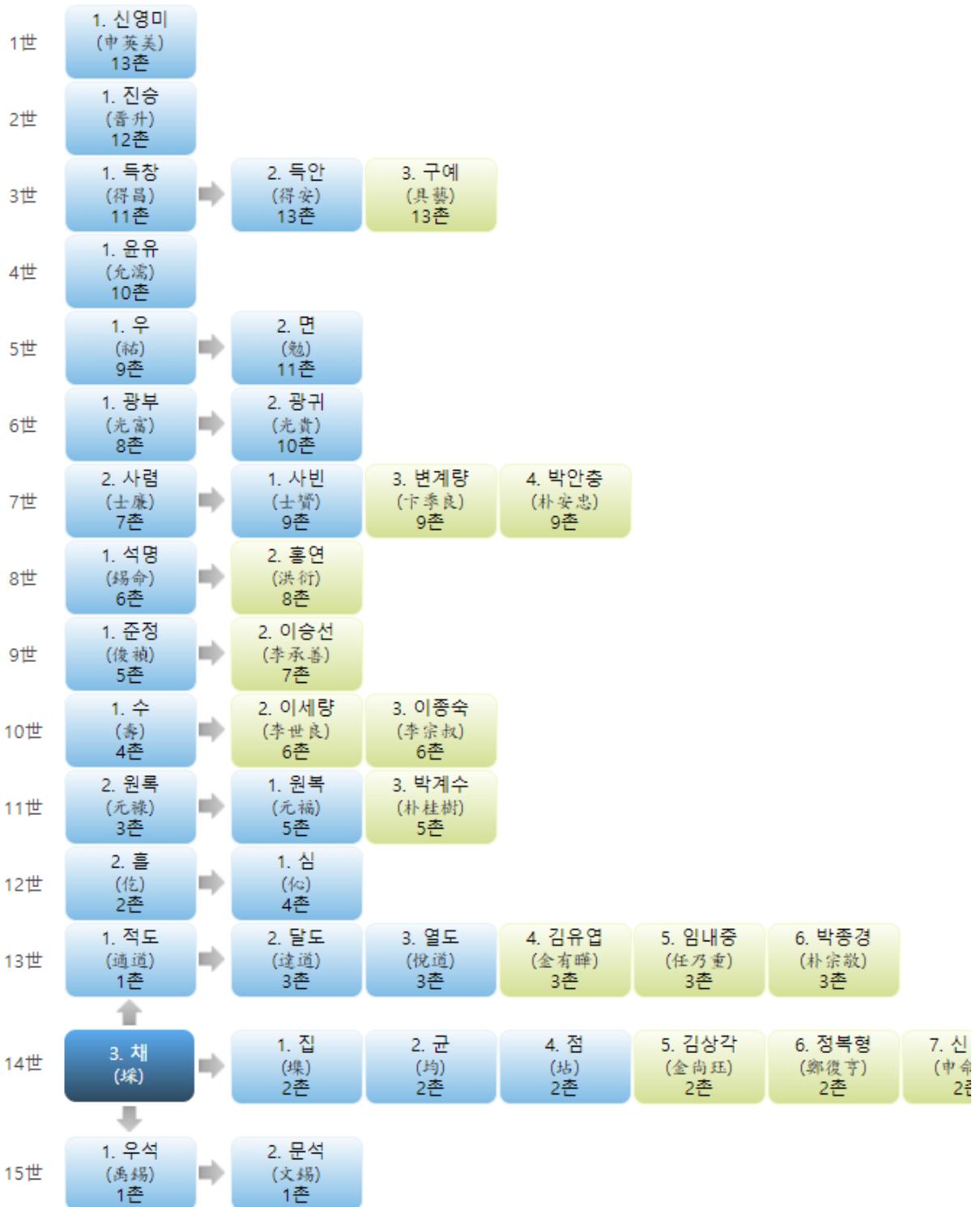
항목 ID	GC05200923
한자	申埰
이칭/별칭	자경(子卿), 인재(忍齋), 삼모(三某)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610년 - 신채 출생
활동 시기/일시	1646년 - 신채 진사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46년 - 신채 성균관에 입학
활동 시기/일시	1649년 - 신채 낙향
몰년 시기/일시	1672년 - 신채 사망
추모 시기/일시	1858년 - 신채 단구 서원에 배향
출생지	신채 출생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거주 이주지	신채 이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묘소 단소	신채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사당 배향지	단구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경력	진사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자경(子卿), 호는 인재(忍齋). 참의(參議) 신원록(申元祿)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흘(申佺)이고, 아버지는 참봉(參奉) 신적도(申適道)이며, 어머니는 파평 윤씨(坡平 尹氏) 첨정(僉正) 윤순조(尹淳祖)의 딸이고, 부인은 안동 권씨(安東 權氏) 권익창(權益昌)의 딸이다.

[활동 사항]

신채(申埰)[1610~1672]는 어린 시절부터 총기를 보이며 학문에 뜻을 두었다. 1629년(인조 7) 향해(鄉解)에 응시하여 급제하였으며, 1643년(인조 21)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향시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1646년(인조 24)에는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는데, 성균관에서의 학업 활동이 뛰어나 영남의 삼모(三某)라는 칭호를 받았다. 또한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의 명으로 「태학명(太學銘)」을 짓기도 했으며, 또 세자의 명에 의하여 「성학 도명(聖學 圖銘)」을 지었다.

1660년에 모친상을 당하고 1664년에 부친상을 당하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모하듯 지극 정성으로 전후 상례를 치렀으며, 그 후로는 과거를 단념하고 실천의 공부에 전념하였다. 이후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집 앞에 매화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당호를 매죽헌(梅竹軒)이라 하였다. 아울러 팔지산(八智山) 아래에 별업(別業)을 개척한 뒤, 그곳의 지명을 팔지(八智)[현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로 고치기도 했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는 4권 2책의 『인재집(忍齋集)』이 전하는데, 1931년 후손 신상하(申相夏)가 간행하였다. 문집에 수록된 글들 가운데 「답대학문목(答大學問目)」, 「용학표리설(庸學表裏說)」, 「성학십도명(聖學十圖銘)」 등과 같은 성리학 논설들이 주목된다.

[묘소]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에 있다.

[상훈과 추모]

1858년(철종 9) 부친 신적도, 계부 신열도와 함께 단구 서원(丹邱 書院)[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인재집(忍齋集)』

『의성의 전통』(의성 문화원,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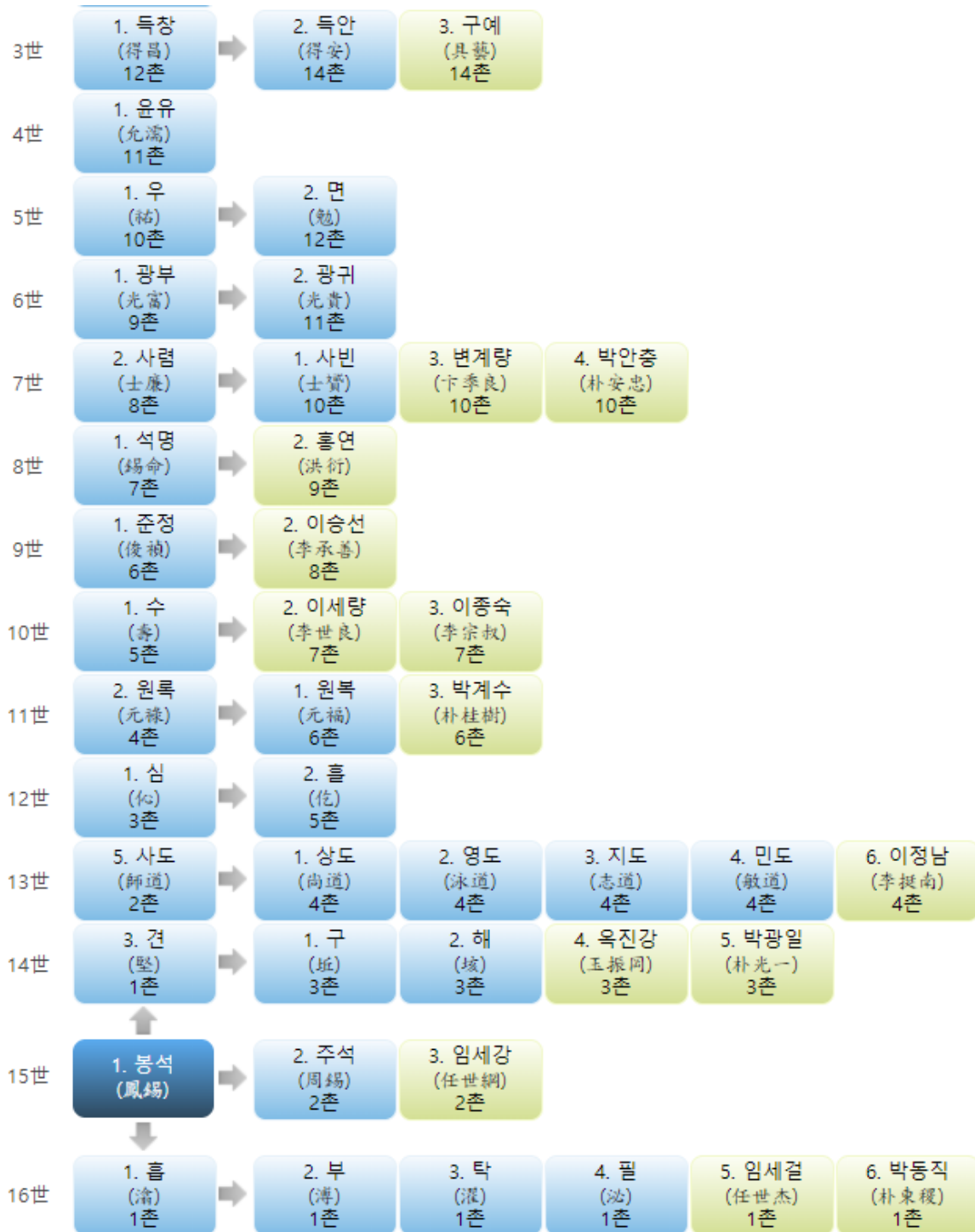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 신봉석(申鳳錫)

15世 봉석(鳳錫)

父 : 견(堅) 祖父 : 사도 (師道)

읍파(邑派)화곡공파(華谷公派)



신봉석(申鳳錫)

항목 ID	GC05200917
한자	申鳳錫
이칭/별칭	자족재(自足齋), 석여(錫予)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631년 - 신봉석 출생
활동 시기/일시	1655년 - 신봉석 성균관에 입학
활동 시기/일시	1655년 - 신봉석 응제시에 장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57년 - 신봉석 한성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57년 - 신봉석 성시에 낙방
활동 시기/일시	1677년 - 신봉석 「진오폐소」 올림
몰년 시기/일시	1704년 - 신봉석 사망
거주 이주지	신봉석 거주지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
묘소 단소	신봉석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 의곡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경력	선교랑(宣敎郎)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석형(錫亨). 호는 자족재(自足齋). 아버지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역임한 신견(申堅), 어머니는 신호성(申孝誠)의 딸인 평산 신씨(平山 申氏), 할아버지는 신사도(申師道), 증조할아버지는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을 역임한 신심(申心), 부인은 병자호란 때 순절한 김경

(金鏡)의 딸 의인(宜人) 안동 김씨(安東 金氏)이다.

[활동 사항]

신봉석(申鳳錫)[1631~1704]은 1631년(인조 9)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덕과 총명을 보여주어, 이와 관련된 여러 일화가 전한다. 7세 때 신봉석이 '학서(學書)'를 청하였는데, 몸이 유약하다며 부친이 허락하지 않았다. 13세 때에는 부친이 통발 속의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자, 신봉석은 단지 잉어 한 마리만 가지고 왔다. 부친이 그 까닭을 꾸짖어 묻자 신봉석은 "차마 모두 잡아오지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 특히 신봉석은 효성이 지극했다고 전해지는데, 부친의 병환 때에는 얼음을 깨어 물고기를 잡아오고 상분(嘗糞)하며 간병하였다. 또한 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여묘(廬墓)살이를 했는데, 모친이 20리 밖에 떨어져 계셨기에 매일 곡을 하면서도 가서 살피기를 하루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몸가짐도 단정하여 의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 없었다고 하며, 부모 제사 때가 아니면 함부로 돼지와 닭을 도살하지 않았다.

신봉석은 부친의 계(階)로 인해 선교랑(宣敎郎)에 통적(通籍)되었으며, 일찍이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였다. 1655년(효종 6) 어느 날 성균관의 모든 유생이 삼청동(三淸洞)에 놀러 갔지만, 오직 신봉석과 호남의 한 유생만이 성균관을 지키고 공부하고 있었다. 이때 효종이 불시에 성균관에 내시를 보내어 두 유생에게 친히 시제를 내려 글을 짓게 하니, 둘 중 장원은 신봉석이 차지하였다. 이에 효종은 신봉석에게 집을 내리려 했지만, 대간(臺諫)들의 반대로 종이·붓·먹만 상으로 내렸다. 1657년(효종 8) 한성시(漢城試)에는 급제하였으나, 성시(省試)에는 급제하지 못하였다. 이후 낙향하여 더 이상 과거에 뜻을 두지 않으며, 스스로 '자족재(自足齋)'라는 호를 짓고 편액(扁額) 한 뒤 학문 연구에 주력하였다.

고향에 있으면서도 국사에 대해서는 매우 강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1677년(숙종 5) 「진오폐소(陳五弊疏)」를 올렸는데, 이는 당시의 폐단을 5개조로 나누어 지적한 것으로, 그 첫째가 세금 징수의 폐단, 둘째가 군역의 폐단, 셋째가 가난한 백성이 더 가난해지는 폐단, 넷째가 영남의 인재를 쓰지 않는 폐단, 다섯째가 인재 등용의 폐단이다. 이어 신봉석은 「의청영남행경대동소(擬請嶺南行京大同疏)」라는 상소를 올려, 대동법(大同法)의 영남 지역 시행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후 거처를 지금의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로 옮겼으며, 초택(草澤)에서 머물다 1704년(숙종 30) 세상을 떠났다.

[학문과 저술]

신봉석의 문집으로는 3권 1책의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이 전한다. 이 책은 신봉석의 8세손 신용섭(申龍燮)이 편찬하였으며, 1921년경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2에 신봉석이 올렸던 두 편의 상소문인 「진오폐소」와 「의청영남행경대동소」, 그리고 「자족설(自足說)」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신봉석은 「자족설」에서 "자족의 도는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마음에 있으니 그것을 취하여도 금하는 것이 없고, 그것을 써도 다하지 않는다."라며 자족의

의미와 자신의 신념을 풀이해 놓았다.

[묘소]

『자족재집(自足齋集)』 묘갈명에는 현의 서쪽에 위치한 의곡(蟻谷)에 묘소가 자리한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이다.

[상훈과 추모]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용연리에 신봉석의 학문과 효행을 기리기 위한 재사인 자족재(自足齋)가 건립되어 있다.

[참고문헌]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유교넷(<http://www.ugyo.net/>)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

서지정보

원서명	自足齋遺集						
현대어서명	자족재유집						
청구기호	古 3428-790						
편저자(한자)	申鳳錫(朝鮮) 著	판본사항	木版本	간행지	[刊地未詳]	책권수	3 卷 1 冊
편저자(한글)	신봉석(조선) 著	간행연도	[1919 年]	간행자	[刊者未詳]	책크기	29×20cm
匡郭				版心		표기문자	
表紙,版心,卷頭書名							
序,跋,卷首,卷末	序:重光作噩[辛酉(1801)]...洪承穆, 吳明根, 跋:崇禎紀元後三壬戌(1802)...申立仁, 府君下世後二百三十二年己未(1919)...申龍燮, 己未(1919)...甲燾						
表題紙,內題紙				附			
藏書記,內賜記							
刊記							
자료소개							
목차							
합철							
소장본							
印記							
四부분류	集部 別集類 一般			기타			
M/F 번호	M/F85-16-95-E						

문집해설

서명	自足齋遺集			저자	申鳳錫 著		
현대어서명	자족재유집			간행년대	1919 年 이후.		
청구기호	古 3428-790						
책수	3 권 1 책	판본				사이즈	

29×20 cm.

해제

1631년(인조 9)~1704년(숙종 30). 조선 중기 유학자. 자는 석여(錫予)이고, 호는 자족재(自足齋)이다. 본관은 아주(鵝洲)이고, 경상북도 의성현(義城縣) 출신이다.

증조부는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신심(申僖)이고, 조부는 신사도(申師道)이며, 부친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신건자(申堅資)이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덕을 지녔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1655년(효종 6) 응제시(應製試)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여 효종에게 지필묵(紙筆墨)을 받았다.

저서로 시문집인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이 있다.

17세기 학자 申鳳錫(1631-1704)의 문집이다. 신봉석은 호가 自足齋, 자가 錫予이다. '自足'이라 호를 지은 뜻은 자신에게 만족하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한다. 또한 이 때의 '자족'은 簞食瓢飲에 만족했던 顏淵의 자족이다. 신봉석은 그 뜻대로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을 썼다. 본 책은 7대손 亨植, 8대손 龍燮 등이 편집, 간행한 것이다. 권두에 洪承穆(신유년), 吳明根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후손 立仁, 龍燮, 亨植, 燾 등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 120여 수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은거생활 중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주변의 자연 경물을 읊은 시가 많다. <閒居卽事>, <幽居疊詠>, <立春>, <喜雨>, <秋興>, <重陽>, <除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 학문과 교육을 소재로 한 <學問>, <流頭日示兒曹>, <示兒輩三首>, 선비의 기개를 보인 <霜菊>, <自警>, 병자호란 당시 비분강개한 우국충정을 나타낸 <悲憤吟二首>, <偶歎> 등이 있다. 다음으로 권2에는 疏 2편, <自足說> 1편, 書와 제문이 각 1편씩 있다. 1677년(숙종 3)에 올린 <陳五弊疏>는 賦斂·軍役·窮民益困·嶺南偏苦·用人偏重 등 당시 정치 상황의 다섯 가지 폐단을 지적하며 개혁을 단행할 것을 진언한 것으로 그 뜻이 깊고 간절하여 임금의 비답을 들은 바 있다.[特蒙優批, 批語亦甚眷眷] 권3은 부록으로 행록, 行장, 묘갈명, 書家狀後, 自足齋記, 書自足說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자족재선생문집(自足齋先生文集)』은 조선 후기의 학자 신봉석(申鳳錫)의 시문집으로, 3권 1책의 목판본이다. 1919년 9대손 신용섭(申龍燮)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洪承穆(신유년)·오명근(吳明根)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후손 신입인(申立仁)·신용섭·신형식(申亨植)·신도(申燾) 등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 120수, 권2에 소(疏) 2편, 서(書)·제문 각 1편, 권3에 부록으로 行록·行장·묘갈명·서가장후(書家狀後)·자족재기(自足齋記)·서자족설후(書自足說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유려한 운치로 실사적인 묘사시가 대부분이다. 소의 <진오폐소(陳五弊疏)>는 부렴(賦斂)·군역(軍役)·궁민익곤(窮民益困)·영남편고(嶺南偏苦)·용인편중(用人偏重) 등 다섯 가지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을 단행할 것을 진달하고 있으며, 서의 <답용궁수조면서(答龍宮望趙

沔書)는 용궁현감이 정치적인 자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내용이다.

17세기 학자 申鳳錫(1631~1704)의 문집이다. 신봉석은 호가 自足齋, 자가 錫予이다. '自足'이라 호를 지은 뜻은 자신에게 만족하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한다. 또한 이 때의 '자족'은 簞食瓢飲에 만족했던 顏淵의 자족이다. 신봉석은 그 뜻대로 평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초야에 은거하며 학문에 힘을 썼다.본 책은 7대손 亨植, 8대손 龍變 등이 편집, 간행한 것이다. 권두에 洪承穆(신유년), 吳明根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후손 立仁, 龍變, 亨植, 燾 등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 120여 수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은거생활 중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주변의 자연 경물을 읊은 시가 많다. <閒居卽事>, <幽居疊詠>, <立春>, <喜雨>, <秋興>, <重陽>, <除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 학문과 교육을 소재로 한 <學問>, <流頭日示兒曹>, <示兒輩三首>, 선비의 기개를 보인 <霜菊>, <自警>, 병자호란 당시 비분강개한 우국충정을 나타낸 <悲憤吟二首>, <偶歎> 등이 있다. 다음으로 권2에는 疏 2편, <自足說> 1편, 書와 제문이 각 1편씩 있다. 1677년(숙종 3)에 올린 <陳五弊疏>는 賦斂軍役窮民益困嶺南偏苦用人偏重 등 당시 정치 상황의 다섯 가지 폐단을 지적하며 개혁을 단행할 것을 진언한 것으로 그 뜻이 깊고 간절하여 임금의 비답을 들은 바 있다.[特蒙優批, 批語亦甚眷眷] 권3은 부록으로 行錄, 行狀, 묘갈명, 書家狀後, 自足齋記, 書自足說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노경희)

문집개요

문집명	자족재유집(自足齋遺集)(18C)
간략서지	自足齋 申鳳錫의 문집. 3 권 1 책.<古 3428-790>
간략해제	집안에서 오래 동안 보관되어 오던 유문을 7 세손 佑植과 8 세손 龍變 등이 중심이 되어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간행 시기는 佑植과 龍變의 발문이 작성되는 1919 년 무렵으로 추정되는데, 宋奎憲과 申立仁 등이 지은 또 다른 발문의 작성 시점이 각각 1920 년과 1922 년인 것으로 보아, 1919 년 무렵에 간행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가 일부 원고가 새로이 추가되어 1922 년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自足齋遺集}은 모두 3 권 1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 1 에 詩 120 수, 권 2 에 疏 2 편, 書, 祭文 각 1 편, 권 3 은 附錄으로 行錄, 行狀, 墓碣銘, 書家狀後, 自足齋記, 書自足說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詩에는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노래하거나 은거 생활 중의 심정을 읊은 것들이 많고, 선비의 곧은 기상을 노래하거나 병자호란에 대한 비분강개한 심정을 토로한 시들도 몇 수 있다. 上疏에서는 당시 영남지역에서 겪고 있던 賦斂, 軍役, 窮民益困, 嶺南偏苦, 用人偏重 등의 고충에 대한 시정과, 영남 지역에서도 大同法을 시행하게 해달라고 요구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自足齋遺集} <한 古 朝 46-가 644>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 소장 <古 3428-790>본과 동일한 판본이다.

저자소개

편저자 신봉석 (申鳳錫)

저자개요	1631~1704 (인조 9~숙종 30)字: 錫予, 號: 自足齋, 本貫: 鵝州, 父: 堅, 母: 平山 申氏 孝誠의 女
저자내용	<p>어려서부터 총명이 남달랐다. 7살 때 부친에게 글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으나 너무 이르다 하여 허락하지 않자, 조용히 史書를 끼고 나가 수학하였다. 13세 때 부친의 명으로 魚梁에 나갔다가 단지 잉어 한 마리만을 가지고 몸에 부친이 이를 힐책하자, 차마 고기들을 모두 다 가져올 수가 없었노라고 대답하여 주위 사람들이 그의 덕성에 감복하였다. 부친이 병에 걸리자 밤낮으로 한 걸 같이 곁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다. 1655(효종 6) 사마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서 유학하였는데, 관학 유생들이 모두 三淸洞에 놀러나갔으나 혼자서 숙소에 남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차에, 마침 국왕이 성균관에 시종을 보내 공부하는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는데, 신봉석과 호남 유생 한 사람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가상히 여겨 글제를 내고 이에 응답하자 문방구를 하사하였다. 1672년(현종 13) 부친이 운명함에 禮制에 따라 정성껏 상을 치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 또한 병으로 운명하여 부친의 장례 때와 같이 예법에 맞춰 정성껏 상을 치렀다. 형제들과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술선수범하여 척박한 땅과 허약한 노비를 취하였고, 자녀 가운데 의복을 조금이라도 화려하게 차려입는 사람이 있으면 검소함을 숭상하는 가풍을 일러주었다.</p> <p>1677년(숙종 3) 賦斂. 軍役. 가난한 백성들이 더 가난해지는 고충. 영남인들의 편중된 부담. 인재등용 등을 주제로 시폐를 논하는 상소를 올렸고, 후에 다시 영남지역에 大同法의 시행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리려 했으나 시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1704년(숙종 30) 향년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p>

내용개요			
내용제목	自足齋遺集 내용개요	청구기호	古 3428-790

권수	권제목:
自足齋遺集序 (1)	<p>1921. {自足齋遺集}에 대한 서문으로 모두 2편이다. 洪承穆(1847~?)의 서문에는, 신봉석이 훌륭한 재주와 인품을 지니고 있었지만 때를 만나지 못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초야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가 효종 때 제술로 문방구를 하사받은 일과, 현종 때 군역과 민간의 폐단에 대해 상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한 일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저자의 7세손 佑植이 간곡히 서문을 요청하여 뿌리치지 못하고 응했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吳明根의 서문에는, 저자의 自足齋라는 호는 外物에 대한 욕심을 자제하고 자신의 처지에 만족해하는 정도의 自足이 아니라, 顔子. 子房. 原憲. 陶翁. 董生 등과 같은 성현군자들이 추구한 自足에 그 지향이 있다면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8세손 龍變의 청을 받아 서문을 짓게 된 경위를 적고 있다.</p>

권제	권제목:卷一
<p>詩湖上搆小齋扁以自足因題短律自失, 閒居卽事, 池魚無水, 次松軒任兄-世綱-蝙蝠韻, 有懷夢不成, 喜雨, 東閣奉和安侯-應昌-韻, 覺堂與安侯子舍同遊, 除夜, 西行道中, 歸家, 立春, 風雨, 偶吟, 得酒友, 流頭日示兒曹, 惜別, 洪侯-聖龜-枉訪曉話-二首, 愛蓮堂奉洪侯共賦-二首, 渡還-二首, 自警, 舜蹠, 新基感懷, 泥兮烈女禹未眞-泥兮玉山舊名, 書贈申弼星兼以自警, 與徐萬里楊萬春對酒論襟-戊午在京學館時, 登山, 九日湖上, 齊日親忌,</p>	

遊金城山, 李侯副學-堂揆-邀見論文, 幽居謾詠, 西郊路中, 汲水滋菊, 學問, 先君忌日, 留京館偶題-太學館, 南遊鳳凰臺, 述懷, 諸益足而慰之或言晚成或言莫怨復用前韻反之, 校前夜話, 觀物有感, 旅夜, 謾詠, 奉和尹侯-誠教-宴集韻, 清宵吟, 同年五客會, 送下第人, 鴈, 東風, 召文塔-二首, 白雪, 臘雷, 林亭-二首, 對階花, 次任松軒幽居韻, 送客, 得友人書, 己巳元朝, 夢見亡室執女工, 門前雙槐, 趙侯-沔-賑民後讌客求和, 附元韻, 送別趙侯子舍, 望北亭設藍田規例, 叔父新居謹次壁上韻, 次趙進士-光奎-畫屏韻, 贈別趙進士, 癸酉九月湖西伯洪晚退堂-萬朝-遊俗離山有詩求和-二首, 次進士再從姪聾瘖-德涵-郊行韻, 舍弟來寓所, 奉贈洪判書晚退堂赴使燕京, 觀禾, 趙侯遞赴龍宮時贈余一絕曰可惜衰年別臨分各自頭新湖從此隔夜月自春秋余演一字奉呈, 侯赴龍宮扇題一絕寄余曰逢君情最密臨岐各傷神今古分離處剛腸復幾人又演而奉呈, 秋興, 示兒輩-三首, 水淨寺, 南川送客, 重陽, 風詠亭, 家兒來, 夜向山寺, 旅懷, 憶弟, 碧溪, 丁丑元朝往蟻谷省墓, 追祭外舅金公-鏡-公以去丁丑元月初三日戰亡, 自東都還, 偶歎, 霜菊, 燈下, 次聞韶樓重修韻, 輓黃侯-應一-三首, 輓任松軒-三首, 贈別同心子, 書懷, 驟雨, 臘月霧雨, 竹下移梳, 牧丹, 火田, 聞西報, 悲憤吟-二首, 齋居卽事, 乘輿上高樓, 觀剪燈新話, 悼同庚友人, 初春

권제	권제목:卷二
<p>陳五弊疏- 顯宗丁巳正月十一日 (1)</p>	<p>1677. 민간의 폐단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논하는 5 조목의 上疏이다. ① 賦斂의 폐단에 대한 내용으로, 임진왜란 이래 收稅에 법도를 잃은데다가 근래에는 吏胥輩들의 농간까지 겹쳐 그 피해가 더욱 심하므로, 祖宗의 什一之制를 法삼고 징수 물품 목록을 戶曹 및 列邑에 각각 보관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이고 농간을 막도록 할 것. ② 軍役의 폐단에 대한 내용으로, 軍布를 濫徵하는 폐단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23 세~60 세를 正兵의 기준으로 삼고 그 밖에 아이와 노인들에게는 군포를 부과하지 말 것. ③ 窮民이 더욱 곤궁해지는 폐단에 대한 지적으로, 권세에 가탁하여 힘없는 사람들의 토지와 재물을 빼앗는 자들이 있는데, 임금께서 친히 민정을 살피고 下情이 상달되게 하여 원망을 없앨 것. ④ 영남에 편중되어 있는 고층에 대한 지적으로, 築城과 倭館 운영, 그리고 각종 토목 사업으로 영남인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므로 租稅를 반으로 견감시켜 부담을 줄여줄 것. ⑤ 편파적인 用人에 대한 지적으로, 지금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먼저 출신 지역을 살피고 재주는 나중에 고려하고 있는데, 재주를 최우선으로 하여 인재를 선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p>
<p>擬請嶺南行京大同疏 (5)</p>	<p>영남에서도 대동법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이다. 근래 영남지역에서는 부세에 일정한 규례가 적용되지 않아 각 군현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고려되고 있지 않으며, 또 농간하는 관리와 牟利하는 商賈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대동법을 시행하여 民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유독 영남에서만 대동법이 시행되지 있지 않아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궁핍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영남에는 서울로 통하는 수로가 없어 漕運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또 흉년을 당해 갑자기 법을 변경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道臣이 대동법 시행을 반대하는 狀啓를 올렸으나, 漕運 문제는 대동미를 倭館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로 轉用하면 해결할 수 있고, 흉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는 백성을 살리는 것이 국가에서 최우선으로 할 일이라는 점에서</p>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영남인 중에 대동법의 시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武斷적인 土豪와 受賂하는 관리, 防納으로 모리하는 商賈 및 大畵의 부세를 경시하는 사람들뿐이므로, 원컨대 道臣으로 하여금 속히 대동법을 시행하게 하여 영남인들 또한 호서, 호남민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은택을 입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自足說 (9)	自足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글이다. 自足の 道는 멀거나 고원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으로, 錦衣玉食과 高臺廣室, 그리고 千駟萬鍾의 호사를 누릴지라도 부족함을 느끼기 마련이고, 布衣藿食과 瓮牖繩樞, 그리고 一簞一瓢의 옹색한 형편에서도 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모두 자신에게서 족함을 찾고 外物에게서 찾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서, 마땅히 자신에게서 족함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答龍宮倅趙沔書 (11)	龍宮 수령 趙沔에게 보낸 답장이다. 안부를 전한 뒤, 지난 번 편지에 자신을 龔黃(龔遂와 黃霸)의 재주와 韓柳(韓愈와 柳宗元)의 문장에 비견한 것이 실정을 벗어나 비웃음을 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는 내용이다.
祭亡室宜人安東金氏文 (12)	부인 김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이다. 부인 김씨는 胡亂 당시 순절한 金鏡의 딸로서, 본인에게 시집와 30년간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면서 단 한 번도 가난한 살림에 대해 불평한 일이 없으며, 4남 4녀를 각기 그 재주에 따라 가르치고 모두 혼례를 치러 자손 또한 번성하였으니 婦人의 事業으로서 매우 성공했다며 그녀의 일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부끄러운 것은 남편인 자신이 아내의 내조에 만분의 일도 못 미치는 삶을 살았다면서, 외방 유학 시절 짧게는 몇 달을, 길어도 해를 겨우 넘기는 정도로 자주 고향에 들락거리자 부인은 君子의 학문이 벌써 완성된 것이냐며 勉學을 독려하였고,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는 인편을 통해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만 전념할 것을 당부했으며, 擧業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흔쾌히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었다고 한다. 이런 부인의 죽음 앞에 너무 슬프면서도 부끄럽다고 적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三 附錄
行錄 (1)	동생 申周錫이 지은 行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자의 일생을 정리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일, 인정 때문에 魚梁에서 잉어 한 마리만을 취한 일, 부친의 병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일, 성균관에서 유학하며 효종으로부터 문방구를 하사받은 일, 연이어 부모의 상을 당하여 6년간 시묘살이 한 일, 分財 시 척박한 땅과 허약한 노비를 취한 일, 族叔이자 스승인 申在의 상을 당하여 3년간 心喪 한 일, 영남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상소를 올린 일 등을 주요한 일화로 서술하고 있다.
行狀 (4)	1919. 鄭奭采가 지은 행장이다. 申周錫이 지은 行錄과 거의 비슷하다. 저자의 8 세손 龍燮의 부탁으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행장을 짓게 되었다며 작성경위를 밝히고 있다.
墓碣銘-并序 (7)	1729. 進士 李秀恭이 지은 묘갈명이다. '가정에서는 효도하고 나라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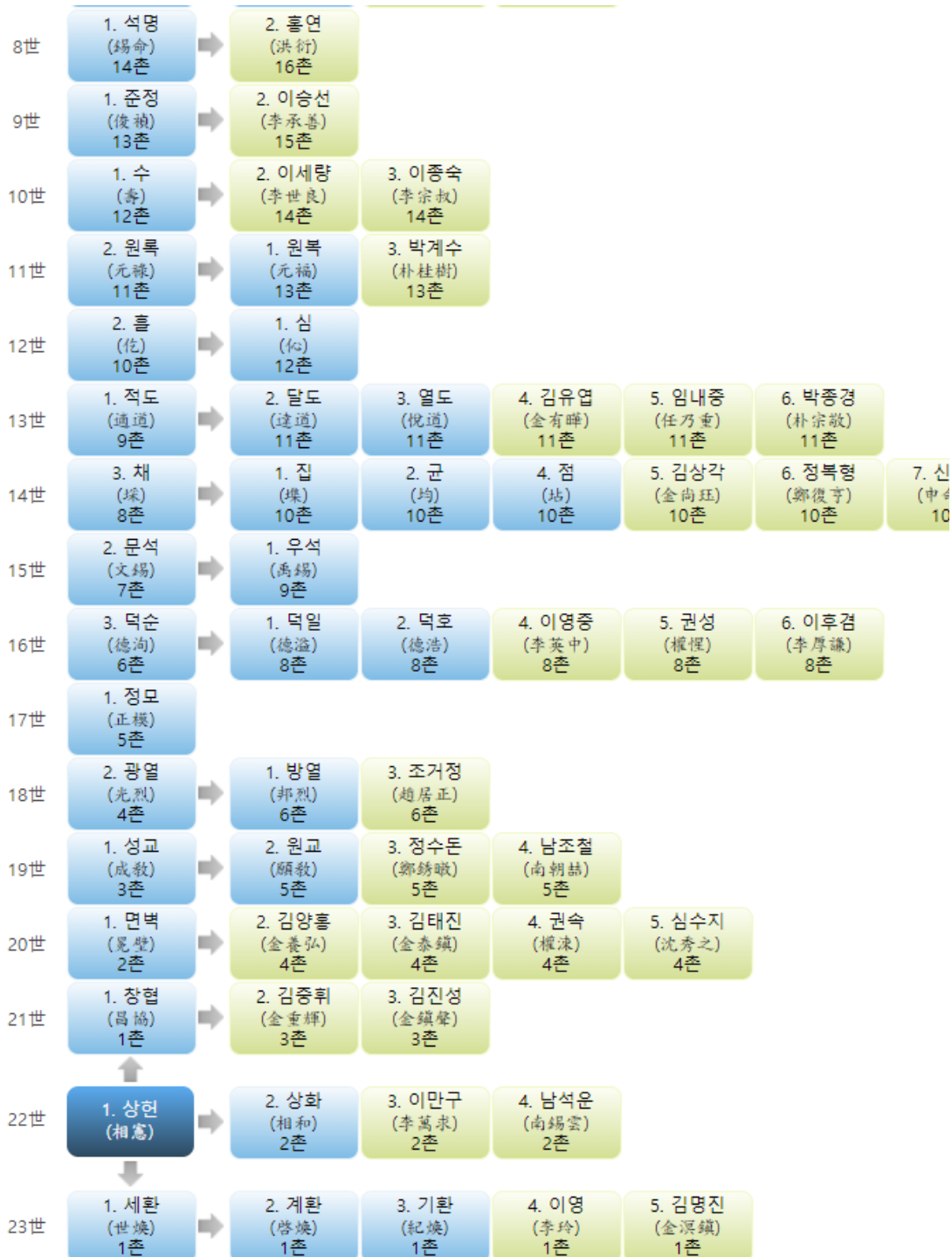
	충성하며 사물을 널리 사랑하고 자신에게 있는 것에 만족했다는 말로 저자의 일생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墓誌銘-并序 (9)	1919. 洪鍾榮이 지은 묘지명이다. 申周錫의 行錄을 따라 저자의 일생을 정리한 뒤, 뛰어난 학식과 인품을 가졌음에도 평생을 포의로 살아간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적고 있다.
書家長後 (12)	1730(?). 宗後生 天杰이 저자의 家狀에 대한 소감을 적은 발문이다. 저자의 효심과 우애는 세인들로 하여금 귀감을 삼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저자의 조카인 宗人 泌甫로부터 부탁을 받아 발문을 쓰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自足齋記 (12)	宗後人 申觀朝가 지은 自足齋에 대한 記文이다. 저자가 '自足の 道는 方寸之間 있는 것으로 멀지도 고원하지도 않다'고 한 말을 가리키며, 이것이 이른바 朱子の '천리를 밝히고 인욕을 제거한다(明天理 祛人慾)는 말과 같은 의미라면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가 관직이 없는 포의로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사실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
書自足說後 (14)	1920. 宋奎憲이 저자의 自足說에 대한 감상을 적은 글이다. 시골에서 포의로 일생을 마감했지만 自足하며 조금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저자의 삶을 기리면서, 선생이야말로 진정으로 樂天知命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다. 아울러 저자의 후손 佑植의 요청으로 발문을 짓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書遺集後 (14)	1922. 宗後生 立仁이 지은 跋文이다. 自足の 道를 즐긴 저자가 자신의 遺文이 세상에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에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의 덕을 세상을 알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의 玄孫 翼韶의 부탁으로 발문을 짓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識跋 (16)	龍燮(1919). 亨植 燾 등이 지은 跋文이다. 저자의 훌륭한 저술이 많았으나 전해오는 과정에서 대부분 散逸되고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송웅섭)

주정와유고(主靜窩遺稿) 신상헌(申相憲)

22世 상헌(相憲)

父 : 창협(昌協) 祖父 : 면벽(冕壁)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주정와유고(主靜窩遺稿)

서지

서지내용		
서명	주정와집 (主靜窩集)	
저자	성명	신상헌 (申相憲)
	자	
	호	주정와 (主靜窩)
판사항	新鉛活字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974	
권수	3	
책크기	18.5×27 cm	
사부분류	서간류	
기타사항		

해제

『주정와집』은 조선말기의 학자 신상헌(申相憲 ; 1842~1911)의 시문집이다. 신상헌의 자는 찬보(纘甫), 호는 모암(慕庵)·주정와(主靜窩),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창협(昌協)의 아들로 의성(義城)에서 살았다. 그는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의 소식을 듣고 여러 동지들과 모여 통곡하였다. 그리고 이내 이만도(李晩燾)가 순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동로도해(東魯蹈海), 서산채미(西山採薇)' 등의 문구로써 만사(輓詞)하여 뒤따르지 못함을 한탄하였으며, 왜정으로부터 나오는 배급은 일절 받지 않았다. 그는 당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계획으로 둘째 아들 계환(啓煥)을 간도(間島)로 보내어 그 지역 풍토를 조사토록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성리학(性理學)에 조예가 있었는데, 잡저(雜著)의 「인심도심(人心道心)」을 비롯하여 「성(誠)」·「존양성찰(存養省察)」등에서 선현들의 성리설을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였고,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1910년(융희 4)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여 이만도(李晩燾)가 자결하자 애통한 심정으로 '동로도해(東魯蹈海)'·'서산채미(西山採薇)'의 어구로 만장(輓章: 죽은 이를 슬퍼하며 기리는 글)을 지었으며, 일제가 주는 배급은 모두 거절하였다. 일제를 벗어나려고 둘째 아들 신계환(申啓煥)에게 간도(間島) 지역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둘째 아들은 신계환(申啓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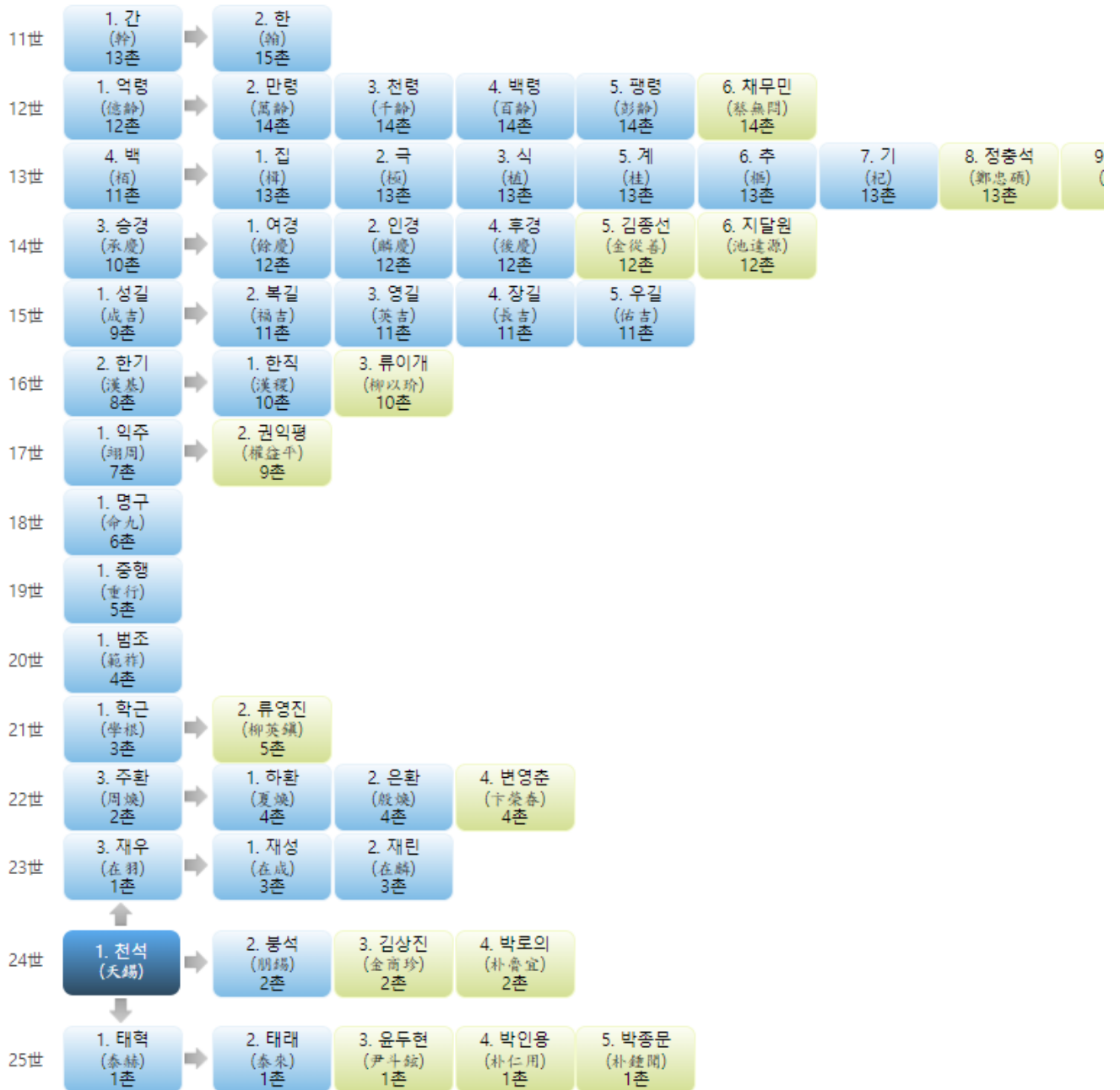
시문집으로 3권 2책의 『주정와집(主靜窩集)』이 전하는데, 시(詩)·서(書) 외에 잡저(雜著)로 「인심도심(人心道心)」·「성(誠)」·「존양성찰(存養省察)」 등 주로 성리학과 관련된 저서를 남겼다.

죽간집(竹澗集) 신천석(申天錫)

24世 천석(天錫)

父 : 재우(在羽) 祖父 : 주환(周煥)

귀파(龜派)직장공파(直長公派)



권수제(卷首題) : 죽간집(竹澗集) 저자의 유고는 장자 신태혁이 정리하여 1974년 전후하여 간행하였다. 권수에 채진두와 신양휴의 서문이 있다. 권1에 시, 권2에 서독, 권3에 기, 발문, 훈서, 상량문, 제문 등, 권4에 묘지, 묘갈문, 행장 등이 실려 있다. 권미에 채진두가 지은 <죽간기>가 있다

표제/저자사항 竹澗集 / 신천석(申天錫) 著

판사항 石板本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신태혁\(申泰赫\)](#), 1974

형태사항 4卷2冊: 四周雙邊, 半廓 22.2 x 16.6 cm. 有界, 12行22字, 注雙行, 上下向二葉花紋魚尾, 27.7 x 19.0 cm

주기사항 序: 甲寅(1974)...[蔡鎮斗](#)

序: 癸丑(1973)...[申場休](#)

刊記(推定): (墓表)...[辛亥\(1971\)](#)考終...(序)...以付~~奇~~嗣氏...[甲寅\(1974\)](#)

해당 자료의 보존 및 훼손 상태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분류기호 [한국십진분류표\(박봉석편\) -> 3648](#)

목 차

권호명 : 天

표지(表紙) = 0

서(序) = 1

권지일목록(卷之一目錄) = 5

권지일시(卷之一(詩)) = 21

권지이목록(卷之二目錄) = 83

권지이(서)(卷之二(書)) = 85

권호명 : 地

표지(表紙) = 0

권지삼목록(卷之三目錄) = 1

권지삼(卷之三) = 7

기(記) = 7

서(序) = 16

발(跋) = 22

혼서(昏書) = 28

통문(通文) = 28

축문(祝文) = 30

상량문(上樑文) = 35

제문(祭文) = 45

권지사목록(卷之四目錄) = 77

권지사(卷之四) = 79

묘지(墓誌) = 79

묘갈(墓碣) = 85

묘표(墓表) = 91

행장(行狀)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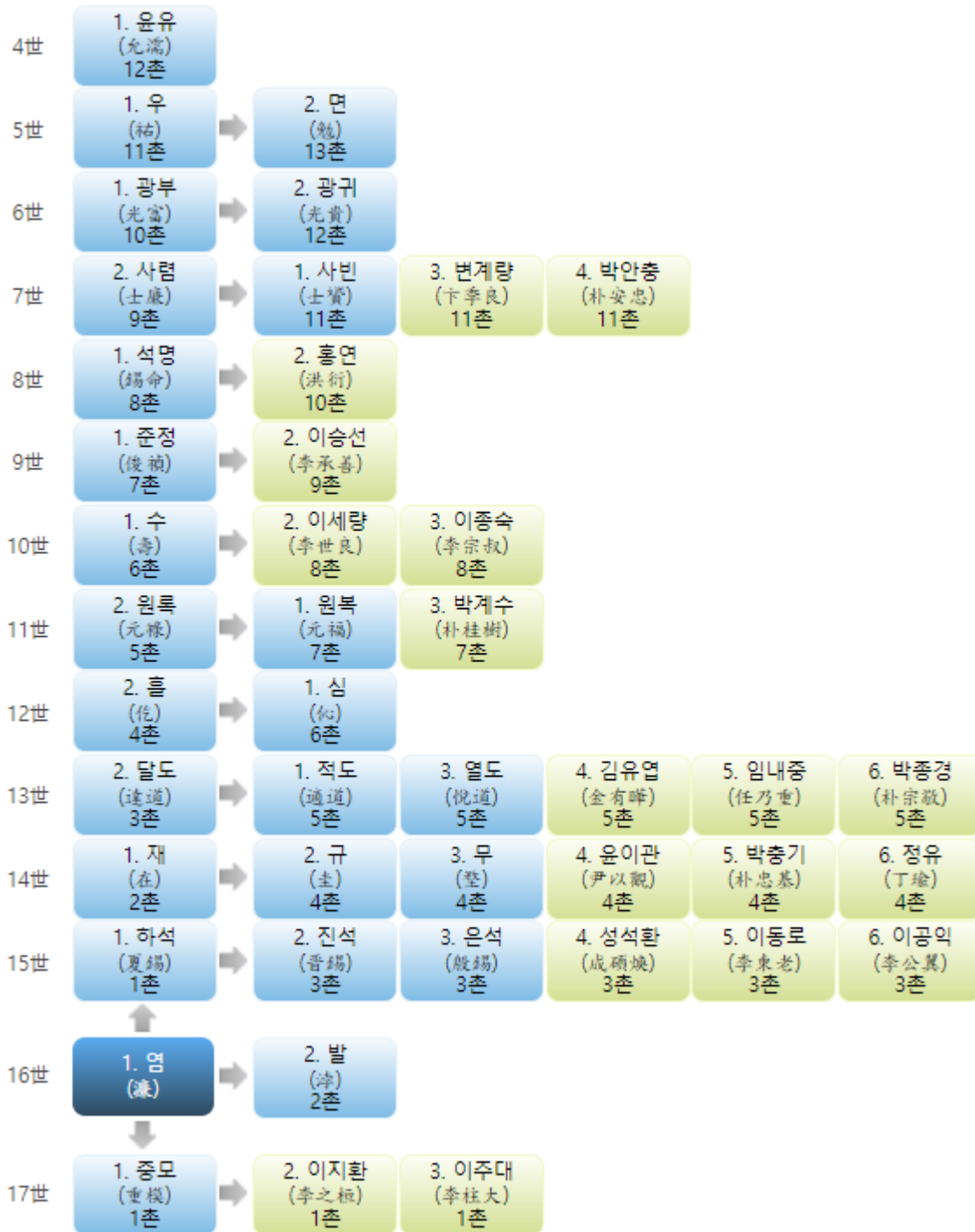
부록(附錄) = 109

퇴간유고(退澗遺稿) 신염(申瀛)

16世 염(瀛)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신엄(申濂)

1. 저자

懼卷集

1) 李鎭東(?~?)은 경상도 안동 지역에 살았던 인물이며,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지 않다. 號는 寡齋이다.

2) 申濂(166~?)의 本貫은 鵝洲, 字는 學源, 號는 退澗이다. 贈參議 申元綠의 5세손, 丁卯年 斥和 扈聖功臣 贈都承旨 申達道の 증손, 通德郎 申夏錫의 아들이다. 경상도 의성에 거주했으며, 1699년 (숙종 25) 己卯 式年試에 生員 三等 13위로 합격했다.

2. 구성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申濂 申倡義錄은 모두 두 종류인데,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전혀 상이하다. 申濂 申倡義錄(1)은 1728년 무신변란시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의병의 움직임을 총 망라했고, 申濂 申倡義錄(2)는 무신변란시 의성지역의 의병 활동을 정리한 것으로 신엄의 문집 申濂 申退澗集의 雜著에 들어갈 내용이었다.

1) 5권 2책이다. 책머리에 유후조가 쓴 서문이 실려 있다. 권1부터 권3까지는 안동, 상주 등 경상도 북부 지역의 창 의 사실을 기록했으며, 권4는 別錄, 續別錄으로 앞 권에 빠진 내용을 보완했다. 권1부터 別錄까지는 1788년(정조 12)에 조정에 올렸을 때의 자료이며, 속별록은 고종대에 간행하면서 별도로 보완한 자료이다. 권 5에는 영조와 정조대에 있었던 이 지역 의병 활동에 대한 정부의 포상과 관련한 사실들이 실려 있다. 권1부터 권4까지의 기술은 대체로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먼저 의병대장을 비롯한 각 직임과 그 담당자들의 명단을 제시하고, 이어 軍門日記, 軍門節目, 軍令, 그리고 檄文 등을 실었다. 각 권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권1

安東義兵

軍門坐目: 大將, 副將, 左防將, 右防將, 參謀, 都書記, 書記, 整齊有司, 司兵都摠, 司兵有司, 管糧有司, 出令都監, 軍官, 別軍官, 執操旗牌官, 募兵都監, 募糧都監, 校任.

三溪書院倡義坐目: 召募都監, 募糧都監, 軍門都執禮, 日記有司, 書記, 軍器都監.

道淵書院倡義坐目: 召募都監, 募糧都監, 勸起有司, 運糧都監, 軍器都監, 書寫.

軍門日記, 軍門節目(12조목) 「通一鄉文」, 「通道內文」, 「激一鄉文」, 「檄道內文」, 「三溪書院通校中文」, 「道淵書院檄面中文」, 「號召使與安東士林書」, 「上將與禮安義將書」, 副將答禮泉義將書.

尙州義兵

軍門坐目: 大將, 中軍, 參謀, 召募官, 召募有司, 掌書, 管糧, 典兵都摠, 典兵副摠, 軍官, 典兵有司, 募

粟有司, 募兵有司, 校任.

軍門日記, 軍門節目, 軍令, 榜, 「召募使通尙州鄉校文」(在安東時), 「玉成書院通鄉校道南興巖兩書院文」, 「書軍中文」, 「報本州狀」, 「本官報都巡撫使狀」, 「召募使報按撫使狀」.

禮安義兵

軍門坐目 : 大將, 副將, 參謀, 書記, 召募官, 軍官, 軍器都摠, 管糧都摠, 募糧官, 整齊將, 行首軍官, 記過軍官, 公事員.

軍門日記, 軍門節目(6조목), 「檄一鄉文」, 「傳令」, 「答安東義陣文」, 「上按撫使書」.

권2

醴泉義兵

軍門坐目 : 大將, 副將, 參謀, 左領將, 右領將, 義糧都摠, 軍器都摠, 掌書, 守門將, 糧料書記, 日記有司, 僉正都監, 書記, 召募將, 軍官, 行軍座首.

軍門日記, 軍門節目(11조목), 「檄郡中文」, 「答安東義陣文」, 「報按撫使狀」, 「本郡守在烏嶺與義將書」.

榮川義兵

軍門坐目 : 大將, 有司, 副將, 有司, 參謀, 整齊有司, 書記, 管糧都摠, 有司, 書記, 左部將, 右部將, 軍官, 旗牌官, 組練將.

軍門日記, 「道內通文」.

順興義兵

軍門坐目 : 大將, 參謀, 書記, 整齊有司, 司兵都摠, 有司, 管糧都摠, 有司, 司馬有司, 左部將, 右部將, 召募將, 頒料有司, 運糧有司, 中部將, 旗牌官, 組練將.

軍門日記, 軍門節目(13항목), 「答榮川義陣文」, 「答安東義陣文」, 「通左道列邑文」.

豐基義兵

軍門坐目 : 大將, 副將, 參謀, 書記, 都執禮, 司兵, 領將, 整齊有司, 管糧都監, 日記有司, 都廳.

軍門日記, 軍門節目, 「傳令」.

권3

永川義兵

軍門坐目 : 大將, 參謀, 掌書, 司兵都摠, 組練將, 組練都摠, 出令有司, 管餉, 召募都摠, 召募有司, 白衣從事.

軍門日記, 軍門節目, 「諭境內士子文」, 「答安東義陣文」, 「上按撫使書」, 「上本官書」.

義城義兵

軍門坐目 : 大將, 軍門都摠, 參謀, 都書記, 司兵都摠, 整齊有司, 出令有司, 管餉都摠, 組練都摠, 日記有司, 軍官, 事知旗牌官, 組練將, 募糧都監, 募兵都監.

軍門日記, 軍門節目, 「誓軍中文」, 「檄一鄉文」, 「諭各面募兵募糧都監文」, 「回諭義興倡義所儒生文」, 「回諭軍威倡義所儒生文」, 「移檄軍威義興比安文」, 「答安東義陣文」, 「報按撫使狀」.

英陽義兵

軍門坐目 : 大將, 參謀, 裨將, 都摠, 副摠, 左哨官, 右哨官, 募兵都監, 募糧都監, 書記.

軍門日記, 「軍中約誓文」.

奉化義兵

軍門坐目 : 大將, 左副將, 右副將, 書記, 整齊有司, 管糧都摠, 出令都監, 執操旗牌官, 別軍官.

軍門日記, 軍門節目, 軍門規約(16개조), 軍令(5개조), 「通一鄉文」, 「檄本邑文」.

眞寶義兵

軍門坐目 : 大將, 副將, 倡義公事員, 書記, 哨官, 旗牌官, 募糧都監, 運糧都監, 一隊長, 二隊長, 三隊長, 四隊長, 五隊長, 六隊長.

軍門日記, 軍門節目, 「檄一鄉文」, 「答安東義陣文」.

龍宮鄉校

倡義坐目 : 倡義公事員, 倡義有司, 掌書.

倡義日記, 「答安東順興義陣文」, 「報號召使狀」.

권4

別錄

安東 掌令 金侃 등 18명, 尙州 別提 李滿敷 등 3명, 善山 士人 尹重邦 등 2명, 禮安 正郎 金東俊, 榮川 士人 宋萬宗 등 2명, 醴泉 正郎 李文標 등 3명, 寧海 縣監 權萬斗, 河東 士人 金重元.

續別錄[義錄을 登聞한 이후 사림의 여론에 따라 별도로 속록을 만들다]

安東 參奉 李浹, 善山 士人 金泗震.

新寧義兵

軍門坐目 : 大將, 助防長, 贊劃, 從事, 糧料官, 守糧官, 公事員, 白衣從事, 右防營中軍.

軍門日記, 「檄一鄉文」.

靑松義兵

軍門坐目：大將, 有司, 參謀, 書記, 整齊有司, 募兵都監, 左哨官, 右哨官, 旗牌官, 組練將, 都摠, 副摠, 募糧都監, 運糧都監, 管糧都監, 左部將, 右部將, 隊長.

軍門日記..

間慶義兵

軍門坐目：大將, 中軍, 左領將, 右領將, 參謀, 都書記, 書記, 軍官, 行首軍官, 別軍官, 執禮旗牌官, 通糧有司, 副有司, 給餉都監, 副監官, 醫官, 兵房, 哨官, 執操旗牌, 掌務.

軍門日記, 軍門節目, 「通一鄉文」, 「通尙州咸昌文」, 「答尙州義勝移文」.

咸昌義兵

軍門坐目：大將, 召募都監, 募糧都監, 掌書.

軍門日記, 「通一鄉文」, 「通尙州義陣文」.

義興鄉校

倡義坐目：都摠, 司兵都摠, 管餉都摠.

倡義日記, 通一鄉文, 報義城義將文.

軍威鄉校

倡義坐目：都摠, 司兵都摠, 管餉都摠.

「報義城義將文」.

慶州義將.

河陽義將.

義興洪氏倡義都摠.

권5

傳旨：命嶺南上下道號召使傳旨(英廟戊申三月日), 命嶺南右道召募使傳旨(英廟戊申三月日).

狀啓：按撫使狀啓(戊申四月初四日), 號召使狀啓, 號召使狀啓, 「召募使狀啓」(戊申四月初三日), 「召募使狀啓」(戊申四月初三日).

筵說：己酉六月大臣入侍時筵說(英廟五年), 鍾城府使柳升鉉入侍時筵說(英廟五年), 正郎權萬入侍時筵說(英廟二十二年), 「大臣秋曹堂上御史入侍時筵說」(英廟二十三年).

傳教：錄安東義將柳升鉉子孫傳教(英廟二十三年).

疏錄：進戊申倡義錄疏(丁卯十二年戊申), 「輦路上言」, 「禮曹回啓」, 「回啓後傳教」, 「大臣獻議」, 「獻議後傳教」, 「誠正閣疏儒入侍時筵說」, 「右相入侍時筵說」.

2) 1책이다. 「倡義錄上」, 「倡義錄下」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 의와 관련된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창 의록상」에는 무신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창 의록하」에는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 서술 방식은 중요한 내용을 큰 글씨로 쓰고, 그와 연관된 세세한 내용은 한 칸에 두 줄씩 細字로 쓰는, 綱目體 형식을 취하였다.

3. 내용

1) 유후조의 서문은 이 책이 간행된 경위를 밝히고 있다. 무신변란이 일어난 지 60년 되던 해인 1788년(정조 12), 義烈을 추념하여 안동의병장 柳升鉉과 權萬 두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고 道臣으로 하여금 열읍의 實蹟을 채방하여 보고하도록 했으나 道臣이 이 일을 수행하지 않자 寡齋 李鎭東이 자료를 모아 중앙에 보고하였으며, 정조가 이 자료를 보고 도내에서 간행하도록 명령을 내렸으나 제때 실행되지 못하다가 80여년 뒤에 士林들이 힘을 모아 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각 지역 의병들의 상황은 軍門日記, 軍門節目에 자세하다. 각 권에 실린 軍門日記, 軍門節目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동의 軍門日記 : 3월 15일 적이 호서지역에서 일어나서 청주병사 이봉상 영장 남연년을 죽였다. 적수인 인좌는 故 監司 李雲徵의 손자이다. 世祿의 가문이었으나 조정에서 뜻을 잃자 不軌를 몰래 도모하였다. 지금에 이르러 대원수라 칭하고 청주에 들어가 鬪帥를 죽이고 경성으로 곧바로 진격하려 했다. 3월 18일 : 안동부에 變報가 이르고 3월 19일 鎭將이 군인을 모아 城中을 戒嚴하고, 조정에서는 병조판서 吳命恒을 四道都巡撫使, 대사성 朴師洙를 嶺南按撫使兼安東鎭節制使, 典籍 柳徠를 從事官兼安東判官, 參議 李衡祥과 應教 趙德鄰을 上下道 號召使로 삼다. 3월 26일에 안무사 박사수, 호소사 조덕린, 종사관 유래가 안동에 도착했으며, 우도 召募使 黃翼再 또한 도착하다. 3월 27일에 정희량이 안음에서 일어나 湖賊과 호응했다는 이야기를 듣다. 兩使가 안동부의 知名之士와 함께 군무를 논의하다. 3월 28일 권덕수가 통문을 초하여 의거할 것을 일항에 알리다. 3월 30일 명륜당에 모여 의병장을 정하다. 前 正郎 유승현을 권점하여 뽑다. 그후 군문의 각 소임을 정하다. 의병장이 격문을 작성하여 본부의 각 면에 알리다. 4월 1일 양사와 의병장, 참모가 만나다. 4월 6일 밤에 안무사가 파적했다는 관문이 도착하다. 4월 7일 의병장 이하 여러 소임을 맡은 사람들이 안무사를 만나 사직 인사를 하다. 각양 문서를 수정하고 대장기를 비롯한 각양 旗幟와 器物을 손질하여 敎中에 보관하고 오후에 파하여 귀가하다.

안동의 軍門節目은 모두 12조목이며, '각 면의 소모도감은 군사를 모은 후 成冊하고 分伍作隊하여 관군의 규모와 같이 한다. 도량도감 또한 각각 군량을 거두어 운납한다.', '罏器와 飯器는 군문의 규례에 따라 가지고 온다.', '각 면의 大小 學宮은 米太로써 軍餉을 도운다.', '규정을 어기는 자는 군율에 따라 단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尙州의 軍門日記 : 무신년 3월 15일에 호서 지역에 난적이 일어나고 3월 19일에 變報가 비로소 이른다. 수일이 지난 뒤 적들이 안음과 거창을 점령하고 좌수와 호장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듣다. 4월 1일 소모사 황익재가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하는 글을 보내오다. 前衛 급 유생들이 玉成書

院에 모여 창의할 뜻을 모으고 관에 알리다. 또 향교와 道南 興巖서원에 통유하다. 교임 및 부근의 유생들이 또한 교중에 모여 글을 만들어 관에 보고하다. 4월 2일 옥성서원의 諸員들이 향교에 모이고 오후에 소모사가 도착하다. 4월 3일 鄉人들이 본관과 소모사를 만나 군무를 稟議하다. 4월 4일 義勝大將을 선출하다. 전 군수 孫景錫이 낙점되다. 각 소임을 차출하다. 4월 5일 의병진이 金山으로 향하다. 소모관을 각 면으로 내 보내어 직접 檢察하게 하다. 각 學宮에 軍餉 米太를 분정하고 사환을 정하여 그로 하여금 募納하게 하다. 군향 米·太를 내도록 한 학궁은 다음과 같다. 鄉校·道南書院·玉成書院·近岳書院·鳳山書院·白玉洞書院·涑水書院·淵嶽書院·孝谷社·首陽書堂·高峯書堂·修善書堂·龍門書堂·修善書堂·龍門書堂·白華書堂·영빈서당·道谷書堂·松巖書堂·存愛院·醫局·修稷所·鳳巖書堂. 4월 6일 안무사의 적을 격파했다는 관문이 도착하여 義陣을 드디어 파하다.

禮安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5일의 호서 적변을 24일 關文을 보고 알다. 4월 1일 전 도사 이수겸 전현감 이집이 역질을 피해 산속에 있다가 변란 소식을 듣고는 도산서원에서 사람들을 모아 창의할 것을 발의하고, 다음날 校中에 모이자고 고을 사람들에게 통고하다. 4월 2일 500여명이 향교에 모여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고 이수겸을 상장, 이집을 부장으로 선출하다. 4월 3일 참모 金衡國을 안동으로 보내어 군부를 問議하다. 각 면의 소모도감이 올린 의병 명단을 성책하니 550여명의 의병. 李守恒이 租 10석을 기부하다. 4월 4일 龍壽寺 에 전령하여 旗鼓鉦角을 갖고 와서 바치게 하다. 兼官이 와서 상장과 부장이 만나보다. 각 면의 소모관에게 전령하여 초 6일날 作隊한 것을 점검하라고 하다. 4월 5일 교원 및 각 士夫들이 낸 것은 백미 20여석, 正租 100여석이다. 4월 6일 안동에 사람을 보내어 적의 형세 및 發兵 날짜를 묻다. 의병 550여명을 점검하다. 오후에 안무사가 적을 격파했다는 관문이 도착했으므로 의병을 파한다는 뜻을 안무사에게 보고하고 파하다.

軍門節目은 6조목이며,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소모하며, 장자를 제외한 장정이 한 집에서 비록 5, 6명이라 할 지라도 소모한다.'는 내용이 특기할 만하다.

醴泉義兵 軍門日記 : 3월 18일에 호서의 적변을 듣다. 3월 23일 金谷의 倡義通文이 향교로 오다. 3월 26일 밤에 관군이 죽산 안성에서 난적을 격파했다는 소문을 듣다. 향회가 매일 열린다. 3월 30일 校任들이 향교에 모여 창의통문을 발하다. 4월 1일 200여명이 모여 상장에 前 正字 朴成玉, 副將에 前 縣監 權萬樞를 뽑고 소임을 정한 뒤 소유격문을 경내에 보내다. 4월 2일 군량을 각 學宮과 4면의 上中下人處에 분정하여 쌀 40여석, 錢 18량을 얻다. 4월 3일 별군관 장위규가 剃頭한 세 사람을 잡아 왔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은 曹夏肅의 孫자이며 이인좌의 表從이라고 했다. 일을 시작하는 처음에 逆徒를 俘獲한 것을 축하하고 군수 徐宗一이 있는 조령산성의 유진소에 압송했다. 曹賊의 供招에 이르길, 지난 3월 17일 밤 무리 수십 인이 예천으로 잠입하여 장차 병력을 모아 예천을 급습하고 곧바로 안동으로 가려 하였는데 예천에서 이미 軍兵이 대비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簽丁所의 簽丁은 모두 924명이다. 4월 4일 군량을 다시 거두니 米 110석 5두, 錢 200량이다. 4월 6일 의병장이 조령산성에 도착하여 군수를 만나 사직을 위하여 같이 죽기로 맹세하다. 4월 8일 의병장이 조령에서 돌아오다. 義陣을 파하다. 당시 적도들이 밤에 讌賓樓에서 모였다가 떠났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軍門節目은 11조목이며, '秉彝의 마음은 貴賤이 한결같으니,公私 下賤이라도 義陣에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허락한다.', '군량 기계를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다소에 따라 論賞한다.', '입약 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군율에 따라 곤장을 친 뒤 毀家出鄉한다.'는 내용이 있다.

榮川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5일에 이인좌의 반란이 일어나다. 25일 按撫使 박사수가 古致嶺을 넘어 본군에 오다. 28일 향인들이 鄉序堂에 모여 前 參議 羅學川을 대장으로, 전 장령 金征과 前 正字 鄭玉을 부장으로 뽑다. 29일 군사는 55세까지 제한하여 뽑기로 하다. 30일 부장 김정과 정옥, 참모 등이 안동으로 가 안무사와 호소사를 만나 討賊 方略을 논의하다. 4월 2일 군문을 鄉射堂에 설치하다. 陣月寺에 전령하여 旗幟 鉦鼓 吹螺 등을 가지고 오라고 하다. 4월 6일 안무사의 관문 내에 성주목사가 적병을 대파하고 안동 영장이 적을 격파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온다. 4월 7일 관군이 모두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義旅 또한 파하다.

順興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8일 연풍현감 김정구가 이인좌의 격문을 베껴 그의 숙부 전현감 김화중의 집에 보내와 비로소 청주가 이인좌에게 함락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3월 23일 진영에서 열읍에 관문을 내려 병졸을 모아 요충지를 지키도록 하다. 3월 24일 안무사가 고치령을 거쳐 순흥부에 도착하다. 3월 25일 금부도사가 拿將을 대동하고 순흥부에 도착하여 죄인 정희량을 잡을 것을 명하였다. 정희량이란 이름은 없었는데 금부도사가 관군을 이끌고 鄭宜璉의 집을 포위했는데 의련은 鄭遵儒의 조카로 갑오년에 안음에서 올라와 순흥부에 살았다. 의련과 그의 從弟 宜璜은 이미 기미를 알고 몸을 피한 뒤였다. 뒤에 들으니, 정희량은 정준유의 變名이며, 3월 중에 遷葬한다는 구실로 募丁하여 거창에서 造逆했다고 한다. 4월 1일 사림들이 향청에서 모여 의병장에 前 察訪 李徵道를 뽑다. 안무사의 관문에 따라 정의련과 정의황을 石川浦에서 追捕하다. 안무사가 관문으로 정희량의 모, 처, 가솔을 붙들어 嚴囚하고 의련과 의황은 京師로 압송하며 그 妻子 姪婦는 거두어 枷囚하라고 하다. 4월 5일 난역이 평정되었다는 관문이 도착하여 義陣을 파하다.

軍門節目은 모두 13조목이며, '군량은 三所와 書堂에 분정한다.', '旗幟와 鼓鉦 등의 물품은 각 寺에서 取用한다.'는 내용이 있다.

豐基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8일 호서의 賊變을 듣다. 4월 1일 士人 金胄嶽 등이 향교로 들어와 창의의 통문을 발송하다. 4월 2일 각 면에 통문을 돌리다. 4월 4일 향사당에 의병청을 설치하다. 75인이 모여 상장과 부장을 뽑다. 각 면에서 뽑은 군병 168인의 명단이 작성된다. 4월 7일 역적을 격파했다는 관문이 도착하여 의병을 파하다.

軍門節目은 '형제가 비록 많더라도 1명만 뽑는다.', '旗幟 鼓鉦 등은 사찰에서 取用한다.'는 내용이 있다.

永川義兵의 軍門日記 : 무신 3월에 호서의 변란을 듣다. 3월 29일 참봉 鄭葵陽이 격문을 써서 고을에 전하다. 4월 1일 안무사 박사수가 참봉 鄭萬陽·葵陽 형제에게 편지하여 軍機를 지휘할 뜻이 있는지 묻다. 4월 2일 정규양을 의병장으로 뽑고 군문의 각 소임을 정하다. 4월 6일 號召使가 本郡에 巡到하여 의병장 이하 참모를 만나다. 4월 7일 破賊 관문이 도착하여 의병을 해산하다.

軍門節目은 '사족 자제로서 30세 이상 50세까지 모두 종군한다. 독자로 형제가 없는 경우 면한다.', '有故者는 家丁 2인을 대신 보낸다.', '布粟 戰馬를 바칠 경우 들어준다.'는 내용이 있다.

義城義兵의 軍門日記 : 3월 20일 호서 적변을 듣다 25일 신렴 등이 창의할 계획을 고을에 알리다. 3월 28일 객숙 西軒에서 鄉會를 열다. 3월 29일 사람들이 향교에 모여 의병장으로 申濂을 뽑고 열읍에 고하다. 4월 1일 3조의 군법을 정하고(적과 맞닥뜨린 뒤 먼저 물러가면 참한다. 명령을 어겨 기회를 놓치면 참한다. 訛言으로 군중을 혼란스럽게 하면 참한다.) 문루에 크게 써 붙였다. 호소사가 와서 군문을 보고 義興으로 가다. 4월 2일 五寺의 首僧이 와서 旗鼓 槍劍등의 기물을 바치다. 4월 5일 翳陣. 4월 6일 군대를 움직여 賊陣으로 향하려고 하다. 誓文을 써서 軍中에 고하다. 4월 7일 적병이 패멸했다는 소문을 듣다. 4월 8일 안무사, 호소사의 관문에 따라 義陣을 파하다.

英陽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5일 호서의 적이 일어난다. 3월 26일 안음의 賊報를 듣고 鄉廳에서 鄉中에 통문을 돌리다. 號召使의 격문이 도착하여 향인들이 객사에 모두 의병장을 뽑고 임무를 나누어 정하다. 4월 7일 파적 관문이 도착하여 義陣을 파하다.

奉化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5일 호서에 적이 군사를 일으키고 얼마 안 있어 안음에서 적이 계속 일어나자 금중 등이 校院任과 留鄉 등과 함께 창의하기로 의논하다. 3월 28일 향교에 향인들이 모여 군문을 大同廳에 설치하기로 金至恒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4월 1일 좌우장이 격문을 쓰고 군문 조약을 정하였다. 4월 2일 호소사에게 창의 사실을 보고하였다. 4월 6일 파적 관문이 도착하다. 4월 7일 군문을 거두어 돌아가다.

軍門節目은 안동의 절목과 같으며, 별도로 16개조의 「軍門規約」, 5개조의 軍수가 있다. 군령에는 '북소리를 들으면 싸우고, 징소리를 들으면 멈춘다.', '북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진격하며 후퇴하지 않는다.', '후퇴하는 자는 斬한다.', '軍機를 漏泄한 자는 참한다.', '명령을 잘 활용하는 자는 상을 주고 명령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는 벌을 내린다.'는 내용이 있다.

眞寶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8일 적에 관한 소식이 오다. 3월 28일 權聖天이 창의 뜻을 고을에 알리다. 3월 29일 향인들이 鸞堂에 모여 公事員을 뽑다. 3월 30일 객사 문밖에 의병 군문을 설치하고 李思九를 대장으로 뽑다. 6대로 나누고 각 대당 10명씩 거느리게 하다. 4월 1일 안동에서 창의통문이 오다. 4월 6일 안동의 의진과 군대를 합하여 전장에 나아가려 했는데 난역을 평정했다는 관문이 도착하여 의병을 파하다.

軍門節目에는 '형제가 많은 경우, 그 가운데 1명이 군진에 나온다.', '草土에 살더라도 쓸 만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군진에 나온다.'는 내용이 있다.

龍宮鄉校의 倡義日記 : 3월 15일 적이 호서에서 일어난다. 3월 30일 안동의 창의통문이 오다. 號召使의 관문이 오다. 4월 1일 교원임들이 창의 뜻을 일향에 알리다. 4월 2일 士林들이 향교에 모이다. 4월 3일 백여명이 모여 군문의 각자 임무를 정하고 관문을 기다리다. 4월 4일 조령에 있는 본관의 유진소에 113명이 의거했다는 소식을 알리다. 수일 뒤 破賊 관문이 도착하여 의병을 파하다.

권4의 「續別錄」은 倡義錄을 登聞한 이후 사람의 여론에 따라 별도로 만들었다. 각 고을 의병의 군문일기는 다음과 같다.

新寧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5일 적이 호서에서 일어나자 안무사 호소사를 열읍에 보내어 의병을 일으키도록 하다. 鄉老 權復衡이 향인들에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했으며 향인들이 그의 아우

權益衡을 의병장으로 뽑다. 객사 문 밖에 군병을 모아 군진을 설치하다. 金烏陣에서 적을 먼저 격파하고 남은 적들이 모두 평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의병을 파하다.

靑松義兵의 軍門日記 : 3월 20일 청주 역변을 듣다. 22일 本官이 松鶴樓 아래에서 點兵하다. 4월 2일 안동에서 通文이 오다. 4월 5일 향인들이 鄉射堂에 모여 義兵軍門을 설치하고 趙德昇을 의병장으로 뽑다. 4월 8일 捷報가 도착하여 각 읍에 명령하여 의병을 파하다.

閔慶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7일에 청주 賊變을 듣다. 4월 2일 향인들이 모여 대장을 선출하고 각자 임무를 분정하다. 4월 3일 군문을 武學堂으로 옮겨 설치하고 절목을 정하다. 4월 4일 북면으로 사람을 보내어 別武士를 뽑도록 하다. 4월 7일 操練하다. 4월 8일 파적 관문이 도착하여 의병을 파하다.

咸昌義兵의 軍門日記 : 3월 18일 청주 적변을 듣다. 3월 26일 본관이 군사를 이끌고 상주진으로 향하다. 4월 3일 향인들이 벽(辟+石)大廳에 모여 大將을 뽑고 각자 임무를 정하다. 4월 7일 안무사 관문으로 인해 의진을 파하다.

권5는 사건 이후 반란 진압과 경상도 의병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및 이 책의 간행에 대한 기록들을 모은 것이다. 먼저 傳旨로서 1728년 3월에 영조가 내린 「命嶺南上下道號召使傳旨」와 「命嶺南右道召募使」를 실었고 그 뒤에는 安撫使·號召使·召募使 등이 올린 장계가 5편 실렸다. 이어 1729년 5월의 安東 의병장 柳升鉉 등에 대해 포상을 논의한 내용으로부터 유승헌과 權萬이 입시켰을 때의 것 등 筵說 5편이 있고, 그 뒤에 영조가 내린 「錄安東義兵將柳升鉉子孫傳教」가 있다. 疏錄에는 1788년 幼學 李鎮東 등이 戊申倡義錄을 바치는 상소와 그것과 결부된 「輦路上言」을 신고 「禮曹回啓」 및 그에 따른 전교, 大臣의 獻議 내용, 정조가 상소를 올린 이진동 등을 불러들였을 때의 筵說, 우의정의 건의를 수록하였다.

2) 申濂이 쓴 戊申倡義錄은 의성 지역에서의 거병 사실을 상·하 두 권에 걸쳐 날짜별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날의 기후, 關文과 通文에 관한 사실이 자세하다. 날짜별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倡義錄上」

3월 21일 : 적이 淸州를 범하여 兵使 李鳳祥, 營將 南延年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다.

3월 22일 : 營關이 本縣에 도착하다.

3월 23일 : 鎭營에서 군사를 일으킨다는 관문이 오다.

3월 24일 : 縣官이 傳令하여 點兵하다. 營吏가 巡使啓草와 安陰賊書를 베껴서 오다.

3월 25일 : 朝報에서 吳命恒을 四道都巡撫使, 박사수를 嶺南安撫使兼安東府使, 조덕린을 慶尙道號召使로 임명했다는 내용을 보았다.

3월 26일 : 鎭關이 본현에 도착하다.

3월 27일 : 글을 작성하여 온 고을 사람들이 學義하도록 할 계획을 갖다. 鎭營에서 私通文이 왔는데, 즉시 赴義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28일 : 客舍 西軒에서 鄉會를 열다. 監兵營 관문과 按撫使 號召使 관문이 오다. 主倅이 軍糧을 安平으로 수송했다. 밤에 宣傳官이 본현으로 오다. 鄉會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 67명.

3월 29일 : 새벽에 선전관이 의흥으로 떠나다. 사림 100명 등이 명륜당에 모여 모임을 갖고 나를 의병장으로 圈薦하다. 按撫使 號召使의 관문, 營關이 오다. 鎮將이 군사를 이끌고 居昌으로 향하다가 安平에서 숙박하다. 本縣에서 軍器를 比安으로 수송하다. 향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명단, 177명. 公事員, 曹司 등 분정. 義將薦圈點은 生員 申濂이 120分, 前宣傳官 金履中이 14分 등. 「通道內士林文」을 짓다.

3월 30일 : 식후 명륜당에서 개좌하여 軍任, 각 면의 募兵 募糧都監을 정하고 12절목의 군문절목을 상하 민인에게 알리다. 校院 각 곳에 支供을 배정하다.(향교 2일, 氷溪 2일, 鄉廳 2일, 藏待 1일, 學山 1일, 興學齋 1일, 醫局 1일). 軍門都摠 이하 播任錄 . 節目(13조목)

「倡義錄下」

4월 1일 : 새벽에 여러 사람을 이끌고 聖廟에 알현하고, 행단 아래 개좌한 뒤, 戎服을 갖추어 입고 북향하여 재배하다. 地主에게 醫局의 약을 의병에게 소속시키게 해달고 청하여 허락을 얻다. 각 면의 募兵 募糧都監에게 내리는 글.(8조목) 軍額都摠(士林 353명, 향교 校生과 校奴 50명, 빙계 서원 원생과 원노 30명, 학산서원 원생과 원노 10명, 장대서원 원생과 원노 15명, 흥학재 假屬 5명, 鄉廳 假屬 20명, 醫局 약부와 가속 260명, 아주 신씨 문중을 비롯한 18개 문중에서 奴丁 199명), 군량 배정(향교, 향청, 빙계, 학산, 장대, 의국, 興學齋)

4월 2일 : 식후 행단에 개좌하여 組練에 관한 여러 절목을 의논하다. 軍威 창의소에서 召募節目 등을 청하여 주다.

4월 3일 : 합천의 적괴 晁聖佐가 사로잡혔다는 이야기를 듣다. 五寺의 首僧이 旗鼓 槍劍 등의 물품을 와서 바쳤다.

4월 4일 : 鄉兵을 點閱하다. 6일에 桃院으로 移駐하여 형세를 보아 전전할 계획을 논의하다. 각 면의 召募都監이 成冊을 가지고 오다. 안동창의소 격문이 오다.

4월 5일 : 조련장과 行軍節次를 논의하다. 각 면의 소모도감에게 알려 軍糧을 가지고 도원으로 모이게 하다.

4월 6일 : 도총, 참모 등과 함께 도원으로 달려가 設陣 餉軍 등의 일을 조치하다. 巳時에 길을 떠나며 摺文을 軍中에 告諭하다.

4월 7일 : 按撫使의 관문으로 말미암아 師期를 조금 늦추고, 比安·軍威·義興倡義所에 글을 보내어 기다리게 하다. 巳時에 적병의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다.

4월 8일 : 안무사 호소사의 回題가 오다.

4월 9일 : 都巡撫史 關文이 본현에 도착하다. 향인들이 파하여 집으로 돌아가다. 모인 군량과 기물등은 곧 환급하도록 하다.

4월 10일 : 호소사 관문이 오다.

4월 14일 : 안동향교, 예안향교의 私通이 오다. 倡義文字를 수습하여 巡撫使 行營으로 封上하다.

4. 가치

여기서 소개한 「무신창의록」은 1728년 청주, 안음, 거창 등지에서 일어났던 변란에 대처하여 경상도 북부 지역에서의 의병활동을 자세히 기록한 자료이다. 변란을 일으킨 세력 혹은 이들을 토벌한 사람들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어서 무신란 자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만, 경상도 지역의 士林들이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실을 알려준다. 1728년의 무신란 연구, 그리고 18세기 지방의 사림들의 사회적 존재 형태에 대한 연구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진동이 작성한 「무신창의록」은 목판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자료가 많이 존재하여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만, 신염이 작성한 「무신창의록」은 간행되기 이전의 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특히 무신란이 일어날 때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의성지역에서 있었던 모든 일, 오고간 공문서와 私通文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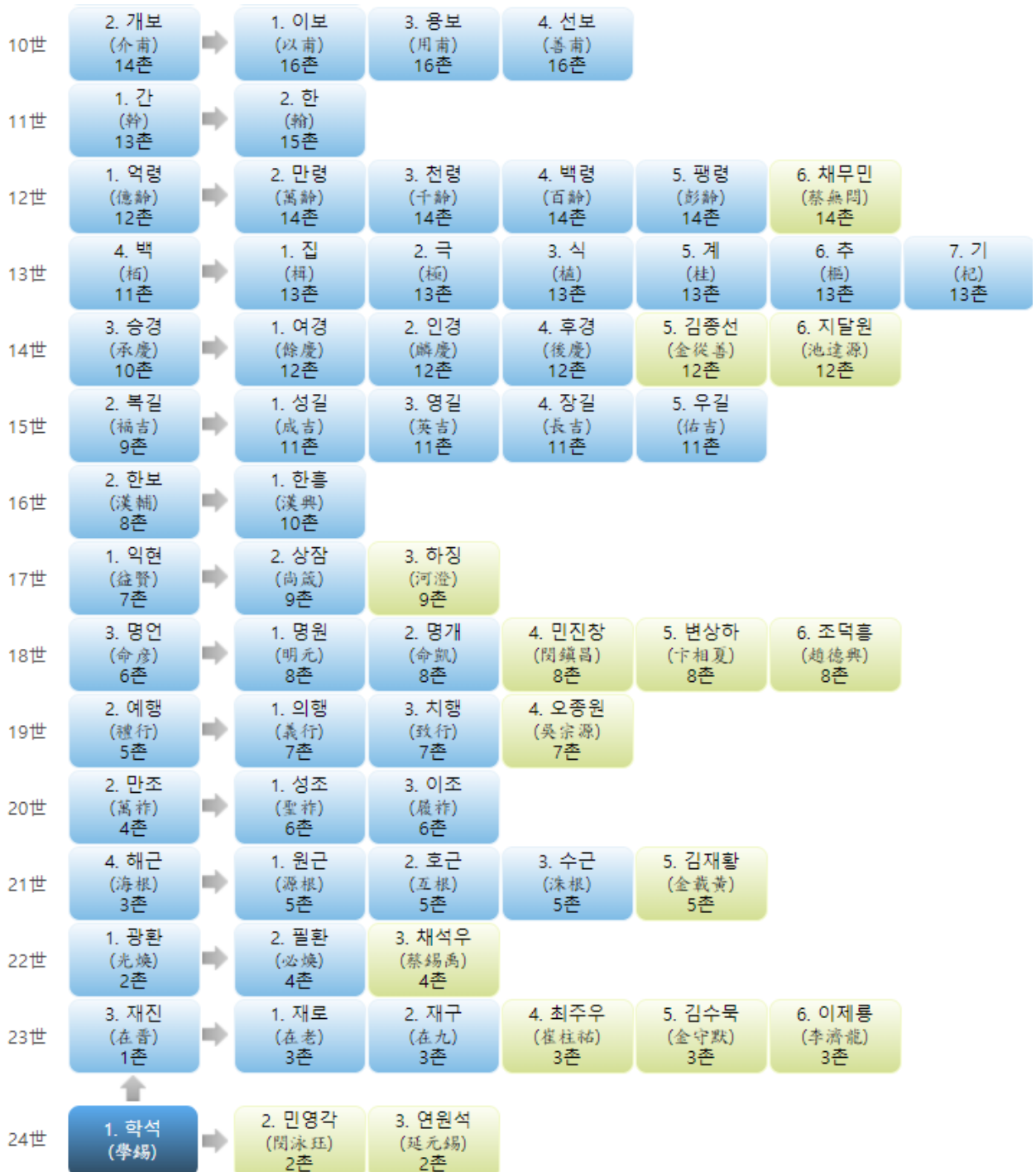
이 자료는 戊申亂의 전말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한 기록인 「勘亂錄」·「戊申別騰錄」·「戊申獄案抄」, 그리고 또 경상도의 의병에 대한 기록인 「慶尙道戊申倡義事蹟」(1책) 등과 함께 활용한다면 무신란 연구에 크게 유용할 것이다.

퇴운집(退雲集) 신학석(申學錫)

24世 학석(學錫)

父 : 재진(在晉) 祖父 : 광환(光煥)

귀파(龜派)직장공파(直長公派)



生父在老

字悅卿 號退雲

甲午一八九四年甲午二月十二日生氣溫質良立志高雅信道深堅師賢友仁博聞約守奉養兩庭孝誠是懇治其季年學業成就文章之華行義之實毀有以成於身信於友遠近士友莫不哀其早汲甲學于素堂金先生濟煥門後學于惺菴朴先生胄淳門金定堂成煥撰行狀覺齊申泰求撰墓表竹澗族從天錫撰墓識文集二卷己卯五月七日卒享年四十六○墓高坵岩曾祖考塋下左側百余步丑坐未向

갑오일팔구사년갑오이월십이일생기온질량입지고아신도심견사현우인박문약수봉양량정효성시간치기계년학업성취문장지화행의지실혜유이성어신신어우원근사우막부애기조급갑학우소당김선생제환문후학우성암박선생주순문김정당성환찬행장각제신태구찬묘표죽간죽종천석찬묘식문집이권기묘오월칠일졸향년사십륙○묘고대암증조고영하좌측백여보축좌미향

配密陽朴氏壬辰十一月十六日生甲寅閏四月二十五日卒享年八〇三○墓合窆附左有床石墓碑遺墟碑父來九祖貞浩曾祖武欽菊堂興生后外祖慶州金晋熙

배밀양박씨임진십일월십륙일생갑인윤사월이십오일졸향년팔〇삼○묘합편부좌유상석묘비유허비부래구조정호증조무흠국당흥생후외조경주김진희

권수제(卷首題) : 퇴운집(退雲集) 저자의 유고는 장자 신태수를 비롯한 일족과 문인들이 자료를 수습·편찬하여 1951년 간행하였다. 권수에 김성환이 쓴 서문이 있다. 권1에 시, 권2와 권3에 서, 권4에 제문, 권5에 묘표, 행장, 잡저, 권6에 부록이 실려 있다. 권미에 김재의의 발문이 있고 「문인록」이 수록되어 있다.

‘퇴운집’은 신학석(申學錫) 선생의 문집으로 1951년에 석판으로 간행하였다. 신학석 선생은 1913년 2월 김제한·신영태·이종만·변영인 등과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다.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신우(申祐)

계도보기



5世 우(祐)

父 : 윤유(允濡) 祖父 : 득창(得昌)

상계(上系)



신우(申祐)

항목 ID	GC05200844
한자	申祐
이칭/별칭	퇴재(退齋)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고려/고려 후기
집필자	위은숙

[상세정보]

추모 시기/일시	1509년 - 신우 속수 서원에 배향
추모 시기/일시	1992년 - 신우 유허비각 중수
거주 이주지	효자리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묘소 단소	신우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 1리 산 39
사당 배향지	속수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성격	무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호군(護軍)

[정의]

고려 후기 의성 출신의 무신이며 효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호는 퇴재(退齋). 아버지는 신윤유(申允濡)로 아주 신씨(鵝洲 申氏) 의성 입향조이다. 부인은 약목 유씨(若木 柳氏)이다.

[활동 사항]

신우(申祐)는 생몰년 미상이며, 고려 충혜왕 때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봉상(奉常)·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을 거쳐 호군(護軍)에 이르렀다. 일설에는 전라도 안렴사(全羅道 安廉使)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지극한 효성으로 부친의 3년상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 대나무 두 그루가 자랐다는 것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를 내리고 살던 마을을 효자리(孝子里)라고 불렀다.

일찍이 정몽주(鄭夢周)에게 영향을 받아 고려 멸망 후 고려에 대한 충성심으로 조선이 개국하자 조카사위인 길재(吉再)와 고향에 은거하였고 이성계가 등극하여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행실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실려 있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2권이 있다.

[묘소]

묘는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에 있다. 용포재(龍浦齋)는 신우의 묘각으로 1956년 건축되었다.

[상훈과 추모]

1509년(중종 4년)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에 있는 속수 서원(涑水 書院)에 손중돈(孫仲墩) 등과 함께 배향되었다. 단밀면 주선리에 있는 유허비각에는 3개의 비가 있는데 정경세는 묘표(墓表)를, 김응조(金應祚)는 봉안문(奉安文)을, 변암 채제공은 유허비명을 찬(撰)하였다. 비각은 최근 1992년에 중수되었다.

[참고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

『상주읍지(尙州邑誌)』

『해동인물지(海東人物志)』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서지사항

목정보	대표제목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권수제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표지제	퇴재실기 전(退齋實紀 全)
	판심제	퇴재실기(退齋實紀)
분류정보	사부분류	집부 - 별집류
	내용분류	고도서 - 영남사림문집
저자정보	저자	성명 : 신우(申祐) / 호 : 퇴재(退齋) / 성씨 : 신(申)
	편자(1 세기)	성명 : 신돈식(申敦植) / 본관 : 신(申) / 성씨 : 신(申) / 생년 : 연도미상 / 몰년 : 연도미상
간행정보	간행년	1908 세기: 20 세기
	발간일	1908 세기: 20 세기
소장정보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형태정보	책수	1
	권수	2
	책크기	31.5×20.7cm.
	판사항	木活字本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광곽	四周雙邊. 半匡 ; 20x15.7cm.有界.10 行 18 字.註雙行
	서발문	序;隆熙二年戊申(1908)...金道和,敦植拜手稽首.跋;柳道獻
	내용주기	퇴재 신우의 실기

해제

『퇴재실기』는 신우(申祐 ; 생몰년 미상)의 실기이다. 신우의 호는 퇴재(退齋),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그의 아버지 윤유(允濡)는 고려 충렬왕 때 판도판서(版圖判書)·군기사별검교사(軍器寺別檢校事)를 역임하였는데, 청렴하고 절개가 곧기로 유명하였다.

당시 원(元) 황제가 고려인으로서 상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징벌하자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두려워하여 피했으나 윤유가 홀로 나아가 '나라를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몸을 아끼는 무리를 벌해야 한다.'고 하여 왕이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 유득소(柳得韶) 등 4명을 옥에 가두었다.

신우는 고려 말 조선 초의 인물로 상주(尙州)의 단밀현(丹密縣)에 거주하였으며, 고려 때의 벼슬은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전라도 안렴사(按廉使)를 역임했다.

그는 특히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이 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고 여막(廬幕)에서 3년상을 마치자 무덤 앞에 쌍죽(雙竹)이 생겼으므로 효성이 지극한 때문이라고 하여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그는 일찍이 정몽주(鄭夢周)에게 대의(大義)를 들었으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자 길재(吉再)와 함께 고향에 돌아와 상주 만경산에 은거하였다.

태조와 일찍부터 친구간으로서 조선이 개국된 뒤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책목록

퇴재선생실기서(退齋先生實紀序)

신씨세계(申氏世系)

퇴재선생실기목록(退齋先生實紀目錄)

퇴재선생실기권지일(退齋先生實紀卷之一)

부록(附錄)번역문 기사해제

묘표(墓表)

수갈고유문(豎碣告由文)

속수서원봉안문(涑水書院奉安文)

상향축문(常享祝文)

속원봉안시고묘문(涑院奉安時告墓文)

고유손우재선생문(告由孫愚齋先生文)

상주사림통문(尙州士林通文)

속원경현사상량문(涑院敬賢祠上梁文)

경현사기(景賢祠記)

제쌍죽도(題雙竹圖)

한식알사포선형(寒食謁蛇浦先塋)

제묘문(祭墓文)

나재배문록(懶齋拜門錄)

사적(事蹟)

우(又)

유허비명[병서](遺墟碑銘[并序])

속원명륜당중수상량문(涑院明倫堂重修上梁文)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

신도비명[병서](神道碑銘[并序])

퇴재선생실기권지이(退齋先生實紀卷之二)

부후손조두문적(附後孫俎豆文蹟)

니산서원상량문[남몽뢰](尼山書院上梁文[南蒙賚])

장대서원풍영루상량문[홍만조만퇴](藏待書院風詠樓上梁文[洪萬朝晚退])

회당선생봉안문[이현일갈암](悔堂先生奉安文[李玄逸葛庵])

상향축문[이유장고산](常享祝文[李惟樟孤山])

오봉선생봉안문[금계광](梧峯先生奉安文[金啓光])

상향축문[이유장](常享祝文[李惟樟])

매강사정은선생봉안문[류심춘강고](梅岡祠靜隱先生奉安文[柳尋春江皐])

상향축문(常享祝文)

단구서원상량문[류주목계당](丹邱書院上梁文[柳疇睦溪堂])

호계선생봉안문[이돈우금암](虎溪先生奉安文[李敦禹肯庵])

상향축문(常享祝文)

라나재선생봉안문(懶懶齋先生奉安文)

상향축문(常享祝文)

인재선생봉안문(忍齋先生奉安文)

상향축문(常享祝文)

영귀서당통문[단구서원영건시](詠歸書堂通文[丹邱書院營建時])

장대서원통문[단원게건시](藏待書院通文[丹院揭處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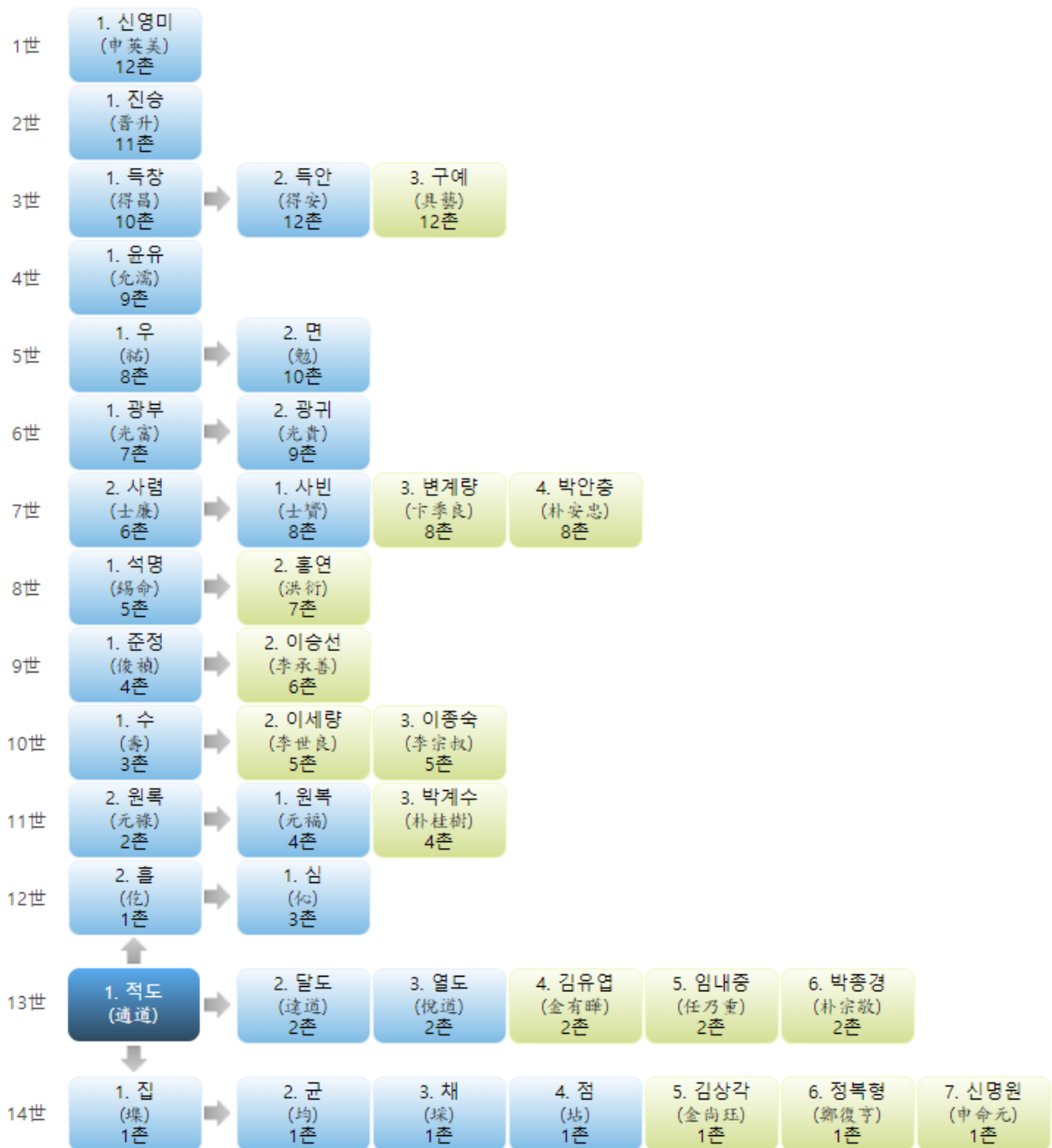
발(跋)

호계선생유집(虎溪先生遺集) 신적도(申適道)

13世 적도(適道)

父 : 흘(佺) 祖父 : 원록(元祿)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신적도(申適道)

항목 ID	GC05200996
한자	申適道
이칭/별칭	호계(虎溪)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팔성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김용만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574년 - 신적도 출생
활동 시기/일시	1606년 - 신적도 진사시에 급제
활동 시기/일시	1627년 - 신적도 상운도 찰방에 임명
몰년 시기/일시	1663년 - 신적도 사망
추모 시기/일시	1867년 - 신적도 호조 참의에 추증
활동지	상운도 - 강원도 양양군
활동지	건원릉 - 경기도 구리시
사당배향지	단구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성격	관료의병
성별	남
대표 경력	증 호조 참의(戶曹 參議)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관료이자 의병.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호는 호계(虎溪). 아주 신씨 의성읍 파조(派祖) 신광부(申光富)의 후손이다. 할아버

지는 신원록(申元祿)이고, 아버지는 신흘(申伋)이고, 동생은 신달도, 신열도이다.

[활동 사항]

신적도(申適道)[1574~1663]는 청년기에 한강 정구와 여헌 장현광에게 배웠다. 학문과 효행이 뛰어났다. 1606년(선조 39) 진사시에 급제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임금이 피난길에 나서고 국사가 어지러운데 신하된 사람으로 산하에 묻혀 구차하게 생활을 도모할 때가아니다.” 하며 원근의 동지들과 의병을 모집하고 군량을 준비하여 밤낮 달려가니 이미 화의를 맺어 적이 물러간 뒤라 이전에 소장을 올려 장한 일이란 비답(批答)을 받고 나라로부터 상운도 찰방(祥雲道 察訪) 벼슬이 내려졌다.

병자호란 때에도 의성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오랑캐와 화친할 수 없으며, 이를 배척한다는 뜻에서 “척화하는 것이 당연한 일. 어찌 강화파들은 반대한단 말인가? 오랑캐가 겁나 두려워함이라. 망국꼴 보려는 왕손매의 심정이구나.” 라는 척화시(斥和詩) 읊었고, 군사와 양곡을 나라에 바쳤다. 나라에서 건원릉 참봉(健元陵 參奉)의 벼슬이 내려졌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기 위해 서울에 가서 사은(謝恩)의 예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학리의 학소대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날마다 『춘추(春秋)』를 읽으며, 비분강개(悲憤慷慨)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소주(韶州) 산곡에 대명(大明)의 일월이 비친다고 했다.

[저술 및 작품]

생전에 쓴 글을 모은 『호계문집(虎溪文集)』 6권 3책이 있다.

[상훈과 추모]

1867년(고종 4) 호조 참의 증직이 내려졌으며, 단구 서원(丹邱 書院)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호계집(虎溪集)』

『경상도 읍지(慶尙道 邑誌)』

『조선 환여 승람(朝鮮 寰輿 勝覽)』

『교남지(嶠南誌)』

『의성의 전통』(의성군, 1982)

『의열의 메아리』(박인걸 편, 1983)

호계선생유집(虎溪先生遺集)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호계선생유집 (虎溪先生遺集)	
저자	성명	신적도(申適道)
	자	사립 (士立)
	호	호계 (虎溪)
판사항	木版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919	
권수	6	
체크기	30.1×20.6 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해제

서발(序跋)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들 신채(申埰)가 유집(遺集) 7책을 편집하여 후일에 간행하려고 宗家에 보관하였는데, 1874년에 화재가 일어나 모두 불타버렸다고 한다. 이에 후손들이 신적도의 유문(遺文)을 널리 수집하여 문집을 편집하는 한편 행장·묘도문·서발(墓道文·序跋) 등을 받아 간행하였다.

권수에 유필영(柳必永)의 서문, 권말에 신상헌·곽도·이중구·신상하·신돈식(申相憲·郭鉤·李中久·申相夏·申敦植)의 발문이 있으며 각 권수에 목록이 실려 있다. 卷1에 歌와 操 각 1편·시 42題 50首·疎 3편·書 16편, 卷2에 잡저 12편·箴銘 4편·祭文 6편, 卷3과 권4에 창의록(倡義錄)이 실려 있다. 卷5와 卷6은 부록으로 卷5에 유사(遺事)와 행상·묘표(行狀·墓表) 등 17편, 卷6에 사우유찰(師友遺札) 10편·제문 3편·만사 22수·

증은하장(贈恩賀章) 39수·후서와 발문 등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평소 친족 및 師友 등과 수창한 시편 내지 병자호란을 즈음하여 지은 시편이 많고, 유성룡·정구(柳成龍·鄭逵) 등을 애도하며 지은 만시도 14수가 실려 있다. 소(疏)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斥和를 주장한 상소와 김엽·김욱·김찬(金燁·金煜·金燦) 삼열사(三烈士)의 褒獎을 청한 상언이 있으며, 편지는 정구·장현광·정경세·이준·이경석·정온(鄭逵·張顯光·鄭經世·李俊·李景奭·鄭蘊) 등의 사우(師友) 및 자식들에게 보낸 것이다. 잡저에는 성·심·정·의·지·인의예지·태극·음양(性·心·情·意·志·仁義禮智·太極·陰陽) 등에 대하여 논변한 글, 집안사람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지은 글, 채미헌(採薇軒)을 건립하고 지은 기문과 상량문 등이 있으며, 제문은 신우·정구·장현광·신달도(申祐·鄭逵·張顯光·申達道) 등 사우(師友) 내지 집안사람들을 치제할 때 지은 것이다. 창의록(倡義錄)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창의(倡義) 관련 기록을 모은 것으로 卷3에는 정묘호란 때 신적도가 사민(士民)과 의소(義所)에 보낸 글 및 호소사(號召使) 장현광(張顯光)과 정경세(鄭經世)에게 올린 글, 임금의 교서(敎書)와 유서(諭書), 호소사(號召使)와 관향사(管餉使)의 관문(關文) 등이 실려 있고, 卷4에는 병자호란 때 신적도가 의성현의 사민에게 보낸 글, 1636년 12월 20일부터 1637년 2월 9일까지 의병에 참여했을 때의 주요 일정과 주변의 동정을 적은 倡義日錄이 있고, 말미에 신점·강난형·장석영(申沾·姜蘭馨·張錫英)이 창의록(倡義錄)에 붙인 발문 등이 실려 있다. 卷5에는 신적도의 학행과 충절 등을 적은 유사·행상·묘표·묘갈명(遺事·行狀·墓表·墓碣銘) 및 단구서원(丹邱書院) 배향 관련 봉안문(奉安文)과 축문(祝文), 1867년 이조참의(吏曹參議) 추증과 관련된 상계·초계·교지(狀啓·草啓·教旨) 및 고유문·상언·통문(告由文·上言·通文) 등이 실려 있다. 卷6에는 장현광·정온(張顯光·鄭蘊) 등이 신적도에게 보낸 10편의 편지를 모은 사우유찰(師友遺札), 정유숙(鄭惟熟) 등이 지은 3편의 제문, 김응조(金應祖) 등이 지은 22수의 만사, 강난형(姜蘭馨) 등이 1867년 신적도의 이조참의 추증을 기념하여 지은 39수의 축시(祝詩)가 실려 있다.

저자소개

신적도(申適道)

1574~1663(선조 7~현종 4). 字:士立, 號:虎溪, 本貫:鵝洲, 父:屹, 母:順天朴氏, 居:義城.

신적도는 좌승지에 추증된 성은 신흠(城隱 申僉)과 부위 박윤(副尉 朴倫)의 딸 순천 박씨 사이에서 1574년(선조 7) 12월 29일 의성 도암리(義城 陶巖里) 집에서 출생하였다. 할아버지는 원록(元祿)으로 이황과 주세붕에게 수학하여 효학(孝學)으로 정려되었으며, 후에 호조참의에 추증되고 장대서원(藏待書院)에 배향되었다. 신적도는 신우·신원록(申祐·申元祿) 등 충효를 중시하는 가학(家學)의 연원을 이었고, 또한 정구(鄭逵)와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 출입하여 李滉의 학문을 계승하였다. 1605년(선조 38) 향시에 장원하자 유성룡(柳成龍)이 그 재주를 칭찬하였고, 1606년 막내 열도(悅道)와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14년(광해군 6) 부모상을 당하자 정성을 다하여 3년상을 치렀다.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론(廢母論)에 가담하였던 정조(鄭造)가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1620년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에 와서 원안(院案)에 이름을 적고 가자 칼로 없애버렸고, 후일 심문에 임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였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 장현광이 의성현의 의병장으로 추천하였고, 의병을 규합하여 북상하던 중 강화가 이미 체결되자 식량을 서울로 수송하고 대궐에 가서 척화의 상소를 올렸다. 임금이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 비답을 내리고 상운도찰방(祥雲道察訪)에 임명하였다. 부임한 뒤 몇 년이 되지 않아 말을 살피우고 백성들을 소생하게 하였으나 병이 들어 돌아가게 되자 백성들이 비석을 세워 공덕을 기렸다. 1632년 제능참봉(齊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다시 건원능참봉(健元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은숙배하고 돌아갔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의병을 이끌고 광주 남한산성(廣州 南漢山城)으로 들어갔으나 이미 강화를 체결하는 과정인지라 상소를 올려 척화(斥和)가 나라를 그르치는 일임을 역설하고, 김상헌·정온(金尙憲·鄭蘊) 등과 통곡한 뒤 칠언절구 1수를 지어 자신의 뜻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1월 30일 임금이 끝내 淸主에게 항복하기에 이르자 고향으로 돌아와 학산 미곡(鶴山 薇谷) 아래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강학(講學)을 하며 지내다가 1663년(현종 4) 7월 1일 正寢에서 90세로 임종하였다. 12월 20일 안평면 응봉(安平面 鷹峯)에 장례를 지냈다. 부인은 집의 사철(執義 師哲)의 현손녀이자 첨정(僉正) 순(淳)의 딸 파평윤씨(1574~1660)로 4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집·균·채·점(堦·均·塚·玷)이고, 딸은 김상각(金尙珏)과 정부형(鄭復亨)에게 출가하였다.

저자는 평소 동생 달도·열도(達道·悅道)와 시문을 수창하며 형제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였으며, 이준·정은·조경·전식·김응조·유진(李俊·鄭蘊·趙綱·全湜·金應祖·柳軫) 등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다. 1856년(철종 7) 고을 사람들이 단구서원(丹邱書院)을 건립하여 배향하였고, 1867년(고종 4) 암행어사 박선수(朴瑄壽)의 장계로 인하여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책목록

호계선생유집(虎溪先生遺集)

호계집 권지일(虎溪集 卷之一)

호계선생유집서(虎溪先生遺集序)

가(歌)

채미가(採薇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서자 백이숙제(伯夷叔齊)처럼 학산(鶴山)에 올라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절의를 지키겠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조(操)

학산구조(鶴山九操)

학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읊으면서 조정과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9편의 작품에 담았다

시(詩)

호계정사(虎溪精舍)

한거(間居)

진보[열도]제여김효징[응조]자갈산래도, 음성일절, 어극비창, 수화루이차. (晉甫[悅道]弟與金孝徵[應祖]自葛山來到、吟成一絕、語極悲愴、遂和淚以次。)

형보[달도]진보이제, 이세만하, 이검오돌, 분운영회, 사치부범, 난연가관. 여독부가무일어, 수구졸이시. [기미](亨甫[達道]晉甫二弟、以歲晚何、以黔吾突、分韻詠懷、詞致不凡、爛然可觀。余獨不可無一語、遂構拙以示。[己未])

무흘월야우음(武屹月夜偶吟)

배려헌선생우암재인강계사유감(拜旅軒先生于巖齋因講繫辭有感)

증별리석담[윤우](贈別李石潭[潤雨])

독회재선생집유감(讀晦齋先生集有感)

謁陶山院仍講先生集(謁陶山院仍講先生集)

영세심정(詠洗心亭)

讀離騷(讀離騷)

야송감흥시(夜誦感興詩)

문로병범경(聞虜兵犯境)

병자십이월, 적함강도. 빈궁숙의원손이대군부마공주병입핍축전월, 흑피창락투강, 운부승비분. (丙子十二月、賊陷江都。嬪宮淑儀元孫二 大君駙馬公主并入逼逐顛越、或被搶掠 投江、云不勝悲憤。)

상출도성, 향남한병. 일러반루, 야부침. 군료근시, 흑지동뇌운. 급차시, 신자분. 의고륙병투란, 탈위순절. 고수두려, 수량직. 부행재. (上出都城、向南漢併。日糲飯屢、夜不寢。羣僚近侍、或至凍餒云。及此時、臣子分。義固 勒兵投亂、脫危殉節。故遂糾旅、輸糧直。赴 行在。)

창의서부도중구점(倡義西赴途中口占)

광릉성음시동의제공[정동계은조룡주경김청음상헌](光陵성음시동의제공[鄭桐溪蘊趙龍洲綱金淸陰尙憲])

송별삼학사[홍익한, 오달제, 윤집](送別三學士[洪翼漢、吳達濟、尹集])

문김엽지쌍령패몰(聞金燁至雙嶺敗沒)

적퇴후, 낙중제우유소집정요, 수시이사. (賊退後、洛中諸友有小集請邀、遂詩以謝。)

화리백헌상공[경석](和李白軒相公[景奭])

환향(還鄉)

도삼탄유감(到三灘有感)

왕고회당부군이효학정증, 축감음。(王者悔堂府君以孝學旌贈、逐感吟。)

채미헌우제(採薇軒偶題)

지재지감(智齋志感)

영김송은[광수]만년송(詠金松隱[光粹]萬年松)

차권자정[수경]자악당운(次權子正[守經]自樂堂韻)

우차자정천운대운(又次子正天雲臺韻)

서애선생만(西厓先生輓)

한강선생만(寒岡先生輓)

여헌선생만(旅軒先生輓)

만정우복[경세](輓鄭愚伏[經世])

만인재최공[현](輓訥齋崔公[峴])

만오봉종장[지제](輓梧峯宗丈[之悌])

만리경정[민성]이수(輓李敬亭[民成]二首)

만신하음[즙](輓申河陰[楫])

만리자암[민환](輓李紫巖[民奩])

만권호양[익창](輓權湖陽[益昌])

만최완해[산휘](輓崔完海[山輝])

만김좌랑[회](輓金佐郎[淮])

만종제여원[지도](輓從弟汝遠[志道])

소(疏)

청파화의소[정묘](請罷和議疏[丁卯])

정묘호란 때에 강화 체결을 반대하며 올린 상소. 우리나라는 명나라와의 대의(大義)가 중요한데, 이제 오랑캐의 침입으로 인하여 강화를 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성덕을 그르치고 후세에 비웃음을 받을 일이니 화의(和議)를 물리치고 대의를 펼치기를 청하였다

청척화소[병자](請斥和疏[丙子])

병자호란 때에 척화를 주청한 상소. 오랑캐의 침범으로 종묘사직은 강화도에 달려 있고 임금은 남한산성에 몽진하였으니 전장에 나아가 국난에 목숨을 바칠 때이다. 그런데 나라를 그르치는 화의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오랑캐와 군신의 관계를 맺어 백성을 오랑캐로 만드는 것이다. 임진왜란을 극복하였듯이 君臣 상하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이 급선무이니 빨리 화의를 물리쳐서 기강을 세우기를 청하였다

삼열사[김엽김욱김찬]포렬상언(三烈士[金燁金煜金燦]褒烈上言)

의성 출신 3형제 김엽·김욱·김찬(金燁·金煜·金燦)이 1637년(인조 15) 1월에 전사하자 그들의 의열(義烈)을 포장하여 줄 것을 청한 上言. 김엽 등은 김진고(金振古)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여 정묘호란 때에 창의하였고,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신의 휘하에 들어와 쌍령(雙嶺)에 이르러 적병과 싸우다가 삼형제가 함께 전사하였다. 김엽 등 삼형제의 의열을 포장하여 그들을 위무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서(書)**상한강정선생(上寒岡鄭先生)**

한강 정구(寒岡 鄭逋) 선생에게 올린 편지. 5월 20일에 평안하다는 편지를 받고 위로가 되지만 가르침을 저버리고 벗들의 기대를 잃어 두렵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는 퇴계 선생이 일생의 공력을 들여 10책으로 초선(抄選)하여 후세에 전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 인출(印出)하려는 논의가 문하에서 나왔을 때 선생이 그만두게 한 것은 지극한 교훈이다. 지난 날 무흘(武屹)에서 강정(講定)한 논의는 매우 정당하다

상한강선생(上寒岡先生)

한강 정구 선생에게 올린 편지. 문하를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모함이 깊다. 요즘 다섯 선생의 예설(禮說)을 절충하여 일통(一統)하였으니 사문(斯文)의 은혜라 할 수 있다. 저는 근래 태만하여 죄를 얻음이 깊은데, 가르침을 주어 전일의 잘못을 보정(補正)하였으면 한다

상여현장선생(上旅軒張先生)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 선생에게 올린 편지. 선생을 떠나온 뒤 아버이를 모시느라 공부에 힘을 쓰지 않아 매양 한탄이 끊이지 않는다. 조만간에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여정우복 (與鄭愚伏)

우복 정경세(愚伏 鄭經世)에게 보낸 편지. 후금이 침입하여 국가가 어려운 지금 의병장에 추대되었으나 忠勇信威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충분(忠憤)이 격발되어 사양할 수 없으니 군량(軍糧)을 모집하여 발행하려고 한다

여정우복 (與鄭愚伏)

우복 정경세에게 보낸 편지. 현인(賢人)을 사당에 배향함은 우리나라에서 우선으로 하는 바이다. 이제 尙州 경현사(景賢祠)에 충효를 겸전한 고려말의 명신 신우(申祐)를 배향하려 하니 고을의 인사들이 모두 기뻐한다. 그런데 신우의 무덤에 위의를 갖추기 위하여 비갈(碑碣)을 세우려 하니 비문(碑文)을 지어주기 바란다

여이창석(준,1627) (與李蒼石(竣,1627))

창석 이준(蒼石 李竣)에게 보낸 편지. 정묘호란이 일어나 국가가 위급한 지금 그대가 경상도의 관향사(管餉使)가 되었고, 나는 여러 읍의 의병장이 되어 병량(兵糧)을 모집하여 국난에 나가기 위해 수일 내로 출발하려 한다. 本陣이 지나는 고을에 군수물자를 조달하여 나라의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면 다행이다

여이백헌(경석) (與李白軒(景奭))

백헌 이경석(白軒 李景奭)에게 보낸 편지. 가을날 안부를 묻고 보살핌으로 직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책이 없고 백발이 생겨 서글프다

답정동계(온) (答鄭桐溪(蘊))

동계 정온(桐溪 鄭蘊)에게 답한 편지. 서로 병이 들어 방문할 수 없음이 안타깝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미산(薇山)에 정자를 지어 여생을 마치려 한다. 그러나 서북쪽의 소식을 들으니 분노가 일고 옛날 함께 하던 사람들과 같이 죽지 못함이 한스럽다

여유수암(진) (與柳修巖(疹))

수암 유진(修巖 柳疹)에게 보낸 편지. 외진 곳에 머물며 탄식하는데, 요즘 『대학(大學)』 몇 조목을 보며 조금 본지(本旨)를 알게 되었으나 명백히 질정할 수 있는 이가 없어 적어 보내니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

여김군신(수인) (與金君愼(守訥))

군신 김수인(君愼 金守訥)에게 보낸 편지. 서울에서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온 뒤 그리움이 심하다

여김이를(치관) (與金而栗(致寬))

이를 김치관(而栗 金致寬)에게 보낸 편지. 병이 들어 기력이 쇠해지고 그대를 찾아가고 싶지만 방도가 없다. 어제 사제(舍弟)의 글을 받고 조정에서 재해를 입은 여러 고을에 창고의 쌀을 쫓아내고 하여 백성들이 소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로 만날 수 없어 매우 한탄스럽다

여업유재회중 (與業儒齋會中)

의성 업유재(業儒齋)의 회원에게 보낸 편지. 병이 점점 심해져 고생하고 있다. 지난날 주세봉(周世鵬)이 백운서원(白雲書院)과 업유재(業儒齋)를 세워 현사(賢士)를 존양(尊養)하는 장소로 삼아 후학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제 우리 고을에 주세봉이 했던 전례를 따라 장천원(長川院)과 업유재를 세웠다. 이후 우리 고을에 사풍(士風)이 진작되리니 여러 군자들은 업유재를 세운 본 뜻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한다

기백아집 (寄伯兒堦)

큰아들 신집(申堦)에게 보낸 편지. 후금군(後金軍)의 침입으로 병량(兵糧)을 모집하여 서북으로 진군한 지 10여일인데, 죽기를 각오하고 진격할 것이다. 용병(用兵)은 식량이 중요하니 너는 식량 모집을 독려하여 끊어지는 근심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기숙아채 (寄叔兒塚)

셋째아들 신채(申塚)에게 보낸 편지. 몇 달 전에 집을 떠나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안부를 걱정한 뒤 사서(四書)와 낙민(洛閩)의 여러 서적, 퇴계(退溪)의 유집(遺集)을 읽어 국가에서 선비를 기르는 본뜻을 저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기계아점 (寄季兒玷)

막내아들 신점(申玷)에게 보낸 편지. 여러 달 집을 떠나 집안 소식이 궁금한데, 너는 독서에 지나치게 힘을 써서 건강을 해치지 말고, 지금 읽고 있는 성현의 글은 뜻이 매우 어렵지만 잠심하여 궁구한다면 자득(自得)할 수 있으리니 힘쓰라고 당부하였다

호계선생유집권지이(虎溪先生遺集卷之二)

잡저(雜著)

상한강정선생 (上寒岡鄭先生)

한강 정구(寒岡 鄭逋) 선생에게 올린 편지. 5월 20일에 평안하다는 편지를 받고 위로가 되지만 가르침을 저버리고 벗들의 기대를 잃어 두렵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는 퇴계 선생이 일생의 공력을 들여 10책으로 초선(抄選)하여 후세에 전하려고 한 것이다. 당시 인출(印出)하려는 논의가 문하에서 나왔을 때 선생이 그만두게 한 것은 지극한 교훈이다. 지난 날 무흘(武屹)에서 강정(講定)한 논의는 매우 정당하다

상한강선생 (上寒岡先生)

한강 정구 선생에게 올린 편지. 문하를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사모함이 깊다. 요즘 다섯 선생의 예설(禮說)을 절충하여 일통(一統)하였으니 사문(斯文)의 은혜라 할 수 있다. 저는 근래 태만하여 죄를 얻음이 깊은데, 가르침을 주어 전일의 잘못을 보정(補正)하였으면 한다

상려현장선생 (上旅軒張先生)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 선생에게 올린 편지. 선생을 떠난 뒤 아버이를 모시느라 공부에 힘을 쓰지 않아 매양 한탄이 끊이지 않는다. 조만간에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상여헌선생(1627) (上旅軒先生(1627))

여헌 장현광 선생에게 올린 편지. 정묘호란 때 장현광이 경상도 호소사(號召使)에 임명되어 자신을 의병장에 임명하자 평소에 들은 바는 충孝이니 병량(兵糧)을 모집하여 지휘를 따르고 조정에 보답하고자 한다

성설 (性說)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논한 說. 공자와 맹자 이후 순자·양자·한자·소씨·호씨(荀子·楊子·韓子·蘇氏·胡氏) 등이 나와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여러 이론을 내었지만 물의 성질을 예로 들어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함을 강조하였다

심설 (心說)

심(心)의 작용에 대하여 논한 설(說). 심(心)은 성(性)과 지각(知覺)을 합한 활물(活物)로 성정(性情)을 체용(體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動靜)에 있어 늘 심(心)을 잡고 있지 않으면 안됨을 역설하였다

정의변 (情意辨)

정(情)과 의(意)에 대하여 분석한 변(辨). 정(情)은 성(性)이 동(動)한 것이고 의(意)는 심(心)이 발(發)한 것으로 정의는 선후 관계에 있지만 심성(心性)의 작용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지의변 (志意辨)

지(志)와 의(意)에 대하여 분석한 변(辨). 지와 의는 마음이 동한 바이나 志는 공·강·양(公·剛·陽)하고 의는 사·유·음(私·柔·陰)하여 둘 사이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심성정지의변 (心性情志意辨)

심·성·정·지·의(心·性·情·志·意)의 맥락과 선후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변(辨). 주자(朱子)와 북계진씨(北溪陳氏) 등의 학설을 인용한 뒤 다섯 가지의 선후를 사람이 가는 길과 물이 가득 찬 그릇에 비유하여 성→심→정→지→의(性→心→情→志→意)로 풀이하였다. 사람이 가는 길에 비유하면 길은 성(性)이고, 사람은 심(心)이고, 발을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것은 정(情)이고, 발을 움직여 길을 가는 것은 지(志)이고, 길을 가며 몇 리를 갔는지 헤아리는 것은 의(意)라고 하였다

인의예지설 (仁義禮智說)

인의예지(仁義禮智)에 대해 논한 설(說). 태극→음양→오행→만물(太極→陰陽→五行→萬物)의 변환 과정에서 인간이 만물에서 가장 존귀한 이유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성(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맹자·주자·호운봉(孟子·朱子·胡雲峯) 등의 설과 사단·사덕·사행·사방·사장(四端·四德·四行·四方·四臟) 등을 들면서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체용(體用)의 미묘함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무극이태극설 (無極而太極說)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임을 논한 설(說). 주돈이의 무극이태극설(無極而太極說)을 인용하여 무극과 태극은 동일한 개념으로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을 주재하는 근본임을 밝혔다.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 한 것은 무극(無極)만을 쓴다면 공적(空寂)에 빠질까 염려해서이다

음양설 (陰陽說)

음양(陰陽)이 천지와 인물의 무한한 순환을 주관하는 원리임을 논한 설(說).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는데, 오행·사덕·사방·사단(五行·四德·四方·四端)은 물론이고 천지만물의 모든 것이 음(陰)과 양(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순환과 동정(動靜)이 끊임없이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용학도후식 (庸學圖後識)

중용도(中庸圖)와 대학도(大學圖)에 붙인 글.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은 규모가 같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두 책의 본문과 장구(章句), 소주(小註) 등에서 긴요한 것을 취하여 량도(兩圖)를 만들었으니 배우는 사람들이 입덕(入德)과 입도(入道)의 방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하였다

가계오조 (家戒五條)

집안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수신·제가·무농·독서·취우(修身·齊家·務農·讀書·取友) 등 다섯 조목을 적고 자세하게 풀이한 글. 수신(修身)은 입심·성경·시청언동(立心·誠敬·視聽言動)을 총괄하고 바탕으로 하니 수신이 매우 중요하고, 제가(齊家)는 부자·형제·부부(父子·兄弟·夫婦)

의 정륜(正倫)에 달려 있다. 무농(務農)은 진력(盡力)에 달려 있으니 때에 맞추어 농사를 짓고 힘을 다한다면 처자를 양육하여 굶주림을 면할 수 있다. 독서(讀書)는 방심(放心)을 구함에 달려 있으니 독서할 때에는 마음을 바로잡아 구독(句讀)하여야 한다. 취우(取友)는 나보다 나은 사람을 선택하여 나의 덕업(德業)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

채미헌기(1638) (採薇軒記(1638))

1638년(인조 16) 8월 의성 동쪽의 薇谷 아래 성동(城洞)에 채미헌(採薇軒)을 건립한 뒤에 지은 기문(記文). 채미헌 주변의 지리와 풍경을 적은 뒤 임진왜란 때에 집안 식구를 이끌고 미곡에 들어간 적이 있었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창의(倡義)하여 척화를 주장한 적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 미곡에 몇 칸의 모옥(茅屋)을 지어 채미헌이라 이름을 짓고 여생을 마치려 한다

채미헌상량문(1638) (採薇軒上梁文(1638))

1638년 채미헌을 세울 때에 지은 上梁文.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끝내 강화가 체결되어 모든 일이 어그러지게 되었다. 백이숙제(伯夷叔齊)의 절의를 사모하여 미곡에 집을 짓고 명나라 신종(神宗)의 옛 은혜를 생각하며 살려고 한다

잠명(箴銘)

존양잠 (存養箴)

존심양성(存心養性)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한 箴. 흐르는 세월 속에 어딘가에 치우치지 않고 天理를 함양하면서 살겠다

성찰잠 (省察箴)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근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피력한 잠(箴). 일과 생각이 서로 작용하여 선악(善惡)이 나누어지게 되니 근신하면서 사물의 기미를 살피고자 한다

동벽명 (東壁銘)

동쪽 벽에 자신이 지향하는 삶에 대하여 적은 명(銘). 인욕을 억제하고 천리를 보존함에 조금도 소홀하게 하지 않아 성현(聖賢)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서벽명 (西壁銘)

서쪽 벽에 유학의 道統에 대하여 적은 銘. 유학의 도통은 복희·요순·우탕·문무(伏羲·堯舜·禹湯·文武)·주공과 소공·공자·증자·맹자·주돈이·정호와정이·장재·소옹·주희로 이어져 찬란히 빛난다고 하였다

제문(祭文)

퇴재선조원향시제묘문 (退齋先祖院享時祭墓文)

퇴재 신우(退齋 申祐)를 속수서원(涑水書院)에 배향할 때 무덤에 제사를 올리면서 지은 제문. 고려말에 태어나 충직한 관리로 활동하였으나 나라가 망한 뒤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지극한 효성으로 대나무가 돌아나서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이제 고을에서 사당을 세워 배향하게 되었기에 후손들이 묘제(墓祭)를 지내면서 고한다

제한강선생문(1620) (祭寒岡先生文(1620))

한강 정구(寒岡 鄭逵)(1543~1620)의 죽음을 애도하고 덕행을 기린 제문. 정구 선생은 도덕을 겸비한 유림의 종장으로 임금께 충성하고 후학 양성에 힘썼으나 이제 돌아가시니 슬픔을 그칠 수가 없다

제여헌선생문(1637) (祭旅軒先生文(1637))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1554~1637)의 죽음을 애도하고 덕행을 기린 제문. 장현광 선생은 학문의 연원이 깊고 산림에 뜻을 두면서도 임금께 주소(奏疏)를 올려 극론하였는데, 이제 돌아가심에 한바탕 통곡한다

제이경정문(대빙계유생작,1629) (祭李敬亭文(代氷溪儒生作,1629))

빙계서원(氷溪書院)의 유생을 대신하여 경정 이민성(敬亭 李民歲)(1570~1629)의 죽음을 애도한 제문. 어려서 과거에 급제하여 시문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일처리에 치밀하였다. 우리 고을의 서원은 공에게 힘입은 바가 큰데 갑자기 죽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술잔을 올린다

제신하음문(1639) (祭申河陰文(1639))

하음 신즙(河陰 申楫)(1580~1639)의 죽음을 애도한 제문. 공은 나의 지기(知己)로 재주가 뛰어났으나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에 술잔을 따르며 애도한다

제중제수찬문(1631) (祭仲弟修撰文(1631))

수찬(修撰)을 역임한 동생 신달도(申達道)(1576~1631)의 죽음을 애도한 제문. 우리 형제는 1614년에 부모상을 당한 이후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작년에 계수(季嫂)·누이·사위가 연달아 죽고 올해 또 네가 죽으니 매우 슬프다. 너는 효친(孝親)의 정성과 忠君의 절개가 있었는데, 하늘이 이리 빨리 너를 데리고 가니 의지할 이도 없어 슬픔이 끝나지 않는다

호계선생유집권지삼(虎溪先生遺集卷之三)

창의록(倡義錄)

서(1868) (序(1868))

1868년(고종 5) 10월 김대진(金岱鎭)이 창의록(倡義錄)에 붙인 서문. 군여(軍旅)는 조두(俎豆)에 포함되어 있어 유자(儒者)가 힘쓸 바가 아닌데, 신적도(申適道)가 바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다. 공은 어려서 정구와 장현광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사문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창의하여 척화를 주장하였고, 난리가 끝난 뒤에 산림에 은거하다 세상을 마쳤다. 1867년에 도학과 총절로써 이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후손들이 문집 약간 권과 정병록(丁丙錄) 1책을 내어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기에 적는다

지략(1637)3(誌略(1637))

신적도가 병자호란이 끝난 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관련 문자를 모아 엮은 책에 붙인 글. 나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창의(倡義)하였으나 강화가 이루어져 통곡하며 돌아왔다. 전후의 여러 문자와 日記, 조목 등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통유일향사우문(1627) (通諭一鄉士友文(1627))

정묘호란 때 의성 고을의 士友들을 효유(曉諭)하기 위하여 돌린 통문(通文). 오랑개가 침입하여 조정과 국토가 유린되고 있으니 선비들은 충의를 떨쳐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워 공을 세우기를 바란다

재유문(1627) (再諭文(1627))

정묘호란 때 의성 고을의 사우(士友)들에게 돌린 두 번째 통문(通文). 평소 독서하고 의리를 강구하던 선비들은 국가의 변란을 만난 지금 목숨을 바쳐 국난에 나가 충의를 떨쳐야 한다

삼유문(1627) (三諭文(1627))

정묘호란 때 의성 고을의 사우들에게 돌린 세 번째 통문(通文). 나라가 난리를 만나 임금이 몽진한 지금 충의를 떨쳐 일어나야 한다. 의병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후일 임금께 아뢰어 죄를 줄 것이니 세 번째 통문에 호응하여 참여하기를 바란다

유각면모속유사문(1627) (諭各面募粟有司文(1627))

정묘호란 때 의성 각면(各面)에서 곡식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돌린 글. 오랑개가 침입하여 나라가 어지러운 지금 군량 모집이 시급하니 각면(各面)에서 곡식 모으는 일을 독려해야 한다

후록(1627) (後錄(1627))

정묘호란 때 의성 각면(各面)에서 군량(軍糧)과 군기(軍器) 등의 모집을 독려하기 위하여 11개의 조목을 적어 보낸 후록(後錄). 각면(各面)에서 군량(軍糧)과 군기(軍器) 등을 모집하는 담당자는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거행하되 한량·향리·역리·사포수(閑良·鄉吏·驛吏·私砲手) 등을 모두 의병으로 데려오고, 군기(軍器)는 본읍(本邑) 관아의 군기를 변통하고, 군량은 서로 상의하여 모으되 의병에 참여할 수 없는 이는 군량으로 대신토록 하고, 군량과 군기의 수송은 고을의 모든 사람을 차출하여 수행하고, 활쏘기와 총 쏘기에 능한 이는 죄를 지었어도 의병에 가담하러 한다면 허락한다. 이러한 조항을 따르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하여 조정에 알릴 것이다

정좌도호소사(장현광)문(1627) (呈左道號召使(張顯光)文(1627))

정묘호란 때 경상좌도 호소사 장현광(號召使 張顯光)에게 올린 글. 오랑캐가 쳐들어와 나라가 어지러운 지금 선생께서 호소사로 와서 병량 모집을 독려하니 신하된 직분으로 충의를 떨쳐 일어날 때이다. 영을 따라 의병을 이끌고 나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며 차차 상황을 보고하고자 한다

정우도호소사(정경세)문(1627) 8(呈右道號召使(鄭經世)文(1627) 8)

정묘호란 때 경상우도 호소사 정경세(號召使 鄭經世)에게 올린 글. 의병을 이끌고 가던 도중 영이 이정훈(營吏 李廷薰)이 전달한 글 속에서 강화를 체결하려 한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지난날 임진왜란 때에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 종묘사직을 보존했는데, 지금 강화를 맺는 것은 부당하며 앞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 싸워서 종묘사직을 보존하려 한다

의소전령(1627) (義所傳令(1627))

의소(義所)에 보낸 전령(傳令). 호소사(號召使)의 관문(關文)을 보고 사기(士氣)가 진작되었다. 의성은 문헌의 고장이자 충효의 고을로 국난을 당한 지금 여러 동지(同志)가 충의로 떨쳐 일어나 적과 싸우고자 한다. 이제 군기와 군량을 갖추고 영에 따라 의병을 진격시켜 적과 싸워 공을 세우고자 하니 여러 사람들은 힘쓰기 바란다

의소방유(1627) (義所榜諭(1627))

의소(義所)에서 군량 모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한 글. 옛날부터 군량 모집은 군사의 급무였는데, 지금 조정에서 관향관(管餉官)을 파견하여 군량을 모집하러 하니 의병에 동참하는 여러 임원들은 힘써 참여해야 한다

교서(부,1627) (敎書(附,1627))

정묘호란 때 인조(管餉官)가 창의(倡義)하여 오랑캐와 싸울 것을 독려한 교서(敎書). 오랑캐가 침입하여 평안도와 황해도가 함락되고 나는 강도(江都)로 몽진하였으며, 적들은 안주(安州)를 지난 이후부터

여러 차례 글을 보내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거절하고 있다. 군대가 패하고 군량이 떨어지는 등 전황이 매우 불리하니 충신열사가 창의할 때이다. 수령과 사민(士民)은 병마(兵馬)를 조달하고 식량을 운반하여 목숨을 아끼지 말고 국난(國難)에 나간다면 후하게 상을 내릴 것이다

유중외대소신료기로군민한량등(1627) (諭中外大小臣僚耆老軍民間良等(1627))

정묘호란 때 仁祖가 중앙과 지방의 대소 신료와 기로·군민·한량(耆老·軍民·閑良) 등에게 내린 유서(諭書). 나의 부덕으로 이괄(李适)의 난이 있었고, 이제 또 오랑캐가 침입하여 나라와 백성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동안 백성의 신망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병량(兵糧)도 부족하고 지용(智勇)을 갖춘 이도 힘을 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다. 호패(號牌)를 태우고 군적(軍籍)을 정리하여 유신(維新)하려고 하니 중외(中外)의 士民들은 충의(忠義)를 떨쳐 의병과 군량을 모집하고, 국난에 나가 힘써 싸우기를 바란다

선유삼도사민(1627) (宣諭三道士民(1627))

정묘호란 때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충청·전라·경상 3도의 士民들에게 내린 선유서(宣諭書). 오랑캐가 침입하여 임금은 강도로 파천(播遷)하고 나는 분조(分朝)를 이끌고 남쪽으로 가고 있다. 삼남의 백성들은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때에도 창의하여 국난을 극복하였다. 이제 오랑캐가 침입하여 위태로운 지금 병량(兵糧)을 모집하여 강도를 호위하고 한강과 임진강을 막는다면 중흥의 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임금께서 호패를 불사르고 실제 군안(軍案) 이외의 것을 없애버리고, 죄수를 석방하고 백성들의 폐단을 없앴으니 창의(倡義)하여 공을 세우도록 하라

의소초유문(1627) (義所招諭文(1627))

창의(倡義)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소(義所)에 보낸 글. 教旨의 간절한 뜻을 보니 지금은 충신과 의사가 의병에 참여하여 임금의 위급을 구하고 신하된 자의 도리를 해야 할 때이다

호소사관(부,1627) (號召使關(附,1627))

정묘호란 때 호소사가 경상도 열읍에 내려 보낸 관문(關文). 국가가 불행하여 오랑캐가 침입한 지금 호소사의 명을 받아 병량 모집을 독려하게 되었다. 여러 고을에서는 의병을 규합하고 군량을 모집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향교와 서원, 향소(鄉所), 대소의 인원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병량 모집에 참여하고, 군량을 많이 모집하는 자는 임금께 알려 조치하도록 하겠다

관향사관(정묘이월초륙일도부,1627) (管餉使關(丁卯二月初六日到付,1627))

관향사 이준(李俊)이 경상도 여러 고을에 내려 보낸 관문(關文). 나(李俊)는 어가가 강도로 파천한 지금 영남의 관향사로 임명되었고, 장현광과 정경세는 경상도 호소사가 되어 군량을 독려하고 있다. 군량은 전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바이니 원근에서 재물을 가벼이 하고 의를 중시하여 적극적으로 군량 모집에 참여하기 바란다

호계선생유집권지사(虎溪先生遺集卷之四)**창의록(倡義錄)****유일향대소인원문(1636) (諭一鄉大小人員文(1636))**

병자호란 때 의성의 士民들에게 병량 모집에 동참하기를 독려한 유문(諭文). 오랑캐가 침입하여 변방의 성이 함락되고 어가가 파천하여 나라의 형편이 누란지세(累卵之勢)이니 이 글을 보는 이들은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적을 토벌하는 데에 나서 충의를 다해야 한다

후록(1636) (後錄(1636))

병자호란 때 의성의 사민들에게 군량(軍糧)과 군기(軍器) 등의 모집을 독려하기 위하여 5개의 조목을 적어 보낸 후록(後錄). 각면(各面)의 유사(有司)는 병량을 모집하되 협박하여 받지 말고, 부유한 집안들이 재물을 내도록 하여 군수(軍需)에 보탬이 되게 하고, 군량은 미리 작미(作米)로 만들어 운반하고, 군량을 낸 이들을 책자로 만들어 올려 보내면 임금께 아뢰어 후일 논공행상의 바탕으로 삼겠다

통유도내문(1636) (通諭道內文(1636))

병자호란 때 창의(倡義)에 동참하기를 독려하기 위하여 경상도 여러 고을에 보낸 통문(通文). 오랑캐가 10년 만에 다시 침입하여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 나는 초야의 선비이나 화급한 이때를 만나 의병을 일으켜 국난에 나가고자 한다. 경상도 여러 고을의 士民들은 충의를 떨쳐 일어나 무리를 규합하고 관군과 협동하여 적을 토벌해야 한다

절목(1636) (節目(1636))

병자호란 때 창이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도 여러 고을에 보낸 14개의 절목(節目). 관청에서 미처 징발하지 않은 장정을 모집하고, 정예 선발에 힘쓰고, 의병과 관군이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군량 모집에 동참하도록 적극 깨우치고, 병량(兵糧)을 모집하면 반드시 책자에 적고, 각 고을의 사포수(私砲手) 중에서 관군에 속하지 않은 이를 응모하여 우림위첩(羽林衛帖)을 주고, 서얼허통첩(庶孽許通帖) 300장을 조정에서 받아 종사관이 백미(白米) 10석에 내주도록 하고, 군법을 어겨 좇지 않는 자 중에서 장(杖) 20이하는 의병장이 처결하고 중한 자는 도의소(都義所)에 보고하여 시행한다

창의일록(1637) (倡義日錄(1637))

1636년(인조 14) 12월 20일부터 1637년 2월 9일까지 의병에 참여하였을 때의 주요 일정과 주변의 동정에 대하여 적은 일록(日錄). 1636년 12월 20일 창이의 뜻을 담은 유문(諭文)을 의성에 돌림. 22일 나를 의병대장으로 추대. 26일 궁수(弓手) 150명과 포수(砲手) 230여 명 및 지휘원(指揮員) 50여 명 등

합 400여 명을 이끌고 도원(桃院)에서 숙박. 27일 이른 아침에 군인에게 밥을 먹이고 비안(比安)에 도착. 28일 안계(安溪) 도착. 1637년 1월 1일 함창(咸昌) 도착. 3일 조령 동원(鳥嶺 東院) 도착. 5일 대추원(大秋院)에 도착하여 각도의 관군과 의병이 검단산(黔丹山)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들음. 6일 의성 출신의 김엽(金燁) 3형제가 3일에 쌍령(雙嶺)에서 모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음. 7일 곤주점(困酒店)에 도착하여 조정에서 강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개탄함. 9일 용인(龍仁) 도착. 10일 광주 한산(廣州 漢山)에 도착하여 강도(江都)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음. 12일 조정에서 강화를 추진하며 각도의 병사와 의병을 퇴각하도록 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함. 13일 남한산성에 들어가 김상헌·정온 등을 만나 강화의 부당함을 힘써 주장. 19일 최명길 등이 국서를 전달. 23일 오랑캐의 장사 100여 명이 칼을 들고 궐하(闕下)에 도착하여 빨리 강화하기를 요구. 26일 세자가 최명길 등을 거느리고 오랑캐 진영에 감. 27일 출성하여 강화를 체결하기로 결정함. 29일 오달제(吳達濟)와 윤집(尹集)이 척화(斥和)의 죄로 하직하고 청나라 진영에 감. 30일 임금과 세자가 출성하여 청주(淸州)에게 항복. 2월 1일 척화를 주장한 제신(諸臣)과 마주하여 통곡한 뒤 고향으로 출발. 4일 충주에 도착, 5일 조령을 넘어 문경 도착. 9일 오후에 집에 도착

후식 (後識)

아들 신점(申沾)이 창의록(倡義錄) 뒤에 붙인 후식(後識). 부군(府君)은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였으며, 광주에 도착하여 강화의 그릇됨을 주장하였다. 난리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 薇谷 아래 집을 짓고 살다가 임종하였다. 부군은 두 차례나 국난에 나가고 학덕이 높았으나 찰방과 참봉에 그쳐 온축한 바를 펼치지 못하였다. 평소에 견문한 바를 권말에 적어 붙인다

후서(1867) (後敍(1867))

강난형(姜蘭馨)(1813~1881)이 창의록(倡義錄) 뒤에 붙인 글. 호계 신적도 선생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두 차례에 걸쳐 창의(倡義)하고 척화(斥和)를 주장한 분으로 창의를 김식·정홍명(金湜·鄭弘溟), 척화는 홍익한·오달제·윤집(洪翼漢·吳達濟·尹集)과 비슷하니 대의와 높은 절개는 천추에 빛날 것이다

발(1916) (跋(1916))

장석영(張錫英)이 창의록(倡義錄) 뒤에 붙인 발문(跋文). 공은 가학(家學)과 심법(心法)의 정요(正要)를 얻어 학덕이 높았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척화를 주장하였다. 후손 돈식(敦植)이 공의 사적이 없어질까 걱정하여 공의 시문과 창의(倡義) 관련 기록을 간행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글을 부탁하기에 적는다

호계선생유집권지오(虎溪先生遺集卷之五)

부록(附錄)

유사(1667) (遺事(1667))

신채(申採)가 아버지 신적도(1574~1663)가 임종한 4년 뒤에 찬한 유사(遺事). 부군은 신홀(申仡)과 박륜(朴倫)의 딸 순천박씨 사이에서 1574년(선조 7) 12월 29일 도암리(陶巖里)에서 출생하였다. 정구(鄭逵)와 장현광(張顯光)에게 수학하여 1605년(선조 38) 향시에 장원하였고, 1606년 열도(悅道)와 함께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14년(광해군 6) 부친과 모친의 상을 당하여 3년상을 치렀고, 1620년(광해군 12) 폐모론(廢母論)에 가담하였던 관찰사 정조(鄭造)가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에 이름을 적고 가자 칼로 없애버렸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 장현광의 추천으로 의병장이 되어 창의하였고, 대궐에 나가 상소를 올려 상운찰방(祥雲察訪)에 임명되었다. 1632년 제능참봉(齊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다시 건원능참봉(健元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사은숙배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의병을 이끌고 행재소로 가서 척화오국(斥和誤國)의 상소를 올린 뒤 임금이 끝내 항복하자 집으로 돌아와 薇谷 아래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살다가 1663년(현종 4) 7월 1일 정침(正寢)에서 90세로 임종하였다. 부인은 첨정 순(兪正 淳)의 딸 파평윤씨(坡平尹氏)(1574~1660)로 계란현(鷄卵峴)에 초장(初葬)하였다가 부군이 죽은 뒤 의성현 서쪽 안평면 응봉(安平面 鷹峯)에 장례를 모셨고, 슬하에 4남 2녀를 두었다

행상 (行狀)

김도화(金道和)가 후손 상하(相夏) 등의 부탁을 받아 찬한 신적도의 행상. 선생은 1574년(선조 38) 12월 29일 의성현 도암리(義城縣 陶巖里) 집에서 출생하여 정구와 장현광에게 수학하였다. 1605년 향시에 장원하고, 이듬해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14년 부친과 모친의 상을 당하고, 1620년 관찰사 정조(鄭造)가 빙계서원(氷溪書院)의 원안(院案)에 이름을 적고 가자 없애버렸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창의하여 서울로 가서 상소를 올리고 상운도찰방(祥雲道察訪)에 임명되었으며, 1632년 제능(齊陵)과 건원능 참봉(健元陵 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의병을 이끌고 행재소로 가서 척화오국(斥和誤國)의 상소를 올린 뒤 고향으로 돌아와 학산(鶴山) 薇谷 아래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살다가 1663년 7월 1일 90세로 임종하였다. 12월 20일 안평면 응봉(安平面 鷹峯)에 장례를 지냈다. 부인은 첨정 순(兪正 淳)의 딸 파평윤씨로 집·균·채·점(堦·均·採·玷) 등 아들 넷, 김상각(金尙珪)과 정복형(鄭復亨)에게 출가한 딸 둘을 두었다. 고을 사람들이 사당을 세워 제향하고 있으며 1867년(고종 4)에 이조참의에 추증되었다

묘표 (墓表)

홍만조(洪萬朝)(1645~1725)가 찬한 신적도의 묘표(墓表). 신적도는 어려서 정구(鄭逵)와 장현광(張顯光)에게 수학하였으며, 1606년(선조 39)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14년 부모상을 만나 삼년상을 지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병량(兵糧)을 모집하여 출병하였으나 강화가 체결되자 대궐에 가서 상소를 올려 상운도찰방(祥雲道察訪)에 임명되었고, 이후 제능(齊陵)과 건원능(健元陵) 참

봉에 임명되었다. 병자호란 때 의병장으로 출병하여 행재소에 가서 상소를 올렸다. 전식(全湜)과 이경석(李景奭)이 출사를 권했으나 사양하고 귀향하여 薇谷에 초가를 짓고 거주하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부인은 兪正 淳의 딸 파평윤씨로 4남 2녀를 두었다

묘표후식(1901) (墓表後識(1901))

이종기(李種杞)가 1901년 5월에 후손 상헌(相憲)의 부탁을 받아 홍만조(洪萬朝)가 찬한 신적도의 묘표(墓表) 뒤에 붙인 글. 1856년(철종 7)에 사림(士林)이 단구(丹邱)에 서원을 세워 제향을 올리고 있고, 1867년(고종 4)에 수의사 박선수(繡衣使 朴瑄壽)가 장계를 올려 통정대부 이조참의(通政大夫 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묘갈명(병서) 13(墓碣銘(并序) 13)

이중철(李中轍)이 후손 돈식(敦植)의 부탁을 받고 김도화(金道和)가 찬한 행장을 바탕으로 하여 지은 신적도의 묘갈명(墓碣銘). 어려서 중형 정봉(從兄 鼎峯) 선생에게 수학하고, 임진왜란 때에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켰으며 아버지의 명에 따라 入山하고 난이 끝난 뒤에 장구와 장현광에게 수학하였다. 1605년 향시에 장원하고 이듬해 동생 열도(悅道)와 성균관에 입학하였다. 1614년 부모상을 당하여 삼년상을 치르고, 1627년 정묘호란 때에 거병하여 상운도찰방, 1632년 제릉참봉에 임명되었고, 1636년 의병을 일으켰으며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와 학산에 채미헌을 짓고 영재를 교육하다가 1663년에 세상을 떠났다. 孝友와 忠節로 이름이 났으며 사림이 서원을 세우고 조정에서 이조참의에 추증하였다. 부인은 파평윤씨로 4남2녀를 두었다

문소읍지 (聞韶邑誌)

신열도(申悅道)(1589~1659)가 편찬한 『문소지(聞韶志)』 중 신적도 부분을 발췌한 글. 신적도는 1606년 사마시에 급제하였고, 정구와 장현광에게 수학하여 淵源之學을 얻었다. 정묘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찰방에 임명되었고, 1632년 제릉참봉에 제수되고,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척화를 주장하였다. 학산 미곡에 집을 짓고 살다가 임종하였다

단구서원상량문(1856) (丹邱書院上梁文(1856))

1856년 단구서원(丹邱書院)을 지을 때에 유주목(柳疇睦)이 찬한 단구서원의 상량문. 신적도는 충효가 뛰어나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척화를 주장하였다. 신적도·신열도·신채(申悅道·申埰) 세 분을 단구서원에 모셔 景慕의 뜻을 부친다

봉안문(1856) (奉安文(1856))

1856년 신적도를 단구서원에 봉안할 때 지은 이돈우(李敦禹)의 봉안문(奉安文). 신적도는 충효를 겸하였으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거의하여 척화를 주장하였고, 병자호란 이후 학산 미곡에 집을 짓고 서사(書史)로 자오(自娛)하였다. 신적도·신채와 함께 가학(家學)을 계승하고 충효가 뛰어나기에 단

구서원에 모신다

상향축문 20(常享祝文 20)

신적도를 단구서원에 모신 뒤 제향(祭享)할 때 올린 축문(祝文). 신적도는 학문이 스승의 비결을 전하고 의리가 나라의 기강을 부축하였으니 제사가 끝이 없으리라고 하였다

수의박선수계문(1867) (繡衣朴瑄壽啓文(1867))

경상도 암행어사 박선수(朴瑄壽)가 1867년(고종 4) 조정에 신적도의 증직(贈職)을 주청한 啓文. 신적도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키고 상소를 올려 척화를 주장하였으며,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며 교육에 힘쓰다 임종하였다. 그의 충의(忠義)를 포장(褒獎)해야 하니 해조(該曹)에서 품신 해주기를 청하였다

정원초계(1867) (政院草啓(1867))

승정원에서 1867년에 신적도에게 증직해주기를 청한 초계(草啓). 도승지 조성하(趙性夏)는 경상도 암행어사 박선수의 별단(別單)에 의거하여 초계를 올려 도학충절(道學忠節)이 있는 고(故) 찰방(察訪) 신적도에게 증직(贈職)의 은전을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이조회계(1867) 21(吏曹回啓(1867) 21)

이조에서 1867년에 신적도의 증직과 관련하여 임금께 올린 계문(啓文). 이조판서 조석우(曹錫雨)는 경상도 암행어사 박선수와 의정부 초계에 의거하여 신적도에게 특별히 증직(贈職)의 은전을 내려주기를 청하였다

교지(1867) (教旨(1867))

철종이 1867년에 찰방 신적도에게 통정대부 이조참의(通政大夫 吏曹參議)에 추증한다는 교지(教旨). 신적도는 도학(道學)이 고명(高明)하고 충절(忠節)이 뛰어나기에 이조참의에 증직하는 전교를 내린다고 하였다

분황고유문(1867) (焚黃告由文(1867))

1867년에 신적도를 이조참의에 추증하는 교지가 내리자 무덤에 고하고 副本을 태울 때에 이조판서 한계원(韓啓源)이 찬한 고유문(告由文). 신적도는 정구와 장현광의 학문을 이었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켰으며 효우(孝友)가 뛰어났다. 200여 년 동안 덕행이 드러나지 않다가 나라에서 이조참의에 증직하니 자손에게는 영광이고 공에게는 보답이 있게 되었다

연증시고묘문(1867) (延贈時告墓文(1867))

1867년에 신적도가 이조참의에 추증되자 후손 신상하(申相夏)가 무덤에 고할 때에 찬한 글. 공은 충

결과 학행이 뛰어나 나라에서 증직의 은전을 내리니 후손들이 감격한다고 하였다

도유생청가증상언 (道儒生請加贈上言)

경상도 유생들이 신적도에게 증직(贈職)을 더해주기를 청한 상言. 충신 신적도는 어려서 정구·장현광에게 수학한 사림의 종장(宗匠)이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의병을 일으켜 척화를 주장하였고, 학산 미곡에 채미헌을 세우고 은거하며 강학하였다. 200년이 지나도 나라의 은전이 없어 울적하였는데 1867년 박선수의 장계로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 그러나 3품의 증직은 그의 정충대절(貞忠大節)과 실덕정학(實德正學)에는 미치지 못하니 증직을 높여주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사림통문(단구서원타령시) (士林通文(丹邱書院妥靈時))

단구서원에 신적도 등의 位牌를 모실 때에 지은 김석유(金奭裕)의 통문(通文). 신적도와 신열도, 신적도의 아들 신체는 덕학(德學)으로 사림이 경모하고 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충의를 떨쳤고 평소 孝友가 뛰어나 양세삼현(兩世三賢)이 배출된 명문이다. 서원에 위패를 모시면서 사림에 통문을 돌리니 많이 참석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호계선생유집권지록(虎溪先生遺集卷之六)

부록(附錄)

사우유찰 (師友遺札)

사우(師友)인 장현광·정온·이준·김응조·정유숙·최현·이경석·이민구·이경용·이당규(張顯光·鄭蘊·李峻·金應祖·鄭惟熟·崔峴·李景奭·李敏求·李景容·李堂揆) 등 10인이 신적도에게 보낸 10편의 편지. 장현광은 편지를 받고 날마다 성현의 서적에 침잠하는 것을 좋게 여겼고, 정온·이준 등은 오래 헤어진 채 만나지 못하는 아픔과 지기(知己)에 대한 그리움을 적었고, 이경용은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문하는 정을 표현하였고, 이당규는 성균관에서 몇 달 전에 떠난 신적도를 그리면서 조만간에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제문 (祭文)

정유숙·이정벽·김상원(鄭惟熟·李廷薛·金尙瑗) 등 3인이 신적도의 덕행을 기리고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3편의 제문. 정유숙은 지난날 정구(鄭逖)의 문하에서 수학할 때의 뛰어남과 임천(林泉)에서 자악(自樂)하던 풍모를 그리워하였고, 이정벽은 영남의 도학자로 성덕(盛德)과 대업(大業)을 이루었다고 하였고, 김상원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 창의한 충절을 기렸다

만사 (挽詞)

김응조(金應祖)등 21인이 신적도의 학행과 충절을 기리고 죽음을 애도하며 지은 22수의 만시. 김응조(칠언률시) · 이경석(오언률시) · 장응—(칠언율시) · 홍여하(오언율시) · 申홍망(칠언율시) · 남해준(칠언율시) · 김상원(오언율시) · 김상유(칠언고시) · 남몽뢰(칠언율시) · 김종일(칠언절구와 칠언율시 각 1수) · 박익(칠언율시) · 김상기(칠언율시) · 김시침(오언율시) · 홍인양(칠언율시) · 박정벽(칠언율시) · 침구(칠언율시) · 박회무(칠언율시) · 이이송(칠언율시) · 김현문(오언고시) · 려효민(칠언고시) · 정유(칠언율시)의 작품이 차례로 실려 있다

증은하장 (贈恩賀章)

강난형(姜蘭馨) 등 32인이 1867년 신적도를 이조참의에 추증하자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39수의 축시(祝詩). 강난형(칠언율시와 칠언절구 각 1수) · 이명적(상동) · 이휘승(상동) · 장석준(칠언율시) · 장룡규(칠언율시) · 유진휘(칠언율시, 并序) · 유지영(칠언율시) · 李用基(칠언율시, 并序) · 李驥相(칠언율시) · 李以伋(칠언율시) · 李庭德(칠언율시) · 金濟寅(칠언율시, 并序), 許元栻(칠언율시 2수) · 金容湜(칠언율시) · 黃建周(칠언율시) · 金濟源(칠언율시 2수) · 張祚遠(칠언율시) · 金炳礪(칠언율시) · 李相善(칠언율시) · 趙錫龍(칠언율시) · 丁義元(칠언율시) · 申致默(칠언율시) · 南夔壽(칠언율시) · 宋泰寅(칠언율시) · 金喆銖(칠언율시) · 丁達教(칠언율시) · 柳明均(칠언율시) · 李以鉉(칠언율시) · 金道和(칠언절구와 칠언율시 각 1수) · 申敦植(상동) · 許壩(칠언율시) · 金翰周(칠언율시)의 작품이 차례로 실려 있다. 대부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창의하여 국난에 나아갔던 충절을 기리고 경모하는 마음을 기탁하였다

후서(1901) (後敍(1901))

후손 申상헌(相憲)이 1901년 3월에 찬한 문집의 後敍. 선생은 학문이 깊고 충효의 행실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저술이 많이 유실되었기에 시문을 찾아 편집하고, 만사와 묘도문(墓道文), 봉안문(奉安文) 등을 뒤에 붙여 간행하고자 한다

발(1916) (跋(1916))

곽도(郭鎬)가 1916년 추석에 후손 申돈식(申敦植)의 부탁을 받아 찬한 문집의 발문(跋文). 후손들이 신적도의 시문 약간을 수습하여 간행하려 한다. 선생은 文武를 겸비하였고, 유편(遺篇) 중 심성(心性)에 대해 논한 여러 설(說)과 용학이도(庸學二圖), 창의록(倡義錄)에서 학문적 성취와 평생의 지향을 엿볼 수 있다

발(1918) (跋(1918))

이중구(李中久)가 1918년 9월에 찬한 문집의 발문. 역대로 도덕과 절의를 겸비한 사람으로는 정몽주(鄭夢周)와 길재(吉再), 장현광(張顯光)과 정온(鄭蘊) 등을 들 수 있는데, 선생의 유집(遺集)과 사적을 보면 두 가지를 겸했음을 알 수 있다

발 (跋)

후손 신상하(申相夏)가 1905년 3월에 찬한 문집의 발문. 아들 신채(申塚)가 유집(遺集) 7책을 편집하였고, 장차 간행하려고 宗家에 보관하였는데 1874년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다. 이에 여러 곳에서 유문(遺文)을 수집하여 겨우 문집을 편집하게 되었다

발 (跋)

후손 신돈식(申敦植)이 1919년 10월에 찬한 문집의 발문. 선생은 학문이 깊고 절의가 뛰어난 분인데, 선대부터 문집을 간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후손들이 간행하려 의견을 모았기에 몇 마디 말을 적는다

**** 참조 ****

사우유찰(師友遺札)

張顯光 貴胤陪佐郎。來獲奉喜書、蘇慰不容言。謹審 棣床友、履聯衿做況。日透古聖賢、闔域聞甚 仰。賀顯光耄敗、既劇斷事杜。伏耳懷難牘、悉...

우(又)

鄭蘊 搜溪同苦已閱四十年瞻想一念食息不弛。而地之絕遠、鱗羽無憑。及到密邇、猶未相訪。老境心緒、益切悲憐。備審兄邊消息氣候平 迪、深...

우(又)

李垞 垞啓私門不幸、小子遽爾夭折。白首號蒼、但 有搥胸而已。頃承兄札、亦有喪患。稠疊云。須 學西方解脫之法、以慈愛之...

우(又)

金應祖令姪回謹、承下札憑、審早熟尊體動靜。萬福。 鵠原之樂、融融於海山雲物之表、令人引領 起興、直欲奮袂。而苦被劫緣纏縛、不得自由。奈何時事可慮。仍圖避...

우(又)

鄭惟熟 相去不甚遠、而閱今三載。猶無一會期、老病 人事至。此瞻悵倍切、惟可幸者時。得與允兄 相對晤、語如獲親炙卽惟歲暮調況珍勝弟 喫苦...

우(又)

崔暉 千里夢想之餘、路奉情札、委人致問仰慰如何生。特蒙宥命、罔極之恩、使之生還故土。感泣之外、無以爲謝。

우(又)

李景奭 年前、一奉真適我願每想芝眉徒自悵歎。千里手翰忽墜、意表如對慰豁生年來蹤跡不在於朝在鄉時多、眼患亦劇、未得以書相候者久矣、...

우(又)

李敏求 歲律將暮遠、惟政況珍毖、稍慰。瞻想某生、衝寒冒雪、遠赴治下、望須俯採、所控曲賜、如何是生、一家人也。接遇之厚、不待生之喋喋...

우(又)

李景容 承誨兩難、兄有若識。荊州矧此托隣、尤切喜幸。卽奉惠札、感荷百倍。但聞慘遭鵠原之痛、驚悼罔已生、一行作吏無非爲親計、躡下嶺...

우(又)

李堂揆 自尊離泮、月已周矣。無騎無人、旣闕躬造。又未佯候尋、常茹恨卽。玆憑問尊旅、況平迪慰豁十分、士與公耳、又以痘患、再昨俱爲出泮...

제문(祭文)

鄭惟熟 昔我大爺、先生倡道於泗上。一世豪邁、俊逸咸歸於門牆。惟時我公早歲負笈、心期遠大、非一藝一行之名志向端的、乃有體有用之學。...

우(又)

朴廷薛 吾東文明之運、於斯爲盛。而吾南道學之士相繼而起。或因天質之美、或因師友之正。猗我先生、卽其一也。嗚乎、...

우(又)

金尙瑗 猗我先生、奮起南服。山岳之重、松柏之特。唐虞初志、玉不可匱。材可棟樑、文可黼黻。知天有命、遂乃抗節。就...

만사(挽詞)

金應祖[鶴沙]退齋遺緒悔堂傳、餘慶承承世有隳。郵館未容淹逸士、寢郎豈合送殘年。已將榮利輸蘧栩、都把生涯付簡編。耆舊卽今誰復在、仁鄉回首一潸然。

우(又)

李景奭[白軒] 夢裏祥雲路、人間九十年。庭存雙玉樹、家有一青氈。仗義輕身日、封章露膽天。空將舊情誼、沾灑寄哀篇。

우(又)

張應一[聽天堂] 師門先進衆推時、當日惟吾年少時。聖學眞 工窺閭際、皇明高節抗章時。百莫齒德稀千古、三棣輝光盛一時。洛水寒波流不盡、聲聲 嗚咽斷魂時。

우(又)

洪汝河[木齋] 一德公攸好、人間五福宜。伏生那欠壽、謝楛 却嗟卑。蓬島鸞驂去、邱原梓樹悲。自憐生苦晚、未忍紫芝眉。

우(又)

申弘望[孤松] 青春手採鳳池蓮、晚節郵驂騁海邊。一宦明 時如夢寐、九旬平日作神仙。誰知靈劍重淵 會、可占雲仍百代傳。祇是鵝宗長老盡、孤生 宇宙獨茫然。

우(又)

南海準[新村] 大孝家庭有大賢、皇天錫類理當然。早遊國 學聲聞遠、晚長郵亭施澤專。壽享耄期仁可 驗、業遵型典德無愆。病中垂淚今題挽、安得 藍輿更執鞭。

우(又)

金尙瑗[南厓] 東國名臣後、南州孝子孫。早承詩禮訓、晚被 聖明恩。郵館留仁政、雲林避世喧。存亡分此日、垂淚向荒原。

우(又)

金尙瑜 氏出鵝洲夙德升、蟬聯餘慶裕雲仍。忠能殉 國欽哉史、孝著旌門可也會。有子有孫賢又 繼、宜兄宜弟衆咸稱。攀蓮玉井初何早、攀桂 瑤宮...

우(又)

南夢賚[伊溪] 聞說吾鄉又失公、壽躋仁宅一時空。二三小 子於何考、九十光陰到此窮。篁館胡爲留夜 月、薇亭無復襲春風。身縻海徼難奔走、千里 緘詞愧素衷。

우(又)

金宗一[魯庵] 景仰清芬自幼年、悠悠長恨隔山川。一星昨 夜沉南極、永失人間地上仙。聞韶古國樂魂招、

九臺英靈上九霄。三棣芳名聯製錦、雙蘭終孝又懷瑤。危城岌...

우(又)

朴翊 蓮榜題名萬曆年、義壇重誓大明天。北門永謝青雲夢、南岳還酣白日眠。孝友傳家人不間、規繩行已自無愆。題詞遠寄難堪恨、辜角生芻置墓前。

우(又)

金尙琦 啓幅傳來取見之、辭云某月葬親期。鄉中父老猶吾老、公外孫兒又弟兄。劍會延津應此日、鶴歸華表正何時。從今薄...

우(又)

金時忱 北塞趨省日、東郵歷拜時。萍逢承眷誨、津遣荷恩私。天上星芒暗、人間耆舊萎。平生尊慕意、惟有季哀知。

우(又)

洪仁量 公家孝友已旌門、善繼風聲在弟昆。蓮榜題名聯有譽、楓墀承命政無煩。蠶牛講究人咸質、熊虎援奔衆所尊。此去肯爲泉下鬼、列仙應待...

우(又)

朴廷薛 金蘭曾許白眉君、詩禮家風夙所聞。常擬文林承範采、頻因宅相候寒溫。行藏有命身還逸、壽福無疆望益尊。責報他時天可必、佇看餘慶...

우(又)

沈玟 箕疇五福壽爲先、八臺猶遐又十年。再誓儒壇扶義老、晚歸薇谷養眞仙。重泉白髮鶴原會、舊物青氈鳳穴傳。積德如公無復憾、却驚南極晦星躔。

우(又)

朴檜茂 早年蓮榜棣華名、材器虛違遇聖明。單詮函席傳衣鉢、忠義危城仗纛旌。枌社遙吟紅苧曲、薇亭直與碧山嶸。吾衰未執歸泉紼、題挽深慚...

우(又)

李爾松 契深先子又同庚、義分平生若弟兄。早歲庠宮名始大、中年郵館宦非榮。箕裘詩禮家聲振、壽考岡陵命道亨。孤露此生常景仰、可堪今日...

우(又)

金炫文 南土多名勝、山奇水亦清。孕生仙骨聳、爭覩 德星明。詩禮能傳業、藏修豈爲名。微官才不 展、浮世路難行。聞達元非意、漁樵共結盟。機...

우(又)

呂孝閔 高標玉屑滌昏愀、雅量清談孰敢嘲。早抱荊 山和氏、璧、晚來活計海棠巢。萬事生涯風外 絮、百年身勢水中泡。殷勤誼重同瓜葛、姻婭 情...

우(又)

丁瑜 公與先君交契厚、鯁生陪席聽論辭。忠言可 尙封章日、義氣須看赴難時。安享九旬仁驗 壽、孝終雙玉蔭留枝。重泉更合延平劍、千載 精靈應共嬉。

증은하장(贈恩賀章)

晉山 姜蘭馨[叅判]退齋家裏旌雙竹、孝友相傳繼述之。大義嘗 任溪洞主、孤忠再倡廣陵師。兩賢門屏尋真訣、四子階梯講近...

우(又)

延城 李明迪[判書] 驚心曩月草城黑、天步艱難可奈之。儒服變 爲殲敵幟、鄉丁爭奮覲王師。眞卿河北知何 狀、祖狄江中克...

우(又)

眞城 李彙承[承旨] 一自荊圍冠諸子、橫流障去使東之。堂堂大 義千夫長、凜凜高風百世。師。星夜挺身惟我 職、雪天灑淚...

우(又)

仁同 張錫駿[承旨] 藉甚南州立卓然、一郵清薄老林泉。春秋大 義三綱在、家國孤心七尺捐。方知吾道終難 晦、相賀天官待...

우(又)

仁同 張龍達[承旨] 砥柱中流獨屹然、虎溪歸臥樂林泉。山河正 氣三綱立、兄弟初心一死捐。吾祖淵源遺後 裔、聖時恩渥值...

우병서(又并序)

豐山 柳進徽[判官] 惟我虎溪先生、扶綱斥和之精忠、卓節凜 乎如嚴霜秋日、而至今載在國乘、輝映千 古、豈不偉哉於乎。 ...

우(又)

豊山 柳芝榮[承旨] 天地之間賦浩然、先生道學達如泉。當時已 賀賢臣得、後世終非聖主捐。倡義葵忱惟向日、表忠荷典幸...

우[병서](又[并序])

延城 李用基[縣監] 先生以名門華裔、學有淵源、志切尊周、其 卓異不磨之跡亦足千古、而終不無學高 位卑之憾。今聖上四...

우(又)

星山 李驥相 撫劍中宵氣凜然、虎溪歸臥好林泉。壯心憂 國孤軍赴、清政居官薄廩捐。尊攘華夷明大 義...

우(又)

廣陵 李以伋 東南秀氣苑蒼然、吾道眞源混混泉。早歲從 師征邁篤、孤城赴難死生捐。天官始降崇三 品...

우(又)

固城 李庭德 華閩鵝洲有傑然、天曹恩誥耀重泉。孤臣 一介惟求是、義士千金不惜捐。偃室學成承 誨日...

又[병서](又[并序])

光山 金濟寅 自古忠臣義士之敵愾者、何限而顧其忠 義之由乎。學問進退綽綽者、罕見焉。吾鄉 之虎溪...

우(又)

河陽 許元栻 貞忠卓節日星然、赴義何如渴赴泉。衣鉢師 門曾有受、箕裘先業不虛捐。三軍激氣勤 王日...

우(又)

花山 金容湜 挺竹古家節卓然、九天恩誥及重泉。義在 扶綱先自倡、身當蹈刃頓忘捐。南州雅望今 申氏...

우(又)

箕城 黃建周 斥和扶明有孰然、虎溪風雨吼龍泉。克家君 子誠無忝、爲國賢臣義不捐。道學高明師百 世...

우(又)

光山 金濟源 天心人事兩茫然、大報壇前淚似泉。恩重 腰橫三尺去、時危身許一毛捐。黃沙白草非 前日...

우(又)

仁同 張祚遠 丹邱松柏苑蒼然、恩誥翩翩耀九泉。傳家 忠義神銘在、奕世功名弊屣捐。南國皆稱雙 竹宅...

우(又)

安東 金炳礪 忠義亶由道學然、薇歌幾載老林泉。詩誅藩 賊風稜卓、碑立祥郵月廩捐。地步師門尋妙 域...

우(又)

廣陵 李相善 名賢顯晦有時然、丹誥煌煌賣九泉。薇竹 已知孤節寓、熊魚肯惜一身捐。寒旅門庭高 足弟...

우(又)

漢陽 趙錫龍 先生處世獨超然、薇谷清風寓我泉。寒旅淵 源傳道正、丙丁忠義誓身捐。崇賢恩爵逢 今日...

우(又)

錦城 丁義元 義旅堂堂氣肅然、虎溪當日吼龍泉。源深一 脈曾傳妙、軀重千金不惜捐。邦瘁重遭辰已 厄...

우(又)

宗後學致默 孝竹忠薇兩炳然、家聲世襲老林泉。屢蒙褒 節宜無愧、再舉忘躬不惜捐。左海一隅高士 義、
春王萬曆大明年。彌章道學彌嘉尚、恩 溢三銓被管絃。

우(又)

宜寧 南夔壽 忠義堂堂獨奮然、大明日月耀林泉。抽竹家 聲孤節守、採薇餘韻尺躬捐。鳳詔含丹尚有 日...

又(又)

冶鑪 宋泰寅 忠義千秋炳朗然、先生初服起林泉。斥和章 出藩虞懼、遺愛碑傳郵廩捐。北闕天官馳 有日...

우(又)

閔韶 金喆銖 丙子忠賢凜凜然、虎翁挺出奮龍泉。寒旅門 庭單訣在、竹薇風節尺軀捐。紫誥香烟今 聖世...

우(又)

羅州 丁達教 萬古綱常獨奮然、先生當日起林泉。心懸象 闕天同戴、身似鴻毛義共捐。挺竹清風君子 宅...

우(又) 문성 유명균(文城 柳明均)

文城 柳明均 千秋義氣尙崑然、馳贈三銓耀九泉。寒旅 淵源尋正學、竹微名節不虛捐。山河回運奎 星歲...

우(又) 광릉 이이현(廣陵 李以鉉)

廣陵 李以鉉 中宵倚劍意悠然、回首皇州淚下泉。殷聖西 山餘曲在、魯連東海擬身捐。儒風復振天官 日...

우(又) 문소 김도화(閔韶 金道和)

聞韶 金道和 若使當年遇聖人、春秋袞筆特書之。三韓義 士韶州某、可與西山伯仲之。 先生高義烈霜然...

우(又)

后孫敦植 身居東海魯連心、秦帝當年欲蹈之。一疏凜 然休萬甲、澹庵義理與并之。 私淑退陶有宛然、淵源河洛混如泉。春秋大 義三綱立、風雨孤城一命捐。賢德尊祠追...

우(又) 김주 허용(金州 許壩)

金州 許壩 先生仗義昔胡然、爲學眞源有混泉。尺疏扶 綱曾血瀝、一心圖報擬躬捐。薇歌惻惻同殷 老、...

우(又) 문소 김한주(聞韶 金翰周)

聞韶 金翰周 忠孝雙全世孰然、覃恩天降徹黃泉。南還 草屋三生在、西指義旗一死...

후서(後叙)

惟我先祖、虎溪府君。存心窮理之學、扶綱斥 和之忠、蘊之爲德行、著之爲事業、實百世難 泯者也、粵在丙辰、士林尊尙、而俎豆之。逮夫 丁卯、朝家褒賞、而賚贈之將...

발(跋)

虎溪先生申公、有詩文若干。其遺裔之僅僅 掇拾於二百載、蠹燼之餘者也。將謀之剞劂 氏、亦足爲一斑於全豹乎哉。公嘗師事寒旅、 二先生潛心於本原之奧、致力於當行...

회당선생문집(梅堂先生文集) 신원록(申元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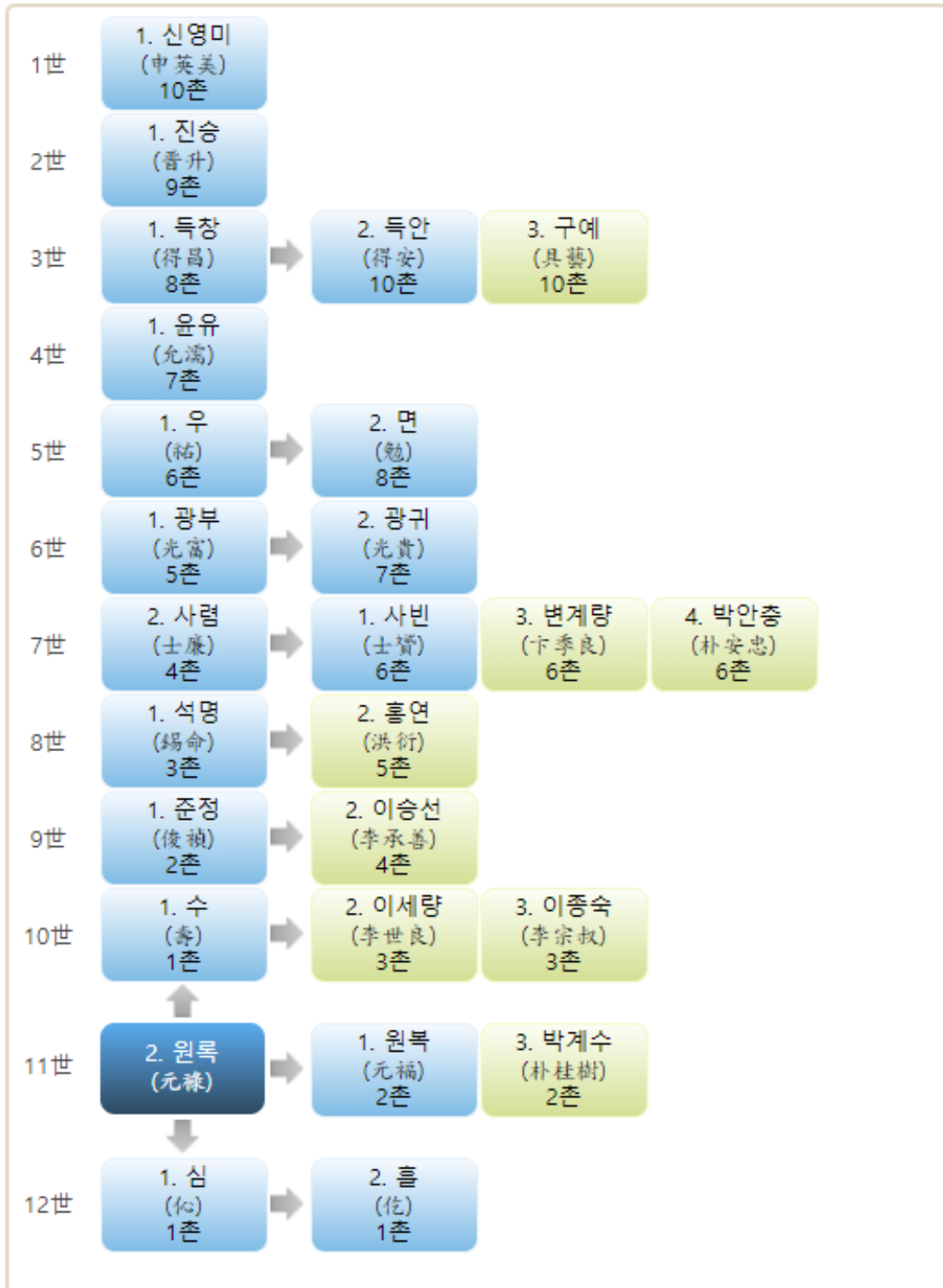
직계도



11世 원록(元祿)

父 : 수(壽) 祖父 : 준정 (俊禎)

읍파(邑派)



신원록(申元祿)

항목 ID	GC05200965
한자	申元祿
이칭/별칭	계수(季綏), 순보(順甫), 회당(梅堂)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호자·열녀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조선/조선 전기
집필자	하창환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516년 - 신원록 출생
몰년 시기/일시	1576년 - 신원록 사망
추모 시기/일시	1615년 - 신원록 호자문 건립
사당배향지	장대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장대리
성격	효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정의

조선 전기의성 출신의 효자.

가계

본관은아주(鵝洲). 자는 계수(季綏)·순보(順甫). 호는 회당(梅堂). 퇴재(退齋) 신우(申祐)의 6세손이다. 참봉(參奉)을 지낸 신수(申壽)의 다섯 아들 중 셋째로 태어났다. 형은 신석록(申錫祿)과 신택록(申宅祿)이며, 동생은 신도수(申道洙)와 신헌록(申憲祿)이다.

활동 사항

신원록(申元祿)[1516~1576]은 효성과 학문이 모두 뛰어났다. 11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가 병이 들어 인근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어 집에서 수백 리가 떨어진 팔공산까지 직접가서 약을 구해 왔다. 그러한 정성으로 형인 신원복(申元福)과 함께 8년 동안 아버지를 간호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연친곡(宴親曲)」 8규(閨)를 지어 불렀다. 어머니의 상을 당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세 번 성묘를 하였다.

남명(南冥) 조식(曹植)에게 먼저 나아가 학문을 닦다가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건립하자 그곳으로 나아가 배움을 청하였다. 그리고 스승 주세붕이 세상을 떠나자 심상(心喪) 삼년을 지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풍기 군수로 재임할 때에는 백운동 서원에 머물며 구봉령(具鳳齡), 조목(趙穆), 김팔원(金八元) 등과 강론하며 교유하였다. 또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을 증유하며 학문에 매진하기도 하였다.

1556년(명종 11)에는 서원을 세워 의성(義城)이 관향인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을 배향하는데 앞장섰으며, 이 일로 "장천(長川)"이라는 사액을 받게 되었다. 그 밖에 향리를 위해 스승 퇴계에게서 향약을 필사해 와 실행하고,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휼장(賑恤場)을 운영하고, 고장의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소과(大小科) 출신인사들의 모임인 연계소(蓮桂所)를 설립하고, 문중 인사를 모아 사당에 참배하고 학문을 권장하는 모임인 월삭회(月朔會)를 조직하는 등 많은 일을 하였다.

상훈과 추모

세상을 떠난 지 39년 뒤인 1615년(광해군 7) 그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그가 살던 마을에 효자문이 세워지고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戶曹 參議)에 추서되었다. 그리고 장대 서원(藏待書院)에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교남지(嶠南誌)』

『의성지 집록』(의성 문화원, 1994)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한국 역대 인물 종합 시스템(<http://people.aks.ac.kr/>)

회당선생문집(梅堂先生文集)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회당선생문집 (梅堂先生文集)	
저자	성명	신원록 (申元祿)
	자	계수 (季綬)
	호	회당 (梅堂)
판사항	木版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769	
권수	4	
체크기	30.9×21.3 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해제

『회당문집』은 신원록(申元祿 ; 1516~1576)의 시문집이다. 신원록의 자는 계수(季綬), 호는 회당(梅堂), 본관은 아주(鵝洲)이다

이 책은 6대손 정모(正模)가 1740년(영조 16)에 편집했으며, 간행은 1769년경에 이루어졌다. 시(詩)는 화답시가 대부분이고, 평담한 풍격을 지니고 있다. 서(書)는 주세붕과 서원의 학생에게 보낸 것으로, 장천서원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다. 잡저(雜著)에 실려 있는 서원에 대한 기록은 초기 서원의 운영과 재정연구의 자료가 된다.

신원록은 수(壽)의 아들이며 의성(義城)사람이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11세 때 부친의 병을 구하기 위해 팔공산(八公山)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고 8년 동안 간호했다. 조식(曹植)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다가 주세붕(周世鵬)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세우자 찾아가서 가르침을 구하고 장천서원(長川書院)을 창건하여 김안국(金安國)을 봉향하였다.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고 장대서원(藏待書院)에 제향되었다.

간행년대	15-16c
데이터구분	CE
문집명	회당집 (梅堂集)
간략서지	古 3428-554
간략해제	<p>李光庭의 발문과 崔暉(1563-1640)의 묘지에 따르면 신원록의 문집은 1739년 경에 士林들의 주도로 간행을 위해 遺文과 자료가 정리되었던 것 같지만 정확한 간행 연도와 주도 인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문집에 수록된 글들을 통해서 보면 1750년에 權相一(1679-1760)에 의해 쓰여진 <師友錄>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간행 시기는 1750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문집의 권두에는 이광정이 쓴 서문과 鄭模가 편집한 연보가 있고 권 1에는 賦 4편, 詩 45首, 권 2는 書 2편, 雜著 6편, 祭文 3편이 수록되어 있고, 권 3, 4는 부록인데 권 3에는 孝友錄, 行狀, 拾遺, 墓誌, 墓表, <<續三綱行實圖>>와 <<聞韶誌>>에서 발췌한 신원록의 효행에 관한 기록, 祭墓文, 奉安文, 祝文 각 1편과 上樑文 2편이 수록되어 있다. 권 4는 師友錄, 師友錄跋, 墳墓圖, 周世鵬이 신원록에게 준 遺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효우록>은 신원록의 형 元福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신원록의 효행과 효자문이 세워지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사우록>은 손자 悅道가 편집한 것으로 신원록과 교유관계를 맺었던 74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들이 신원록에게 준 詩文을 모아 두고 있다. 4편의 賦는 名利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적인 성찰과 공부를 통해 진정한 君子를 지향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書는 주세붕과 서원의 학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서원의 운영과 관계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잡저의 기록들 속에는 16세기 초기 서원의 운영과 재정 상태에 대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다.</p>
편저자	신원록 (申元祿)
저자개요	1516-1576 (중종 11-선조 9)字: 季綏, 號: 梅堂, 本貫: 鵝州, 父: 壽, 母: 義興 朴氏
저자내용	<p>11살에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혼자 八空山에 들어가 약초를 구해오고 8년 동안 병간호를 위해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지냈을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다. 1538년 성균관에서 수학했고, 1543년 주세붕이 竹溪書院을 세우자 문하에 들어가 학문에 정진했다. 1551년 생계를 위해 湖南長水學이 되어 지방의 유생들을 교육했다. 1556년 죽계서원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뜻 맞는 사람들과 서원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長川에 터를 닦아 공사를 시작해 1569년 건물을 완공하여 金安國(1478-1543)을 봉안하고 長川書院이라고 명명했다. 1560년 여씨향약을 기본으로 하고 예안향약에서 세부 조목을 취해서 향약을 반포하여 풍속의 순화에 힘썼다. 1575년 모친상을 당해서는 6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눈비를 가리지 않고 지극 정성으로 시묘살이를 하다 그로 인해 병을 얻어 1576년에 죽었다. 그</p>

후 지극한 효행이 조정에 알려져 효자문이 세워지고 호조참의에 추증되었으며 義城의 藏待書院에 제향되었다. 權相一이 쓴 師友錄跋文에는 신원록의 학문을 周世鵬(1495-1554)에게서 수학함으로써 발단이 되었으며, 曹植(1501-1572)에게 감화를 받고 만년에는 李滉(1501-1570)에게서 얻은 바가 있다라고 그 연원을 밝히고 있다.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739. 李光庭이 신원록의 7 세손 龍起의 부탁을 받고 쓴 문집의 서문으로, 신원록의 지극한 효성을 칭송하고 서원 건립을 통해 斯文을 흥기시킨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끝부분에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적고 있다.
梅堂先生年譜 (年譜 1)	鄭模가 편집한 신원록의 연보로 연대순으로 중요 사건과 행적을 기록하고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之一

三近賦 (1)	知? 仁? 勇 세 덕목을 통해 聖賢의 완전한 도(達道)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읊고 있는 賦다. 내용을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만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지만 氣質의 편차와 物慾의 가림 때문에 타고난 본성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성현의 완전한 덕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마음 속의 사욕을 극복하고 공부를 통해 성현의 완전한 덕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知? 仁? 勇이다. 知는 知恥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지향점을 알게 되고? 지향점을 향해 학문에 매진하면 자신의 氣가 자연히 道와 합치되어서 마침내는 仁에 돌아가게 되고 道에 도달할 수 있다.
霧豹賦 (2)	표범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군자의 모습을 읊고 있는 賦로? 깊은 산 속에서 안개 속에 자신을 가리고 성장해 마침내는 찬란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범을? 학문을 통해 자신의 기질을 변화시켜 이치에 통달하고? 안으로 덕을 쌓아 자연스럽게 밖으로 찬란히 드러나게 되는 君子에 비유하고 있다.
名者造物之所忌 賦 (3)	세상의名利에 얽매이지 않고? 안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내실을 다져나갈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賦다.
三山賦 (5)	道家의 三神山에 관한 說을 근거없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비판하고? '君子는 산을 보고 자신을 세우며? 仁을 두텁게 체득한다'라는 교훈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극한 즐거움의 경지라는 것을 안다면? 구태여 세상 밖에 있는 三神산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詩	棲白雲洞月夜有感二首(1543)? 贈同志(1554)邀康友(1568)? 次康友韻? 往蔚山散步南軒? 自歎(1551)? 赴金景放酒席與諸友共賦? 游中臺寺(1552)? 癸丑冬在洛陽不禁思親之淚因占一絕(1553)? 贈友人(1554)? 早春月夜登樓有感?

夜聞聞?雨? 江上贈別韓虞卿? 題寄傲亭? 過風川峽過韓佰益閒居亭? 謝權夢祥佩酒來慰?
江上卽事? 詠金松隱萬年松? 修定鄉約有感而作(1560)? 次換鵝亭韻? 述懷? 登樓?
贈寄梅村? 旅館書懷? 客中? 次吾魚寺韻? 再用前韻書懷? 旅館? 書懷? 思家?
次友琴堂韻? 次別全菊齋由行二首? 遙贈曹幼清鄭仲尹?
五月初九日李景明與其弟會于淨襟堂酒半景明忽吟一聲歌裏舉盃輕之句要我足成故?拙以
呈? 贈全菊齋? 病中謝友人來訪? 手種黃菊垂陽相對軒窓愛而詠之-二首?
偶吟? ?席口占一絕? 送柳義興放還京城-二首? 贈宋而栗? 題金內禁亭子?
賀李君鎮魁蓮榜? 贈別全菊齋還鄉? 張天樞母夫人輓.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739. 李光庭이 신원록의 7 세손 龍起의 부탁을 받고 쓴 문집의 서문으로, 신원록의 지극한 효성을 칭송하고 서원 건립을 통해 斯文을 흥기시킨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끝부분에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적고 있다.
梅堂先生年譜 (年譜 1)	鄭模가 편집한 신원록의 연보로 연대순으로 중요 사건과 행적을 기록하고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之二

M 上慎齋周先生 (1)	1545. 신원록이 周世鵬에게 보낸 편지로? 과거에 金安國이 와서 유생들을 깨우치고 학자금을 희사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주세붕에게 한 번 와서 유생들을 흥기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答院中諸君子 (2)	1570. 신원록이 長川書院의 유생들에게 보낸 편지로? 자신이 지금까지 학자금을 관장하는 業儒齋를 설립하고 서원의 운영에 힘써 왔음을 말하고? 부족하던 서원의 운영 경비가 최근에 마련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論 (3)	《논어》의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이다. 사람의 본성은 모두 좋아지만 이치를 깨닫는 것에는 선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자각한 사람이 자각하지 못한 사람을 깨우쳐 주고 그 즐거움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서로간에 자신이 깨우친 점을 상대에게 보태준다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교화되어 그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관점에서 《논어》의 이 구절을 논하고 있다.
業儒齋完議 (7)	1548. 향교의 학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業儒齋를 만들면서 그 내력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향교에 마련된 학자금의 연원과 그 동안의 관리 실태를 밝히고 무분별한 관리 방식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태수의 자문을 받아 학자금 운영 규칙을 정하고 이를 운영할 業儒齋를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濟場志 (9)	1554. 두 해에 걸쳐 큰 기근이 발생하자 지방관이 신원록에게 백성을 구휼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의 전말과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글이다.
書鄉約後 (19)	향약의 조목을 정하고 그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씨향약의 4 조목을 기본으로 삼고 이황의 예안향약에서 세부 조목을 취해서 첨가하고 별칙을 3 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마다 하부 조목을 정해서 총 30 여조로 된 향약을 정하고 사람들에게 힘써 지켜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글이다.
慈母影幀識 (9)	1575. 어머니 박씨가 93 세가 되었을 때 영정을 마련하고 거기에 붙인 글이다.
長川書院營建顛末 (10)	15 년(1556-1570)에 걸친 장천서원의 건립에 대한 전말을 기록한 글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56 년 봄? 서원을 세울 것을 뜻하는 사람들과 논의하고 宅地를 선정하고 땅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다. 1557 년 봄? 공사를 시작해 부지를 조성하고 우선 십여 간의 건물 뼈대를 세우다. 1558 년 봄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비가 많이 와서 공사를 중단하다. 연이어 두 해 동안 큰 흉년이 들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다. 1569 년 李陽元의 협조를 얻어 다시 공사를 시작해 서원의 완공을 보고 학생을 모았다. 1570 년 서원의 이름을 長川이라고 명명하다.
祭金侯文 (12)	金士傑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인품을 기리는 글이다.
祭趙使君文 (13)	趙宗敦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이다.
祭季氏文 (14)	막내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이다.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739. 李光庭이 신원록의 7 세손 龍起의 부탁을 받고 쓴 문집의 서문으로, 신원록의 지극한 효성을 칭송하고 서원 건립을 통해 斯文을 흥기시킨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끝부분에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적고 있다.
梅堂先生年譜 (年譜 1)	鄭模가 편집한 신원록의 연보로 연대순으로 중요 사건과 행적을 기록하고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之三(附錄)

孝友錄 (1)	1576. 신원록의 형 元福이 그의 효행을 기록한 글로?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11 살에 팔공산에 올라 100 여리를 헤맨 끝에 약초를 캐왔던 일? 8 년 동안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아버지를 간호했던 일? 어머니의 상을 당해 지극한 효성으로 상을 치루고 시묘살이를 하다 병을 얻어 끝내는 목숨을
---------	--

	있었던 일 등? 그의 효행과 관계 있는 행적과? 그의 효행이 알려져 효자문이 세워지게 된 경위 등을 기록하고 있다.
行狀 (9)	1739. 李光庭이 쓴 신원록의 행장으로 가계? 후손? 그의 효행과 관련된 행적? 행장을 쓰게 된 경위 등을 적고 있다.
拾遺 (16)	신원록과 부인의 효행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일화를 간략히 기록하고 있는 글이다. 신원록의 외손 李象靖(1710-1781)의 집에서 발견된 글이다. 일화는 象靖의 祖母가 전해들은 말을 기록한 것인데? 한 노인이 땀감을 날라주고 홀연히 사라진 일과 한 여인이 베를 짜주고 사라진 일이다. 부부의 지극한 효성에 감동한 신선이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이다.
墓誌 (17)	1635. 崔暉(1563-1640)이 쓴 신원록의 묘지로 그의 행적을 행장에서 발취해 간략하게 연도별로 서술하고 있다.
墓表 (22)	1645. 신원록의 5대손 德涌이 쓴 묘표로? 그는 신원록의 훌륭한 행적이 후세에 전해지지 못할 것을 걱정해서 친족들과 의논해 묘표를 세우고? 崔暉이 쓴 묘표와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던 <효우록>? <사우록> 등의 글에서 일부를 발취해 그 대강을 묘표에 새긴다는 내용이다.
續三綱行實 (25)	신원록의 효행을 기록한 <<속삼강행실도>>의 글이다.
閭韶誌 (26)	신원록의 효행을 기록한 <<문소지>>의 글이다.
祭墓文 (26)	지방관으로 부임한 安應昌이 신원록의 묘에 제사할 때 쓴 제문으로? 그의 효성이 뚝을 위험한 강에서 업고 건널 수 있는 우애로? 또 임금의 상을 당해 삼년동안 素食하는 忠으로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후손과 후학을 흥기시키는 모범이 되고 있음을 적고 있다.
藏待書院奉安文 (27)	신원록을 藏待書院에 봉안할 때 李玄逸이 쓴 봉안문이다. 내용은 부모에 대해 효도를 다했던 일과 흥년에 백성들을 구휼에 위해 힘썼던 일? 주세붕의 문하가 되어서 학업에 열중했던 일 등을 칭송하면서 그의 행적이 후학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常享祝文 (27)	李惟禕이 쓴 축문으로? 그의 효제와 덕행이 학업과 표리로 상응하고 있음을 기리는 내용이다.
風詠樓上樑文 (27)	洪萬朝가 풍영루를 짓고 상량할 때 쓴 글로? 신원록을 모범으로 삼아 유생들이 학업과 덕행을 부지런히 닦아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尼山書院廟宇上樑文 (29)	尼山書院에 묘실을 짓고 상량할 때 南夢??가 쓴 글로? 신원록의 효행과 덕행을 본받아 이곳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권수 권제목:

제목 없음.	1739. 李光庭이 신원록의 7 세손 龍起의 부탁을 받고 쓴 문집의 서문으로, 신원록의 지극한 효성을 칭송하고 서원 건립을 통해 斯文을 흥기시킨 그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끝부분에 이 글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적고 있다.
梅堂先生年譜 (年譜 1)	鄭模가 편집한 신원록의 연보로 연대순으로 중요 사건과 행적을 기록하고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는 글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권제 권제목:卷之四(附錄)

師友錄 (1)	1606. 신원록의 손자 悅道에 의해 편집된 글로? 신원록이 교유했던 74 人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들이 신원록에게 준 詩文이 함께 실려 있다. 이 글 속에는 李滉? 周世鵬? 曹植? 金麟厚? 朴雲 등 당대의 巨儒들이 보인다. 74 人의 명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李滉? 周世鵬? 曹植? 朴雲? 金就成? 林薰? 金光粹? 金麟厚? 趙穆? 金希參? 金富弼? 朴承任? 黃俊良? 金克一? 金誠一? 李楨? 曹湜? 盧?? 吳健? 柳景深? 柳仲?? 鄭琢? 林芸? 金彥璣? 金八元? 全夢奎? 李光俊? 權審行? 朴承侃? 周?? 李國柱? 李友閔? 金?? 李暹? 李晁? 崔海? 崔深? 朴灝? 朴演? 趙昱? 黃應清? 柳希潛? 盧克慎? 鄭竹軒? 曹淑? 隱約齋(姓名未詳)? 鄭允良? 鄭?? 鄭瑜? 盧遂? 孫盡忠? 張文輔? 張文佐? 金宇弘? 梁喜? 梁欣? 梁澹? 李景明? 李克恭? 金騫? 徐洞? 蔡無咎? 郭?? 郭走日? 郭?? 李山岳? 李伋? 李倪? 李德龍? 李聃龍? 友琴堂(姓名未詳)? 金彥?? 康明善? 元凱.
師友錄跋 (師友錄跋 21)	1750. 權相一(1679-1760)이 쓴 <師友錄>의 발문으로? <사우록>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李滉? 周世鵬? 曹植에게 신원록이 학문을 배웠음을 강조하고 있다.
梅堂先生墳山圖(墳山圖 1)	1739. 신원록의 6 세손 彦模가 그린 그림과 글로? 신원록의 묘지가 있는 지역을 그림으로 그리고? 말미에 誌를 첨가하고 있다. 誌에서 그는 후손들이 선조의 묘를 찾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을 걱정해 분묘도를 작성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慎齋周先生遺墨	周世鵬의 遺墨으로 신원록이 받은 것이다. 신원록의 외후손 李象靖이 이 유묵에 발문을 붙이고 있다.

효우록(孝友錄)

신원록 (申元祿)

정의

조선전기 학자 신원복이 동생 원록(元祿)의 효행과 우애를 기리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저술한 교훈서.윤리서·교육서.

내용

1 책 8 장. 필사본.

연기(年紀)는 본문의 말미에, 만력(萬曆) 병자(丙子) 5 월에 형 원복음서(兄元福泣書)라고 한 것으로 보아 1577 년으로 추정된다.

첫부분에는 신씨의 세계가 실려 있고 이어서 신원록의 행장이 기록되어 있다. 말미에 신원록의 약력·사적·저작이 간략하게 적혀 있다.

또한, 신원록의 효행은 『속삼강행실(續三綱行實)』에 실려 있으며, 조정에서 정려문(旌閭門)을 세우고, 장대서원(藏待書院)에 제향한 사실 등을 밝혀두고 있다. 본문의 내용은 신원록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어버이에 대한 극진한 효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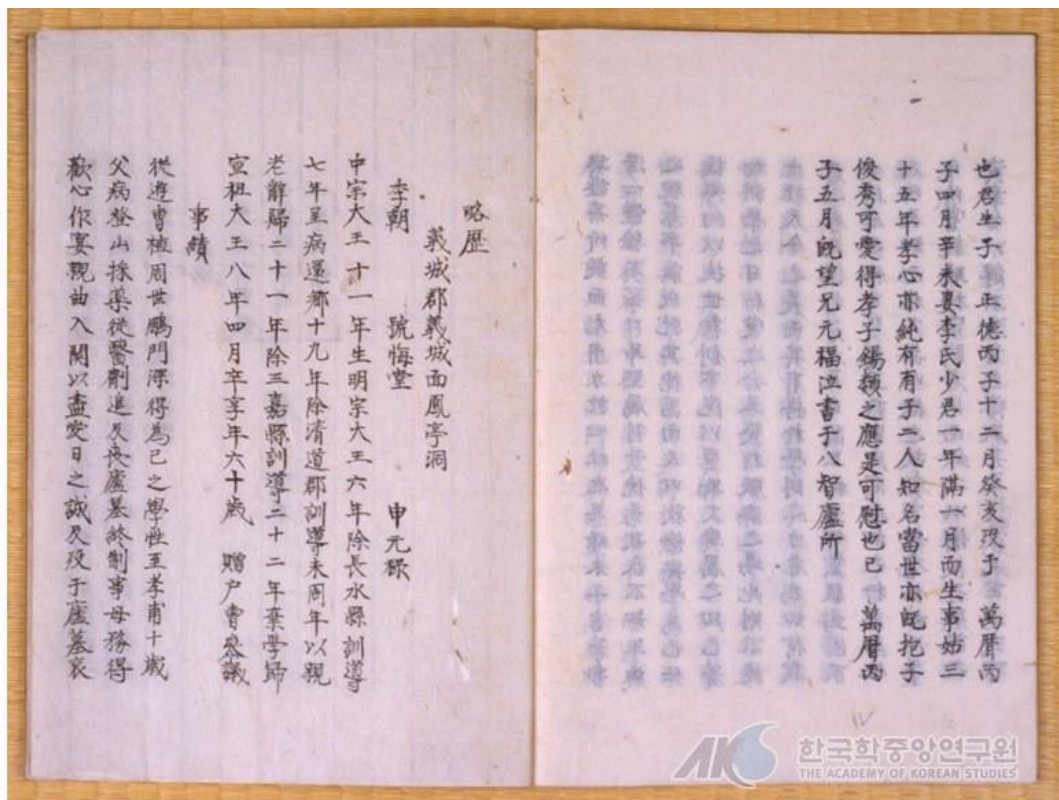
또한, 신원록은 조식(曹植)과 주세붕(周世鵬)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평생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등의 성리서(性理書)를 읽으며 그 뜻을 실천하려 노력하였고, 서원·향약 운동에 활약하였음을 기록하였다.

이 책은 효와 우애에 돈독한 선비의 일대기로서, 자료적 가치는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으나, 사적을 통하여 조선시대 선비들의 윤리관과 교우관계·풍속 등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규장각도서 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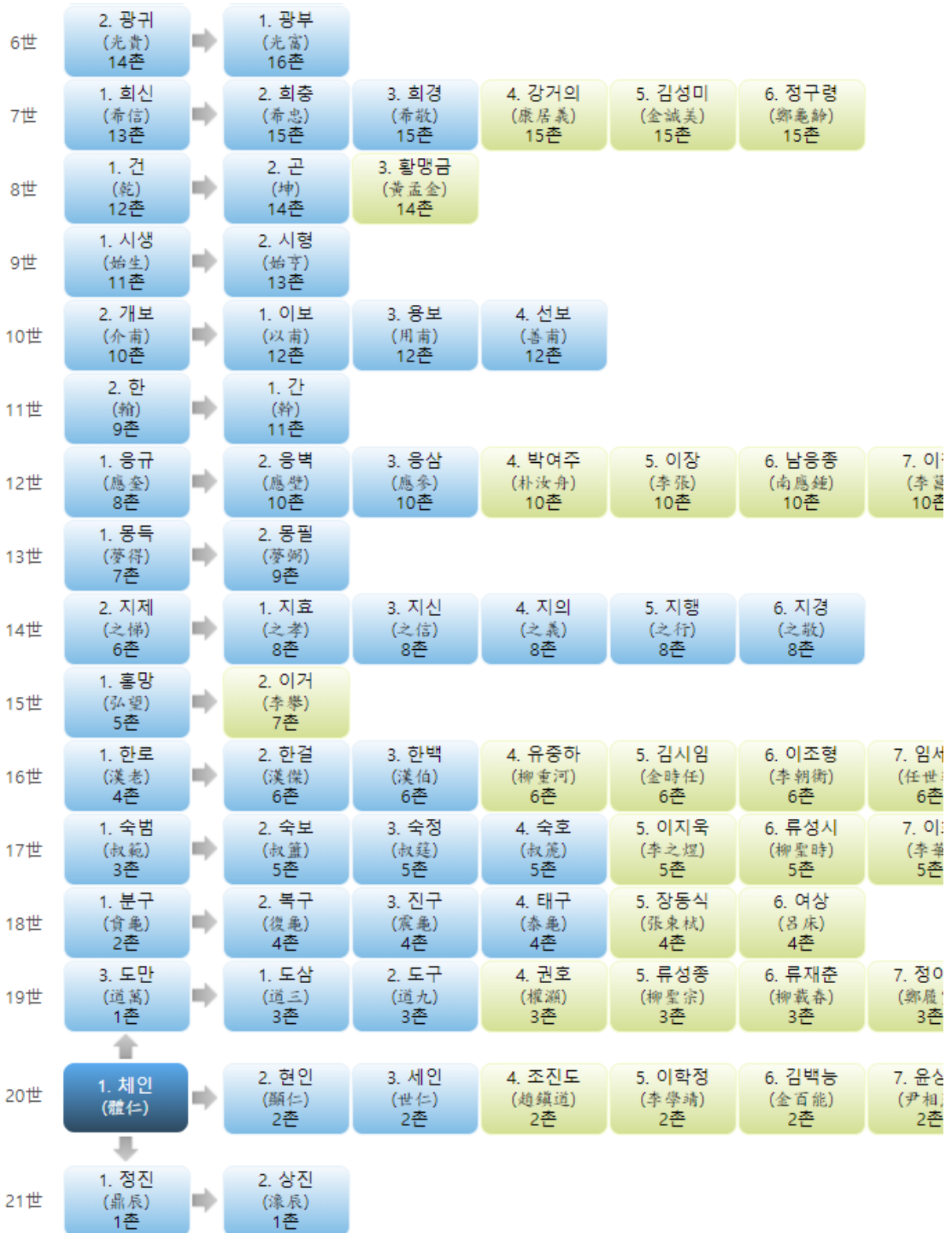
참고문헌

-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 [충효등록\(忠孝騰錄\)](#)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 [회당집\(梅堂集\)](#)



회병집(晦屏集) 신체인 (申體仁)



신체인(申體仁)

항목 ID	GC05200924
한자	申體仁
이칭/별칭	자장(子長), 회병(晦屏)
분야	역사/전통 시대,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인·학자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시대	조선/조선 후기
집필자	이광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731년 - 신체인 출생
몰년 시기/일시	1812년 - 신체인 사망
추모 시기/일시	1977년 - 신체인 금산 서원에 배향
출생지	신체인 출생지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거주 이주지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미리
수학 강학지	금연정사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묘소 단소	신체인 묘소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동곡
사당 배향지	금산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
성격	유학자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정의

조선 후기 의성 출신의 학자.

조선후기 학자 신체인(1731~1812)의 문집.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자장(子長), 호는 회병(晦屏). 신숙범(申叔範)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분구(申賁龜), 아버지는 신도만(申道萬)이고, 어머니는 의성 김씨(義城 金氏) 김민행(金敏行)의 딸이며 부인은 풍산 유씨(豊山 柳氏) 유후원(柳後元)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신체인(申體仁)[1731~1812]은 3~4세때 이웃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면 말도 없이 그 집에 가서,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질만큼 어린 시절부터 학문에 관심이 많았다. 어려서 화장산(華藏山)[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의 초당에서 공부하였고, 장성해서는 김낙행(金樂行), 임필대(任必大), 이상정(李象靖)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30세 무렵에는 유학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의술·병가·산수(算數)·복서(卜筮) 등 여러 학문을 두루 섭렵했다고 한다.

1761년(영조 37) 향해(鄉解)에 응시해서 장원하는 등 학문적 명성이 있었지만,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 1782년(정조 6) 금산(錦山)[구미리]에 금연 정사(錦淵 精舍)[현 금산 서원(錦山 書院)]가 완성되자 그곳에서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주력하였다. 1786년에는 빙계 서원(氷溪 書院)의 교석(敎席)을 주도하며 통강례(通講禮)를 행하고자, 주자(朱子)의 월삭회약(月朔會約)을 모방해 의절까지 정해 놓았으나 실시하지 못하였다.

1788년 눈병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자, 존양(存養) 공부에 열중하였다. 1807년(순조 7) 경술과문장이 모범이 된다하여 의성 현령(義城 縣令)이 천거하였고, 경상도 관찰사가 연이어 신체인의 학행을 조정에 계청하였다.

梧峯 申之梯(오봉 신지제)와 孤松 申弘望(고송 신흥망)의 후손으로 벼슬은 하지 않은 채 산림에서 李象靖(이상정), 金樂行(김낙행)의 문인으로 활동하였는데 文才(문재)와 學德(학덕)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저자의 저서로는 시문 외에 聖賢들의 '敬(경)'에 대한 요지를 편찬한 「崇敬錄(송경록)」 2책이 남아 있다.

저자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族子(족자)인 申鼎周(신정주)(1764~1827)가 지은 遺事(유사)(申鼎周 著, 陶窩集(도와집) 卷4), 그리고 이를 가지고 저자의 아들 申瀾辰(신익진)(1779~1834)이 所菴 李秉遠(소암 이병원)(1774~1840)에게 부탁하여 1834년에 받은 행장 뿐이지만, 이를 통해 볼 때 이들에 의해 저자의 유적과 유문이 수습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의 편찬 간행에 대해서는 序跋文(서발문)이나 다른 기록이 없어 문집의 정확한 간행 연도를 알 수가 없다.

학문과저술

이상정의 문하에서 함께 공부하던 280여 명의 인사들과 호문학단(湖門學團)을 구성하여 성리학을 연구하였다. 호문학단 중에서도 그는 학문이 뛰어나 호문육군자(湖文六君子)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의 문집으로는 12권 6책의 『회병집(晦屏集)』이 전하는데,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병집』 권6에 수록되어 있는 「천학종지도변(天學宗旨圖辨)」은 천주교를 비판한 글로, 당시 천주교에 대한 영남 유림의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외에도 '경(敬)'의 요체에 대해 설명한 4권 2책의 『숭경록(崇敬錄)』을 저술하였으며, 정만양(鄭萬陽), 정규양(鄭葵陽) 형제의 어록인 『훈지양선생어록(塤篋兩先生語錄)』도 산교(刪校)하였다. 한편, 『아주 신씨 참판공 파보』에는 『징성록(徵省錄)』을 저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용

조선 시대 회병(晦屏) 신체인(申體仁, 1731~1812)의 문집이다. 본집(本集)은 목판(木板)으로 판각된 후, 시문(詩文)의 일부(一部)와 부록문자(附錄文字)를 활자(活字)로 보각(補刻)하여 인행(印行)한 초간본(初刊本)으로 간행경위(刊行經緯)는 분명(分明)하지 않다. 본집(本集)은 12권 6책으로 되어 있다. 권수(卷首)에 서문(序文)은 없고 목록(目錄)이 있다. 권6은 잡저(雜著)이다. <천학종지도변(天學宗旨圖辨)>은 안정복(安鼎福), 이헌경(李獻慶), 조술도(趙述道) 3인의 천주교(天主教) 변척(辨斥) 글을 읽고 그 글에 실려 있던 '천학종지도(天學宗旨圖)'가 사욕(私慾)을 내세웠으므로 천주학(天主學)이 이단(異端)임을 증명(證明)하고, 세 사람의 설(說)을 보완(補完)하기 위해 1791년에 쓴 것이고, <중하상부재이면 변(中何嘗不在裏面辨)>은 남헌(南軒) 장식(張栻)이 주장한 '이발지후 중하상부재이면(已發之後中何嘗不在裏面)' 설을 펴는 선배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주자(朱子)의 정론(正論)을 들어 후학(後學)을 경계한 것이다. 권12는 부록(附錄)이다. 이병원(李秉遠)이 1834년에 지은 행장(行狀)이 실려 있다.

권1은 詩(186題)이다. 시는 시체(詩體) 구분 없이 저작 연도별로 편차되어 있으며, 1750년부터 1811년까지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장문의 병설(并說), 병서(并序), 후식(後識) 등을 붙여 시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자형 조진도(弟兄 趙進道)의 형제들과 공유하며 수창한 시 및 장편시가 여러 편 있다. 백종형 신중인, 임필대, 홍호길(申重仁, 任必大, 洪虎吉) 등에 대한 41제의 만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백종형 신중인에 대해서는 11수의 연작으로 지어 깊은 슬픔을 표현하였다. 이 가운데 <송김씨매술회육십운(送金氏妹述懷六十韻)>은 김백능(金百能)의 처가 된 누이동생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읊은 것이고, <경송재(敬松齋)>는 부친이 귀호(龜湖)에 지은 소재(小齋)에 대해 읊은 것이고, <귀와시(龜窩詩)>는 단계(丹溪)에 있는 재종질 신정매(申鼎梅)의 소옥(小屋)에 권계(勸戒)의 말을 붙이고 3수를 읊은 것이다. <금산육영(錦山六詠)>, <금연십영(錦淵十詠)>, <금리사영(錦里四詠)>, <평금이영(平錦二詠)>, <회병이영(晦屏二詠)> 등은 금산에 지은 금연정사와 주변의 풍광을 읊은 것이다. <병중문이림형승희심약술(病中聞利林形勝喜甚略述)>부터 <총술(總述)>까지 6수는 1788년에 안질로 고생할 때, 영남 제일의 동천 '안의삼동(洞天 '安義三洞')'의 절경을 전해 듣고 지은 것이다.

권2~5는 書(161)이다. 전체분량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대상 인물별로 묶어 연도순으로 편차하였는데 대체로 사우, 문인, 친척(師友, 門人, 親戚) 순으로 되어 있다.

권2는스승 이상정, 김낙행, 임필대(李象靖, 金樂行, 任必大) 및 채제공, 이병모, 이홍원, 유풍, 이의태, 이명천, 유성림, 신광익(蔡濟恭, 李秉模, 李弘源, 柳澧, 李宜泰, 李命天, 柳聖霖, 申光翼) 등에게 쓴 것이다. 이가운데 이상정에게 1764년에 보낸 것은 「주서강록간보(朱書講錄刊補)」의 교정에 참여하는 선생을 따라 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쓴 것이고, 1781년에 쓴 것은 '경겸중화도(敬兼中和圖)'에 대한 의혹을 질정한 것이다. 신광익에게는 별지로 '조주방제개부개', '서자소생모제주칭위(祧主旁題改不改', '庶子所生母題主稱謂)' 등 상례, 제례(喪禮, 祭禮)의 예의(禮疑)에 답한 것들이다.

권3은권정린(權正鄰), 종장 신용기(申龍起), 종형 신관모, 강필면, 조의양, 조운도, 이종수, 김종덕·김종경(申觀模, 姜必勉, 趙宜陽, 趙運道, 李宗洙, 金宗德·金宗敬) 형제 등에게 쓴 것이다. 이 가운데 이종수에게 1786년에 쓴 편지는 「주서강록간보」의 간역(刊役)이 마무리되었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추개(追改)할 곳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김종덕·김종경형제에게 쓴 편지가 많은 편으로 이들과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치곡(致曲)', 「심경강록간보(心經講錄刊補)」를 논한 장문의 편지 등이 있다.

권4는 유장원, 이사정, 황계희, 조진도, 조술도, 이덕중, 김도행, 김종도, 김승묵, 유태춘, 정이인, 이만운, 임보, 이경록, 김시전, 임완, 도상욱, 강세문, 이우, 김홍, 이완(柳長源, 李師靖, 黃啓熙, 趙進道, 趙述道, 李德中, 金道行, 金宗道, 金崇默, 柳泰春, 鄭履寅, 李萬運, 任輔, 李經祿, 金始全, 任軫, 都尙郁, 姜世文, 李瑊, 金垞, 李垞) 등에게 보낸 것이다. 이 가운데 1781년 이덕중에게 쓴 편지는 별지를 붙여 문장(文章)은 道義를 준칙으로 삼아 실용적이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우에게는 1806년에 장헌세자(莊獻世子)의 변무를 위한 상소를 올리는 데 앞장섰다가 완도의 고금도(古今島)로 유배된 것을 위로하며 쓴 것이 있다. 이완에게는 1783년에 이상정의 문집에 대한 교정사항을 적어 보낸 것이 있다.

권5는 김종발, 안정덕, 신광효, 선택명, 김면유, 유상경, 조우원, 김종준, 권득인, 장태은, 김양건, 정태섭, 이동발(金宗發, 安鼎德, 申光孝, 申宅明, 金勉儒, 柳象經, 趙友愿, 金宗駿, 權得仁, 張泰殷, 金良鍵, 鄭台攝, 李東發), 종인신면조·신면주(申冕朝·申冕周) 형제, 송국병, 조성부, 박재순, 김취려, 조거신·조거양(宋國秉, 趙星復, 朴在淳, 金就礪, 趙居信·趙居讓) 형제, 이경·이상(李垞·李垞) 형제, 김종하(金宗夏), 재종숙 신도일(申道一), 족제 신입인(申立仁), 재종질신정매(申鼎梅), 종질 신정옥·신정오·신정응(申鼎沃·申鼎五·申鼎凝), 족질 신정주(申鼎周), 아들 신정진(申鼎辰)과 신정휘(申鼎輝) 등에게 쓴 것이다. 이 가운데 1808년 정태섭에게 쓴 것은 정만양(鄭萬陽)과 정규양(鄭葵陽) 형제의 「훈지양선생어록(墳簾兩先生語錄)」을 산교(刪校)한 뒤에 보낸 것이다. 족질 신정주에게는 별지로 喪服 등에 대해 답한 것이 있다. <기진아별지(寄辰兒別紙)>는 1775년 아들 신정진이 지은 잡저를 읽고 그에 대한 의견을 일일이 제시한 것이다.

권6은 잡저(雜著)(10)이다. 이 가운데 <종손조응자사(宗孫祖應字詞)>는 종손에게 자를 '유승(幼承)'이라 지어주고 그 의미를 서술한 것이고, <창명집구도(淸銘集句圖)>는 1785년 금연정사(錦淵精舍)에서 지낼 때 詩에서 집구(集句)하는 방식대로 전현(前賢)들의 잠찬명언(箴贊名言)에서 뽑은 16구를 도식하고 설명한 것이고, <천학종지도변(天學宗旨圖辨)>은 안정복, 이헌경, 조술도(安鼎福, 李獻慶, 趙述道) 3인의 천주교 변척(辨斥) 글을 읽고 그 글에 실려 있던 '천학종지도'가 사욕(私慾)을 내세웠으므로 천주학이 이단임을 증명하고, 세 사람의 설을 보완하기 위해 1791년에 쓴 것이고, <중하상불재이면 변(中何嘗不在裏面辨)>은 남헌 장식(南軒張栻)이 주장한 '이발지후 중하상불재이면(已發之後 中何嘗不在裏面)' 설을 펴는 선배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朱子의 정론을 들어 후학을 경계한 것이고, <부졸삼년내위모복설(父卒三年內爲母服說)>은 「의례(儀禮)」와 「통전(通典)」에 근거해 해석한 선유들의 주장을 신고 뒤에 저자의 견해를 덧붙여 변설한 것이다. <채각현동잠설의의(蔡覺軒動箴說疑義)>는 중국의 채모(蔡模)가 해석한 정자(程子)의 사물잠(四勿箴) 중 '동잠(動箴)'에 대한 의문점을 적은 것이다. <서증유학사사현(書贈柳學士士鉉)>은 유태좌(柳台佐)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며 지어 준 4언시 형식의 잠언(箴言)이다. <유계빙계원벽문(留揭氷溪院壁文)>은 빙계서원에 있을 때 동신단(洞神壇)에서 해마다 벌이는 巫樂의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을 써서 부친 것이다. <독서류록(讀書謬錄)>은 독서하는 중에 「大學」, 「家禮」, 「心經」, 「孟子」 등 경서 및 전현들의 글에서 발견한 오류를 지적하고 저자의 의견을 첨부한 것이다.

권7은 序(9), 記(12)이다. 서는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의 일을 기록한 유유헌 남급(由由軒南磔)의 「난리일기(亂離日記)」, 종백형신중인(申重仁)의 「귀동일고(龜洞逸稿)」, 현감 서명민(徐命敏)이 장대서원(藏待書院)에서 강회(講會)를 연 후 지은 詩와 論에 대한 後序, 재종질 신정매(申鼎梅)의 <귀원증별첩(龜園贈別帖)>과 「귀와유고(龜窩遺稿)」, 손유경(孫有慶)의 字 '적여(積汝)'에 대한 것, 편저인 「송경록(崇敬錄)」 등에 대한 것이다. 기는 삼수헌(三守軒), 낙소재(樂素齋), 용강초려(龍岡草廬), 이사정(李師靖)의 신낙당(新樂堂), 이술정(李述靖)의 사우당(四友堂), 홍천휴(洪天休)의 김비현(金鏡軒), 금산(錦山)의 형승(形勝)을 기록한 것, 금산에 세운 금연정사(錦淵精舍), 체화당(楸華堂), 백석정(白石亭), 신광익(申光翼)의 송남정사(嵩南精舍), 삼일재중수(三一齋重修) 등에 대한 것이다.

권8은 지발(識跋)(12), 잠명(箴銘)(4), 상량문(上樑文)(4), 애뇌(哀誄)(6), 축문(祝文)(2)이다. 지발은 달산 장보지(達山 張補之)의 실적(實蹟)에 대한 것, 이보(李輔)의 「남계실기(南溪實紀)」, 「행당고(杏堂稿)」, 「무신일록(戊申日錄)」, 6대조신지제(申之梯)의 「오봉집(梧峯集)」 별집(別集), 선조 신지효(申之孝)의 「응암혈서습록(鷹巖血書拾錄)」, 홍언박(洪彦博)의 「양파실기(陽坡實紀)」, 「귀암실기(龜巖實紀)」 등에 대한 것이다. 상량문은 先廟의 移建, 錦淵精舍, 梧溪里社 廟宇, 西山精舍에 대한 것이다. 애뇌는 이학정(李學靖), 조석우(趙錫愚), 최항진(崔恒鎭), 도길모(都吉模), 강필면(姜必勉), 김종섭(金宗燮)에 대한 것이다. 축문은 오계리사(梧溪里社) 봉안문(奉安文)과 상향축문(常享祝文), 조곡(早谷)의 세덕사(世德祠) 봉안문(奉安文)과 상향축문이다.

권9는 제문(祭文)(21), 묘표(墓表)(2)이다. 제문은 종백형 신중인, 정준(鄭僑), 외왕모 무안박씨(務安朴

氏), 김낙행, 임필대, 장인 유후원(柳後元), 이상정, 종질 신정옥(申鼎沃), 김종경, 황계희, 김송목, 조진도, 신광익(申光翼), 유성림(柳聖霖), 이완(李婉), 이명천(李命天), 이종수, 김종덕등을 애도한 것이다. 묘표는 종백형 신중인, 종질 신정옥(申鼎沃)에 대한 것이다.

권10은 묘지(墓誌)(12), 묘갈명(墓碣銘)(3), 비문(碑文)(2)이다. 묘지는 李軫(이진), 윤중방, 이몽정(李夢靖), 김근신(金謹信), 부친 신도만(申道萬), 모친 의성김씨(義城金氏), 조부 신분구(申賁龜), 증조부 신숙범(申叔範), 종조 申震龜(신진구), 백부 신도삼(申道三), 중부 신도구(申道九), 아들 신정진(申鼎辰)에 대한 것이고, 묘갈명은 신택성(申宅誠), 김번(金蕃), 장우원(張宇遠)에 대한 것이다. 비문은 김엽·김욱·김찬(金燁·金煜·金燦) 삼열사(三烈士)를 기린 제단비, 이경증(李景曾)에 대한 묘비이다.

권11은 行狀(9), 傳(1)이다. 행장은 박문엄(朴文淹), 김진호(金震護), 권응생(權應生), 權炘(권임), 정규양(鄭葵陽), 손수증(孫守曾), 이임후(李臨厚), 이상정, 신우(申祐)에 대한 것이다. 전은 러말선초(麗末鮮初) 때 사람 백암 김제해(白巖 金齊海)에 대한 것이다.

권12는 부록(附錄)이다. 이병원(李秉遠)이 1834년에 지은 행장이 실려 있다.

묘소

『아주 신씨 대동보』에 묘는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동곡(凍谷)에 있다.

현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구산리에 있는 금산 서원에 신지제(申之悌), 신지효(申之孝)와 함께 배향되어 있다. 금산 서원은 신체인이 강학을 위해 1782년 건립한 금연 정사를 1977년 중건하고, 1981년 서원으로 승격한 것이다. 신체인의 위패는 신지제와 함께 1977년 배향되었다.

[참고문헌]

『회병집(晦屏集)』

『송경록(崇敬錄)』

『교남지(嶠南誌)』

『의성의 전통』(의성 문화원, 1982)

『아주 신씨 참판공 파보』(대보사, 1985)

『아주 신씨 대동보』(아주 신씨 대종회, 2012)

회병집(晦屏集)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회병집 (晦屏集)	
저자	성명	신체인 (申體仁)
	자	자장 (子長)
	호	회병 (晦屏)
판사항	木版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863	
권수	12	
책크기	29.0×19.5 cm	
사부분류	별집류	
기타사항		

해제

회병집(晦屏集)

晦屏 申體仁(회병 신체인)의 문집. 木板本, 1863, 12卷6冊:四周雙邊(사주쌍변), 半郭(반곽) 20.7×15.0cm, 10行21字 註雙行(주쌍행), 內向二葉花紋魚尾(내향이엽화문어미):29.0×19.5cm. 卷1은 시 220수, 卷2~5는 書(서) 119편, 卷6은 잡저 10편, 권7은 序 9편, 記 12편, 卷8은 識跋(식발) 12편, 箴銘(잠명) 4편, 상량문 4편, 卷9는 제문 21편, 묘표 2편, 卷10은 묘지명 12편, 묘갈명 3편, 비문 2편, 卷11은 행장 9편, 傳(傳) 1편, 卷12는 부록인 행장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후기 의성에 살던 처사 학자인 신체인은 비록 전원에 은거했던 처사로서 안질에 걸려 고생을 했지만, 독실한 학자로서 방대한 분량의 저술을 남겼다. 내용이 간단하지 않고 깊이가 있으며 분량도 많은 장문의 논설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저술을 검토해 볼 때, 당대의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학자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학

문적 업적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書(서)에는 한미한 시골 선비가 독서로 낙을 삼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누누이 그려져 있고 특히 저자가 평소 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연이 자주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김종덕, 유장원 등 당대를 대표하는 학자들과 심오한 학문적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 깊이 있는 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川沙 金宗德(천사 김종덕)에게 보낸 편지가 매우 많다. 또 김종덕에게 보낸 편지에는 『심경강록강보』의 간행에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그들은 편지를 통해 『심경강록강보』에 관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은 『심경강록강보』라고 하는 조선시대 『심경』 관련 주석서 가운데 가장 방대한 저술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거질의 문집을 남길만큼 당시 영남지역을 대표하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또 東巖 柳長源(동암 유장원)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유장원이 지은 『溪集考證(계집고증)』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계집고증』은 퇴계집에 대한 주해서로서 가장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김종덕, 유장원 등 당대의 영남좌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자들과 밀접한 교류를 나누고 있을 만큼 학문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書 가운데 특히 자질들에게 보낸 家書가 있는데, 그 중 居接(거접)에 참석하고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거접에 참여하고 있는 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서 당시 거접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雜著(잡저) 가운데 「天學宗旨圖辨(천학종지도변)」은 천주교에 대한 비판서이다. 근자에 중국을 통해 들어온 천주학에 기호지역의 총명한 인재들이 대거 중독되었다고 적고 있다. 분량도 상당히 방대한 편이며, 저자의 서학비판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 「中何嘗不在裏面辨(중하상불재리면변)」을 보면 저자가 상당히 성리설에 해박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이 발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에 관한 논쟁은 성리학에서도 매우 미묘한 부분인데, 저자는 상당히 치밀하게 장남헌과 주자의 학설을 분석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책목록

晦屏先生文集目錄 해제

회병선생문집권지일

시(詩)

회병선생문집권지이

서(書)

상대산선생(갑신) 上大山先生(甲申)

저자의 스승인 대산 이상정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상정이 남연서원으로 가서 영천의 선비들과 함께 심경강록간보를 교정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선배들이 남긴 미완의 문자를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사문을 위해 다행이라고 했다. 또 저자 자신도 말석에 참석할 수 있다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참석을 희망했다.

상대산선생(경인) 上大山先生(庚寅)

우곡유집(雨谷遺集)의 교감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유집이 간행됨으로써 실천의 아름다움과 문장의 오묘함이 후학에게 끼칠 터이니, 사문을 위하여 일대 행운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다만 전질을 보지 못하고 유숙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공부의 공효와 일과를 다룬 부분을 산거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깊이 생각지 않고 경솔히 대답한 것 같다고 후회했다.

상대산선생(신묘) 上大山先生(辛卯)

대산 이상정에게 새로운 벼슬이 내렸음을 축하했다. 다만 신병으로 인하여 출발할 때 직접 찾아가 전송하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조만간에 찾아뵈는 것을 기약했다.

상대산선생(무술) 上大山先生(戊戌)

인적이 끊어진 조용한 시골에서 지내는 정경을 적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접빈객하면서 틈이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글을 읽고 있다고 했다. 가르침과 배움이 함께 성장한다는 옛말을 실감한다고 하면서, 가끔 의문이 생기는 문제점을 기록해 두었다가 문목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단계 하

위지의 충절을 읊은 시 한 두 편을 지었는데 졸렬한 문장이지만 한 번 보아달라고 했다.

상대산선생(신축) 上大山先生(辛丑)

근자에 집안 아이가 선생의 문하에 나아갔다가 돌아옴으로써 대신 이상정이 벼슬에서 풀려나 시골에서 글을 읽도록 허락받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대군자의 출처가 시운의 성쇠와 직결될 수밖에 없음이 한스럽지만, 후생말학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보면 하늘의 뜻이 우연은 아니라고 했다. 계문제자록을 받았음을 말하였고, 성학십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읽고 의심스러운 점을 질의했다. 종질 정오(鼎五)에 대한 가르침을 부탁했다.

여구사당김공 與九思堂金公

구사당 김낙행에게 보낸 편지이다. 함께 공부하다가 책을 싸서 돌아온 후에는 별다른 일 없이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심경질의와 대학혹문을 빌려 와서 읽고 있음을 말하고, 심경질의는 단지 보기에 편하도록 소주를 많이 생략하여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학혹문도 왕왕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비교·대조할 수 있는 간행본이 없어 아쉽다고 했다. 빌려온 책이 필사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구사당금공(병술) 與九思堂金公(丙戌)

저자는 근자에 소호를 방문했다고 하고, 그것은 단순히 동생 집에 들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대신 선생을 뵈고 자극을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오며가며 사람들과 허튼 수작이나 했을 뿐이라고 했다.

여강와임공(신묘) 與剛窩任公(辛卯)

강와 임필대에게 보낸 편지이다. 장원(藏院)에서 10일 날 열리는 강회에는 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고 거기서 강독하는 교재가 태극도설이라 하니, 그 규모가 보통과 다르고 교재 또한 우리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흥기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반드시 참석해야 마땅하나 마침 여동생 혼사를 앞두고 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미안해했다.

여채상서(제공○정해) 與蔡尙書(濟恭○丁亥)

번암 채제공(樊巖 蔡濟恭)(1720~1799)에게 보낸 편지이다. 저자 문중의 선조에 대한 비문을 번암이 지은 것으로 보이며, 번암은 비문에서 자손에 관한 기록을 항렬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고, 전세에 살았던 사람이 후세보다 낮은 위치에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여채상서(무자) 與蔡尙書(戊子)

변암 채제공이 귀양에서 풀려나 돌아옴을 축하하고, 아울러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비문에서 자손에 관한 기록을 둘러싸고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문중 인사의 전언과 변암이 저자 문중의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손에 관한 기록을 고친 것이 변암의 의사가 아니고 기록을 담당한 문중 인사의 소행이라고 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여이방백(병모) 與李方伯(秉模)

방백 이병모에게 보낸 편지이다. 성인이 군주의 지위에 올라있고 현인이 방백이 되어 바야흐로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또 지난번 초청에 응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병에 걸리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하고 양해를 구했다.

답이후(홍원○기유) 答李侯(弘源○己酉)

이홍원에게 보낸 답서이다. 달 반을 출타했다가 귀가하여 7월 19일자로 보내준 간찰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생선과 술을 함께 보내준 데 대해 감사했다.

답이후(신해) 答李侯(辛亥)

이홍원이 저자가 살던 고을 수령을 하다가 이임한 것을 아쉬워하고,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 준 데 대해 대군자의 신의라고 칭송했다. 이미 떠난 후에 편지를 읽으니 내용이 정중하고 필적이 완연하여 현리를 통해 몇 자 적어 부친다고 했다.

여유주유장(을유) 與柳洲柳丈(乙酉)

유주 유평(柳洲 柳澧)에게 보낸 편지이다. 부모님 모시고 근근이 생활하자니 독서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물며 시를 짓는 일은 어느 여가에 생각이나 하겠는가라고 했다.

여유주유장 與柳洲柳丈

맑은 가을날 국화가 만개하니 그대가 마음껏 흥취를 즐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보내준 편지에 가득 담긴 저자에 대한 칭송은 지나친 면이 있으며 이것은 저자에 대한 애정 때문일 것이라고 감사했다.

여근인당이장(정유) 與近仁堂李丈(丁酉)

근인당 이의태(近仁堂 李宜泰)에게 보낸 편지이다. 고을의 장로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니 이제 남은 사람은 근인당 뿐인데, 마땅히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속무에 얽매어 가지 못

한다고 했다. 집안 아이가 벼슬을 얻어 숙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전하는 말로 정신과 용모가 여전 하더라 하니, 이는 존양의 결과로서 후학들이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이라 했다. 아버지의 상중에 어머니가 죽은 경우, 기년복을 입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여춘수재이장(임인) 與春睡齋李丈(壬寅)

춘수재 이명천(春睡齋 李命天)에게 보낸 편지이다. 당시 벼슬을 받아 바닷가 고을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곳 풍속은 어떠한 지, 서로 왕래하는 사우는 있는지 또는 장로를 존경할 줄은 아는지 물었다. 이함창이 마침 귀양을 왔다고 하니 같은 고을에서 서로 어울리지도 물었다. 저자는 선조 오봉(梧峯)부군의 연보를 완성했는데, 이명천에게 보내서 교정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여춘수재이장(기유) 與春睡齋李丈(己酉)

봄바람이 차가우니 원근에서 들리는 소문이 모두 흉한 소식뿐이라 했다. 석전에 강진사가 또 죽었다고 하니 통석함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라고 했다. 문을 닫고 들어앉아 있으니 무료하기 한이 없는데 다만 다행한 것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눈병이 심하여 전송하지 못함을 호소했다.

답춘수재이장(답春睡齋李丈)

지난번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많은 손님을 응대하며 잠시도 쉬지 않던 모습을 적었다. 저자는 영협에서 십여 일을 보내고, 남쪽으로 내려와 단구 이종형 집에서 이틀을 머물렀고, 동파에 이르러 수일을 머물렀다고 했다. 대평 표곡에서는 유상사 형제와 1박하면서 그가 편찬한 계집고증(溪集考證)을 열람하고 토론했다고 했다. 저자는 도합 30여 일을 여행했다.

여춘수재이장(갑인) 與春睡齋李丈(甲寅)

이명천에게 벼슬이 내린 것을 다시 축하하고, 찾아뵙고 축하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싶지만 신병으로 인하여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또 손자가 시에 능하여 임금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 장래가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과거시험 날짜가 장대서원의 향사와 겹쳐지니,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여시리유장(병술) 與柴里柳丈(丙戌)

시리 유성림(柴里 柳聖霖)에게 보낸 편지이다. 만산홍엽의 계절을 맞아 마음 맞는 장로들과 함께 속리산·가야산·금오산 등을 유람하면서 문장대·해인사 등 경승지를 돌아보고, 최치원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평소 문하를 출입하면서 세속을 벗어난 경지를 느꼈지만

만년의 근력이 여기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했다.

여이가당조장(정미) 與二可堂趙丈(丁未)

형제의 안부를 물었다. 저자는 전염병을 피하여 부모님과 함께 여름 동안 두문불출하느라 1년을 허비했다고 한탄했다. 저자에게 부탁한 글은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별도로 歌詩 3장을 서문을 붙여서 보내니 한번 보고 비웃어 달라고 했다.

답송남신장(정미) 答嵩南申丈(丁未)

송남 신광익(嵩南 申光翼)에게 보낸 답장이다. 3월 17일자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봄날 경치를 즐기며 한가하게 사는 시골 풍경을 묘사하면서 신광익의 가르침을 구한다는 소회를 적었다. 마지막으로 시 한 수를 보내니 근자의 심경을 살펴 달라고 했다.

답송남신장 答嵩南申丈

5월 그믐에 보낸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난번 보낸 편지에 답장도 못했는데 연이어 편지와 시문, 그리고 예설에 관한 문목을 받으니 송구하다고 했다. 질의에 답할 지식은 없지만 몇 가지 의견을 적어 보내니 참고하시라고 했다.

별지 別紙

신광익의 문목에 대한 답변을 별지에 적었다. 먼저 질문을 한 줄로 적고 답변을 적었다. 질의의 내용은 祧主의 旁題는 수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庶子の 소생모를 무엇이라고 칭할 것인가의 문제, 적자손이 없는 경우 서자손이 봉제사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전란 중에 신주를 埋安하는 문제, 承重孫의 妻에 대한 服制 문제 등이다. 별지의 말미에 鄭鳴臯의 견해를 소개하기 위해 그의 편지를 첨부했다.

답송남신장별지 答嵩南申丈別紙

신광익의 예설에 대한 답변을 별지에 적었다. 마찬가지로 질의의 요지를 한 줄로 적고 이어서 답변을 적었다. 질의의 요지는 상복에 따른 관(冠)의 종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승중손의 처에 대한 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다시 논했다.

여송남신장(기유 與嵩南申丈(己酉))

가을 기운이 낙동강 상류에까지 미쳤음을 말하고, 부모를 모시고 적막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근자에 손자를 얻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신광익의 임진록과 시편을 보니 자신도 모르게 흥감함을 느낀다고 했다. 변변치 못한 사람에게 또 다시 예설을 질의하니 즐렬한 견해를 별지에 적었다고 했

다.

별지 別紙

1787년 8월에 질의한 내용과 9월초에 질의한 내용인데, 요지는 복제에 관해 주자가례와 의례의 내용이 다른 문제, 후계자가 정이부체(正而不體)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 문제, 같은 골짜기에 산소가 여러 기인 경우 별제를 하는 것이 옳은지 합제를 하는 것이 옳은지의 문제, 적서의 구분은 엄격하지만 골육의 은혜를 동일하므로 복제에도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퇴계설에 대한 해석 문제 등이다.

답송남신장 答嵩南申丈

수일 전에 손이 찾아와서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신광익의 초3일자 편지였다고 했다. 저자는 안질이 끝내 낫지 않아서 언제나 눈앞이 뿌옇다고 했다. 愼생원이라는 사람이 신광익에게 글을 청했는데, 신광익은 저자에게 부탁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신생원의 이름은 일찍이 들었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의 글을 보니 호걸지사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회병선생문집권지삼

書 書

여유곡권장(정린○경술) 與酉谷權丈(正鄰○庚戌)

유곡(酉谷)에 사는 권정린(權正鄰)에게 보낸 편지이다. 흥범구주에서 각각의 항목에 속하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권정린이 이전에 저자에게 질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당시에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잘못 대답을 했다고 하면서, 수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면서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했다.

여종장(룡기○을유) 與宗丈(龍起○乙酉)

가장(家狀)을 짓는 일은 문중의 큰 과제이니 저자가 구구한 식견으로 함부로 손댈 일은 아니지만, 문중의 장로들이 관여할 처지가 못 되고 종숙께서도 떠날 시간이 급하여 부득이 맡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유사(遺事)만 수록하려고 했으나 모두가 가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짓게 되었지만, 유사와 기타 문자도 부록으로 수록해야 할 것이라 했다. 제목은 안렴사신공실적(按廉使申公實蹟)이라고 했다. 그 외 몇 가지 수정해야 할 사항을 말했다.

여종형(관모○신해) 與宗兄(觀模○辛亥)

지난번 질의하신 아버지의 상중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 아들이 승중(承重)을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경황 중에 잘못 대답을 했다고 했다.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승중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지만, 변복(變服)의 상황이 아니라면 갑자기 승중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만약 조부의 소상(小祥) 전이라면 소상 때 승중을 하면 되고, 소상을 지낸 후라면 승중을 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여러 사람들이 예법에 대해 저자에게 질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답강상사(기축) 答姜上舍(己丑)

진사 강필면(姜必勉)에게 답한 편지이다. 북쪽으로 여행하고자 했던 계획은 결국 마가 끼어서 가지 못하게 되었으니 약속에도 운수가 있음을 알겠다고 했다. 보내준 시에 대해 품평하였다. 낚시하기 좋은 때가 되었다고 했다.

답강상사(신묘) 答姜上舍(辛卯)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내용이 간절하면서도 해학이 넘쳐 흐름을 알았다고 했다. 저자는 편지를 쓸 때 이런 점이 부족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노형께서 평소 남을 대하는 상정인지 물었다. 또 평소 수양이 깊고 얌음이 드러나는 것이며, 스스로 검속함이 지나쳐서 명랑함이 부족한 것을 한으로 여긴다고 했다.

답강상사(임진) 答姜上舍(壬辰)

늘그막에 이르러 온갖 병이 꼬리를 물고 발생함을 한탄했다. 저자는 강필면보다 10여세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러한 병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남은 이빨이 몇 개 되지 않고 음식을 씹을 때 가끔 우스울 때가 있다고 했다. 연상(淵上)에 초가를 짓고 낚싯대를 매고 아침저녁으로 낚시하는 즐거움이 솔솔하며, 가끔은 沙汀을 불러내어 함께 즐긴다고 했다.

답강상사(을사) 答姜上舍(乙巳)

시골에서 한적하게 지내는 즐거움을 묘사하고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골짜기에 꽃구경을 하다 돌아와서 능력껏 경전 수십 행을 읽는다고 하고 강필면에게도 즐거움을 함께 느끼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조침지(의양) 與趙僉知(宜陽)

침지 조의양(趙宜陽)에게 보낸 편지이다.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내용이 정중한 것과 더불어 필체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쓴 것 같기도 하여 구십 노인의 작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라고

했다. 조의양보다 십여 세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신병은 날로 더하고 계획했던 학문은 진보가 없어 세상에 죄를 짓는 기분이라고 한탄했다. 그 외 빈한한 선비의 일상에 대해 적었다.

답조월하(계사) 答趙月下(癸巳)

월하 조운도(月下 趙運道)에게 보낸 편지이다. 편지 받고 잘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고, 저자는江上에 집을 짓는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근자에 비가 와서 파종도 해야 하는데 수 삼 명의 종들을 데리고 힘닿는 대로 하고 있다고 했다. 부탁하신 국화는 보냈는데 비가 와서 뿌리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 했다.

여조월하근계(기유) 與趙月下昆季(己酉)

조운도(趙運道) 형제에게 보낸 편지이다. 지난번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간의 풍류와 학문에 관해 말했다. 선비 李致道の 죽음을 말하면서, 스승의 家學이 땅에 떨어져 우리 당의 사풍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였다. 서울지역의 물정이 더욱 부박해짐을 걱정하고 다행히 임금의 뜻이 저렇듯 확고하고 경연에서도 안동유림에 대해 언급하실 정도이니, 이러한 때일수록 처신에 있어 신중하고 자질들과 연소한 무리들이 혹시라도 수작함에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여조월하근계(을묘) 與趙月下昆季(乙卯)

노쇠와 질병으로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저자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개탄했다. 다행히 조운도 형제는 한 때의 불행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독서와 조섭을 하고 있다고 하니, 벗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운도의 생애에 시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로하면서 동병상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이후산(병오) 與李后山(丙午)

후산 이종수(后山 李宗洙)에게 보낸 편지이다. 지난번 만났을 때 심경강록간보의 문제점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진실로 옳은 말씀이라고 했다. 간역 사업이 이미 다 끝나고 반질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추개(追改)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끝내 후학들에게 혼란이 될 것이라 했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천사 김종덕과 만났다고 했다. 그 외도 간보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점에 관해 여러 가지로 사례를 들었다. 저자는 이러한 의심이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이종수는 그들과 함께 교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했다.

답이후산(무신) 答李后山(戊申)

역병을 피해 두문불출하고 집안에서 책을 읽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근본 공부가 취약하여 학

업에 진보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역에 나오는 敬자의 해석 문제를 두고, 이종수는 정상(正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저자는 시종(始終)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문제에 관해 장황하게 양자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여이후산(병진) 與李后山(丙辰)

눈병이 심해 학문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니 정신이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때에 엄격한 스승이라도 곁에 있으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하며 가르침을 구했다. 심경강록간보에 관련된 의문점에 관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여김도언직보곤제(경진) 與金道彦直甫昆弟(庚辰)

천사 김종덕 형제에게 보낸 편지이다. 직보형은 언제 산에서 내려왔는지, 이번에는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물었다. 모든 사람이 과거시험에 매달려 있는데, 직보형 홀로 단정히 앉아 수양하면서 외부의 유혹을 물리치니, 후일 우리당에서 귀의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했다. 저자는 스스로를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체를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 더 볼 것이 없다고 했다.

여김도언곤제(임진) 與金道彦昆弟(壬辰)

도언·직보 형제가 서로 격려하면서 학문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저자는 아직 지행(知行)과 경의(敬義)의 실질은 아직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마음 같아서는 틈을 내어 평소 의문으로 여겼던 점과 사우간에 토론해 보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형제분을 만나서 물어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점을 한탄했다. 지난번에 북쪽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귀로에 소호를 지나면서 대산선생을 만났는데 며칠을 머물렀지만 돌아오는 길이 촉박하여 질의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아쉬워했다.

여김도언직보경은홍보제곤제(무술) 與金道彦直甫景蘊弘輔諸昆弟(戊戌)

김종덕·김종발 등 여러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번에 일을 치르면서 추위를 탔더니 병에 걸렸다고 하면서 늙음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조카 옥이 오면서 시 한 수를 갖다 주길래 보았더니 이별 후에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천사 김종덕이 앞서 보낸 시첩의 말련이 가장 심절하고 구재 노형의 두 구절에도 사람을 격려하는 의사가 들어있어, 후생들이 감히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는 등 주로 시에 관해 감상을 적었다.

답김도언제곤제 答金道彦諸昆弟

편지와 시를 받고도 곧장 답장을 하지 못했음을 사과하고, 장문의 편지를 보니 백씨 형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말이나 자획이 엄중확실한 뜻이 있고 조급함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오랜 수양의 끝에서 나온 것이라 연소한 무리가 가볍게 논할 바가 아니라고 했다. 본래 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의리의 향배나 말투의 허실에 구애되지 않고 한결같이 격률이 청아하고 뜻이 호탕함을 귀하니 여겨 혹여 도리와 상반되는 점이 있다 해도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당송 간에 중국의 시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시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저자는 시를 짓는 자세에 관해서 김종덕과 장황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점은 저자가 시학에도 상당히 조예가 있는 학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여김도언(임인) 與金道彦(壬寅)

단풍이 온산을 물들이는가 싶더니 얼음이 어는 한파가 함께 왔다고 하면서 안부를 물었다. 성우 형과 주부형이 함께 환로에 나아가게 됨을 축하했다. 소호유고(蘇湖遺稿)를 베끼는 일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한 번 가서 보고 싶지만 여의치 않다고 했다.

여김도언(계묘) 與金道彦(癸卯)

죽천(竹泉)의 부고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야 말로 말세의 인물이 아니었는데 환갑도 안 되어서 홀연히 가버렸다고 아쉬워했다. 비록 궁행 일변에 치우치는 면은 있었지만 확고부동하여 세속에 휩쓸리는 태도는 없었다고 했다. 대산선생이 역책한 후 우리 당은 귀의할 바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종질 정오(鼎五)는 뜻하는 바가 있어도 집안에서 책을 읽을 정도이니, 김종덕에게 보내서 배우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내치지 말고 자신의 조카처럼 여기고 가르쳐 달라고 했다.

여김도언경온홍보제곤제(을사) 與金道彦景蘊弘輔諸昆弟(乙巳)

구재(苟齋)의 죽음을 애도했다. 대산선생이 서거한 후 우리 당이 겨우 명맥을 이어온 것은苟齋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 구재가 죽은 것이 어찌 한 가문이나 한 고을의 불행에 그치겠는가라고 하면서 애통해했다. 구재는 김천사에게 동생 되는 사람으로서 동기를 잃었으니 천사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김도언 與金道彦

구재가 죽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도 더욱 면려하여 학문에 힘쓰자는 내용이다. 일간에 朱子 書 몇 편을 읽고 간간이 경전 몇 장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연구해 보았더니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活物이어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죽은 물건이 된다는 것이며 천리와 인욕, 誠과 僞, 人과 鬼가 갈라지는 길목이니, 진실로 공부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점이라 했다. 나옹유고(懶翁遺稿)를 필사하는 일은 노형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분이 비로소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고 하면서, 언제 착수하게 될지는 몰라도 봄에는 한 장이라도 베껴서 김천사에게 보낼 테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답김도언론치곡서(병오) 答金道彦論致曲書(丙午)

학문적인 토론에 있어서 양자 간에 이견이 있고 그것이 쉽게 해소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김천사의 주장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겨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道의 전체는 광대하여 어떤 사물도 포괄하지 않음이 없고 어떤 사물도 통섭하지 않음이 없으며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은 각기 일곡(一曲)을 이루고 있어서 마치 산수의 一曲과 같고 용이나 뱀의 一曲과도 같다는 취지의 말로써 이일분수의 성리학적 원리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이것을 치곡설(致曲說)이라 정의했는데 드물게 보는 긴 편지이다.

여김도언(정미) 與金道彦(丁未)

일전에 김상사 자후 형이 와서 며칠을 머물고 갔는데 그는 백씨와 함께 주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들 형제와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그들의 작업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더라고 했다. 또 김상사는 심경질의간보와 행장 몇 조목을 보고는 죽은 벗의 진면목이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지난번 편지의 치곡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

여김도언제곤제(무신) 與金道彦諸昆弟(戊申)

봄이 되어 만물이 소생하는 움직임이 도처에 있는데 저자는 겨우내 눈병이 도져 봄을 즐기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책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지난번 김천사와 주고받은 40운 연구의 시를 찾아내어 아이를 시켜 읽게 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흥취를 돋구고 있다고 했다. 여안(汝安) 형이 작고했고 柳형은 모친상을 당했다고 알려주고 있다.

답김도언(경술) 答金道彦(庚戌)

월전에 와운(臥雲)과 함께 횡계 옥간정·태고와에 들렀다가 물길을 따라 아래위로 두 원로의 유적지를 찾아다녔는데, 서숙에서 며칠 머물면서 유집(遺集)을 열람했다고 했다. 살아생전에 수양하던 규모와 강론하던 지결을 만분지일이라도 느낄 수 있었는데,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갑자기 천성(川城)의 여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다고 했다. 강록간보는 필사가 완료되었으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김도언론심경강록간보별지(병오) 與金道彦論心經講錄刊補別紙(丙午)

저자가 김천사의 심경강록간보를 열람하고 문제점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했다. 먼저 한 글자 낮추어서 문제되는 부분을 옮기고, 자신의 의견은 한 글자 올려서 정리했다. 이 지적이 실제 간보의 편찬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모르지만, 심경강록간보 편찬에 저자가 끼친 영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김도언 與金道彦

난번 심경강록간보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적어 보낸 것은 이미 보았을 터인데, 어떻게 조금 참고가 되었는지 물었다. 근자에 영일정씨 정만양·정규양 형제의 ㄱ훈지양선생유고ㄱ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심경강록간보의 내용에 관해 언급해 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여김도언(신해) 與金道彦(辛亥)

김천사의 형제들이 함께 절차탁마하는 것을 누누이 부럽다고 하면서, 저자 자신은 눈병이 악화되어 두문불출하고 책이나 읽는다고 했다. 문득 깨닫는 바가 있으면 아이를 시켜 적게 하지만 겨우 한 두 줄에 그치니 무슨 온고지신의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경강록간보의 제4권 맹자 과육장 부주에 나오는 주자설에 관해 저자가 지난번에 했던 말은 완전히 억견이요 두찬이라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답김도언제곤제 答金道彦諸昆弟

저자의 나이 60이 넘었다고 했다. 그동안 광영이라고는 없었다고 하면서 세 아이들과 둘러앉아 책을 펴놓고 성현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요하고 근심을 잊는 것이 만년의 즐거움이라고 했다. 고금의 현달들이 모두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도가 있었는데, 어찌 감정을 좇아 멋대로 하여 스스로 심성을 해치고 동지들에게 걱정을 끼치겠는가라고 했다.

여김도언곤제 與金道彦昆弟

만년에 궁색하게 사는 모습은 여전하고 안질은 곱절이나 악화되었다고 한탄하면서, 그럼에도 봄 동안에 여러 벗들의 도움 덕분에 굶어죽지 않았다고 하고 특히 김천사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근체시 한 수를 보내니 화답을 바란다고 했다.

여김도언 與金道彦

김천사가 자식을 잃은 데 대해 위로했다. 지난번에 노형께서 차마 당하지 못할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겠거니 했는데, 어찌 만년에 이런 일을 당했는가라고 위로했다. 저자는 자신도 연전에 다 키운 자식을 두 번이나 저세상으로 보냈고, 작년에는 조성소도 한꺼번에 자식을 둘씩이나 잃었는데 이번에는 노형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서 애통해했다.

여김도언(갑인) 與金道彦(甲寅)

김천사에게 침추 벼슬이 내려진 것에 대해 확인하고 축하했다. 그러나 벼슬과 관련해서 의리에 맞는지의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또 가끔 서산재(棲山齋)로 가서 훈지 형제를 만나는지 물었다. 저자 신체인과 김종덕 그리고 정만양·규양 형제는 특별히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혹시 흥이 올라 시를 짓거든 한 자 보내달라고 했다.

여김도언곤제(병진) 與金道彦昆弟(丙辰)

동암(東巖)이 갑자기 세상을 떠남을 전하고 우리 당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음을 걱정했다. 만가(輓歌) 두 수를 지어 보내니, 한번 보시고 교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여김도언(계축) 與金道彦(癸丑)

맹자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해석 문제에 관해 김천사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논증했다. 后山께서 남긴 한 마디가 후학들에게 끼친 은혜가 적지 않으니, 그는 강론과 토론을 중시함으로써 후배들이 선배로부터 영향 받는 바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자의 이견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론을 바란다는 뜻으로 보인다.

회병선생문집권지사

書

여유숙원(기유) 與柳叔遠(己酉)

유장원(柳長源)에게 보낸 편지이다. 중씨를 만나 유장원이 지은 계집고증(溪集考證)을 열람했다고 했다. 계집고증은 퇴계집에 대한 주해서로서 가장 내용이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김종덕·유장원 등 당대의 가장 핵심적인 학자들과 밀접한 교류를 나누고 있을만큼 학문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답이중칙(경자) 答李仲則(庚子)

이사정(李師靖)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뒤늦게 집안 아이 편에 7월 그믐날짜의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몸이 노쇠함을 한탄하였고 저자나 이사정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공통으로 병통으로 삼는 것은 젊어서는 속학에 얽매어서 시간을 보냈고 늙어서는 기력이 쇠퇴함을 한탄하며 쓸데없는 말로 세월을 보내는 점이라 했다. 이사정과 저자 자신의 가정 형편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한탄했다.

답이중칙(임인) 答李仲則(壬寅)

산고(答李仲則(壬寅))를 교감하는 일은 중본(中本)을 베끼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했다. 김·유 제형들의 의견도 그렇다고 했다. 집을 짓는 일은 농번기가 한창이라 손을 댈 수가 없는데, 흥년이 지극하여 계획대로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능력대로 책을 읽다가 틈이 생기면 지팡이를 짚

고 산과 들을 소요하며 낙으로 삼는데 다만 함께 할 이가 없는 것이 한이라 했다.

답이중칙(갑진) 答李仲則(甲辰)

저자가 부인을 잃은 데 이사정이 위문해 준 데 감사했다. 저자는 삼십 년 동안 두 번 상처를 했으며, 그 동안에 더욱 쇠약해졌지만 나름대로 성찰 보섭하여 여러 동지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유집(遺集)은 김사정이 두 번 교정을 거쳤으니 유감이 없다고 했다. 일전에 직보 형을 만났는데 그도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고 했다.

여황경초(임진) 與黃景初(壬辰)

황계희(黃啓熙)에게 보낸 편지이다. 지난 해 봄에 서울에서 만났을 때 허둥지둥하다가 조용히 얘기하지도 못했으니, 지금 와서 생각하니 둘 다 이해득실에 벗어나지 못했던 까닭이라고 생각되어 부끄럽다고 했다. 평소 수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황계희의 의견을 물었다.

여조성여(경진) 與趙聖與(庚辰)

저자에게 자형이 되는 조진도(趙進道)에게 보낸 편지이다. 조진도의 나라에 대한 불평이 문제가 되어 조정으로부터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릉의 정상사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옛사람은 이런 경우에 理자로서 법으로 삼았으니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교훈에 더욱 힘쓸 것을 권유했다.

여조성여(을사) 與趙聖與(乙巳)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움을 전하고 있다. 소호에서 사는 이생(李甥)이 조진도의 문하에서 독서를 하고 싶다고 하니 가상하기는 한데, 그 사람은 정밀하게 완상하는 점이 부족하다고 했다. 저자는 조진도가 그로 하여김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이치를 깨달으며 다소라도 득력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조성소(계사) 與趙聖紹(癸巳)

조술도(趙述道)에게 보낸 편지이다. 조술도는 앞에 나온 조진도에게 형이 되며, 저자와는 도의계를 맺은 사이이다. 조술도가 상처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오랫동안 산야에 거처하며 수양한 사람이 어찌 일시적인 존망으로 인하여 천명의 조화를 잃을 것인가라고 위로했다.

답조성소(을미) 答趙聖紹(乙未)

병마에 신음하다가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편지에 적어 보낸 시를 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즐거움은 여기에 있음을 알았다고 했다. 저자는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책을 놓지 않는데, 매양 근심

으로 하는 것은 얇이 진실하지 못하고 행동이 힘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술도가 산중에 조용히 앉아 외부의 유혹을 단절했음을 부러워했다.

여조성소(신해) 與趙聖紹(辛亥)

작년 겨울에 조술도가 서울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근자가 약속을 실천함의 어려움을 알았다고 했다. 생질이 와서 근자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또 조술도가 지은 운교문답(雲橋問答)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확을 높이고 사학을 억제하는 공력에 대해 깊이 감탄했으며 그러나 마지막의 일단은 겸손함이 지나치다고 했다.

여이군보(신축), 별지 與李君普(辛丑), 別紙

이덕중(李德中)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덕중이 근자에 저술에 의욕을 갖고 있으며 저자에게 보내어 감정을 받고 싶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불치하문의 뜻이라고 했다. 저자는 한때 문장에 뜻을 두었지만 나태해져서 이제는 시문이나 지으면서 세월을 보낸 지가 오래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덕중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덕중을 배반하는 것이 되므로 별지에 의견을 적어 보낸다고 하면서 別紙를 첨부했다.

답이군보(임인) 答李君普(壬寅)

이덕중(李德中)이 저자에게 공부하는 순서를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공부에는 모름지기 순서가 있으니, 먼저 四書を 착실하게 익힌 연후에 점차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중에서 대학의 경우에는 먼저 장구를 숙독하여 모든 경전의 버리를 파악한 연후에 흑문을 읽어서 의리의 정밀함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장구를 읽지 않고 흑문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답이군보(무신) 答李君普(戊申)

작년에 이덕중이 과거에 급제한 자식을 잃은 것을 애도했다. 족손을 통해 들어보니 여전히 그 일로 인하여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위로했다. 우리들이 살아갈 해도 많지 않고, 수명은 조물주가 하는 일이니 이제 그만 슬픔을 거두고 진중하라는 내용이다.

여김중립(기축) 與金中立(己丑)

진사 김중립(金中立)에게 보낸 편지이다. 선배들은 차례로 세상을 뜨고 후배들이 귀의할 바가 없어지고 저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갖는 데 대한 걱정을 피력하고 있다. 옛날을 그리며 시 한 수를 지어 동봉하니,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를 희망했다.

답김중립(갑진) 答金中立(甲辰)

가을에 저자가 상처를 했을 때 위문해 준데 대해 감사했다. 저자는 오십이 넘어 홀아비가 되어 지내는 형편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피력했다. 못 위에 정자는 별로 경치가 없지만 공사가 끝났기에, 분수에 따라 글을 읽고 아이들 공부를 돌보며 큰 걱정이 없다고 했다. 다만 법문이 무너지고 우리당이 날로 쇠퇴하여 김직보·황경초 등 여러 존재들이 뜻을 이루지 못함을 한탄했다.

여김직보(임인) 與金直甫(壬寅)

김직보의 공부와 수양의 정도에 찬사를 보내면서, 저자는 일찍부터 계획해 왔던 江上에 모옥을 짓는 일을 추진한 결과 겨우 삼수 칸을 이루었으나 재력이 바닥나 곤궁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자신이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김행가(종도○임인) 與金行可(宗道○壬寅)

한발이 극심하여 민심이 흉흉하다고 했다. 굶주림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군자가 평소 지키는 절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초연하게 상정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살기 어려움을 피력했다. 부탁하신 재명(齎銘)은 우졸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바이지만 고인께서 저자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하고, 시험 삼아 몇 행을 초를 잡아 동봉하니 살펴보시라고 했다.

답김사준(을사) 答金士濬(乙巳)

김승묵(金崇墨)에게 답한 편지이다. 시골에서 사는 선비의 삶을 적었다. 저자는 못 위에 새로 지은 집에 별 경치는 없지만 일간에 몇몇 학동들이 배우러 오고 친구들도 서로 내왕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이 선비의 즐거움이 아닌가 했다. 벼들과 향을 피우고 책상을 마주하여 주자서를 읽고, 밤에는 홀로 앉아 사물잡이나 속흥야매잡·야기잡 등을 반복해서 완미하니 그 이상 무엇을 구하겠는가라고 했다.

답유인백(신해) 答柳仁伯(辛亥)

유태춘(柳泰春)에게 답한 편지이다. 오랜만에 편지를 보내주시어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감사했다. 저자는 자식을 읽고 또 누이를 잃어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하면서 만년의 처지를 한탄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처마에 닿을 지경이라고 했다.

답유인백(기사) 答柳仁伯(己巳)

저자는 신병으로 고생한다는 것과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하면서도, 위나라 무공의 구십세 잠을 경계로 삼아 어찌 감히 자포자기하겠는가 라고 했다. 다만 안질이 너무 심해 어떤 때는 눈을 감고 과거에 공부한 것을 암송하기도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소위 책을 찢고 학문을

끓어 부처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말도 했다.

여정창백(경자) 與鄭昌伯(庚子)

정충필(鄭忠弼)에게 보낸 편지이다. 저자가 새로 지은 정사에 게시할 편액의 글씨를 부탁한 편지이다. 연전에 錦門精舍라는 네 글자를 받았는데, 집 지을 터가 불편하여 상류 쪽으로 수십 보 올라가서 터를 새로 잡으면서 정사 이름을 금연정사(錦淵精舍)로 바꾸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번거롭지만 다시 편액 글씨를 써 주시면 저자 자신뿐만 아니라 초목과 고기, 새들 조차도 광영을 입을 것이라 했다.

답유사극(★(수+규)○갑인) 答柳士極(★(ᄃ+奎)○甲寅)

산골 마을로 편지를 보내준 것에 감사하고, 사우들의 도움 없이 공부하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유규의 문중에서 과거급제자가 나온 것을 축하했다.

여유사극(갑자) 與柳士極(甲子)

집안 아이가 미동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관에서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유규가 사는 낙동상 상류의 모습을 아름답게 상상했다. 만곡이 갑자가 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했다. 미동서숙에 파주의 김학사가 와 있다고 전했다.

답김계범(을사) 答金季範(乙巳)

김종필(金宗泌)에게 답하는 편지이다. 세모에 그리워하는 심정이 절실하고 강 건너 가서 베개를 맞대고 하룻밤 유숙하면서 회포를 풀고 싶다고 했다.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이 간절하고 동봉한 시의 내용은 옛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충정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했다.

답정상사(리인○경오) 答鄭上舍(履寅○庚午)

변절기에 안부를 물었다. 고령에 행차하여 淸泉翁을 만났는지 물었다. 지난번 고령에 갔다가 돌아갈 때 비바람에 묶여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실을 당시의 상황을 들어가면 회상하였다.

여정상사(정해) 與鄭上舍(丁亥)

안부를 묻고, 저자가 혼자서 공부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선후와 본말이 거꾸로 되었고 공부해도 대부분 허사가 되고 말며, 외물에 신경을 빼앗겨 존양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쌓아도 두텁지 않다고 했다.

답이덕이(만운,○무술) 答李德而(萬運,○戊戌)

학문의 어려움에 대해 서술했다. 과거 이만운이 저자에게 해 주었던 공부 방법에 대한 언급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무능으로 따를 수 없음을 말했다. 초년에는 과거공부에 몰두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시문이나 꾸미는 데 열중하여 한 사람도 내면을 들여다보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답이덕이(임술) 答李德而(壬戌)

지난 겨울에 저자의 집을 방문했다가 바로 돌아갔음을 회고하면서 아쉬움을 말하고 그후 편지를 보내주셨음에도 답장하지 못함을 미안해 했다. 봄기운이 완연한데 안부를 물었다. 나이를 들면서 외부에 대한 관심을 끊고 마음공부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여임공필(보○갑오) 與任公弼(輔○甲午)

저자에게 보낸 간찰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평생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간찰이 한 두 통이 아니지만, 철이 없었던 관계로 간직하고 있는 것은 경인년 11월에 받은 것뿐인데다 윗부분은 집안 아이들이 찢어버려서 부득불 새종이에 붙여서 보냈다고 했다.

답임공필(계묘) 答任公弼(癸卯)

임보가 동생의 초상을 치르고 있었고 저자가 답장을 보낸 것이다. 당시 동생의 아들은 천연두에 걸려 있었는데, 아버지 초상을 치르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임보는 이 문제를 저자에게 상의했다. 저자는 김진사의 주장이 옳다고 했다.

여이중수(기해) 與李仲綬(己亥)

이경록(李經祿)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경록이 "근사록"을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책의 학습 방법과 내용에 관해 서술했다. 규모가 넓고 절목이 두루 갖추어져 있으며 단계가 짜임새가 있고 본말 체용이 갖추어져 있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답이중수(신해) 答李仲綬(辛亥)

이경록이 저자에게 스승의 의발을 계승했다는 언급을 한데 대해 천만부당이라고 사양하면서, 스승께서 서세하고 난 후 후학과 동지들이 서로 교학상장하면서 학문을 해 온 덕분에 학맥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지 저자 한 사람의 힘이 아님을 말했다.

답이중수(갑인) 答李仲綬(甲寅)

만년의 즐거움이 독서하고 학문하는 일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함께 서로 도우면서 학문

할 것을 제외하고 있다. 저자의 눈병이 심해졌음을 언급하면서,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서 책을 읽지도 못하고 결국 육상산의 학문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고 했다.

여김여호(시전○을묘) 與金汝好(始全○乙卯)

남인이 근자에 성은을 입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60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원통함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했다. 효성스러운 생각이 임금님의 귀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당의 후손들이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감읍할 것이니 자손되는 김시전의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 했다.

여이향지(신해) 與李向之(辛亥)

이규운(李奎運)에게 보낸 편지이다. 낙동강의 봄 경치가 볼만하다고 하고, “주자어류”를 초록하는 일의 진척 상황을 물었다. 비슷한 연배들 가운데 이규운 만한 사람을 얻기 어렵다고 칭찬하고, 다만 늙은이의 정력이 소장들과는 다르니 공부하는 절도는 엄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십분 자애해야 한다고 했다.

답임군보(완○계묘) 答任君輔(軫○癸卯)

공필의 동생의 상사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었다. 지난번 저자가 편지에서, 시기가 지나서 지내는 경우에는 담제(禫祭)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 설은, 본래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삼년상을 치른다고 할 때, 담제를 지내는 경우와 지내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했다.

답도성서(상욱○갑자) 答都聖瑞(尙郁○甲子)

산림에 처해 세상과 등지고 살고 있으니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동강선생유집은 저자가 평소 한 번 보기를 소원했던 문집이니 한 질을 보내주면 고루한 말학이 대군자의 성덕을 우러러 볼 수 있겠다고 했다.

답도성서(을축) 答都聖瑞(乙丑)

지난번 만났을 때를 회상하면서, 산중의 고루한 사람이 대군자를 뵈는 기회였다고 술회했다. 지난번 보내드렸던 軒銘 가운데 한 구절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서 개본을 첨부하니 참조 바란다고 했다.

답강사욱(세문○정미) 答姜士郁(世文○丁未)

지난번 방문해 주신데 이어 편지와 시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시귀 가운데 ‘주인청풍’이라는 네 글자는 전혀 사실과 다른 과찬이라고 사양했다.

여이치춘(임자) 與李穰春(壬子)

이우(李堉)에게 보낸 편지이다. 윤월 27일자 경연에서 임금이 하신 말씀과 두번째 상소에 대한 비답은 남인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고, 다시 복궐했을 때 상소를 물리고 인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내려주시었으니 하늘이 감동하고 사람이 감동했다고 서술했다. 또 일로 장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불세의 은광이라고 했다.

답이치춘(을묘) 答李穰春(乙卯)

무더위가 극심하다고 하고 안부를 물었다. 저자는 늙은 나무가 추위를 지나고 난 것처럼 생기를 잃었다고 했다. 더위에 안질은 배로 더하여 두문불출하고 들어앉아서 면벽한 중처럼 살고 있다고 했다.

여이치춘(병인) 與李穰春(丙寅)

저자의 유배 생활을 적었다. 절해고도에서 풍속이 다르고 의료시설이 없는 사정을 적었다. 유배의 명이 떨어졌을 때 집안사람들이 모두 경악하고 당황해 했지만 저자가 담담하게 명을 받은 것은 가학의 덕이라 했다. 옛날 채서산이 유배되었을 때 아들 구봉이 배종했는데, 부자가 맹자의 야기장을 논하면서 초연하게 명을 받았던 일을 거론하고 이것이 군자가 평소 함양한 결과라 했다.

답이치춘 答李穰春

저자가 유배에서 풀려 귀향한 후에 보낸 편지이다. 수 삭이 되지 않아 돌아와 전원에 누웠으니, 우리 남인들이 모두 성은에 감사해야 하며 한 사람의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여김자야(★(토+굉)○을묘) 與金子野(★(土+宏)○乙卯)

남인에게 닥친 시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굉이 벼슬에서 밀려난 것을 위로하였다. 또 우리 무리들이 사우에게 배운 바가 있을 것인데도 이러한 불행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무익한 것을 가지고 유익한 것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근자 저자가 자식을 잃은 데 대해 위로의 편지를 보내 준 것에 감사했다.

여이치도(완○계묘) 與李致道(塤○癸卯)

저자의 스승인 대산 이상정의 아들 이완(李塤)에게 보낸 편지이다. 대산집의 교정에 관해 서술했다. 이완이 대산집 간행 건으로 저자를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내고 나서 큰 비가 와서 걱정했다는 사연을 적었다. 또 문집을 교감하는 일은 실로 중대한 일로서 한 두 사람의 동지가 이미 교감을 거쳤거니와 우매한 이 사람이 맡을 일은 아니지만 효자께서 유고를 끌어안고 와서 부탁하

는 일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교감의 실제 내용에 관해 사례를 들면서 몇 가지 사안을 논의했다.

여이치도 與李致道

인편에 보낸 편지와 문집 9책 및 백책 1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완의 용의주도함을 칭찬했다. 보내온 9책은 한 차례 교감을 보았고, 전과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를 붙여 놓았다고 했다. 이 부분은 저자가 평소 선생을 모시고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서 아들인 당신이 직접 판단할 일이며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발설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회병선생문집권지오

書 序

답김경온(병진) 答金景蘊(丙辰)

금종발(金宗發)에게 보낸 편지이다. 도학자의 심경을 묘사했다. 두문불출하고 병으로 신음하지만, 상에는 보리밥이 올라오니 배부르게 먹고 산수를 소요하니, 저자의 생도 반드시 불우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저자는 항상 정자의 “만물을 고요히 바라보니 모두가自得하고, 사시가 아름답게 바뀌는 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라는 구절을 읊조리게 된다고 했다.

여김경온(기미) 與金景蘊(己未)

호상에서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근자에 소식을 듣고 있는지 물었다. 저자는 이 일은 사문의 흥망 성쇠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로서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高山本은 급문 제장로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감한 것을 본가의 자제가 정서하여 갈무리해 둔 것이라고 하고, 간행에 임해서는 다만 사소한 자획이나 오자 정도 고쳐서 간행하면 될 일이지 몇몇 사람이 마음대로 뜯어고치면 안 된다고 했다.

답김경온(신유) 答金景蘊(辛酉)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최근의 동정과 공부에 소득이 있는지 물었다. 선배들이 차츰 세상을 떠나고 우리 연배들 몇몇만 살아서 의지할 곳 없으니 한심하다고 했다.

답김경온(병인) 答金景蘊(丙寅)

보내주신 편지와 물건에 감사했다. 편지 끝에 하신 말씀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이침량이 섬으로

유배를 떠났음을 언급하고 걱정하면서, 도유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답안상삼(정덕○신축) 答安象三(鼎德○辛丑)

연전에 큰 고통을 당한데 대해 위로했다. 안정덕이 자식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식이 없지만 자식이 있는 것과 같고 의지할 곳이 없지만 의지할 곳이 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답신중원(광효○기유) 答申仲源(光孝○己酉)

가을에 신광효를 방문했을 때 함께 강과 골짜기를 배회하던 얘기를 하면서 옛날을 회상했다. 또 편지를 받아보니 취지가 간절하여 언외의 뜻이 돈독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공부하는 단계와 방법에 관해서는 옛사람들이 정해 놓은 법칙이 있는데, 극재선생집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라고 했다.

답신중원(임자) 答申仲源(壬子)

지난 가을에 보내 주신 편지에 감사했다. 외부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학문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함께 거처하면서 만년의 뜻을 나누지 못함이 아쉽다고 하면서, 저자는 눈병이 악화되어 사람의 안색을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했다.

여신중원(계축) 與申仲源(癸丑)

가뭇이 천지를 뒤덮어서 아사자가 들에 가득한데 다른 병통은 없는지 물었다. 저자는 조용히 거처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다고 하고, 정명도의 “만물을 고요히 관찰하니 모두가 자득하다.....”는 시귀를 생각한다고 했다.

여신경희(택명○병진)

大阮 어른이 하세하고 난 후 3년 동안 빈소에 잔을 올리고 곡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어찌 평소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모습이겠는가라고 미안해했다. 저자는 대원 어른의 뇌문을 적었는데 세월이 오래 되어 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답김성필(면유○계축) 答金聖弼(勉儒○癸丑)

지난번 저자를 방문해 주신 것과 떠날 때 남긴 편지에 관해 언급하고 감사했다. 저자는 눈병으로 글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고, 그러나 김면유가 편지에게 하신 말씀으로 스스로 경계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공부에는 순서가 있어 엽등을 안 된다고 했다.

답김성필(병진) 答金聖弼(丙辰)

보내주신 편지에 감사하고, 다만 그 내용 가운데 명창비귀라는 표현은 저자에게는 과분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옛사람의 90세에 쓴 箴을 자신이 사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답유태삼(상경○신축) 答柳泰三(象經○辛丑)

편지를 받고 차가운 봄철에 형제분이 모두 무탈함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 저자가 녀 사자를 써서 재실의 이름을 지음으로써 반성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다.

답조공보(우원○병오) 答趙恭甫(友愿○丙午)

눈병이 심하여 필묵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은 한 글자도 보지 못하니 한스러움이 그 지없다고 했다.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뜻한 바가 독실하고 존양함이 진실됨을 알겠다고 했다. 저자의 나이가 조금 많다고 해서 추송함이 지나치다고 사양했다.

답조공보(을묘) 答趙恭甫(乙卯)

가족을 이끌고 궁벽한 산속으로 옮겨 오니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12월 초순에 문득 지난 달 26일자로 보낸 편지를 받고 황홀한 심정으로 읽었다고 했으며 즉시 답장을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편지를 통해 만사 형통하고 학문에 큰 진보가 있음을 알게 되어 축하드린다고 했다.

답김응지(종준○병오) 答金凝之(宗駿○丙午)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다고 했다. 형제분 모두 학문에 진보가 있는지 물었다. 저자는 근자에 집안일이 조금 정리된 것 같다고 하고, 물가에 어량을 설치하여 큰 잉어를 잡아 회를 떠 놓고 회포를 풀었다고 했다. 그러나 둔감하게 살아가노라 그대와 같은 사람들과 만나 강론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고 했다.

답권숙존(득인○병오) 答權叔尊(得仁○丙午)

수구암 최선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 당은 더욱 의지할 바가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자의 소회가 권득인과 마찬가지로 했다. 저자는 산 속에서 적적하게 지내는데 가을기운이 소슬하니 인정이 그림다고 했다. 편지를 받고 경탄할 때도 있지만, 직접 만나서 제대로 토론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라고 했다.

여장리경(태은○기유) 與張履卿(泰殷○己酉)

봄에 보내주신 편지를 보니 생각하는 것이 가상하다고 했다. 저자는 사는 곳이 적막하고 훌륭한 스승과 벗이 없어서 서로 격려하고 시속에서 벗어나서 향상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지 못하는데, 편지에 쓴 정성스러운 말씀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바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지난날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도 한가한 얘기만 주고받았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언급하지 못한 채 20여 년이 흘러갔다고 했다.

여김개여(양건○임자) 與金開汝(良鍵○壬子)

김양건에게 보낸 편지로서 그는 예학에 조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김양건이 연소한 후배이지만 홀로 고례(古禮)를 행하여 시골의 사우들로 하여금 성대한 의례를 직접 경험하게 했고, 처음으로 선왕의 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했다고 평가했다.

여김개여(무진) 與金開汝(戊辰)

자부상(子婦喪)을 당했을 때 의절에 관해 논했다. 당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부상을 당했는데 저자에게 와서 의절에 관해 자문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끝내 저자의 설을 부정하지 않았는지 묻고, 여러 가지 경우에 대처하는 의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답김성위(임술) 答金聖爲(壬戌)

김종탁(金宗鐸)에게 답한 편지이다. 시와 지문과 답장을 한꺼번에 받았다고 하면서 감사했다. 그동안의 공부한 성과가 속학을 벗어났다고 하면서 칭찬하고, 그러나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敬의 공부라고 하면서 정자와 주자의 말 그리고 “주서절요”와 “대학혹문”의 내용을 들어 자세하게 소개했다.

답정리경(태섭○무진)

정규양과 정만양 형제의 “훈지양선생문집”의 편집에 관해 저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정태섭은 훈지의 후손으로 보인다. 저자는 행장을 썼을 뿐만 아니라 제목 등 편집에까지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답이사휘(갑자) 答李士彙(甲子)

이국림(李國林)에게 답한 편지이다. 이국림이 성리설에 관해 질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저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조목별로 별지에 적었다고 했으나 별지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대개 성인에게는 기질지성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의 문제를 다루었다.

답이춘여(동발○계축) 答李春如(東發○癸丑)

지난 가을 두 사람이 나란히 저자의 거처를 방문했음을 언급하고, 이제 지난달 16일자 편지를 받아보니 두 분이 잘 계신다는 것을 알겠다고 했다. 저자는 늘그막에 산속에 살면서 다른 것은 여전하고 다만 눈병이 더위와 함께 극에 달하여 돌덩이처럼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했다.

답종인이주형제(면조면주○경신) 答宗人以周兄弟(冕朝冕周○庚申)

아주신씨 문중의 면조·면주 형제에게 답한 편지이다. 저자는 문중의 연소배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 만큼 총명하고 문아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고, 유가의 법이 서책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그것이 성공하는가는 오로지 본인의 아취가 고상한가 아닌가, 뜻한 바가 굳은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분발을 촉구했다.

답송태경(계축) 答宋台卿(癸丑)

송국병(宋國秉)에게 답한 편지이다. 선비로서 과거공부에 대한 갈등과 성리설에 대한 질의에 답변했다. 과거공부를 하는 것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면서 퇴계가 같은 내용으로 제자에게 답변한 편지를 인용하여 답변했다.

답송태경(을묘) 答宋台卿(乙卯)

저자는 강가에 살면서 오랫동안 찬 기운을 받아서 신병이 된 지 오래라고 하면서 정월과 이월 사이에 횡사한 자가 여럿이라고 했다. 보내온 시를 보니 불만하고 지금까지 공부가 상당하였음을 알겠다고 했다. 그러나 초학자가 힘쓸 분야는 시가 아니라 경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 했다.

답송태경(무오) 答宋台卿(戊午)

편지를 받고 산속의 재실에서 세상일에 얽매이지 않고 종일토록 독서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을 말했다. 다만 깨달은 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일신상의 문제에 대한 깨달음인지 아니면 경전 내용에 대하여 전날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유 등 문장가들의 글보다는 유교경전을 많이 공부하라고 했다.

답조규응(성부○정사) 答趙奎應(星復○丁巳)

10월 15일자 편지를 받고 답장을 보낸다고 했다. 저자는 별고 없고 다만 사문도 발전하고 있는데 숙유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晩谷도 떠났다고 했다. 지난 가을에 저자를 찾아왔을 때 진정한 도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생각을 읽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편지를 받아보니 직접 만나서 하지 못한 진솔한 심정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노년에 조성복과 같은 연소한 학자를 만나게 되어 크게 의지가 된다고 하면서 성리학과 선비의 삶에 관해 장황하게 썼다.

답박화여(재순○기사) 答朴華如(在淳○己巳)

설을 맞이하여 안부를 물어준데 대해 감사했다. 저자는 병든 몸에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 쇠약한 몸골이 한심하다고 했다. 박재순이 관례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관례를 시행하

는 의미와 절차를 자세히 적었다.

답김연보(취려○병진) 答金鍊甫(就礪○丙辰)

상처(喪妻)를 한 것에 대한 위로와 심경을 적었다. 부부간에 한 사람이 먼저 죽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지나치게 슬퍼하여 정신을 손상시키는 것은 천리의 조화에 어긋난다는 요지이다.

여조생형제(거신거양○계해) 與趙甥兄弟(居信居讓○癸亥)

저자에게 생질이 되는 조거신·조거양 형제에게 보낸 편지이다. 조만곡(趙晩谷)이 죽은 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운명이라고 하지만 일시에 숙유들이 대부분 죽었으니 한 가문의 일이 아니라고 했다. 직접 가서 조문하지는 못하고 다만 몇 자의 만장(輓章)을 써서 소호리로 보냈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이생형제(경상○을묘) 與李甥兄弟(垞垸○乙卯)

생질 이경·이상 형제에게 보낸 편지이다. 조생원 편에 보낸 편지를 받았는지 물었다. 집안에 큰 우환을 당하여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는지 묻고 무덤에는 큰 피해는 없었는지 물었다. 지난번 편지에서 언급한 노인의 눈병에 관한 설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답김시언(종하○정묘) 答金時彦(宗夏○丁卯)

이별한 후 연모했는데 편지를 받아서 반갑다고 하고, 편지를 읽어보니 말과 뜻이 속학을 벗어나 있어서 장차 크게 기대할 만하다고 했다. 지금 주자서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절요는 권질도 적지 않거니와 내용도 초학자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다고 하고, 먼저 중간 이하부분의 사우간에 왕래한 편지를 먼저 읽고나서 전반 부분을 읽는 것이 좋다고 했다.

답서파재종숙(을사) 答西坡再從叔(乙巳)

서파(西坡) 재종숙 신도일(申道一)에게 답한 편지이다. 10월 12일자 편지는 어디서 부쳤는지 모르지만, 편지의 내용이 속학을 벗어나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구절로 가득하다고 칭찬했다. 요즘의 사풍이 저속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드문데, 참으로 가당한 일이라 했다.

답재종숙(기유) 答再從叔(己酉)

서파(西坡) 재종숙에게 보낸 편지이다. 재종숙이 아이종을 보내서 금장첩(錦莊帖)을 구하므로 베껴서 보내고 검하여 시를 보낸다는 내용이다. 아이 종을 통해 보냈는데 아직 떠나지 않고 있어 단

단히 일러 다시 보낸다고 했다.

답재종숙(정사) 答再從叔(丁巳)

西坡 재종숙에게 보낸 편지이다. 곤궁한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걱정하는 내용이다. 재종숙이 보낸 편지에서 하신 말씀은 실질적인 것이어서 사람을 감탄케 한다고 하고, 빈한한 가정의 계획은 저자라고 해서 빈곤에서 벗어날 별다른 수가 없다고 했다. 다만 곤궁할수록 더욱 굳건하고 늙을수록 더욱 당당하게 하라는 교훈을 명심할 밖에 없다고 했다.

답족제(입인○계축) 答族弟(立仁○癸丑)

족제가 장황한 편지를 보내 주었는데, 내용을 보니 근자에 공부의 진전이 있음을 알겠다고 했다. 다만 쉽게 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맹자”에 나오는 “반드시 일 삼는 바가 있도록 하되 기필하지는 말라.”, “잊어버리지 말고 조장하지도 말라.”는 등 몇 가지 교훈을 가지고 참고로 하라고 했다.

여재종질정매(계미) 與再從姪鼎梅(癸未)

타향에 있는 재종질 정매(鼎梅)에게 보낸 편지이다. 세밀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너는 돌아올 줄 모르니, 타향이 고향보다 좋아서 그런지 물었다. 지금 무사한지, 독서는 하고 있는지, 소신을 버리지 않았는지 등 걱정하는 마음을 적었다.

여정매(무술) 與鼎梅(戊戌)

재종질 정매에게 보낸 편지이다. 정매가 가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해 여러 가지 염려의 사연이다. 몇 일이나 걸려 당도했는지 병이 걸리지 않았는지 물었다. 가묘를 모셔간 이후 친척들은 모이면 그 얘기를 하면서 한탄한다고 하고, 떠나던 날 행색이 눈에 선하여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답정매(갑인) 答鼎梅(甲寅)

안질이 극에 달하여 답장을 쓸 수가 없다고 하고 시 한 수를 보내니 언외의 무궁한 뜻을 담고 있다고 했다. 굶어 죽는 것은 작은 일이고 절조를 잃는 것은 큰 일이라 했다.

여종질정옥(을유) 與從姪鼎沃(乙酉)

족질 정옥에게 보낸 편지이다. 장마와 더위가 극성인데 병이 나지 않았는지 걱정했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날짜를 따지지 말고 돌아오고 범사를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여종질정오별지(을미) 與從姪鼎五別紙(乙未)

족질 정오에게 보낸 별지이다. 글을 지을 때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문장은 정확함으로 귀히 여기고 속임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사실을 귀히 여기고 허탄함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엄중함을 귀히 여기고 경솔하고 가벼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등이다.

여정오(기해) 與鼎五(己亥)

먹고 사는 데 별 달이 없음을 알았고 강진사가 보낸 편지와 시를 보니 너를 매우 인정하고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했다. 다만 남들의 하는 말을 가지고 마음에 둔다면 종신토록 그것으로 근심하는 병통을 면치 못할 것이니 유념하라고 했다.

여정오(을사) 與鼎五(乙巳)

상중에 있는 족질 정오에게 보낸 편지이다. 상중에 있을 때는 출입을 삼가라는 것이 옛사람의 법도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남들과 수작을 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행동거지를 번잡하게 하지 말며 오로지 공경과 근엄으로 하라고 했다.

답족질정주(신유) 答族姪鼎周(辛酉)

족질 정주가 현판 글씨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락하는 답장이다. 부탁하기 이전부터 진작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다만 병으로 글씨가 좋지 못하니 고쳐 써도 무방하다고 했다.

답정주문목 答鼎周問目

족질 정주의 문목에 대한 답장이다. 종대부상·계부상 등 주로 상례에 관련된 질의이다.

답정주문목 答鼎周問目

족질 정주의 문목에 대한 답장이다. 종자의 친상, 우제 축문 등 역시 상례에 관련된 질의이다.

답종질정응(계축) 答從姪鼎凝(癸丑)

종질 정응에 대한 답장이다. 정응이 주로 삼강령 팔조목에 관해 질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삼강령 팔조목이 공부와 공효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고 있다. 양촌 권근의 도설은 비록 정밀하고 상세하지만 공부와 공효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기자정진(갑신) 寄子鼎辰(甲申)

저자의 아들 정진에게 부친 편지이다. 당시 정진이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타지에서 공부

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는지 물었다. 또 南선생에게 잘 배우고 혹여 태만하지 말며, 오늘 배운 것은 잘 익혀서 다음날 배송을 할 수 있어야 스승을 모시는 도리라 했다.

기정진(임진) 寄鼎辰(壬辰)

아들 정진에게 부친 편지이다. 무사히 도착했음을 알았다고 하면서 처신을 잘 할 것을 당부하는 편지이다. 언행에 삼가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며 시사에 관해 언급하지 말고 밤에 글을 읽는다고 안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기진아별지(을미) 寄辰兒別紙(乙未)

아들 정진에게 보낸 별지이다. 정진이 그동안 쓴 글을 모아서 저자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아들의 글에 대해 전부 읽어보고 문제 있는 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목을 밝히고 일일이 문제점을 지적하여 방대한 분량의 평론을 별지에 적었다

기자정휘(갑인) 寄子鼎輝(甲寅)

아들 정휘에게 부친 편지이다. 정휘가 거접(居接)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휘가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출가하여 또래들과 어울렸으니, 학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언행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접중에는 연장자도 있을 터이니, 연장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 외 단체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고 있다.

기자정휘(임술) 寄子鼎輝(壬戌)

귀로에 오른 아들 정휘에게 보낸 편지이다. 심부름꾼이 당도했을 때 너는 이미 출발했다고 아쉬워하면서, 어제는 어디서 잤는지 오늘 명곡에 도착했는지 물었다. 출발할 때 아비가 해 준 말을 기억하고 있는지, 언동을 조심하고 특히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 유촌·석전 등지를 지날 때 봐야 할 분들에게 빠짐없이 인사를 치르는지 등을 걱정했다.

회병선생문집권지육

잡저 雜著

종손조응자사 宗孫祖應字詞

종손 祖應에게 자를 지어주면서 지은 글이다. 조응의 자를 幼承로 지어 주었다.

창명집구도(병설) 淸銘集句圖(并說)

저자가 숙흥야매잠을 흥내내어 자신의 공부 방법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천학종지도변 天學宗旨圖辨

천주교에 대해 비판한 글이다. 근자에 중국을 통해 들어온 천주학에 기호지역의 총명한 인재들이 대거 중독되었다고 적고 있다. 서학비판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다.

중하상불재리면변 中何嘗不在裏面辨

성이 발한 후에는 마음이 中의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된다는 남헌장씨의 학설에 대한 비판이다. 주자설을 인용하고 비판했다.

부졸삼년내위모복설 父卒三年內爲母服說

아버지가 죽고 3년 이내에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어머니를 위한 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자자의 예설이다.

채각헌동잠설의의 蔡覺軒動箴說疑義

각헌채씨의 동잠(動箴)에 대한 의문을 적은 글이다. 동잠에는 철인과 지사를 구분하여, 철인은 생각함에 철저하고 지사는 행동함에 힘쓴다는 말이 있다.

서증류학사사현(태좌) 書贈柳學士士鉉(台佐)

유이좌가 저자를 방문하여 4언 8구의 시로써 격려해 준 짚막한 글이다.

현서다사권유문 縣西多士勸諭文

저자가 살았던 현의 서쪽 고을에서 공부하는 선비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은 글이다. 어진 현령을 만나서 비로소 흥학의 기운이 도는데, 비록 숫자는 적지만 존재들이 많은 곳이니 열심히 공부하라는 내용이다

유계빙계원벽문 留揭氷溪院壁文

의성 빙계서원의 벽에 게시한 격려의 글이다. 본래는 절이 있던 곳인데 허물고 서원을 지었다고 했다.

독서류록 讀書謬錄

저자가 독서를 하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발췌하고 자신의 생각을 적은 독서록이다.

대학 소학·심경·가례 등에서 뽑은 내용들이 많다. 또 역사서와 주요 학자들의 일화나 주장도 언급했다. 분량이 많고 논의도 심오하다.

회병선생문집권지칠

서序

난리일기서 亂離日記序

유유현 남급이 쓴 난리일기에 대한 서문이다. 저자가 병산에 갔다가 비로 인하여 귀가하지 못하고, 유유현의 증손인 남주서의 집에서 난리일기를 구해보고 쓴 서문이다. 난리일기는 병자호란 때의 일기로서 당시 임금을 모시고 남한산성에 일어났던 일을 적었다.

귀동일고서 龜洞逸稿序

의성에 살던 귀동 신중인의 일고 서문이다. 불행히 일찍 죽었으므로 저자가 그 유문을 수습해 두었는데, 아들 백헌이 장성하여 원고를 다시 정서하여 간행하고자 하므로 저자가 서문을 써 주었다.

현재서공시론후서 縣宰徐公詩論後序

의성현감으로 부임했던 徐공이 흥학과 설교에 열심이었던 것을 기념하여 그가 관내의 유생들과 주고받은 시론에 서문을 썼다.

귀원증별첩서 龜園贈別帖序

저자의 재종질인 정매(鼎梅)가 가묘를 모시고 남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므로 증별시를 쓰고 서문을 썼다.

찰방장공행적서 察訪張公行蹟序

병산을 방문했다가 과거 찰방을 지냈던 張공의 후손 광한이 보여준 행적을 보고, 그의 효행이 뛰어나고 행의가 높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서문을 썼다.

최상사유고서 崔上舍遺稿序

진사 崔仲久의 遺稿에 대한 서문이다. 자제의 부탁을 받고 저자가 직접 유고를 편집했으며 서문을 썼다.

귀와유고서 龜窩遺稿序

귀와유고의 서문이다. 귀와는 저자보다 10여 세 적으며 저자에게 학문을 배웠는데 먼저 죽었다. 귀와의 아들 조영의 부탁으로 저자가 편집하고 서문을 썼다.

손적여(유경)자서 孫積汝(有慶)字序

손유경의 자를 지어주고 서문을 썼다. 유경은 저자에게 인척이 되는 관계로 부친의 명으로 저자에게 학문을 배웠으며, 이런 인연으로 자를 지어준 것으로 보인다.

송경록서 崇敬錄序

저자의 저서인 송경록에 대한 서문이다. 송경록은 저자가 성리학의 원리와 공부 방법에 대해 여러 성리서를 참고하여 정리한 책이다.

기 記

삼수헌기 三守軒記

삼수헌은 안릉이공이 동해의 물가에 은거하면서 지은 집이다. 이공은 일찍이 허문정공의 병명에 나오는 三守三勿 중에서 특히 三守라는 말을 따서 자신의 택호로 삼았다.

낙소재기 樂素齋記

낙소재는 저자의 벗인 강사열의 재실 이름이다. 강사열은 상주 비봉산 아래에 재실을 짓고 이름을 낙소재라고 붙였다.

용강초려기 龍岡草廬記

상주에 있는 용강초려에 대한 기문이다. 용강초려는 회룡(廻龍)이라는 호를 가진 상주 사람이 사는 곳에 지은 초려이다.

신락당기 新樂堂記

신락당은 진사 이중칙(李仲則)이라는 사람이 의선 일선리에 지은 집이다. 이진사는 안동에 살다가

의성으로 이주하여 집을 짓고 저자에게 기문을 부탁했다.

사우당기 四友堂記

사우당은 李善述이라는 사람이 지은 집으로 사우당이라는 명칭은 그의 선친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저자에게 기문을 요청했다.

금비헌기 金鑲軒記

금비헌은 강우에 사는 진사 洪晚癡의 집으로, 저자가 강우지방으로 유람을 갔을 때 만난 후 사운시를 보냄과 함께 기문을 요청했다고 한다.

금산형승기 錦山形勝記

금산은 의성에서 서쪽으로 30여 리 떨어진 곳이다. 이곳의 산수가 뛰어나므로 기문을 쓴 것이다.

금연정사기 錦淵精舍記

금연은 금산의 오른 쪽에 있는 동쪽 벼랑이다. 이곳은 금산에서 가장 경관이 뛰어난 곳이므로 저자가 직접 정사를 지었다고 한다. 정사는 임인년에 시작해서 계묘년에 완공되었으며 본 문집에 자주 등장한다.

체화당기 棣華堂記

의성현 북쪽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김여안(金汝安)이라는 저자의 친구의 집이다. 4형제가 있는데 우애가 남다르고 효도하여 집 근처에 별도로 집을 짓고 형제가 모이는 장소로 삼았다.

백석정기 白石亭記

백성정은 낙동강 상류에 있는 정자로서 백석 강진양이 지는 것이다. 강진양은 일찍이 오룡동에 살았는데 인재가 많이 났으며, 백석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송남정사기 嵩南精舍記

송남정사는 송산 아래 남쪽에 위치한 정사이다. 저자의 장인 신공의 5세조 때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전후로 하여 많은 인물이 났고 공의 3형제 또한 부귀와 장수를 누렸다. 송산은 일명 금오산으로 길야은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삼일재중수기 三一齋重修記

삼일재는 문경공 모재 김안국이 의성에 와서 강학을 할 때 80곡의 자금을 희사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세운 재실이다. 맹자에 나오는 군자삼락 가운데 한 가지가 인재 육성이라는 뜻에서 의미를 취하여 삼일재라 이름했다.

회병선생문집권지팔

식발 識跋

제망김강도장자축면 題望金剛圖障子軸面

겸재 정선이 그린 「망금강도장자」에 대한 글이다. 저자의 종질인 鼎五가 가지고 와서 글을 요구하므로 쓴다고 했다.

장달산실적권후발 張達山實蹟卷後跋

여말선초의 학자 장달산의 실적에 대한 발문이다. 장달산은 길야은·김농암과 더불어 이성계의 정권에 나아가지 않고 절개를 지킨 사람인데, 야은과 농암은 후대에 포창된 바 있으나 장달산만은 알려지지 않았다.

남계실기발 南溪實紀跋

남계 이선생의 실기에 대한 발문이다. 저자가 직접 교정과 편집을 맡았는데, 세계·연보·일고 등을 원편으로 하고, 사우가 기증한 송덕비명·제문·뇌사·갈지명 등은 부록으로 하여 전부 2권으로 구성했다.

서행당고후 書杏堂稿後

요절한 행당 김경림의 문집에 대한 후서이다. 저자도 어린 나이에 죽은 자식이 있었으나 자식의 글을 챙기지 못했는데, 행당의 글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 행당의 아버지가 자신보다 현명했다고 후회했다.

윤사직무신일록발 尹司直戊申日錄跋

영조 때 일어난 무신난(戊申難)에서 공을 세운 선산 지역의 의사 윤공의 사적에 대한 발문이다.

선조오봉선생별집개편후소식 先祖梧峯先生別集改編後小識

저자에게 6대조가 되는 梧峯 申之梯의 별집을 개편한 내용을 적은 小識이다. 문집이 이미 간행되

었으나 후에 수습된 글을 모아서 저자가 직접 정리하여 별집 1권으로 묶고 지문을 썼다.

梧봉선생사승지소후식 峯先生辭承旨疏後識

오봉 신지제가 승지에 제수되고도 출사를 사양하여 올린 사직소에 대한 후지이다. 신지제는 폐주 당시 누차 벼슬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다가 폐주가 물러나고 정권이 바뀌어서 승지에 제수되었지만 칭병하고 사양했다.

세첩권주소식 世牒卷首小識

아주신씨 세첩에 대한 소지이다. 鵝洲는 거제의 속현이다. 흑자는 韓山의 구호가 鵝州이므로 아주신씨가 한산신씨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으나 洲와 州는 별개의 글자이므로 같은 본관이 아니라고 했다.

응암혈서습록식 鷹巖血書拾錄識

저자의 선조 申之孝가 임진왜란 당시 피란 중이던 응암에서 왜적의 칼에 찔려 죽으면서 남긴 혈서를 수습하고 뒤에 붙인 지문이다. 응암은 응동의 암혈이고 신지효는 저자의 6대조 신지제의 형님 되는 분으로 모친을 모시고 응암에 피란하고 있었다.

혈서습록권후발 血書拾錄卷後跋

저자가 6대조 신지효의 응암혈서를 수습하여 정리를 끝낸 후, 다시 신지효 공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발문으로 작성한 글이다.

양파실기발 陽坡實紀跋

양파 홍언박(1309~1363)의 실기에 대한 발문이다. 홍언박은 고려의 충신으로 본관은 南陽, 자는 仲容, 호는 陽坡이다. 시호는 文正이다.

귀암실기권후발 龜巖實紀卷後跋

귀암 김공의 실기에 대한 발문이다. 김공은 임오년에 절개를 지킨 인물로 유명한데, 그의 후손 英鐸이 실기 1권을 엮어서 저자에게 발문을 요청했다.

잠명 箴銘

원일잠(기유) 元日箴(己酉)

원일 즉 정월 초하룻날 지은 잠이다. 천지간에 하나의 근원이 있어 사시사철 유행함으로써 만물을 생성시키고 발육시킨다는 등의 내용이다.

원일잠증족자정주(병소서○정사) 元日箴贈族子鼎周(并小序○丁巳)

족자인 鼎周가 궁벽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가르침을 줄 사우가 없다고 하면서 저자에게 글을 부탁하므로 그를 위해 지은 잠이다. 내용은 위의 원일잠과 유사하다.

고재명(병서○임인) 固齋銘(并序○壬寅)

저자가 살던 고을에 독실한 학자가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집에 固齋라는 편액을 걸고 있었다. 그 의미는 절조를 고수하겠다는 것이며, 저자에게 글을 요청하므로 이 글을 써 주었다.

좌우명(갑자) 座右銘(甲子)

저자의 나이 80이 되어 옛 성현의 가르침과 명언을 모아서 지은 좌우명이다. 4언 46구절로 되어 있으며 저자가 한가할 때 외우면서 스스로를 경계했다고 한다.

上樑文

선묘이건상량문 先廟移建上樑文

가묘를 이건할 때 쓴 상량문이다.

금연정사상량문 錦淵精舍上樑文

금연정사를 지을 때 쓴 상량문이다. 금연은 금산의 오른 쪽에 있는 동쪽 벼랑이며 저자가 직접 지었다.

오계리사묘우상량문 梧溪里社廟宇上樑文

오계리에 묘우를 세울 때 지은 상량문이다. 오계리는 선유들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宜山 아래 동네 가운데 터를 잡고 세 간 규모로 지었다.

서산정사상량문 西山精舍上樑文

서산정사에 대한 상량문이다. 문정공의 덕업과 수은옹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영종 신묘년에 서산영당을 지었는데, 여기에 강당을 추가로 세우고 서산정사를 세운 것이다.

애뇌 哀誄

한산이공(학정)애사 韓山李公(學靖)哀辭

한산이씨 이학정(李學靖)에 대한 애사이다. 저자의 자서(姊壻)로서 51세에 죽었다.

조성백(석우)애사 趙成伯(錫愚)哀辭

조석우(趙錫愚)에 대한 애사이다. 조석우는 저자가 어릴 때부터 신동이란 소문이 났던 사람이다.

최중구(항진)애사 崔仲久(恒鎭)哀辭

최항진(崔恒鎭)에 대한 애사이다. 최항진은 어려서는 백부 처사공에게 배웠고 자라서는 대산 이상정의 문인이 되었다.

도죽천(길모)애사 都竹泉(吉模)哀辭

도길모(都吉模)에 대한 애사이다. 도길모는 단계 북쪽에 살았는데 문예를 지향하는 고을 풍속을 교화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강상사(필면)애사 姜上舍(必勉)哀辭

진사 강필면(姜必勉)에 대한 애사이다. 강필면은 진사 기현옹(寄軒翁)의 아들이다. 기현옹은 한성에서 세거하다가 번잡함을 싫어하여 가족을 이끌고 칠곡 서편 낙동강가에 옮겨 살았다.

김홍보(종섭)뇌문 金弘輔(宗燮)誄文

김종섭(金宗燮)에 대한 뇌문이다. 김종섭은 대산 이상정의 문인인데 약관에 진사에 올라 문하에서 총명으로 이름을 떨쳤다.

축문 祝文

오계리사봉안문, 상향축문 梧溪里社奉安文, 常享祝文

오계리의 묘우에 위패를 봉안할 때 쓴 축문이다. 저자가 어려서 배운 오계(梧溪)선생의 위패를 봉안한 것으로 보인다. 상향축문(尙享祝文)이 첨부되어 있다. “호걸의 자품으로 순실한 학문을 했네,

화합하되 한 가지로 휩쓸리지 않았고 돈독과 박학을 영원히 지켰네.”라는 내용이다.

조곡세덕사봉안문, 상향축문 ^무谷^世德^祠奉^安文, 常^享祝^文

오성군(龜城君)과 문정공(文靖公)을 모시는 상덕사에 위패를 봉안할 때 쓴 축문이다. 상향축문(尙享祝文)이 첨부되어 있다. 오성군을 위해서는 “해를 관통하는 정성과 충성으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공을 세웠네, 백세토록 산천이 우러르고 흠모함이 무궁하네.”라고 했고, 문정공을 위해서는 “학문에 연원이 있고 사업에 가문의 전통이었네, 사당에 음식을 바치니 선대의 총렬 더욱 커지네.”라고 했다.

회병선생문집권지구

제문 祭文

제종백형문 祭從伯兄文

저자의 종백형 처사공에 대한 제문이다.

제정상사만회공준문 祭鄭上舍晚晦公僑文

진사 만회공 정준(晚晦公 鄭僑)을 위한 제문이다.

제외왕모무안박씨문 祭外王母務安朴氏文

저자에게 외왕모가 되는 무안박씨에 대한 제문이다.

제구사당김선생문 祭九思堂金先生文

구사당 김낙행에 대한 제문이다.

제강와임선생문 祭剛窩任先生文

강와 임필대(剛窩 任必大)에 대한 제문이다. 저자가 어릴 때 배웠다.

제조검보문 剛窩 任必大

조검보에 대한 제문이다.

제외구풍산유공문 祭外舅豐山柳公文

저자의 장인 풍산유씨에 대한 제문이다.

제고서봉주정상사문 祭姑壻鳳洲鄭上舍文

저자에게 고모부가 되는 진사 봉주정씨에 대한 제문이다.

제대산선생문 祭大山先生文

대산 이상정에 대한 제문이다. 저자의 스승이다.

제종질정옥문 祭從姪鼎沃文

저자에게 종질이 되는 鼎沃에 대한 제문이다.

제김직보문 祭金直甫文

김직보(金直甫)에 대한 제문이다. 천사 김종덕의 형제이며 저자와 교유했다.

제황경초문 祭黃景初文

황계희(黃啓熙)에 대한 제문이다.

제수구암최선생문 祭數咎庵崔先生文

수구암 최선생에 대한 제문이다. 저자의 편지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제김사준문 祭金士濬文

김승묵(金崇墨)에게 대한 제문이다. 그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

제마암조공문 祭磨巖趙公文

마암 조공(磨巖 趙公)에 대한 제문이다. 사미정에서 그의 형제와 함께 시를 읊기도 했다.

제송남신공문 祭嵩南申公文

송남 신광익(嵩南 申光翼)에 대한 제문이다. 그에게 보낸 편지와 시가 많다.

제시리유장문 祭柴里柳丈文

시리 유성림(柴里 柳聖霖)에 대한 제문이다. 그에게 보낸 편지와 시가 있다.

제이치도문 祭李致道文

이완(李完)에게 대한 제문이다. 저자의 스승인 대산 이상정의 아들이다.

제춘수재이공문 祭春睡齋李公文

춘수재 이명천(春睡齋 李命天)에 대한 제문이다. 그에게 보낸 편지가 많다.

제이후산문 祭李后山文

후산 이종수(后山 李宗洙)에 대한 제문이다. 그에게 보낸 편지와 시가 있다.

제김천사문 祭金川沙文

천사 김종덕(川沙 金宗德)에게 대한 제문이다. 저자에게 평생의 도반이다. 그에게 보낸 편지가 많고, 특히 심경부주 관련 글이 많다.

묘표 墓表

종형처사공묘표 從兄處士公墓表

저자에게 종형이 되는 처사공에 대한 묘표이다. 휘는 중인(重仁)이고 자는 군임(君任)이다. 숙종 신축년에 나서 영종 기사년에 죽었으니 향년 29세이다.

종질정옥묘표 從姪鼎沃墓表

저자에게 종질이 되는 정옥(鼎沃)에 대한 제문이다.

회병선생문집권지십

묘지 墓誌

고승훈랑진보현감송오이공묘지명 故承訓郎眞寶縣監松塢李公墓誌銘

승훈랑 진보현감 이진(李軫)의 묘지명이다. 이진의 자는 군임(君任), 호는 송오(松塢),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고용양위부사직윤공묘지명 故龍驤衛副司直尹公墓誌銘

용양위 부사직 윤중방(尹重邦)의 묘지명이다. 윤중방의 자는 임경(任卿), 본관은 淸州이다.

망우이립재묘지명 亡友李立齋墓誌銘

저자의 망우 이약(李若)의 묘지명이다. 이약의 초명은 휘정(徽靖), 자는 중휴(仲休), 호는 입재(立齋)이다.

고통훈대부영일현감귀암금공묘지명 故通訓大夫迎日縣監龜巖金公墓誌銘

통훈대부 영일현감 김근신(金謹信)의 묘지명이다. 김근신의 자는 효겸(孝兼), 호는 귀암(龜巖), 본관은 慶州이다.

선고처사부군묘지명 先考處士府君墓誌銘

저자의 선고인 처사 申道萬의 묘지명이다. 신도만의 자는 大原, 본관은 鵝洲이다.

선비유인의성김씨묘지명 先妣孺人義城金氏墓誌銘

저자의 선비인 유인 의성김씨의 묘지명이다. 부친은 敏行이고 모친은 무안박씨 진상(震相)의 여식이다.

선왕고처사부군묘지명 先王考處士府君墓誌銘

저자의 조부인 처사 신분귀(申賁龜)의 묘지명이다. 자는 현수(顯叟), 본관은 鵝洲이다.

증조고처사부군묘지명 曾祖考處士府君墓誌銘

저자의 증조부인 처사 신숙범(申叔範)의 묘지명이다. 신숙범의 자는 국모(國模), 본관은 鵝洲이다.

종조성균생원죽애공묘지 從祖成均生員竹厓公墓誌

저자의 종조부 성균생원 신진귀(申震龜)의 묘지명이다. 신진귀의 자는 문수(文叟), 호는 죽애(竹厓), 본관은 鵝洲이다.

백부성균생원부군묘지명 伯父成均生員府君墓誌銘

저자의 백부인 성균생원 신도삼(申道三)의 묘지명이다. 신도삼의 자는 사달(士達), 본관은 鵝洲이다.

중부처사부군묘지명 仲父處士府君墓誌銘

저자의 중부인 처사 신도구(申道九)의 묘지명이다. 신도구의 자는 윤구(潤九), 본관은 鵝洲이다.

망자성균생원정진광명 亡子成均生員鼎辰壙銘

저자의 아들인 성균생원 정진(鼎辰)의 광명이다. 부자가 금산의 연(淵)과 곡(谷)에 각기 거주하면서 매일 연상(淵上)에서 만나 질의하고 토론하던 모습을 그렸다.

묘갈명 墓碣銘

신자순묘갈명 申子純墓碣銘

신택성(申宅誠)의 묘갈명이다. 신택성의 부친은 송남일사 光翼이고 모친은 달성서씨 처사 지균(至均)의 여식이다. 자순(子純)은 신택성의 자이며, 34세로 요절했다.

고성균생원매돈김공묘갈명 故成均生員梅墩金公墓碣銘

성균생원 金蕃의 묘갈명이다. 김번의 자는 昌仲, 호는 梅墩, 본관은 一善이다.

고절제사장공묘갈명 故節制使張公墓碣銘

절제사 張宇遠의 묘갈명이다. 장우원의 자는 梯天, 본관은 玉山이다.

碑文

삼열사세제단비 三烈士歲祭壇碑

병자호란 당시 순국한 의성김씨 김엽·김욱·김찬(金燁·金煜·金燦) 삼형제를 제사하는 제단의 비문이다.

고자헌대부동지중추부사야은이공묘비 故資憲大夫同知中樞府事野隱李公墓碑

자헌대부 동지중추부사 이경증(李景曾)의 묘비문이다. 이경증의 자는 孝可, 본관은 星州이다. 壙篋 양선생에게 배웠다.

회병선생문집권지십일

행장 行狀

고성균생원성암박공행장 故成均生員星巖朴公行狀

성균생원 朴文淹의 행장이다. 박문엄의 자는 士中, 호는 星巖, 본관은 密陽이다.

고처사활계선생금공행장 故處士活溪先生金公行狀

처사 金震護의 행장이다. 김진호의 자는 古風, 호는 活溪, 본관은 一善이다.

고통훈대부진천현감노헌권공행장 故通訓大夫鎭川縣監魯軒權公行狀

통훈대부 진천현감 權應生의 행장이다. 권응생의 자는 命世, 호는 魯軒, 본관은 安東이다.

고조산대부사옹원참봉퇴암권공행장 故朝散大夫司甕院參奉退庵權公行狀

조산대부 사옹원 참봉 權炠의 행장이다. 권임의 자는 和叔, 호는 退庵, 본관은 安東이다.

고침랑지수정선생행장 故寢郎篋叟鄭先生行狀

침랑 鄭葵陽의 행장이다. 정규양(鄭規良)의 자는 叔向, 호는 篋叟, 본관은 烏川이다. 墳叟 鄭葵陽의 동생이다.

밀성손공행록 密城孫公行錄

孫守曾의 행록이다. 손수증의 자는 聖一, 본관은 密陽이다.

성균생원이공행록 成均生員李公行錄

성균생원 李臨厚의 행록이다. 이임후의 자는 兢如, 본관은 全義이다.

대산선생언행총록 大山先生言行總錄

大山 이상정(李象靖)의 언행총록이다. 저자는 이상정의 문인으로 34세에 그의 문하에 입문하여 평소 보고들은 그의 언행을 기록하였다.

선조고려안렴사부군사적습록 先祖高麗按廉使府君事蹟拾錄

저자의 선조인 고려 안렴사 申祐의 사적이다. 부친은 고려 판도판서를 지낸 윤후(允濡)이고 모친은 성주이씨 지평 壑의 여식이다.

전 傳

백암김선생전 白巖金先生傳

고려말의 충신 金白巖의 전기이다. 김백암은 김농암(金籠巖)과 형제이다. 저자는 농암과 백암 형제를 백이숙제에 비유했다.

회병선생문집권지십이

부록 附錄

행장 行狀

선생의 휘(諱)는 체인(體仁), 자(字)는 자장(子長), 호(號)는 회병(晦屏), 본관은 아주신씨(鵝洲申氏)이다. 증조는 숙범(叔範)이고 비(妣)는 문소김씨(聞韶金氏)이다. 조부는 분귀(賁龜)이고 비(妣)는 재령이씨(載寧李氏), 옥천김씨(沃川金氏)이다. 부친은 도만(道萬)이고 비(妣)는 문소김씨(聞韶金氏), 하빈이씨(河濱李氏), 영양남씨(英陽南氏)이다. 오봉 신지제(梧峯 申之悌)는 선생에게 6대조가 되고 고송 신흥망(孤松 申弘望)은 5대조가 된다. 선생은 1731년(영조 7)에 의성(義城)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학문에 소질이 있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8세에 어머니를 잃었고 계모가 들어왔다. 경오년에 유씨(柳氏)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병자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어서 부인 유씨(柳氏)을 잃었는데, 당시 전염병이 기승을 부렸으나 직접 시신의 염을 하고 상례를 예법에 맞게 치루었다.

신사년에는 향시에 응시하여 일등으로 합격했으며, 1764년(영조 40)에 대산 이상정(大山 李象靖)의 문하에 입문했다. 대개 선생은 어려서 강와 임(剛窩 任)선생에게 배웠으며 후에는 구사당(九思堂) 金선생에게 질의하면서 도학이 있음을 깨달았는데, 대산선생에게 입문하면서 더욱 위기지학에 힘썼다. 1781년(정조 5)에 이상정이 사망하자 선생은 도학이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동문들과 함께 학문을 계속하였다.

1782년에 금연정사(錦淵精舍)가 완성되자 왼쪽 방을 주경재(主敬齋), 오른쪽 방을 集義齋(집의재)라 이름 붙였다. 선생이 세속의 영화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즐기고자 했으니, 그러한 뜻은 그가 지은 詩와 記文에 잘 나타나 있다. 갑진년에 또 다시 부인 장씨가 세상을 뒀으며 집안 살림도 무

척 어려워 어떤 때에는 끼니도 잇기 어려웠지만 어린 자식들을 돌보며 조금도 걱정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1786년(정조 10)에 빙계서원(氷溪書院)의 동주가 되었다. 선생은 통강예(通講禮)를 행하고자 하여 주자의 월삭회약(月朔會約)을 모방하여 의절까지 마련하였으나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만두고 말았다.

만년에는 눈병으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생은 눈을 감고 정좌하여 존양에 힘을 기울였다. 무오년에는 맏아들 상사공(上舍公)이 세상을 떠났다. 선생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둘째는 신동 소리를 들었으나 14세에 죽고 셋째는 17세에 죽었으며 이제 또 맏이마저 잃었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정신력으로 이겨냈었다.

1807년(순조 7)에 고을 현감 김상임(金相任)이 선생의 경술과 문장이 일세의 모범이 된다고 하여 천거하였고, 연이어 방백 윤광안(方伯 尹光顏)과 정동관(鄭東觀)이 각각 1808년과 1809년에 선생을 조정에 천거하였다. 1812년(순조 12) 4월 초3일에 세상을 버리니 선생의 향년은 82세였다. 부고가 나가자 원근의 학자들이 사문의 큰 손실이라고 했다. 6월 24일 涑洞 坤坐에 안장되었다.

선생의 재주는 출중했지만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구애되지 않았고 한유(韓愈)를 특히 좋아하여 한자문부(韓子文賦)를 저술했다. 구사당 김낙행은 선생을 일러 한퇴지의 골수를 얻었다고 했다. 그 외 천문지리·병가·산수·복서·의약 등 섭렵하지 않은 분야가 없었지만, 중년 이후로는 오로지 정주학에만 전념하였다. 성품이 간략하고 거짓이 없었으며 언행에 있어 준엄함이 있었다. 평생을 가난하게 지냈지만 가난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옛사람의 명언이나 심경·근사록의 구절을 뽑아서 네 벽에 게시했으며, 고금의 명언으로 창명십육구(窓銘十六句)를 지어서 그림으로 그리고 경계로 삼았다. 어려서부터 선배, 노장들을 좇아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오계·구사(梧溪·九思)의 문하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았고 大山의 문하에 귀의하면서 도학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게 되었다. 대신 이선생도 허여하는 바가 컸고 책을 교정한다든가 의리를 논할 때면 선생을 불러 함께 의논하였다. 한번은 일이 있어서 서울을 왕래하다가 순암 안정복 선생을 방문했다. 순암은 선생을 가리켜 남주의 호걸이라 칭하고 자신이 편찬한 동사강목을 꺼내서 보여주기도 했다. 번암 채제공도 신모를 보면 우리는 독서인이라 할 수도 없다고 하기도 했다. 최수구·이후산·김천사·류동암·조만곡(崔數咎·李后山·金川沙·柳東巖·趙晚谷) 등과는 도의결을 맺고 긴밀한 학문적 교류를 유지했다.

선생의 학문은 主敬을 기본으로 하고, 靜坐를 요법으로 삼았으며, 정제엄숙(整齊嚴肅)과 정의관존(正衣冠尊瞻視)의 공부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일찍이 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학문에 일관된 바탕으로서 敬을 논하는 학설과 敬을 지키는 공부 방법이 모든 책에 서술되어 있으나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관계로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고 하고, 송경록(高敬錄) 한 편을 저술했다. 논경지결(論敬旨訣)과 지경연원(持敬淵源)을 구분하여 두 권으로 구분하고, 이어서 성경설·경의설·정경설(誠敬說·敬義說·靜敬說)을 서술했으며, 마지막으로 징성록(懲省錄)을 덧붙였다.

선생은 진한(秦漢) 이래로 공리심이 만연하고 의리심은 사라진 것은 오로지 王伯의 분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고 고금의 학자들이 王伯의 구분에 관해 변별해 둔 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착수하지 못했다. 또 동방에서 사특한 학문이 크게 떨쳐서 총명한 학자들이 많이 감염되었다고 하여 천학종지도변(天學宗旨圖辨)을 저술하기도 했다. 후학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소학의 쇄소응대의 절도에서 시작해서 점차로 대학으로 나아가도록 했으며, 어린 학도들을 위해서는 권학가(勸學歌)를 지어 암송하도록 했다.

옛날 빙계서원(氷溪書院)의 동주를 지낼 때, 그곳에는 본래 태홀단이 있어서 무지한 백성들이 북을 치면서 빌곤 했는데, 선생이 사당을 훼손하고 음사를 금지시켰더니 사람들이 결단력에 감복했다. 선생은 조급한 성질은 관용과 화해로써 다스리고 문장을 화려하게 하는 습성은 의리로 돌렸다. 강설은 자못 고착되었지만 평실한 곳으로 돌아왔고 처신은 까다롭던 습성에서 편안함으로 귀착되었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동작에 절도가 있고 행보에는 규칙이 있었으며, 태만한 기색은 몸에 보이지 않았고 비패한 언어는 입에 담지 않았다. 행장은 1834년(순조 34)에 후학 이병원(李秉遠)이 썼다.

강도일록(江都日錄) 신달도(申達道)

서지정보

서명	강도일록(江都日錄)
저자(성명/자/호)	신달도(申達道), 형보(亨甫), 만오(晩悟)
판사항	木活字本
책크기	20×27
발행자	
발행년	1927
주제	전쟁관련일기
작성시기	17세기 / 1627-01-17 ~ 1627-03-23
소장처	(원소장처) 풍산김씨 영감택 /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해제

「강도일록(江都日錄)」은 신달도(申達道, 1576~1631)의 문집인 『만오선생문집(晩悟先生文集)』 권 7 제11엽부터 제32엽까지 모두 43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으며, 목활자본이다.

이 일기는 정묘년(丁卯年, 1627) 정월 17일에 평양감사 윤환(尹暄)이 “노적(奴賊)이 13일에 의주를 침범하고 14일에 정주(定州)에 이르렀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올린 데서 시작하고 있다. 즉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9년 전, 정묘호란의 발발 사실로 일기는 시작하고 있다. 임금과 왕실이 강화도로 피난하여 그 곳에서 쓴 일기라 제목을 ‘강도일록(江都日錄)’이라고 한 것이다. 일기에는 급박한 상황에 따라 허둥대던 임금과 신하들의 언행이며, 조선을 침략한 북방의 오랑캐 후금(淸)과 왕래한 문서, 여러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 등도 기록하고 있다. 후금에게 패배를 거듭하던 중, 그해 3월 후금과 화친이 맺어지자, 일기 역시 3월 23일에서 기록을 멈춘다.

신달도의 자는 형보(亨甫), 호는 만오(晩悟), 본관은 아주(鵝州)이며, 조목(趙穆)과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배웠다. 1610년에 진사에 합격하였는데 당시 조정이 어지러워 과거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정묘호란 때 임금이 강화(江華)로 들어가고 최명길(崔鳴吉)이 화의를 주장하

여 강화(講和)를 맺으려고 하자, 윤황(尹煌)과 함께 강화의 부당함을 거침 없이 따지는 상소를 올렸다. 영사공신(寧社功臣)에 녹훈되고, 1631년에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도승지로 증직(贈職)되었다.

「강도일록」은 정묘호란 때의 경과를 왕이 파천(播遷)한 강화에서 기록한 것으로, 「유경일록(留京日記)」과 함께 정묘호란 당시 우리나라 조정의 동향과 후금(청)의 움직임을 살필 수 있는 역사 사료이다.

나재종선조일기(懶齋從先祖日記) 신열도 (申悅道)

서지사항

서지내용		
서명	나재종선조일기(懶齋從先祖日記)	
저자	성명	신열도 (申悅道)
	자	진보 (晉甫)
	호	난재 (難齋)
판사항	筆寫本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17 세기 1621.12.15 ~ 1654.12.01	
권수		
책크기	20×20 cm	
사부분류	관직일기	
기타사항	아주신씨 인재파 전암후손가 /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해제

「나재종선조일기(懶齋從先祖日記)」는 나재(懶齋) 신열도(申悅道, 1589~1659)의 관직일기를 그의 종손(從孫)되는 사람이 초록(抄錄)한 것이다. 모두 125면인데, 1면에 20행 30자로 보통의 1면 200자로 환산하면 375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일기는 세자(細字) 해서(楷書) 필사본이다.

일기의 기록은 1621년 12월 15일 북로(北虜)가 용천(龍川)으로 침입하고 약탈(掠奪)을 자행한 사건부터 기술하기 시작하여, 병자호란(1636)을 겪은 뒤 1654년 12월 1일의 "이자신(李子愼)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관동(關東)에는 적설(赤雪)이 오고, 영남(嶺南)에는 해적지이(海赤之異)가 있었다고 하였다."는 등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에서 그치고 있다. 중간에 더러 상당 기간 중단 또는 누락된 경우도 있다.

저자 신열도는 자가 진보(晉甫)이며 아곡(鵝谷) 사람이며, 교리(校理) 신달도(申達道)의 아우이다. 용모는 백옥(白玉)과 같고 성품은 침중(沈重)하여 남달랐는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에게 배웠다. 총명하여 10여 세에 이미 경사·백가에 통달하고 1624년 문과(文科)에 올랐으며, 1647년에 장령(掌令)이 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 능주목사(綾州牧使)가 되었다. 나이 71세에 생을 마쳤다. 저서에 『선사지(仙槎志)』, 『문소지(聞韶志)』가 있다.

일기는 문장을 아주 간략하게 썼으나, 인명(人名)은 성이나 이름자를 줄여서 쓴 곳이 많고, 이두(吏讀)도 섞였으므로 쉽게 읽어 내려가기 어렵다. 그러나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지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그 속에서 가치 있는 사료(史料)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월영대기 대재회산(月影臺記 臺在檜山) 신지제(申之悌)

서지정보

서명	월영대기 대재회산(月影臺記 臺在檜山)
저자(성명/자/호)	신지제(申之悌), 순보(順甫), 오봉(梧峰)
판사항	
체크기	
발행자	
발행년	
주제	기행일기
작성시기	미상
소장처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해제

『월영대기(月影臺記)』는 신지제(申之悌 ; 1562~1624)가 마산 합포에 있는 월영대 주변의 경치와 누대의 아름다움과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 857~?)의 학문과 인품을 기록한 것이다.

월영대의 위치와 최치원이 쓴 월영대의 글씨를 소개하고, 지우들과 배를 타고 남포에서 바다를 따라 월영대를 방문할 때의 경치를 기술하였으며, 물의 성품과 달의 성품이 체와 용이 되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움을 극찬하였고, 또 최치원의 학문이나 인품을 알지 못하고 월영대에 와서 시가를 읊조린다면 이태백이 달을 따다가 돌을 줍고 소동파가 적벽의 아래에서 곱기만 한 시를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술하고, 민간에 전해오는 최치원의 전설적인 이야기 등도 소개하였다.

신지제는 고려 충신 효자 신우의 후예로 자는 순보(順甫), 호는 오봉(梧峯), 본관은 아주(鵝州)이다. 학봉 김성일, 유일제, 김언기 문하에서 수학하고 문과에 급제한 뒤 예안현감 재임 중 임진란이 일어나자 예안, 안동 겸관으로 의병을 모집하여 항쟁했다.

전주 판관 재임시에는 선정을 베풀어 송덕비가 세워졌으며, 인조반정 후 동부승지로 불렀

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뒤에 사림이 공의가 준발하여 그가 강학하던 서당에 장대서원을 창건하고 송은 김광수, 회당 신원록, 경정 이민성과 함께 제향되었다.

유청량산록 재선성시(遊淸涼山錄 宰宣城時)

서지정보

서명	유청량산록 재선성시(遊淸涼山錄 宰宣城時)
저자(성명/자/호)	신지제(申之悌), 순보(順甫), 오봉(梧峰)
판사항	
책크기	
발행자	
발행년	
주제	기행일기
작성시기	미상
소장처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해제

「유청량산록(遊淸涼山錄)」은 『오봉문집(梧峰文集)』 권 6에 수록된 것으로 신지제(申之悌 ; 1562~1624)가 갑오년(1594, 선조 27)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청량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기행문이다.

강효업과 금난수가 동행하였으며, 여행의 경로는 치원암, 안중암과 몇몇 봉우리를 간신히 보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넉넉히 유람할 겨를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으며, 김수온이 불교에 아부한 시를 보고 유자(儒者)의 죄인이라고 평가했으며, 퇴계선생의 유향을 흠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지제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아주(鵝州), 자는 순보(順甫), 호는 오봉(梧峰)·오재(梧齋)이다. 1589년(선조 22) 증광문과에 갑과(甲科)로 급제, 정언(正言)·예조좌랑·문학(文學) 등을 역임하였고, 1613년(광해군 5) 창녕부사(昌寧府使)로 나가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을 토벌,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고, 인조(仁祖) 초 승지에 이르렀다.

의성(義城)의 장대서원(藏待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오봉문집』이 있다.

장사일록(長沙日錄) 신흥망(申弘望)

서지정보

서명	장사일록(長沙日錄)
저자(성명/자/호)	신흥망(申弘望), 망구(望久), 고송(孤松)
판사항	筆寫本
책크기	34.5×27.0
발행자	
발행년	
주제	사건건문일기
작성시기	미상
소장처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해제

『장사일록(長沙日錄)』은 신흥망(申弘望 ; 1600~1673)이 이시매(李時樸)를 모함했다는 일로 인하여 평해(平海)로 귀향을 가게 된 전말을 기록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임진년(1652년) 9월 당시 지평으로 있던 그는 이시매의 사직상소에 성현을 모욕하는 말을 썼다고 판단하여 이시매를 체직하라는 상소를 올리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리하여 신흥망을 두둔하는 쪽과 이시매를 옹호하는 쪽으로 갈린 정국은 결국 신흥망이 남을 비방했다는 죄가 더 크게 인정되어 11월 3일 평해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신흥망은 11월 18일 평해에 도착한지 1주일 만에 해배(解配)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장사일록』은 이러한 사건발생의 모든 과정과 유배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일기를 기록한 날짜는 12월 21로 되어 있으며, 후손들에게 자신의 일을 알리기 위해 기록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 자신의 호가 곡정(鵲汀)·죽창(竹窓)이었다가 다시 고송(孤松)으로 바꾸었음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부분에는 손자 친구가 쓴 행장이 부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행장은 신흥망의 문집인 『고송선생문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이 쓴 행장만이 실려져 있다.

문집의 객관성을 지니기 위해서 조부의 문집을 편집하면서 자신의 행장은 일부러 빼듯하다. 신흥망의 자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본관은 아주(鵝州)이다. 1639년 별시문과에 급제, 주서(注書)를 거쳐 1646년 정언이 되었고, 이어 사헌부에 재직중 도승지 이시매(李時樸)의 탄핵으로 벽동(碧潼)에 유배되었다. 1652년 지평이 되었을 때 호당(護黨)의 죄로 인하여 평해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1659년 풍기군수가 되었다.

창의일록(倡義日錄) 신적도(申適道)

서지정보

서명	창의일록(倡義日錄)
저자(성명/자/호)	신적도(申適道), 사립(士立), 호계(虎溪)
판사항	木板本
책크기	29×20
발행자	
발행년	1919
주제	전쟁관련일기
작성시기	17세기 / 1636-12-20 ~ 1637-02-09
소장처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해제

「창의일록(倡義日錄)」은 신적도(申適道, 1574~1663)의 문집인 『호계집(虎溪集)』에 수록된 일기이다. 『호계집』은 6권 3책의 목판본으로, 후손 돈식(敦植)이 집안에 대대로 수장되어 온 유고 등을 수습·편차하여 류필영(柳必永)에게 서문을, 곽도(郭鎬) 등에게 발문을 받아 1919년 간행한 문집이다. 「창의일록」은 이 문집 권4에 43면 정도의 분량으로 실려 있다.

「창의일록」은 1636년 12월 20일부터 이듬해 2월 9일까지의 기록으로,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저자가 의병장이 되어 의병을 거느리고 용인까지 출정했다가 청나라와 화의가 성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일을 기술한 일기이다. 저자는 일기에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기술하였는데, 특히 병자호란이 발발하고 자신이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의병을 이끌고 출정하는

일, 각 고을의 의병들이 속속 출정하는 일, 의병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고생하는 일, 관군과 의병들이 청나라에게 패배한 사실, 포로가 된 조선인의 참혹한 실상, 남한산성의 참혹한 실상, 청나라와 화친하는 일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 화의가 성립되는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신적도의 자는 사립(士立), 호는 호계(虎溪), 본관은 아주(鵝洲)이며, 흘(屹)의 아들이다. 정구(鄭逵)와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06년 식년시 진사에 합격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이 되어 의병을 규합하여 북상하던 중 강화가 이미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척화의 상소를 올리고 돌아왔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의병을 이끌고 광주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나, 임금이 청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산(鶴山) 미곡(薇谷) 아래에 채미헌(採薇軒)을 짓고 강학을 하며 여생을 마쳤다.

「창의일록」은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저자 신적도가 의병장이 되어 의병을 거느리고 출정하면서 당시의 전쟁 상황과 화의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병자호란 및 의병활동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황사일록(黃蛇日錄) 신중인(申重仁)

서지정보

서명	황사일록(黃蛇日錄)
저자(성명/자/호)	미상(未詳)
판사항	筆寫
책크기	21×31
발행자	
발행년	
주제	임종장례일기
작성시기	18 세기 / 1749-12-10 ~ 1749-12-16
소장처	(원소장처) 아주신씨 오봉종택 /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해제

「황사일록(黃蛇日錄)」은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의 후손인 신중인(申重仁, 1721~1749)이 29세의 나이로 일찍 사망하자, 그의 사촌동생이 신중인의 생전 행적 및 1749년 12월 10일 신중인이 죽기까지의 병세(病勢) 등을 기록한 것이다. 분량은 모두 64면인데 제1면과 제58면, 제64면은 공란이다. 제2면부터 제15면까지가 '일록'이고 제16면부터 만사(輓詞)등을 실었다. 1면에 15행, 1행에 28자 내외의 작은 행·초서 글씨로 필사한 것이다. '황사(黃蛇)'란 간지(干支)의 '기사(己巳)'를 말한다.

신중인은 소년시절에 절에 들어가 채식만 하면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로 몸이 병약해지는데다가 다리에 종기와 풍한(風寒) 등의 병이 겹치고 더욱이 부친상과 조부상을 당한 이후로 몸이 더욱 쇠약해져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도 타고난 문학적 재능이 있어서 산수를 유람하며 시를 짓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다. 형제가 함께 낙선당(樂善堂)에서 밤늦도록 등불 심지를 돋우며 시를 짓기도 하고, 말을 타고 의성, 군위, 상주 등을 음영(吟詠) 유람하다가 중산촌(中山村)에서 2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이

「황사일록」이다.

이 일록을 작성한 '사촌동생'이 누구인지는 미상(未詳)이며, 신증인에 대하여도 모르는 점이 많다. 다만 의성오봉종택소장전적(義城梧峰宗宅所藏典籍) 가운데 완의(完議)가 있다. 문중의 여러 사람에게 이 완의를 나누어 주고 자손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한다는 신증인의 글이 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젊은 나이에 병약(病弱)하면서도 동중(洞中)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일기는 일기의 저자인 신증인보다 편집자인 그 사촌동생이 형을 사랑한 우애(友愛)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록으로 실린 문학적인 작품에 대하여도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